발간등록번호 79-6510000-000060-01



제주시 支石墓 고인돌 Dolmen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5. 10. 30.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硏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제주시 支石墓 고인돌 Dolmen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5. 10. 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硏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제 출 문

제주시장 귀하

귀청에서 본 연구소에 의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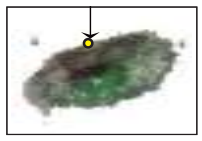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10. 3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이사장 강 창 화




용담2호


용담1호

남 해


용담4호


용담8호

용담지석묘 2호
용담지석묘 1호
용담지석묘 4호
용담지석묘 3호
용담지석묘 8호
용담지석묘 9호
용담지석묘 5호
용담지석묘 7호
용담지석묘 6호
오라지석묘 1호
도남동 지석묘
오라지석묘 2호


용담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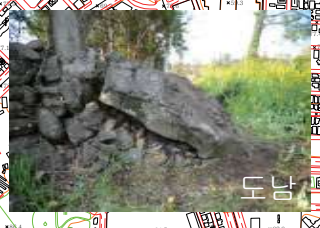

용담9호


용담5호


용담7호


오라1호


용담6호


도남

0 0.1 0.2 0.3 0.4 0.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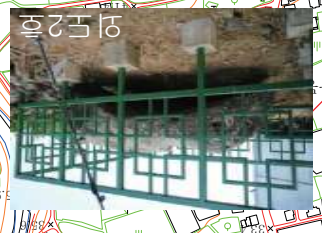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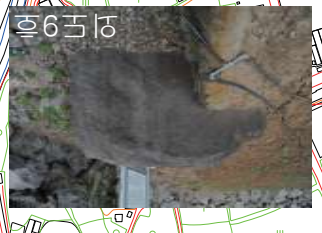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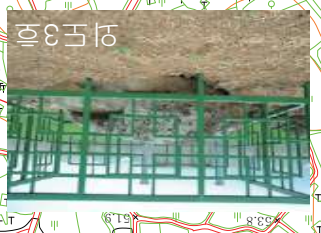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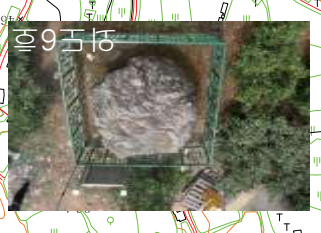
















공영19호
공영6호
공영8호
공영7호
공영1호
공영2호
공영13호(유실)
공영14호(유실)
공영4호
공영18호
공영11호(유실)
공영12호
공영16호(유실)
공영15호(유실)
공영5호
공영3호
공영10호
공영17호(유실)
공영9호
외도3호
외도8호(유실)
외도7호(유실)
외도4호
외도6호
외도5호
외도1호
외도2호
외도10호(유실)
외도11호(유실)
외도9호

목 차

Ⅰ. 조사 개요 · · · · · 31

Ⅱ. 제주시 지석묘 분포지역의 지리적 환경 고찰 · · · · · 37

Ⅲ.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와 특성 · · · · · 55

Ⅳ. 제주시 지석묘의 실태조사 현황 · · · · · 73

Ⅴ. 제주시 지석묘 실태조사 및 보존 활용계획 · · · · · 85

Ⅵ.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 · · · · 375

Ⅶ.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 · · · 383

Ⅷ.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계획 제시 · · · · · 393

Ⅸ. 연차적 추진계획 · · · · · 417

부 록

1. 제주시 외도 · 광령고인돌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 · · · · · 423

2. 제주시 지석묘군 소재지 용담동 · 외도동 · 삼양동 마을의 유래 · · · · · 439

3. 제주도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과 고인돌 고찰 · · · · · 457

4.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의례 검토 · · · · · 489

5. 용담동 무덤유적[古墳]의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 · · · · · 507

6. 지석묘 정비 및 보수 정비계획의 일례(一例) · · · · · 527

7. 지석묘 체크 리스트 · · · · · 535

8. 자문의견서 · · · · · 543

Ⅱ. 제주시 지석묘 분포지역의 지리적 환경 고찰

[표 목차]

표 1.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을 중심으로 본 표고별 용천수의 분포 / 50

표 2. 제주도 4개 지역별 기후요소의 연 평년값 / 52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과의 지리적인 거리 관계(자료: daum 위성사진) / 40

그림 2. 제주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실태(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1:256) / 41

그림 3. 탐라성립기(BC. 300~AD.900)의 취락 분포(자료: 김경주, 2009: 168) / 41

그림 4. 용담지역의 지석묘 분포 / 주: ⓐ~ⓑ는 이전한 지석묘(공항 내) / 자료: Naver 위성사진을 토대로 편집 / 47

그림 5. 삼양지역의 지석묘 분포 / 주: ⓐ는 삼양지석묘, ①~②는 도련 지석묘 / 자료: Naver 위성사진을 토대로 편집 / 48

그림 6. 외도 · 광령지역의 지석묘 분포 / 주: Ⓐ~Ⓗ는 외도 지석묘, ㉮~㉲는 광령 지석묘 / 자료: Naver 위성사진을 토대로 편집 / 48

그림 7. 제주지역 북부–북서부 지역의 토양 분포(자료: 안중기, 2006: 19) / 49

Ⅲ.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와 특성

[표 목차]

표 1. 제주시 지석묘 지역별 분포 현황 / 58

표 2. 제주시 지석묘 형식별 묘실의 위치와 구조 / 69

[도면 목차]

도면 1. 제주시 지석묘 분포도 / 59

도면 2. 제주시 지석묘의 수직적 분포양상(좌: 제주시 전체 지석묘, 우: 외도 · 광령 지석묘 제외) / 60

도면 3. 제주시 지석묘의 주변하천에서 직선거리(좌: 제주시 전체 지석묘, 우: 외도 · 광령 지석묘 / 60

도면 4. 제주시 지석묘의 해안에서 직선거리(좌: 제주시 전체 지석묘, 우: 외도 · 광령 지석묘 제외) / 61

도면 5. 제주시 지석묘 입지지형 그래프 / 61

도면 6. 제주시 지석묘 형식별 그래프 / 64

도면 7. 개석식 지석묘와 위석식 지석묘의 평 · 단면형태 비교 그래프 / 66

도면 8. 개석식 지석묘와 위석식 지석묘의 치석상태 비교 그래프 / 67

도면 9. 제주시 지석묘 상석의 길이와 너비의 관계 / 68

[사진 목차]

사진 1. 제주시 지석묘 형식 / 63

사진 2. 외도동 지석묘 12호 주변 암석 / 67

Ⅴ. 제주시 지석묘 실태조사 및 보존 활용계획

[표 목차]

표 1. 용담동 지석묘 6호 지석 제원표 / 116

표 2. 광령리 지석묘 2호 지석 제원표 / 219

[도면 목차]

도면 1–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89
도면 1–② 용담동 지석묘군 1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90
도면 1–③ 용담동 지석묘군 1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91
도면 1–④ 용담동 지석묘군 1호 지형 측량도 / 92
도면 1–⑤ 용담동 지석묘군 1호 지적 현황도 / 93
도면 2–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95
도면 2–② 용담동 지석묘군 2호 지형 측량도 / 98
도면 2–③ 용담동 지석묘군 2호 지적 현황도 / 99
도면 3–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02
도면 3–② 용담동 지석묘군 3호 지적 현황도 / 103
도면 4–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05
도면 4–② 용담동 지석묘군 4호 지적 현황도 / 107
도면 5–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10
도면 5–② 용담동 지석묘군 5호 지형 측량도 / 112
도면 5–③ 용담동 지석묘군 5호 지적 현황도 / 112
도면 6–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15
도면 6–② 용담동 6호 지석묘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117
도면 6–③ 용담동 지석묘군 6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117
도면 6–④ 용담동 지석묘군 6호 입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117
도면 6–⑤ 용담동 지석묘군 6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118
도면 6–⑥ 용담동 지석묘군 6호 지적 현황도 / 119
도면 6–⑦ 용담동 지석묘군 6호 지형 측량도 / 120
도면 7–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23
도면 7–② 용담동 지석묘군 7호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124
도면 7–③ 용담동 지석묘군 7호 지형 측량도 / 126
도면 7–④ 용담동 지석묘군 7호 지적 현황도 / 127
도면 8–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29
도면 8–② 용담동 지석묘군 8호 지적 현황도 / 131
도면 9–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133
도면 9–② 용담동 지석묘군 9호 지적 현황도 / 134
도면 10–① 오라동 · 도남동 지석묘 분포도 / 136
도면 10–② 오라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139
도면 10–③ 오라동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140

도면 11–① 오라동 지석묘 2호 실측도 / 141
도면 11–② 오라동 · 도남동 지석묘 분포도 / 143
도면 11–③ 오라동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144
도면 12–① 오라동 · 도남동 지석묘 분포도 / 146
도면 12–② 도남동 지석묘 지형 측량도 / 148
도면 12–③ 도남동 지석묘 지적 현황도 / 149
도면 1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51
도면 13–② 외도동 지석묘 1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153
도면 13–③ 외도동 지석묘 1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154
도면 13–④ 외도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155
도면 13–⑤ 외도동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156
도면 14–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58
도면 14–② 외도동 지석묘 2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159
도면 14–③ 외도동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160
도면 14–④ 외도동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161
도면 15–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63
도면 15–② 외도동 지석묘 3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164
도면 15–③ 외도동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165
도면 15–④ 외도동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 166
도면 16–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69
도면 16–② 외도동 지석묘 4호 지형 측량도 / 170
도면 16–③ 외도동 지석묘 4호 지적 현황도 / 172
도면 17–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74
도면 17–② 외도동 지석묘 5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175
도면 17–③ 외도동 지석묘 5호 지형 측량도 / 177
도면 17–④ 외도동 지석묘 5호 지적 현황도 / 178
도면 18–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81
도면 18–② 외도동 지석묘 6호 지형 측량도 / 182
도면 18–③ 외도동 지석묘 6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183
도면 18–④ 외도동 지석묘 6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184
도면 18–⑤ 외도동 지석묘 6호 지적 현황도 / 185
도면 19–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87
도면 19–② 외도동 지석묘 7호 지적 현황도 / 188
도면 20–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90
도면 20–② 외도동 지석묘 8호 지적 현황도 / 191

도면 21–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93
도면 21–② 외도동 지석묘 9호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194
도면 21–③ 외도동 지석묘 9호 지형 측량도 / 196
도면 21–④ 외도동 지석묘 9호 지적 현황도 / 197
도면 22–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199
도면 22–② 외도동 지석묘 10호 지적 현황도 / 200
도면 2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02
도면 23–② 외도동 지석묘 11호 지적 현황도 / 203
도면 24–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05
도면 24–② 외도동 지석묘 12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206
도면 24–③ 외도동 지석묘 12호 지형 측량도 / 207
도면 24–④ 외도동 지석묘 12호 지적 현황도 / 208
도면 25–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11
도면 25–② 광령리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213
도면 25–③ 광령리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214
도면 26–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16
도면 26–② 광령리 지석묘 2호 평면 및 입면 실측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217
도면 26–③ 광령리 지석묘 2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218
도면 26–④ 광령리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221
도면 26–⑤ 광령리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222
도면 27–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24
도면 27–② 광령리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226
도면 27–③ 광령리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 227
도면 28–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29
도면 28–② 광령리 지석묘 4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230
도면 28–③ 광령리 지석묘 4호 지형 측량도 / 233
도면 28–④ 광령리 지석묘 4호 지적 현황도 / 234
도면 29–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36
도면 29–② 광령리 지석묘 5호 지형 측량도 / 238
도면 29–③ 광령리 지석묘 5호 지적 현황도 / 239
도면 30–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41
도면 30–② 광령리 지석묘 6호 지형 측량도 / 243
도면 30–③ 광령리 지석묘 6호 지적 현황도 / 244
도면 31–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46
도면 31–② 광령리 지석묘 7호 지형 측량도 / 248

도면 31–③ 광령리 지석묘 7호 지적 현황도 / 249
도면 32–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52
도면 32–② 광령리 지석묘 8호 지형 측량도 / 253
도면 32–③ 광령리 지석묘 8호 지적 현황도 / 254
도면 3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57
도면 33–② 광령리 지석묘 9호 지형 측량도 / 258
도면 33–③ 광령리 지석묘 9호 지적 현황도 / 259
도면 34–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62
도면 34–② 광령리 지석묘 10호 지형 측량도 / 263
도면 34–③ 광령리 지석묘 10호 지적 현황도 / 264
도면 35–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66
도면 35–② 광령리 지석묘 11호 지적 현황도 / 267
도면 36–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69
도면 36–② 광령리 지석묘 12호 지적 현황도 / 271
도면 37–① 광령리 지석묘 13호 상석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274
도면 37–② 광령리 지석묘 13호 하부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274
도면 37–③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75
도면 37–④ 광령리 지석묘 13호 지적 현황도 / 276
도면 38–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78
도면 38–② 광령리 지석묘 14호 지적 현황도 / 279
도면 39–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81
도면 39–② 광령리 지석묘 15호 지적 현황도 / 282
도면 40–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84
도면 40–② 광령리 지석묘 16호 지적 현황도 / 285
도면 41–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87
도면 41–② 광령리 지석묘 17호 지적 현황도 / 288
도면 42–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90
도면 42–② 광령리 지석묘 18호 지형 측량도 / 291
도면 42–③ 광령리 지석묘 18호 지적 현황도 / 292
도면 4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94
도면 43–② 광령리 지석묘 19호 지적 현황도 / 295
도면 44–①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298
도면 44–② 삼양동 지석묘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299
도면 44–③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300
도면 44–④ 삼양동 지석묘 지형 측량도 / 301

도면 45–①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304
도면 45–② 도련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305
도면 45–③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306
도면 46–① 도련동 지석묘 2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309
도면 46–②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310
도면 46–③ 도련동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311
도면 46–④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312
도면 47–①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314
도면 47–② 도련동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315
도면 47–③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317
도면 48–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320
도면 48–② 하귀리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321
도면 48–③ 하귀리 지석묘 1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322
도면 48–④ 하귀리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323
도면 49–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326
도면 49–② 하귀리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327
도면 49–③ 하귀리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328
도면 50–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331
도면 50–② 하귀리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332
도면 50–③ 하귀리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 333
도면 51–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336
도면 51–② 관전동 지석묘 지형 측량도 / 337
도면 51–③ 관전동 지석묘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338
도면 51–④ 관전동 지석묘 지적 현황도 / 339
도면 52–① 고내리 지석묘 분포도 / 341
도면 53–① 고내리 추정 지석묘 분포도 / 344
도면 53–② 고내리 추정 지석묘 지형 측량도 / 345
도면 53–③ 고내리 추정 지석묘 지적 현황도 / 346
도면 54–① 곽지리 지석묘 분포도 / 348
도면 55–① 곽지리 추정 지석묘 분포도 / 350
도면 55–② 곽지리 추정 지석묘 지형 측량도 / 351
도면 55–③ 곽지리 추정 지석묘 지적 현황도 / 352
도면 56–① 옹포리 지석묘 분포도 / 355
도면 56–② 옹포리 지석묘 하부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356
도면 56–③ 옹포리 지석묘 지적 현황도 / 35

도면 57–① 고산리 지석묘 분포도 / 359
도면 57–② 고산리 지석묘 지형 측량도 / 360
도면 57–③ 고산리 지석묘 지적 현황도 / 361
도면 58–① 우도 천진리 지석묘 분포도 / 364
도면 58–② 우도 천진리 지석묘 지형 측량도 / 365
도면 58–③ 우도 천진리 지석묘 지적 현황도 / 366
도면 59–①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분포도 / 368
도면 59–②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370
도면 60–① 광령2리 지석묘군 분포도(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증보판–) / 372
도면 60–② 광령2리 지석묘군 위성사진(출처 naver) / 372

[사진 목차]

사진 1–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1호 / 87
사진 1–② 1988년 용담동 지석묘 1호 / 87
사진 1–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1호(서에서) / 88
사진 1–④ 2002년 용담동 지석묘 1호(남에서) / 88
사진 1–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1호(서에서) / 90
사진 1–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1호(위에서) / 90
사진 2–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2호 / 94
사진 2–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2호 / 94
사진 2–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2호(서에서) / 96
사진 2–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2호(남동에서) / 96
사진 2–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2호(위에서) / 97
사진 2–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주변 석재 / 97
사진 3–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3호 / 100
사진 3–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3호 / 100
사진 3–③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남에서) / 100
사진 3–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위에서) / 100
사진 3–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 지석 / 101
사진 3–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 성혈 / 101
사진 4–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4호 / 104
사진 4–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4호 / 104
사진 4–③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남에서) / 106
사진 4–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위에서) / 106
사진 4–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동에서) / 106
사진 4–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서에서) / 106

사진 5–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5호 / 108
사진 5–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5호 / 108
사진 5–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5호(남에서) / 109
사진 5–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5호(위에서) / 109
사진 5–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5호(동에서) / 109
사진 5–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5호 성혈 / 109
사진 6–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6호 / 113
사진 6–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6호 / 113
사진 6–③ 2002년 용담동 지석묘 6호(남에서) / 114
사진 6–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6호(남에서) / 114
사진 6–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6호(위에서) / 116
사진 6–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6호 석실세부 / 116
사진 7–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7호 / 122
사진 7–② 1986년 용담동 지석묘 7호 / 122
사진 7–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7호(남에서) / 122
사진 7–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7호(위에서) / 122
사진 7–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7호(동에서) / 122
사진 7–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7호(남에서) / 122
사진 8–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8호 / 128
사진 8–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8호 / 128
사진 8–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8호(서에서) / 128
사진 8–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8호(서에서) / 128
사진 8–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8호(남에서) / 130
사진 8–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8호 지석 / 130
사진 9–①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 전경 / 132
사진 9–②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위에서) / 132
사진 9–③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남서에서) / 132
사진 9–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동에서) / 132
사진 9–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남서에서) / 132
사진 9–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동에서) / 132
사진 10–① 1986년 오라동 지석묘 1호 / 135
사진 10–② 1998년 오라동 지석묘 1호 / 135
사진 10–③ 2005년 오라동 지석묘 1호(서에서) / 138
사진 10–④ 2015년 오라동 지석묘 1호(서에서) / 138
사진 10–⑤ 2015년 오라동 지석묘 1호(남에서) / 138

사진 10–⑥ 2015년 오라동 지석묘 1호 성혈 / 138
사진 11–① 1986년 오라동 지석묘 2호 / 141
사진 11–② 2001년 오라동 지석묘 2호 발굴조사 / 141
사진 12–① 1986년 도남동 지석묘 / 145
사진 12–② 2015년 도남동 지석묘(동에서) / 145
사진 12–③ 2015년 도남동 지석묘(북동에서) / 147
사진 12–④ 2015년 도남동 지석묘(남에서) / 147
사진 12–⑤ 2015년 도남동 지석묘(서에서) / 147
사진 12–⑥ 2015년 도남동 지석묘 안내판 / 147
사진 13–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150
사진 13–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150
사진 13–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152
사진 13–④ 2013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152
사진 13–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152
사진 13–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호 성혈 / 152
사진 14–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2호 / 157
사진 14–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2호 / 157
사진 14–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2호 / 159
사진 14–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2호(위에서) / 159
사진 14–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2호(동에서) / 159
사진 14–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2호 성혈 / 159
사진 15–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3호 / 162
사진 15–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3호 / 162
사진 15–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3호 성혈 / 164
사진 15–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3호 / 164
사진 15–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3호(위에서) / 164
사진 16–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4호 / 167
사진 16–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4호 / 167
사진 16–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4호 / 171
사진 16–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4호(위에서) / 171
사진 16–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4호(남에서) / 171
사진 16–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4호 성혈 / 171
사진 17–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173
사진 17–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173
사진 17–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176

사진 17–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176
사진 17–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5호(남에서) / 176
사진 17–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5호 성혈 / 176
사진 18–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179
사진 18–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179
사진 18–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180
사진 18–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180
사진 18–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6호(남에서) / 180
사진 18–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6호 성혈 / 180
사진 19–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7호 / 186
사진 19–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7호 / 186
사진 20–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8호 / 189
사진 20–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8호 하부 / 189
사진 21–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9호 / 192
사진 21–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9호 / 192
사진 21–③ 2015년 외도동 지석묘 9호(위에서) / 195
사진 21–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9호(동에서) / 195
사진 22–① 1992년 외도동 지석묘 10호 / 198
사진 23–① 1992년 외도동 지석묘 11호 / 201
사진 24–①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2호 / 204
사진 24–②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2호(북에서) / 204
사진 24–③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2호(위에서) / 204
사진 24–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2호 석실 / 204
사진 25–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호 / 209
사진 25–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호 / 209
사진 25–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호 / 212
사진 25–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호(위에서) / 212
사진 25–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호 지석 / 212
사진 25–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호 성혈 / 212
사진 26–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2호 / 215
사진 26–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2호 / 215
사진 26–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2호 / 220
사진 26–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2호(위에서) / 220
사진 26–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2호(남에서) / 220
사진 26–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2호 석실 / 220

사진 27–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3호 / 223
사진 27–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3호 / 223
사진 27–③ 1998년 광령리 지석묘 3호 / 225
사진 27–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3호(서에서) / 225
사진 27–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3호 성혈 / 225
사진 27–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3호 성혈 / 225
사진 28–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4호 / 228
사진 28–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4호 / 228
사진 28–③ 1998년 광령리 지석묘 4호(서에서) / 232
사진 28–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위에서) / 232
사진 28–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북에서) / 232
사진 28–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 지석 / 232
사진 29–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5호 / 235
사진 29–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5호 / 235
사진 29–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5호(동에서) / 237
사진 29–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5호(위에서) / 237
사진 29–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5호 지석 / 237
사진 29–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5호 성혈 / 237
사진 30–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6호 / 240
사진 30–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6호 / 240
사진 30–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6호 / 242
사진 30–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6호(위에서) / 242
사진 30–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6호(남에서) / 242
사진 30–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6호(서에서) / 242
사진 31–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7호 / 245
사진 31–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7호 / 245
사진 31–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7호 / 247
사진 31–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7호(위에서) / 247
사진 31–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7호(동에서) / 247
사진 31–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7호 성혈 / 247
사진 32–① 1998년 광령리 지석묘 8호 / 250
사진 32–② 2015년 광령리 지석묘 8호(위에서) / 250
사진 32–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8호(남에서) / 251
사진 32–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8호(남에서) / 251
사진 33–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9호 / 255

사진 33–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9호 / 255
사진 33–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9호 / 256
사진 33–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9호(위에서) / 256
사진 33–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9호(남에서) / 256
사진 33–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9호 지석 / 256
사진 34–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0호 / 260
사진 34–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0호 / 260
사진 34–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10호(남에서) / 261
사진 34–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0호(위에서) / 261
사진 34–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0호(남에서) / 261
사진 34–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0호 성혈 / 261
사진 35–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1호 / 265
사진 36–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2호 / 268
사진 36–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2호 / 268
사진 36–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2호(북에서) / 268
사진 36–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2호(남에서) / 268
사진 37–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 273
사진 37–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 273
사진 37–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 273
사진 37–④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성혈 / 273
사진 37–⑤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소재지 조사 전경 / 273
사진 37–⑥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하부 / 273
사진 38–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4호 / 277
사진 38–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4호 / 277
사진 39–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5호 / 280
사진 39–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5호 / 280
사진 40–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6호 / 283
사진 41–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7호 / 286
사진 41–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7호 / 286
사진 42–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8호(남에서) / 289
사진 42–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8호(위에서) / 289
사진 42–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8호(북에서) / 289
사진 42–④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수습유물 / 293
사진 43–①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9호(서에서) / 293
사진 43–②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9호(동에서) / 293

사진 43–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9호(서에서) / 293
사진 43–④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9호 성혈 / 293
사진 44–① 1986년 삼양동 지석묘 / 296
사진 44–② 1998년 삼양동 지석묘 / 296
사진 44–③ 2005년 삼양동 지석묘 / 297
사진 44–④ 2015년 삼양동 지석묘(동에서) / 297
사진 44–⑤ 2015년 삼양동 지석묘(북에서) / 297
사진 44–⑥ 2015년 삼양동 지석묘(위에서) / 297
사진 45–① 1986년 도련동 지석묘 1호 / 302
사진 45–② 1998년 도련동 지석묘 1호 / 302
사진 45–③ 2005년 도련동 지석묘 1호 / 303
사진 45–④ 2015년 도련동 지석묘 1호(서에서) / 303
사진 45–⑤ 2015년 도련동 지석묘 1호(남에서) / 303
사진 45–⑥ 2015년 도련동 지석묘 1호(위에서) / 303
사진 46–① 1986년 도련동 지석묘 2호 / 307
사진 46–② 1998년 도련동 지석묘 2호 / 307
사진 46–③ 2005년 도련동 지석묘 2호(남에서) / 308
사진 46–④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위에서) / 308
사진 46–⑤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서에서) / 308
사진 46–⑥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 하부 / 308
사진 47–① 1985년 도련동 지석묘 3호 / 313
사진 47–② 1992년 도련동 지석묘 3호 이전 후 하부 / 313
사진 47–③ 2015년 도련동 지석묘 3호 추정지 / 313
사진 47–④ 2015년 도련동 지석묘 3호 (삼양동 유적지 내) / 313
사진 48–① 1986년 하귀리 지석묘 1호 / 318
사진 48–② 2014년 하귀리 지석묘 1호(북에서) / 318
사진 48–③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위에서) / 319
사진 48–④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서에서) / 319
사진 48–⑤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동에서) / 319
사진 48–⑥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 성혈 / 319
사진 49–① 1986년 하귀리 지석묘 2호 / 324
사진 49–② 2014년 하귀리 지석묘 2호(북에서) / 324
사진 49–③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위에서) / 325
사진 49–④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북에서) / 325
사진 49–⑤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서에서) / 325

사진 49–⑥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 지석 / 325
사진 50–① 1986년 하귀리 지석묘 3호 / 329
사진 50–②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남에서) / 329
사진 50–③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위에서) / 330
사진 50–④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서에서) / 330
사진 50–⑤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지석 / 330
사진 50–⑥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주변 수습유물 / 330
사진 51–① 2002년 관전동 지석묘 전경 / 335
사진 51–② 2002년 관전동 지석묘(남에서) / 335
사진 51–③ 2015년 관전동 지석묘 원경 / 335
사진 51–④ 2015년 관전동 지석묘(위에서) / 335
사진 51–⑤ 2015년 관전동 지석묘(남에서) / 335
사진 51–⑥ 2015년 관전동 지석묘(북에서) / 335
사진 52–① 1986년 고내리 지석묘 / 340
사진 53–①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원경 / 343
사진 53–②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북에서) / 343
사진 53–③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북에서) / 343
사진 53–④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성혈 / 343
사진 54–① 1986년 곽지리 지석묘 원경 / 347
사진 55–① 2015년 곽지리 추정 지석묘 / 349
사진 55–②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치석흔 / 349
사진 56–① 1986년 옹포리 지석묘 / 353
사진 56–② 2002년 옹포리 지석묘 발굴조사 / 353
사진 56–③ 2015년 옹포리 지석묘 상석 매립추정지 / 354
사진 56–④ 2015년 옹포리 지석묘 추정지 / 354
사진 57–① 1998년 고산리 지석묘 / 357
사진 57–② 1998년 고산리 지석묘 수습 유물 / 357
사진 57–③ 2015년 고산리 지석묘(위에서) / 358
사진 57–④ 2015년 고산리 지석묘(동에서) / 358
사진 57–⑤ 2015년 고산리 지석묘(북에서) / 358
사진 57–⑥ 2015년 고산리 지석묘 북쪽 석재 / 358
사진 58–① 1986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북에서) / 362
사진 58–② 1986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서에서) / 362
사진 58–③ 1998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 / 362
사진 58–④ 2011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 / 362

사진 58–⑤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동에서) / 363
사진 58–⑥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북동에서) / 363
사진 58–⑦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서에서) / 363
사진 58–⑧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위에서) / 363
사진 59–①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1호(동에서) / 367
사진 59–②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1호(서에서) / 367
사진 59–③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2호(북에서) / 369
사진 59–④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2호(남에서) / 369
사진 59–⑤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3호(동에서) / 369
사진 59–⑥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4호(남에서) / 369
사진 60–① 1998년 광령2리 지석묘군 / 371
사진 60–② 1998년 광령2리 지석묘군 / 371
사진 60–③ 2015년 광령2리 지석묘군 / 373
사진 60–④ 2015년 광령2리 지석묘군 / 373

Ⅵ.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표 목차]

표 1. 제주도 기념물 제2호 지석묘 문화관광 실태조사 / 377
표 2. 제주도 비지정 지석묘 문화관광 실태조사 / 378

Ⅶ.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표 목차]

표 1. 제주도 기념물 제2호 지석묘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실태조사 / 385
표 2. 제주도 비지정 지석묘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실태조사 / 386

Ⅷ. 육지부 사례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계획 제시

[표 목차]

표 1. 일본의 보존 조치된 지석묘 목록 / 413
표 2. 야요이시대 유적 / 413

[도면 목차]

도면 1. 일본 지석묘 분포도 / 407
도면 2. 일본 지석묘 매장주체부 각 형식 / 408
도면 3. 일본 지석묘 출토 각종 유물 / 409

[사진 목차]

사진 1. 강화 부근리 지석묘 / 396
사진 2. 강화 부근리 지석묘 / 396
사진 3.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 / 396
사진 4.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 입간판 / 396
사진 5. 고창 지석묘군 / 400
사진 6. 고창 도산리 지석묘 / 400
사진 7. 고창 고인돌 박물관 / 400
사진 8. 고창 고인돌군 체험 / 400
사진 9. 화순 핑매바위 / 402
사진 10. 화순 감태바위 / 402
사진 11. 화순 지석묘군 / 402
사진 12. 화순 고인돌 축제 / 402
사진 13. 요령성 해성 석목성 석붕 / 406
사진 14. 요령성 개주 석붕산 석붕 / 406
사진 15. 요령성 와방점 대자둔 석붕 / 406
사진 16. 요령성 와방점 대자둔 석붕 내 제단 / 406
사진 17. 사토타바루 지석묘 / 411
사진 18. 쿠보이즈미 마루야마 유적 공원 / 411
사진 19. 마가리타 유적(공원 활용) / 411
사진 20. 신마치 유적 전시관 / 411
사진 21. 요시노가리 유적 고상가옥 / 412
사진 22. 요시노가리 유적 북분구 전시관 내부 / 412
사진 23. 요시노가리 유적 발화구 체험 / 412
사진 24. 요시노가리 유적 곡옥 제작 체험 / 412

여 백

I

조사 개요

여 백

Ⅰ. 조사 개요

1. 용역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의 목적

현재 제주시의 지석묘 27기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지석묘의 실태 및 현황분석 등 조사 자료가 미흡함에 따라 제주도 내의 지석묘의 위치 및 내용 (유구 및 출토유물)등 지석묘와 관련된 학술적 기초자료가 필요함.

또한 매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비지정 지석묘가 원래 위치에서 이동되거나 훼손, 소멸됨에 따라 지석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용역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시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20년 (4년)

4. 용역기간

2015년 3월 4일 ~ 10월 30일

5. 용역진의 구성

1) 자문위원

- 최성락 (목포대학교 교수)
- 이영문 (목포대학교 교수)
- 이청규 (영남대학교 교수)
- 김성명 (국립제주박물관 관장)
- 김철주 (문화재청 전문위원)
- 양종렬 (제주교육박물관 연구관)

2) 조사단

○ 책임연구원

–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소장)

○ 연구원

– 정광중 (제주대학교 교수)
– 김범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김익주 (전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 김승근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부소장)
– 김규정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 김종찬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김용덕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 김진환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윤중현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오원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허　신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보조원

– 이　혁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6. 용역 내용

1) 제주시내 지석묘 현황 및 실태조사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조사 (용담동선사유적지 지석묘 포함 47기)
– 보수정비 현황 및 이력을 포함한 문헌기록, 도면, 사진, 참고문헌
– 현존 지석묘 소재지 및 크기 (폭 · 길이), 구조, 유구의 성격 등 학술적 규명 및 분석을 통한 지석묘 특성 도출
– 실측 및 도면 작성, 기록용 사진 촬영(상공 촬영) 등 현황 기록
– 실측도면은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 AutoCAD로 작성 제시
– 지역별 해당 유적의 유구현황표 등 조사목록 수록
– 제주시내 지석묘의 특징 및 타 지역 지석묘와의 비교
– 지석묘의 보호범위 설정과 원지형 보존지역의 토지 현황

2) 지석묘 보존 및 정비 · 관리 (활용)계획 수립

- 제주시 지석묘에 관한 자료 작성 및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 및 정비 방안의 구체적 제시
- 예측가능한 보수 · 정비 매뉴얼 작성 (교체시기, 정비내용 등)
- 활용을 위한 주변 토지매입 계획 수립
-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계획)
- 비지정 지석묘 문화재 지정 가능성 및 가치 검토
-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쉼터 · 안내판 · 이정표 설치, 안내소, 해설사 운영방안 등)
- 육지부 사례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계획 제시

3) 정비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예산 산정

- 향후 이루어지는 지석묘 주변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제시 (수목제거 및 석재의 보존처리, 발굴조사 등)
- 사업 추진 우선순위 제시 및 시급성 등 효과분석 제시
- 단계별, 부문별, 연차별 사업예산 계획 수립 및 산출
- 세부 추진계획 수립

7. 보고서의 집필

본 보고서의 집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Ⅰ. 조사 개요(강창화) / Ⅱ. 제주도 지석묘 분포지역의 지리적 환경 고찰(정광중) / Ⅲ.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와 특성(김진환) / Ⅳ. 제주시 고인돌 실태조사 현황(강창화, 김진환) / Ⅴ. 제주시 지석묘 실태조사 및 보존 활용 계획(강창화, 김용덕, 김진환, 윤중현, 허신, 오원홍, 이혁) / Ⅵ.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김범훈) / Ⅶ.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김범훈) / Ⅷ.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계획 제시(김승근, 김진환) / Ⅸ. 연차별 추진 계획(강창화, 김진환) / 부록 1. 제주시 외도 · 광령 고인돌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강창화, 김진환) / 부록 2. 제주시 지석묘군 소재지 용담동 · 외도동 · 삼양동 마을의 유래(고창석 · 전 제주고고학연구소장) / 부록 3. 제주도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과 고인돌 고찰(김종찬) / 부록 4.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의례 검토(김규정) / 부록 5. 제주시 무덤유적[古墳]의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강창화) / 부록 6. 지석묘 정비 및 보수 정비 계획의 일례(김익주)

여 백

II

제주시 지석묘 분포지역의 지리적 환경 고찰

여 백

Ⅱ. 제주시 지석묘 분포지역의 지리적 환경 고찰

1. 지석묘 사회의 중심지로서 제주시의 지리적 환경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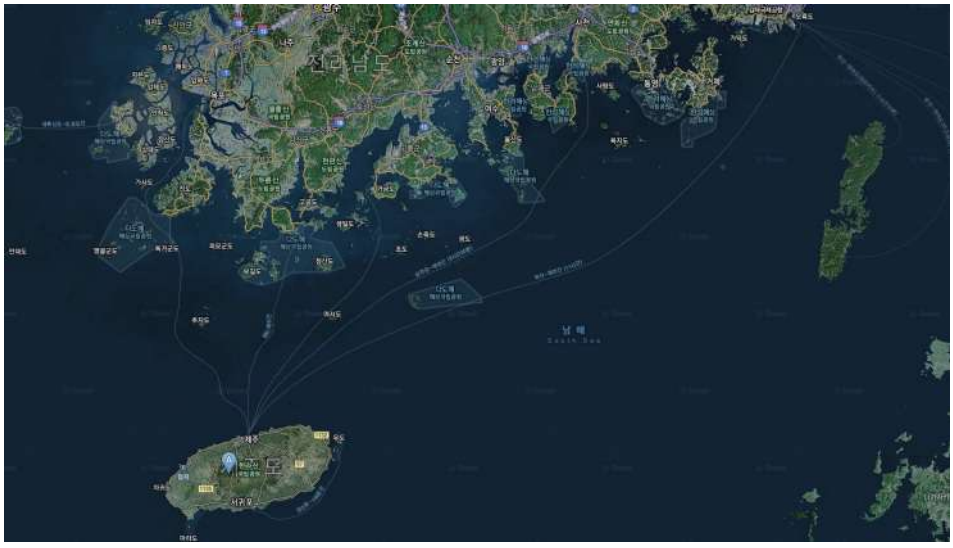
오늘날 제주 섬의 중심도시인 제주시는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거주와 교류가 빈번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은 일단 지리적 위치와 환경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의 제주시 중심부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선사인들이 제주 섬의 지리적인 위치나 환경적 조건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며 활용했을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한 배경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외부와의 교류 내지는 교역을 입증하는 유적과 유물의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을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탐라성립기(BC. 300~AD. 300년) 및 탐라시대(AD. 300~AD. 900년)(김경주, 2009: 167)의 유적에서 외부와의 교류 · 교역을 통해 수입된 동경, 검(동검 및 철검), 옥, 화폐(오수전 등) 등이 출토되면서 제주지역의 선사인들이나 혹은 선주민들의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과 생존을 위한 환경적 조건의 유리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 발굴된 동경, 검, 옥 및 화폐 등은 기본적으로 탐라나 제주지역에서 산출되지 않거나 동시에 제작되지 않는 유물들이다. 말하자면 당시 한반도나 주변지역의 국가들과의 교류와 교역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었던 유물들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탐라(제주)에서는 일부 지배 계층이나 또는 특정집단 수장의 필수품으로서, 아니면 사후의 부장품으로 사용할 위신재나 장신구의 수입과 함께 화폐 통용을 위한 대외 창구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제주시 지역에서도 대외교류와 교역을 전제한 포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선사인들의 집단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생활무대는 해안가나 해안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입지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해안가나 해안지역에 공동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대외교류나 교역 이외에 다양한 수산자원과 더불어 음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주 섬은 고구마 형태의 동서로 긴 해안선을 지닌 화산섬으로, 한반도의 남쪽 해상에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고립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그림 1). 그렇지만 대외교류

및 교역을 전제한 포구는 동서남북의 해안선에 입지할 수 있는 지역적인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중국대륙, 동쪽으로는 일본열도, 남쪽으로는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과도 교류할 수 있는 위치적인 강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을 중심권역으로 확인되는 제주 섬의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및 동남아의 여러 국가와의 교류 · 교역의 중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8).



| 〈그림 1〉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과의 지리적인 거리 관계 (자료: Daum 위성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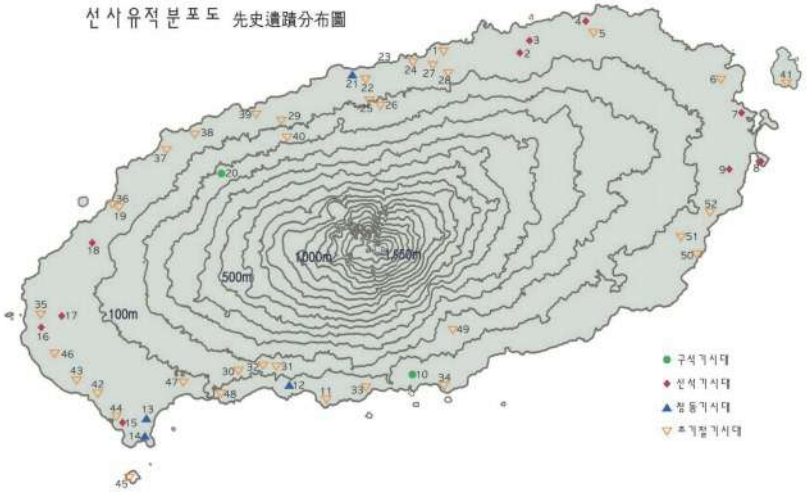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제주시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주변지역, 즉 한반도와 중국대륙, 일본열도(특히 큐슈, 대마도, 오키나와 등) 등과의 교류 ·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와 환경적인 제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는 제주지역의 선사시대 유적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분포도이다. 이 자료에 근거를 두자면, 제주지역의 선사시대 주거지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낼 수 있다(정광중, 2004: 528). 첫째로, 제주지역 선사시대의 유적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해발고도 100m 이하 지역에 대거 밀집되어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사시대로부터 해안지역에 마을이나 농경지 등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사시대의 다양한 유적들 중에서도 초기 철기시대(BC. 200~AD. 200년)의 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지석묘(고인돌) 유적의 분포가 단연 돋보인다는 사실이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256). 여기서 초기 철기시대는 김경주(2009)가 주장하는 탐라성립기에 속하는 시기에 포함된다[1]. 이러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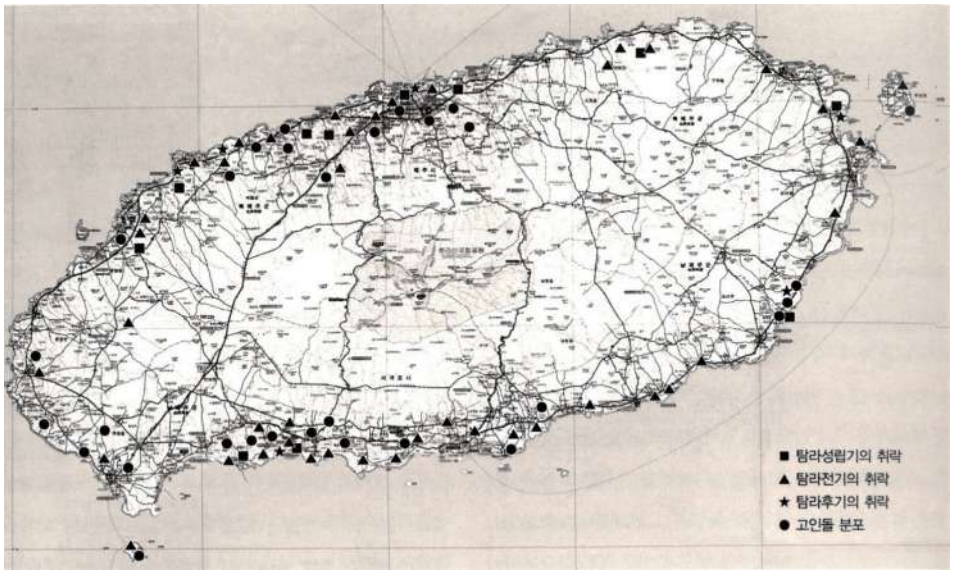
| 1)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그림 2〉를 작성한 시점이 2000년도 전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굴 보고된 유적들(약 14~15년간의 발굴 성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한다 해도, 선사시대의 유적들 중에서 초기 철기시대(또는 탐라성립기)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

은 제주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로 들어와 친족 단위 또는 씨족 단위의 정착생활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인구증가가 현저해지면서 마을이 분리 · 독립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초기 철기시대(또는 탐라성립기)에는 오늘날 제주시 지역의 제1도, 제2도 및 제3도를 중심으로 마을형성과 발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장자를 비롯한 씨족 공동의 집단 묘역도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세 번째로는 선사시대의 유적의 입지나 분포밀도에서 볼 때 제주 섬의 동부지역에 비하여 서부지역에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3〉에 제시된 탐라성립기의 취락 분포도에서도 재확인할 수

| 2) 이러한 주장은 신용하 교수(2001: 33)가 주장하는 고대국가 탐라국의 건국시기(BC. 100~AD. 100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



| 〈그림 2〉 제주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실태 (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1: 256) |



| 〈그림 3〉 탐라성립기(BC. 300~AD. 300)~탐라시대(AD. 300~AD. 900)의 취락 분포 (자료: 김경주, 2009: 168) |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선사인들은 상대적으로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이 집단적인 주거지로서 혹은 친족 또는 씨족 공동체(즉 마을)의 형성에도 유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전제로 한다면, 다소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내의 여러 지역(특히 제1도, 제2도, 제3도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부지역)에 친족이나 씨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탐라 초기(BC. 200~AD. 200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적들로는 삼양동 선사유적(BC. 300~AD. 200년)을 비롯하여 삼양2동 삼화지구유적(BC. 300~AD. 300년), 용담동 유적(BC. 300~AD. 300년, 사적 제522호)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마을의 규모도 한층 확대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김경주, 2009: 167-172), 나아가 마을의 확대 · 확산과정에서의 중심마을은 앞서 지적한 유적지를 통해 볼 때 오늘날의 제주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대부분 해발고도 100m 이하의 저평한 해안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에 유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광중, 2002: 42-44). 따라서 선사인들이 주로 해안지역에 집단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환경적인 요인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오늘날의 제주시 지역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자.

첫째로, 해발 100m 이하의 해안지역은 경사도가 낮은 평탄한 지형이 넓게 전개되는 동시에 하천수나 용천수의 발달이 매우 탁월하다. 따라서 인간생활에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지의 조성은 물론 음용수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중산간과 산간지역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해안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청규(1995: 56)는 해발 100m 이하의 해안지역에 선사인들이 남긴 유적이 집중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 지역(해발 100m 이하)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택지가 들어선 곳으로 과거 탐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를 이어오는 오랜 역사 속에서도 주요 관아건물과 그 외의 중심시설들이 입지할 정도로 평탄한 용암대지의 특성을 보인다. 물론 제주시 지역에는 관문포구(關門浦口)라 할 수 있는 산지포(건들개, 현 제주항)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또한 풍부한 용천수와 함께 산지천, 한천, 병문천, 화북천(별도천) 및 외도천(도근천) 등 주요 하천들이 대거 한라산(남쪽) 방향에서 해안

(북쪽) 방향으로 흘러드는 양호한 조건도 갖추고 있다. 제주 섬의 해안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음용수를 이용하는데 이처럼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로, 평탄한 해안지역은 농경지를 조성하고 확보하는 데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농경지의 조성과 확보는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가족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더불어 농경지의 과다는 공동체사회의 대소(大小)와 위상을 나타내는 배경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친족이나 씨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사회는 농업생산에 있어 협업적이고 조직적인 노동력 투하가 가능하여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농경지의 조성과 확보문제는 특정지역의 마을 규모나 마을세(勢)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많은 농경지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차적으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동력 교환과 효율적인 협업관계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사회로부터 거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농경지의 조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농경지의 조성과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주시 지역은 탐라국 시대부터 공동체사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제1도, 제2도 및 제3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안가의 동서지역을 포함한 해발 200~250m 사이의 남쪽지역에 넓은 평지와 아주 완만한 경사지가 전개되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상에 많은 농경지를 조성하며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해안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상에서 언제든지 바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리하다. 나아가 포구 건설을 통해 주변부의 여러 지역과 국가(한반도, 중국대륙, 일본열도, 필리핀제도 등)와의 교류를 위한 거점(橋頭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지역에 공동 주거지의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해안지역은 바다의 이용과 해산물의 채취, 한반도나 주변지역과의 교류 · 교역을 위한 공동체사회의 희망과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대의 장점을 지닌 공간으로 부각된다.

이런 배경과 관련지어볼 때 제주시 지역은 선사시대로부터 중심취락 가까이에 연안바다를 끼고 있고, 한반도와 주변지역과의 인적 · 물적 교류를 전제한 중심포구(산지포)가 입지하여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선사시대로부터 집단 공동체의 터를 잡는데 당시의 수장이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깊은 고민과 함께 나름의 지혜를 발휘한 결과의 산물이다. 특히 산지포의 축조와 변화과정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제주 섬 자체의 성장과 발전의 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평탄한 지형적 조건을 가진 해안지역은 공동체와 공동체 즉 마을과 마을이 서로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의 물물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활동에서 노동력 교환이나 협업체계 구축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자연재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공동방어와 대응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공동체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고 동시에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을 한층 고양시키는 배경이 된다.

제주시 지역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공동체사회가 성립될 수 있는 지형적 조건과 함께 하천수와 용천수 등을 통한 음용수의 취득, 넓은 농경지의 조성 및 포구 축조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지닌 공간이다. 그 결과로써 선사시대로부터 다수의 공동체가 발현되기 시작하였고 공동체의 주거지와 개인(수장) 혹은 상위 계층의 지석묘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석묘의 밀집 · 분포지역으로서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특징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는 용담, 삼양, 외도 · 광령지역이 서로 다르게 편제되어 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하는데 행정구역의 편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주지역에서 지석묘의 묘제가 도입되고 유지되던 BC. 200~AD. 300년 사이[3]에는 집단적 공동체 사회가 곳곳에 발흥되고 이윽고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의 발흥과 초기 성장이 이어지는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지석묘의 묘제 양식이 반도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도입이 늦고 동시에 오랫동안 지속돼온 상황은 여러 요인이 내재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주지역이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서도 비교적 작은 공간적 범위 안에 지석묘가 밀집 · 분포하는 지역이 확인되고 있는데, 바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용담(9기), 삼양(도련동 지석묘 포함 5기), 외도(8기), 광령(13기)지역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왜 이들 지역에 주로 지석묘가 밀집되어 분포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궁극적인 이유와 배경은 고고학자는 물론 지석묘 연구의 전문가들이 같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을 전제로 논

3) 제주지역의 지석묘 편년은 양종렬(1993: 41)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에 진행된 이청규의 연구결과를 수렴하여 BC. 200년~AD. 300년으로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여기서 상한선은 양종렬이 제시한 BC. 200~100년(양종렬, 1993: 41)에서 유추하였고, 하한선은 이청규(1995: 344)가 제시한 AD. 0~300년(탐라전기 1기)에서 유추하여 설정한 것이다.

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에 대한 논의는 지석묘의 조영행위가 완료된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 관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석묘의 밀집 · 분포의 원인과 배경을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분석 · 점검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찾아내는 작업은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먼저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의 일부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이청규(1985: 25-74)가 분석한 바 있다. 이청규는 광령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23기의 지석묘를 분석하여 동일한 침향(枕向: 상석의 장축방향)을 취하는 지석묘의 분포밀도를 근간으로 광령리의 지석묘 사회는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3기의 지석묘 중에서 상석이 약 7t에 이르는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 광령지역 일대에는 300여명의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제주지역의 지석묘 사회의 마을구성이나 배후인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산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문지리적 환경을 일부나마 구체화시킨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을 행정구역의 편제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이상의 지역에 지석묘가 많이 분포할 수 있었던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지리적 위치와 영역의 관점에서 보는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이다.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은 제주 섬 내에서도 북부 중앙지역에 위치한다. 용담지역을 중심으로 삼양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2㎞ 내외(도보로는 1시간 50분 거리)를 보이며, 그리고 용담지역에서 외도 · 광령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5㎞ 내외(도보로는 1시간 53분 거리)를 보인다[4]. 이처럼 용담지역을 중심지로 위성사진(Naver) 상에서 확인되는 직선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제주 섬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한라산 산록으로부터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산세(山勢)로 인한 생활상의 악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와는 반대로 해안과의 거리는 매우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는 까닭에 선사인들이 보금자리를 틀기에는 더없이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라산 방향으로는 노루나 사슴, 멧돼지 등의 사냥활동은 물론 식용식물과 야생열매의 채집 등에 매우 유리하고 또 연안바다에서는 다양한 어류를 포함한 톳, 미역 등의 해초류와 고둥, 소라, 전복 등의 패류를 채취하여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용담-삼양 지역 간 거리는 용담동 해안지역의 지석묘 위치(제주대 사대부고 내)에서 삼양동 지석묘(1, 2호기)이 위치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이고, 용담-외도 · 광령지역 간 거리는 앞에 제시한 동일한 지석묘 위치에서 외도 · 광령 지석묘 밀집지역의 중간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이다. 아울러 두 지역 간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는 Naver 지도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사인들의 마을이 해안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동체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사회 혹은 계급(층)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교류 · 교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어야만 손쉽게 포구 축조를 통해 외부인과의 접촉과 물자의 교역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석묘가 밀집되어 분포하는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은 동서 방향으로 다소 간에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으면서도, 화산섬의 형성과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양과 분포정도에 따라 지형적 조건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계로 세 지역의 마을 중심부와 해안과의 거리도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용담과 삼양지역은 해안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직선거리로 약 0.3~1.2㎞ 사이), 외도 · 광령지역은 지석묘 밀집지역의 주변 어딘가에 선사인들의 마을 중심부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해안과의 거리는 용담과 삼양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2~2.3㎞사이). 그렇다고 해서 외도 · 광령지역이 마을 중심부로부터 해안으로의 접근도가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연안 수역을 이용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5].

영역적인 측면에서도 용담, 삼양지역이나 외도 · 광령지역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자연적인 장애요소가 없이 비교적 드넓은 평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6)[6]. 따라서 공동체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주 공간의 확보는 물론 농경지 조성, 공공장소나 공동 의례(제사)를 위한 장소 확보, 묘역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보다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영문 · 신경숙의 주장(2014: 60-61)에 따르면, 청동기시대에는 이들 공간이 모두 하나의 마을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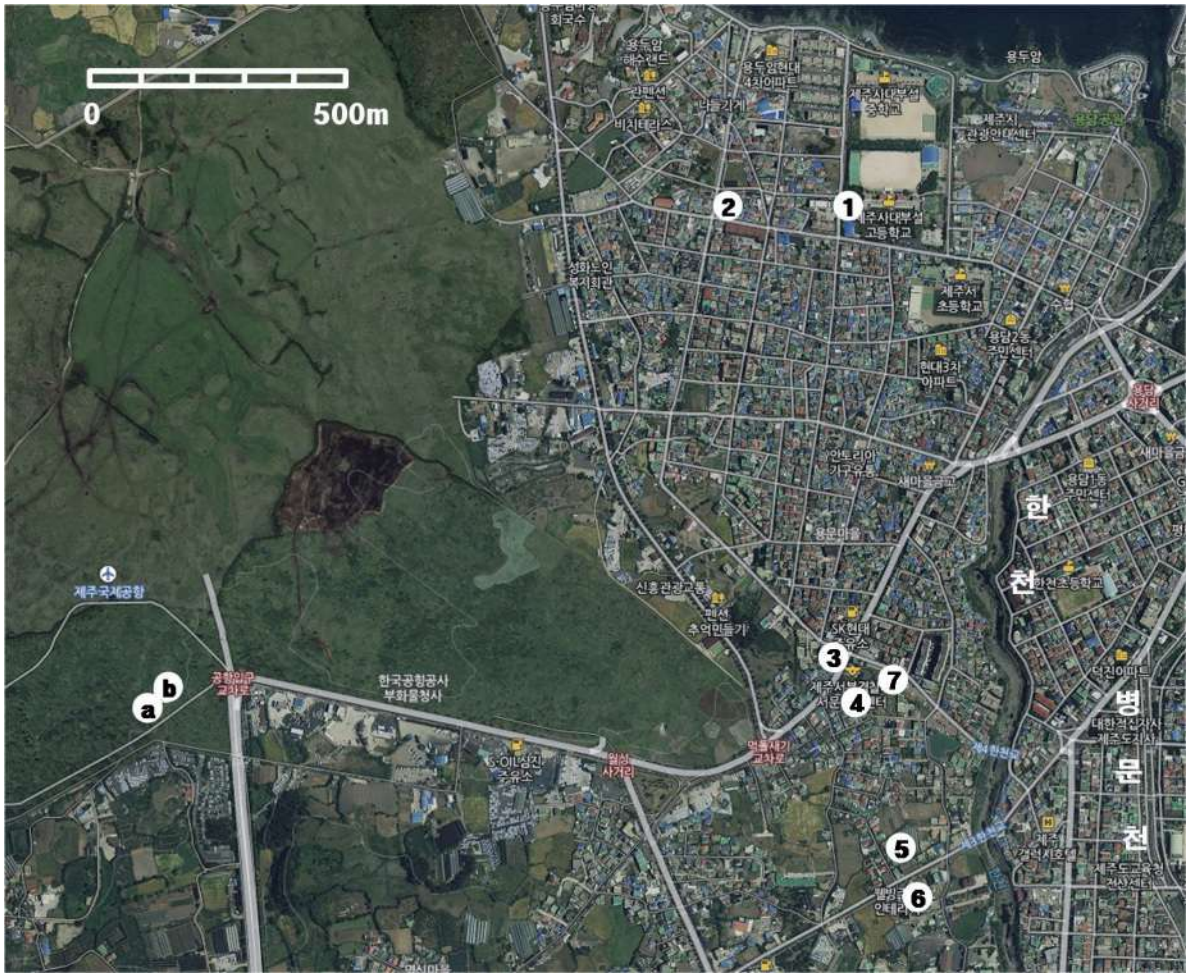
이들 세 지역에 있어서 용담과 삼양지역은 북쪽 방향으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는 주로 동서지구와 남쪽지구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그림 4~5), 외도 · 광령지역은 해안과는 다소 떨어진 지구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유추해 볼 때 농경지는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구로 전개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

이상과 같이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은 지리적 위치와 영역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지리환경의 유리성은 교류 · 교역을 위한 포구 축조 및 연안수역의 이용을 전제한 해안과의 절대적 거리, 공동체의 다양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라는 점과 연계시켜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마을 중심부에서 해안까지는 도보로 약 30~3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이다.

6) 〈그림 4〉~〈그림 6〉에서 알파벳(Ⓐ, Ⓗ 및 ⓐ, ⓑ)과 한글(㉮~㉲)의 구분은 다른 장소로 이전한 지석묘(그림 4)이거나 또는 행정구역의 차이(삼양2동과 도련2동 또는 외도동과 광령리, 그림 5~6)에 따른 구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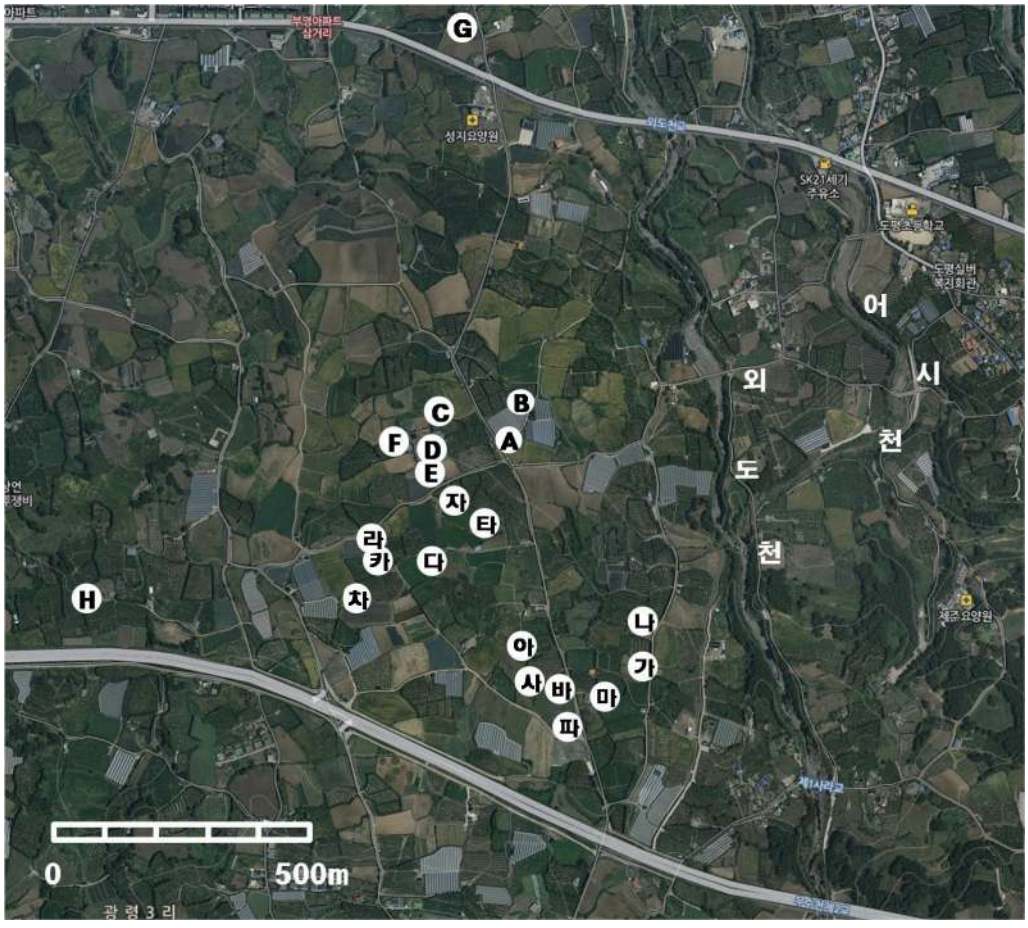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형적 조건과 관련지어 볼 때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이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은 어떤지를 검토해 보자. 지형적 조건을 산지, 구릉지 및 평지로 구분해 볼 때 이들 세 지역은 모두가 평지에 해당하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지형의 경사도는 전체적으로 한라산 방향으로부터 해안 방향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남고북저(南高北低) 형을 띠고 있으나, 지석묘의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경사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을 건설하고 농경지를 조성하며, 공동체 생활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장애를 초래하는 자연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주거지와 농경지, 그 외 다양한 기능을 지닌 시설을 구축하는데 지형의 고저나 경사도의 차이에 의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용담지역의 지석묘 분포 / 주: ⓐ~ⓑ는 이전한 지석묘(공항 내) / 자료: Naver 위성사진을 토대로 편집



| 〈그림 5〉 삼양지역의 지석묘 분포 / 주: ⓐ는 삼양 지석묘, ①~②는 도련 지석묘 / 자료: Naver 위성사진을 토대로 편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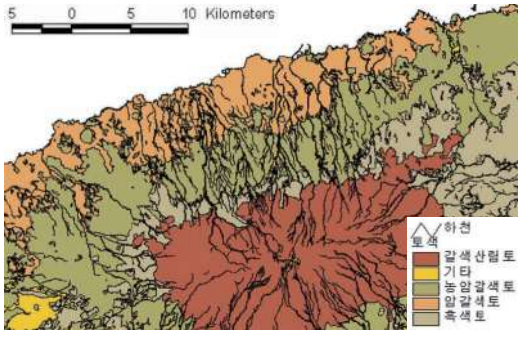


| 〈그림 6〉 외도 · 광령지역의 지석묘 분포 / 주: Ⓐ~Ⓗ는 외도 지석묘, ㉮~㉲는 광령 지석묘 / 자료: Naver 위성사진을 토대로 편집 |

지형적 제반조건과 관련지어 볼 때, 이들 세 지역의 공통적인 지형구성 요소는 크든 작든 모두가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먼저 용담지역은 지석묘 밀집지구의 동쪽으로 한천(漢川)이 흐르고 한천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병문천(屛門川)이 흐른다. 삼양지역은 지석묘 분포지구를 중심에 놓고 볼 때 동쪽으로는 음나물내, 서쪽으로는 삼수천이 흐르면서 삼양지역의 지석묘 분포지구를 감싸는 듯한 형국이다. 거리적으로는 삼수천보다도 음나물내가 다소 가깝다. 외도 · 광령지역은 지석묘 밀집지구의 바로 동쪽으로 외도천(外都川, 광령천, 무수천)이 흐르는데 해발 60m 지점에서부터는 외도천에서 어시천이 분기(分岐)하여 같은 방향인 해안 쪽으로 흘러들어간다. 외도 · 광령지역의 경우는 외도천과 어시천의 분기지점의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띨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지석묘의 밀집 · 분포지구와 주변 하천이나 계곡의 유무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이영문, 1993: 44-48). 그것은 하천변에서 지석묘의 상석(덮개돌)을 채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거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청규의 연구(1985: 72)에서는 외도 · 광령지역 지석묘 상석의 채석은 부근에 위치한 외도천 단애(斷崖)에서 채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석묘 상석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산지(採石場)로부터 채석하여 끌어오는 것보다도 주변의 하천변에서 채석하는 것이 훨씬 노동력이나 재원 공급 차원에서 볼 때 유리하다. 주변 하천변에서 캐낸 상석은 일단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거리가 가깝고 또 산지에 비해서는 중간 중간에 장애요소를 훨씬 적게 만나기 때문에, 인력 동원이나 각종 물자(식량, 식수, 통나무, 밧줄 등)의 조달적 측면에서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토양조건에서 파악되는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토양조건은 가구 단위 혹은 공동체사회의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전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림 7〉을 참고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토양은 토색(土色)에 따라 크게 농암갈색토, 암갈색토, 흑색토 및 갈색산림토 등 4개의 토양으로 구분할 수



〈그림 7〉 제주지역 북부-북서부 지역의 토양 분포 (자료: 안중기, 2006: 19)

있다. 이들 중 암갈색토는 현무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풍화하여 생성된 비화산회토이고, 나머지 3개의 토양은 화산회토라는 말 그대로 화산재에 의해 생성된 토양의 특성을 지닌다(안중기, 2006: 19).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오래전부터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2가지 토양, 즉 암갈색토와 농암갈색토를 구별하여 흔히 전자를 '관땅', 후자는 '뜬땅'이라 불러왔다. 여기서 말하는 '관땅'은 농업생산력이 가장 높은 제1급지 토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주도 내의 농경지 중에서는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강만익, 2013: 35)[7]. 그렇기 때문에 암갈색토의 농경지에서는 과거로부터 보리, 조, 피, 콩 등 제주지역의 주요 식량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토양으로 주목받아왔다(정광중, 2010: 30).

| 7) 제주도의 주요 농경지를 구성하는 토양의 비율은 암갈색토 40.5% 외에 농암갈색토 45.5%, 흑색토 14.0%로 파악된다(강만익, 2013: 35–36). |

한편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은 바로 암갈색토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농업생산력이 가장 뛰어난 암갈색토의 분포지역은, 오늘날의 제주시 지역을 포함하여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등의 북서부지역과 대정읍을 중심으로 한 남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암갈색토는 해발 200m 이하 지역에 주로 분포함으로써 농업활동을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도

| 〈표 1〉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을 중심으로 본 표고별 용천수의 분포 |

동 별	5m 이하	5~10m	10~50m	50~100m	10~200m	200~300m	300~400m	400~600m	600~1000m	1000~1500m	1500m 이상	합계
건입동	1	3	—	1	—	—	—	—	—	—	—	5
노형동	—	—	—	1	4	5	—	1	2	1	—	14
도두동	8	1	—	—	—	—	—	—	—	—	—	9
봉개동	—	—	—	2	—	—	1	1	—	—	—	4
삼도1동	—	—	—	1	—	—	—	—	—	—	—	1
삼도2동	5	—	—	—	—	—	—	—	—	—	—	5
삼양동	14	3	—	—	—	—	—	—	—	—	—	17
아라동	—	—	—	—	11	6	2	—	2	1	—	22
연동	—	—	—	—	—	3	—	1	—	—	—	4
오라동	—	—	—	—	2	—	—	3	—	1	1	7
외도동	4	1	9	1	—	—	—	—	—	—	—	15
용담1동	3	1	—	—	—	—	—	—	—	—	—	4
용담2동	8	2	—	—	—	—	—	—	—	—	—	10
이도1동	—	—	2	—	—	—	—	—	—	—	—	2
이도2동	—	—	—	2	—	—	—	—	—	—	—	2
이호동	6	2	2	—	—	—	—	—	—	—	—	10
일도1동	—	—	1	—	—	—	—	—	—	—	—	1
일도2동	—	—	—	1	—	—	—	—	—	—	—	1
화북동	6	1	1	1	—	—	—	—	—	—	—	9
합 계	55	14	15	10	17	14	3	6	4	3	1	142
광령리	—	—	—	2	3	2	—	—	3	1	2	13

(자료: 제주도, 1999: 37–39) (단위 : 개소)

를 쉽게 하는 동시에 단위면적 당 생산력과 노동력 투하를 적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석묘가 밀집 · 분포하는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은 거의 대부분 암갈색토가 차지함으로써 과거 선사인들의 다양한 작물생산에도 무난한 토양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용수 취득 조건과 관련된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은 어떠한가. 선사인들에게도 음용수 취득은 피할 수 없는 대전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하천의 존재 유무가 선사인들의 마을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지만, 하상(河床)에 고인 물만으로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하천수는 위기 극복이나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보조용 수원(水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안가에서 용출하는 용천수가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공동체 생활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에서는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에 분포하는 용천수의 분포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선사인들이 지석묘를 축조하며 생활하던 당시와는 용천수의 위치나 수량 및 수질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배경을 파악하는 단서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을 참고하자면, 용담지역의 용천수는 14개소(용담1동 4개소, 용담2동 10개소), 삼양지역은 17개소, 외도지역은 15개소 그리고 광령지역(애월읍)에는 13개소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분포하는 용천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원(水源)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인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용천수의 수량과 수질은 차치하더라도, 용천수의 분포수로는 제주시 지역(동지역) 안에서도 삼양동이 2위, 외도동이 3위, 용담2동은 공동 5위를 차지하면서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대거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광중, 2005: 67).

용천수의 분포수에서는 광령리도 대동소이하다. 광령리는 애월읍 내에서는 하귀리(22개소)와 애월리(14개소)에 이어 3위(13개소)에 오를 정도로 용천수가 많이 확인된다. 물론 광령리의 경우는 해발 600m 이상 지점에 위치하는 용천수도 포함되고 있어서 단순히 숫자로만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광령지역은 해발 200m 이하의 용천수가 5개소나 된다는 배경은 당시 선사인들의 인구수를 상정해 볼 때 그래도 충분한 숫자로서 납득할 수는 있다.

기후조건에서는 어떠한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이 작용할 수 있을까. 제주지역은 위도 상으로 볼 때 한반도보다도 남위(南緯) 지역(32°N)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대 몬순(monsoon)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이 몬순 기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제주지역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이유도 그러한 특징과 관련된다. 한편,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한랭건조)의 영향과 여름철 북태평양기단(고온다습)의 영향 그리고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통과하는 도서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면서 한반도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장마전선의 형성과 강풍과 태풍의 내습으로 생활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40).

지석묘를 축조하며 공동체사회를 영위하던 B.C. 200~A.D. 300년 사이의 제주지역은 오늘날의 기후조건과 거의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적 차원의 기후대의 특성과 변화를 감안하면, 청동기 시대의 기후 특징은 오늘날과 강수량이나 기온의 차이에서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후요소인 기온으로 구체적으로 추정한다면, 청동기 시대 전기 보다는 후기가 1℃ 정도 낮았을 정도여서, 상록활엽수림대(조엽수림대)는 한반도의 남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도서지역에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주장들도 보인다(小泉 格, 2007, 안재호, 2012: 40).

〈표 2〉는 최근 제주지역의 기후요소와 관련된 연 평년값으로, 이를 토대로 당시의 기후를 예측해보면 제주지역은 기온이 약 15℃ 전후, 강수량이 약 1,457㎜ 전후, 상대습도가 약 73.3% 전후, 일조시간은 약 1,899 시간 전후 그리고 풍속은 약 3.8㎧ 전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기후조건이라면, 당시 선사인들의 생활에도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제주도 4개 지역별 기후요소의 연 평년값

관측소	기 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h)	풍 속(㎧)
제 주	15.5	1,457.0	73.3	1,898.9	3.8
서귀포	16.2	1,850.7	70.7	2,055.8	3.1
성산포	15.2	1,840.9	75.2	2,146.2	3.1
고 산	15.5	1,094.7	76.5	2,054.3	6.9
평 균	15.6	1,560.8	73.9	2,038.8	4.2

(주: 고산 기상자료는 12년간의 평균치(1988~2000년), 제주, 서귀포 및 성산포 기상자료는 30년간 (1971~2000년)의 평균치임)
(자료: 제주지방기상청, 2003: 279)

이상과 같이 비교적 지석묘가 밀집 · 분포되어 있는 용담, 삼양 및 외도 · 광령지역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지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지석묘가 밀집 · 분포하는 제주시 지역은 나름대로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경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측면의 해석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제주지역의 지석묘 분포지역에 대한 배경적 조건의 상호 비교가 필요하며, 동시에 고고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결과가 종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서로 대비시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만익, 2013, '제1절 자연환경 특색'(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애월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16–51.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한국지리지–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국립제주박물관, 『섬, 흙, 기억의 고리–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166–177.

신용하, 2001. '탐라국 건국의 신연구–탐라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국의 여명을 찾아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9–56.

안재호, 2012, '묘역식지석묘의 출현과 사회상'–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 생계와 묘제의 지역상–, 호서고고학(26), 39–73.

안중기, 2006, '한라산 하천의 자연적 특성'(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하천–한라산 총서 Ⅷ–』, 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17–42.

양종렬, 1993, '제주도지석묘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문, 1993,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영역권과 구조에 대한 검토', 선사와 고대(5), 41–69.

이영문 · 신경숙, 2014, 『고인돌, 세상과 소통하다(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이야기)』, 지성사.

이청규, 1985, '제주도 지석묘연구(Ⅰ)'–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석묘군–, 탐라문화(4), 25–74.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정광중, 2002, '탐라시대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기반', 초등교육연구(7), 35–59.

정광중, 2004, '제주지방–과거와 현재'(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전라 · 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525–536.

정광중, 2005, '제1절 외도동의 자연환경과 특성'(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 향토지』,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43–71.

정광중, 2010, '제1절 자연환경의 여러 특성'(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성산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4–38.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제주지방기상청, 2003,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小泉 格, 2007, '氣候變動と文明の盛衰', 地學雜誌(116)(안재호 연구로부터 재인용).

http://map.daum.net

여 백

III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와 특성

여 백

Ⅲ.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와 특성

1. 머리말

만주지방-한반도-제주도에 걸친 한민족의 전체 영역 중에서 다른 하위지역과는 달리 제주도는 섬으로서 남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역단위를 구성한다. 한반도의 수많은 섬들 중 본섬의 면적은 1,820㎡정도로 가장 큰 섬이며, 일정한 인구집단이 지속적으로 나름대로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수용면적이다. 또한 가장 가까운 전남해안에서의 거리가 100㎞ 이상 되므로 그 고립정도가 다른 섬에 비해 높다[1].

제주도의 고고학은 1928년 제주시 산지항 축조공사 때에 중국 한대 화폐, 동경 등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식 학술조사는 1959년 김철준이 제주시 용담, 광령, 외도에 있는 지석묘를 조사한 것이 최초의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제주도 지석묘는 물론 제주도 고고학 최초의 조사이다[2]. 그리고 1960년대 송석범[3]이 제주도 지석묘에 대한 간단한 지표조사 보고를 하였고, 최몽룡[4]은 곽지리 지석묘를 상석의 이동 없이 하부구조만 조사하였다.

1984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용담동 고분이 발굴되었다. 이 분묘의 묘역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석열을 경계로 남북 두 구역으로 나뉘었다. 남쪽 묘역에서는 개석이 있는 석곽묘 3기, 북쪽묘역에서는 곽지리식 옹관과 세장방형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남쪽묘역의 석곽묘를 조사자는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추정하였으며, 구순각목토기와 공렬토기, 흑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5].

용담동 고분 발굴 이후 제주도 고고학은 이청규를 중심으로 한 제주대학교박물관이 모든 조사를 진행하였다. 1985년 광령리, 외도동 지석묘 24기를 조사하여 외견상의 형태에 의한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6]. 같은 해 용담동 5호 지석묘와 외도동 9호 지석묘에 대한 간단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에는 제주도 지석묘 조사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으며, 당시까지의 제주도 지석묘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여 전남지방 위석식 지석묘의 형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지석묘는 남한지방 지석묘의 말기형식인 이른바 위석식 지석묘에서 발전한 형식으로 보았다[7].

이청규는 박사논문에서 제주도 지석묘를 매장부의 위치, 지석의 형태, 상석의 형태를

1) 이청규, 1995, 『濟州道 考古學 硏究』, 학연문화사.

2) 김철준, 1959, 「濟州道 支石墓 調査報告」, 『서울대論文集-人文社會』9.

3) 송석범, 1961, 「濟州道の支石墓」, 『考古學ツヤーナル』 No.161.
1973, 「支石墓의 分布狀況. 支石墓의 遺蹟狀況」,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報告書』.

4) 최몽룡, 1967, 「郭支里 支石墓 調査報告」, 『서울대人文大學報』14.

5) 이청규, 1989, 『龍潭洞 古墳』, 제주대학교박물관.

6) 이청규, 1985, 「제주도 지석묘 연구(1)-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석묘군-」, 『탐라문화』4.

7) 이청규, 1991, 『濟州고인돌 調査報告』, 제주시.

기준으로 6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5 · 6형식인 제주도 위석식 지석묘를 전남 詩川里 살치 지석묘 나군의 지하형 위석식 지석묘보다 늦은 시기로 파악하였다[8].

이청규의 연구 이후에는 간헐적인 조사만 이루어졌으며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나정욱[9]과 김경주[10]의 연구가 있다. 나정욱은 제주도 지석묘에 대한 입지와 분포, 군집별 양상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큰 틀에서는 이청규(1995)의 연구를 답습하였다. 그리고 김경주는 이청규(1995)의 분류안을 따랐으며 송국리문화단계의 묘제로 지석묘를 인식하고 주거유적이 편년의 올라감에 따라 지석묘의 상한을 올렸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문화유적 분포지도[11]가 제작되면서 제주도 지석묘의 분포가 정리되었다. 2002년 하귀, 광령, 옹포리 지석묘에 대한 긴급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12]. 2004년에는 제주도 최대의 지석묘 군집지역인 가파도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13].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가파도 지석묘의 하부구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최남단의 대규모 지석묘군집으로 추정되던 연구 시각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4].

2011년에는 통합된 제주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증보판이 발간되었으나 기존의 조사 내용을 재인용했을 뿐이다.

| 8) 이청규, 1995,『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

| 9) 나정욱, 2004,「제주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세계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 10) 김경주, 2011,『제주 도련동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 9) 나정욱, 2004,「제주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세계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 10) 김경주, 2011,『제주 도련동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 11)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서귀포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문화유적분포지도 –북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문화유적분포지도 –남제주군–』. |

| 12)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 2002,『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 하귀 · 광령 · 옹포리 고인돌』. |

| 1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6,『가파도 추정고인돌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

| 14) 국립제주박물관, 2009,「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추정고인돌 발굴조사(지도위원회의 자료)」. |

| 표 1. 제주시 지석묘 지역별 분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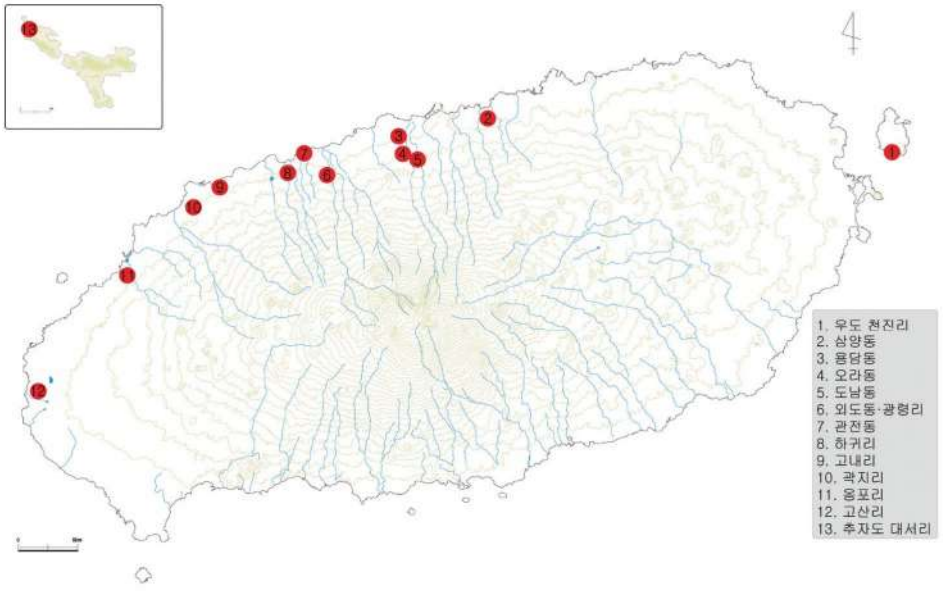
종별		지역별 분포현황												계
현황		삼양/도련	용담	오라/도남	외도/광령	하귀	고내	곽지	옹포	고산	우도	추자도	광령2리	
국가사적			3											3
기념물		3	4	1	15	2								25
비지정	현존	1	1	1	5	2				1	1	4	4	20
	유실			1	9		1	2	1					14
	신자료		1		2		1	1						5
계		4	9	3	31	4	2	3	1	1	1	4	4	67

2.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와 입지

1) 분포

제주시는 2006년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어 행정구역상 동쪽 구좌읍에서 서쪽 한경면까지이며 부속도서로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차귀도 등이 있다. 도면 1을 보면 지석묘가 북쪽 삼양동에서 서쪽 고산리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부속 도서인 추자도와 우도에서도 조사되었다. 제주도에서 확인된 지석묘는 100여기[15]로 그 중 66기가 제주시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시에 위치한 지석묘는 61기이며 추자도 4기, 우도 1기이다.

| 15) 가파도 지석묘군은 제외한 수치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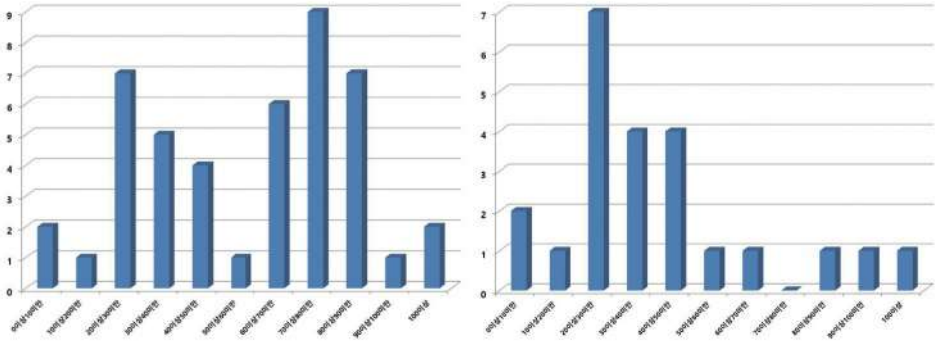
| 도면 1. 제주시 지석묘 분포도 |

제주시 지석묘의 수직적 분포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석묘 중 해발고도가 측정 가능한 지석묘 45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도면 2와 같이 해발 100m 미만에 대부분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도 · 광령 지석묘를 제외하면 해발 50m 미만에 대부분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 도서지역 지석묘의 수직적 분포양상[16]과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석묘의 수직적 분포[17]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를 제외한 나머지 지석묘를 축조할 당시의 인간의 중심 활동범위는 해발 50m 미만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의 축조 당시 인간의 중심 활동범위는 해발 60~90m 사이로 추정된다.

| 16)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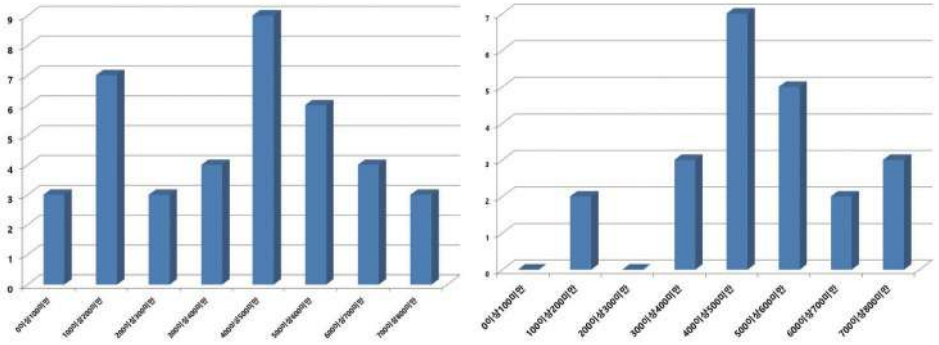
| 17) 한강유역의 고고 유적지의 지형 및 토양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구석기시대~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지형을 분석하여 인간의 활동범위를 추론한 연구가 있다(이광률, 2007). |



| 도면 2. 제주시 지석묘의 수직적 분포양상(좌: 제주시 전체 지석묘, 우:외도 · 광령 지석묘 제외) |

제주시 지석묘 중 42기가 하천변에 위치하며 하천과의 직선거리는 800m 미만에 분포한다. 용담동 지석묘는 한천의 서쪽에 130~600m 떨어져 분포하며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는 광령천의 서쪽에 300~700m 떨어져 분포한다. 용담동 지석묘 주변의 한천과 병문천의 거리는 200~600m 내외인 반면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 주변의 광령천과 고성천의 거리는 3km 내외인 것으로 보아 하천과의 거리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제주시 지석묘들은 하천의 서쪽에 분포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주시 지석묘의 절반을 차지하는 용담동,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들이 하천의 서쪽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용담동 지석묘 주변의 한천과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 주변의 광령천의 동쪽에는 병문천과 어시천, 도근천 등 하천이 있어 서쪽보다 지형의 굴곡이 심하며 하천의 서쪽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지석묘가 입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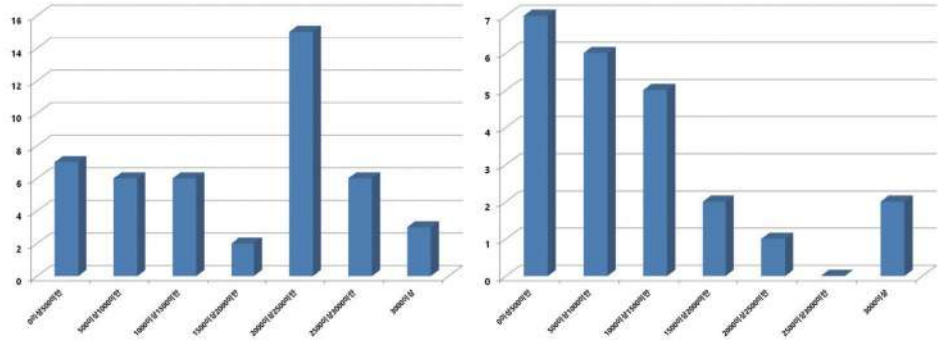
| 도면 3. 제주시 지석묘의 주변하천에서 직선거리(좌: 제주시 전체 지석묘, 우:외도 · 광령 지석묘) |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2.5km 떨어진 곳에 분포하며 다른 지석묘들은 해안에서 2km 미만에 대부분 위치한다. 주변에 큰 하천이 존재하는 경우는 내륙으로 들어온 곳에 분포하는 반면 주변에 천이 없거나 취수가 용이하지 않

은 경우 주변에 용천수가 있어 취수가 용이한 해안과 근접한 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도서지역의 지석묘 분포는 해안 보다는 도서 안쪽으로 들어온 곳으로 천이 형성되거나 용천수가 있어 취수가 용이한 지역 또는 해발고도와 관계없이 주변지역에 대한 조망이 좋은 곳에 분포한다[18]. 제주시 지석묘 역시 다른 도서지역의 지석묘와 마찬가지로 해안에서 일정거리 떨어지고 취수가 용이한 곳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지석묘의 경우 현재 밭으로 경작되거나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조망에 대한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

| 18)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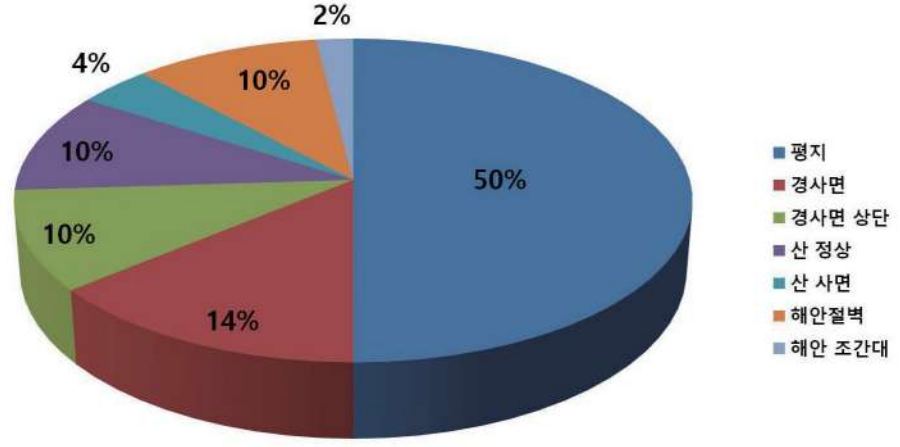


| 도면 4. 제주시 지석묘의 해안에서 직선거리(좌: 제주시 전체 지석묘, 우:외도 · 광령 지석묘 제외) |

2) 입지

지석묘의 입지지형은 일반적으로 구릉, 평지, 산기슭, 고갯마루로 구분된다[19]. 그러나 제주도는 중앙의 한라산에서 바다로 경사지는 지형이며 대부분의 하천이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천과 천 사이의 지형도 굴곡이 심한편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지석묘의 입지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 제주시 지석묘의 입지 지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 19)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연구』, 학연문화사. |



| 도면 5. 제주시 지석묘 입지지형 그래프 |

제주시 지석묘의 입지 지형은 평지, 경사면, 경사면 상단, 기타(산 사면, 산 정상, 해안 절벽, 조간대)로 구분된다.

평지 입지는 기울기 10°미만의 완만한 평탄대지가 지석묘 반경 50m 정도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지석묘로는 용담동 지석묘 2호 · 5호, 외도동 지석묘 2호 · 3호 · 5호 · 6호, 광령리 지석묘 4호 · 5호 · 6호 · 7호 등이 있다.

경사면 입지는 기울기 45°이상의 경사면에 입지하는 것으로 높이차가 심한 밭 경계에 위치하거나 매몰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지석묘로는 용담동 지석묘 1호, 외도동 지석묘 1호 · 4호, 광령리 지석묘 2호 · 3호 · 10호 등이 있다.

경사면 상단 입지는 지석묘가 높이차가 심한 밭의 위쪽에 자리하며 전체적으로 조망에 유리한 곳이다. 대표적인 지석묘로는 용담동 지석묘 1호, 오라동 지석묘 1호, 광령리 1호 · 8호 · 9호 등이 있다.

그 외에 산사면, 산정상, 해안절벽, 해안조간대에도 지석묘가 입지한다. 고산리 지석묘와 유실된 고내리 지석묘가 산사면에 위치하며, 곽리지 추정 지석묘(신발견)와 광령2리 지석묘군은 산 또는 구릉 정상에 위치한다. 해안절벽에 위치하는 지석묘는 우도와 추자도에 위치하는 지석묘이다.

제주시 지석묘 중 입지지형을 알 수 있는 지석묘 50기를 분석한 결과 50% 가량의 지석묘가 완만한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경사면과 경사면 상단에 주로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주시 지석묘의 특징

제주시 지석묘 중 발굴조사된 지석묘는 66기 중 5기(용담동 지석묘 7호, 외도동 지석묘 9호, 광령리 지석묘 13호, 오라동 지석묘 2호, 옹포리 지석묘)에 불과하다. 발굴조사된 5기 중 3기는 상석이 유실된 상태에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제주시 지석묘에 대한 조사는 지표조사 등 기초적인 조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석묘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분류하고 상석과 매장주체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형식

지석묘의 형식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형식과 상석 아래의 하부구조에 나타난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형식분류는 외형적인 형식보다는 하부구조에 따른 형식을 더욱 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형식분류는 연구자마다 그 기준이 달라 많은 혼동의 여지를 남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시 지석묘는 발굴조사가 미미한 실정이고 대부분 지표조사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형식분류를 단순화하여 향후 발전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20].

| 20)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자식 (용담동 지석묘 2호)



기반식 (하귀리 지석묘 1호)



개석식 (하귀리 지석묘 2호)



위석식 (용담동 지석묘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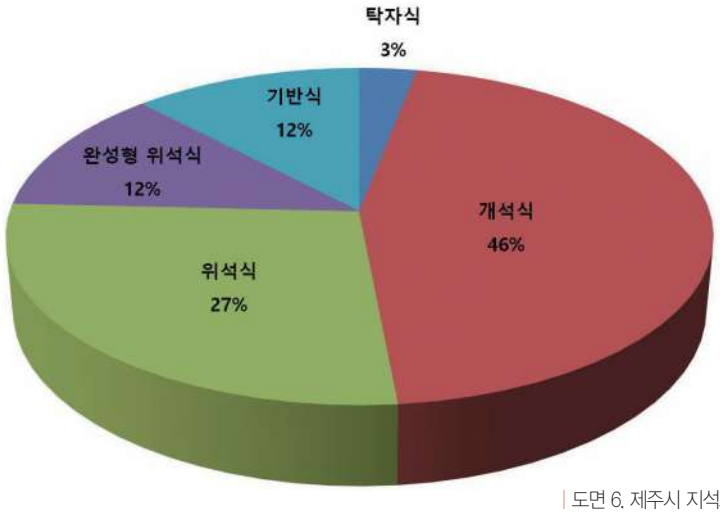
| 사진 1. 제주시 지석묘 형식 |

제주시 지석묘는 외형상으로 크게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대별하였으며, 조사된 자료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탁자식 지석묘는 용담동 지석묘 2호로 1기만 확인된다. 장대석이 상석을 직접 받치는 형태로 동쪽은 개방되어 있으며 서쪽에 막음돌이 확인된다. 이영문의 분류안에 따르면 탁자Ⅱ형이며 전남 해남까지 확인되고 있다[21].

기반식 지석묘는 지하에 만든 석실 주위에 지석을 4~8개 정도를 놓고 그 위에 상석을 덮어 바둑판 모양을 한 형태[22]이다. 제주시에서는 하귀 관정동 지석묘, 하귀리 지석묘 1호, 삼양동 지석묘, 광령리 지석묘 6호 등 4기가 확인된다.

개석식 지석묘는 지하에 만든 묘실 위에 바로 상석을 뚜껑으로 덮은 형식이다[23]. 제주시 지석묘 중 상석 하부에 지석이 1개만 있는 지석묘가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지석묘의 지석은 상석을 석실과 이격시켜 석실을 보호하고 상석을 돋보이게 하는 기반식의 지석과는 다르게 상석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지석이 있으나 개석식으로 판단하였다. 개석식 지석묘는 하귀리 지석묘 1호 · 3호, 도련동 지석묘 1호 · 2호 등 15기가 확인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도면 6. 제주시 지석묘 형식별 그래프

위석식 지석묘는 석실이 노출되어 있으며 판석과 할석을 돌려 세우고 그 위에 상석을 덮은 형태이다. 위석식 지석묘의 판석을 보면 상석의 상면과 닿는 부분보다는 판석이 서로 닿는 측면을 더욱 정성껏 치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위석식 지석묘는 판석을 돌려세운 용담동 지석묘 6호와 광령리 지석묘 2호를 전형적인 형식으로 보았다. 그러나 분석결과 측면이 치석된 판석과 할석을 이용한 위석식 지석묘가 9기이며 판석만을 이용한 지석묘는 4기이다. 즉 할석과 측면이 치석된 판석을 사용한 지석묘가 전

21) 이영문, 2011, 「호남지역 지서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한국청동기학보』8호, 한국청동기학회.

22)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연구』, 학연문화사.

23)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연구』, 학연문화사.

형적인 형태이고, 용담동 지석묘 6호와 광령리 지석묘 2호와 같이 10개 이상의 장방형의 판석만을 세워서 축조한 위석식은 발전된 형태의 위석식 지석묘로 판단된다. 위석식 지석묘는 13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4기가 완성형 위석식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 지석묘 66기 중 분석 가능한 33기를 분석한 결과 개석식 15기, 위석식 13기, 기반식 4기, 탁자식 1기로 구분된다.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개석식 지석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위석식 지석묘이다.

2) 상석

상석은 지석묘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장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상석은 외형적인 중요성 못지않게 그 자체가 상징적인 위엄성을 갖고 있어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석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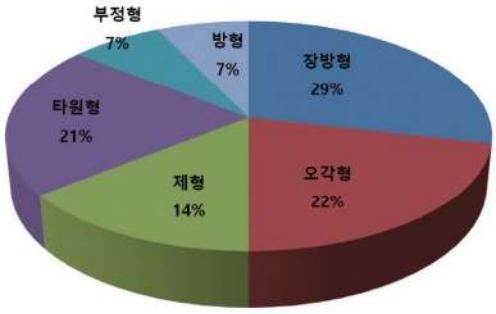
24) 하문식, 1999, 「中國東北地區與朝鮮半島支石墓(石棚, 大石蓋墓)的比較研究」, 『北方文物』3.

상석은 외형적인 위엄성과 석실 보호라는 기능을 하기위해 채석과 운반, 상석을 올리는 과정의 기술과 노동력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발굴조사된 지석묘가 적은 관계로 지석묘의 평 · 단면형태, 치석상태, 상석의 길이와 너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제주시 지석묘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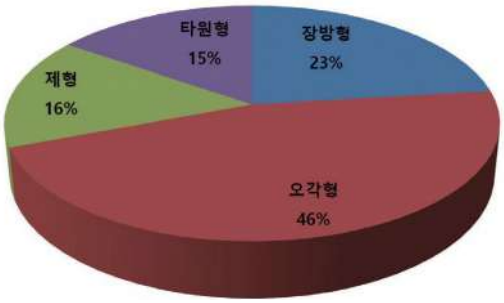
상석의 평 · 단면형태는 장방형, 오각형, 제형, 타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다수를 차지하는 개석식과 위석식을 형식별로 비교하면 도면7과 같다.

상석의 평면형태를 보면 개석식 지석묘가 좀 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위석식 지석묘가 오각형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상석의 평면형태를 비교한 결과 비율적인 차이를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지석묘 기수에서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형식과 상석의 평면형태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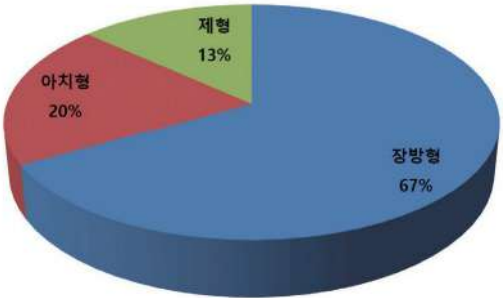
상석의 단면 형태는 장방형, 제형, 타원형이 86%를 차지하며 육지부에서 확인되는 괴석형 상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지석묘 상석으로 주로 이용되는 석재가 조면암질 현무암으로 주변의 노출된 암반에서 채석하거나 채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암반의 결에 따라 채석이 되는데 제주도의 일반적으로 노출된 암반은 결에 따라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갈 경우 100c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석재는 드물다. 실제로 제주시 지석묘 상석의 두께 평균은 60cm 내외이며 가장 두꺼운 고산리 지석묘가 170cm이다. 제주시 지석묘 상석 중 상면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측면과 하면 모두 치석한 용담동 지석묘 6호의 상석의 두께는 150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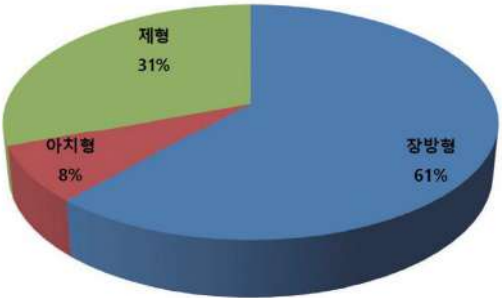
개석식 지석묘 평면형태



위석식 지석묘 평면형태



개석식 지석묘 단면형태



위석식 지석묘 단면형태

| 도면 7. 개석식 지석묘와 위석식 지석묘의 평 · 단면형태 비교 그래프 |

지석묘 형식별 상석의 단면형태를 보면 개석식과 위석식 모두 장방형의 비율이 높으며 개석식은 아치형이, 위석식은 제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개석식에서 아치형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상석 하부를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석식 지석묘에서 제형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상석이 다른 형식의 지석묘 상석보다 두껍고 상면의 굴곡이 심한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도면8을 보면 제주시 지석묘는 상석의 상면을 치석하지 않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위석식 지석묘가 자연면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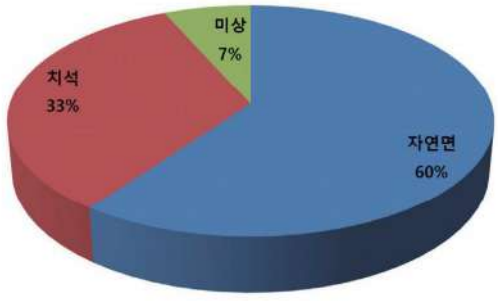
상석의 측면 치석상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위석식 지석묘에서 치석흔이 확인되며 대부분이 2면 이상 치석하였다. 위석식 지석묘의 상석의 측면을 치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상석의 측면을 치석하여 굴곡이 심한 상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상석 하면을 자연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도 판석과 맞닿는 부분을 치석한 것으로 보아 상석의 하면 가장자리에 판석을 세워 받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2. 외도동 지석묘 12호 주변 암석

반면 개석식 지석묘의 상석은 땅위에 바로 놓여지는 것으로 치석하지 않거나 아치형의 단면을 가진 상석의 개방되는 면만을 치석하였다.



개석식 지석묘 상면 치석형태



위석식 지석묘 상면 치석형태



개석식 지석묘 측면 치석형태



위석식 지석묘 측면 치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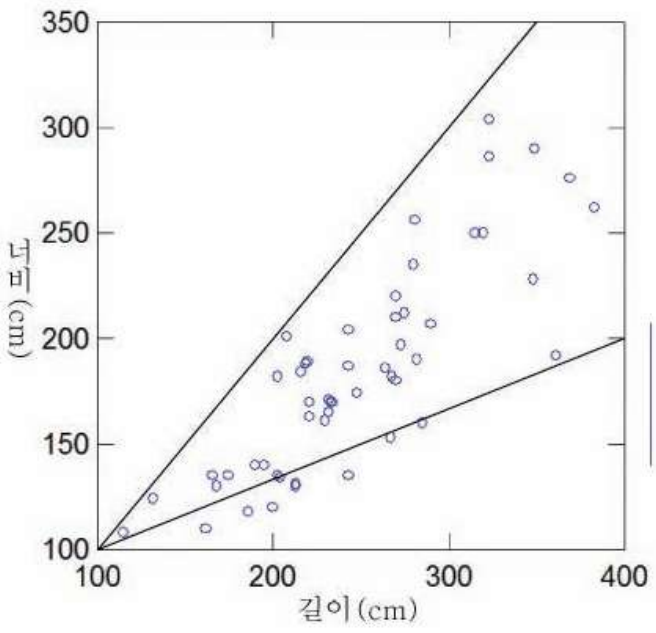
도면 8. 개석식 지석묘와 위석식 지석묘의 치석상태 비교 그래프

제주시 지석묘 상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은 1:1과 2:1 사이의 범위에 주로 분포하며, 1.5:1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밀집함을 알 수 있다. 상석의 장 · 단비율은 황금비율인 1:1.618에 가깝게 축조[25]되었으며 한반도 도서지역의 지석묘의 축조비율 역시

25) 하문식 2010, 「고조선시기의 고인돌 축조방법 연구(1)」,『단군학연구 22호』, 단군학회.

1:1과 2:1 사이의 범위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동일한 축조기술을 가지거나 축조 방법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26].

| 26)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도면 9. 제주시 지석묘 상석의 길이와 너비의 관계 |

3) 묘실의 위치와 구조

묘실은 지석묘 하부구조 중에서 매장 주체부를 이루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시설이다. 이는 피장자가 직접 안치되는 곳이어서 정성들여 만들었을 것이며 또 각 지역에 따라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27].

| 27) 이영문, 2002, 『한국지석묘사회연구』, 학연문화사. |

제주시 지석묘 묘실의 위치는 지하, 반지하, 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개석식 지석묘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묘실이 위치하며 묘실의 구조는 석곽형 또는 석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된 외도동 지석묘 9호에서 간단한 석곽 시설이 조사되었으며 석관형은 외도동 지석묘 12호에서 확인되었다. 하귀리 지석묘 3호는 개석식으로 상석 옆에 석관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었다. 지하에 묘실을 축조하고 매장하는 것은 단독장으로 판단된다.

위석식 지석묘는 반지하 또는 지상에 묘실이 위치하며 한쪽면이 개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번 조사 결과 반지하와 지상에 위치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할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상석의 가장 자리를 둘러

묘실을 축조하였으며 완성형 위석식은 190~200×160~170cm 규모의 묘실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광령리 지석묘 1호는 지석 하부가 편평한 석재로 되어 있으며 암반일 가능성도 있으나 암반으로 판단하기에는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시신을 안치하는 시상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위석식 지석묘의 한쪽면이 개방되어 있는 것은 원래 개방되어 있었던 것인지 폐쇄되어 있던 것인지 확언할 수 없으나 개방된 부분이 판석이 없거나 이탈되기 쉬웠고 경사면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개방되어 진 것으로 가정하면 지석묘를 이용한 시기에도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묘실 구조는 일반적으로 시신 한구를 매장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매장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발굴조사된 용담동 지석묘 7호는 묘실이 반지하에 위치하며 묘실 바닥에서 석곽이 확인되었고 이 석곽에 대해 보고자는 1959년 김철준 교수가 확인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제주시 지석묘 형식별 묘실의 위치와 구조

묘실	개석식 지석묘			위석식 지석묘		
위치	지하	10기	천진리, 도련동 1호, 2호, 하귀리 2호, 3호, 외도동 3호, 9호, 광령리 9호, 10호, 13호	지상	7기	용담동 5호, 6호, 외도동 5호, 6호, 광령리 1호, 4호, 5호
	반지하	2기	외도동 2호, 4호	반지하	6기	용담동 1호, 7호, 8호, 오라동 1호, 외도동 1호, 광령리 2호
구조	석관	2	외도동 12호, 하귀리 3호	석실	12기	용담동 1호, 5호, 6호, 8호, 1호, 외도동 지석묘 1호, 5호, 6호, 광령리 지석묘 1호, 2호, 4호, 5호
	석곽	1	외도동 9호	석실+석곽	1기	용담동 7호

4. 맺음말

제주시의 지석묘는 66기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12기가 유실되어 현재 54기가 잔존하고 있다. 지석묘는 제주시의 북부와 서부지역 일대 그리고 우도, 추자도에서 확인되며 해발 100m 미만의 하천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시 지석묘 중 절반을 차지하는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을 제외하면 해발 50m 미만에 분포한다.

제주도는 중앙의 한라산에서 바다로 경사지는 지형이며 대부분의 하천이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천과 천 사이의 지형도 굴곡이 심한편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지석묘의 입지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 제주시 지석묘의 입지 지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제주시 지석묘의 입지 지형은 평지, 경사면, 경사면 상단, 기타(산 사면, 산 정상, 해안 절벽, 조간대)로 구분된다. 제주시 지석묘 중 입지지형을 알 수 있는 지석묘 50기를 분석한 결과 50% 가량의 지석묘가 완만한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경사면과 경사면 상단에 주로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시의 지석묘는 발굴조사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대별된다. 제주시 지석묘 66기 중 분석 가능한 33기를 분석한 결과 개석식 15기, 위석식 13기, 기반식 4기, 탁자식 1기로 구분된다.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개석식 지석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위석식 지석묘이다.

위석식 지석묘가 제주도의 특징적인 형태인 것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판석을 돌려세운 위석식은 전형적인 형식이 아닌 위석식의 발전형으로 특징적인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 지석묘 상석의 석재는 대부분 조면암질 현무암으로 주변의 노출된 암반에서 채석하거나 채집한 것으로 두께는 평균 60cm 내외이며 100cm를 넘는 것도 6기 정도이다. 상석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상석의 단면 형태는 장방형, 제형, 타원형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육지부에서 확인되는 괴석형 상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시 지석묘의 묘실 위치는 지하, 반지하, 지상으로 구분된다. 개석식 지석묘는 묘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며 묘실의 구조는 석관형 또는 석곽형이다. 위석식 지석묘는 반지하 또는 지상에 묘실이 위치한다. 완성형 위석식의 묘실은 190~200×160~170cm로 넓은 공간을 형성하며 광령리 지석묘 1호는 평평한 석재를 바닥에 깔았다.

위와 같은 구조를 보면 제주시의 위석식 지석묘는 가매장 지석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석묘에서 보이는 가매장시설은 일반적인 무덤의 크기보다 훨씬 큰 석실이나 지석의 배치와 지석간의 거리로 본 내부 공간, 무덤 구조가 없이 판석이나 편평석이 깔려진 묘역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28].

제주시 지석묘는 분포와 입지 양상 그리고 축조 기술에서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육지 지석묘는 매장이 주 기능이라면 제주시 지석묘는

28) 이영문, 2011, 「호남지역 지서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한국청동기학보』8호, 한국청동기학회.

가매장시설, 제단 등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손진태, 1948,「조선 돌멘에 관한 연구」,『민속학논고』.

한흥수, 1935,「조선의 거석문화연구」,『진단학보』3.

이영문, 1987,『전남지방의 지석묘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전남지역 지석묘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한국지석묘사회연구』, 학연문화사.

이영문, 2011,「호남지역 지서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한국청동기학보』8호, 한국청동기학회.

이윤형·고광민, 2006,『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鳥居龍藏, 1953,『ぁる老學徒の手記』, 岩波文庫 青112-1.

김철준, 1959,「제주도지석묘조사보고」,『서울대 논문집 9』.

김원룡, 1961,「춘천 천전리의 지석묘 적석총」,『미술자료 제4집』.

임병태, 1964,「한국 지석묘의 형식 및 연대 문제」,『史叢』, 고려대학교 역사학연구소.

송석범, 1962,「제주도의 고인돌 소고」,『제주도』통권 제13호, 제주도.

1962,「제주도의 선사시대 」,『제주도』통권 제14호, 제주도.

1962,「제주도의 고고학적 의미」,『제주도』통권 제18호, 제주도.

1966,「제주도의 DOLMEN」,『연수(특호:사회과교육)』, 제주도교육연구소.

1969,「고인돌의 문화재적 가치성」,『제주도』통권 제39호, 제주도.

최몽룡, 1967,「곽지리 지석묘 조사보고」,『문리대학보』, 서울대학교.

임세권, 1976,「한반도 고인돌의 종합적 검토」,『백산학보』20, 백산학회.

심봉근, 1983,「청동기시대 묘제(1):지석묘」,『한국사론』13, 서울대학교.

문화재관리국, 1977,「제주도편」,『문화유적총람』.

정영화, 1983,「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고학적 측면」,『탐라문화』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창화, 2013,「제주도 고고학의 발굴과 그 성과」,『호남고고학회 20년, 그 회고와 전망』, 호남고고학회.

강창화, 1996,「제주도 고인돌」,『제4기 박물관대학시민강좌』,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이청규, 1985 ,「제주도 지석묘연구(Ⅰ)」,『탐라문화』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임효재, 1986,「제주도 선사문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제주도연구』3권, 제주학회.

김수희, 1986,「제주도 지석묘 흐름에 대한 일고찰」,『제주사학』,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김병모, 1988,「제주문화의 고고학적 성격 고찰」,『제주도연구』5권, 제주학회.

지건길, 1990,「호남지방 고인돌의 형식과 구조」,『한국고고학보』25, 한국고고학회.

양종렬, 1993,『제주도지석묘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청규, 1991,『濟州고인돌 調査報告』, 제주시.

이청규, 1995,『제주도 고고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하문식, 1999,「中國東北地區與朝鮮半島支石墓(石棚 · 大石蓋墓)的比較研究」,『北方文物』3.

제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서귀포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북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남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 하귀·광령·옹포리 고인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6, 『가파도 추정고인돌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2009,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추정고인돌 발굴조사(지도위원 회의자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나정욱, 2004, 「제주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광률, 2007, 「경기도 한강 하류 고고 유적지의 지형 및 토양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제14권 제 4호』, 한국지형학회.
김경주, 2011, 『제주 도련동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Ⅳ

제주시 지석묘의 실태조사 현황

Ⅳ. 제주시 고인돌의 실태조사 현황

	지역	명칭 (분포지도-증보판)	제주도 유적	북제주군 문화유적	변경 명칭	소재지
1	용담	용담동 지석묘 1호	용담동 고인돌(5)		용담동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65 (용담3동 581번지 학교 내)
2		용담동 지석묘 2호	용담동 고인돌(4)		용담동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588-6번지
3		공항내 이전 지석묘 1호	제주공항 이전 고인돌(1)		용담동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642-3번지(공항주차장)
4		공항내 이전 지석묘 2호	제주공항 이전 고인돌(2)		용담동 지석묘 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642-3번지(공항주차장)
5		용담동 지석묘 5호	용담동 고인돌(2)		용담동 지석묘 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704-1번지(전), 2704-17번지
6		용담동 지석묘 6호	용담동 고인돌(1)		용담동 지석묘 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623-10번지
7		용담동 지석묘 4호	용담동 발굴 고인돌		용담동 지석묘 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624-1번지
8		용담동 지석묘 3호	용담동 고인돌(3)		용담동 지석묘 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650-28번지
9		용담동 지석묘 7호			용담동 지석묘 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908-2번지
10	오라	오라동 지석묘 1호	오라동 고인돌 (2)		오라동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2190-3번지
11		오라동 지석묘 2호	오라동 고인돌 (1)		오라동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1550-4번지(도로)
12	도남	도남동 지석묘	도남동 고인돌		도남동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542번지

문화재 지정현황	사진	현황에 따른 조치 사항	발굴조사필요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수목 제거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수목 제거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제주공항 확장공사 시 이전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4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제주공항 확장공사 시 이전됨
사적 제522호 (2012.05.18)		– 사적 용담동 유적 정비와 연계해서 정비해 야 할 것임.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6 (1971.08.26) 사적 제522호 (2012.05.18)		– 사적 용담동 유적 정비와 연계해서 정비해 야 할 것임.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5 (1971.08.26) 사적 제522호 (2012.05.18)		– 사적 용담동 유적 정비와 연계해서 정비해 야 할 것임.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1985년 발굴조사 후 복원됨
		–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이정표 및 안내 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개인 주택 텃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민 민원의 원만한 해결과 지석묘의 학술적 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이정표 및 안내 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의 학술적 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7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수목 제거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도로 옆에 안내판 설치	2001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발굴조사되었다.
		–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잘 정비를 진행해 야 할 것임.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수목 제거 – 분포지도 위치 수정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의 학술적 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명칭 (분포지도–증보판)	제주도 유적	북제주군 문화유적	변경 명칭	소재지
13	외도	외도동 지석묘 1호	외도동 고인돌 (1)		외도동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0–1번지(전), 20–2번지(도로)
14		외도동 지석묘 2호	외도동 고인돌 (2)		외도동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0–1번지(전)
15		외도동 지석묘 3호	외도동 고인돌 (3)		외도동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3–3번지, 24번지
16		외도동 지석묘 4호	외도동 고인돌 (5)		외도동 지석묘 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3번지, 28번지
17		외도동 지석묘 5호	외도동 고인돌 (6)		외도동 지석묘 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8번지
18		외도동 지석묘 6호	외도동 고인돌 (7)		외도동 지석묘 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7번지
19		외도동 지석묘 7호	외도동 고인돌 (4)		외도동 지석묘 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8번지
20		외도동 지석묘 8호			외도동 지석묘 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7번지
21		외도동 지석묘 9호	외도동 발굴 고인돌		외도동 지석묘 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24–3번지
22		외도동 지석묘 10호			외도동 지석묘 1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87번지
23		외도동 지석묘 11호			외도동 지석묘 1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88번지
24		외도동 지석묘 12호			외도동 지석묘 1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080번지

문화재 지정현황	사진	현황에 따른 조치 사항	발굴조사필요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1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2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3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4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5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이정표 설치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분포지도 위치 수정	1985년 발굴조사되었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이정표 설치 – 발굴조사 후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지역	명칭 (분포지도–증보판)	제주도 유적	북제주군 문화유적	변경 명칭	소재지
25	광령	광령리 지석묘 1호	광령리 고인돌 (2)	광령리 고인돌 (2)	광령리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9–1번지
26		광령리 지석묘 2호	광령리 고인돌 (4)	광령리 고인돌 (4)	광령리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1번지, 1611–3번지
27		광령리 지석묘 3호	광령리 고인돌 (10)	광령리 고인돌 (14)	광령리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1667번지
28		광령리 지석묘 4호	광령리 고인돌 (13)	광령리 고인돌 (10)	광령리 지석묘 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4번지
29		광령리 지석묘 5호	광령리 고인돌 (15)	광령리 고인돌 (13)	광령리 지석묘 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1번지, 1677–7번지
30		광령리 지석묘 6호	광령리 고인돌 (3)	광령리 고인돌 (1)	광령리 지석묘 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31		광령리 지석묘 7호	광령리 고인돌 (1)	광령리 고인돌 (8)	광령리 지석묘 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번지, 1825–1번지 경계
32		광령리 지석묘 8호		광령리 고인돌 (17)	광령리 지석묘 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번지, 1824–1번지 경계
33		광령리 지석묘 9호	광령리 고인돌 (6)	광령리 고인돌 (9)	광령리 지석묘 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1번지
34		광령리 지석묘 10호	광령리 고인돌 (12)	광령리 고인돌 (15)	광령리 지석묘 1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6–1번지, 1665번지 경계
35		광령리 지석묘 11호		광령리 고인돌 (11)	광령리 지석묘 1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36		광령리 지석묘 12호	광령리 고인돌 (14)	광령리 고인돌 (12)	광령리 지석묘 1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1679번지 경계

문화재 지정현황	사진	현황에 따른 조치 사항	발굴조사필요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6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7 (1990.05.30)		이정표 설치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8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9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0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1 (1990.05.30)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3 (2004.09.09)		– 이정표 및 보호책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4 (2004.09.09)		– 이정표 및 보호책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5 (2004.09.09)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6 (2004.09.09)		– 이정표 및 보호책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지역	명칭 (분포지도–증보판)	제주도 유적	북제주군 문화유적	변경 명칭	소재지
37	광령	광령리 지석묘 13호	광령리 고인돌 (5)	광령리 고인돌 (3)	광령리 지석묘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3번지
38		광령리 지석묘 14호	광령리 고인돌 (7)	광령리 고인돌 (6)	광령리 지석묘 1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39		광령리 지석묘 15호	광령리 고인돌 (8)	광령리 고인돌 (5)	광령리 지석묘 1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40		광령리 지석묘 16호	광령리 고인돌 (9)	광령리 고인돌 (7)	광령리 지석묘 1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41		광령리 지석묘 17호	광령리 고인돌 (11)	광령리 고인돌 (16)	광령리 지석묘 1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1665번지 경계
42		광령리 지석묘 18호			광령리 지석묘 1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1691번지 경계
43		광령리 지석묘 19호			광령리 지석묘 1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5–1번지
44	삼양 도련	삼양동 지석묘	삼양동 고인돌(3)		삼양동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329번지(동백공원)
45		도련동 지석묘 1호	삼양동 고인돌(2)		도련동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332–2번지(매화공원)
46		도련동 지석묘 2호	삼양동 고인돌(1)		도련동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332–2번지(매화공원)
47		도련동 지석묘 3호	도련동 고인돌		도련동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2동 689번지(전)
48	하귀	하귀리 지석묘 1호	귀일리 고인돌 (1)	하귀리 고인돌 (1)	하귀리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12–29번지

문화재 지정현황	사진	현황에 따른 조치 사항	발굴조사필요여부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의 학술적 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의 학술적 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0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현상 보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8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현상 보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9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분포지도 위치 수정	현상 보존
		–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이전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2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지역	명칭 (분포지도–증보판)	제주도 유적	북제주군 문화유적	변경 명칭	소재지
49	하귀	하귀리 지석묘 2호	귀일리 고인돌 (2)	하귀리 고인돌 (2)	하귀리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12–29번지 하귀초등학교 교내
50		하귀리 지석묘 3호	귀일리 고인돌 (3)	하귀리 고인돌 (3)	하귀리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155번지
51		관전동 지석묘			관전동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73번지~306번지 북쪽 조간대
52	고내	고내리 지석묘	고내리 고인돌	고내리 고인돌	고내리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95번지
53		고내리 추정 지석묘			고내리 추정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02–2번지(전), 1365번지(도로)
54	곽지	곽지리 지석묘	곽지리 고인돌	곽지리 고인돌	곽지리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오름 근처
55		곽지리 추정 지석묘			곽지리 추정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080번지(임)
56	옹포	옹포리 지석묘	옹포리 고인돌	옹포리 고인돌	옹포리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732–3번지(추정지), 736번지(매립지)
57	고산	고산리 지석묘	고산리 고인돌	고산리 고인돌	고산리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644번지
58	우도	천진리 지석묘		우도 오봉리 지석묘	천진리 지석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32–1(도로)
59	추자	대서리 지석묘군			대서리 지석묘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60번지 일원
60		광령 2리 지석묘군			광령 2리 지석묘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605번지 일원

문화재 지정현황	사진	현황에 따른 조치 사항	발굴조사필요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3 (1971.08.26)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이정표, 안내판 및 보호책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이정표 설치 – 지석묘를 조망하기 좋은 곳에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현상 보존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표시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발굴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조사 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표시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분포지도 위치 표시	유실된 지석묘가 위치했던 필지에 대한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를 실시 – 이정표 설치 – 안내판의 문구 수정 및 형태 통일 – 보호책 범위 확장 및 교체 – 분포지도 위치 수정	도로 개설시 학술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를 실시 –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를 실시 –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 분포지도 위치 수정	지석묘를 제외한 주변 정비 조사가 필요함

여 백

V

제주시 지석묘 실태조사 및 보존 활용계획

여 백

Ⅴ. 제주시 지석묘 실태조사 및 보존 활용계획

1. 용담동 지석묘 1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65 (용담3동 581번지 학교 내)
3) GPS 좌표 : N 33°30′49.28″, E 126°35′30.72″
4) 해발고도 : 22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용담동 587번지 구 제주대건물(현 제주사대부고)북서쪽 구내에 있는데, 상석은 길이 270㎝, 폭 207㎝, 두께 50~105㎝로서 비탈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장축은 북동쪽을 가리키며, 비탈면은 남서쪽이 낮고 이쪽으로 상석의 하부시설이 노출되고, 그 좌우에 판석상 지석을 고여 용담동 발굴 고인돌과 같은 형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출된 남서쪽 좌, 우의 지석 2매는 각각 65×65×10㎝, 50×63×12㎝의 크기를 갖고 있다.



사진 1-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1호



사진 1-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1호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제주대학교 사대부고 운동장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의 남서편을 제외하고 주위를 돌아가면서 흙과 잡석으로 완전히 매립되어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70cm, 폭 207cm, 두께 50~105cm이며, 그 장축방향은 북동이다. 상석면의 기울기는 남서쪽이 약 5°낮다. 지석은 5매가 고여 있다. 원래 지석의 수는 7매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동, 남동부분에서 판석상 지석 2매가 없어졌다. 이는 상석 하면에 지석을 받쳤던 흔적으로 알 수 있다. 상석의 남서쪽은 지석 없이 막음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석의 크기는 북쪽 것은 길이 150cm 이상 되고 남쪽 것은 60cm 이상이다. 이 고인돌은 잘 다듬은 판석상 지석으로 석실 자체를 구성하는 지상위석식 고인돌이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210cm, 폭 160cm, 높이 60cm이다. 59년 조사시 석실 내부 바닥에서 간단한 석곽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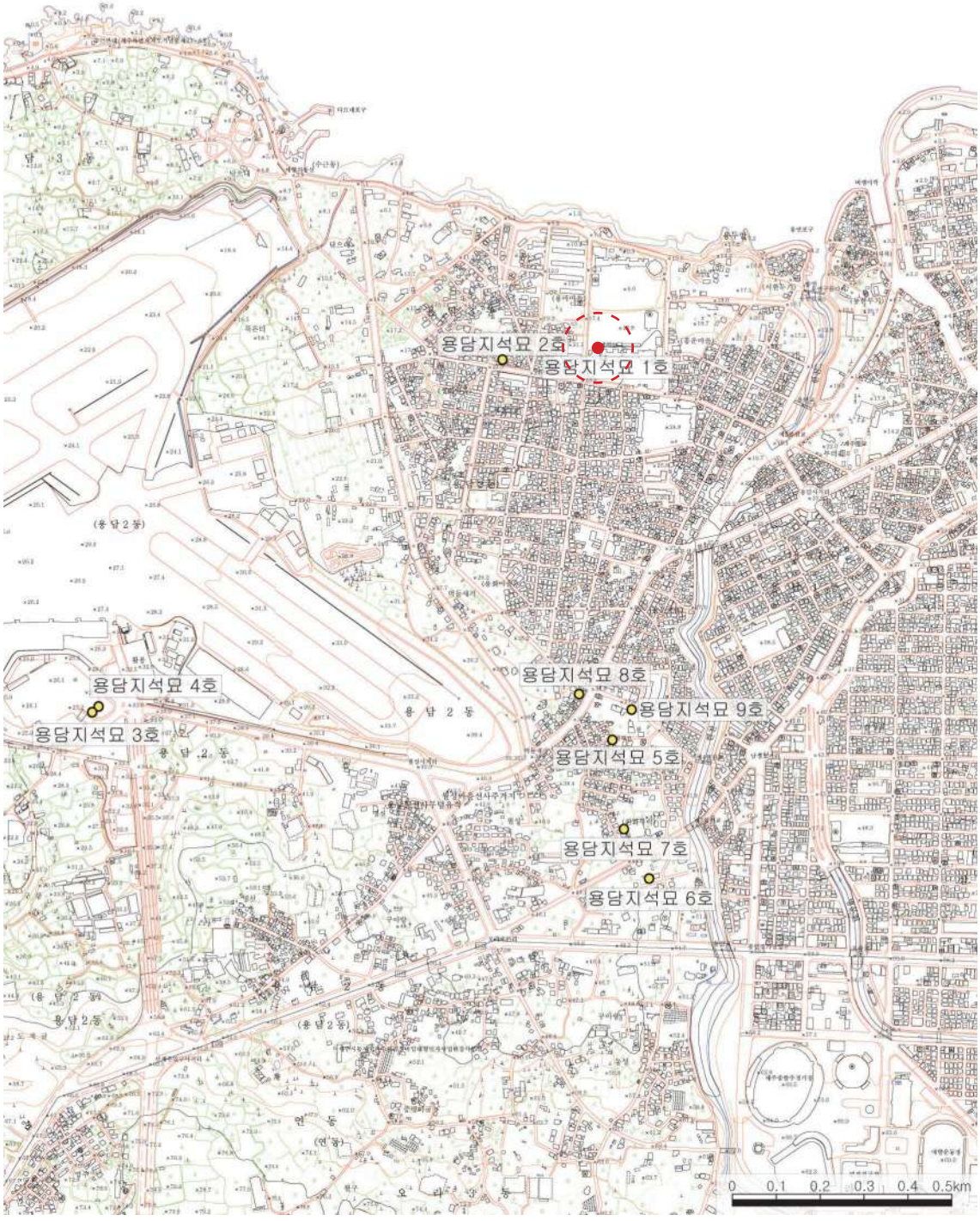
| 사진 1-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1호(서에서) |



| 사진 1-④ 2002년 용담동 지석묘 1호(남에서) |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주 사대부고 학교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변에서의 직선거리는 약 260m이다. 지석묘는 남북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하며 서쪽이 개방되어 있고 주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일부 훼손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기념물 제2-1호 용담지석묘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장축 203cm, 단축 182cm, 두께83~116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까우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상석의 상 · 하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하부는 중앙부가 15cm 가량 움푹 들어간 단면 아치형이다. 상석의 측면은 밑에서 1/2가량(40m 내외)을 치석하였다. 상석의 하부 공간은 동-서 190cm, 남-북 160cm이며 남서쪽이 개방되어 있다. 개방부는 높이 78cm, 좌우 121cm이다. 지석은 총 5개로 3매의 장방형 판석과 2개의 장대석이 있다. 북쪽에 위치한 장대석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장대석 1번은 높이 78cm, 너비 153cm이며 두께는 계측되는 면까지는 62cm이다. 장대석 1번은 상석을 받치고 있지 않으며 끼움석이 이탈



도면 1-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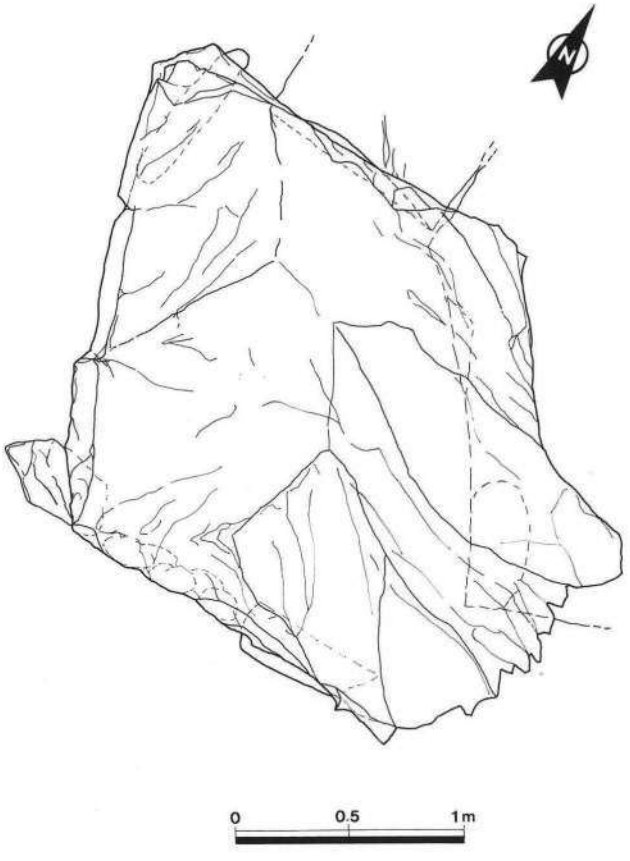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석 2번은 높이 71cm, 너비 165cm이다. 장대석 1번과 2번은 아래에서 위로 44cm가량 치석되어 있다. 판석재 지석은 남서쪽과 남쪽에 위치하며 판석 3번은 높이 75cm, 너비 64~73cm, 두께 10~12cm이다. 판석 4번은 높이 68cm, 너비 45~54cm, 두께 20~23cm의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판석 5번은 높이 70cm, 너비 66~70cm, 두께 10~17cm이다. 판석 3번과 5번은 내면을 치석하였으며 판석 5번은 개방부쪽인 측면까지 치석하였다. 지석은 5매가 남아 있으며 석실을 완전 밀폐할 경우 8~9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과 동쪽의 1 · 2번 지석은 깨어진 하나의 석재라면 판석재가 아닌 1개의 자연석의 일부를 치석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지석의 내면은 상석의 측면과 같이 밑에서 1/2가량 치석하였다. 남쪽의 지석 3 · 4번의 사이는 20cm 내외의 할석으로 채워져 있다. 지석묘 주변에는 지석묘와 동일한 재질의 석재가 5~6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석재들은 지석묘의 상석 또는 부자재일 것으로 보인다. 용담동 1호 지석묘는 독립되어 있는 지석묘가 아닌 군집을 이루거나 묘역이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사진 1-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1호(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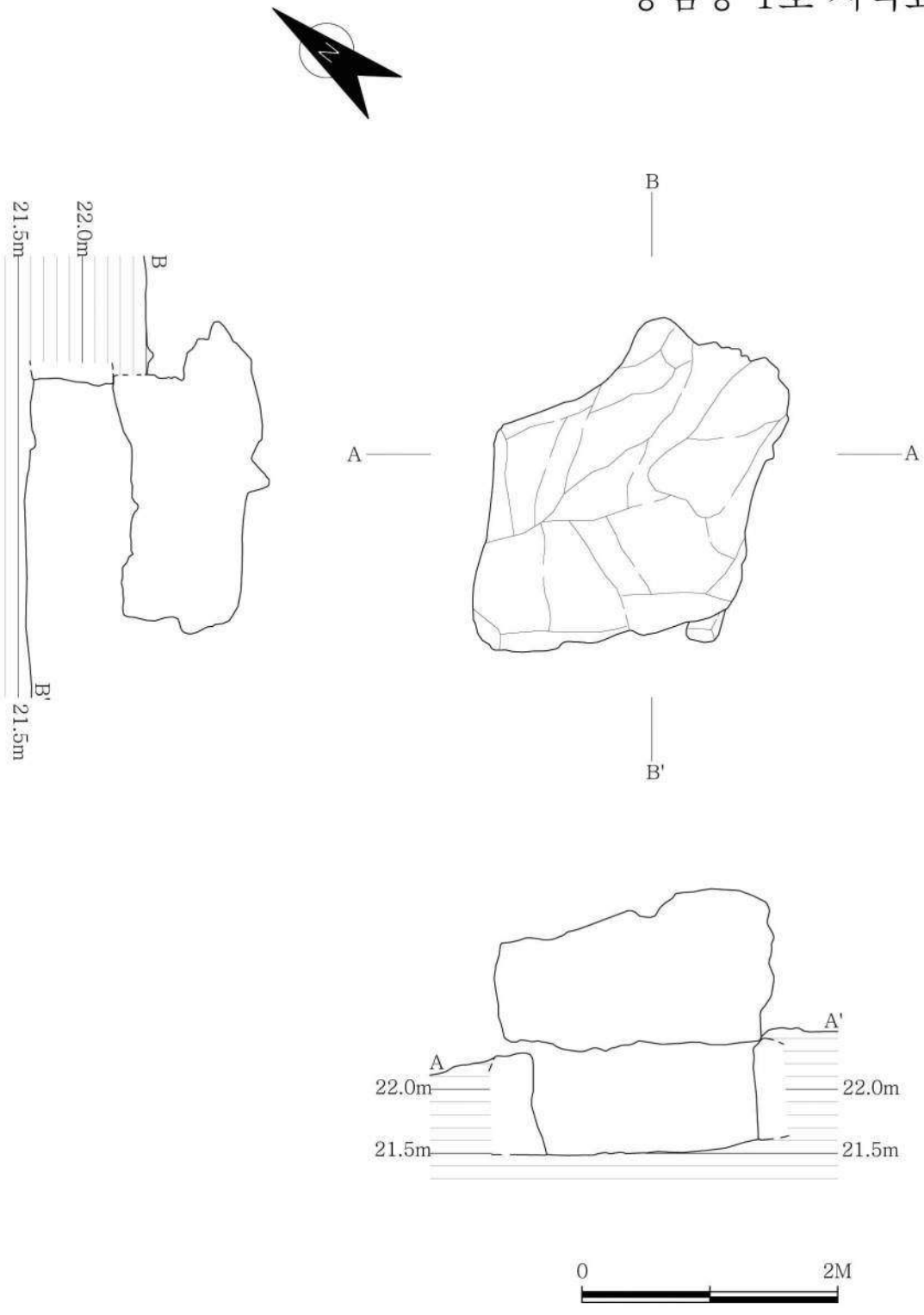


| 사진 1-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1호(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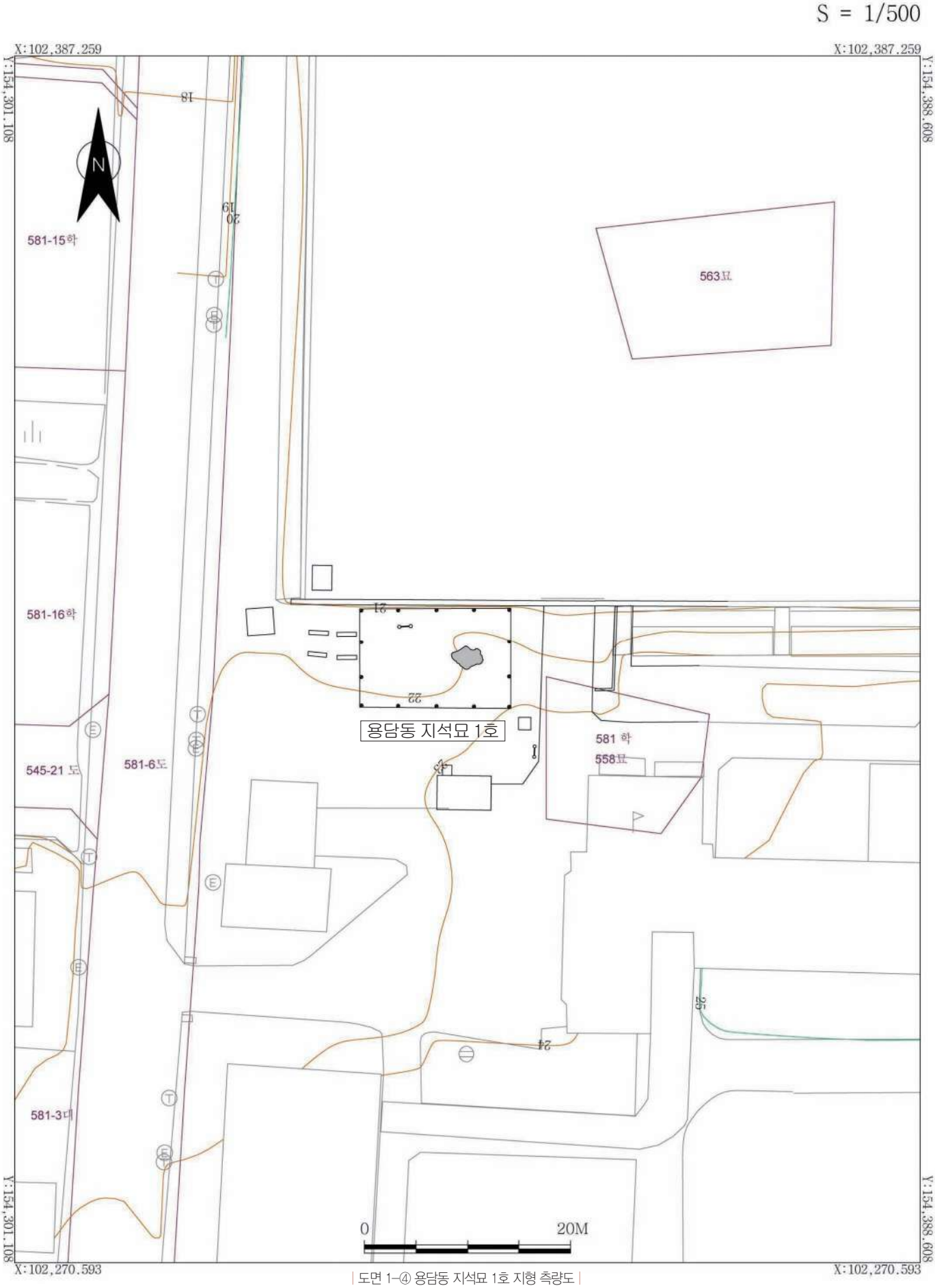


| 도면 1-② 용담동 지석묘 1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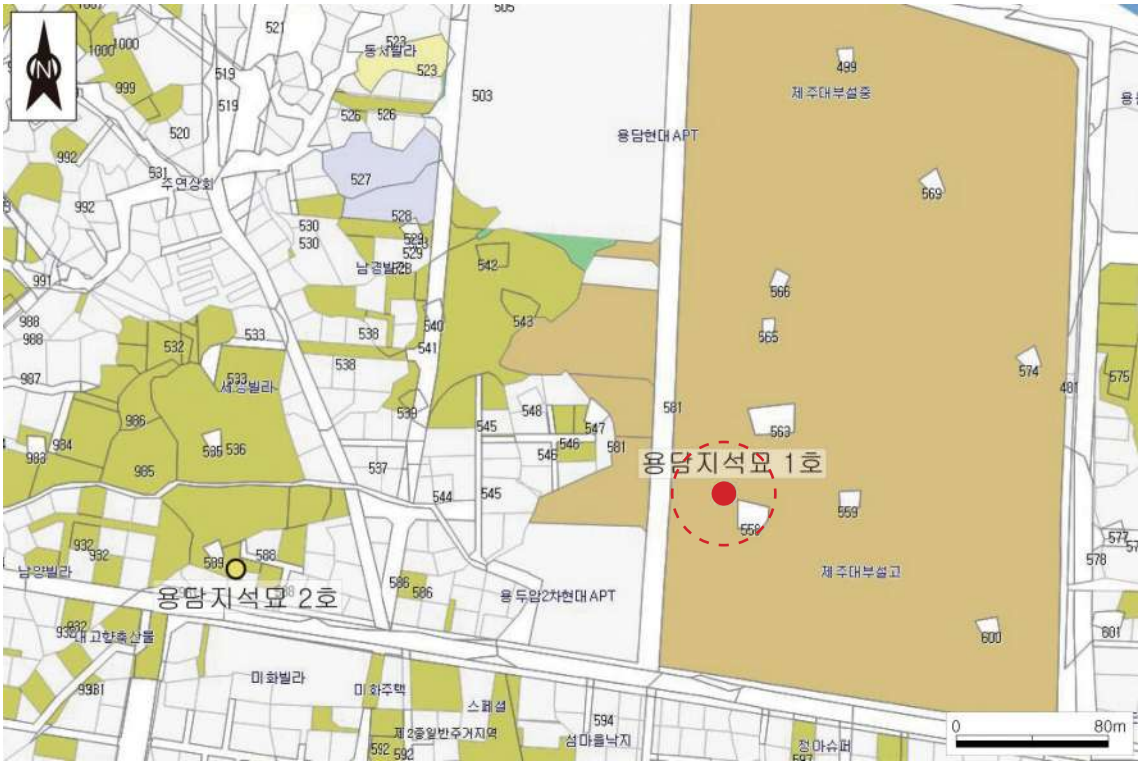
용담동 1호 지석묘



면 1-③ 용담동 지석묘 1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도면 1-④ 용담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도면 1–④ 용담동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⑧『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용담3동 581번지 구 제주대건물(현 제주사대부고) 북서쪽 구내에 있다. 학교 부지 내에 있어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 다만 지석묘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수목 제거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사진 1–① · ② 참조). 나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상석과 지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고등학교 부지 내 자리하고 있어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관리하는 부지임으로 별도 토지매입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용담동 지석묘 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588-6번지
3) GPS 좌표 : N 33°30′47.93″, E 126°35′22.24″
4) 해발고도 : 23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 사진 2-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2호 |



| 사진 2-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2호 |

제주시 용담동 650-1번지 ,구 제주대 건물 서쪽으로 150m 떨어진 주택가내에 있는데, 상석은 길이 155㎝, 폭 80㎝, 두께 45㎝로 상석 북, 서, 남쪽에 고인 판석상 지석은 각각 40×95×100㎝, 155×80×45㎝, 100×66×10㎝의 크기를 갖고 있다.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 도면 2-① 용담동 지석묘군 유적분포도 |

상석의 크기는 길이 155cm, 폭 124cm, 두께 45cm이다. 상석 상면의 상태는 굴곡이 매우 심하나 하면은 잘 다듬어져 있다. 지석은 상석의 동쪽을 제외한 북, 남, 서에 고여 있다. 지석은 모두 판석이다. 북, 남편 지석은 가로 150cm, 폭 90cm로 상석의 측면을 완전하게 1매로 고이고 있다. 서편 지석은 길이 100cm, 폭 76cm, 두께 25cm로 상석에서 이탈하여 누워 있는 상태이다. 지석의 크기와 고인상태로 볼 때 동편은 막음용 판석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상석밑에 고인 판석상 지석 3매로 석실을 만들고 시신을 지상에 안치한 후 막음돌을 사용하여 밀폐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서장축의 석실규모는 173cm, 폭 80cm, 높이 75cm이다. 언뜻 보아 북방식 지석묘와 유사하나, 상석 주위를 돌아가며 괸 판석상 지석들이 지상에 석실벽의 역할을 하는 지상위석형 고인돌로 판단된다. 용담동 6호 고인돌과 유사한 제주도형 고인돌이다. 작은 홈돌 1점이 석실 내부 부토에서 확인되었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주 사대부고 서쪽으로 240m 떨어진 밭에 있으며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350m이다. 지석묘 주변에는 일반 주택이 있어 평평한 지형이나 주변지형을 보면 남에서 북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제주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62cm, 단축 124~97cm, 두께 23~50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단면은 장방형이며 상석의 아랫면만 치석하고 나머지는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지석묘 하부의 동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면에 지석이 남아 있다. 북쪽 지석은 높이 75~89, 너비 125cm, 두께 34~48cm이며, 남쪽 지석은 높이 131cm, 너비 60~80cm, 두께 25~28cm이다. 남북 지석의 내면과 동쪽 입구 측면은 치석되어 있으며 지석간의 간격은 68~80cm이다. 서쪽 지석은 높이 70cm, 너비 85cm, 두께 35~40cm이며 막음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의 하부에는 지석의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한 30cm 내외의 보강석이 4개 확인된다. 지석묘 내부에는 잡석이 쌓여있다. 지석묘가 있는 용담3동 588-4번지 집 돌담 하부에서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2개가 확인된다.



| 사진 2-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2호(서에서) |



| 사진 2-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2호(남동에서) |



| 사진 2-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2호(위에서) |



| 사진 2-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주변 석재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문화유적 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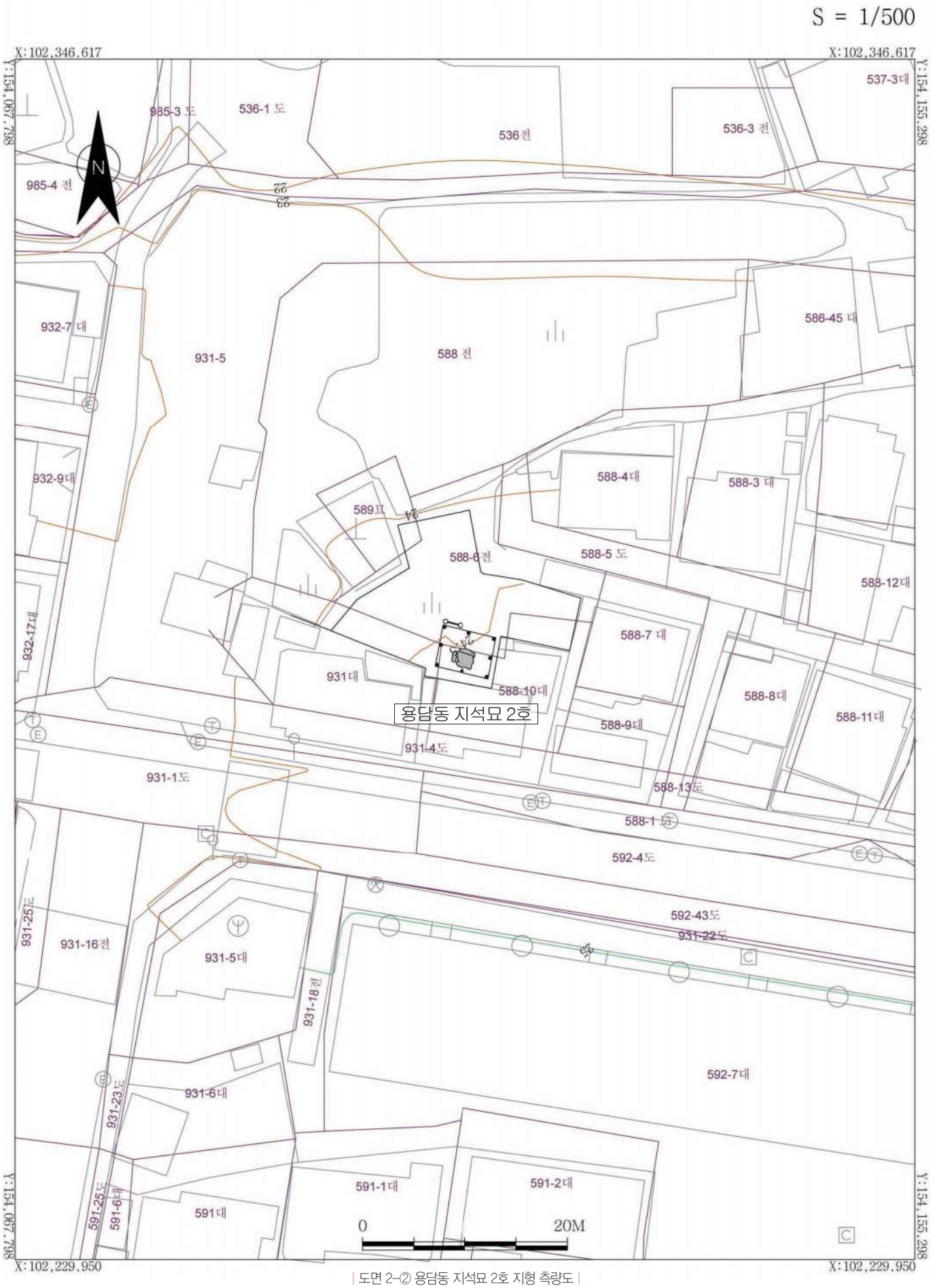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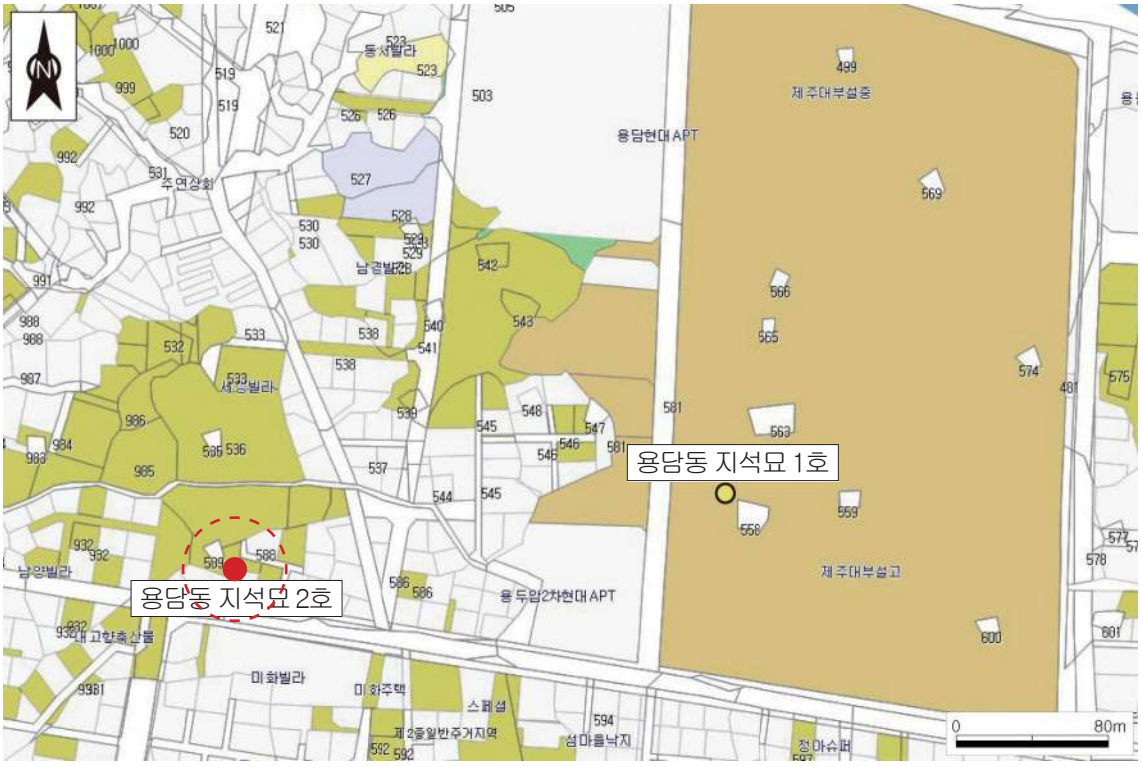
이 지석묘는 제주시 용담3동 588-6번지에 있으며 도지정기념물 제2-2호이다. 현재 보호책이 둘러져 있으며 북서쪽에 나무 한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지석묘는 밭과 주택 사이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보호책은 지석묘에 너무 근접해 있어 관람에 지장을 준다(사진 2-④ · ⑤ 참조). 지석묘 관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설치하고 보호책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석묘 보존을 위해 주변의 나무는 제거해야 한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 민가(용담동 931, 588-10, 588-7)의 확장을 막아야 하며 지석묘가 자리한 588-6번지(229㎡)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도면 2-② 용담동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도면 2-③ 용담동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3. 용담동 지석묘 3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642-3번지(공항주차장)
3) GPS 좌표 : N 33°30′18.84″, E 126°35′40.40″
4) 해발고도 : 28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원래 제주시 용담동 751번지 속칭 먹돌생이에 있었던 고인돌로 공항부지 확장시에 이전, 복원되었다. 길이 285㎝, 폭 205㎝, 두께 35㎝로 할석상 지석이 네 군데 고여 있는 상석 윗면에서 성혈이 1개 확인되었다.



| 사진 3-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3호 |



| 사진 3-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3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공항부지 확장시 공항 앞의 공터로 이전 복원하였다. 현재 복원된 고인돌에 대한 정확한 실측과 사진 자료가 없어, 원상대로 복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고인돌에 대한 자료는 1959년 김철준교수의「제주도 지석묘 보고자료」에서 살필 수 있다. 논문에 나오는 도면 자료에 의하면 상석의 크기는 길이 285cm, 폭 205cm, 두께 35~50cm 이다. 현재 상석 하단에 판석상 지석이 네 군데 고여 있다. 상석 윗면에서 성혈 1개가 확인되었다. 현재 복원상태의 고인돌은 전형적인 기반식 고인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고인돌 형식 중 지하에 시신을 매장하는 제2유형의 고인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고인돌은 옹포리 고인돌, 신례리 고인돌이 있다. 제주도 고인돌의 형식변천으로 보면 대체로 이른 시기의 고인돌에 속한다. 고인돌 측면의 치석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두께가 매우 얇은 것으로 보아 채석장에서 미리 치석하는 과정에서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원래 있던 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조질무문토기 계통으로, 현재는 곽지리식토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 사진 3-③.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남에서) |



| 사진 3-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위에서) |



사진 3-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 지석



사진 3-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3호 성혈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현재 공항 주차장에 용담동 지석묘 4호와 같이 이전 · 복원 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48, 단축 228cm, 두께 좌 · 우측 40~50cm, 중앙 20cm이다. 상석의 남쪽 일부는 깨어진 것으로 보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석의 단면은 좌 · 우측이 두텁고 중앙부가 살짝 들린 아치형이며 상석 아랫면은 치석하지 않은 자연면을 이용하였다. 상석의 윗면 남서쪽에서 7cm 가량의 성혈이 1개 확인되며 서쪽에는 상석을 깨기 위한 정자국이 7개가 남아 있다. 지석은 판석 4매와 할석 2개, 총 6개가 확인되지만 공항 확장시 아무런 조사 없이 이전 · 복원되어 원상대로 복원하였는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①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제주공항 주차장에 있으며 도지정기념물 제2-3호이다. 현재 용담동 지석묘 4호와 함께 주차장에 이전 · 복원되어 있다(사진 3-③ 참조).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어 보존에는 문제가 없다.



| 도면 3-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3-② 용담동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4. 용담동 지석묘 4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4(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642-3번지(공항주차장)
3) GPS 좌표 : N 33°30′18.84″, E 126°35′40.40″
4) 해발고도 : 28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앞서의 고인돌과 함께 제주시 용담동 755번지에 있다가 이전된 것이다. 길이 275㎝, 폭 212㎝, 두께 55~75㎝로 괴석상 지석이 네 군데 고여 있다.



| 사진 4-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4호 |



| 사진 4-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4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고인돌은 원래 공항 동편, 용담동고인돌 3호 서편에 자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일대는 원래 상당히 많은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공항을 동편으로 확장하면서 이곳으로 이전 복원한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에 대한 자료는 1959년 김철준교수의 「제주도 지석묘 보고자료」에서 살필 수 있다. 논문에 나오는 도면 자료에 의하면 상석의 크기는 길이 275cm, 폭 212cm, 두께 55~75cm이다. 현재 상석 밑에 괴석상 지석 4매로 고여 있는 상태이다. 원상의 고인돌이나, 현재 복원상태의 고인돌도 모두 전형적인 기반식 고인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고인돌 형식중 지하에 시신을 매장하는 제2유형의 고인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고인돌은 옹포리고인돌, 신례리고인돌이 있다. 제주도고인돌의 형식변천으로 보면 대체로 이른 시기의 고인돌에 속한다. 이곳 용담동 '먹돌생이' 일대의 고인돌은 대부분 상석의 지석상태가 거의 없는데 반해 상면이 매우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고인돌 측면의 치석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두께가 매우 얇은 것으로 보아 채석장에서 미리 치석하는 과정에서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원래 있던 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조질무문토기계통으로, 현재는 곽지리식토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현재 공항 주차장에 용담동 지석묘 3호와 같이 이전 · 복원 되어 있다. 상석의 북동쪽 일부는 깨어진 것으로 보이며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석의 측면은 치



도면 4-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석이 잘되어 있으며 후대 정자국이 상면에 4개, 측면에 2개 확인된다. 상석의 아랫면은 치석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이다. 상석 아래 할석 4개를 지석으로 하여 기반식으로 복원하였지만 공항 확장시 아무런 조사 없이 이전 · 복원되어 원상대로 복원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사진 4-③.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남에서) |



| 사진 4-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위에서) |



| 사진 4-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동에서) |



| 사진 4-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4호(서에서) |

참고문헌

①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도면 4-② 용담동 지석묘 4호 지적 현황도

이 지석묘는 제주공항 주차장에 있으며 도지정기념물 제2-3호이다. 현재 용담동 지석묘 4호와 함께 주차장에 이전 · 복원되어 있다(사진 4-③ 참조).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어 보존에는 문제가 없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용담동 지석묘 5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사적 제522호(2012.05.18)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704-1번지(전), 2704-17번지
3) GPS 좌표 : N 33°30′17.58″, E 126°35′32.52″
4) 해발고도 : 39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앞서의 발굴한 고인돌 북쪽으로 100m 떨어진 제주시 용담동 2704-1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주택가 골목길 귀퉁이에 있다. 상석은 길이 320㎝, 폭 255㎝, 두께 40~70㎝로 장축은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지석으로 상석이 들린 북쪽에 길이 49~70㎝, 폭 37~40㎝, 두께 10~12㎝의 판석상 지석을 3매 고였고 남쪽에는 길이 35~40㎝, 폭 25~35㎝의 판석으로 괴석을 3매 고였다. 상석 윗면에 7개의 성혈이 보인다.



| 사진 5-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5호 |



| 사진 5-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5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현 서문파출소 뒷편 50m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은 길이 320cm, 폭 255cm, 두께 40~70cm로 장축은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지석은 모두 6매로 되어 있다. 북쪽 상석 3매의 길이는 49~70cm, 폭 37~40cm, 두께 10~12cm의 판석상 지석이 고여 있고 남쪽에는 길이 35~40cm, 폭 25~35cm의 천석과 괴석이 3매 고여 있다. 북쪽 지석 모두가 남쪽 부분의 지석보다 높아 북쪽으로 들리워져 있다. 들리워진 부분은 원래부터 지석 대신 막음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석 윗면에 7개의 성혈이 보인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주도 용담2동 2704-1, 2704-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200m 이격되어 있으며 한천에서 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곳이다. 현재 마을 내 도로 옆 공터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용담

동유적과 함께 사적 제5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석묘 주변에는 일반 주택이 있으며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주변의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20cm, 단축 250cm, 두께 50~87cm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제형, 단면은 아치형이며 상석의 남쪽과 동쪽이 땅에 닿아 있다. 상석의 상 · 하면은 자연면을 이용하였으며 성혈 10개가 확인된다. 지석은 5개가 확인된다. 동쪽에 있는 것부터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1번 지석은 높이 35cm, 너비 43cm, 두께 22cm이며 2번 지석은 높이 15cm, 너비 39cm, 두께 19cm이다. 1 · 2번 지석은 상석과 같은 재질의 할석이다. 3번 지석은 높이 36cm, 너비 72cm, 두께 15cm, 4번 지석은 높이 40cm, 너비 68cm, 두께 14cm, 5번 지석은 높이 40cm, 너비 46cm, 두께 11cm이다. 3 · 4 · 5번 지석은 조면암질 현무암 판석으로 치석한 후 사용하였으며 위쪽은 얇고 아래쪽이 두텁게 만들어졌다. 상석의 남쪽 두께는 87cm로 북쪽 두께와 약 30cm 가량 차이를 보이며 상석의 상면이 수평을 이루었을 경우에도 일부 땅에 맞닿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5–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5호(남에서)



사진 5–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5호(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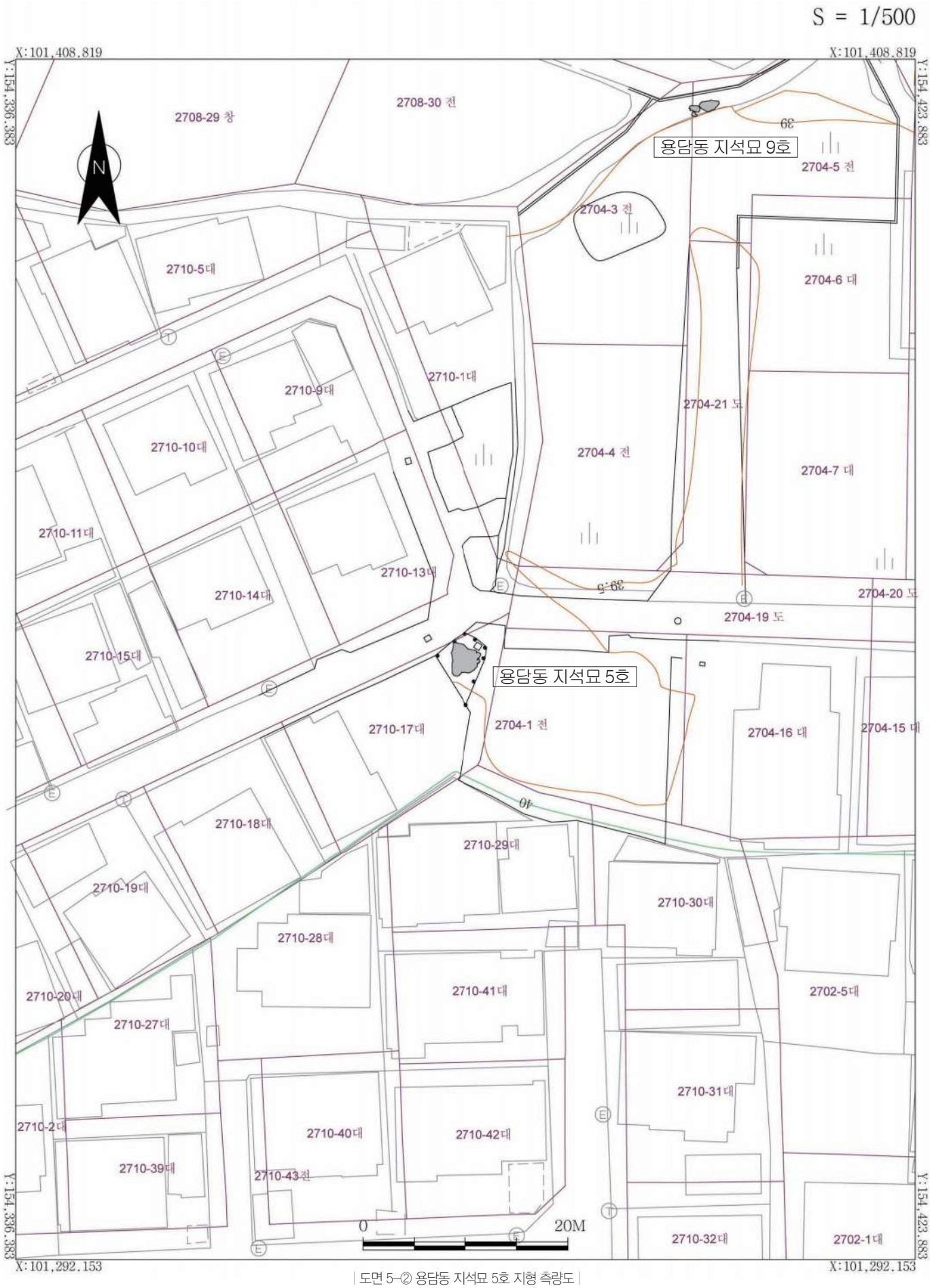
사진 5–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5호(동에서)



사진 5–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5호 성혈



| 도면 5-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5-② 용담동 지석묘 5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용담2동 2704–1번지, 2704–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용담동 유적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호책으로 보호되고 있다. 지석묘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보호책이 지석묘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관람에 방해가 된다(사진 5–④,⑤ 참조). 안내판은 다른 지석묘와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지석묘와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



| 도면 5–③ 용담동 지석묘 5호 지적 현황도 |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용담동유적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 용담동 지석묘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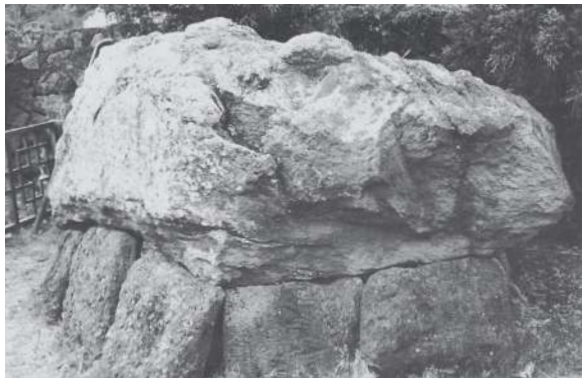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6(1971.08.26)
사적 제522호(2012.05.18)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623-10번지
3) GPS 좌표 : N 33°30′06.54″, E 126°35′36.05″
4) 해발고도 : 46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용담동 2631-1번지에 있으며, 1959년 조사할 때 오라리 4호 고인돌로 소개된 것으로 상석은 길이 315㎝, 폭 217㎝, 두께 105㎝의 정남북의 장축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석은 현재 11매의 잘 다듬은 높이 68~90㎝, 폭 39~74㎝의 판석으로 상석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병풍처럼 고여 있는 바, 제주도 특수형이라고 할 만한 고인돌이다. 매장부는 1959년 조사시, 길이 160㎝, 폭 100㎝의 장방형의 테두리를 괴석으로 돌리고 바닥면에 자갈돌을 깐 시설이 지석으로 이루어진 석실 한가운데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 사진 6-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6호 |



| 사진 6-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6호 |



| 사진 6-③. 2002년 용담동 지석묘 6호(남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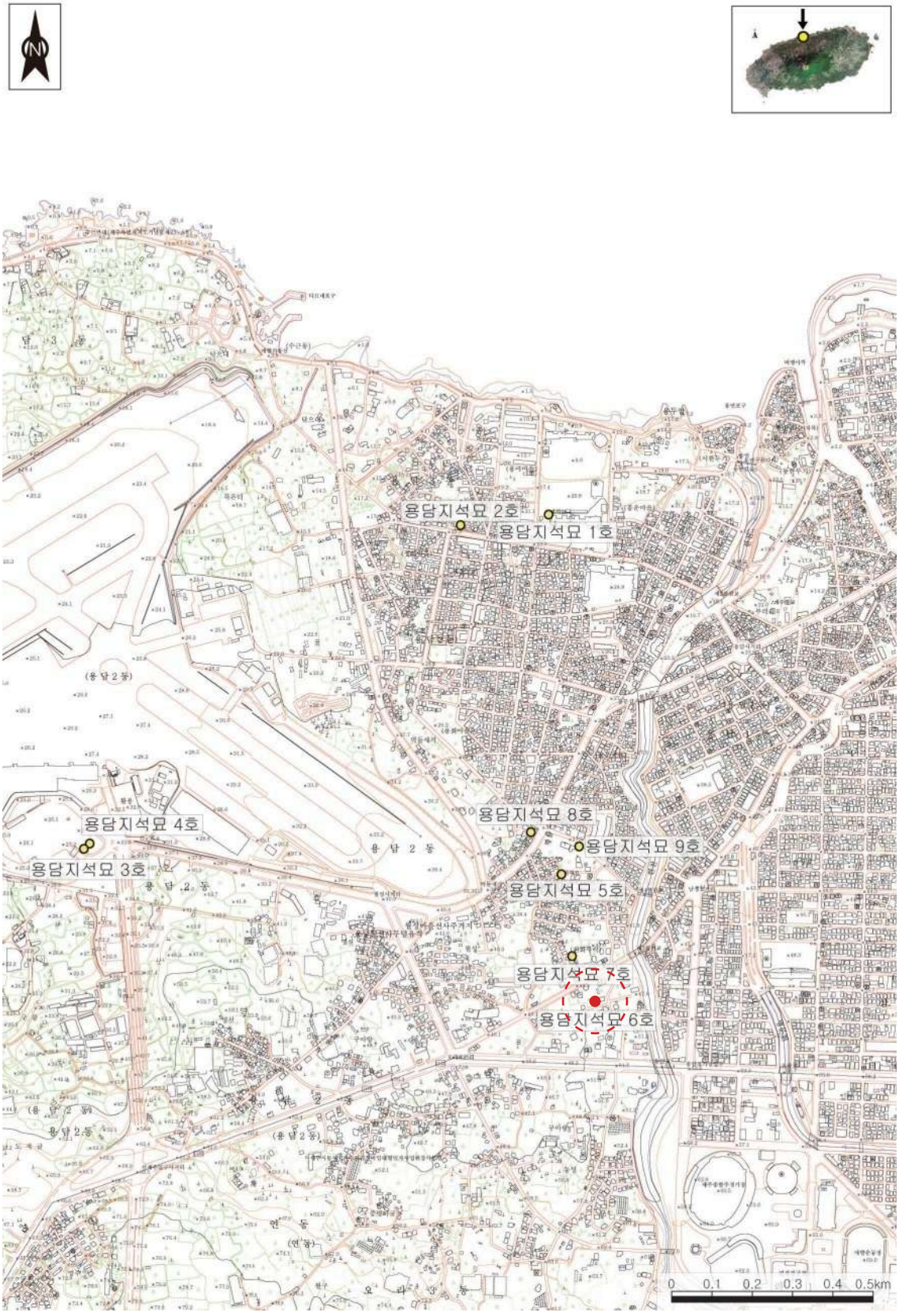
| 사진 6-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6호(남에서)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은 독특하고 대표적인 형식의 제주도 고인돌로 알려져 있다. 이 고인돌은 평지에 축조되어 있다. 상석이 놓인 방향은 대체로 정남북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315cm, 폭 217cm, 두께 105cm이다. 지석은 현재 11매의 잘 다듬은 높이 68~90cm, 폭 39~74cm의 판석으로 상석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병풍처럼 고여 있어 제주도 특수형인 지상위석식 고인돌이다. 1959년 조사시 하부매장시설은 당시 지표를 길이 160cm, 폭 100cm의 장방형 토광을 파서, 바닥은 자갈돌을 얇게 깐 다음, 토광테두리를 괴석으로 돌린 석곽으로 조사되었다. 지석묘 주변에서 확인된 유물은 곽지리식토기들이다. 그러나 이 토기의 저부형태나 구연부 형태는 일부 삼양동식토기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지상 원형 석곽내부에서 확인된 유물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다. 이 고인돌은 사자매장부를 지상에 두고 지석자체가 석실을 구성하는 제주도 말기 단계의 지상위석식 고인돌이다. 이청규교수는 기원후 3세기경으로, 김철준교수는 4-5세기경의 고인돌로 본 바 있다. 그러나 이 고인돌은 현재 지석 밑이 석곽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상석이 내려 앉을 우려가 높다. 상석이 내려 앉아 묘의 구조 자체가 변하기 전에 정확한 실측조사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사후 안정되게 동일장소에 원상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주시 용담2동 262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500m 이격되어 있으며 한천에서 서쪽으로 1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전형적인 지상위석식 지석묘로 제주도식으로 불리는 것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단면형태는 아치형이다. 상석의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도면 6-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이용하였으며 아랫면은 살짝 들린 아치형이다. 하부구조는 지석만 확인되는데 현재 현무암 판석 11매가 확인되며 원래는 15매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남쪽 지석묘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지석의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판상의 지석은 측면과 지석묘 상석과 맞닿는 부분을 치석하였다. 그리고 7번과 10번 지석은 조면암질 현무암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10번 지석은 상석이 모서리부분이어서 지석의 외면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 표 1. 용담동 지석묘 6호 지석 재원표 |

순번	지석명	높이(cm)	너비(cm)	두께(cm)	설명	비고
1	지석1	35	50	7~10	판석형	정면입구
2	지석2	51	60	9~12	판석형	
3	지석3	70	66	11	판석형	
4	지석4	68	62	16	판석형	정면입구
5	지석5	57	63	11	판석형	정면입구
6	지석6	63	73	11	판석형	
7	지석7	53	70	9	판석형	
8	지석8	61	73	11	판석형	
9	지석9	56	52	10	판석형	
10	지석10	61	60	8	판석형	
11	지석11	64	65	8~16	판석형	정면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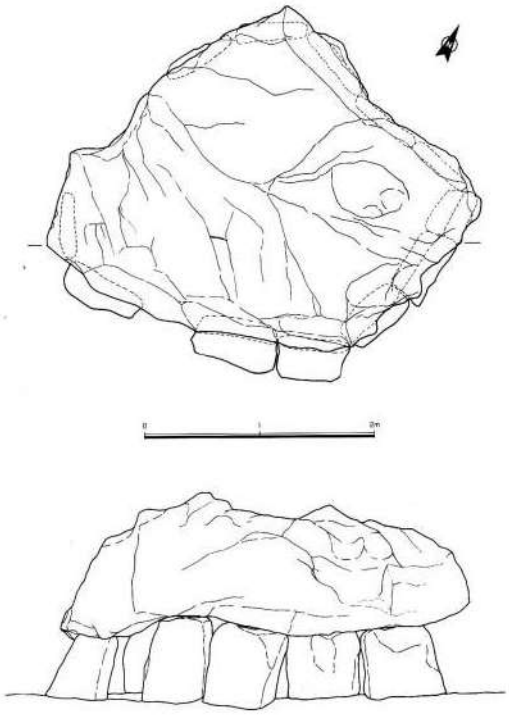
| 사진 6-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6호(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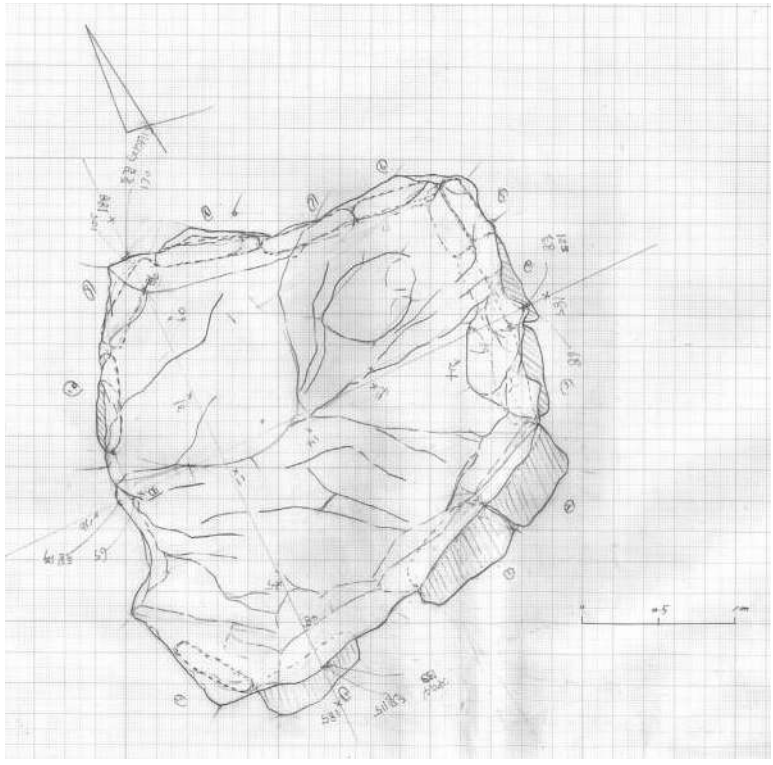
| 사진 6-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6호 석실세부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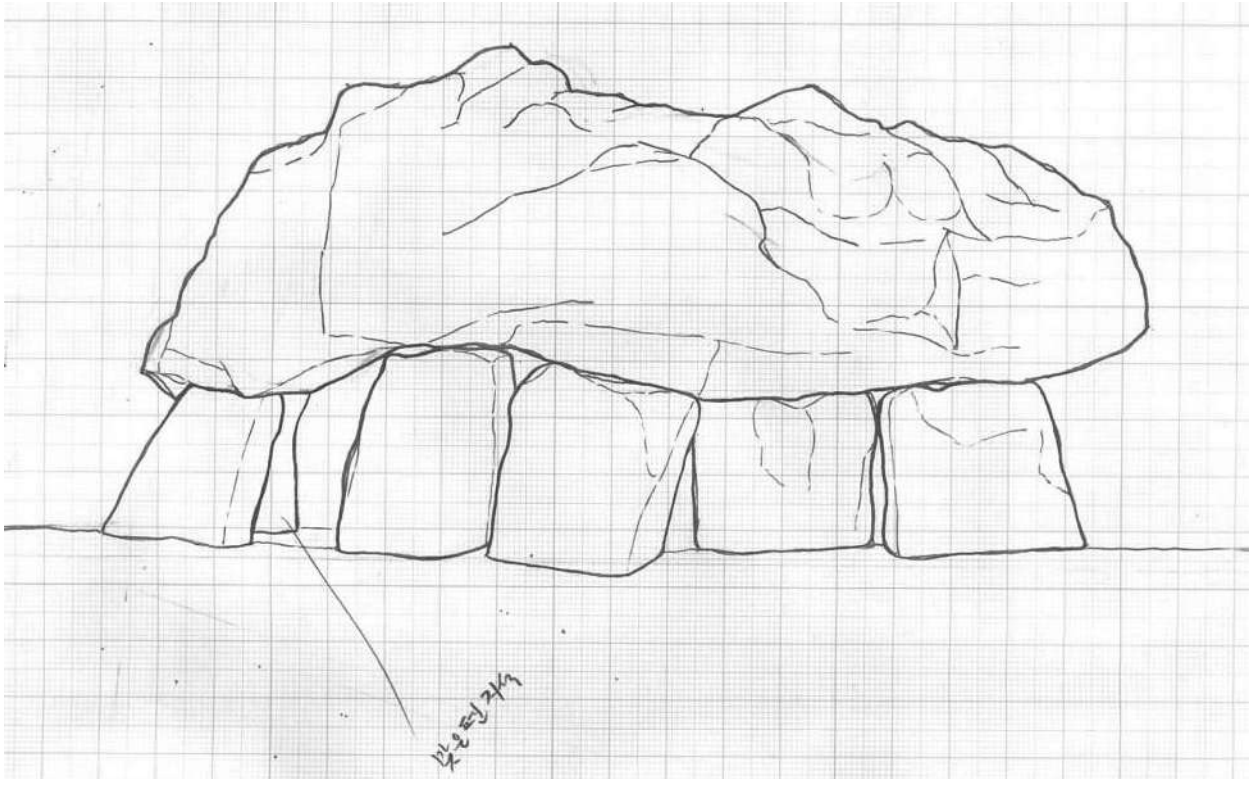
①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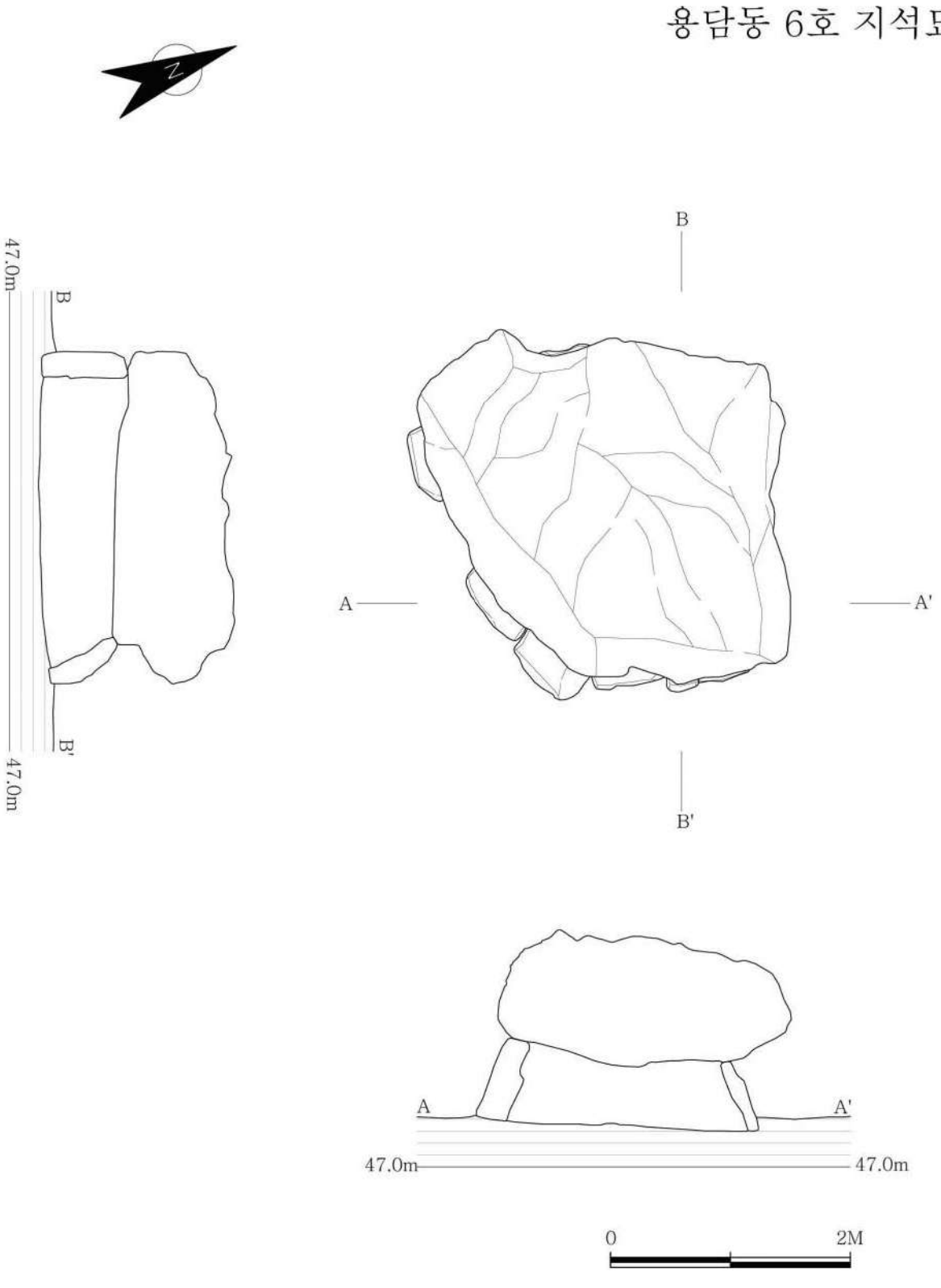
도면 6-② 용담동 6호 고인돌 실측도면



도면 6-③ 용담동 지석묘 6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도면 6-④ 용담동 지석묘 6 입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도면 6-⑤ 용담동 지석묘 6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도면 6-⑥ 용담동 지석묘 6호 지적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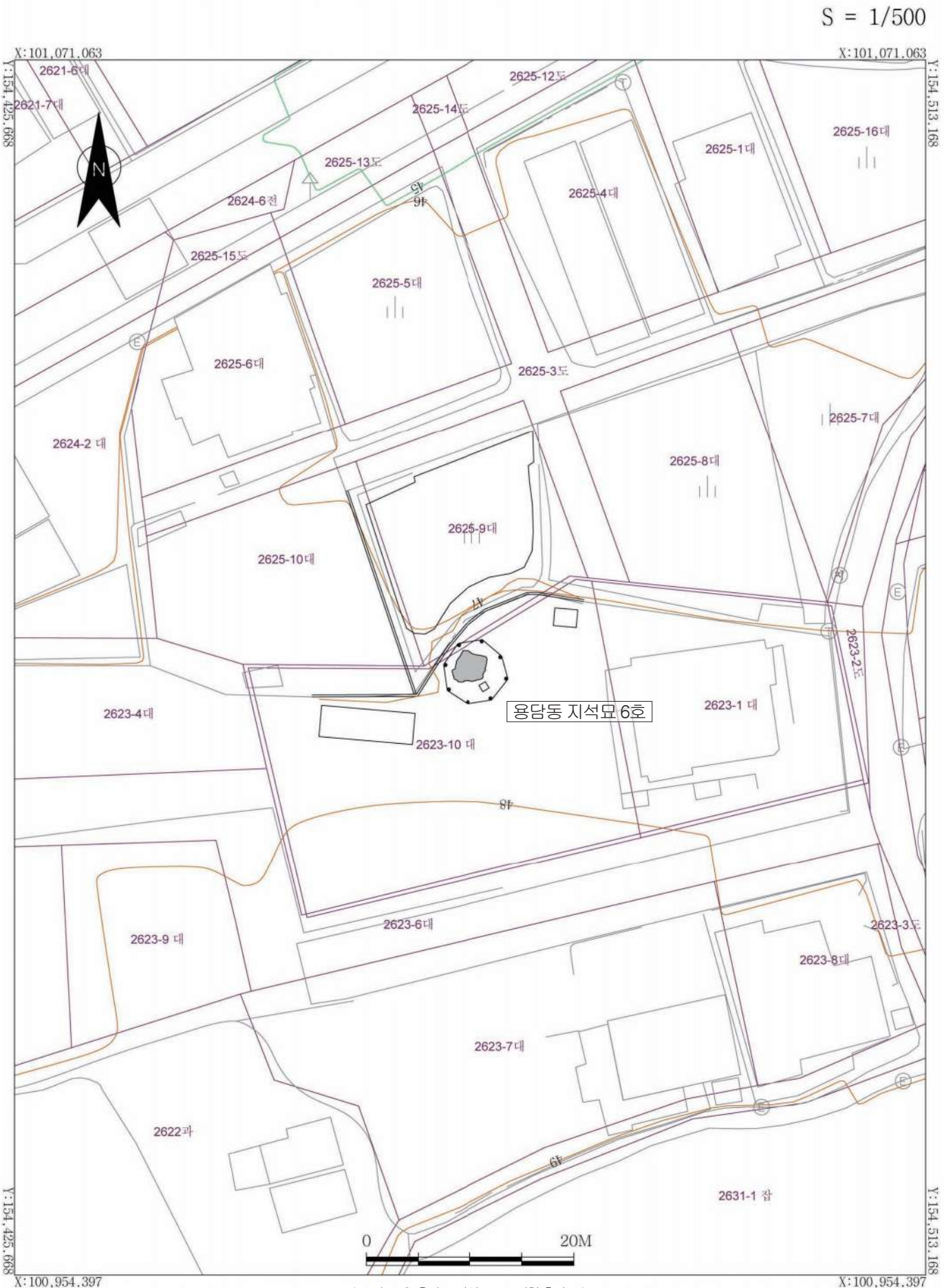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용담2동 2623-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용담동유적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개인 주택지 안에 있으며 보호책으로 보호되고 있다(사진 6-④,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용담동유적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석묘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보호책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도면 6-⑦ 용담동 지석묘 6호 지형 측량도 |

7. 용담동 지석묘 7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5(1971.08.26)
사적 제522호(2012.05.18)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624-1번지
3) GPS 좌표 : N 33°30′09.93″, E 126°35′33.81″
4) 해발고도 : 44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용담동 2624-1번지 경작지에 위치하며, 1959년 김철준 교수가 1차조사한 바 있는 고인돌로 정식발굴조사는 1985년에 실시되었다. 고인돌의 북서쪽으로 근접해서 최근에 신축된 주택의 담장으로 주변의 유구 및 지형이 훼손되었으며 훨씬 오래전에 고인돌은 비탈면을 따라 담장방향으로 기울어져 서편 지석들이 쓰러지거나 아예 빠져 버렸다. 고인돌은 대략 3°내외의 남북고저의 경사면에 축조되었는데 이처럼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되는 방식은 제주도 고인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상석은 지하석곽시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남북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길이 323㎝, 폭 304㎝, 두께 78㎝의 규모로 원래 사다리꼴의 평면형태를 가졌을 것이나 서편일부가 후대에 깨어져 나갔다. 지석은 모두 두께 15~17㎝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돌을 이용하여 동서쪽에 각 3매씩 상석을 고였으나, 남쪽에는 판돌 1매가 고여 있지 않고 바깥에서 막아 세운 상태로 확인되었다. 북쪽은 지석이 없어 지하 매장부가 개방되어 있으나 원래는 다른 고인돌의 예를 보아 잡석 등으로 메꾸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시설을 살펴보면 당시 지표를 길이 172㎝, 폭 92㎝, 깊이 23~50㎝의 장방형 토광을 판 다음, 바닥에 잔돌을 깔고 벽에도 할석을 2, 3단 쌓아 석곽을 만들었는데, 그 위는 대체로 잔돌을 적석한 것으로 보인다. 석곽의 벽은 소량의 잡석으로 둘러져 있었으며, 바닥시설도 불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지표하 석곽은 1959년 일단 김철준 교수가 확인한 것을 30년이 지난 금번 조사에 의해 재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인돌 남쪽과 북서편에는 비교적 큰 할석이 일렬로 정연하게 둘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돌틈 사이에서 대패날도 발견되었는 바, 고인돌을 보호하는 의미의 호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인돌 동편으로 잡석과 무문토기편이 섞인 퇴적층이 지석상면 높이까지 다져져서 쌓여 올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후대의 유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고인돌 축조 당시 상석운반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7-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7호 |



| 사진 7-②. 1986년 용담동 지석묘 7호 |



| 사진 7-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7호(남에서) |



| 사진 7-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7호(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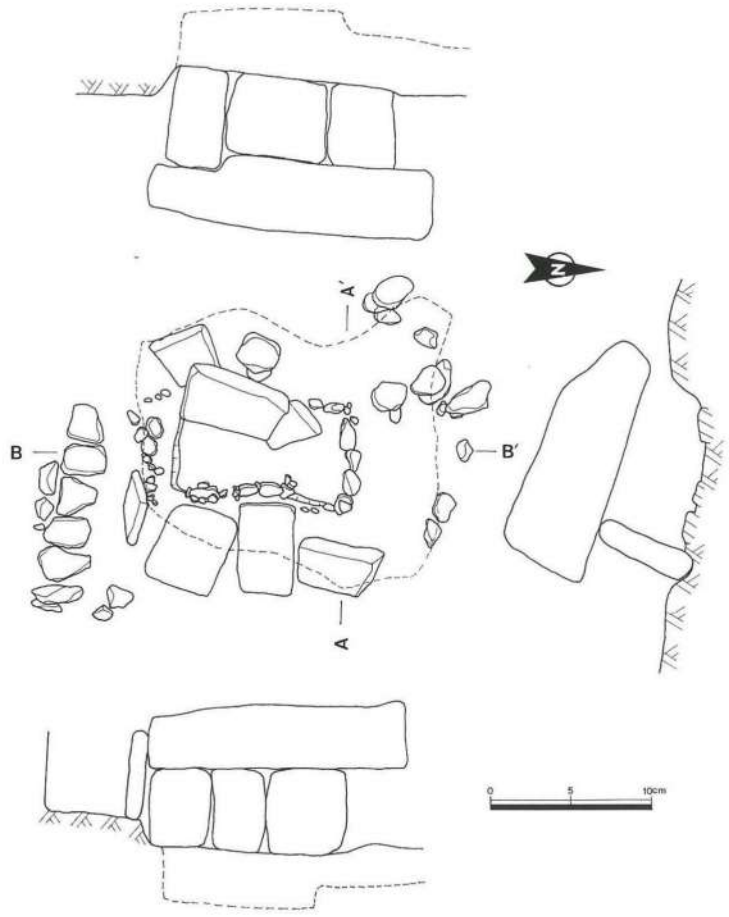
| 사진 7-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7호(동에서) |



| 사진 7-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7호(남에서) |



도면 7-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7-② 용담동 지석묘 7호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은 1959년에 1차 조사되었고 1985년에는 상석을 제거하고 하부 구조를 조사하였다. 제주도내에서 정식으로 조사된 최초의 예이다. 이 고인돌의 축조지형은 약 30° 내외의 남고북저의 경사면이고, 상석의 장축 방향은 정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323cm, 폭 304cm, 두께 78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원래 사다리꼴이었으나 후대에 서편일부가 깨어져 나갔다. 지석은 모두 두께 15~17cm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석을 이용하여 동서쪽에 각 3매씩 상석을 고이고, 남쪽에 판석 1매를 밖으로 막아 세운 상태로 확인되었다. 북쪽은 지석이 없어 지하매장부가 개방되었다. 하부 매장시설은 당시 구지표를 길이 172cm, 깊이 25~30cm의 장방형 토광을 판 다음 바닥에 잔돌을 깔고 깬돌을 2, 3단 쌓아 석곽벽을 만들었다. 그 위에 시신매장 후 잔돌을 적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석묘의 남쪽과 북서쪽에는 비교적 큰 할석으로 메꾸어져 있었고, 그 돌틈 사이에서 돌대팻날이 발견되었다. 고인돌 동편으로 잇대어 발견

된 높이 2m의 돌무더기는 고인돌 축조 당시 상석 운반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돌무더기 내부에는 적갈색토기편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 고인돌의 내부와 외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골아가리토기, 삼양동식토기, 곽지리식토기, 김해식토기 등이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1985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이 지석묘는 용담동 유적과 함께 사적 제522호로 지정되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400m 이격되어 있으며 한천에서 서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현재 지석묘는 발굴조사 후 복원되어진 것으로 상석의 규모는 장축 323cm, 단축 304cm, 두께 78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그리고 상석의 아랫면은 살짝 들린 아치형이다. 발굴조사 당시 지석은 7매였으나 현재 복원된 지석은 5매이다. 내부는 잡석으로 채워져 있으며 주변에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지석의 외면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①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 『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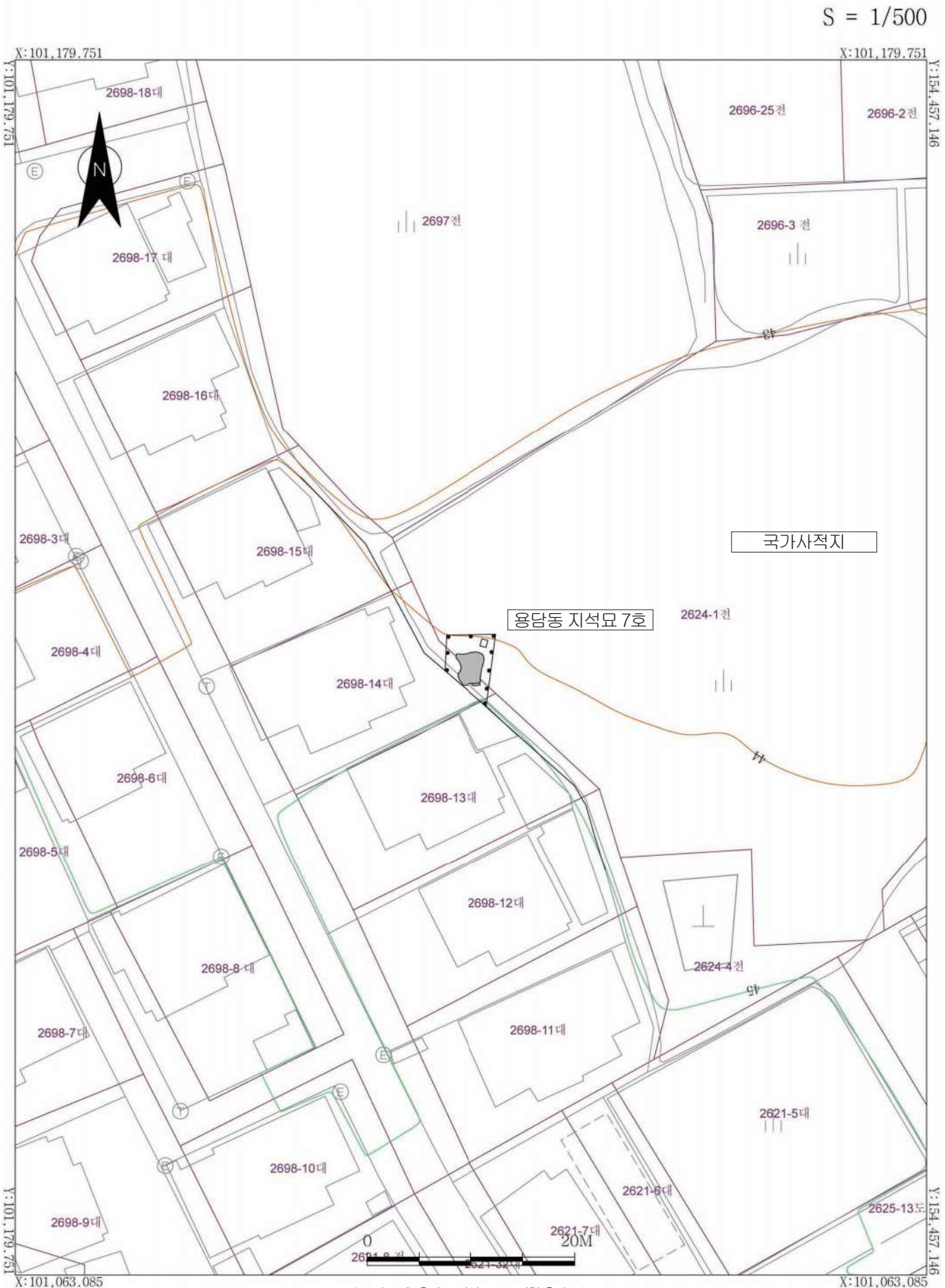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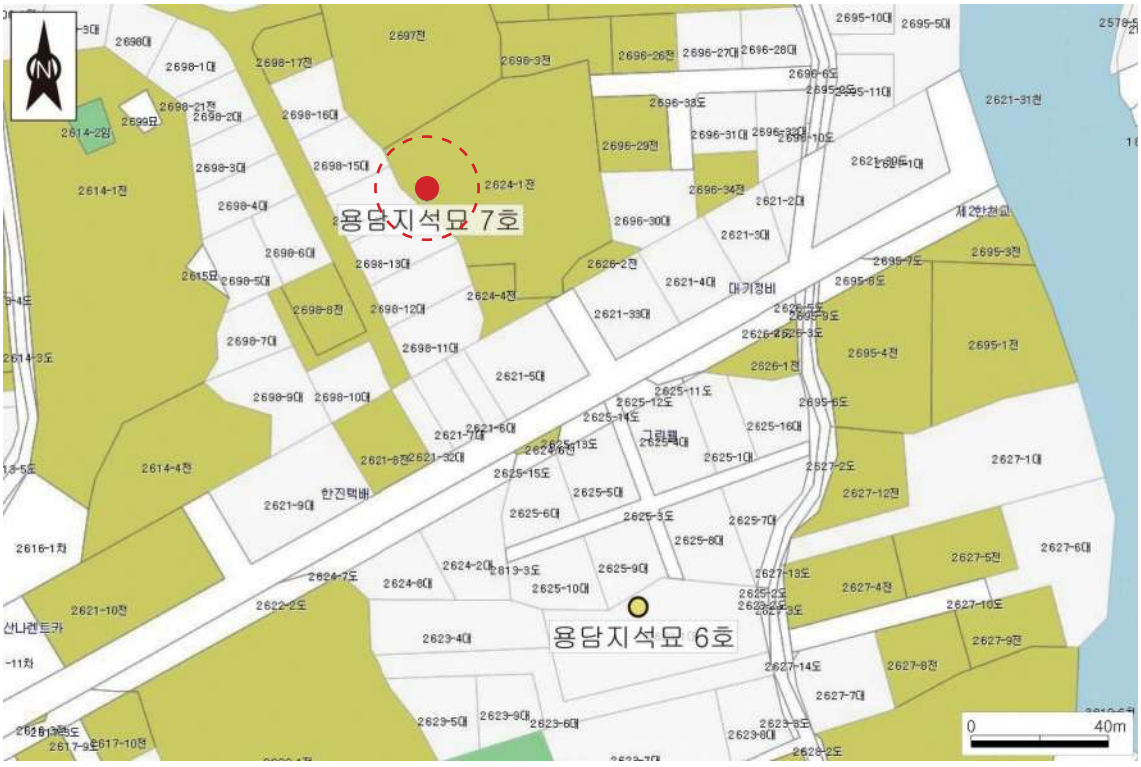
이 지석묘는 용담동 유적지 내인 용담2동 262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용담동유적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사진 7-④ · 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용담동유적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석묘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보호책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지석묘는 2015년도에 수립되는 용담동선사유적(사적522호)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보존과 활용방안이 사적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도면 7-③ 용담동 지석묘 7호 지형 측량도 |



도면 7-④ 용담동 지석묘 6호 지적 현황도

8. 용담동 지석묘 8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650-28번지
3) GPS 좌표 : N 33°30′20.62″, E 126°35′28.61″
4) 해발고도 : 3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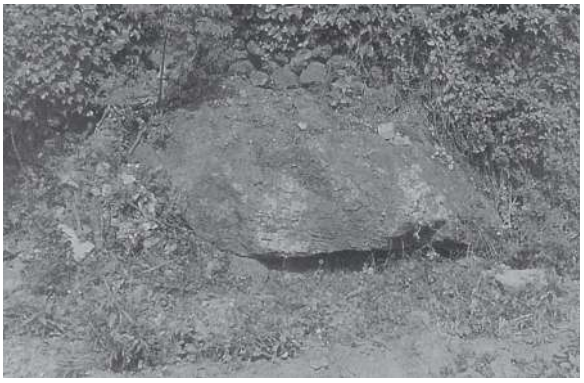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용담동 673-23번지의 주택 돌담에 묻혀 있으며 상석은 길이 272㎝, 폭 235㎝, 두께 55~72㎝로 장축은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확인된 지석은 상석의 서쪽에 길이75㎝, 폭 60㎝, 두께 10㎝의 판석상 지석과 복쪽에 길이 80㎝, 폭 35㎝, 두께 15㎝의 할석상 지석이 있으며 둘다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다. 또한 상석의 남쪽 안쪽으로 1매의 괴석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 사진 8-①. 1986년 용담동 지석묘 8호 |



| 사진 8-②. 1998년 용담동 지석묘 8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현 서문 파출소 앞 4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집 담장지 밑에 있어 상석의 평면모양과 담장 밑으로 들어간 부분의 지석 고임상태는 알 수 없다. 노출된 상석은 길이 272cm, 폭 235cm, 두께 35~72cm로 장축은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확인된 지석은 상석의 서쪽에 길이 75cm, 폭 50cm, 두께 10cm의 판석상 지석과 북쪽에 길이 80cm , 폭 35cm, 두께 15cm의 판석상 지석이 있으며 둘 다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다. 또한 상석의 남쪽 안쪽으로 1매의 괴석상 지석이 고여 있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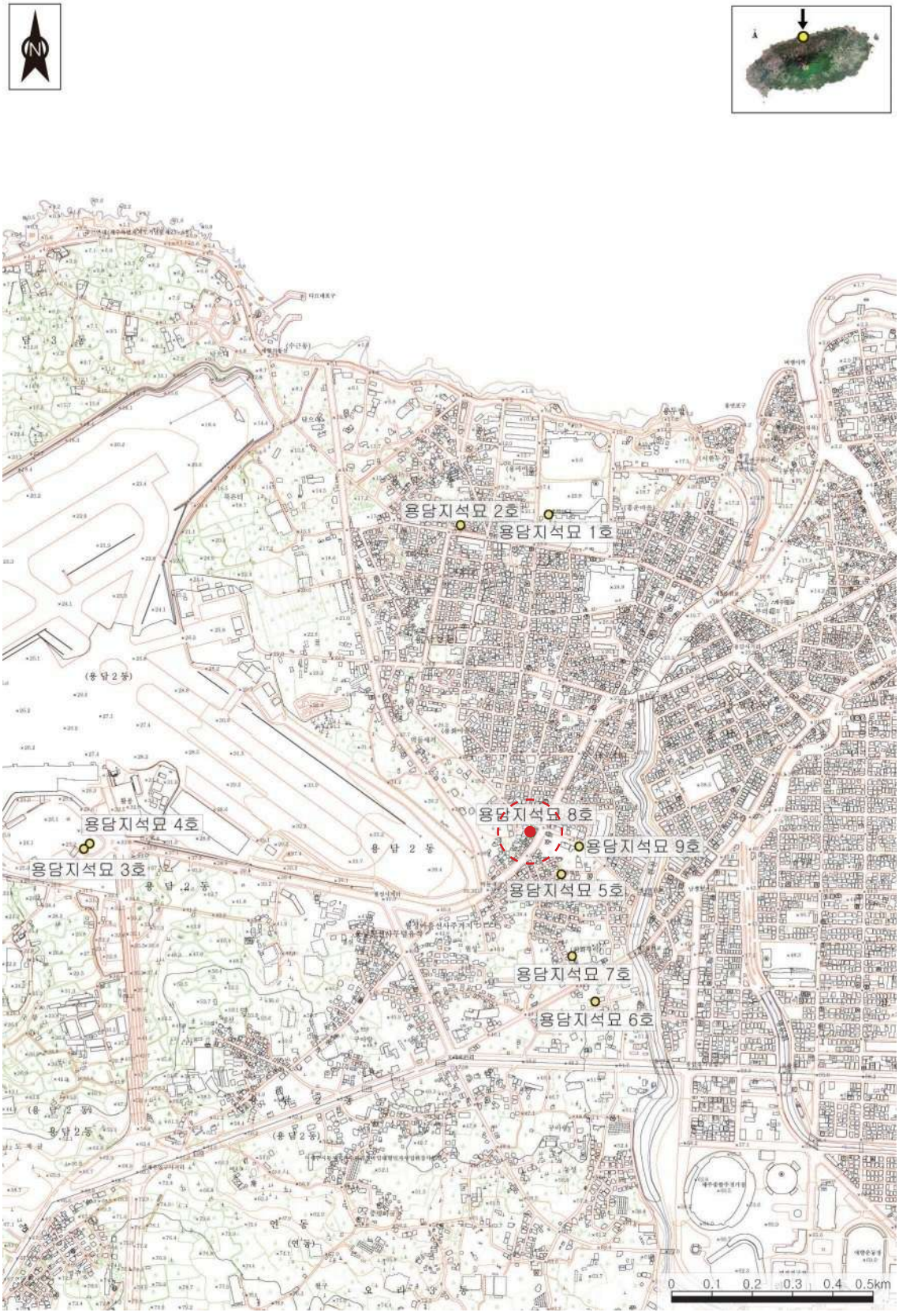


| 사진 8-③. 2005년 용담동 지석묘 8호(서에서) |



| 사진 8-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8호(서에서) |

제주도 용담2동 650-3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100m 이격되어 있고 한천에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곳이다. 현재 개인 주택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집 경계의 밭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밭담이 제



도면 8-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거되었거나 이동된 상태로 추정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43cm, 단축 204cm, 두께 40~72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은 아치형에 가깝다. 아랫면은 치석되었으며 북쪽은 땅에 닿아 있다. 지석은 남쪽에서 높이 40cm, 너비 71cm, 두께 11cm의 판석 1매가 확인된다.



| 사진 8-⑤. 2015년 용담동 지석묘 8호(남에서) |



| 사진 8-⑥. 2015년 용담동 지석묘 8호 지석 |

참고문헌

① 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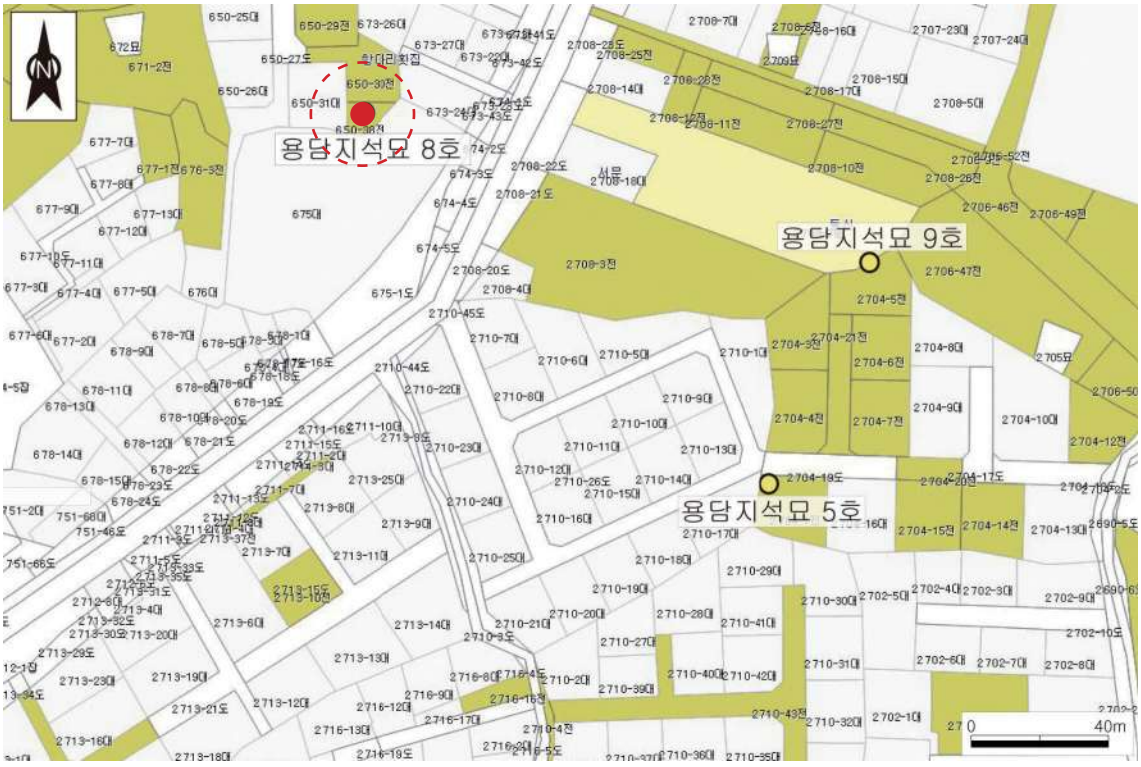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용담2동 650-28번지 개인주택 텃밭에 위치한다. 현재 밭 가장자리에 방치되어 있으며 풀로 덮여 있다(사진 8-④ · 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개인주택 안에 있는 관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석묘 주변 정비를 위한 학술조사와 토지매입이다.



도면 8-② 용담동 지석묘 8호 지적 현황도

9. 용담동 지석묘 9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908-2번지
3) GPS 좌표 : N 33°30′19.18″, E 126°35′33.33″
4) 해발고도 : 38m

나. 조사 내용

(1)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지석묘로 용담동 4호 지석묘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세워져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75cm, 단축 135cm, 23cm이다. 상석을 밭 가장자리로 밀어둔 것으로 보이며 세워진 상석 뒤에는 높이 34cm, 너비 61cm의 할석 2개가 확인된다. 그리고 주변에 석재가 모여 있

으며 지석묘가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석묘가 위치한 밭에는 다량의 무문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 사진 9-①.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 전경 |



| 사진 9-②.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위에서) |



| 사진 9-③.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남서에서) |



| 사진 9-④. 2015년 용담동 지석묘 9호 (동에서)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용담2동 1908-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밭 가장자리로 밀려있으며 주변에 석재가 산재해 있다(사진 8-③ · ④ · 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 지석묘는 경작 또는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밭 가장자리로 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석묘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지석묘가 위치한 밭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9-① 용담동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9-② 용담동 지석묘 9호 지적 현황도 |

10. 오라동 지석묘 1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7(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2190-3번지
3) GPS 좌표 : N 33°30′38.91″, E 126°35′38.49″
4) 해발고도 : 63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오라동 2489번지에 위치한 지석묘로 상석은 길이 250㎝, 폭 207㎝, 두께 30~40㎝이며 북서 방향으로 장축이 놓여 있다. 지석은 30x15㎝ 정도의 냇돌과 할석으로 세 군데 고여 있고 두 군데는 잔돌을 적석하여 고이고 있다.



| 사진 10-① 1986년 오라동 지석묘 1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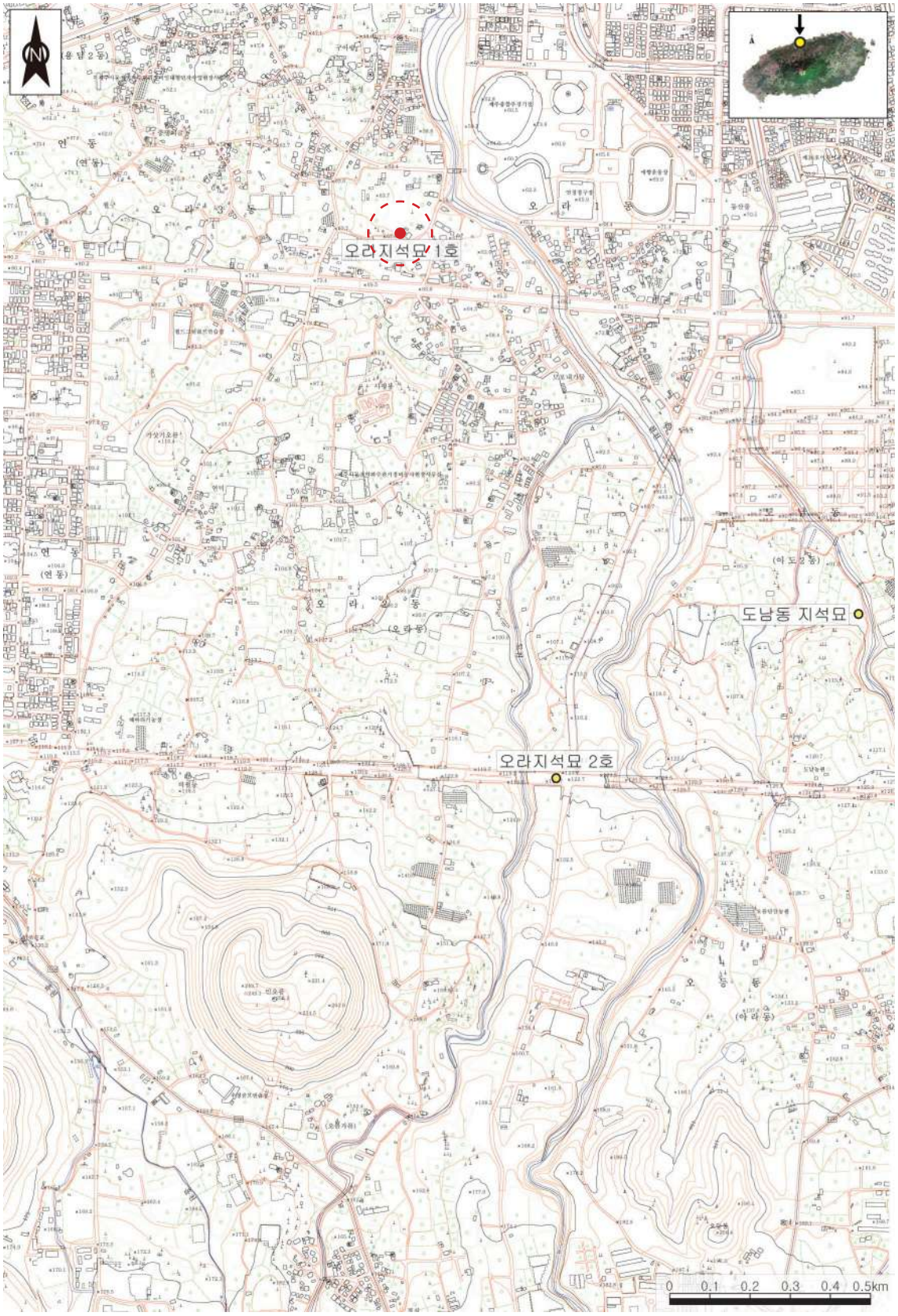
| 사진 10-②. 1998년 오라동 지석묘 1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은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서편으로 250m 지점에 있다. 오라동사무소 윗편의 완만한 언덕 경사면에 위치하여,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경사면에 상석이 놓여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50cm, 폭 207cm, 두께 35~40cm이다. 장축방향은 북서향이다. 상석 상면의 굴곡이 매우 심하다. 지석은 상석의 3군데에 있다. 동쪽 지석은 길이 30cm의 냇가돌이고 남쪽 지석은 길이 25cm의 깬돌이다. 서편 지석은 잔돌을 적석하여 고이고 있다. 이 고인돌은 용담동 일대 고인돌과는 축조 방법이 다르다. 고인돌 입구가 훤히 트이게 축조한 것은 아니다. 경사도가 있는 지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은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고, 낮은 쪽은 지석을 사용하여 고였다. 이로써 상석자체가 수평을 이루고 입구는 지석을 고인 동쪽 부분이 되었다. 내부에는 잡석 무더기가 확인된다. 수습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오라동 유물산포지의 소속시기와 같은 곽지리식토기 시기로 판단된다. 이 고인돌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만든 형식이다. 이처럼 상석 전면이 들리게 하는 지석묘는 창천리와 광령리고인돌에서 일부 확인된다. 시신매장 주체부가 하부이고 지석 고임방식은 기반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2015년 조사(제주시 지석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제주 사대부고 학교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변과의 직선거리는 약 260m이다. 지석묘는 남북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하며 서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주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일부 훼손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기념물 제2-1호 용담지석묘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장축 203cm, 단축 182cm, 두께83~116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까우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상석의 상 · 하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하부



| 도면 10-① 오라동 · 도남동 지석묘 분포도 |

는 중앙부가 15cm 가량 움푹 들어간 단면 아치형이다. 상석의 측면은 밑에서 1/2가량(40m 내외)을 치석하였다. 상석의 하부 공간은 동-서 190cm, 남-북 160cm이며 남서쪽이 개방되어 있다. 개방부는 높이 78cm, 좌우 121cm이다. 지석은 총 5개로 3매의 장방형 판석과 2개의 장대석이 있다. 북쪽에 위치한 장대석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장대석 1번은 높이 78cm, 너비 153cm이며 두께는 계측되는 면까지는 62cm이다. 장대석 1번은 상석을 받치고 있지 않으며 끼움석이 이탈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석 2번은 높이 71cm, 너비 165cm이다. 장대석 1번과 2번은 아래에서 위로 44cm가량 치석되어 있다. 판석재 지석은 남서쪽과 남쪽에 위치하며 판석 3번은 높이 75cm, 너비 64~73cm, 두께 10~12cm이다. 판석 4번은 높이 68cm, 너비 45~54cm, 두께 20~23cm의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판석 5번은 높이 70cm, 너비 66~70cm, 두께 10~17cm이다. 판석 3번과 5번은 내면을 치석하였으며 판석 5번은 개방부쪽인 측면까지 치석하였다. 지석은 5매가 남아 있으며 석실을 완전 밀폐할 경우 8~9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과 동쪽의 1 · 2번 지석은 깨어진 하나의 석재라면 판석재가 아닌 1개의 자연석의 일부를 치석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지석의 내면은 상석의 측면과 같이 밑에서 1/2가량 치석하였다. 남쪽의 지석 3 · 4번의 사이는 20cm 내외의 할석으로 채워져 있다. 지석묘 주변에는 지석묘와 동일한 재질의 석재가 5~6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석재들은 지석묘의 상석 또는 부자재일 것으로 보인다. 용담동 1호 지석묘는 독립되어 있는 지석묘가 아닌 군집을 이루거나 묘역이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오라2동 2190-3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동쪽은 단독주택 담에 접해 있으며 보호책이 있다. (사진 1-

③,④ 참조). 북동쪽에 나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상석과 지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북동쪽의 나무를 제거하여 도괴될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를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석묘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보호책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사진 10–③ 2005년 오라동 지석묘 1호(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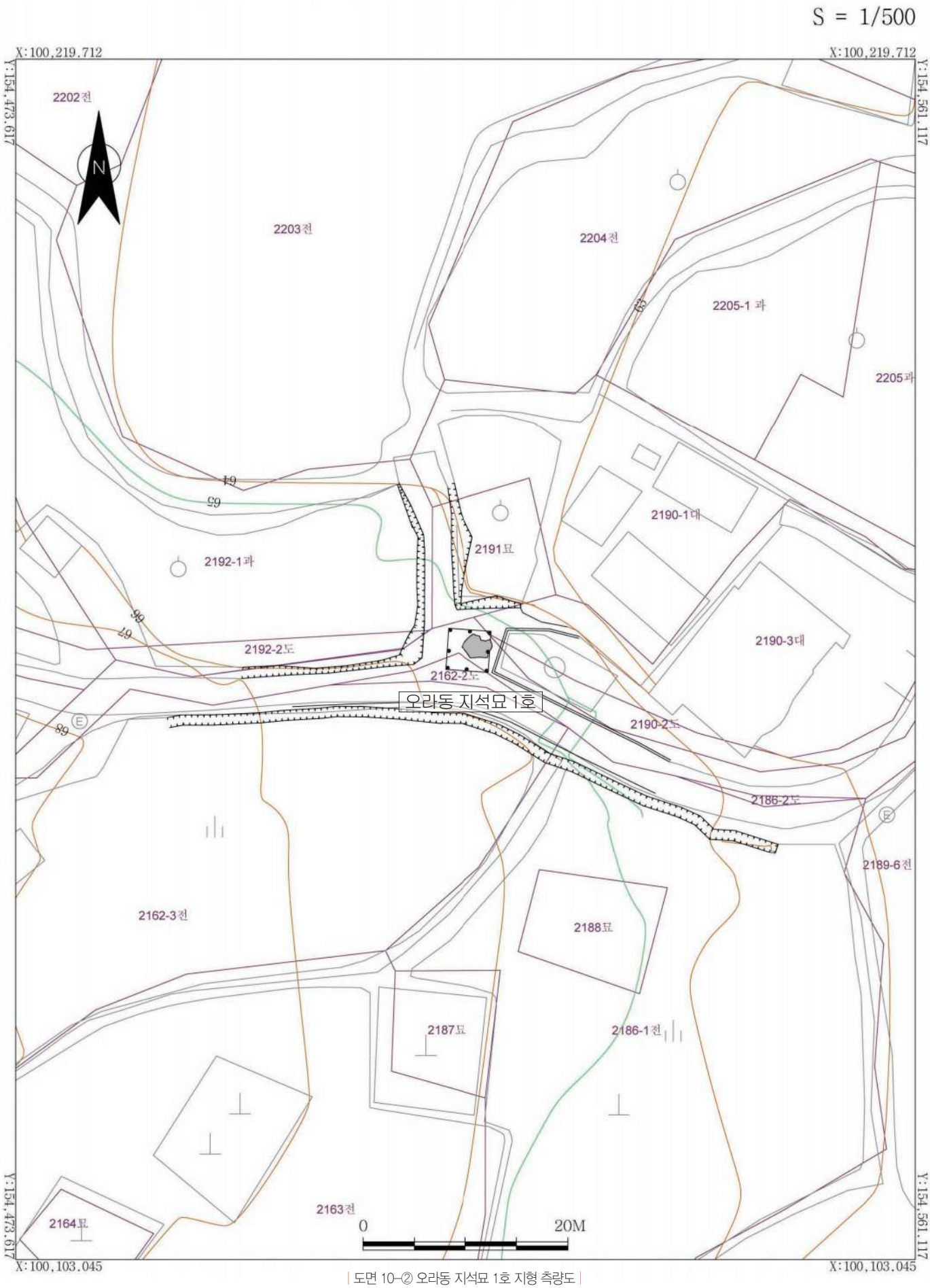
| 사진 10–④ 2015년 오라동 지석묘 1호(서에서) |



| 사진 10–⑤ 2015년 오라동 지석묘 1호(남에서) |



| 사진 10–⑥ 2015년 오라동 지석묘 1호 성혈 |



| 도면 10-② 오라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 도면 10-③ 오라동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11. 오라동 지석묘 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1550-4번지(도로)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12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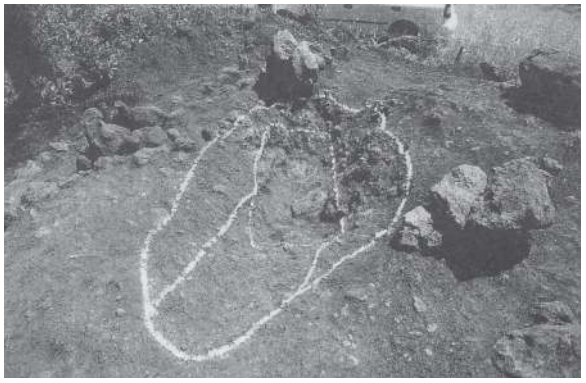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오라동 2389번지로 남쪽 교도소로 올라가는 비포장도로 우측 소나무밭에 있다. 길이 220㎝, 폭 200㎝, 두께 50㎝의 상석은 남북장축을 하고 있고, 남쪽 다소 높은 곳에서 넓적한 지석 1매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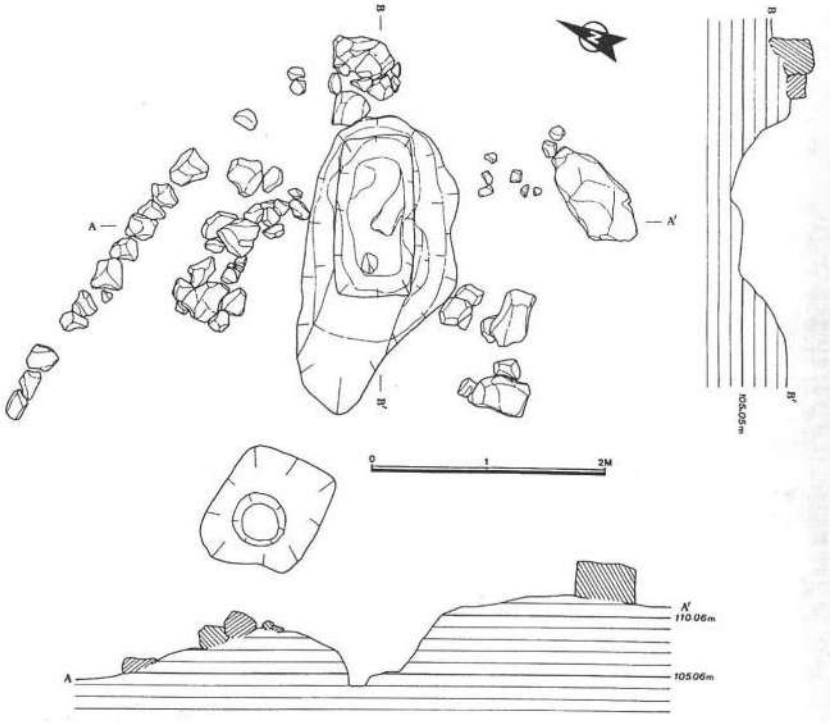
| 사진 11–① 1986년 오라동 지석묘 2호 |



| 사진 11–② 2001년 오라동 지석묘 2호 발굴조사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제주시 오라동 교도소에서 남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소나무 밭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73cm, 폭 197cm, 두께 50cm이다. 방향은 남–북장축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깝다. 지석은 상석의 세 모서리에 고여 있다. 동편 지석은 길이 90cm, 폭 52cm의 비교적 큰 할석이다. 상석 북쪽에 고인 지석은 길이 40cm의 괴석을 이중으로 겹쳐 고였다. 남쪽 지석은 크고 작은 돌을 여러 개 적석



| 도면 11–① 오라동 지석묘 2호 실측도 |

하여 고였다. 상석 북쪽 부분이 약간 들리워져 있다. 출토유물은 상석 앞쪽의 지석 옆에서 곽지리식토기편이 수점 확인되었다. 이 유물이 껴묻거리인지 아니면 고인돌 축조시 폐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지석옆에서 토기편이 여러점 확인되는 예는 광령리와 신례리, 창천리, 신천리, 신도리 고인돌에서 일부 확인된다. 이 고인돌의 소속시기는 출토유물과 고인돌 축조수법으로 볼 때 용담동일대 다른 고인돌과 동일시기로 판단된다. 고인돌의 축조형태는 시상매장주체가 하부에 있는 변형된 기반식이다.

(3) 2015년 조사

2001년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조사 전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며 하부에는 2단 토광의 매장 주체부가 확인되었다. 지석으로는 할석 4개가 확인되어 기반식 지석묘로 추정된다. 해안에서 직선리로 3.8km 이격되어 있으며, 토천과 한천 사이에 위치한다.

참고문헌

①김철준, 1959,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서울대논문집』9. ②『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⑤『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⑥『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제주시~오라관광지구 도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오라동 지석묘(Ⅱ) 발굴조사보고서』, 2001,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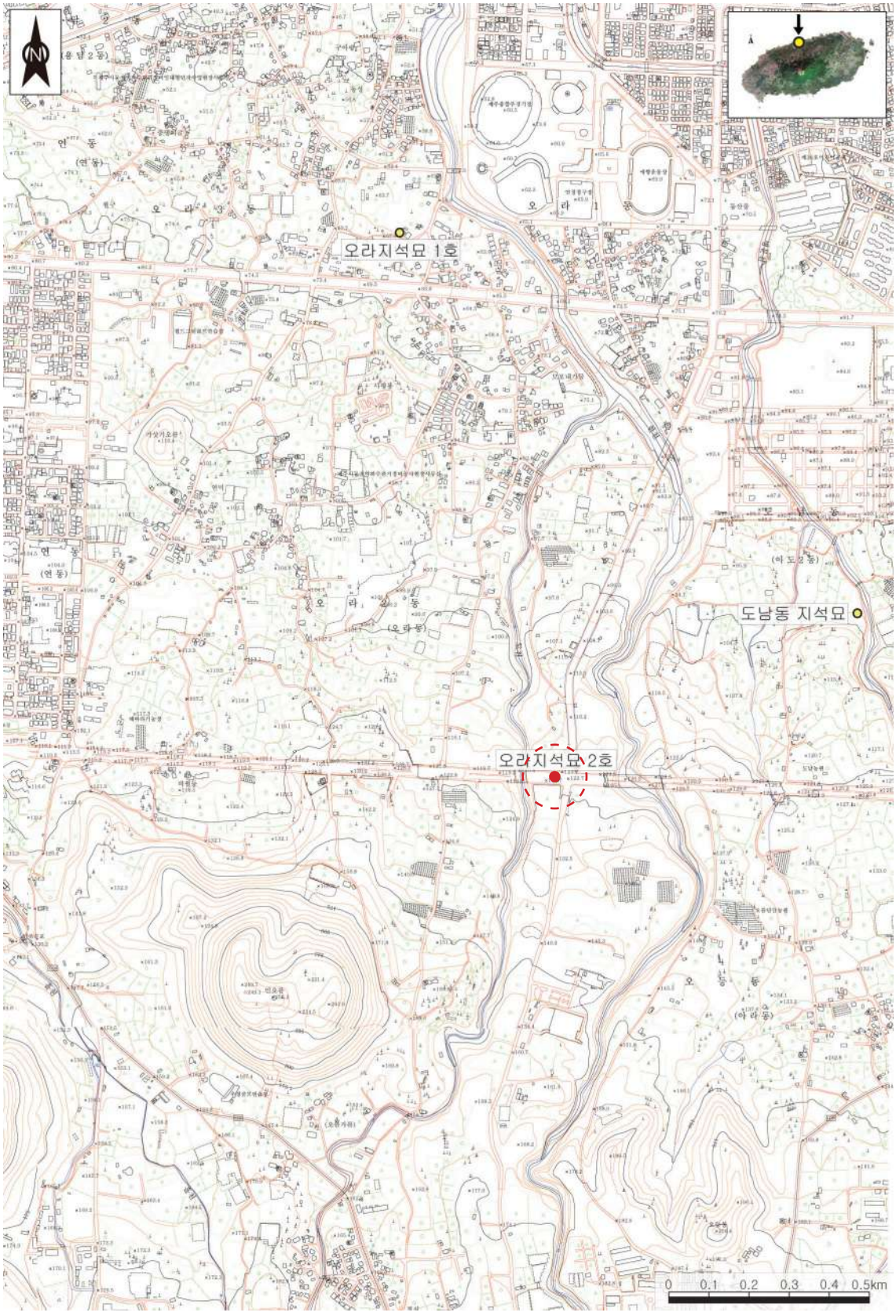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2001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발굴조사하였다(앞의 참고문헌⑧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원래 지석묘가 자리했던 인근 도로 옆에 유적 설명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도면 11–② 오라동 · 도남동 지석묘 분포도 |



| 도면 11-③ 오라동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12. 도남동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542번지
3) GPS 좌표 : N 33°30′07.98″, E 126°35′25.47″
4) 해발고도 : 93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도남동 6161번지에 있으며 밭 돌담에 쓰러져 있다. 상석은 길이 250㎝, 폭 200㎝, 두께 50㎝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지석은 판석형으로 2매 있는 것이 확인된다.



| 사진 12-① 1986년 도남동 지석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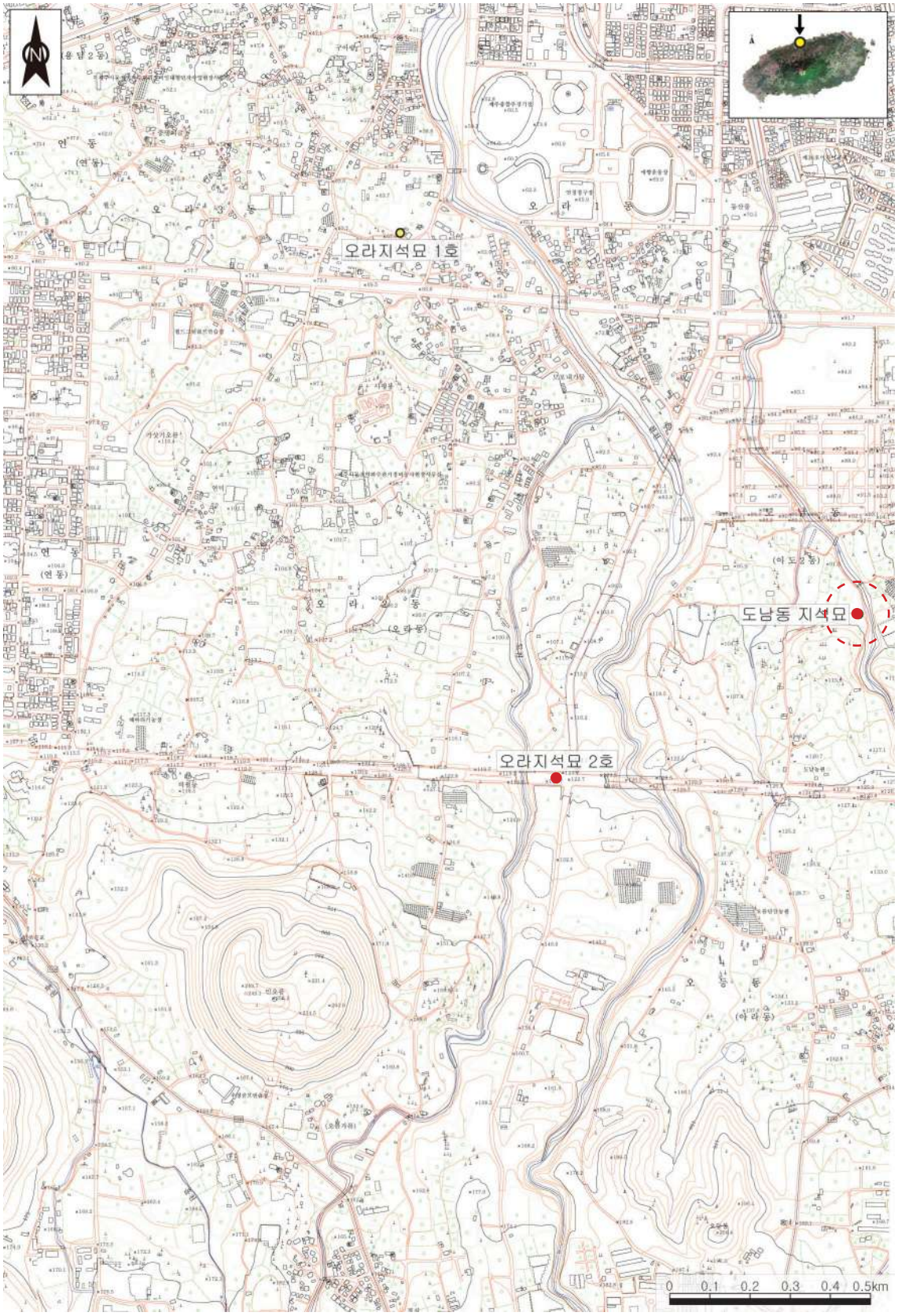
| 사진 12-② 2015년 도남동 지석묘 (동에서)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은 한천 하류에서 2㎞정도 올라온 하천의 서편에 바로 인접되어 있다. 주위 밭에서 약간 내려와 턱진 밭 돌담에 세워져 있다. 따라서 원상에서 다소 변형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에 가깝고 단면은 렌즈형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50㎝, 폭 200㎝, 두께 50㎝이다. 지석은 상석의 동쪽과 북쪽에서 판석상 지석이 확인된다. 원래 세워졌던 지석이 있으나 후대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의 위치로 볼 때 상석의 들린 면은 북동편으로 여겨진다. 상석 상면의 치석 흔적이 거의 없이, 면이 평평한 원래 상석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없었다.

(3) 2015년 조사

제주 정부종합청사 남쪽 병문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3.5km 이격되어 있으며 병문천 서쪽 10m 지점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210cm, 두께 22~56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은 장타원형 또는 아치형으로 판단된다. 상석의 상면은 자연석을 그대로로 이용하였으며 측면은 일부 치석흔이 확인된다. 상석 하부에서 길이 70cm 가량의 판석재 1매가 확인되며 지석 또는 석실벽재로 추정된다. 지석묘가 돌담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간판이 교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석묘 반경 50m 이내의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도면 12-① 오라동 · 도남동 지석묘 분포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진 12–③ 2015년 도남동 지석묘 (북동에서)



사진 12–④ 2015년 도남동 지석묘 (남에서)



사진 12–⑤ 2015년 도남동 지석묘 (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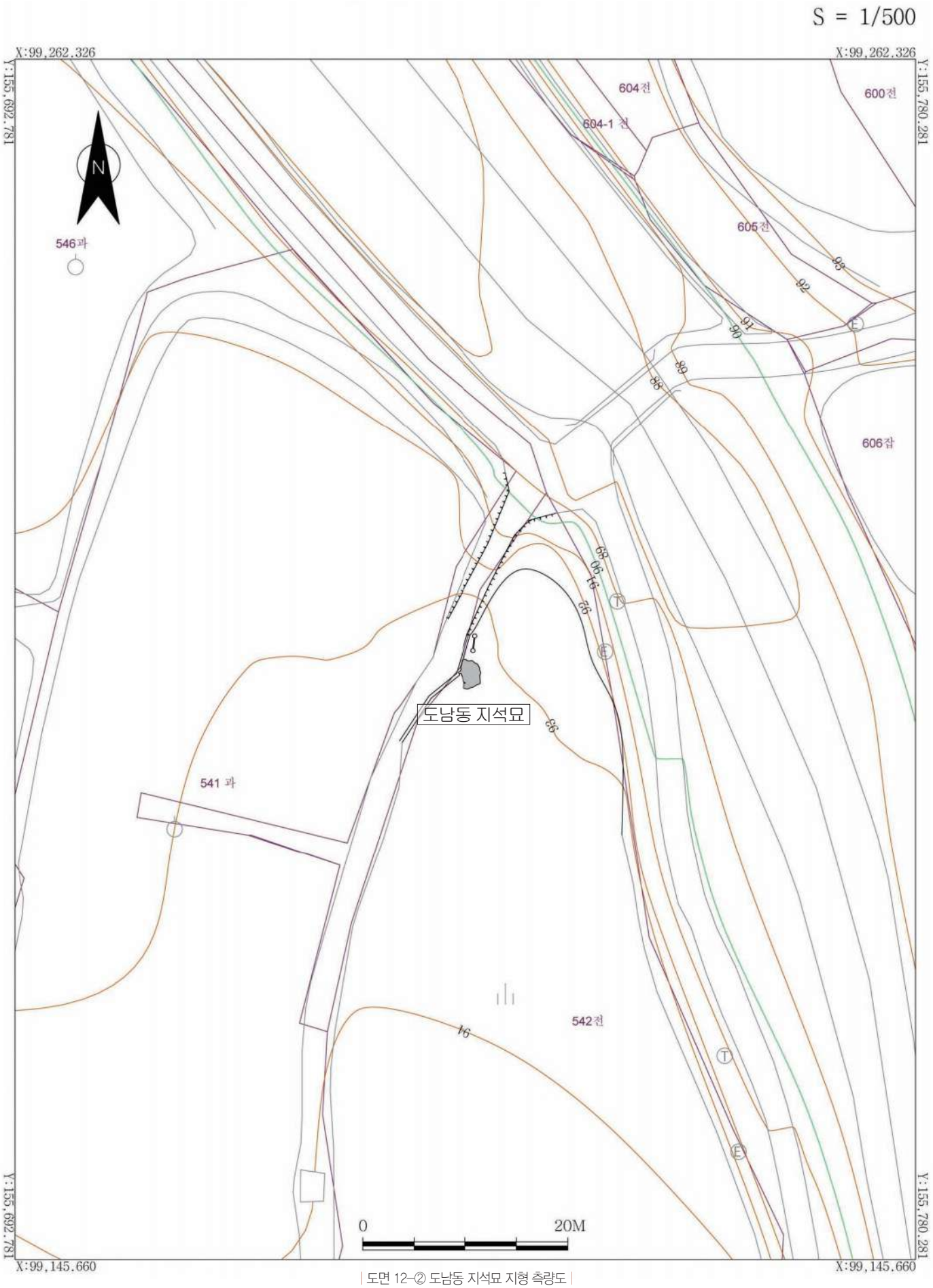


사진 12–⑥ 2015년 도남동 지석묘 안내판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비지정 지석묘이며 도남동 542번지에 위치한다. 밭경계에 걸쳐있으며 (사진 1–③,④ 참조) 경작과정에서 이동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도면 12-② 도남동 지석묘 지형 측량도 |

2) 정비 · 활용계획

이동된 지석묘로 주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후 유적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전 ·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적 안내판을 재설치하고 보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도면 12-③ 도남동 지석묘 지적 현황도

13. 외도동 지석묘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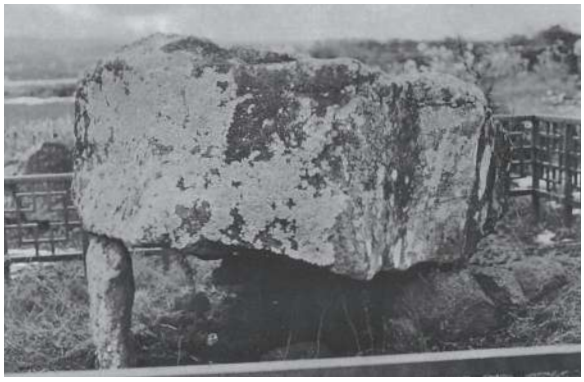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1(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0-1번지, 20-2번지
3) GPS 좌표 : N 33°38′35.52″, E 126°26′18.32″
4) 해발고도 : 66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0-1번지에 있으며, 남고 북저의 경사가 심한 암반을 이용, 높은 곳 두군데에 각기 둥글납작한 괴석(塊石)과 할석(割石) 1매씩을 고이고, 북쪽의 낮은 곳에 높이 82㎝, 폭 53㎝, 두께 12~15㎝의 네모꼴 판돌을 지석(支石)으로 세웠다. 상석(上石)은 길이 275㎝, 두께 80㎝로, 두께가 고르고 윗면이 평평한 5각형이며 정남북에 가까운 장축방향을 하고 있다.



| 사진 13-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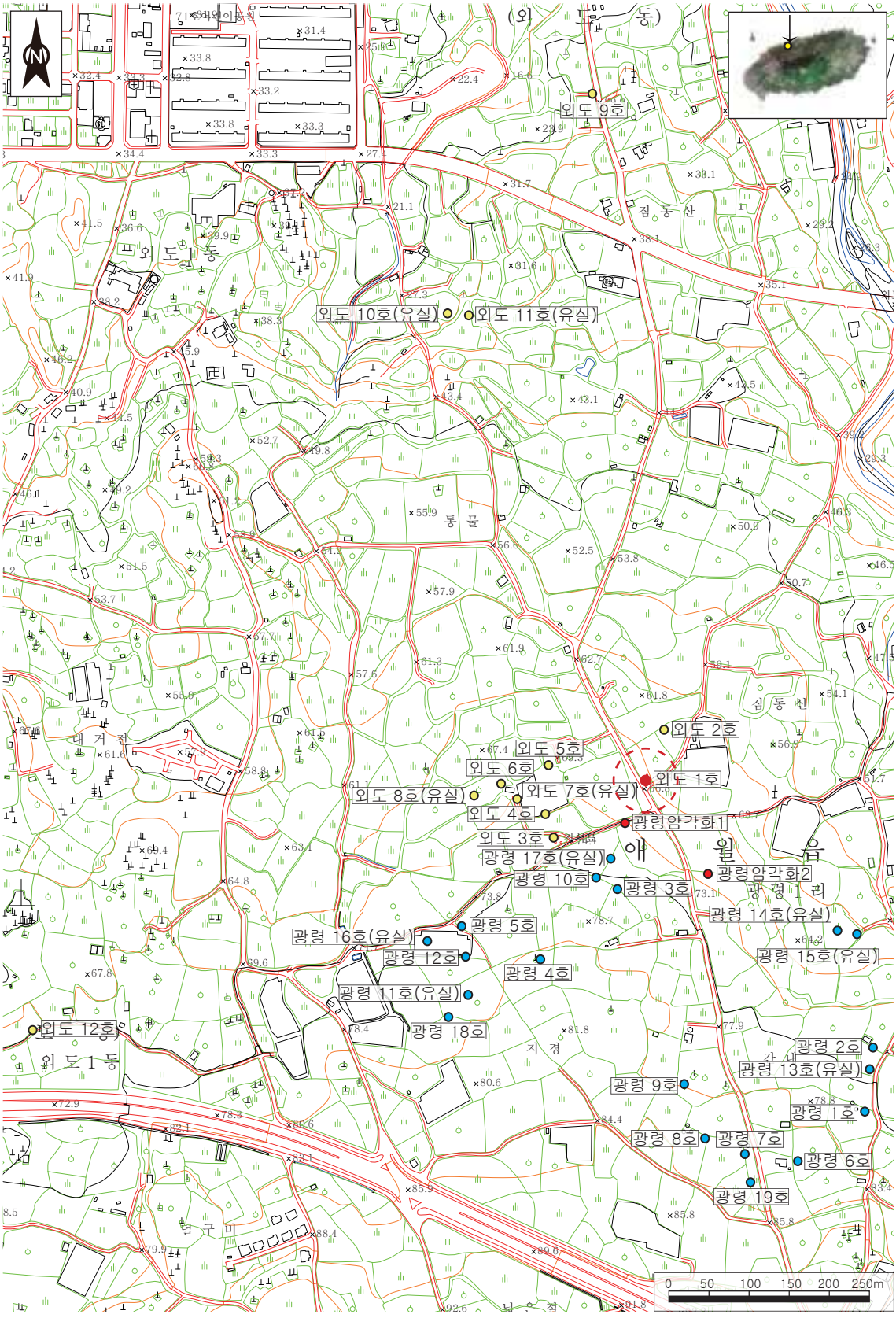
| 사진 13-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상석의 크기는 길이 275㎝, 폭 230㎝, 두께 80㎝이다. 장축방향은 정남북이며, 상석면은 매우 잘 다듬어져 있다. 평면모양은 5각형이다. 남고북저의 경사가 심한 암반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높은 곳은 두 군데에 각기 둥굴납작한 잡석과 깬돌 1매씩을 고이고 북쪽의 낮은 곳에 네모꼴 판돌을 고였다. 판석의 크기는 길이 82㎝, 폭 53㎝, 두께 12~15㎝이다. 상석의 경사도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나 측면에서 보면 완전하게 북쪽으로 들리워져 있다. 하부 암반을 파서 시신을 매장한 흔적은 없다. 따라서 시신의 매장을 지상에 두고 들려진 상석 주위를 돌아가면서 판석상 지석을 사용, 석실을 만든 형식이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외도동 성지요양원에서 광령으로 올라가는 길가 비닐하우스 앞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 서쪽 420m 지점에 위치한다. 상석의 치석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남고북저의 경사면에 축조하였으나 경사는 심하지 않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68cm, 단축 182cm, 두께 82~95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 · 단면형태는 장방



| 도면 1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형이며 상석 북동쪽 모서리에서 4~5cm 가량의 성혈 5개가 확인된다. 지석은 북쪽에 판석 1매(49×28×12cm)가 세워져 있으며 서쪽에 할석 1개가 있다. 남쪽에는 깨진 판석이 암반위에 놓여 상석을 받치고 있다. 지석묘는 일부 암반 위에 축조하여 지석이 쉽게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석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북쪽의 판석에 의해 들려진 형태이다. 그리고 상석 하부 치석상태를 보면 판석재로 둘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남서쪽 할석은 용담동 지석묘 2호, 하귀리 지석묘 1호와 같이 지석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 13-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 사진 13-④. 2013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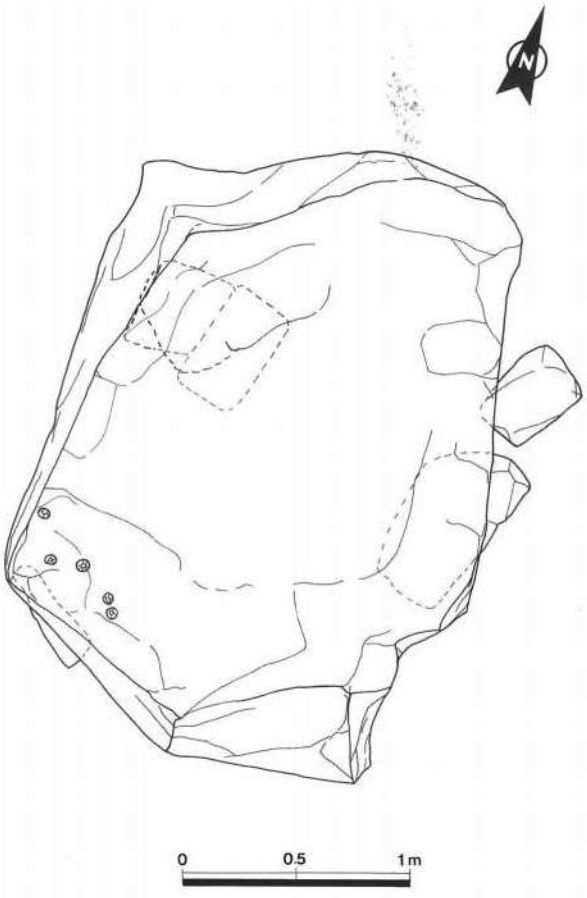
| 사진 13-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호 |



| 사진 13-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호 성혈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도면 13-② 외도동 지석묘 1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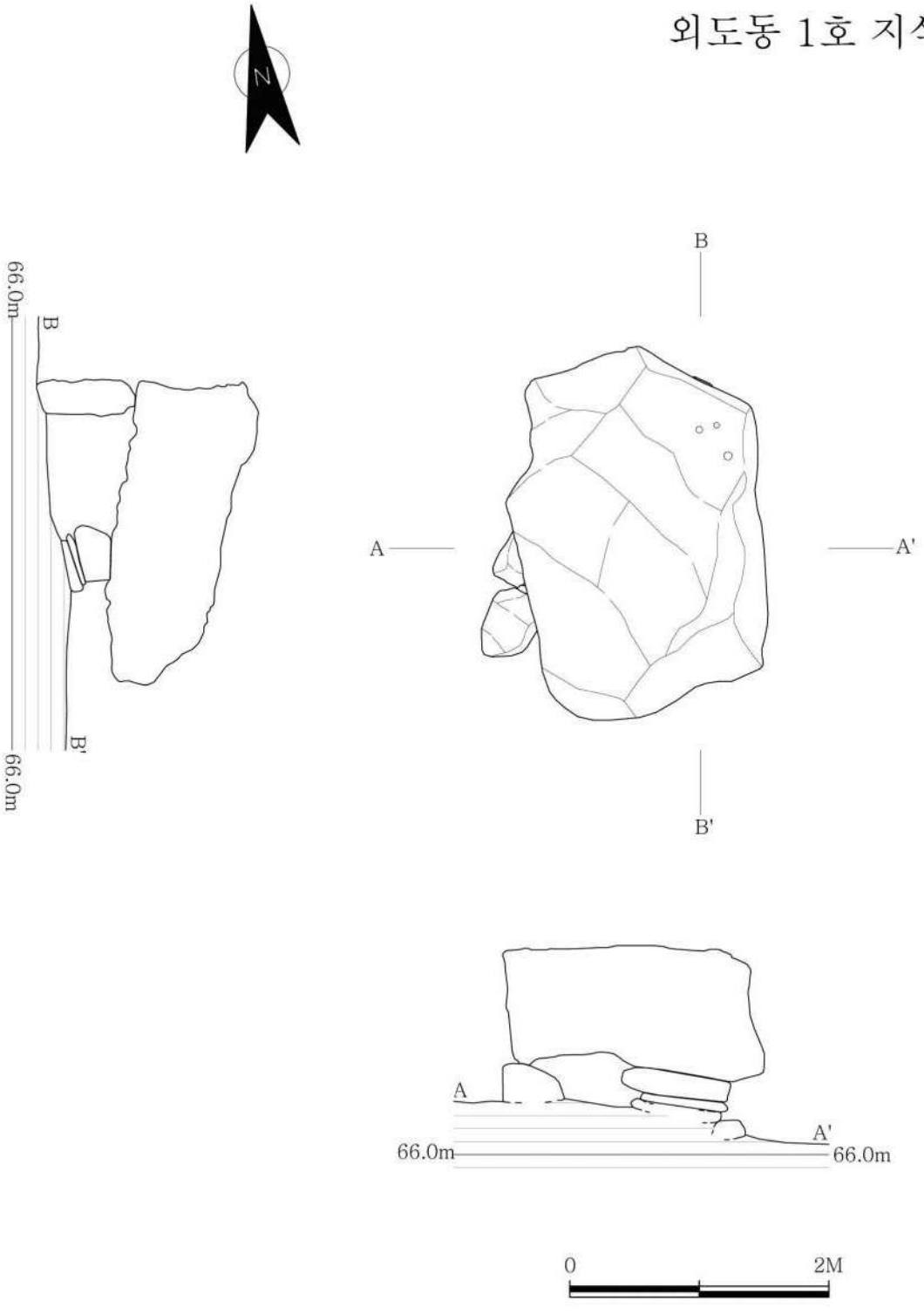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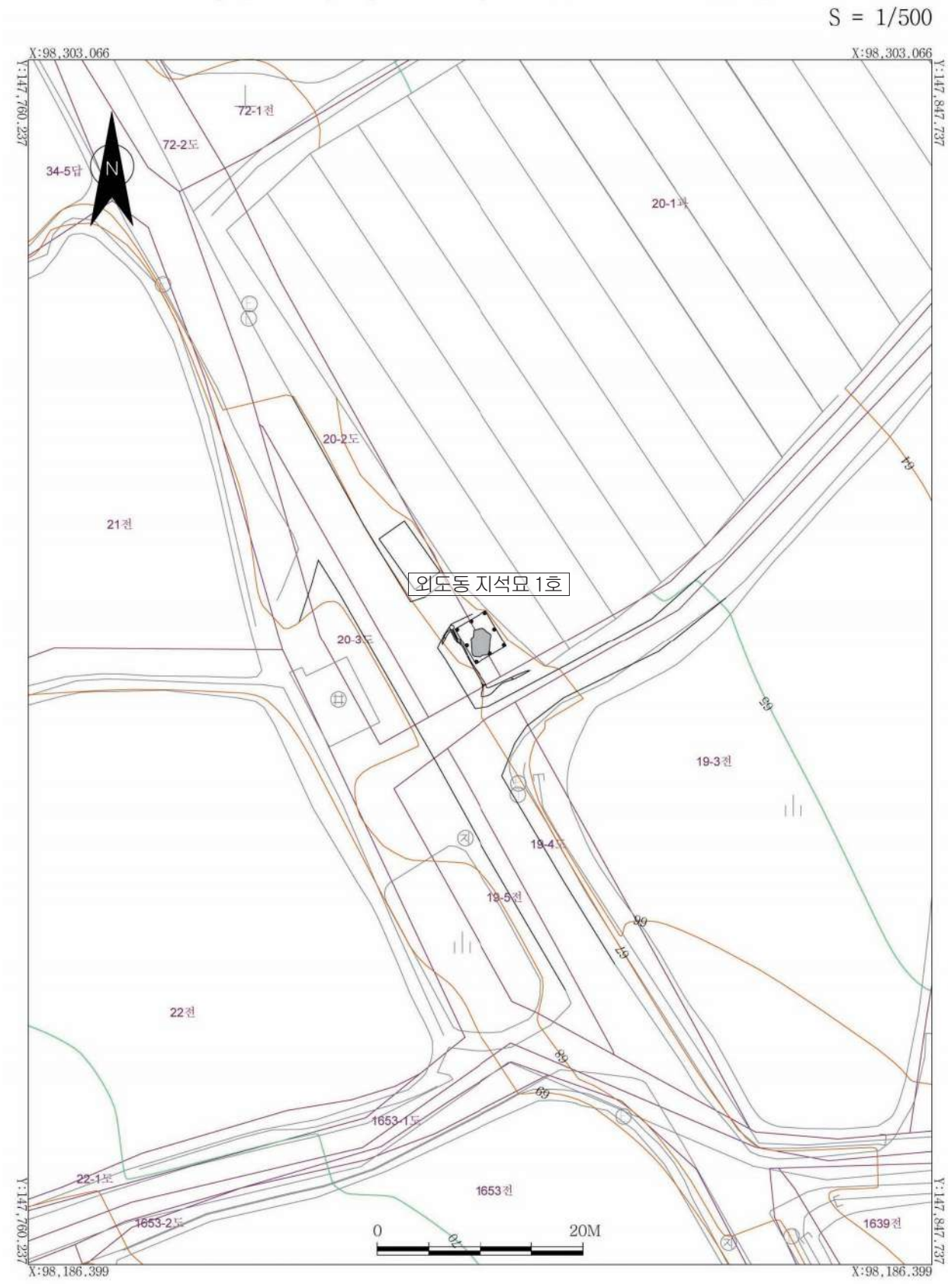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1호이며 외도동 20-1번지, 20-2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로경계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하부 토층이 유실되어 있다(사진 1-①,⑤ 참조).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지석묘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

2) 정비 ·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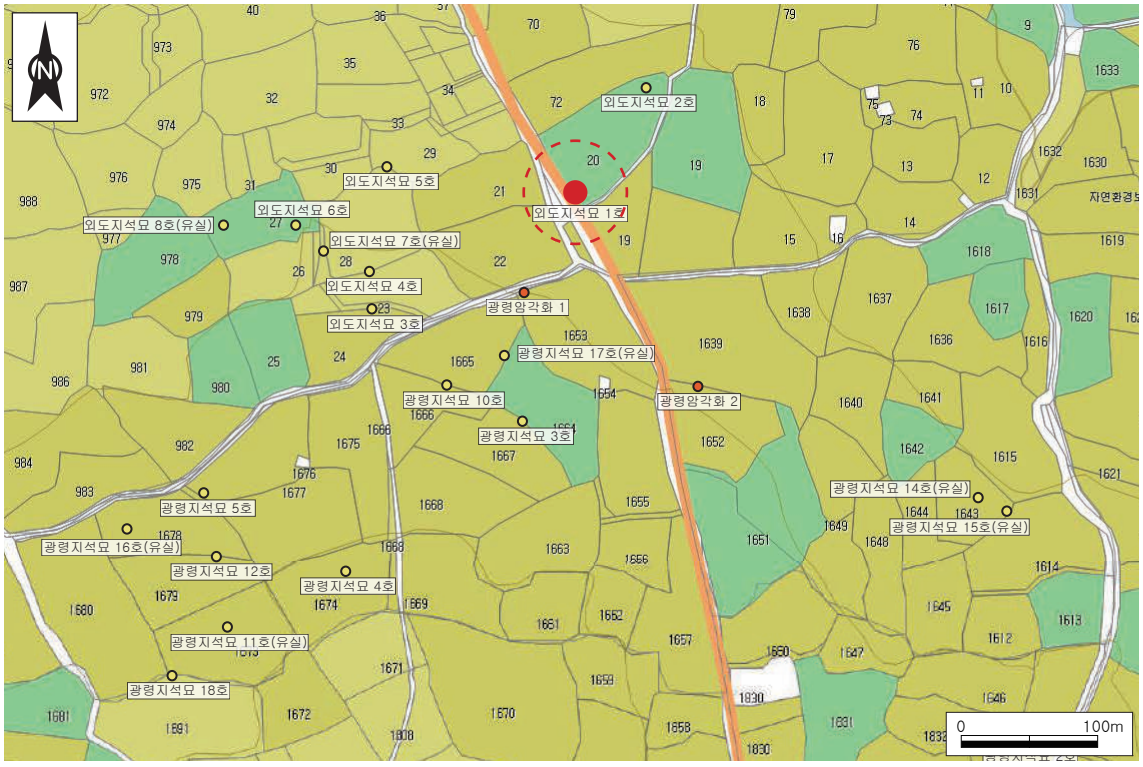
유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부가 노출될 경우 도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실방지를 위해 주변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체해야 할 것이다.



| 도면 13-③ 외도동 지석묘 1호 평면 및 단면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도면 13-④ 외도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도면 13-⑤ 외도동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14. 외도동 지석묘 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2(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0-1번지
3) GPS 좌표 : N 33°28′38.15″, E 126°26′19.84″
4) 해발고도 : 62m

나.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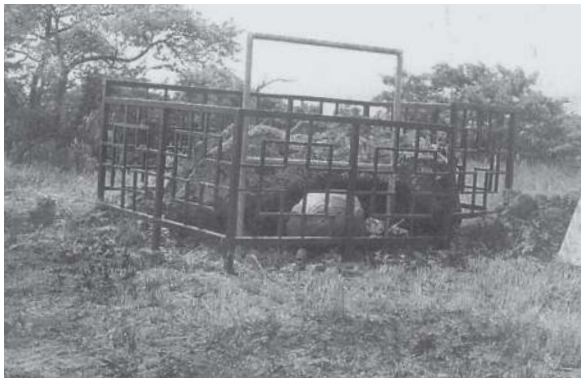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0-1번지 밭과 72-1번지 사이 돌담에 묻혀 있었고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다. 상석(上石)은 장축이 정남북 방향이고 길이 282㎝, 폭 190㎝, 두께 30~40㎝의 크기를 갖고 있다. 상석(上石)은 단면이 아치모양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하부가 휜하게 뚫려 있다. 지석(支石)은 남쪽과 북쪽 끝에 둥글납작한 괴석(塊石) 각 1매가 있고,

서편으로 상석(上石)이 두터워서 거의 지면과 닿아 있는 곳은 돌아가며 3매의 작고 얇은 판석상(板石狀) 할석(割石)이 고여 있다. 성혈(性穴)은 상석(上石) 남서쪽에서 1개가 확인된다.



| 사진 14-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2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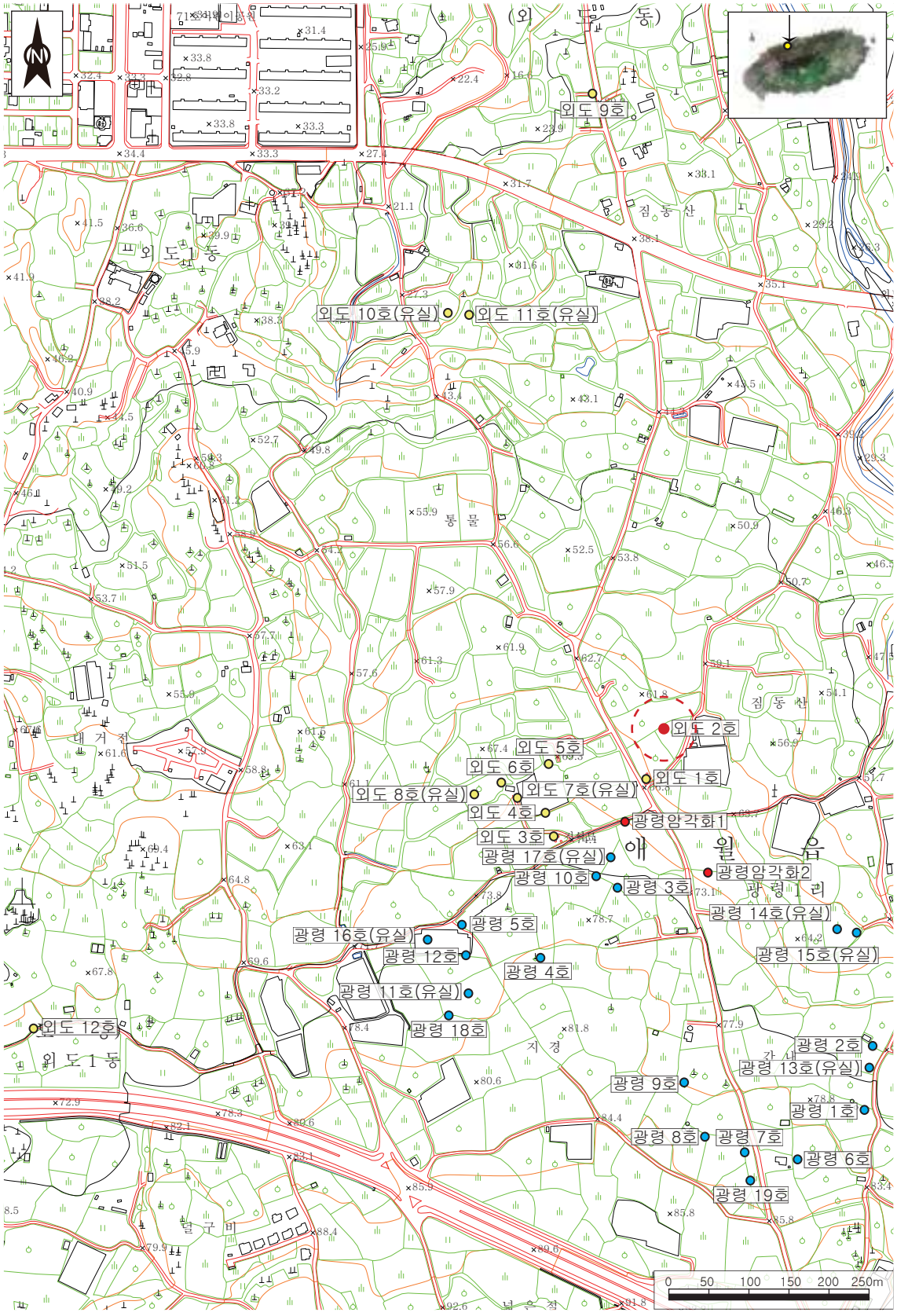
| 사진 14-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2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상석의 장축은 정남북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282㎝, 폭 190㎝, 두께 30~60㎝이다. 상석의 단면은 아아치형 모양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하부가 훤하게 뚫려 있다. 지석은 남쪽과 북쪽끝에 둥굴납작한 괴석이 각 1매 있고, 서편으로 상석이 두터워서 지면과 닿아 있는 곳은 3매의 작고 얕은 판석상 할석이 고여 있다. 성혈은 상석 남서쪽에서 1개가 보인다. 이 고인돌은 아치형으로 트인 방향으로 시신을 넣고 막음돌을 사용하여 개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고인돌은 광령리 9호, 삼양동 3호 고인돌에서 보인다. 고인돌 주위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곽지 조개무지 2층에 출토된 적갈색토기 계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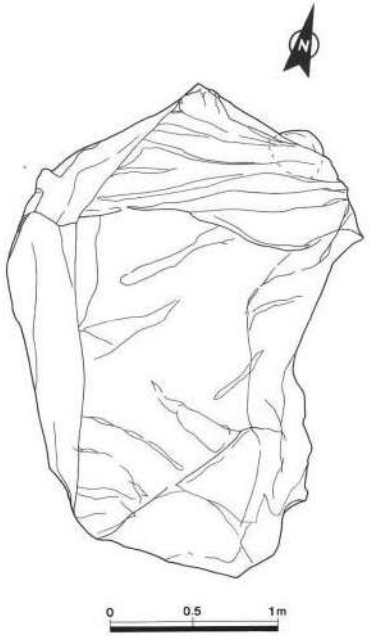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외도동 지석묘 1호가 위치한 비닐하우스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 서쪽 360m 지점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67cm, 단축 153cm, 두께 28~100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지만 장방형에 가깝고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상석의 북쪽에 5cm 가량의 성혈 1개가 있다. 상석의 단면은 아치형으로 동쪽이 60cm 가량 들려 있다. 기존 조사에서 서쪽 할석재 지석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잡석이 채워져 있어 확인이 어렵다. 남서쪽



| 도면 14-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모서리에서 넓적한 천석 1개가 확인되며 서쪽 중앙 내부에 깨진 판석 1매가 있다. 판석은 하부시설(지석, 바닥석, 석실벽석)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 도면 14–② 외도동 지석묘 2호 상석 평면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사진 14–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2호 |



| 사진 14–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2호 (위에서) |



| 사진 14–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2호(동에서) |



| 사진 14–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2호 성혈 |



| 도면 14–③ 외도동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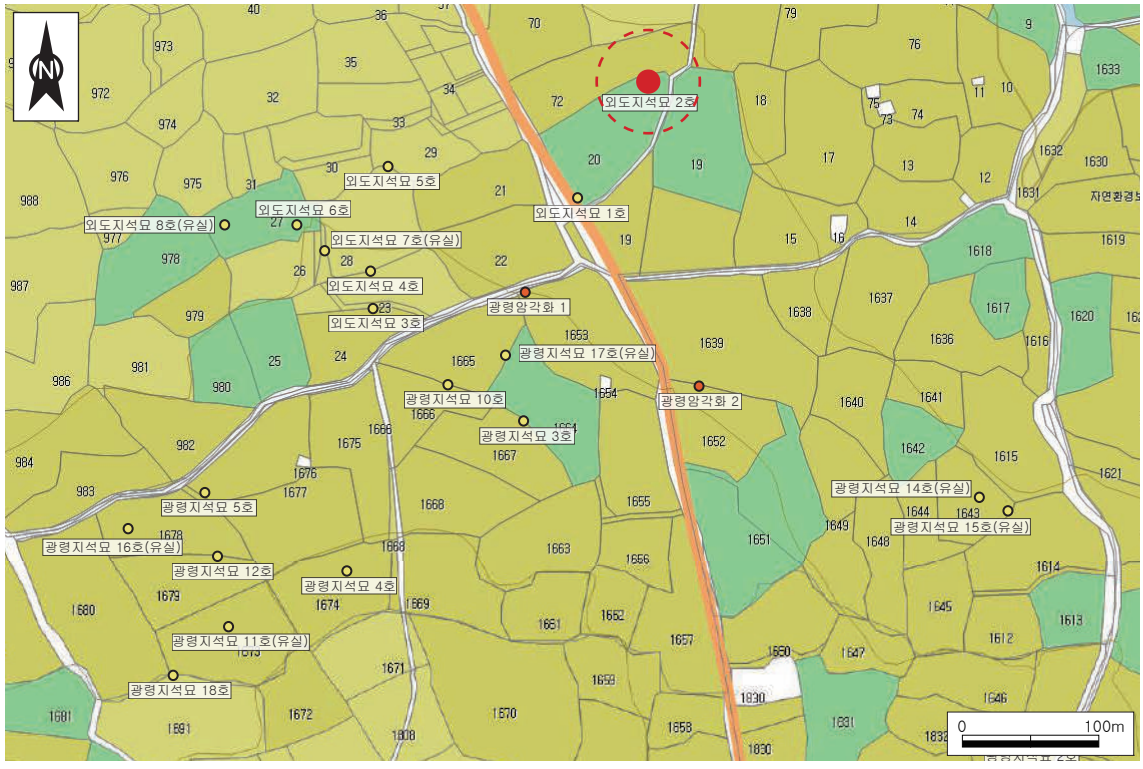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2호이며 외도동 20-1번지 비닐하우스 북동쪽에 위치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며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지석묘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체해야 할 것이다.(사진 1-④,⑤ 참조).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석묘에 대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관람로 등을 위해 주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도면 14-④ 외도동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15. 외도동 지석묘 3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3(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3-3번지, 24번지
3) GPS 좌표 : N 33°28′33.22″, E 126°26′13.41″
4) 해발고도 : 71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3번지와 24번지 밭 사이 돌담에 묻혀 있었는데 상석(上石)은 길이 232㎝, 폭 198㎝, 두께 89㎝이며 동북쪽으로 장축을 하고 있다. 상석(上石)의 비교적 고른 윗면 북동쪽에 치우쳐 비교적 크고 선명한 65개의 무수한 성혈(性穴)이 확인되었다. 상석(上石)하부는 북쪽으로 노출되어 있고, 동 · 서쪽 귀퉁이와 남쪽에 지석(支石)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대가 높은 남쪽은 3개의 작은 돌로, 동 · 서쪽은 1개의 큼직한 돌로 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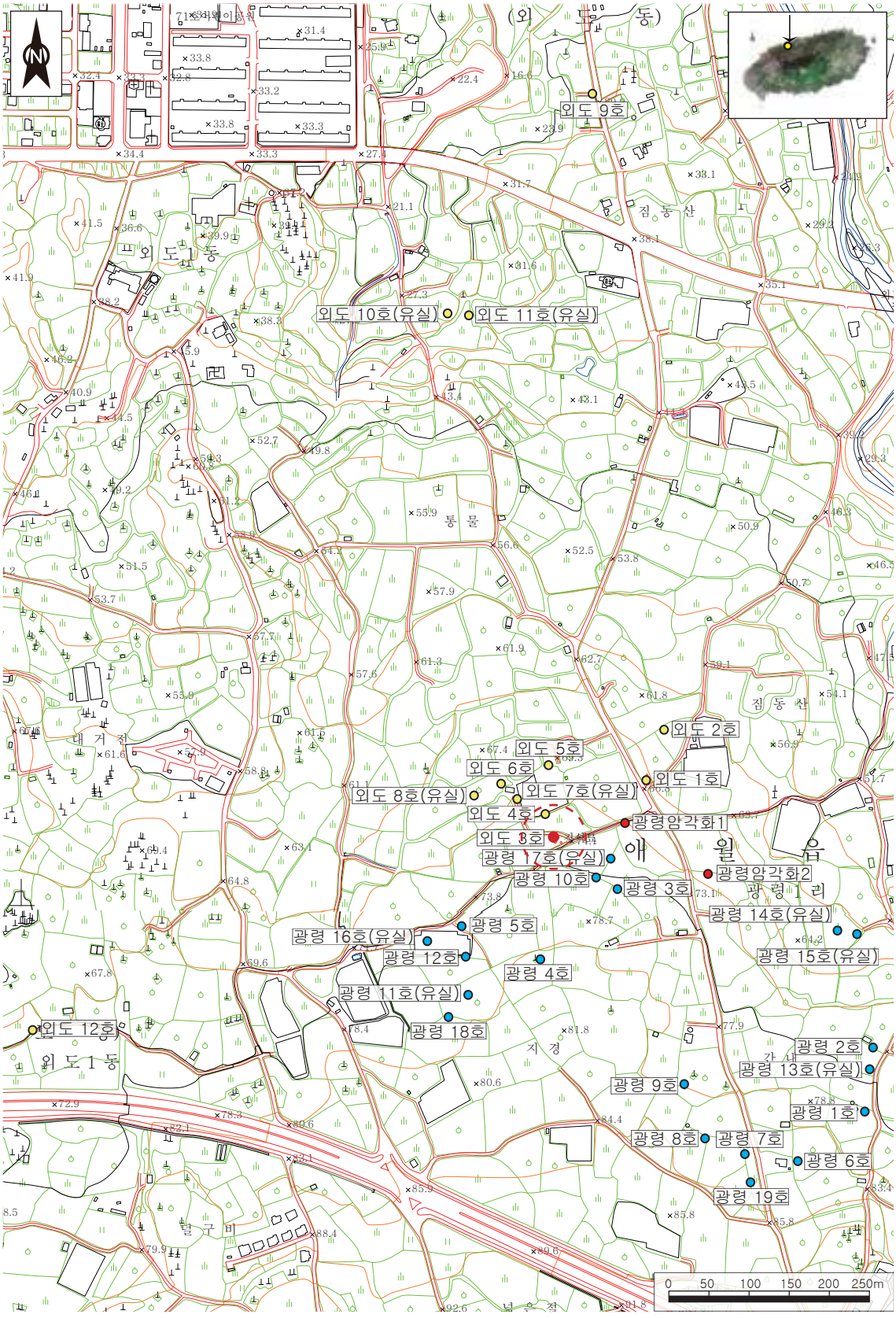
| 사진 15-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3호 |



| 사진 15-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3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경사가 심하여 둔덕이 진 밭경계 돌담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32㎝, 폭 198㎝, 두께 89㎝이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동북쪽이다. 상석의 상면은 비교적 고



| 도면 15-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르며, 북동쪽으로 치우쳐 크고 작은 65개의 무수한 성혈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상석 하부는 북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지석은 상석의 동, 서쪽 귀퉁이와 남쪽에서 확인된다. 지대가 높은 남쪽은 3개의 작은 돌로 상석을 받치고 있고 동, 서쪽은 큼직한 돌로 상석을 받치어 들리게 하고 있다. 상석의 측면 중간 부분에 홈줄이 보인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외도동 지석묘 4호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밭경계에 걸쳐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1km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광령천에서 서쪽으로 560m 떨어진 곳에 있다. 상석의 규모는 216cm, 단축 184cm, 두께 72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 ·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석의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65개의 성혈이 있다. 하부는 매몰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측면은 일부 치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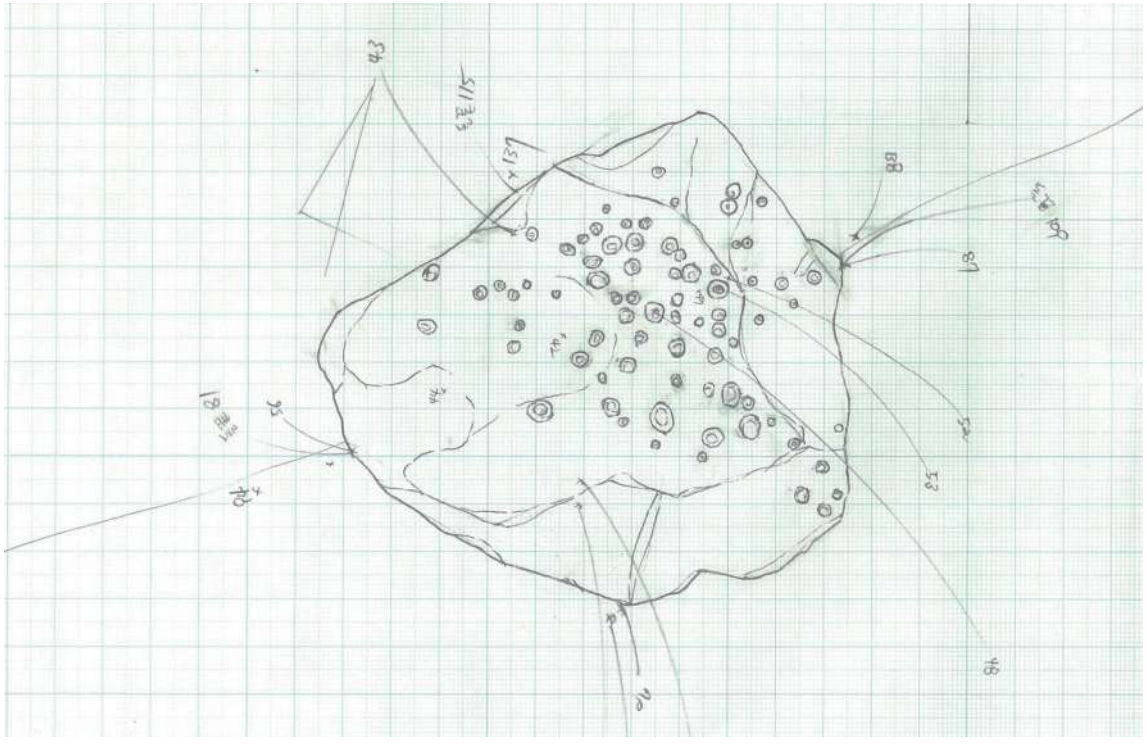
| 사진 15-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3호 성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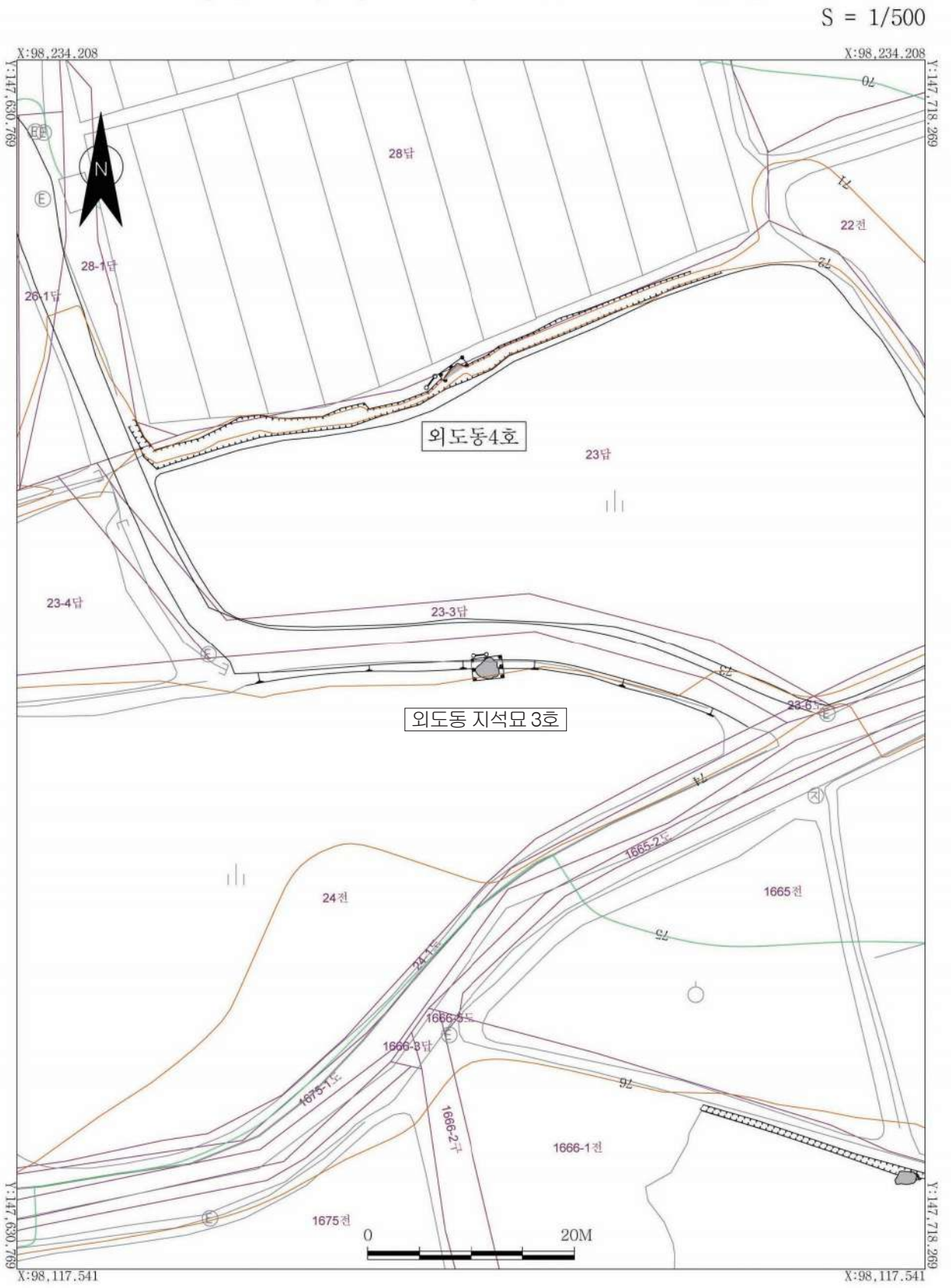
| 사진 15-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3호 |



| 사진 15-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3호(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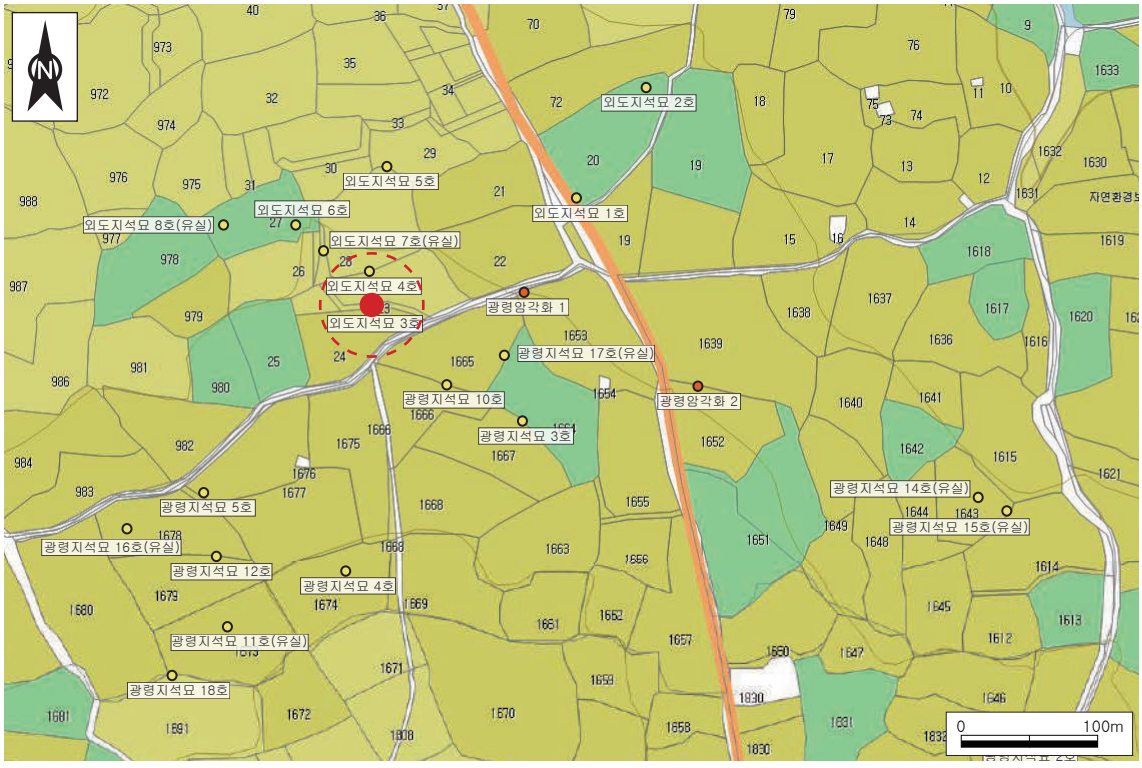
| 도면 15-② 외도동 지석묘 3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도면 15-③ 외도동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도면 15–④ 외도동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3호이며 외도동 23–3번지, 24번지 경계에 위치한다. 북쪽은 노출되어 있고 남쪽은 매몰된 상태이다. 접근성은 용이하나 이정표가 없다.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지석묘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책과 안내판은 주변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사진 1-④,⑤ 참조). 지석묘 주변의 돌담과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조사를 통하여 지석묘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석묘가 훼손되지 않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석묘에 대한 이정표 설치와 관람로 등을 위해 주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16. 외도동 지석묘 4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4(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3번지, 28번지
3) GPS 좌표 : N 33°28′34.00″, E 126°26′12.87″
4) 해발고도 : 69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3번지와 28번지 서쪽의 높이 차가 심한 두 밭 사이 돌담에 깊게 묻혀 있다. 상석(上石)은 아아치 모양으로 앞서 외도동 고인돌(2)와 흡사하다. 상석(上石)의 크기를 보면 길이 252㎝, 두께 37~15㎝로 북동으로 장축방향이 나 있다. 성혈(性穴)은 상면(上面)이 노출된 부분에서 11개가 확인되었다. 지석(支石)은 돌담에 매립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16-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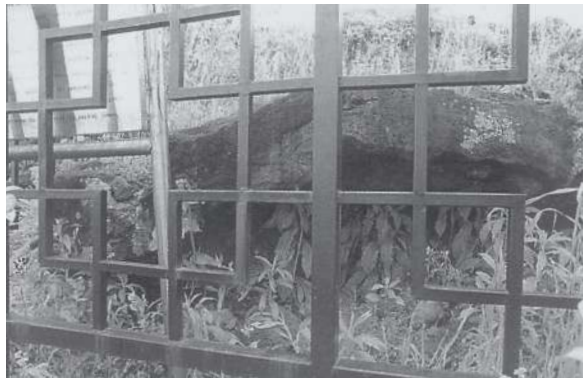


사진 16-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4호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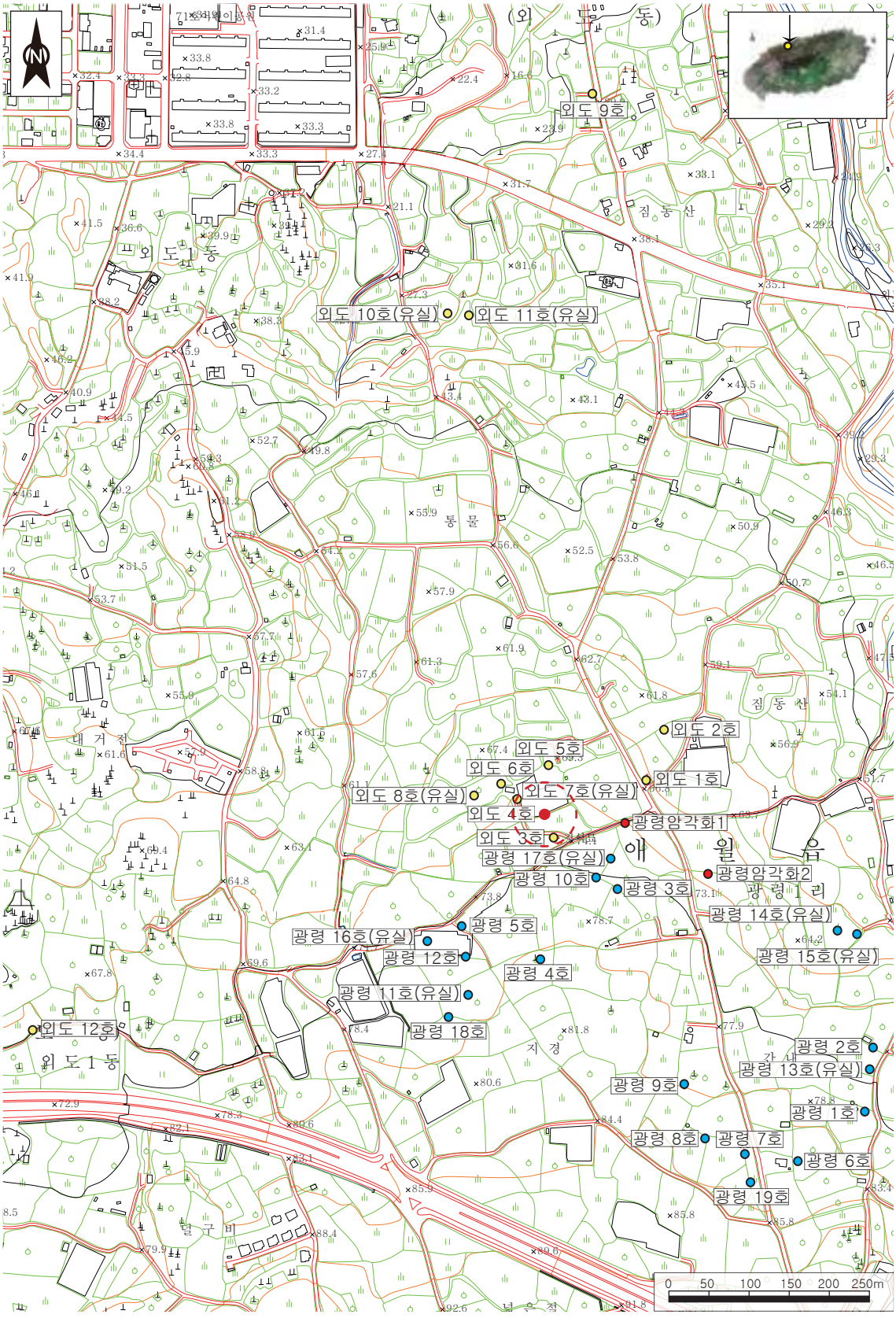
높이 차가 심한 두 밭 사이 돌담에 묻혀 있다. 상석의 앞면 모양은 아아치형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52㎝, 두께 37~15㎝이다. 장축은 북동향이다. 지석은 북동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석의 후면은 흙속에 완전히 묻혀 있어 지석을 확인할 수 없다. 노출된 북동쪽 상석 상면에서 큼직한 성혈 11개가 보인다. 이와같은 유형의 고인돌은 외도동 3호 고인돌, 광령리 9호 고인돌, 삼양동 3호 고인돌이 있다. 시신매장 후 들린 면을 막음돌로 개폐하는 유형이다.

(3) 2015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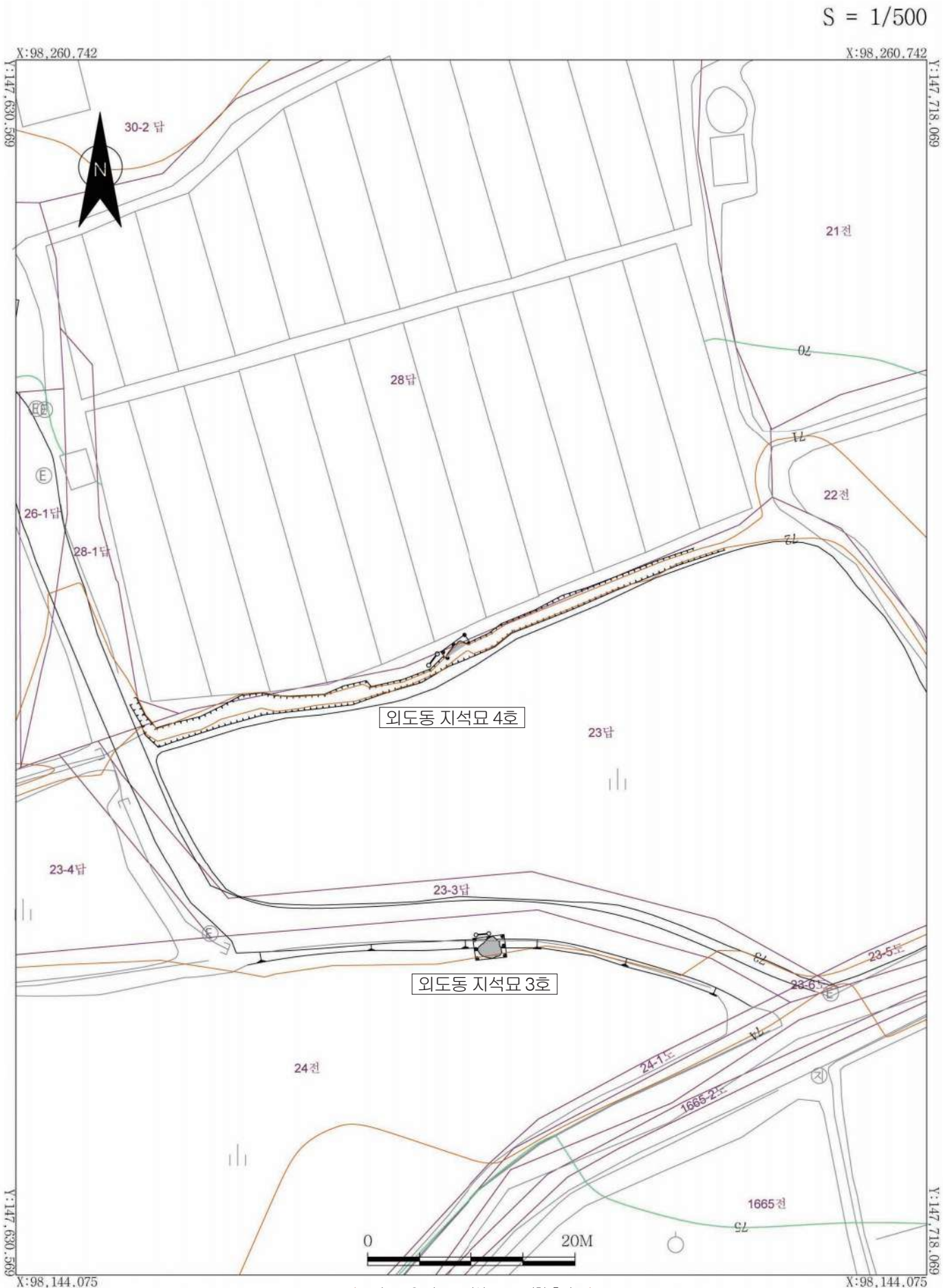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외도동 23번지와 28번지 경계에 매몰되어 있으며 밭경계 단이 지는 부분에 지석묘 상석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상석의 장축은 235cm, 두께는 25cm이다. 북쪽 부분이 74cm 가량 들려 있으며 단면은 아치형으로 판단된다. 노출된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5~9cm 가량의 성혈 19개가 확인되었다. 상석의 상면이 전체 노출되면 성혈의 개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혈 사이에 길게 이어지는 열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광령리 지석묘 7호와 동일한 수법으로 성혈을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상석 측면 일부가 치석되어 있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도면 16-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16-② 외도동 지석묘 4호 지형 측량도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4호이며 외도동 23번지, 28번지 경계에 매몰되어 있다. 비닐하우스로 인해 접근이 어려우며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지석묘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사진 1-④,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석묘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학술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한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의 석축과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석묘가 훼손되지 않게 제거하고 지석묘와 주변 지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 보호책과 안내판을 설치한다. 지석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하고 관람로 등을 위해 주변 정비를 실시한다.



| 사진 16-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4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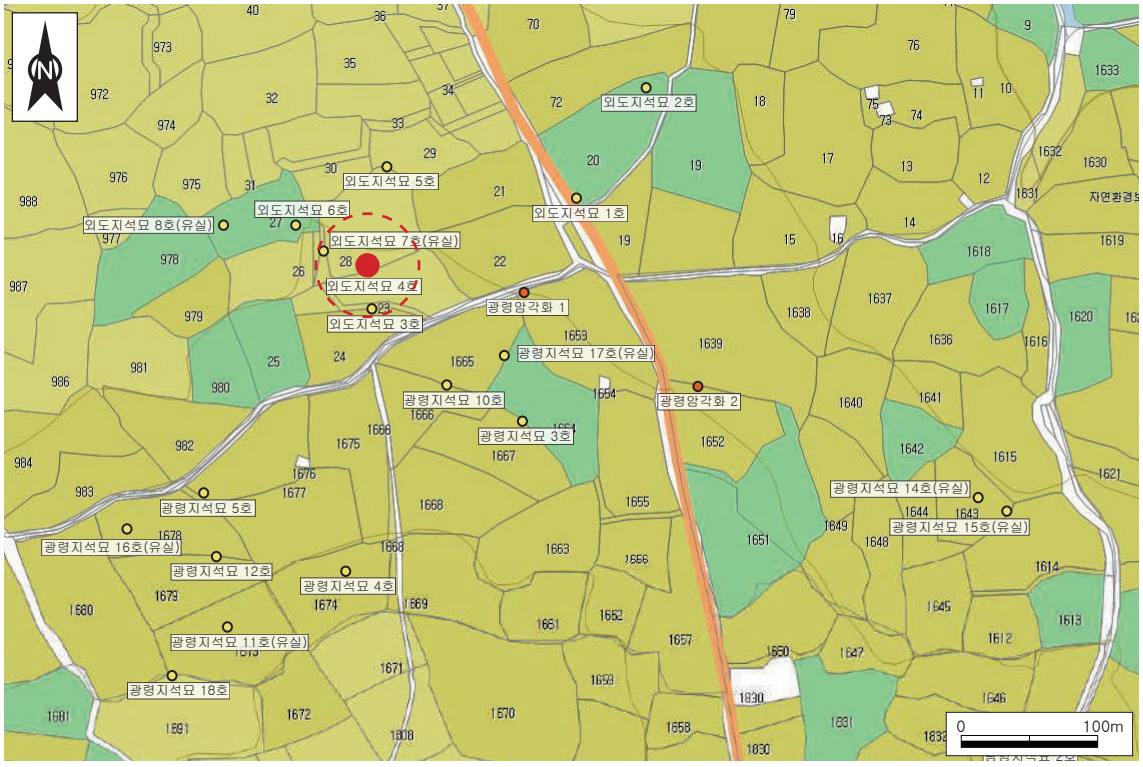
| 사진 16-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4호 (위에서) |



| 사진 16-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4호(남에서) |



| 사진 16-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4호 성혈 |



| 도면 16-③ 외도동 지석묘 4호 지적 현황도 |

17. 외도동 지석묘 5호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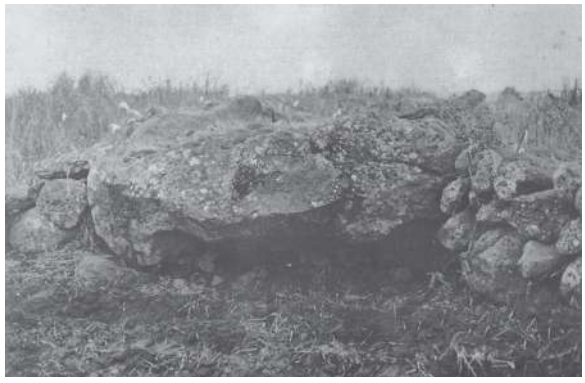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5(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8번지
3) GPS 좌표 : N 33°28′36.30″, E 126°26′13.36″
4) 해발고도 : 67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8번지와 29번지 사이 밭돌담에 위치하며 상석(上石)은 길이 295㎝, 폭 220㎝, 두께 30~40㎝로 장축은 동북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동남쪽으로는 두께가 얇고 그반대편은 두꺼워 넓적한 지석(支石)으로 고이거나 거의 지표에 닿아 있는 상태이다. 지석(支石)은 서남편과 북편에 하나씩 있고 상석(上石)이 두꺼워진 북서편은 바로

지표면에 놓여 있고 상석(上石)하부 중앙에 작은 돌 몇 개가 받치고 있다. 성혈(性穴)은 상석(上石)의 정남방향에 8개가 뚜렷하다.



| 사진 17-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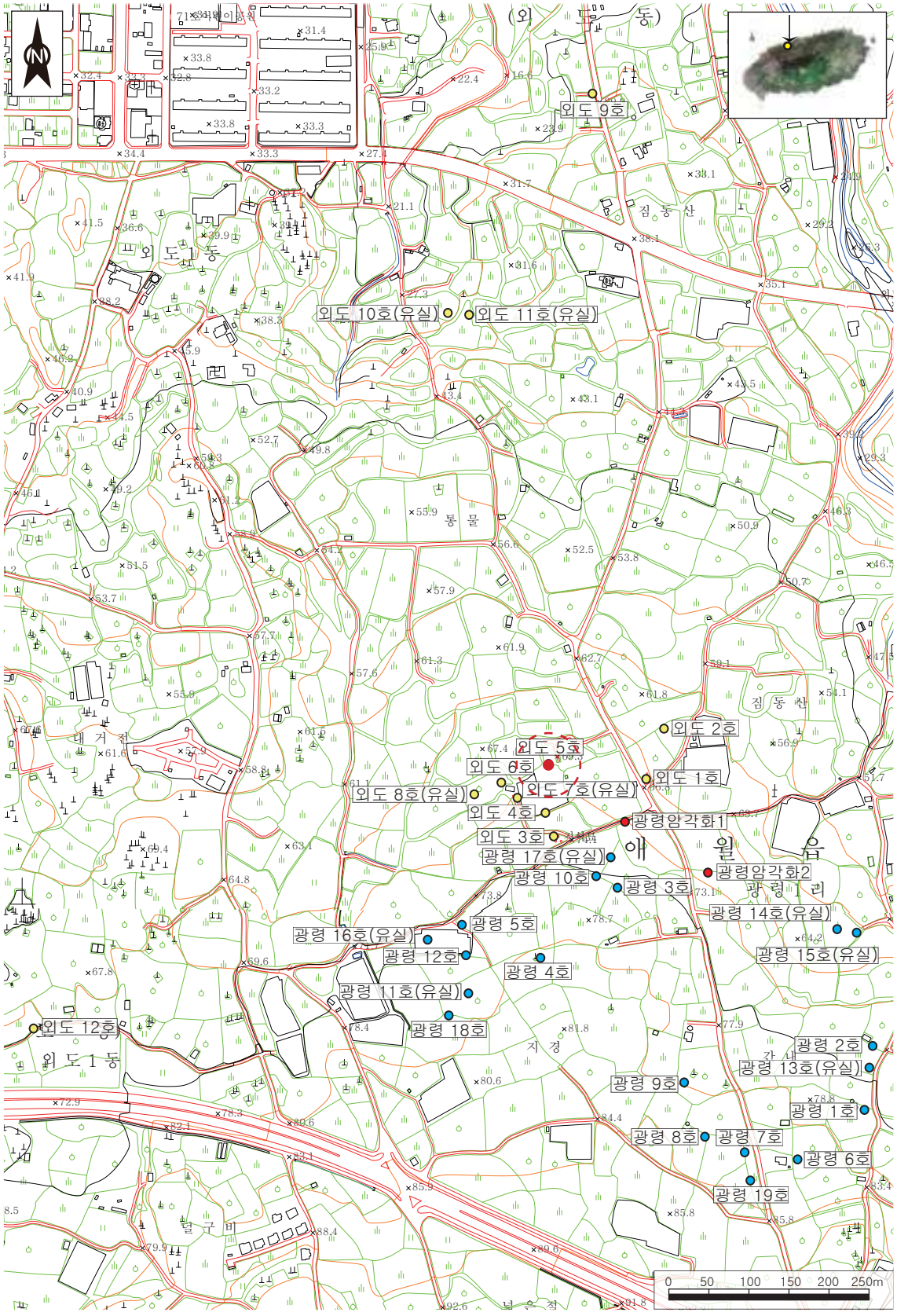
| 사진 17-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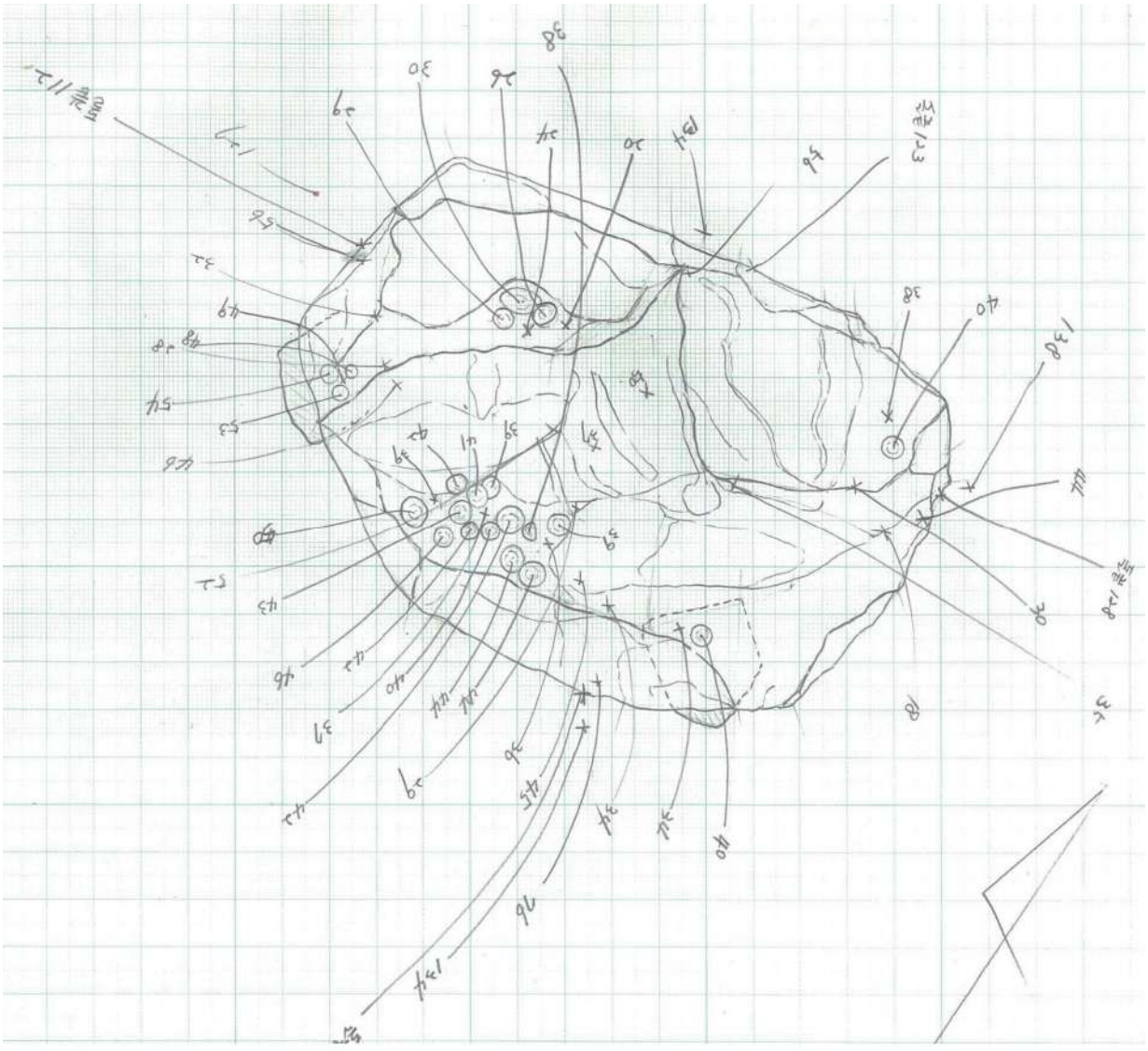
주변 밭보다 지대가 높은 밭 돌담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195㎝, 폭 220㎝, 두께 30~40㎝이다. 상석의 상면은 매우 굴곡이 심하나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현상을 보면, 상석의 동남쪽은 두께가 매우 얇고, 그 반대편은 두꺼워 넓적한 지석으로 고이거나 거의 지표에 닿아 있는 상태이다. 지석은 서남편과 북편에 하나씩 있고 북서편은 바로 지면에 놓여 있다. 상석하부 중앙에 작은 돌 몇개가 받치고 있다. 성혈은 상석의 정남방향에 8개가 뚜렷하다. 트인 부분은 막음돌을 사용하여 반지상의 매장부를 보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15호로 지정되어 있다. 4호 지석묘가 있는 과수원의 비닐하우스 북쪽에 위치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안에서 2km 떨어진 곳이며 광령천 서쪽 560m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180cm, 두께 58~112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형태는 아치형으로 추정된다. 상석의 상면과 아랫면은 굴곡이 심한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측면은 일부 치석흔이 확인된다. 상석의 남쪽과 서쪽에 6~12cm 크기의 성혈 12개가 있다. 지석은 남쪽에서 판상석 2매(44×46cm, 40×43cm)와 할석 2개(80×22 cm, 20×35cm) 총 4개가 확인된다.



| 도면 17–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17-② 외도동 지석묘 5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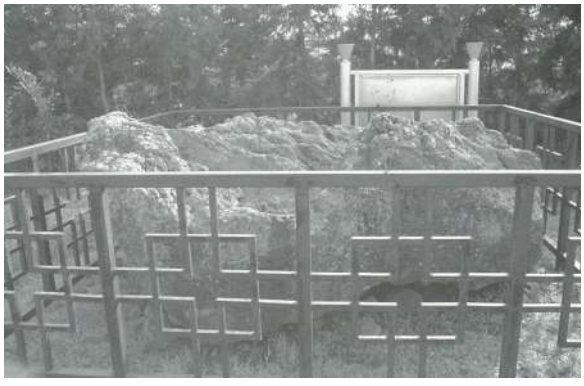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5호이며 외도동 28번지 비닐하우스 북쪽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지석이 이탈되면서 일부 도괴된 상태이다. 지석묘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지석묘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사진 1-④,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원상 그대로 보존하며 지석묘 관람이 용이하게 관람로를 설치하고 관람을 방해하지 않게 보호책을 설치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문화재 지정사항과 내용에 맞게 교체한다. 외도동 지석묘 5호 주변에는 유실된 지석묘들이 있던 기록이 있어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사진 17-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 사진 17-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5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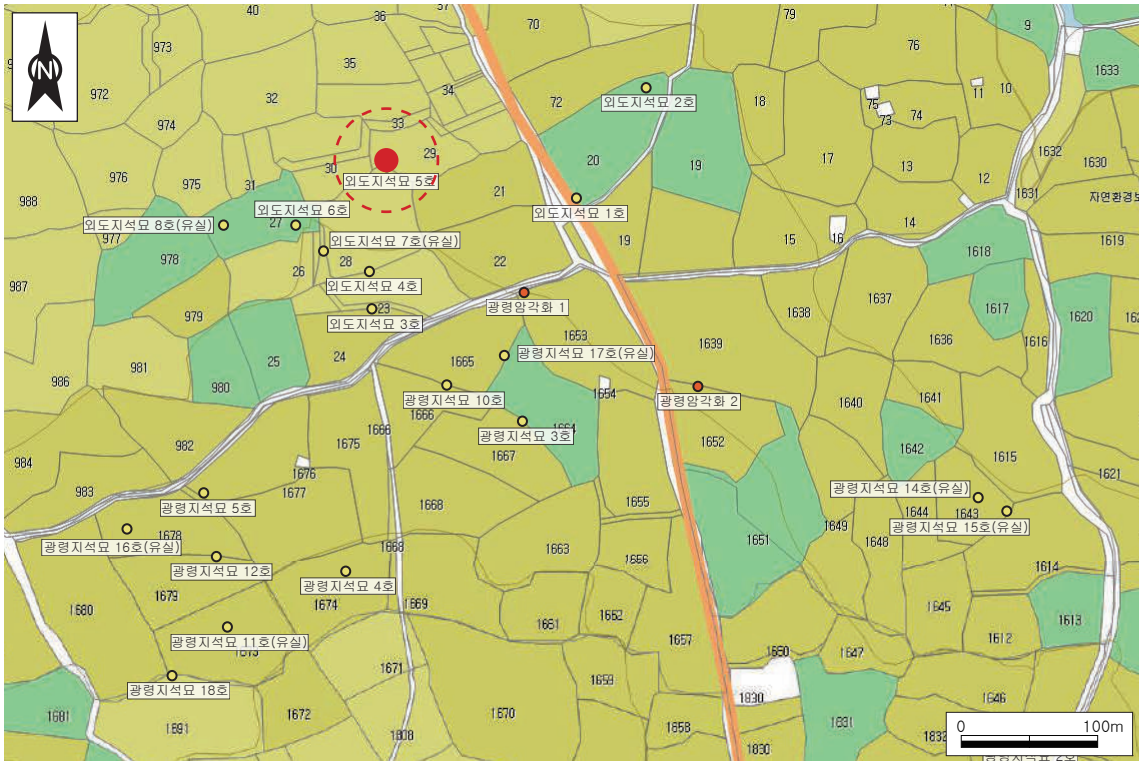
| 사진 17-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5호(남에서) |



| 사진 17-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5호 성혈 |



| 도면 17-③ 외도동 지석묘 5호 지형 측량도 |



| 도면 17-④ 외도동 지석묘 5호 지적 현황도 |

18. 외도동 지석묘 6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7번지
3) GPS 좌표 : N 33°28′35.34″, E 126°26′11.00″
4) 해발고도 : 68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7번지 밭에 있으며 돌출된 암반을 이용하여 상석(上石)을 고였다. 한쪽은 높이 치켜지고 그 반대편은 거의 지표면에 닿아 있는데다 넓적한 지석이 고여 있는 형식이다. 높이 치켜진 부분에는 현재 지석(支石)이 없으나, 원래 지석(支石)이 끼여 있었음을 상석(上石) 가장자리 아랫면의 흔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상석(上石)은 길이

315㎝, 폭 265㎝, 두께 60㎝이며 장축은 북동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上石) 남동쪽으로 치우쳐 4개의 성혈(性穴)이 보인다.



| 사진 18-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 사진 18-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상석의 크기는 길이 315㎝, 폭 265㎝, 두께 60㎝이며 장축은 북동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돌출된 암반위에 상석을 막바로 얹었다. 한쪽은 높이 치켜지고 그 반대편은 거의 지표면과 닿아 있는데다 넓적한 지석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높이 지켜올린 부분에는 현재 지석이 없으나, 상석의 가장자리 아랫면에 지석을 끼웠던 흔적이 있다. 상석의 남동쪽에 치우쳐 4개의 성혈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고인돌은 시신매장을 지상에 두었음을 알수 있다. 외도동. 광령리 일대 24기 고인돌 중 말기단계의 것으로 여겨진다.

(3) 2015년 조사

외도동 지석묘 5호 서쪽으로 72m 떨어진 감귤과수원 창고 옆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80cm, 단축 235cm, 두께 40~78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상면을 수평으로 놓으면 방형일 것으로 생각된다. 상석의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5~8cm 가량의 성혈 5개가 있다. 상석 측면은 남쪽을 제외한 세 면에서 치석흔이 확인된다. 지석묘 하부에는 잡석이 쌓여 있으며 북서쪽에서는 판석 1매(85×45×10 cm)가 확인된다. 정연하게 치석된 판석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판석으로 석실을 조성한 위석식 또는 판석+할석의 변형 위석식으로 추정된다.



| 사진 18-③ 2005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 사진 18-④ 1998년 외도동 지석묘 6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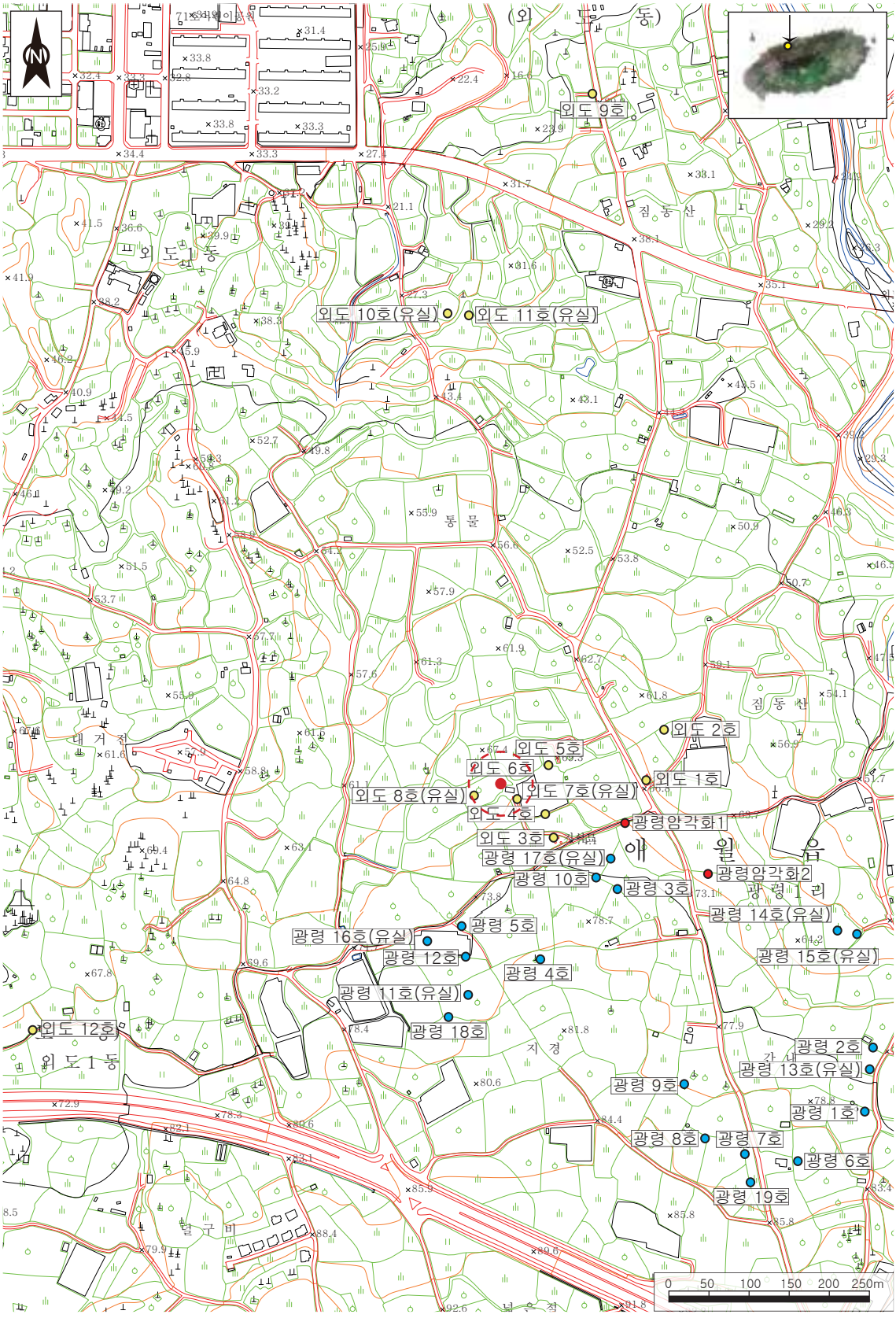
| 사진 18-⑤ 2015년 외도동 지석묘 6호(북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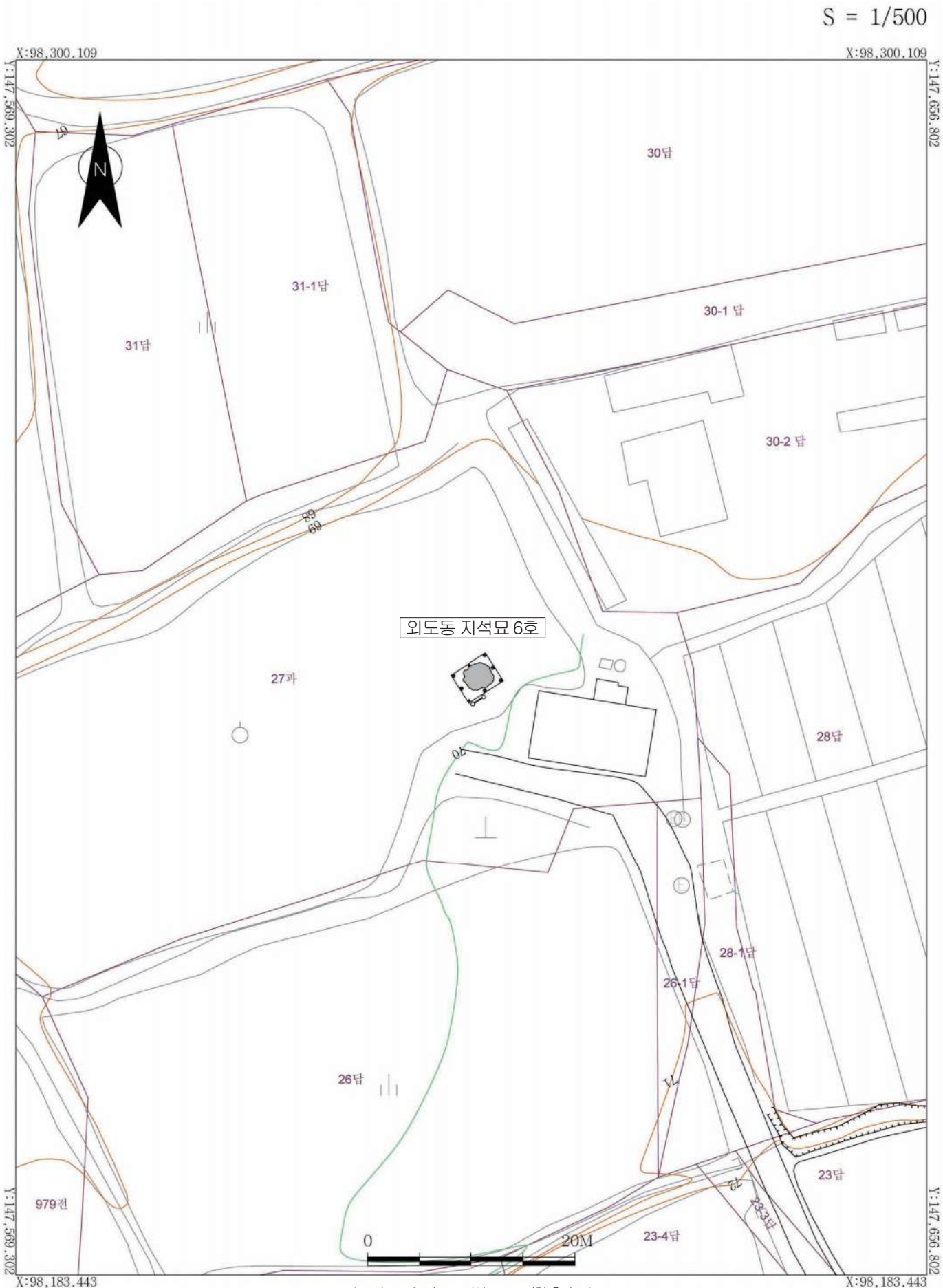
| 사진 18-⑥ 2015년 외도동 지석묘 6호 성혈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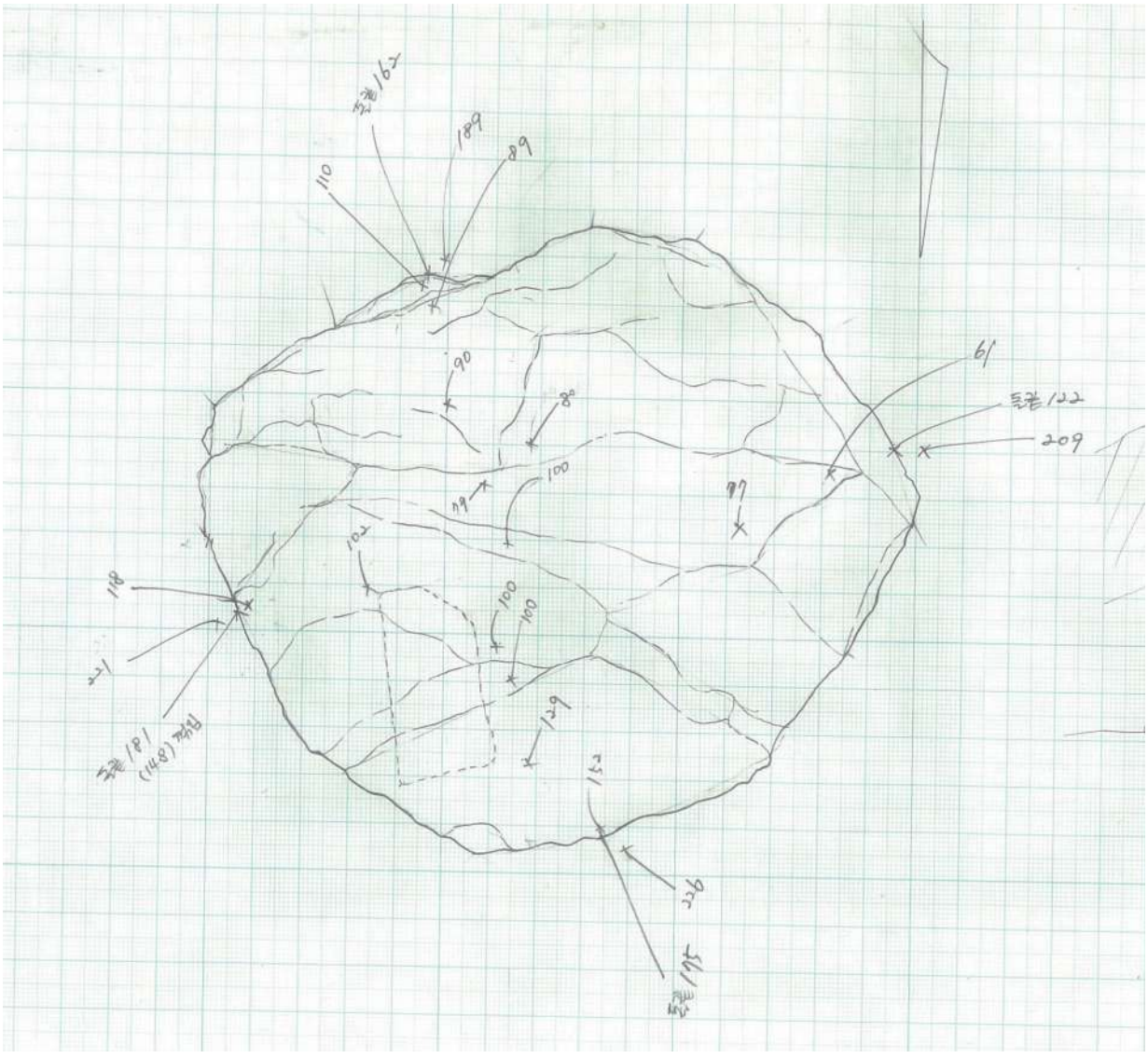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⑧『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도면 18-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18-② 외도동 지석묘 6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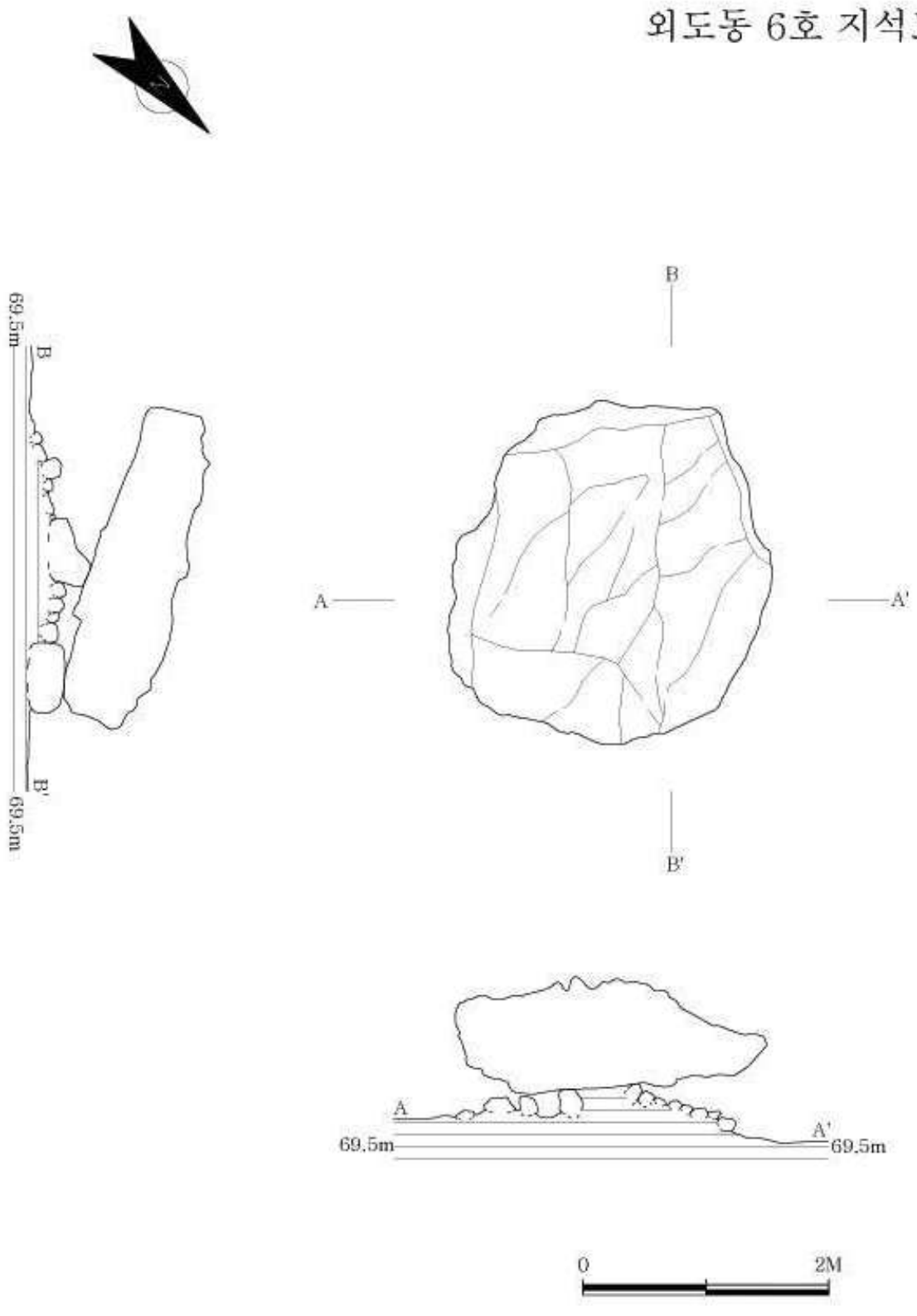


| 도면 18-③ 외도동 지석묘 6호 상석 평면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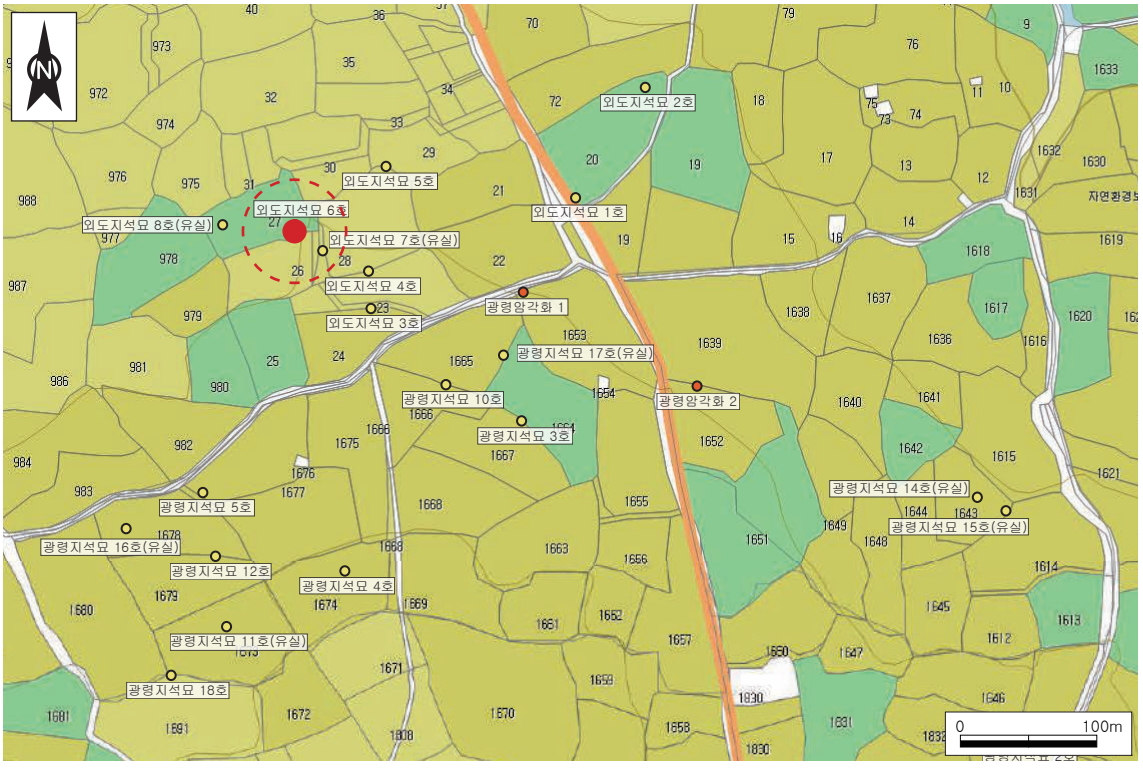
비지정 지석묘이며 외도동 27번지 창고 북서쪽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지석이 이탈되면서 일부 도괴된 상태로 잡석무지 위에 놓여 있다. 지석묘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지석묘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사진 1-④,⑤ 참조).



| 도면 18-④ 외도동 지석묘 6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원상 그대로 보존하며 지석묘 관람이 용이하게 관람로를 설치하고 관람을 방해하지 않게 보호책을 설치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교체한다. 외도동 지석묘 6호 주변에는 유실된 지석묘들이 있던 기록이 있어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면 18-⑤ 외도동 지석묘 6호 지적 현황도

19. 외도동 지석묘 7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8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외도동 23번지와 28번지 동쪽 밭 사이 돌담 비탈에 상석(上石)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다. 지석(支石)은 빠져 없으며 상석(上石)은 길이 232㎝, 폭 171㎝, 두께 37㎝이다.



| 사진 19-① 1986년 외도동 지석묘 7호 |



| 사진 19-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7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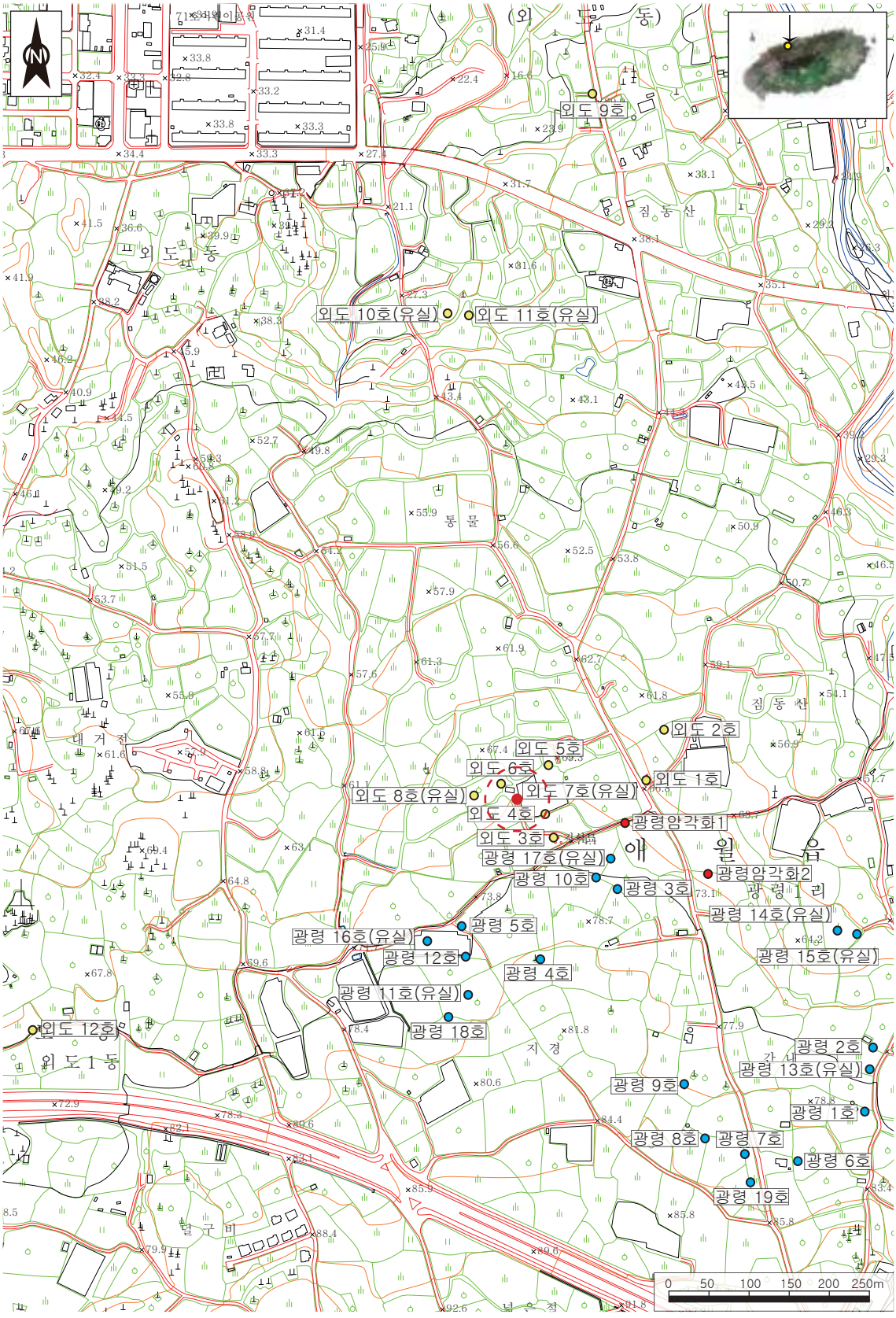
외도동 23번지와 28번지 동쪽 밭 사이 돌담 비탈에 상석이 비스듬히 쓰러져서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32㎝, 폭 171㎝, 두께 37㎝이다. 지석은 빠져 없다.

(3)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기록을 보면 외도동 지석묘 4호의 동쪽 밭 경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19-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외도동 지석묘 4호 동쪽 밭 경계에 있던 것으로 1998년 이후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나 기존 자리와 주변 필지에 대해서는 학술조사를 통하여 잔존하고 있을 지석묘 하부구조를 찾아야 할 것이다.



| 도면 19-② 외도동 지석묘 7호 지적 현황도 |

20. 외도동 지석묘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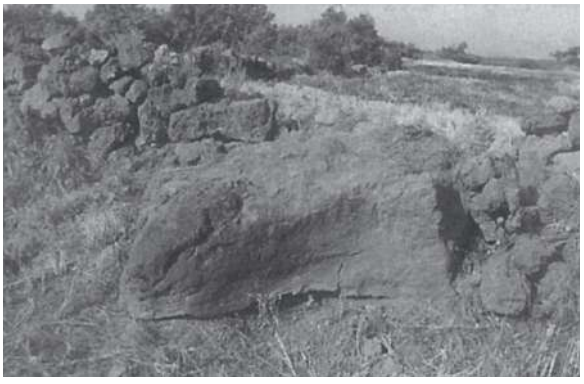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7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외도동 고인돌 6호에서 서쪽으로 15m거리에 있다. 서로 높낮이가 다른 밭경계에 상석이 반가량 묻혀 있는 상태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195㎝, 폭 140㎝, 두께 30~65㎝이다. 장축방향은 북동 30°를 가리키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꼴이고 상면은 굴곡이 심하다. 지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광령리 16호고인돌과 유사한 형식으로 무지석식(개석식)고인돌에 속한다.



| 사진 20–① 1992년 외도동 지석묘 8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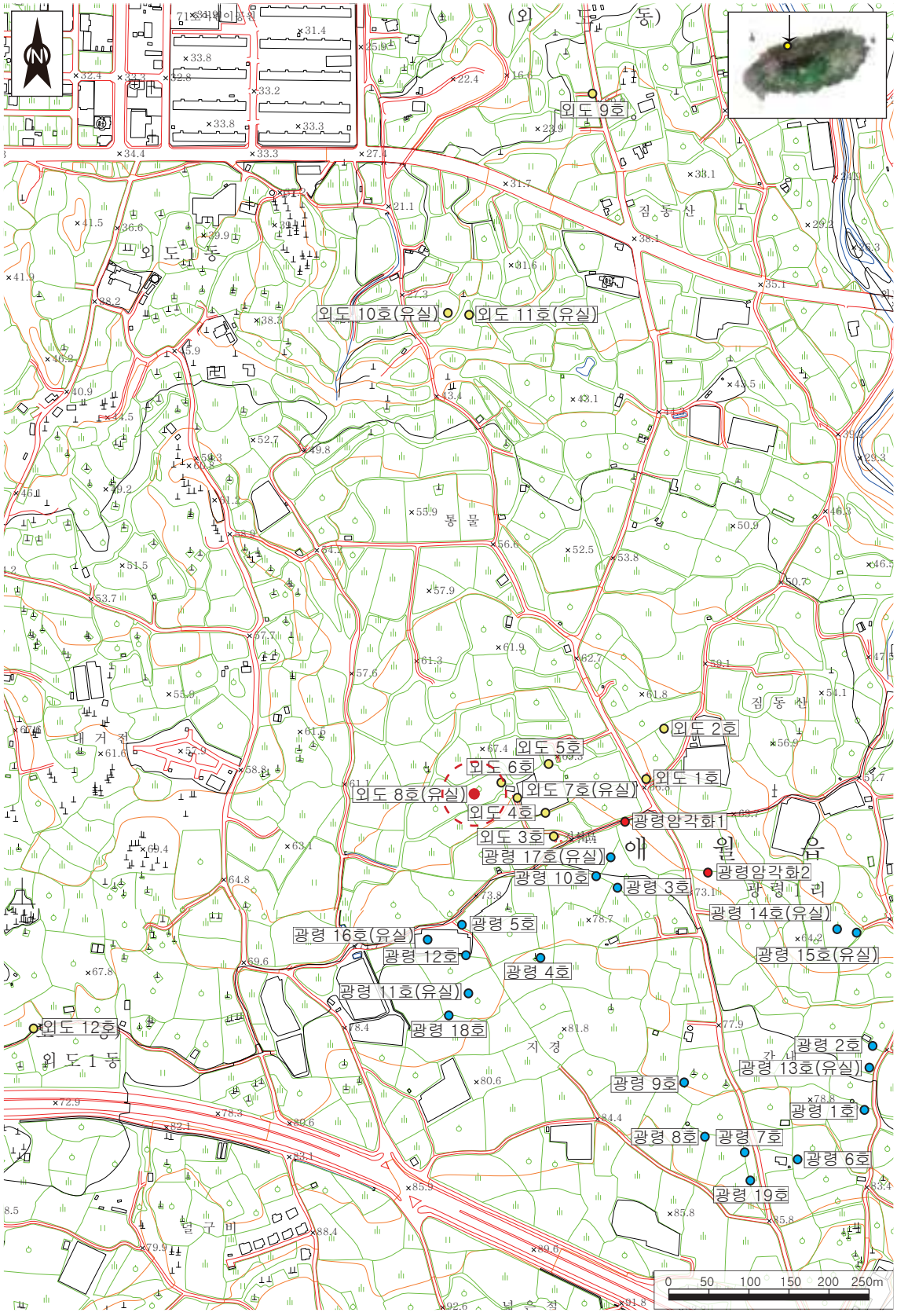
| 사진 20–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8호 하부 |

(2)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기록을 보면 외도동 지석묘 6호의 서쪽 밭 경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①『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③『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20-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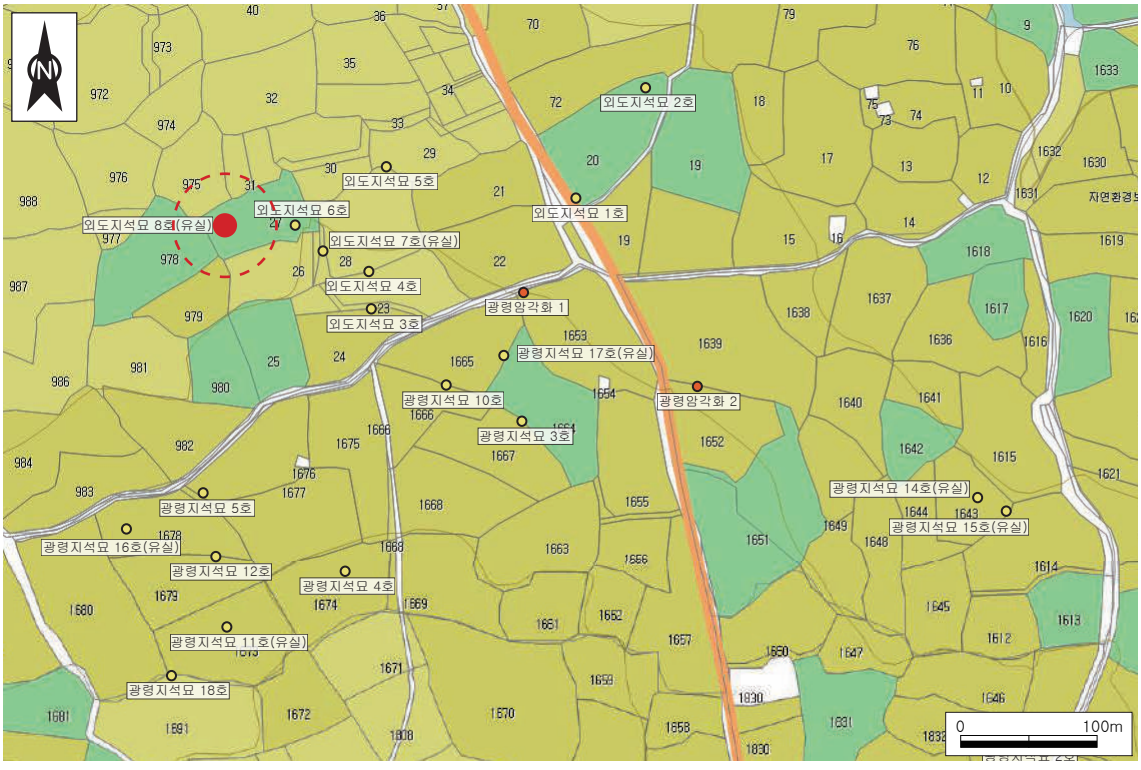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외도동 지석묘 6호 서쪽 밭경계에 있던 것으로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나 기존 자리와 주변 필지에 지석묘 하부구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도면 20-② 외도동 지석묘 8호 지적 현황도

21. 외도동 지석묘 9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24-3번지
3) GPS 좌표 : N 33°29′03.07″, E 126°26′16.07″
4) 해발고도 : 31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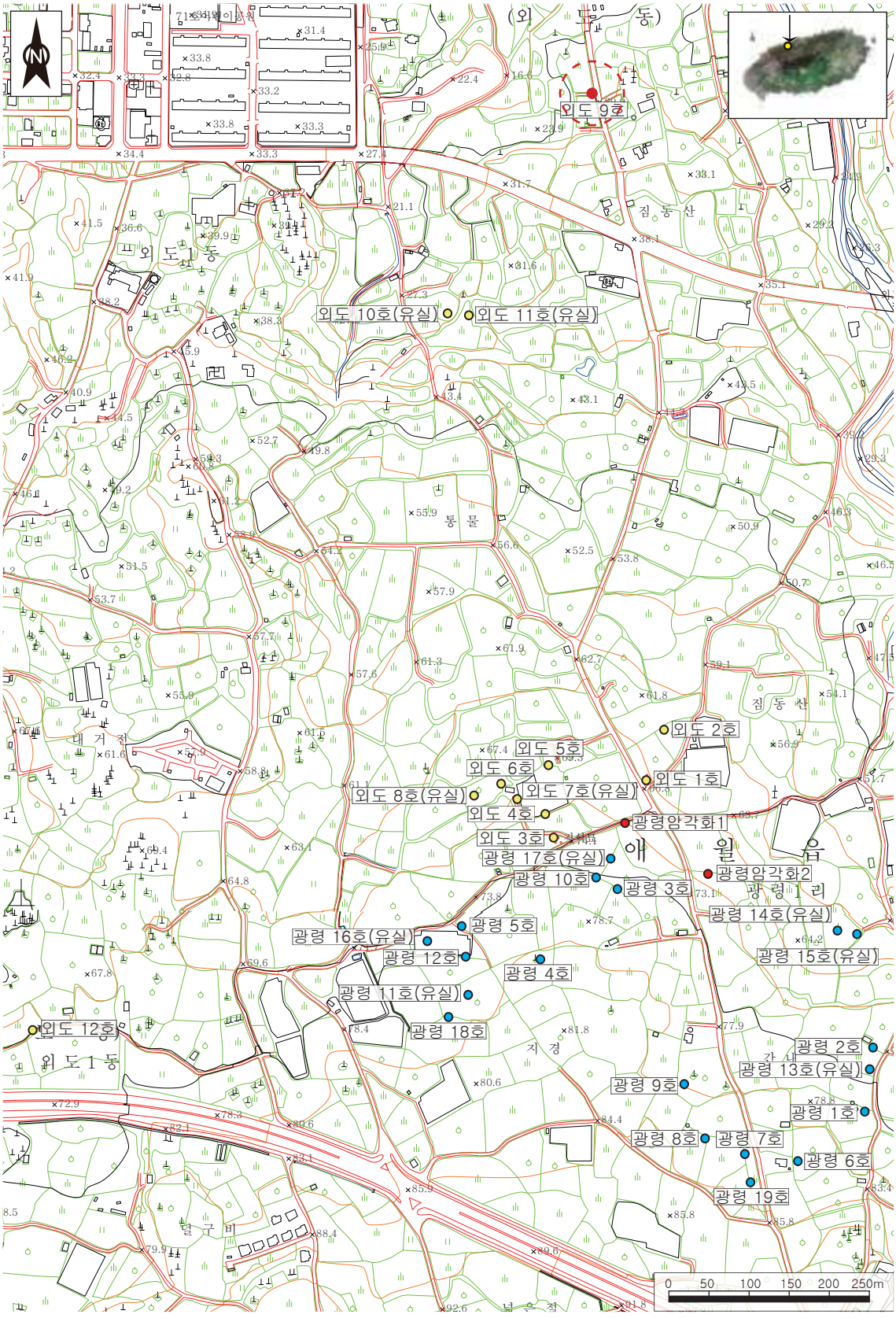
용담동 발굴 고인돌과 함께 1985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고인돌이다. 상석(上石)은 길이 204㎝, 폭 134㎝, 두께 77㎝로서 장축방향은 북동방향으로 다음에 볼 지하석곽(地下石槨)시설과 동일하다. 상석(上石)을 제거하니 잔돌로 덮은 적석부(積石部)가 드러나고 뚜렷이 지석(支石)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었다. 적석(積石)의 범위는 상석(上石)보다 넓어 길이 305㎝, 폭 255㎝의 범위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적석(積石)시설을 들어내니 길이 272㎝, 폭 145㎝의 석곽(石槨)시설이 드러났다. 석곽의 남동벽은 기존의 자연암반을 깨내어 만들었으며, 나머지 북동, 남동, 남서쪽의 벽은 잔돌로 낮게 쌓았는데 그 높이는 20~30㎝정도였다. 석곽(石槨)의 바닥면은 생토바닥 그대로이다. 출토유물로는 적석(積石)을 들어내면서 무문토기(無文土器) 소편(小片)이 수점 출토되었을 뿐이다. 이 토기편은 거친 태토에 두터운 기벽(器壁)의 철기시대 곽지식(郭支式) 무문토기 계통이다.



| 사진 21-① 1992년 외도동 지석묘 9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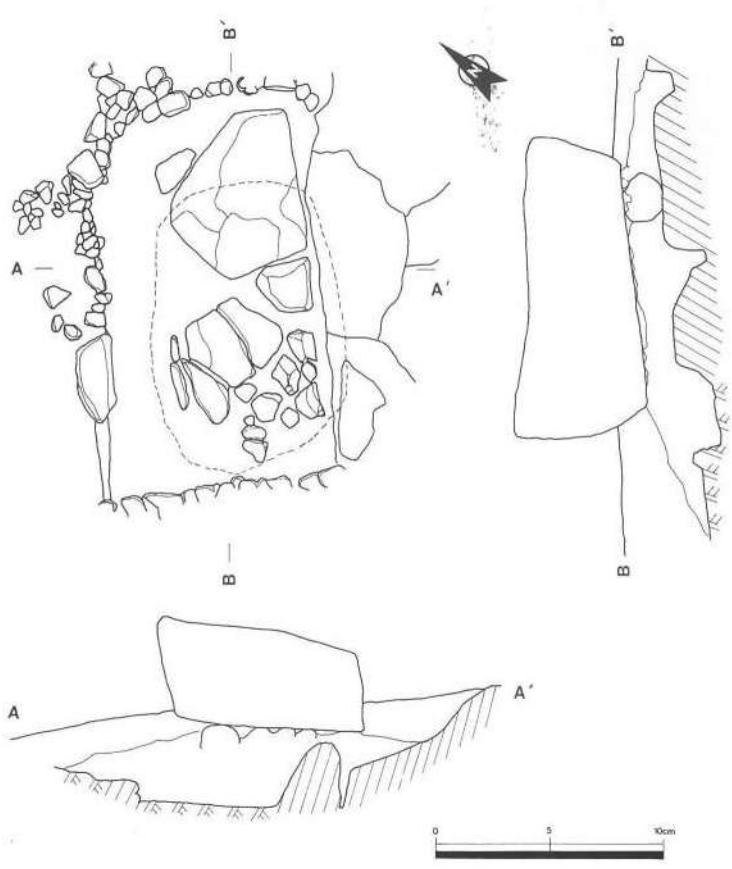
| 사진 21-② 1998년 외도동 지석묘 9호 |



| 도면 21-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상석은 길이 204㎝, 폭 134㎝, 두께 77㎝이다. 장축방향은 북동방향이다. 상석을 제거하니 잔돌로 덮은 적석부가 드러나고 뚜렷한 지석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다. 적석의 범위는 상석보다 넓어 길이 305㎝, 폭 255㎝의 범위로 만들어졌다. 이 적석시설을 들어내니 길이 272㎝, 폭 145㎝의 석곽시설이 드러났다. 석곽의 남동벽은 기존의 자연암반을 꺼내어 만들었으며, 나머지 북동, 남동, 남서쪽의 벽은 잔돌로 낮게 쌓았다. 그 높이는 20~30㎝정도였다. 석곽의 바닥면은 생토바닥 그대로였다. 출토유물로서는 적석을 들어내면서 적갈색 토기가 수점 출토 되었다. 모두 거친 태토에 기벽이 두터운 항아리형 적갈색 토기이다.



| 도면 21–② 외도동 지석묘 9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

(3) 2015년 조사

발굴 조사 된 이후 방치되어 현재는 밭 경계에 옆으로 세워져있다.



| 사진 21–③ 2015년 외도동 지석묘 9호 (위에서) |



| 사진 21–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9호 (동에서)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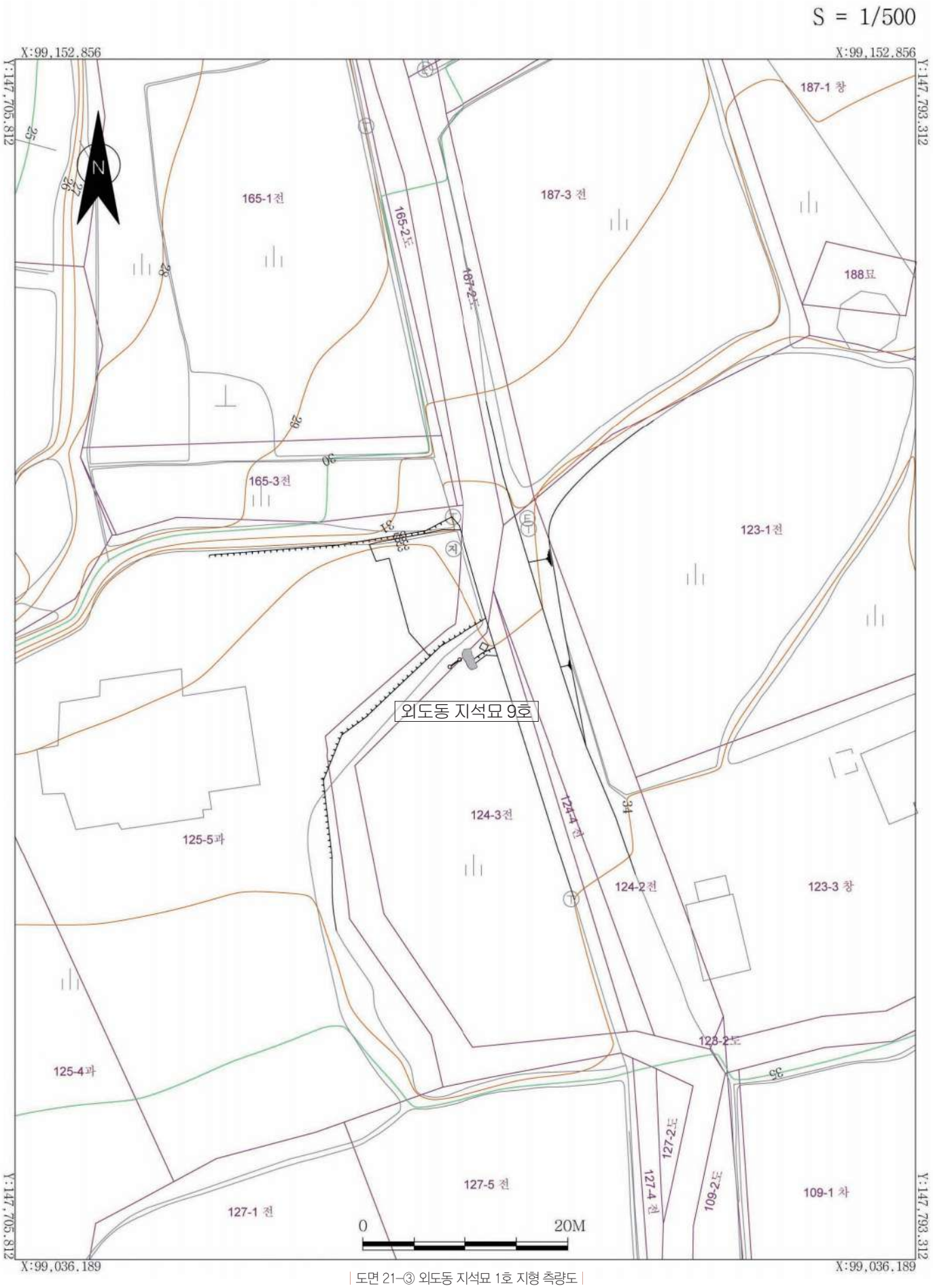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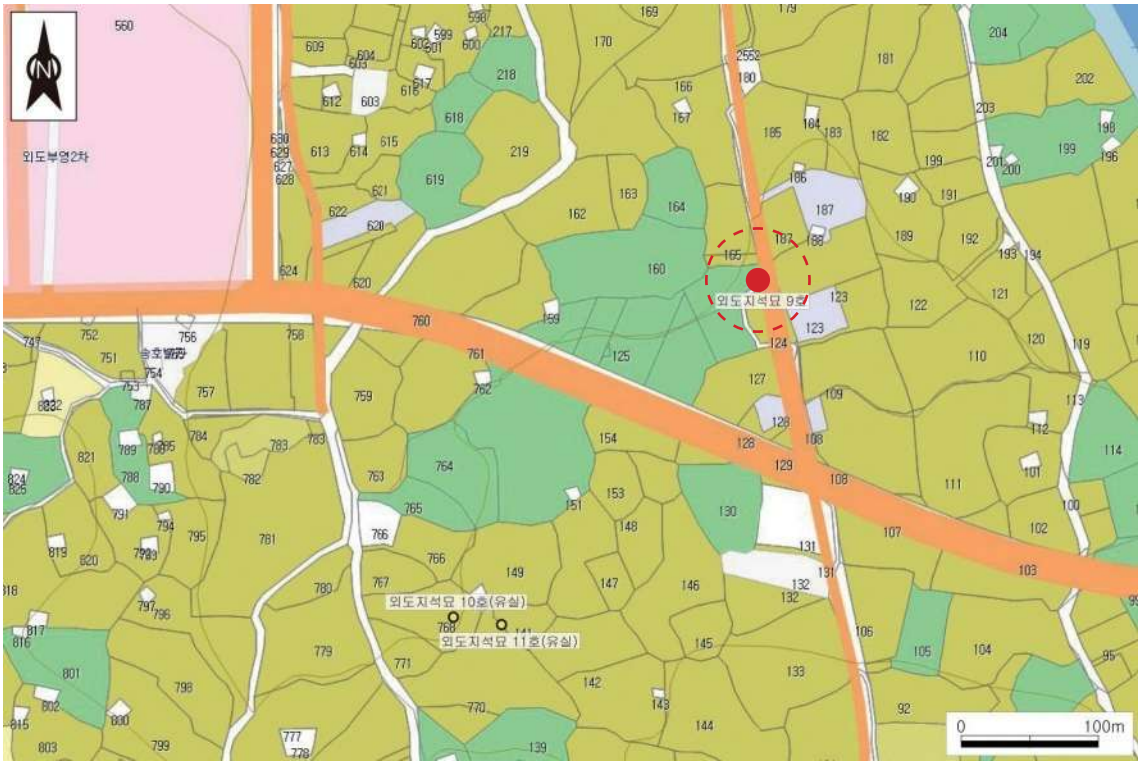
1985년 발굴조사 하였으며 1992년 이후 밭경계에 세워진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비지정 문화재이나 지석묘 상석으로 적당한 장소에 이전 · 복원해야 한다.



| 도면 21-③ 외도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 도면 21-④ 외도동 지석묘 9호 지적 현황도 |

22. 외도동 지석묘 10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87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외도동 고인돌 9호에서 남서쪽으로 250m거리에 있다. 서로 높낮이가 다른 밭경계에 상석이 반가량 묻혀 있는 상태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195㎝, 폭 140㎝, 두께 30~65㎝이다. 장축방향은 북동 30°를 가리키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꼴이고 상

면은 굴곡이 심하다. 지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광령리 16호고인돌과 유사한 형식으로 무지석식(개석식)고인돌에 속한다.



| 사진 22-① 1992년 외도동 지석묘 10호 |

(2)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③『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문화유적 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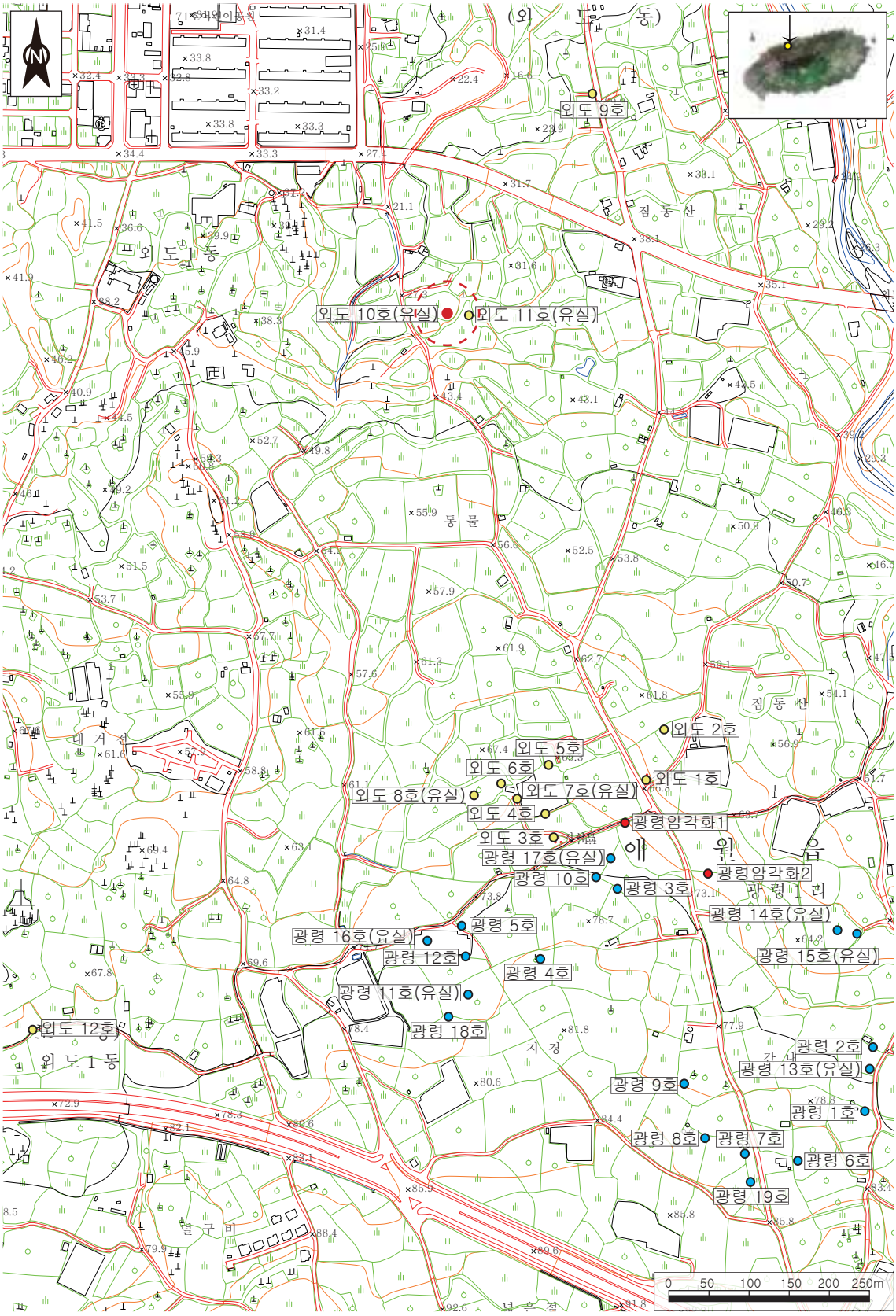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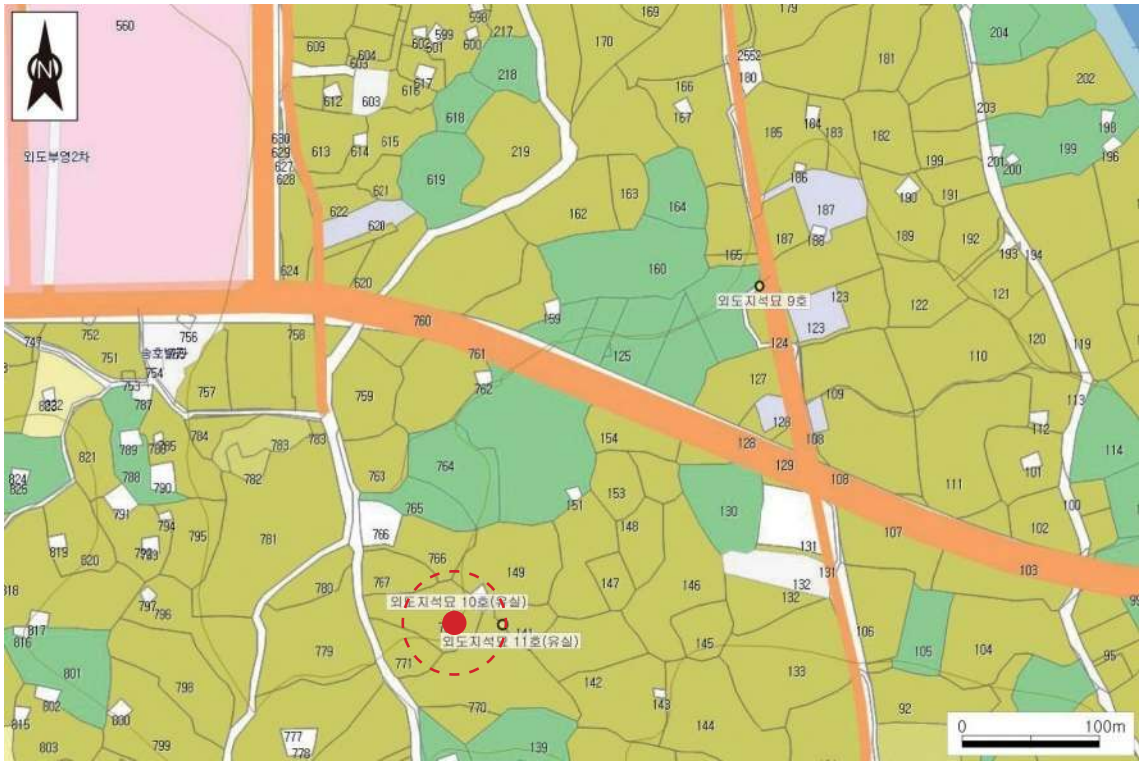
1998년 조사되었으나 이후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나 기존 자리와 주변 필지에 지석묘 하부구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 도면 22-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22-② 외도동 지석묘 10호 지적 현황도 |

23. 외도동 지석묘 11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88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외도동 고인돌 10호에서 동편 10m거리에 있다. 상석은 약간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밭경계에 상석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00㎝, 폭 120㎝,

두께 100~65㎝이다. 장축방향은 북동 30°를 가리키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꼴이고 상면은 굴곡이 심하다.



| 사진 23-① 1992년 외도동 지석묘 11호 |

(2)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③『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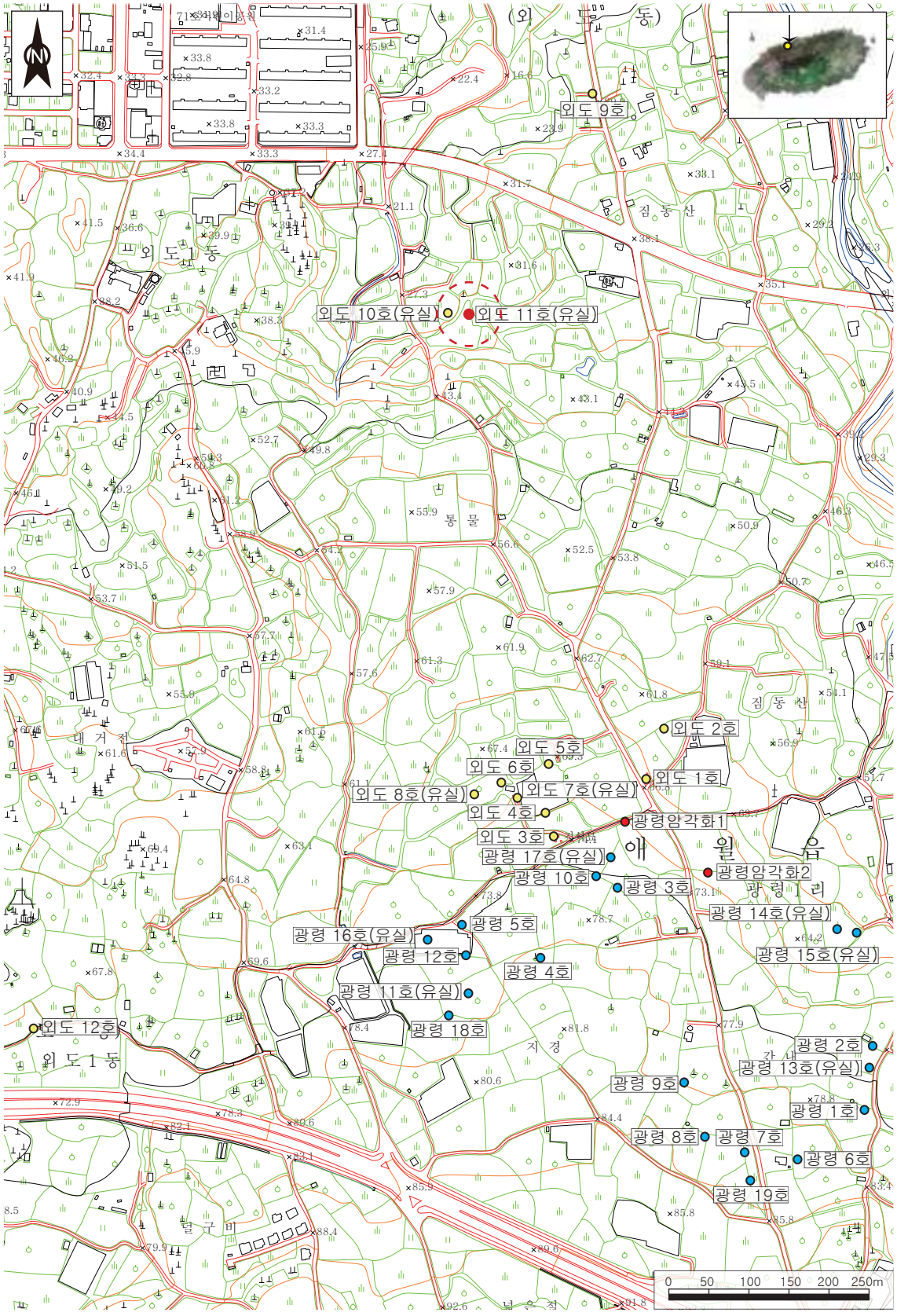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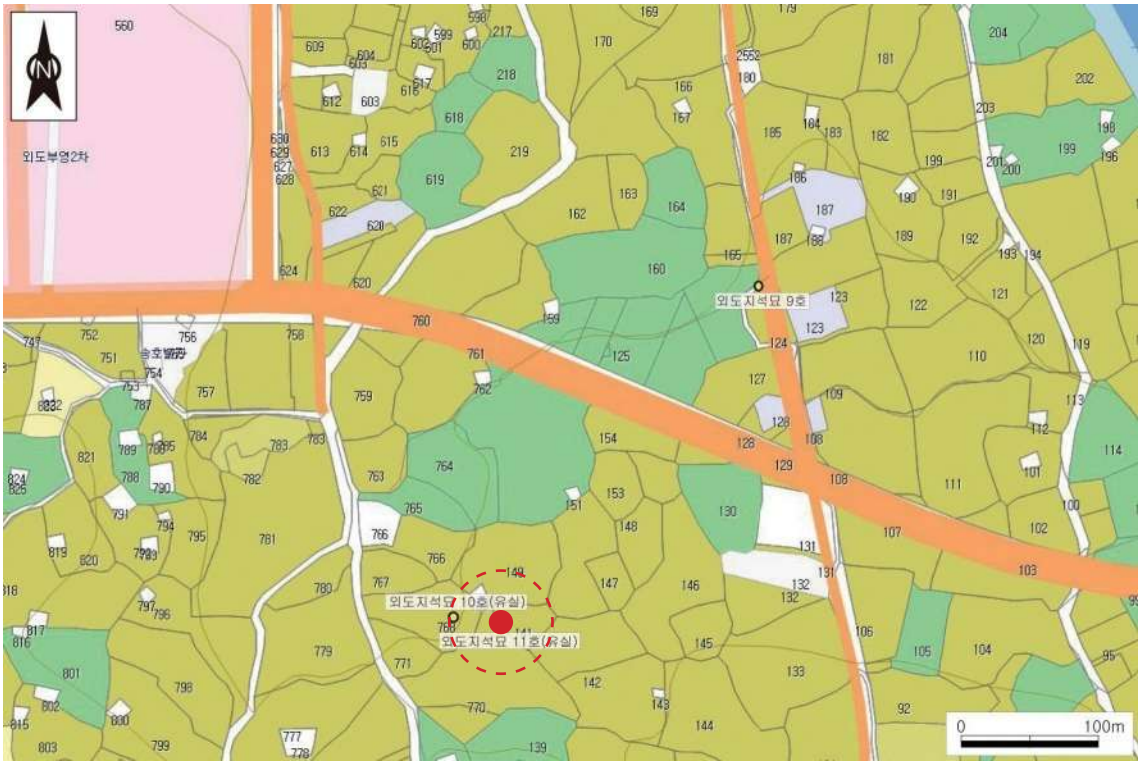
1998년 조사되었으나 이후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나 기존 자리와 주변 필지에 지석묘 하부구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 도면 2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23-② 외도동 지석묘 11호 지적 현황도

24. 외도동 지석묘 1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080번지
3) GPS 좌표 : N 33°28′24.47″, E 126°25′46.54″
4) 해발고도 : 72m

나. 조사 내용

(1)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지석묘는 현재 레벨차를 보이는 농로와 밭경계에 축조되어 있다. 상석은 장방형이며 하부에는 판석형 지석 4매를 이용해서 벽을 세우고 3매의 판석을 바닥에 깔아 곽을 설치하였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동서장축인 N45°W이고, 장축은 160cm, 단축 100cm, 상석의 두께는 58cm 가량이다.



| 사진 24-① 2004년 외도동 지석묘 12호 |



| 사진 24-②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2호 (북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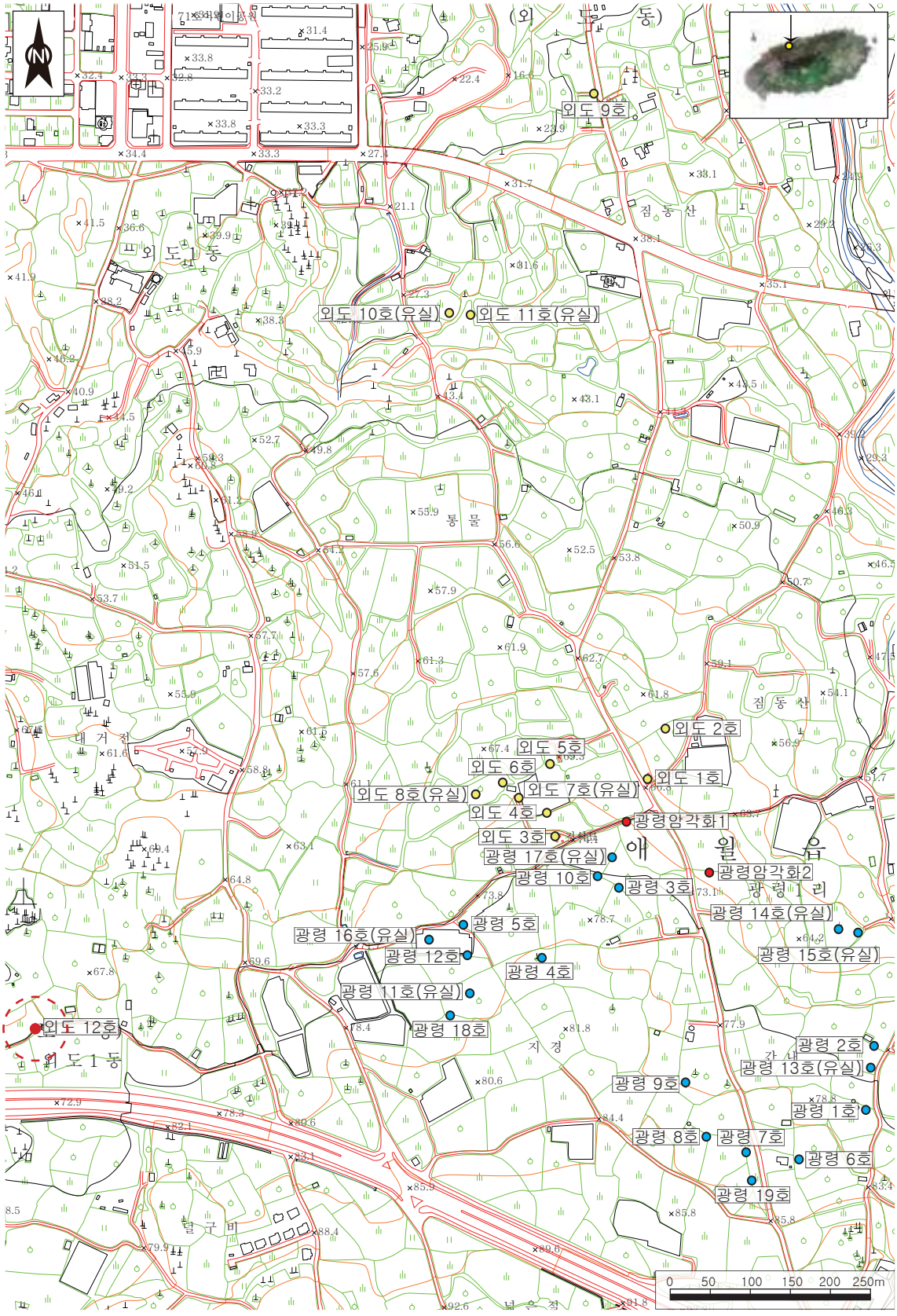
| 사진 24-③ 2004년 외도동 지석묘 12호(위에서) |



| 사진 24-④ 2015년 외도동 지석묘 12호 석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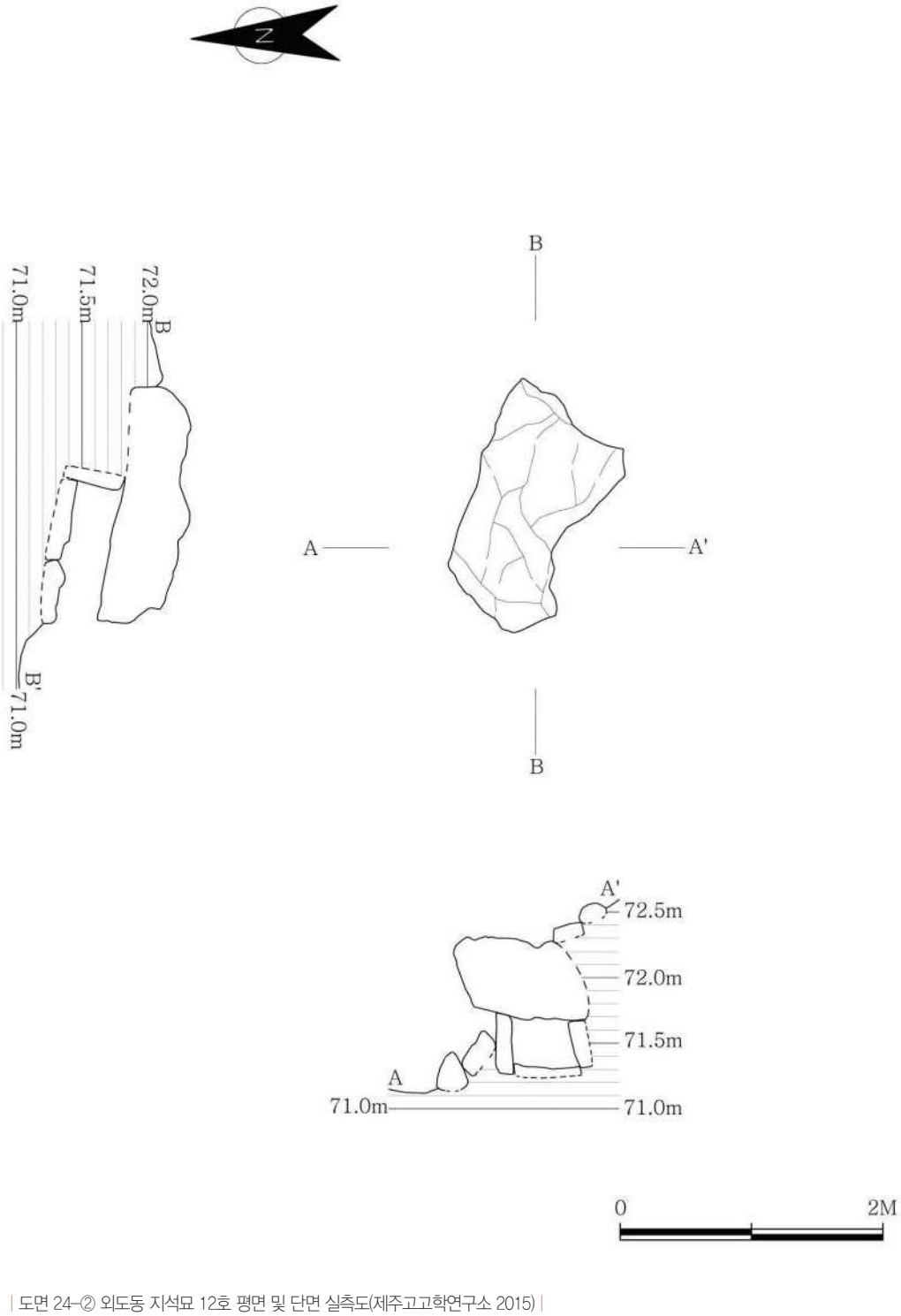
(2) 2015년 조사

지석묘는 애조로 북쪽에 있으며 하귀 농협 장례식장에서 동쪽으로 2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고성천 동쪽으로 450m 지점에 위치한다. 제주도에서 확인된 지석묘하부 구조 중 유일한 석관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15cm, 단축 108cm, 두께 65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단면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서쪽 단벽은 훼손되었다. 석관의 잔존장축은 90cm, 너비는 36cm이다. 석관의 벽석은 북장벽 장방형 판석재 1매(90cm), 남장벽 장방형 판석 1매(55cm), 방형 판석 1매(43cm), 동단벽 1매(40cm) 총 4매가 확인된다. 석실 벽석 내부는 치석하였으며 바닥석은 판석 3매를 깔았다. 석관의 판석은 조면암질과 다공질 현무암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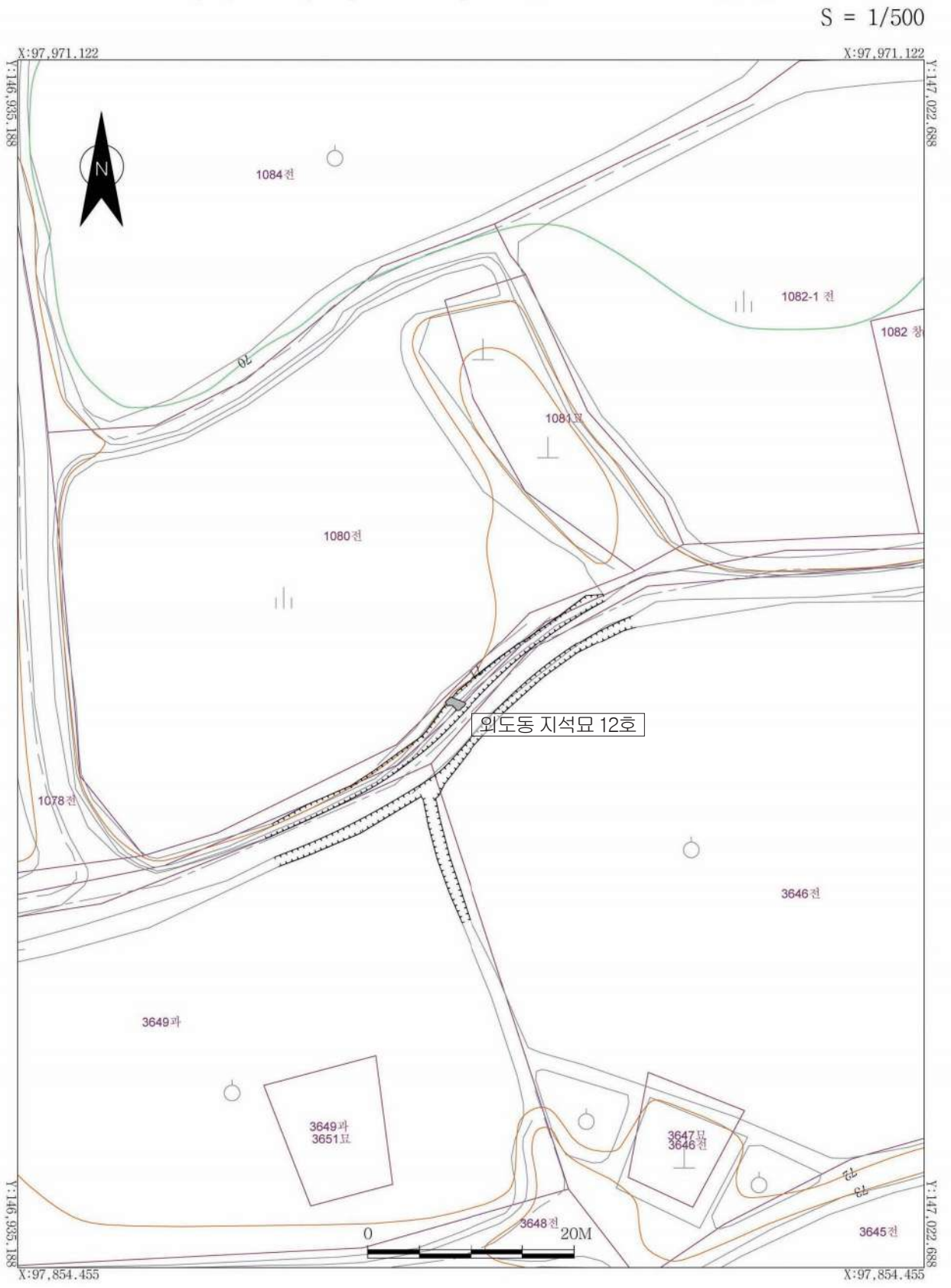


| 도면 24-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외도동 12호 지석묘



| 도면 24-② 외도동 지석묘 12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 도면 24-③ 외도동 지석묘 12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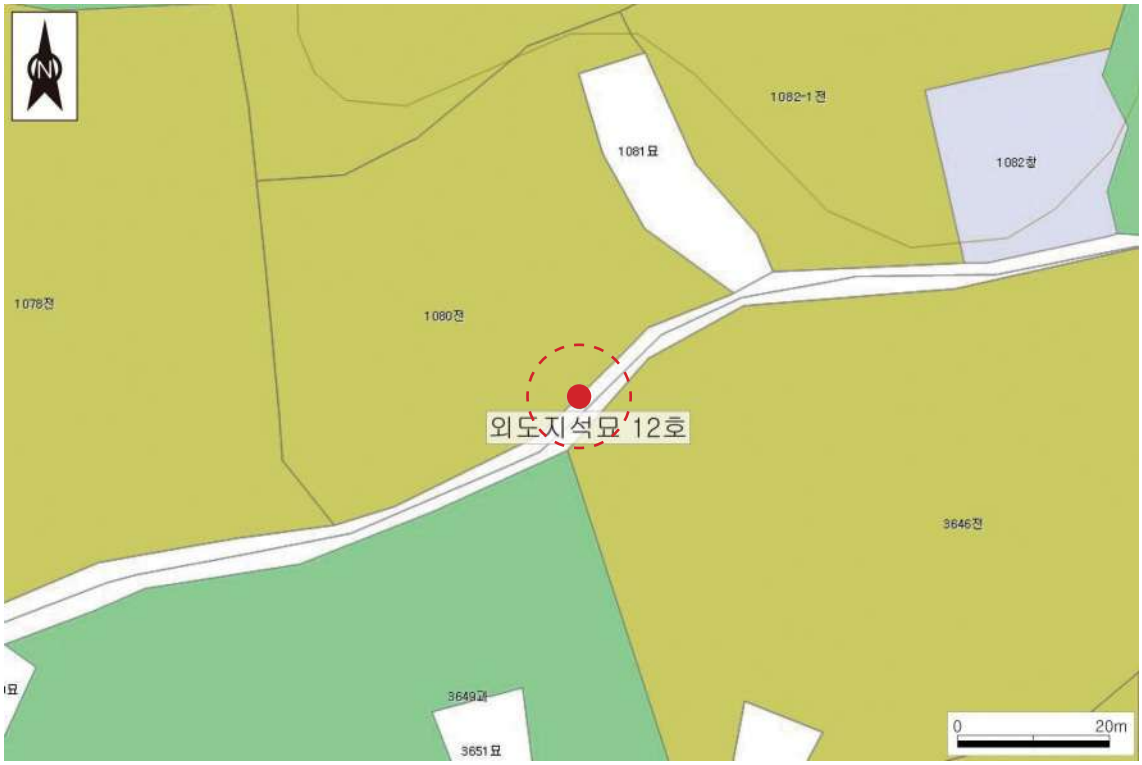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비지정 지석묘이며 현재 농로에 매몰되어 있고 북쪽면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사진 1–①,⑤ 참조).

2) 정비 · 활용계획

제주도 지석묘 중에 하부 구조가 유일하게 석관으로 확인된 지석묘로 학술조사 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 도면 24–④ 외도동 지석묘 12호 지적 현황도 |

25. 광령리 지석묘 1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6(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9-1번지
3) GPS 좌표 : N 33°28′21.24″, E 126°26′29.61″
4) 해발고도 : 77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애월읍 광령리 1610번지 밭 한가운데 있으며, 상석(上石)은 길이 361㎝, 폭 302㎝, 두께 40㎝로 장축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다. 지석(支石)은 남 · 남서 · 동쪽에 고여 있는데 남서쪽 것은 높이 56㎝, 폭 67㎝, 두께 18㎝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돌로 곧추 세워져 있다. 다른 두 곳은 납작 둥그스럼한 괴석(塊石)과 할석(割石)으로 고여 있으며 지석(支石)과 상석(上石)의 틈 사이에는 작은 돌이 끼워져 있다. 따라서 상석(上石)은 남서쪽이 높게 들려 있어 매장부가 서쪽으로 개방된 모습을 하고 있다. 상석(上石) 윗면에 북동쪽으로 치우쳐 직경 12㎝, 깊이 9.5㎝의 큼직하고 뚜렷한 성혈(性穴)이 6개 확인되었다.



사진 25-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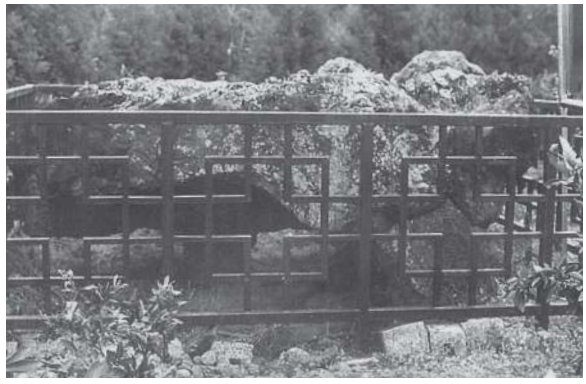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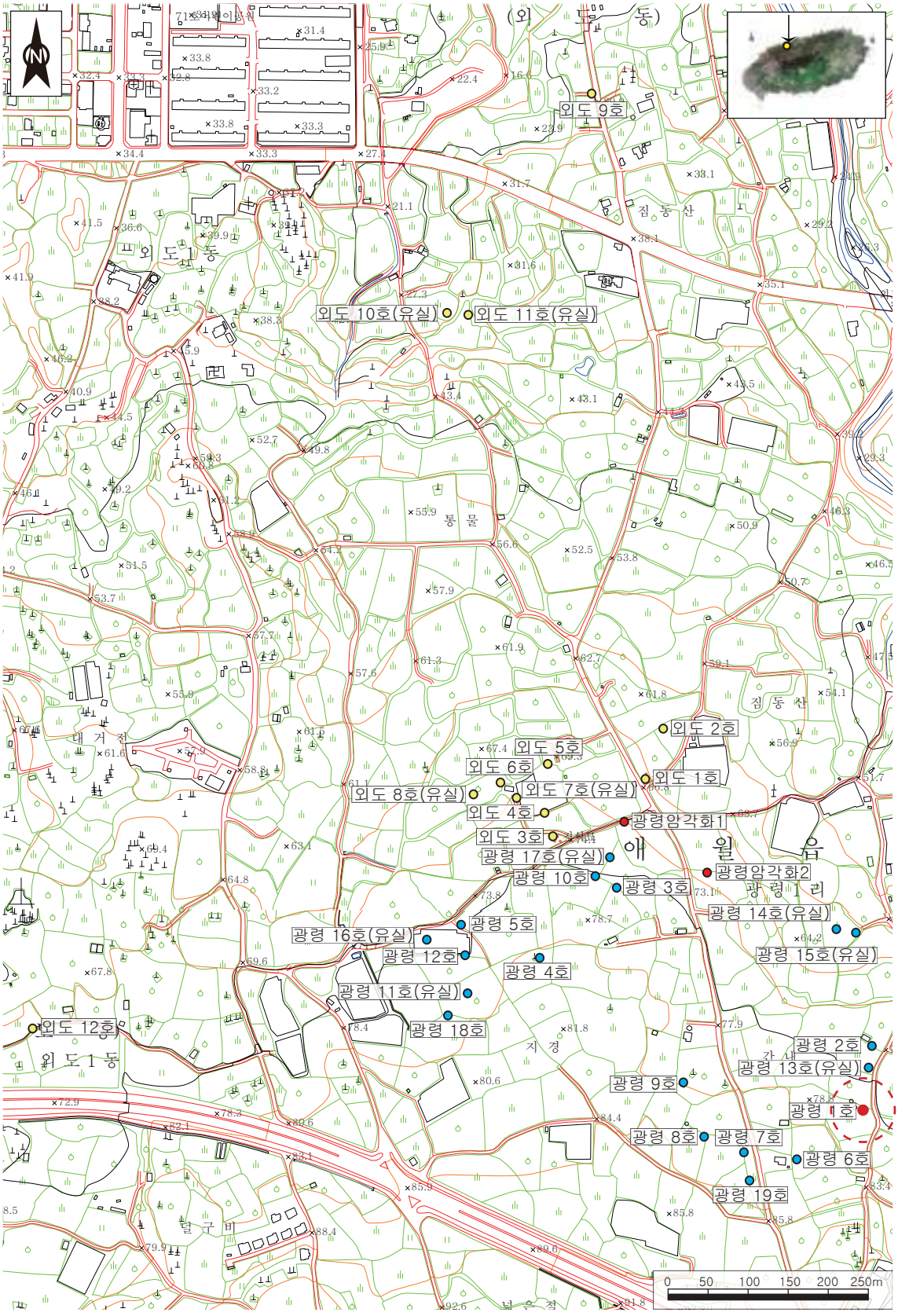
사진 25-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호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1호 고인돌 아래밭 한가운데 있으며 상석은 길이 361㎝, 폭 302㎝, 두께 40㎝로 이 일대 고인돌중 큰 편에 속한다. 대체로 불규칙한 삼각형을 하고 있으며 장축은 N30° W를 가리키고 있다. 지석은 남 · 남서 · 동쪽에 고여 있는데 남서쪽 것은 높이 56㎝, 폭 67㎝, 두께 18㎝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석으로 곧추 세워져 있다. 다른 두 곳은 납작둥그스럼한 괴석과 할석으로 고여 있으며, 지석과 상석의 틈 사이에는 작은 돌이 끼워져 있다. 따라서 상석은 남서쪽이 높게 들려 있어 매장부가 서쪽으로 개방된 모습을 하고 있다. 상석하부에 퇴적된 표토를 제거하니 바로 암반이 노출될 뿐, 매장시설로 이용했음직한 석곽 혹은 토광의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제2호 고인돌의 경우 시신이 놓인 매장부는 지상일 가능성이 크며 일단 지석묘 시설이 축조되고 나서 상석하 열려진 서쪽으로 시신을 들이민 다음 지금은 없어졌지만 막음돌로 폐쇄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식 발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언할 수 없지만, 제22호 고인돌도 상석 한쪽이 높이 들려 매장부가 공개되고 9호 고인돌의 경우는 막음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큼직한 돌들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상석 윗면에 북동쪽으로 치우쳐 직경 12㎝, 깊이 9.5㎝의 큼직하고 뚜렷한 성혈이 6개 확인되었다.

⑶ 2015년 조사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16이다. 사라마을 입구에서 외도 성지요양원으로 내려가는 길의 동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길 서쪽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2.5km 이격되어 있으며 광령천에서 서쪽으로 1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23cm, 단축 286cm, 두께 57~86cm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단면은 제형이다. 상석의 상 · 하면은 울퉁불퉁한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측면에서 치석흔이 확인된다. 상석의 동쪽 모서리에는 크기 6~12cm 가량의 성혈 7개가 있다. 지석은 3개가 확인된다. 남쪽 모서리에는 현무암제 판석(64×60×15cm)이 세워있으며 동쪽 모서리에는 판석형 할석(75×68×10cm)이 누워있다. 그리고 상석 중앙에 할석(38×32×29cm) 1개가 있다. 세워진 판석을 제외한 지석 2개는 밑으로 잡석과 흙이 혼재되어 받치고 있는 있다. 지석 밑에 깔린 흙은 지석묘 하부의 퇴적층 또는 지석묘 축조 시 성토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현재 상태로는 암반으로 보이나 여러 석재가 매우 편평하게 깔려 있는 듯 보이는 것이 바닥시설 또는 매장주체부를 덮는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 도면 25-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진 25–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호 |



| 사진 25–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호 (위에서) |



| 사진 25–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호 지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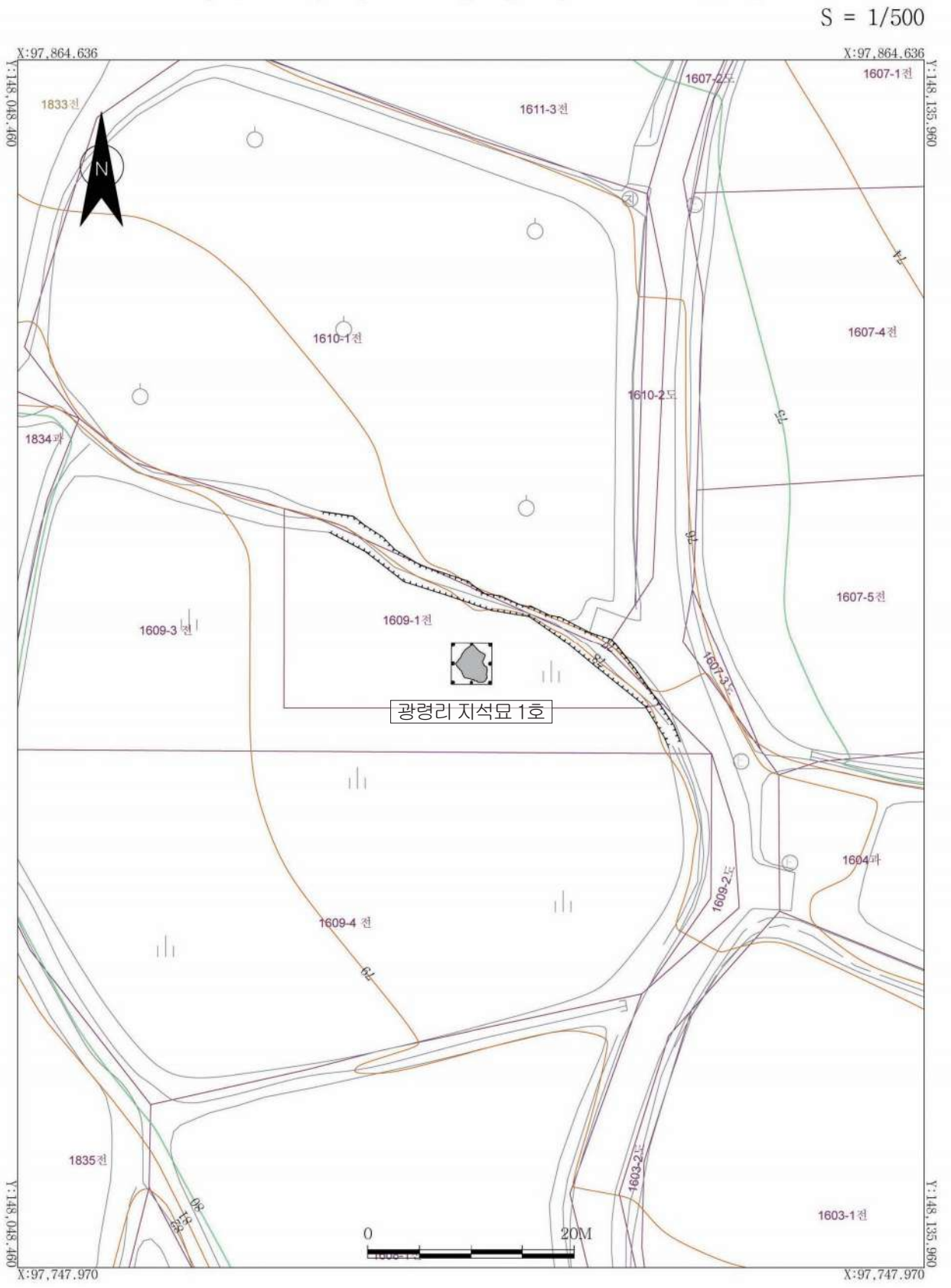


| 사진 25–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호 성혈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6호이며 광령리 1609–1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 지석묘 주변으로 관람로가 없고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안내판의 설치 방향도 관람객의 동선과 맞지 않게 세워져 있다.



| 도면 25-② 광령리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하게 주변을 정비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 도면 25-③ 광령리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

26. 광령리 지석묘 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7(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1번지, 1611-3번지
3) GPS 좌표 : N 33°28′24.15″, E 126°26′30.23″
4) 해발고도 : 71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사진 26–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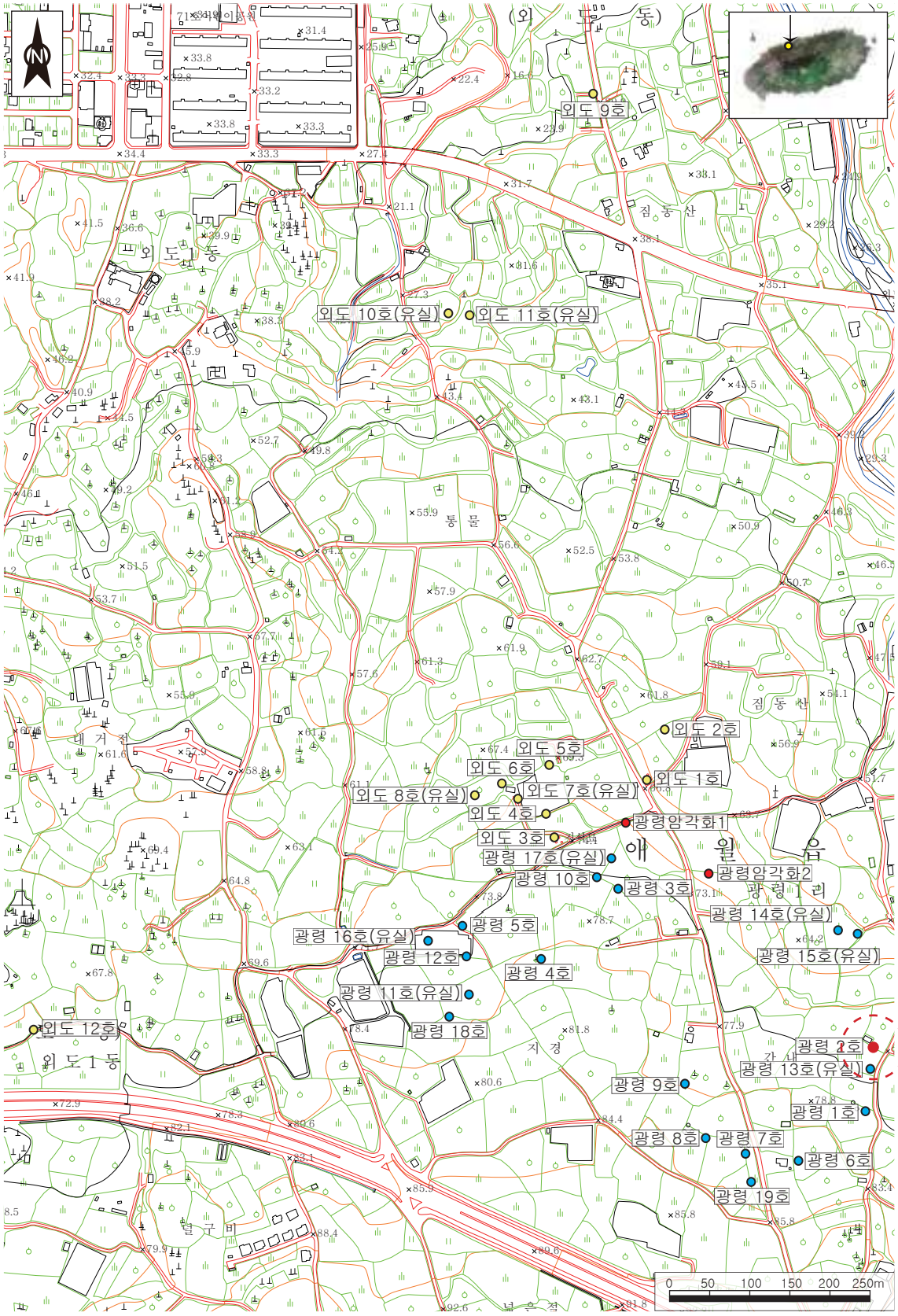


사진 26–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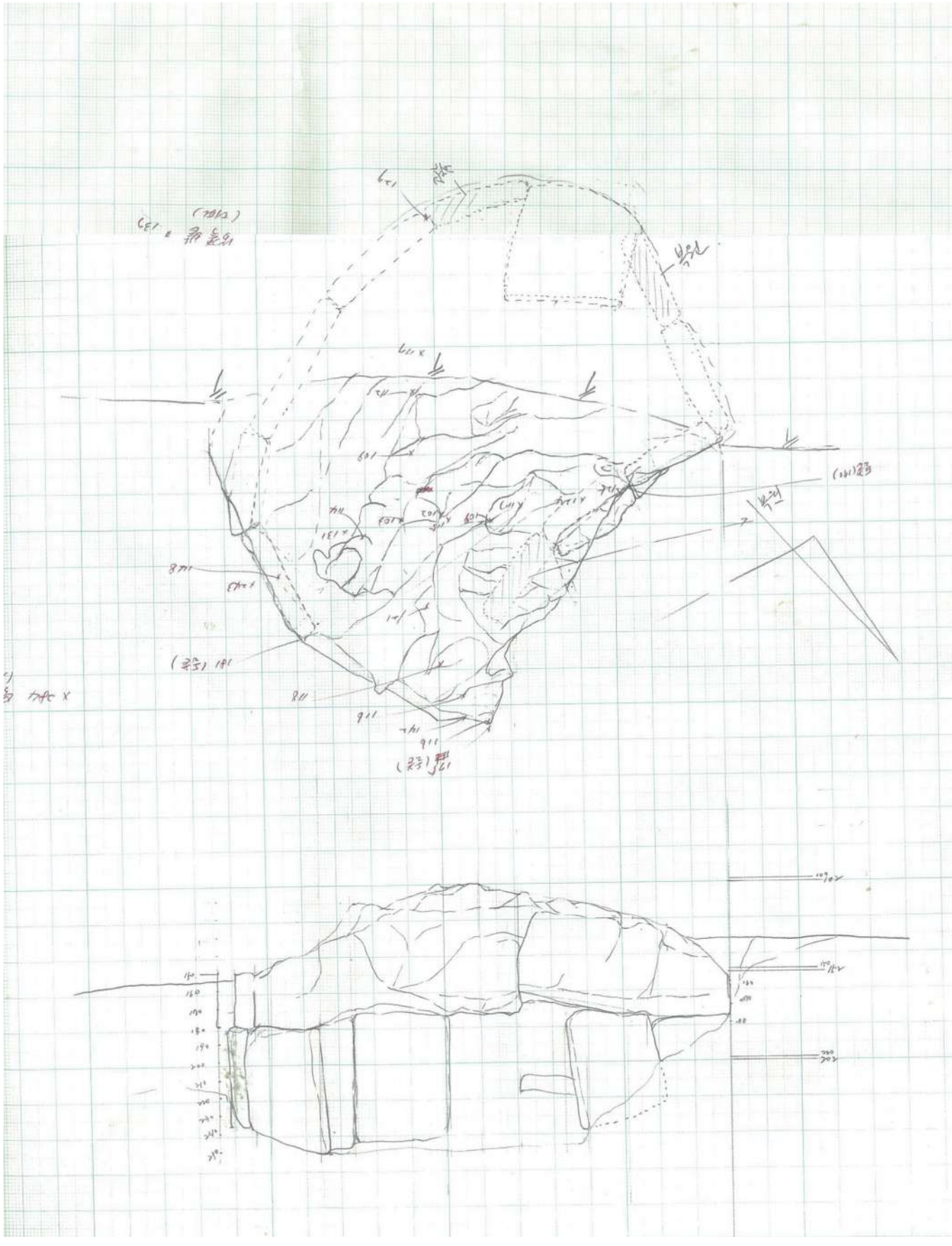
애월읍 광령리 1612번지와 1613–1번지 밭 경계, 현재 2m높이의 급격한 경사면 중간에 걸쳐 있는 고인돌로서, 용담동 고인돌 및 고인돌(5)처럼 상석(上石)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잘 다듬은 판석형(板石形) 지석(支石)이 병풍처럼 둘려 있다. 상석(上石)은 길이 250㎝, 폭 205㎝, 두께 55㎝로 비교적 고르게 다듬은 장방형으로 장축은 정확하게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 장방형의 상석(上石) 가장자리를 따라 지석이 고여 있으므로 지석(支石)으로 이루어진 석실(石室) 또한 장방형을 이루게 된다. 지석(支石)의 앞부분은 높이 70~80㎝, 폭 55~60㎝, 두께 8~13㎝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석(長方形 板石)으로 동 · 서 · 남에 똑같이 각 3매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여 있고, 북쪽은 현재 지석(支石) 없이 개방되어 있다.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애월읍 광령리 1612번지와 1613번지 경계에 있다. 3호 고인돌이 놓인 밭의 끄트머리에 아래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현재 2m 높이의 급격한 경사면 중간에 걸쳐 있는 고인돌로서 용담동 4호 고인돌처럼 상석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잘 다듬은 판석형 지석이 병풍처럼 둘려 있는 형식이다. 원래 이 고인돌이 놓여 있는 위치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었을 것이나 경작지 조성시 윗밭과 아래밭을 각각 평평하게 고르느라 2m 정도의 높이가 차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상석과 남쪽 지석이 윗밭 경작토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고 북쪽 측면만 노출되어 있는데 원래는 상석은 물론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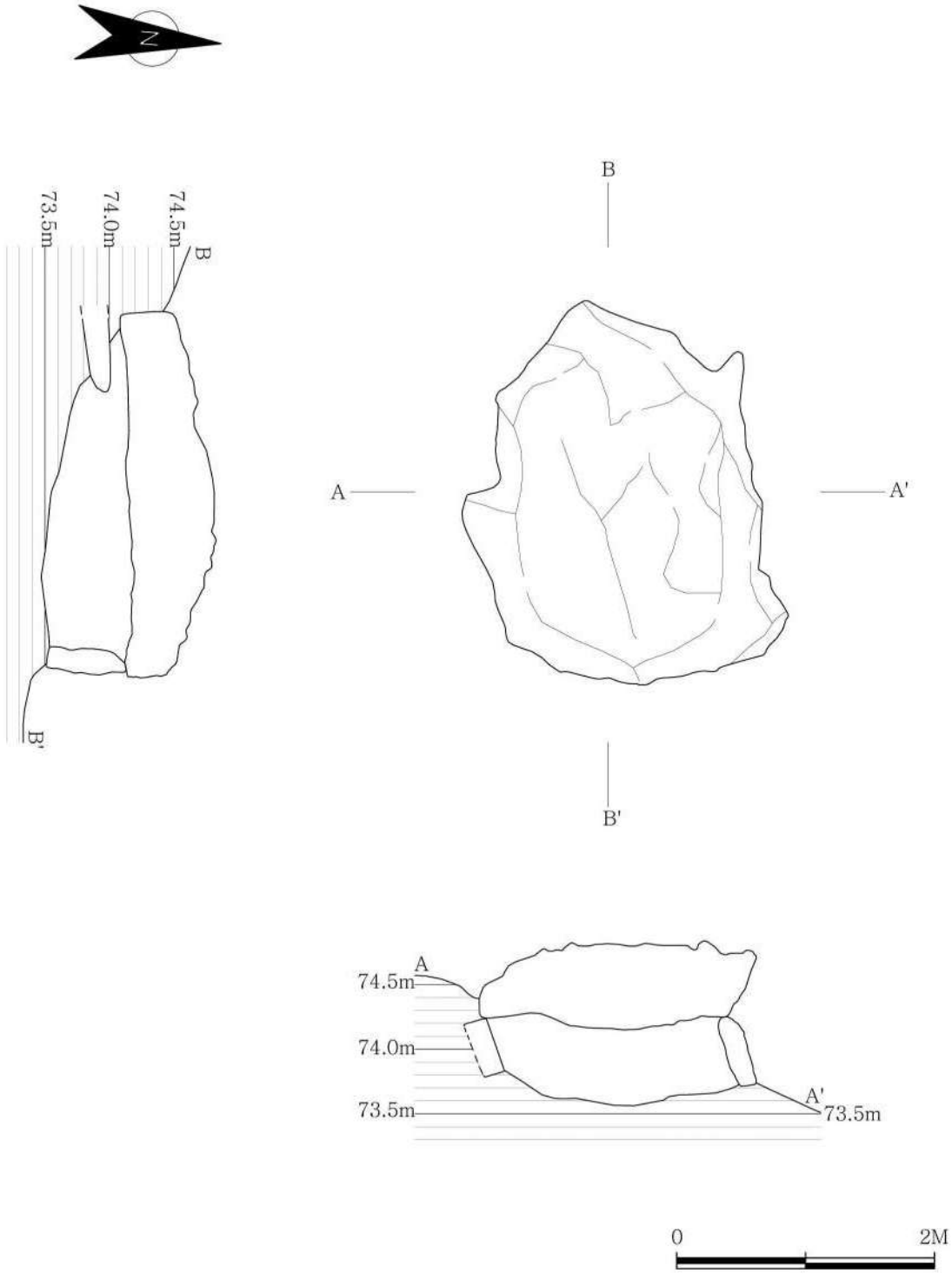


| 도면 26-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26-② 광령리 지석묘 2호 평면 및 입면 실측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광령리 2호 지석묘



| 도면 26-③ 광령리 지석묘 2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지석과 매장부도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상석과 판석형 지석으로 이루어진 석실내부의 바닥면과, 외부의 표토층하에 드러난 토층이 동일한 레벨을 이루며 동시에 같은 황갈색점토층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상석은 길이 250㎝, 폭 205㎝, 두께 55㎝로 비교적 고르게 다듬은 장방형으로 장축은 정확하게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 장방형의 상석 가장자리를 따라 판석형 지석이 고여 있으므로 지석으로 이루어진 석실 또한 장방형을 이루게 된다. 지석은 전부 높이 70~80㎝, 폭 55~60㎝, 두께 8~13㎝로 잘 다듬은 장방형 판석으로 동 · 서 · 남에 똑같이 각 3매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여 있고, 북쪽은 현재 지석 없이 개방되어 있다. 이것은 일단 지석묘시설을 완성하고 이 북편으로 시신을 들이밀고 난 후에야 지석을 꿰워 맞추었기 때문에 쉽게 일탈된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며, 용담동 4호 고인돌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인돌 내부에서 다수의 경질무문토기편과 김해식토기편을 수습하였으며, 그 출토위치가 대체로 지석 근처임은 다른 고인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혈은 상석 북쪽에 1개가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3) 2015년 조사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17이다. 광령이 지석묘 1호 아래밭에 위치하며 90m 가량 떨어져 있다. 해안에서 2.5km 이격되어 있으며 광령천에서 서쪽으로 184m 떨어져 위치한다. 지석묘는 밭경계 있으며 남쪽은 밭에 매몰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90cm, 단축 207cm, 두께 40~50cm이며 평 · 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석의 상면은 울퉁불퉁한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측면은 일부 치석흔이 확인된다. 상석의 아랫면은 중앙부를 제외한 지석이 받치는 가장자리를 치석하였다. 용담동 지석묘 6호와 같은 형식의 지석묘로 지석은 판석 10매가 확인되며 이탈된 지석을 포

표 2. 광령리 지석묘 2호 지석 제원표

번호	길이×너비×두께	비고
1	68×60×15	
2	58×40×12	
3	47×31×10	
4	44×(18)×8	기울어짐.
5	65×34×9	기울어짐.
6	49×28×14	기울어짐.
7	51×50×10	
8	83×60×14	
9	53×56×14	
10	60×72×15~6	받침돌 12×24

함하면 13~14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의 번호를 정면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임의로 지정하였으며 지석의 제원은 앞의 표와 같다. 8, 9, 10번 지석은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조금씩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 4, 5, 6번은 무너져 있다. 지석묘의 북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 있어 내부로 유수의 흐름이 생겨 석실내 내부토가 유실되어 절반정도 남아 있다. 그리고 10번 지석의 뿌리부분까지 노출되어 지석을 고정하기위한 석재까지 노출되어 있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진 26–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2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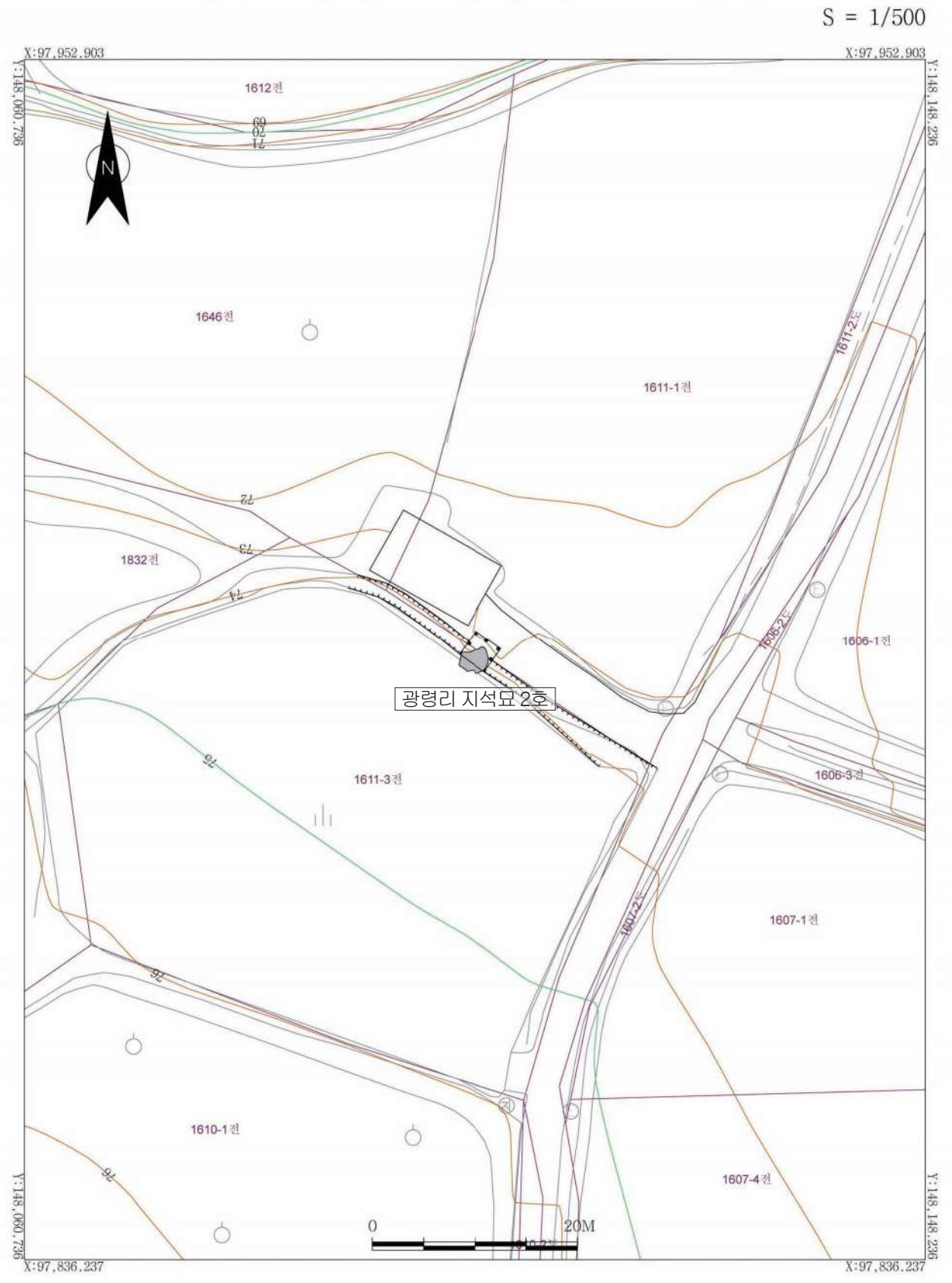
| 사진 26–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2호 (위에서) |



| 사진 26–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2호 (남에서) |



| 사진 26–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2호 석실 |



| 도면 26-④ 광령리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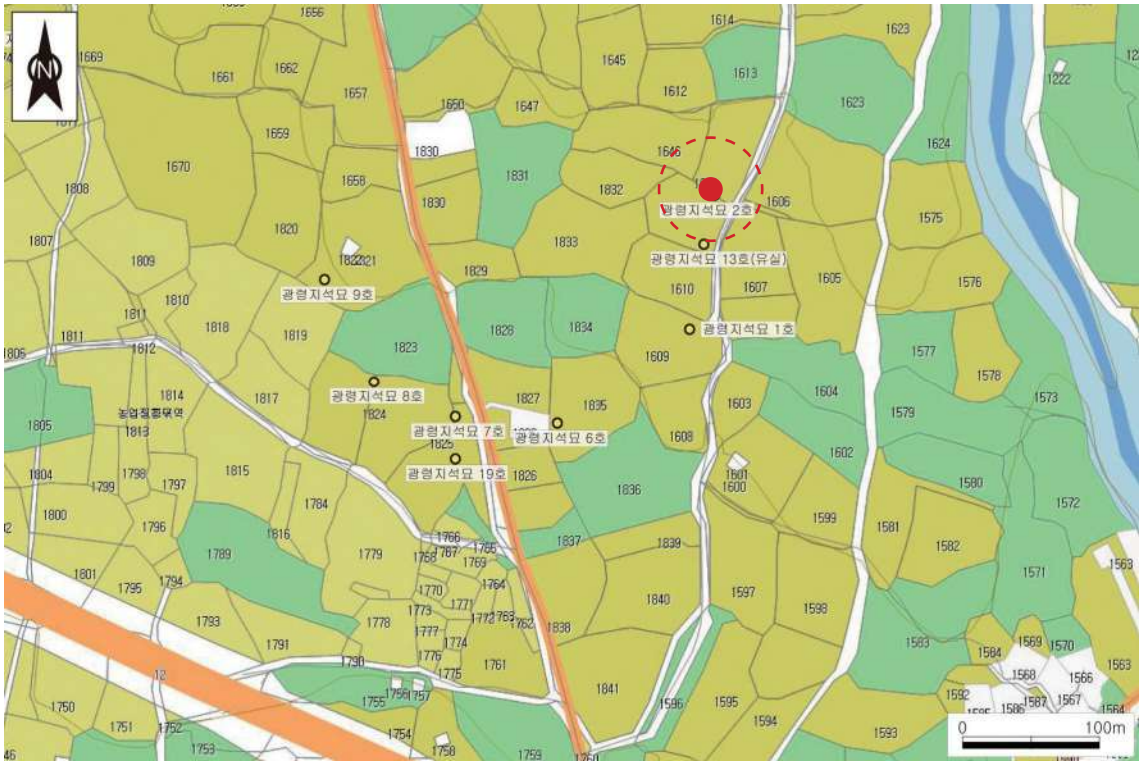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7호이며 광령리 1611-1번지, 1611-3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관람에 방해되며 남쪽으로는 매몰된 상석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안내판의 내용도 지석묘와 맞지 않다. 지석묘의 북쪽 개방부 좌우측 지석의 하단은 유수의 영향으로 뿌리까지 노출되어 있어 도괴의 위험이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의 도괴 위험성과 보호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교체하고 관람이 용이하게 주변을 정비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다.



| 도면 26-⑤ 광령리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27. 광령리 지석묘 3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8(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1667번지
3) GPS 좌표 : N 33°28′31.06″, E 126°26′16.75″
4) 해발고도 : 7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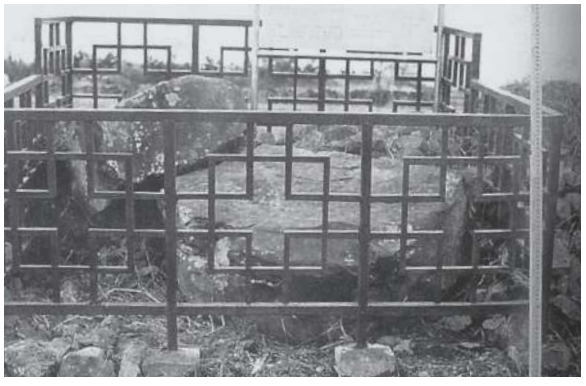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애월읍 광령리 1644번지와 1667번지 밭 사이 돌담에 위치하며, 상석(上石)은 반으로 쪼개져 경사면에 쓰러져 있다. 역시 자리 이동한 것으로 상석은 원래 장방형의 모를 죽인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261㎝, 폭 165㎝, 두께 45㎝이고, 평평한 윗면에 마멸이 심한 62개의 성혈(性穴)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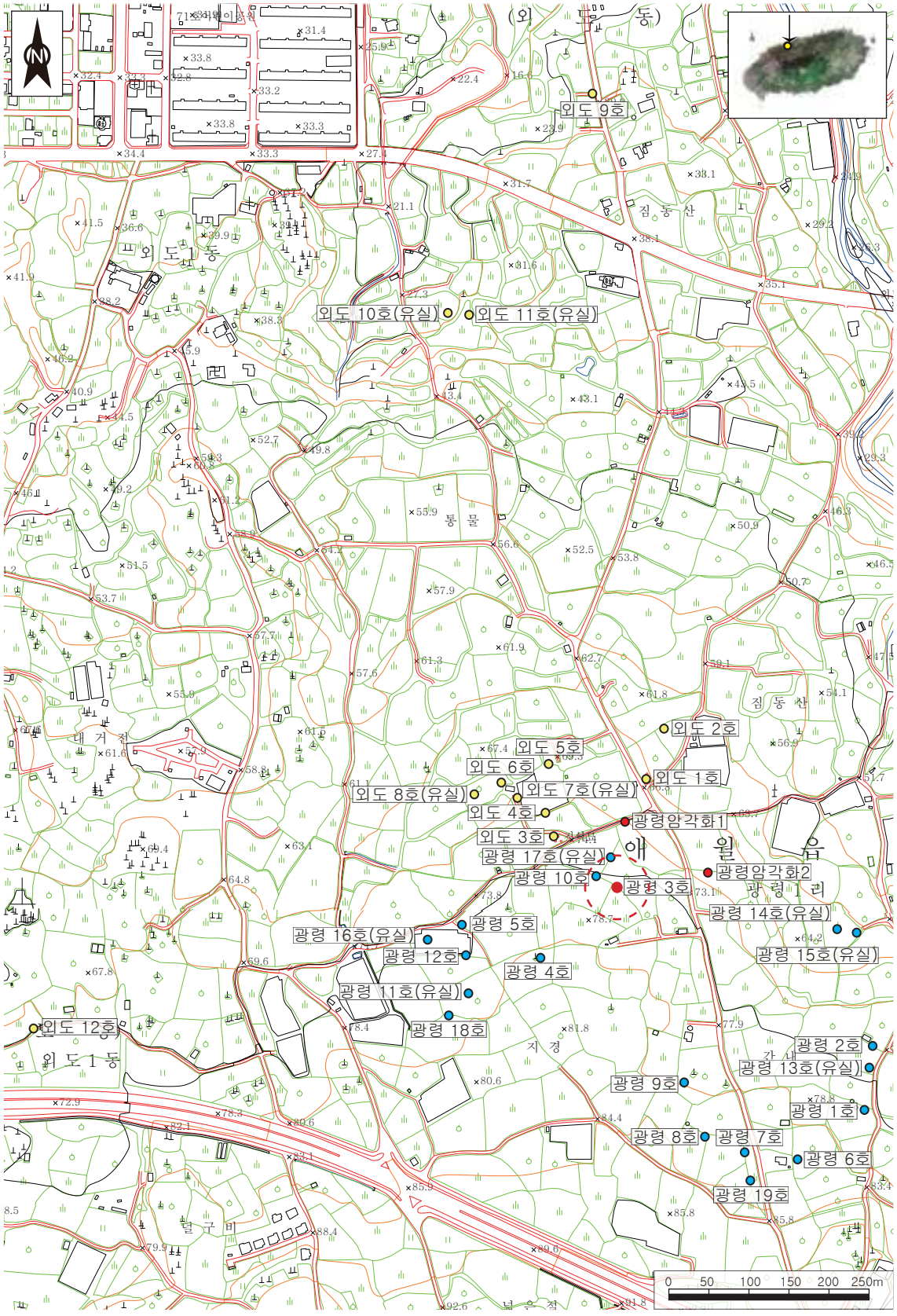
| 사진 27-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3호 |



| 사진 27-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3호 |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돌담에 위치하며 상석은 반으로 쪼개져 경사면에 쓰러져 있다. 지석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고인돌은 경작지 조성시 밭 한가운데에 있던 것을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 상석은 원래 장방형의 모를 죽인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261㎝, 폭 165㎝, 두께 45㎝이고 평평한 윗면에 마멸이 심한 62개의 성혈이 빽빽히 들어서 있다.



| 도면 27-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18이다. 광령리 지석묘 3호 남동쪽으로 16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2km 떨어져 있다. 광령천에서 서쪽 460m 떨어진 곳의 밭경계에 반파된 상석이 놓여 있다. 상석 아래에 잡석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밭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위쪽의 상석은 장축 124cm, 단축 128cm, 두께 58cm이며 아래쪽 상석은 장축 148cm, 단축 128cm, 두께 58cm이다. 상석의 마모가 심하여 성혈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확인 가능한 성혈은 104개이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진 27-③ 1998년 광령리 지석묘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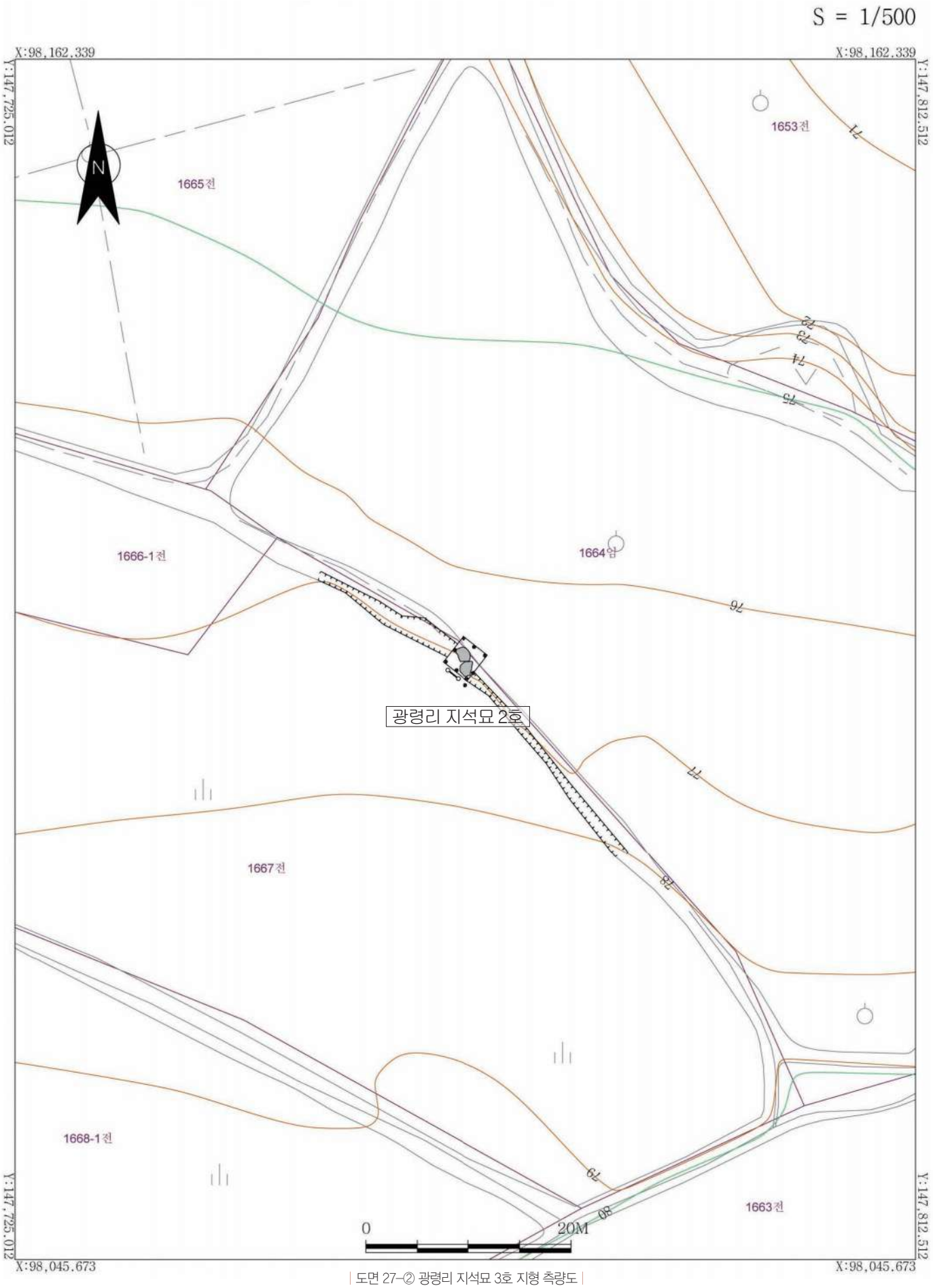
사진 27-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3호 (서에서)



사진 27-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3호 성혈



사진 27-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3호 성혈



| 도면 27-② 광령리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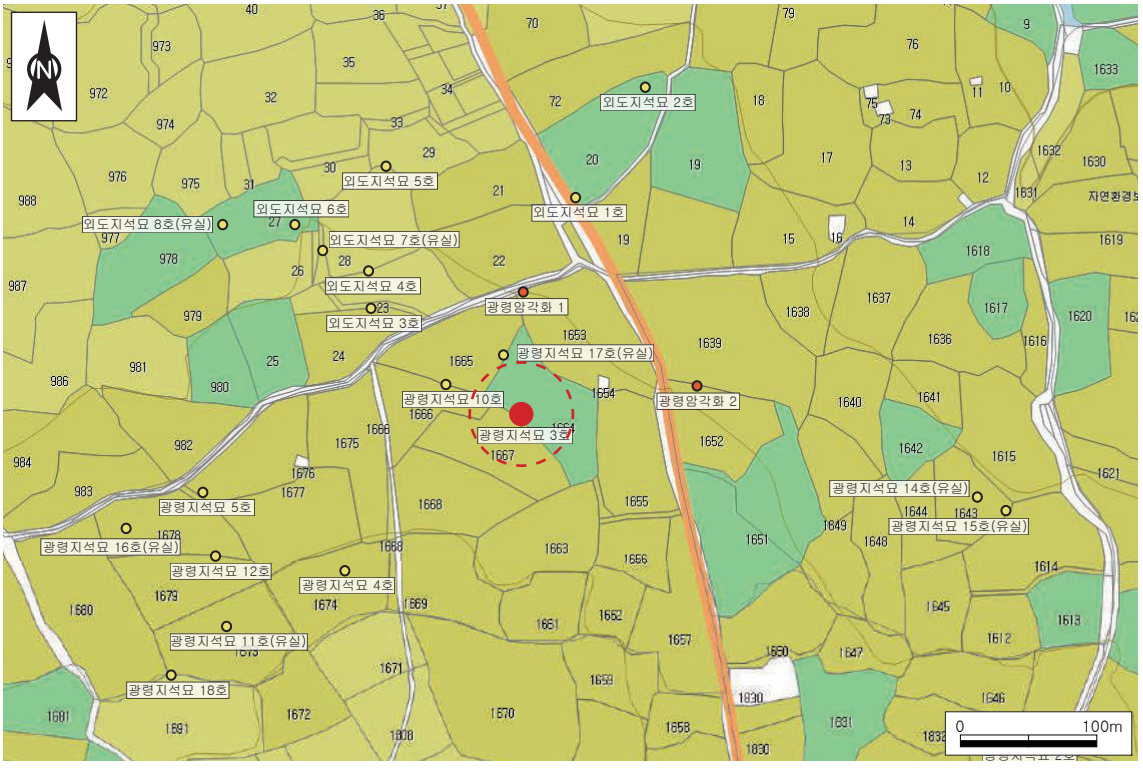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8호이며 광령리 1664번지, 1667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관람에 방해되며 상석이 두 개로 나뉘어져 밭경계 잡석무지 위에 놓여 있다. 안내판의 내용도 지석묘와 맞지 않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상석은 두 개로 나뉘어져 밭경계로 이동된 것으로 주변 밭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하고 관람이 용이하게 주변을 정비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다.



도면 27-③ 광령리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28. 광령리 지석묘 4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9(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4번지
3) GPS 좌표 : N 33°28′27.85″, E 126°26′16.69″
4) 해발고도 : 77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애월읍 광령리 1671-1번지 밭 한가운데 평평한 곳에 위치하며, 상석(上石)의 크기가 길이 369㎝, 폭 276㎝, 두께 77㎝로 광령리 고인돌 중 가장 크다. 상석(上石) 하부 세 귀퉁이에 지석(支石)을 고였는데, 지면이 다소 높아진 동쪽에 작은 돌이 겹겹이 고여 있고, 다른 두 곳 북서쪽과 남서쪽에는 각각 높이 114㎝, 폭 65㎝, 두께 25㎝와 높이 118㎝, 폭 91㎝, 두께 27㎝의 잘 다듬고 큼직한 할석(割石)이 고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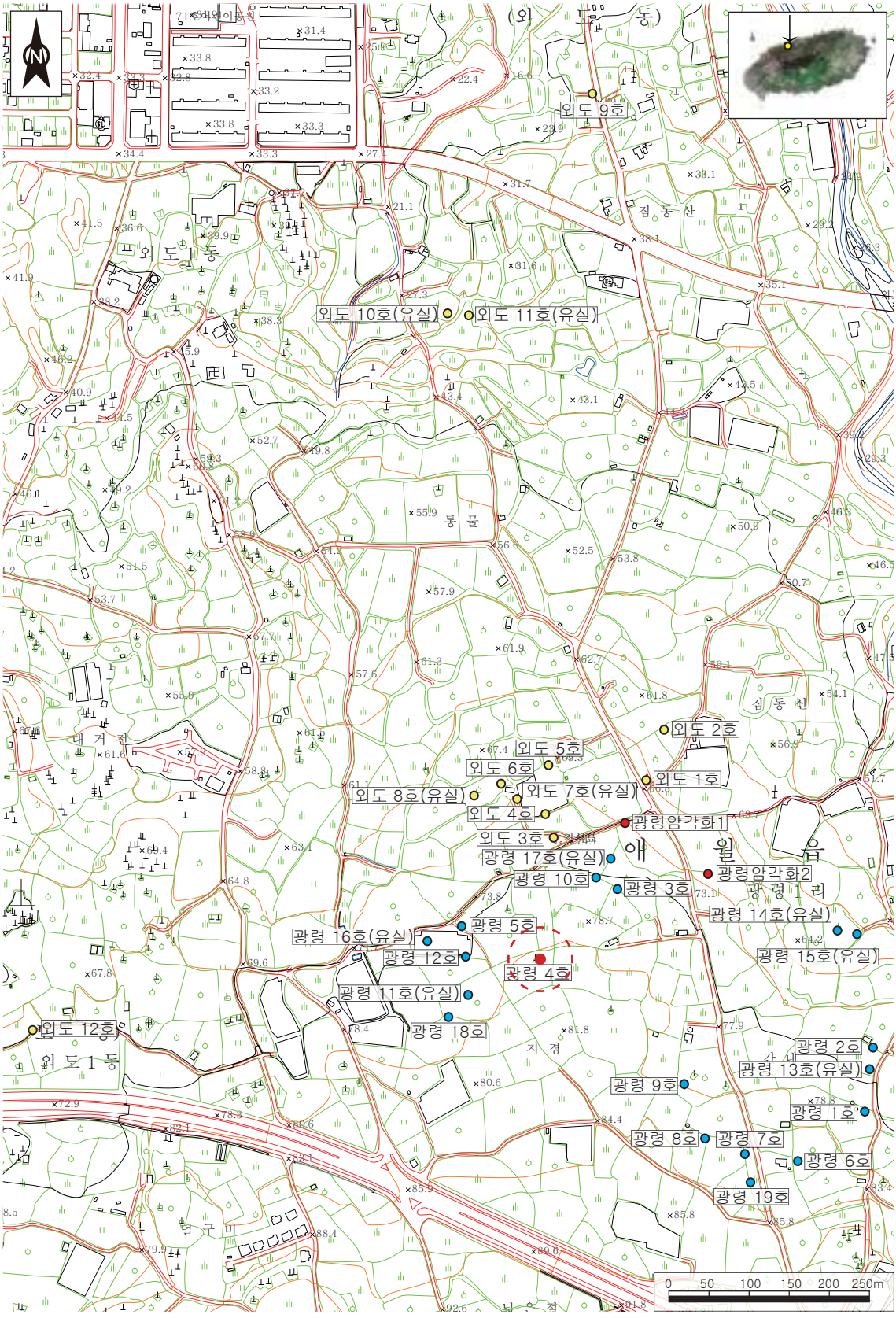
| 사진 28-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4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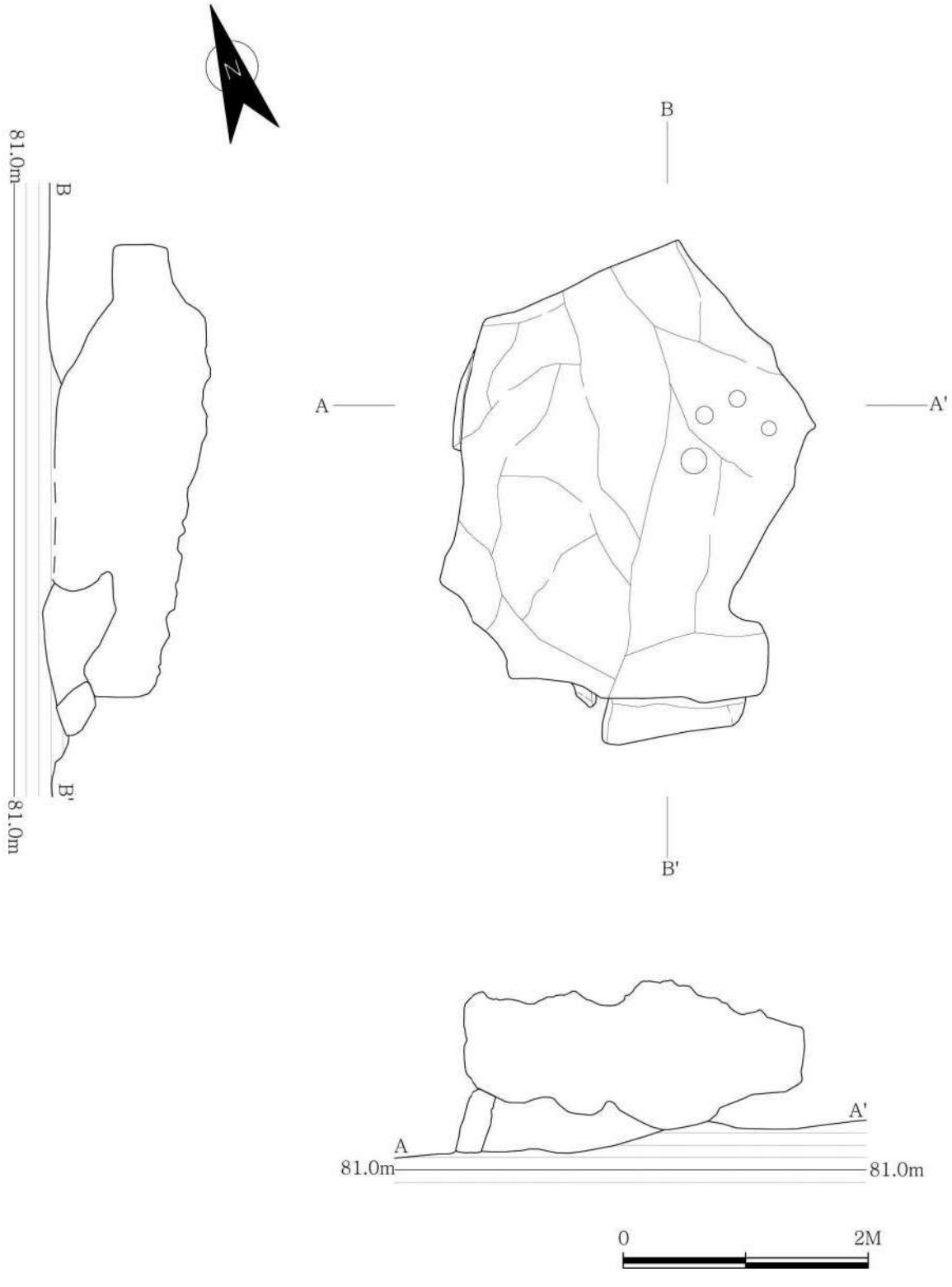
| 사진 28-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4호 |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밭 한가운데 평평한 곳에 위치하며 상석의 크기가 길이 369㎝, 폭 276㎝, 두께 77㎝로 광령리일대 고인돌 중 가장 크며 그 평면은 대체로 6각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상석하부 세 귀퉁이에 지석을 고였는데 특이한 것은 다소



| 도면 28-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28-② 광령리 지석묘 4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지면이 높은 동쪽에 작은 돌이 겹겹히 고여 있고 다른 두 곳 북서쪽과 남서쪽에는 각각 높이 114㎝, 폭 65㎝, 두께 25㎝, 높이 118㎝, 폭 91㎝, 두께 27㎝의 잘 다듬고 큼직한 판석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이 판석상의 지석과 맞물리는 상석하면은 손질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곳 13호 고인돌과 용담동 고인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지석은 높은 지면에 닿는 동쪽으로 두껍고, 판석상의 지석이 고이는 서쪽으로는 얇아져 이쪽으로 매장부가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상석하부에 퇴적된 부토를 걷어 내니 남쪽에 치우쳐 시신의 머리를 놓기에 적당한 평평하고 납작한 판석이 노출되었다. 이 판석이 놓인 면은 황갈색점토층상으로 비교적 단단한 편이며 유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레벨은 현지표보다 다소 낮은 편이라 고인돌 축조 당시의 구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으며, 따라서 시신은 지상에 놓이거나 적어도 반지하인 형식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베갯돌(?)이 분명하다면 그 위치로 보아 두향 혹은 침향은 남쪽이며 대체로 상석의 장축방향과 일치됨을 알 수 있겠다. 성혈은 상석 동쪽편에 3개가 발견되었다.

⑶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19이다. 광령리 지석묘 3호에서 남서쪽으로 150m 떨어진 한단 높은 밭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2km 이격되어 있으며 광령천에서 서쪽으로 600m 떨어진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83cm, 단축 262, 두께 39~70cm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단면은 아치형이다. 상석의 상면 가장자리와 측면에서 치석흔이 확인되며 아랫면은 지석을 받치는 부분만 치석하여 이용하였다. 상석의 상면에는 7~13cm 가량의 성혈 3개가 있으며 상석의 남동쪽은 땅에 닿아 있다. 지석은 현무암제 판석으로 각 1매씩 북쪽(67×110×10~17cm)과 서남쪽(60×111×20cm)에 세워져 있다. 지석묘 하부에는 잡석이 채워져 있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진 29–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 (서에서) |



| 사진 29–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 (위에서) |



| 사진 29–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 (북에서) |



| 사진 29–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4호 지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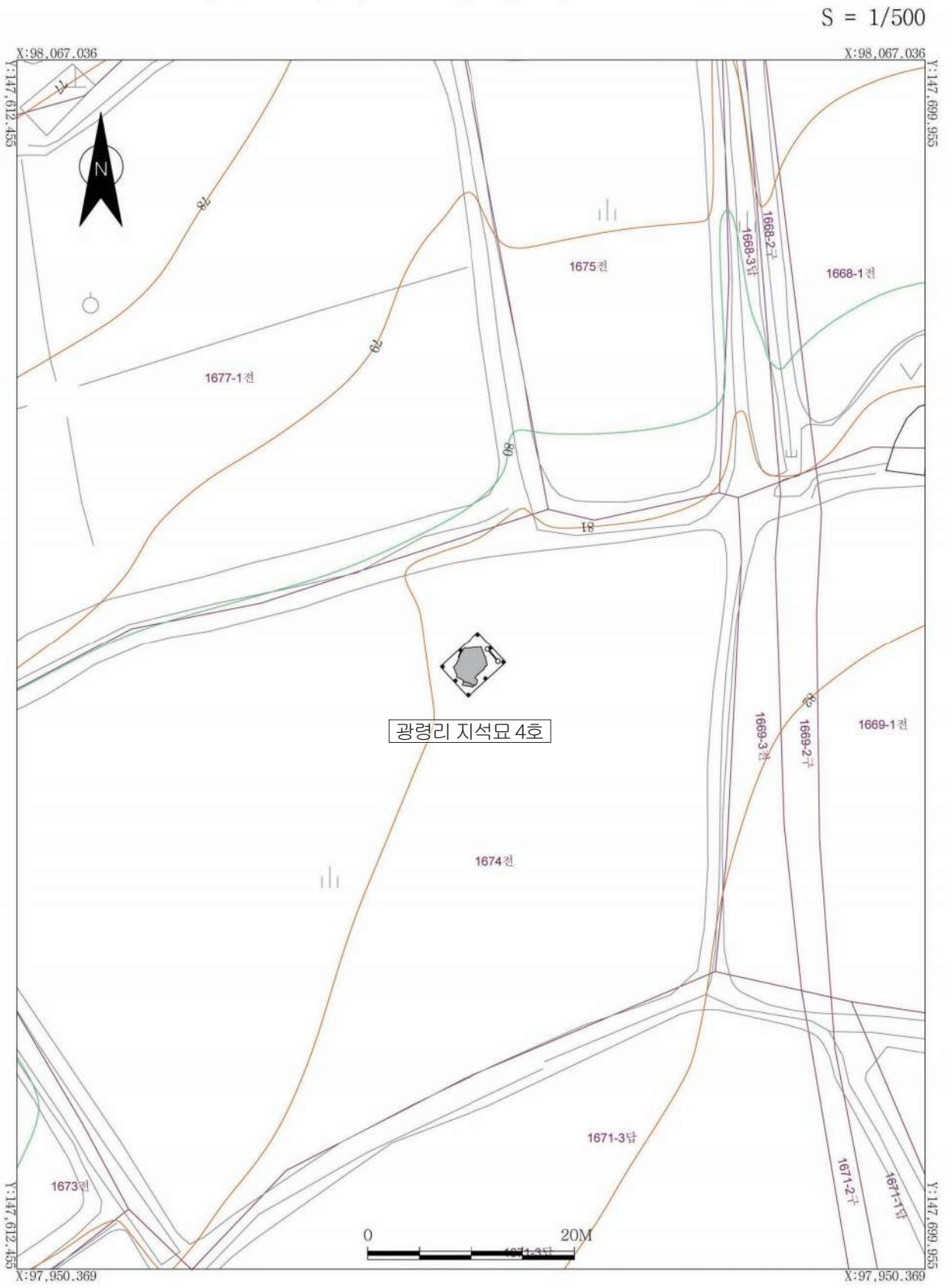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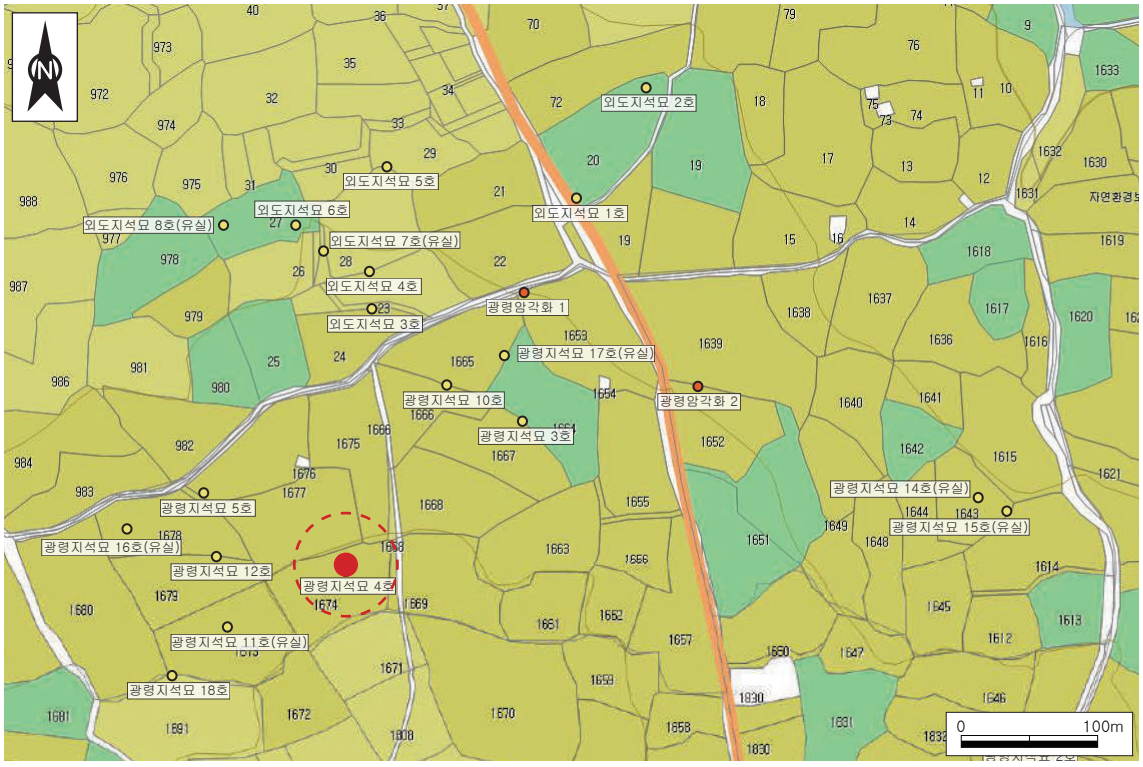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19호이며 광령리 1674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관람에 방해된다. 안내판의 내용도 지석묘와 맞지 않으며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관람이 어렵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교체하고 관람이 용이하게 주변을 정비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다.



| 도면 28-③ 광령리 지석묘 4호 지형 측량도 |



| 도면 28-④ 광령리 지석묘 4호 지적 현황도 |

29. 광령리 지석묘 5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0(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1번지, 1677-7번지
3) GPS 좌표 : N 33°28′27.85″, E 126°26′16.69″
4) 해발고도 : 74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길과 밭 사이 돌담에 위치한 고인돌로, 상석(上石)의 전체모양은 반파(半破)되었지만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장축은 정확히 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다소 높은 남쪽편에는 지석(支石)없이 지면에 상석(上石)이 놓여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기 3매 및 1매의 판석상 지석(板石狀 支石)이 고여 있다. 북쪽은 지석(支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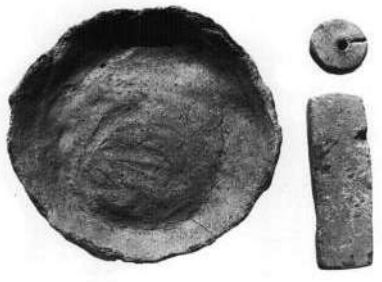
이 없었는데 서편의 지석(支石)은 길이 90㎝, 높이 47㎝, 두께 21㎝의 두꺼운 장방형 판석(板石)이며 동편은 길이 53㎝, 높이 49㎝, 두께 9㎝와 길이 48㎝, 높이 43㎝, 두께 10㎝의 판석(板石)과 길이 100㎝, 높이 61㎝, 두께 20㎝의 둥글납작한 지석(支石) 3매가 고여 있다. 상석(上石) 윗면에 북서쪽으로 마모가 심한 35개의 성혈(性1穴)이 확인되었으며, 상석(上石) 하부 매립토 중에서 토기 바닥완형 1점, 비교적 잘다듬은 장방형 숫돌 1점, 토제방추차 1점이 일괄로 발견되었다.



| 사진 29-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5호 |



| 사진 29-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5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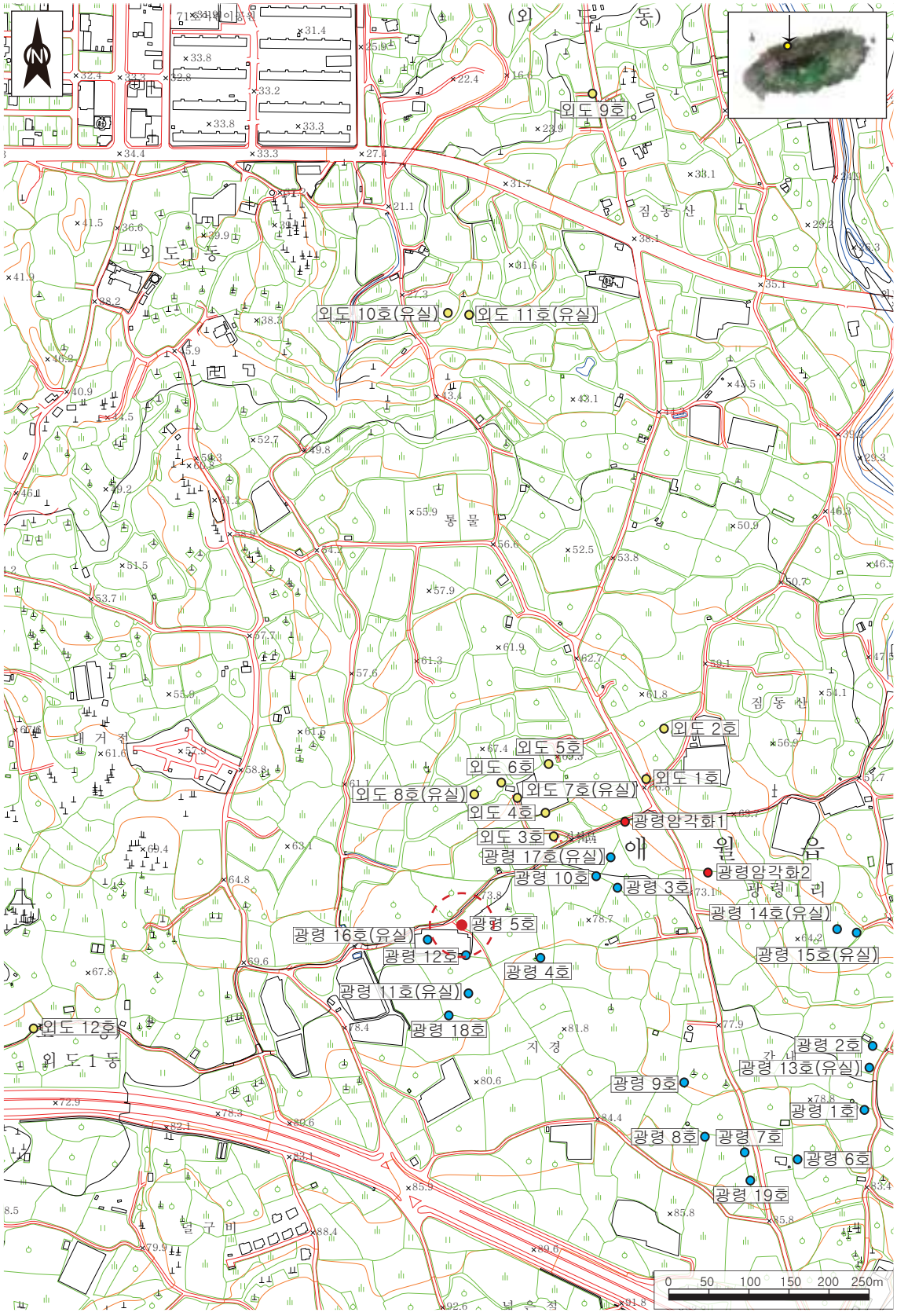
| 1985년 광령리 지석묘 5호 수습 유물 |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길과 밭사이 돌담에 위치한 고인돌로 상석의 윗면은 가운데가 다소 우묵하나 평평하고, 반파되었지만 전체 모양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정확히 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지표면은 남쪽이 높은 경사면을 이룬데다, 상석 또한 남쪽이 두꺼워 거의 지석없이 지면에 놓여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기 3매 및 1매의 판석상 지석이 고여있다.

북쪽은 지석 없이 열려져 있으나 처음 이 고인돌을 발견할 당시에 53×43×47㎝의 괴석으로 막아 있었다. 서편의 지석은 길이 90㎝, 높이 47㎝, 두께 21㎝의 두꺼운 장방형판석이며 이 지석과 물리는 상석하면 가장자리는 움푹하게 패여 있다. 동편은 길이 53㎝, 높이 49㎝, 두께 9㎝와 길이 48㎝, 높이43㎝, 두께 10㎝의 두개의 사다리꼴 판석과 길이 100㎝, 높이 61㎝, 두께 20㎝의 둥글납작한 한개의 괴석 등 모두 3개의 지석이 있다. 상석 하부에는 잡석이 흑갈색 매립토에 혼입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는 혹시 밭 고르다 치운 돌일지도 모르나, 원래부터 매장부를 덮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적석혼토층을 제거하니 현지표와 비슷한 레벨에서 비교적 단단한 황갈색점토층이 노출되고,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깔았을지도 모를 20~40㎝ 크기인 5매의



| 도면 29-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판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거의 상석장축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판석상의 흑갈색 혼토 중에서 토기저부완형 1점, 비교적 잘 다듬은 장방형 숫돌 1점, 토제방추차 1점이 일괄로 발견되었고, 그밖에도 지석 안쪽 가까이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상석 윗면의 성혈은 북서쪽에 치우쳐 35개가 확인되었는데 마멸이 심하다.



사진 29-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5호 (동에서)



사진 29-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5호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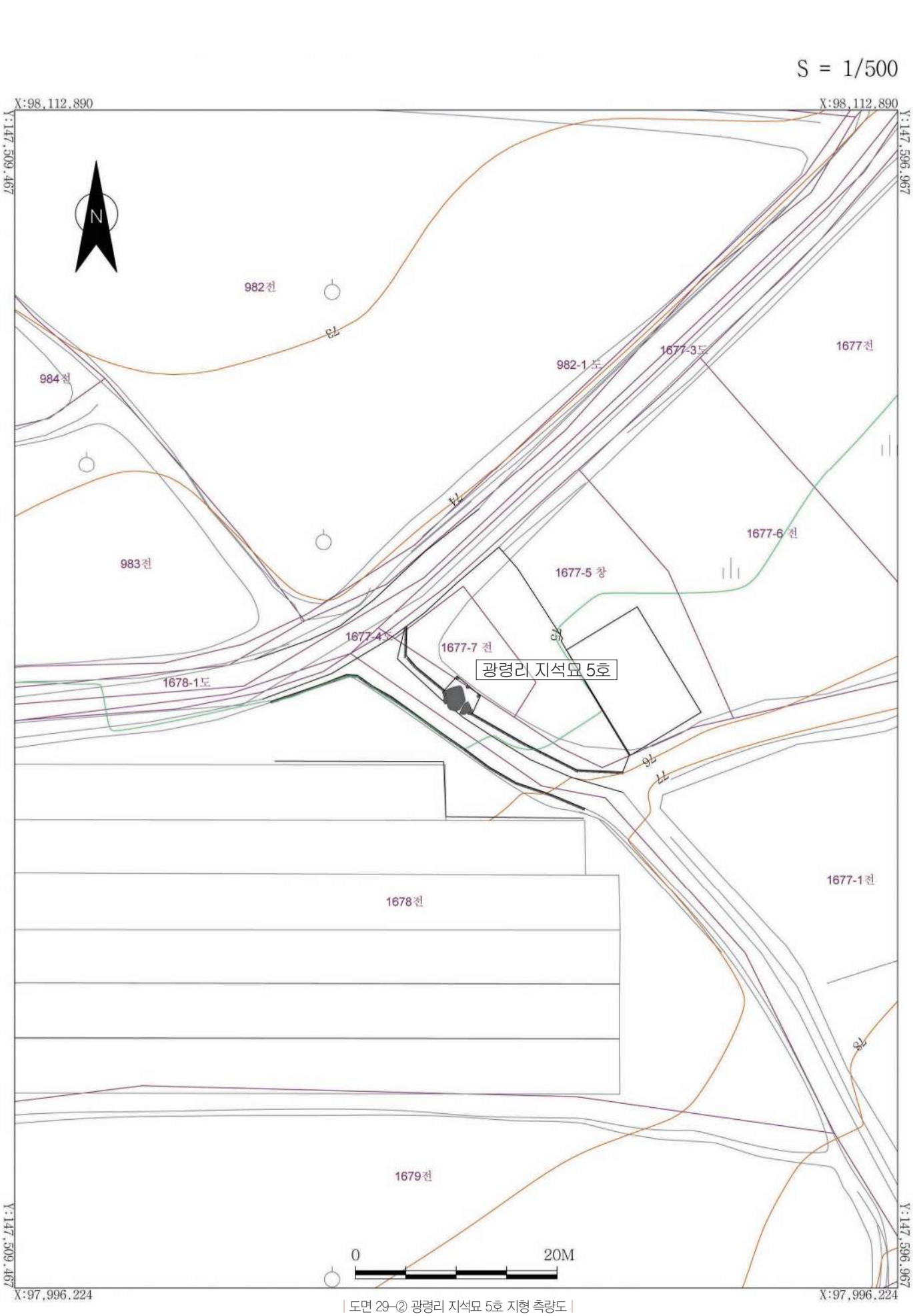
사진 29-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5호 지석



사진 29-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5호 성혈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20이다. 광령리 지석묘 4호에서 북서쪽으로 115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농로 돌담에 매몰된 상태였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30cm, 단축 161cm, 두께 35~60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 · 단면형태 장방형이며 상면은 평평하나 남쪽이 볼록 솟아 있다. 상석 상면의 북서쪽 평평한 면에 성혈 66개가 확인된다. 지석은 서쪽에서 판석 1매(33~46×89×18cm)가 세워져 있으며 동쪽에는 판석으로 보이는 석재 4매가 바닥에서 확인되고 있어 매장주체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 도면 29-② 광령리 지석묘 5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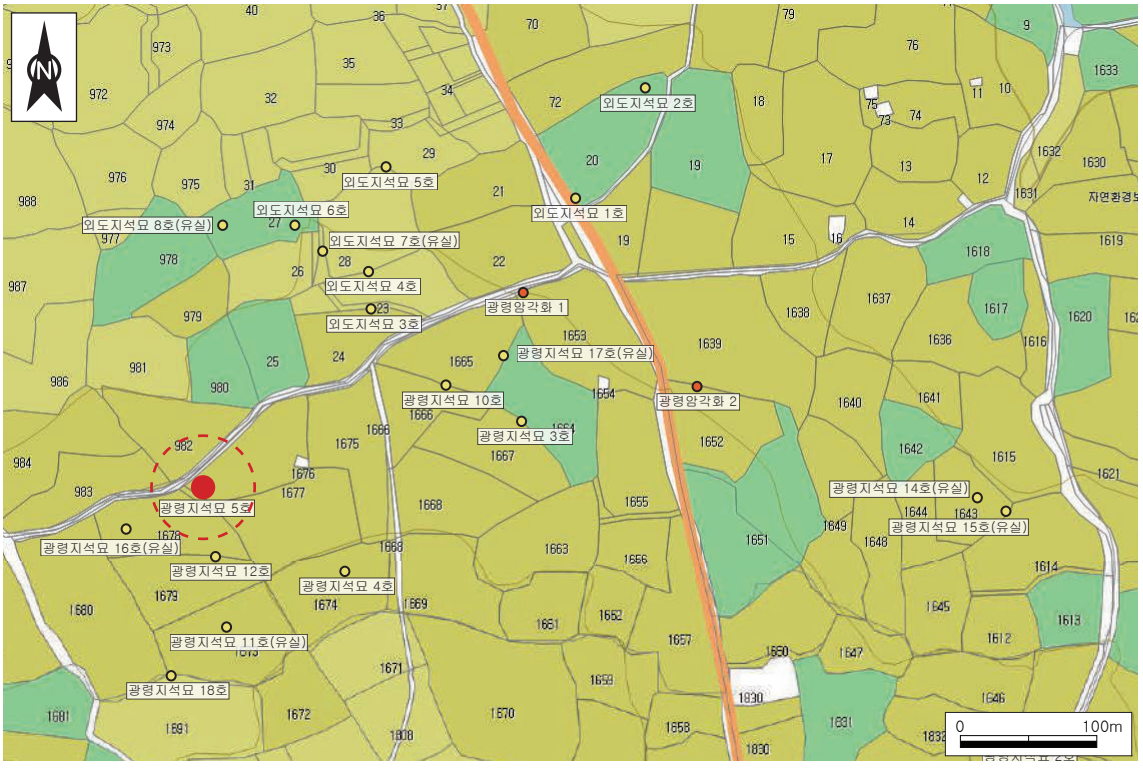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20호이며 광령리 1677–1번지, 1677–7번지에 위치한다. 상석의 일부가 깨져 둘로 나눠져 있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아 관람에 방해되며 밭담이 있던 곳에는 보호책이 없다. 안내판의 내용도 지석묘와 맞지 않으며 설치되어 있는 방향도 관람에 적합하지 않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주변의 돌담을 제거하고 관람이 용이하게 주변을 정비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교체하고 안내판의 위치와 내용을 수정한다.



도면 29–③ 광령리 지석묘 5호 지적 현황도

30. 광령리 지석묘 6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1(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3) GPS 좌표 : N 33°28′19.18″, E 126°26′26.29″
4) 해발고도 : 82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밭 한쪽에 있으며 상석(上石)은 길이 230㎝, 폭 218㎝, 두께 66㎝로 장축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지석(支石)은 남 · 북 · 서쪽의 세 귀퉁이에 고여 있는데 여러 개의 잔돌이 지석(支石)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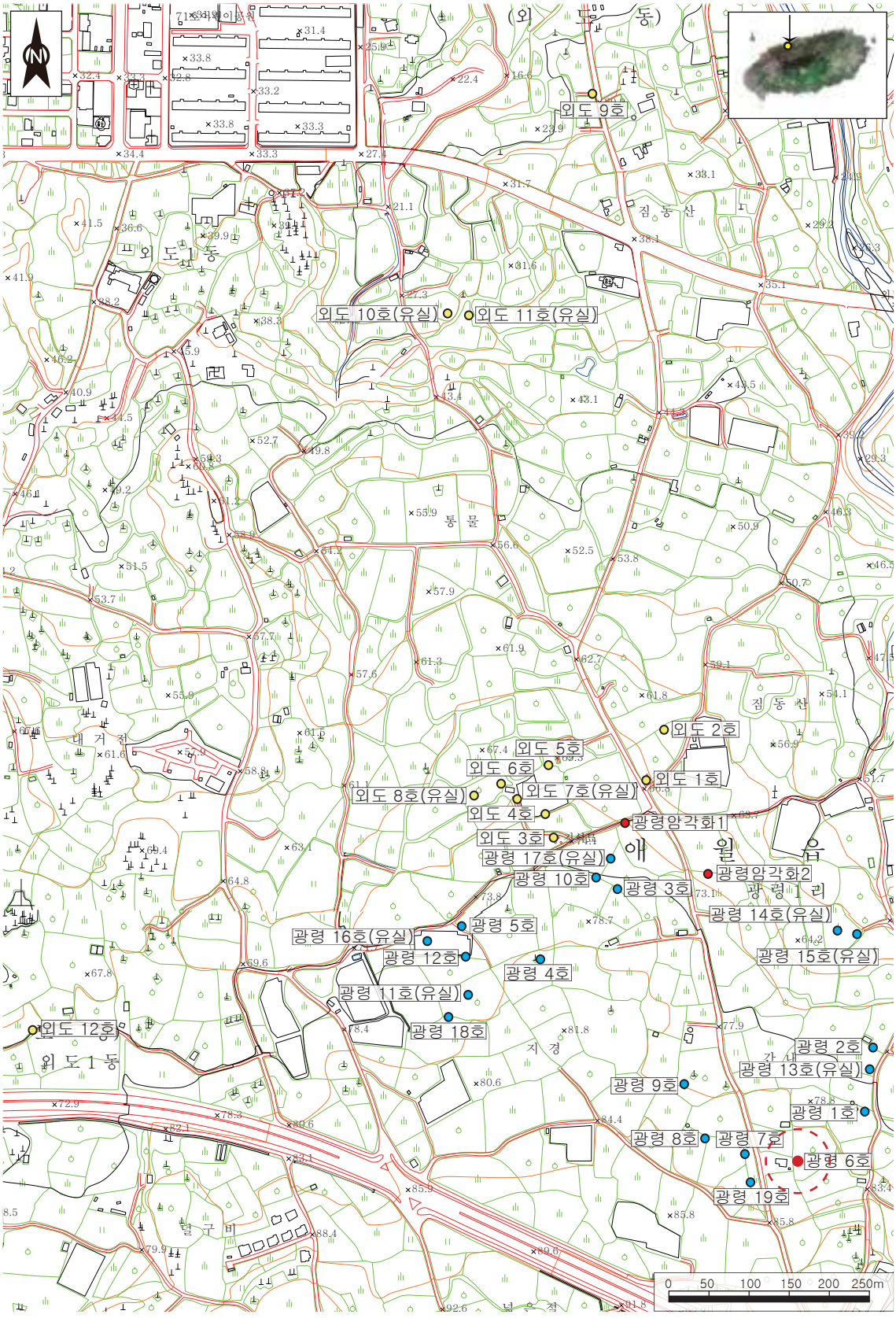
| 사진 30-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6호 |



| 사진 30-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6호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에 있다. 평평한 밭 한쪽에 위치하며, 상석은 불규칙한 모양에 길이 230㎝, 폭 218㎝, 두께 66㎝로 다소 작은 편에 속하고 장축은 N10°W를 가리키고 있다. 지석은 남 · 북 · 서쪽의 세 귀퉁이에 고여 있는데, 다듬지 않은 작은 막돌 수개로 구성되었으며, 상석하면이 매장부 상면의 적석부와 닿아 있어 매장부는 지하에 있는 기반식으로 추정된다. 상석의 남동쪽 귀퉁이 윗면에 성혈 1개가 확인되었다.



| 도면 30-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21이다. 애조로 사라마을 입구에서 성지요양원 방향으로 270m 가량 내려오면 가정집의 뒤쪽 감귤 과수원에 위치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6km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으로 330m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20cm, 단축 189cm, 두께 50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은 동쪽으로 기울어져 서쪽이 30~63cm 가량 들려 있으며 평면형태는 반원형, 단면은 타원형이다. 지석은 남쪽과 북쪽에서 할석 1개씩 확인된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진 30-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6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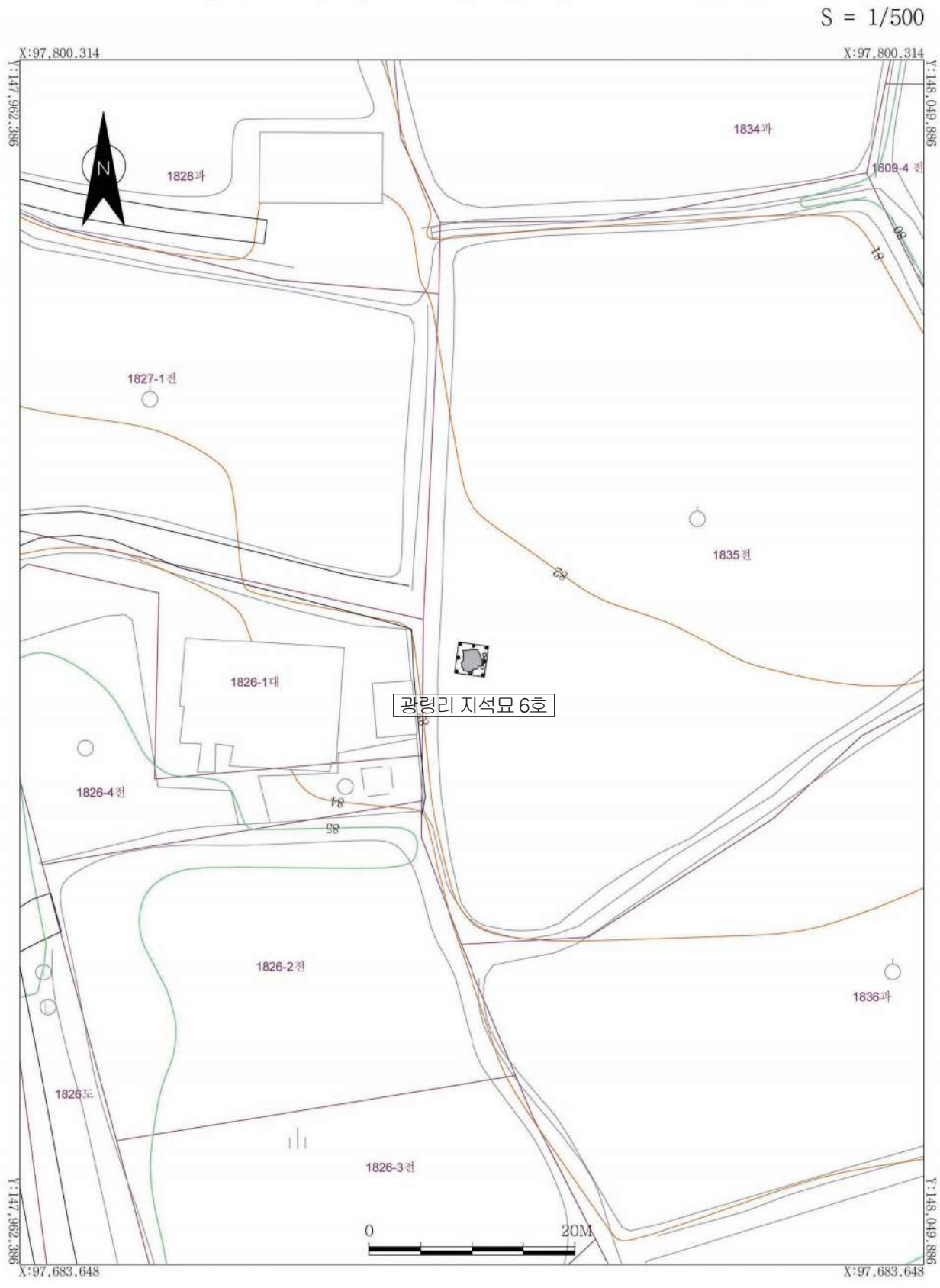
| 사진 30-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6호 (위에서) |



| 사진 30-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6호 (남에서) |



| 사진 30-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6호 (서에서) |



| 도면 30-② 광령리 지석묘 6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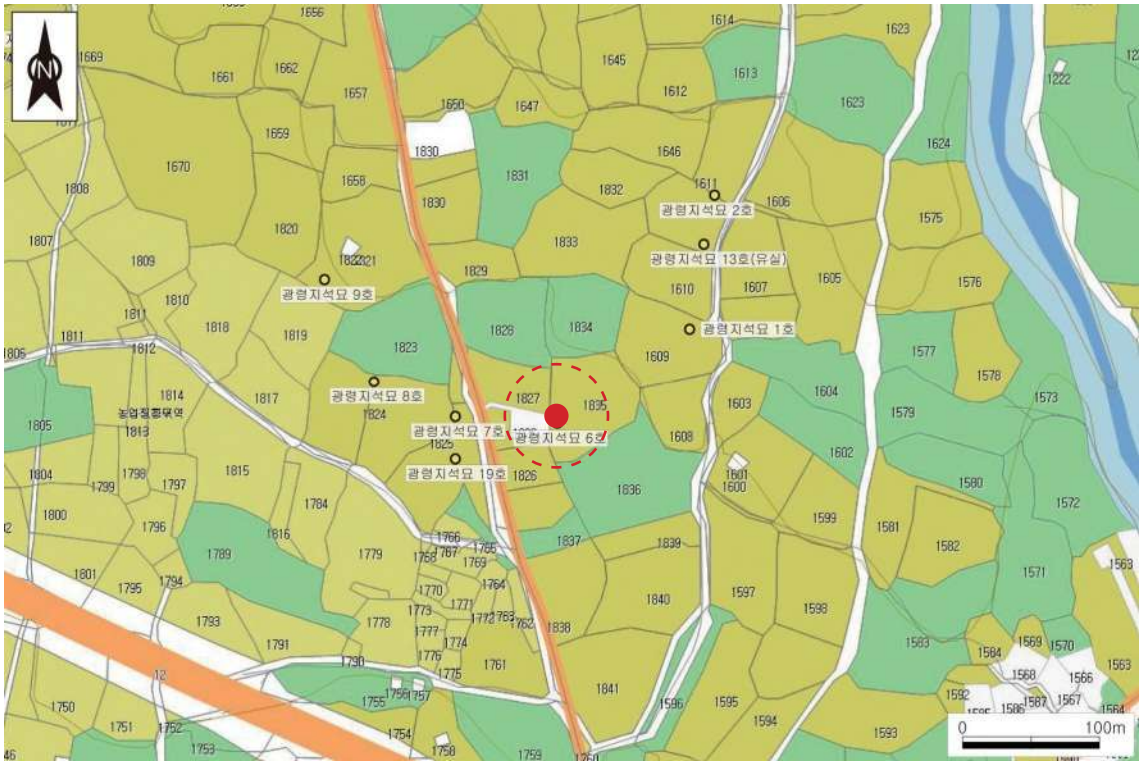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21호이며 광령리 1835번지에 위치한다. 귤밭 가운데 있으며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아 관람에 방해되며 접근이 어렵다. 안내판의 내용도 지석묘와 맞지 않으며 설치되어 있는 방향도 관람에 적합하지 않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관람이 용이하게 주변을 정비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교체하고 안내판의 위치와 내용을 수정한다.



| 도면 30-③ 광령리 지석묘 6호 지적 현황도 |

31. 광령리 지석묘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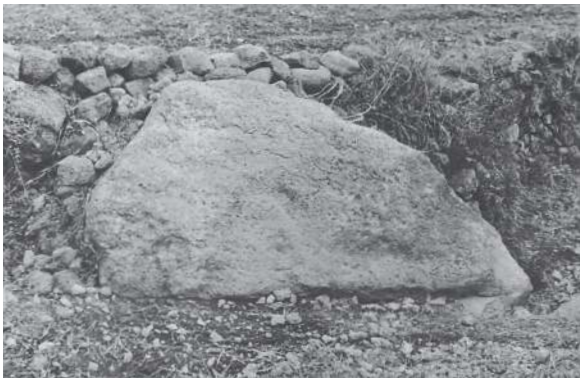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3(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번지, 1825-1번지 경계
3) GPS 좌표 : N 33°28′19.56″, E 126°26′23.71″
4) 해발고도 : 83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825-1번지와 1824번지의 높이가 다른 서고동저(西高東底)의 밭 사이 급한 경사면에 상석(上石)이 쓰러져 있다. 서쪽 높은 밭쪽에 지석(支石)으로 보이는 2매의 판돌과 1매의 괴석(塊石)이 노출되어 있다. 상석(上石)은 길이 232㎝, 폭 130㎝, 두께 54㎝로 윗면이 평평하고 두께가 고른편이며, 평면형태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사다리꼴로서 남쪽 가장자리에 3개의 성혈(性穴)이 있다. 지석(支石)의 서쪽 측면에서 운반할 때, 동아줄 일탈(逸脫)을 방지하기 위한 긴 홈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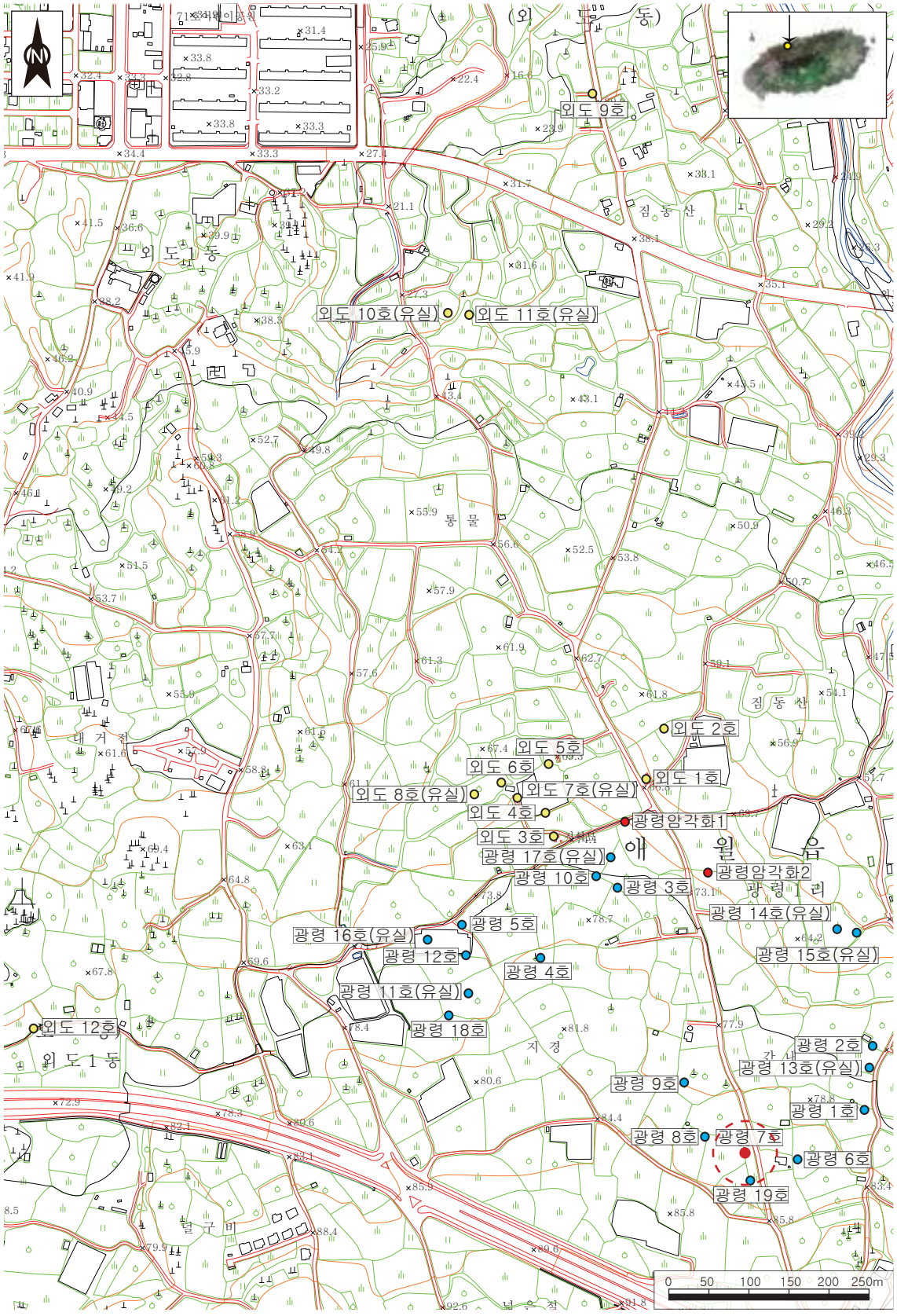
| 사진 31-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7호 |



| 사진 31-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7호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높이가 다른 서고동저의 밭사이 급한 경사면에 쓰러져 있으며, 돌무더기와 잡초를 제



| 도면 31-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거해 보니 서쪽 높은 밭쪽에 지석으로 보이는 2매의 판석과 1매의 괴석이 노출되었다. 이 밖에도 수매의 지석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석은 길이 232㎝, 폭 130㎝, 두께 54㎝로 윗면이 평평하고 두께가 고른편이며 평면형태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사다리꼴로서 남쪽 가장자리에 3개의 성혈이 있다. 상석의 서쪽 측면에서는 1조의 긴 홈줄이 확인되었다. 판석상의 지석은 각각 폭 34㎝, 48㎝, 높이 53㎝, 40㎝, 두께 6㎝, 8㎝의 크기를 갖고 있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33이다. 애조로 사라마을 입구에서 성지요양원 방향으로 270m 가량 내려오면 서쪽 밭 경계에 위치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5km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으로 420m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43cm, 단축 135cm, 두께 48cm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보인다. 상석은 이동되어 밭경계에 비스듬하게 걸쳐있으며 정면 좌측에서 성혈 7개와 홈줄 7개가 확인된다. 상석의 중앙 아래쪽에는 유사 성혈이 5개가 있다.



| 사진 31-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7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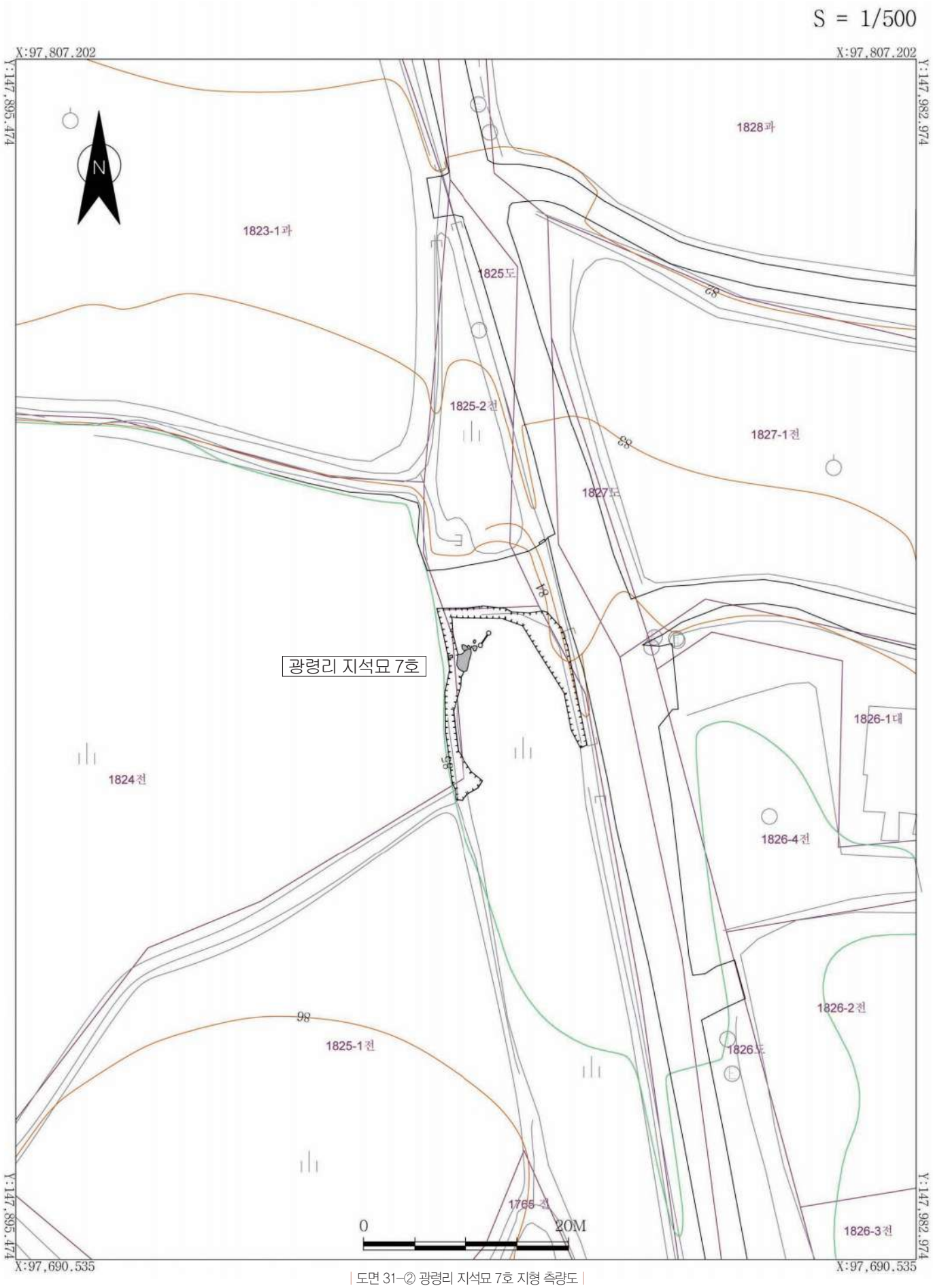
| 사진 31-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7호 (위에서) |



| 사진 31-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7호 (동에서) |



| 사진 31-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7호 성혈 |



| 도면 31-② 광령리 지석묘 7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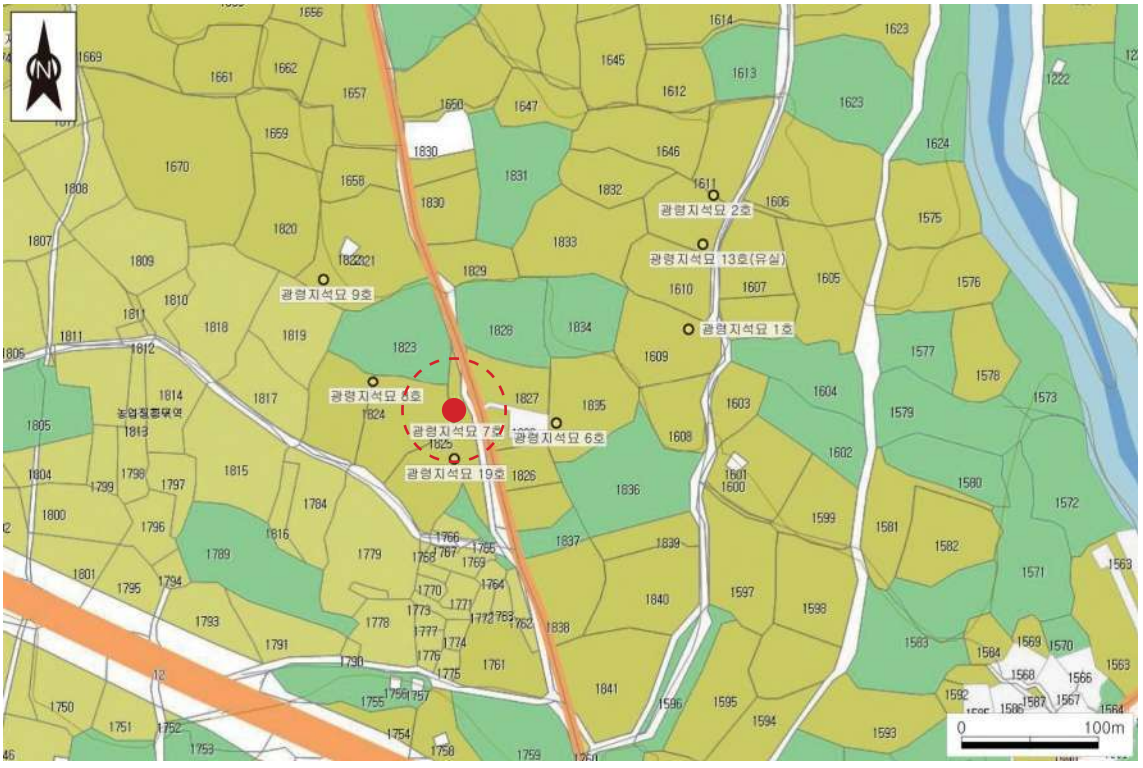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33호이며 광령리 1824번지, 1825–1번지에 위치한다. 밭경계로 이동되어 있으며 안내판은 있으나 보호책이 없다.

2) 정비 · 활용계획

밭 가장자리로 이동되어진 것으로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안내문의 내용을 지석묘에 맞게 수정해야하며 보호책을 설치한다.



도면 31–③ 광령리 지석묘 7호 지적 현황도

32. 광령리 지석묘 8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4(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번지, 1824-1번지 경계
3) GPS 좌표 : N 33°28′20.11″, E 126°26′21.65″
4) 해발고도 : 83m

나. 조사 내용

(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이 고인돌은 애월읍 광령리 1825번지와 1826번지 경계에 있다. 새롭게 확인한 고인돌이다. 밭 경계의 평평한 곳에 위치하며 상석위로 돌담이 지나간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310㎝, 폭 190㎝, 두께 25-45㎝로 그 평면은 대체로 머리쪽이 넓어진 말각장방형이다. 상석이 남쪽밭으로 기울어져 있다. 상석하부 지석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광령리 16호고인돌과 같은 형식이다. 상석 상면의 성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진 32-① 1998년 광령리 지석묘 8호 |



| 사진 32-② 2015년 광령리 지석묘 8호 (위에서) |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밭 경계의 평평한 곳에 위치하며 상석위로 돌담이 지나간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310㎝, 폭 190㎝, 두께 25-45㎝로 그 평면은 대체로 머리쪽이 넓어진 말각장방형이다. 상석이 남쪽밭으로 기울어져 있다. 상석하부 지석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광령리 16

호고인돌과 같은 형식이다. 상석 상면의 성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34이다. 애조로 사라마을 입구에서 성지요양원 방향으로 270m 가량 내려오면 서쪽 밭 경계에 위치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5km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으로 450m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32cm, 단축 165cm, 두께 32~50cm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보인다. 상석 아래에 잡석이 채워진 것으로 보아 이동되어 밭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 32-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8호 (남에서) |



| 사진 32-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8호 (남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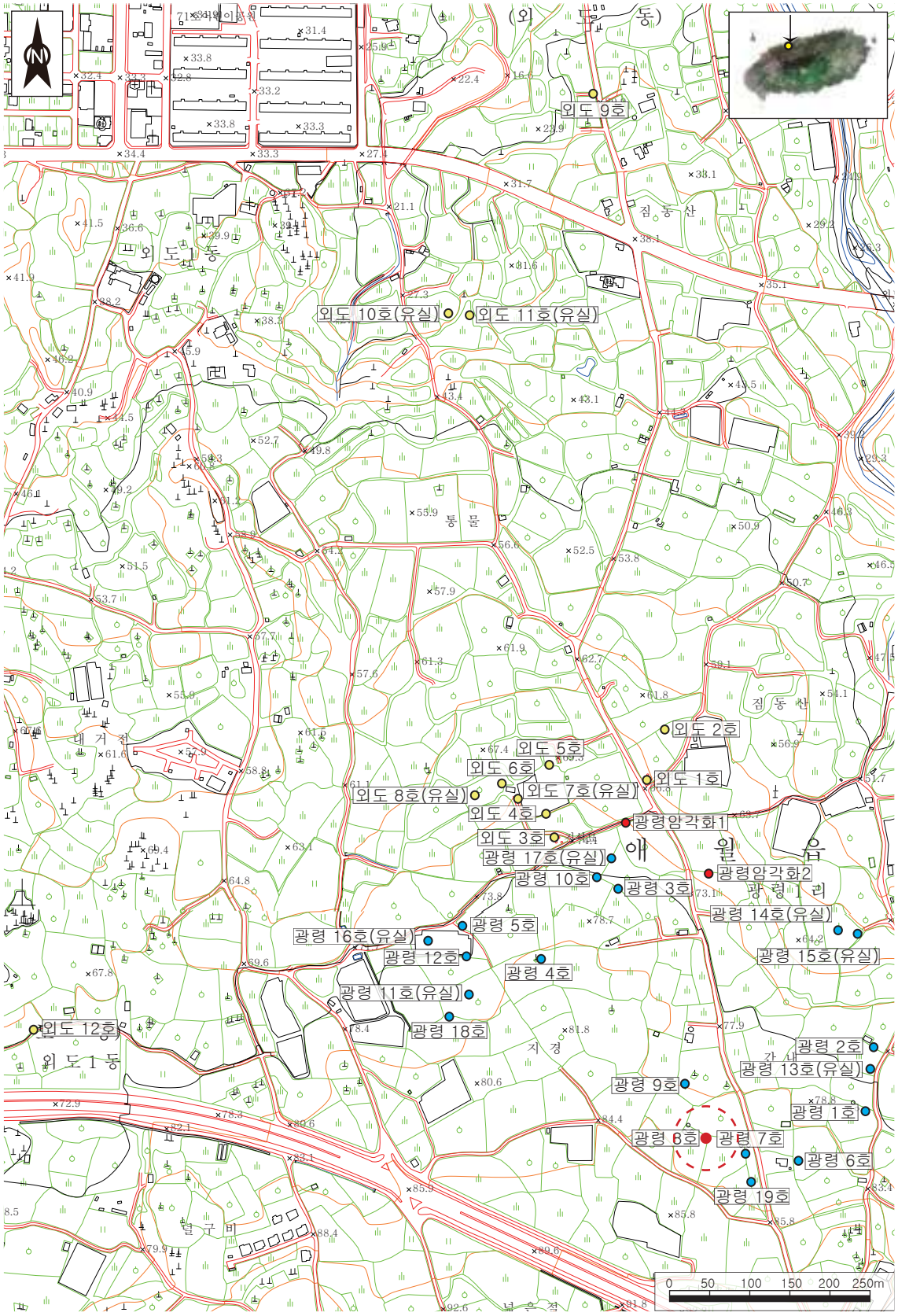
참고문헌

①『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④『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34호이며 광령리 1824번지, 1824-1번지에 위치한다. 밭 경계로 이동되어 있으며 안내판은 있으나 보호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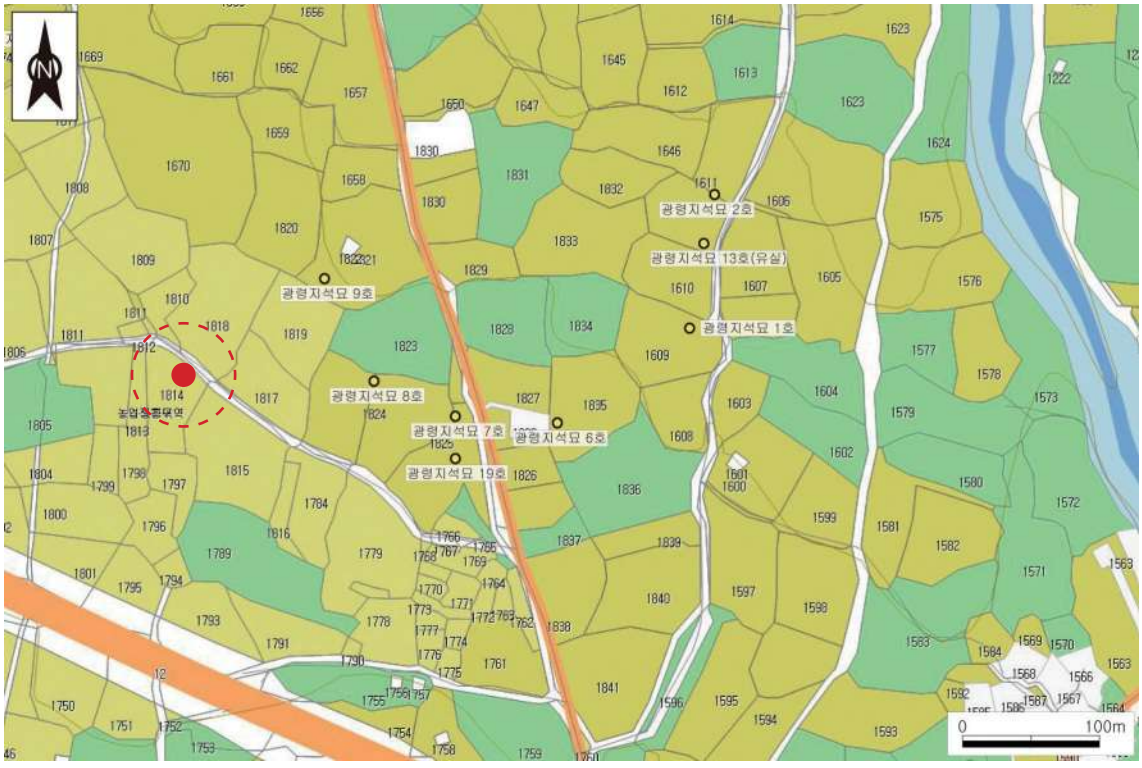
| 도면 32-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32-② 광령리 지석묘 8호 지형 측량도 |

2) 정비 · 활용계획

밭 가장자리로 이동되어진 것으로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안내문의 내용을 지석묘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보호책을 설치한다.



| 도면 32-③ 광령리 지석묘 8호 지적 현황도 |

33. 광령리 지석묘 9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5(1990.05.30)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1번지
3) GPS 좌표 : N 33°28′21.98″, E 126°26′20.69″
4) 해발고도 : 81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821번지 초지(草地) 한가운데에 있으며, 상석(上石)은 길이 255㎝, 폭 178㎝, 두께 65㎝로 얼핏 거북등 모양을 연상케 하며, 장축은 대체로 남북방향에 가깝다. 동 · 서 · 남쪽에 여러 매의 작은 할석(割石)으로 된 지석(支石)이 고여 있고 지대가 낮은 북쪽으로 상석(上石)이 다소 들려 있었으며, 이곳에 큼직한 3매의 돌과 잔돌로 막아 있었다.



| 사진 33-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9호 |



| 사진 33-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9호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다소 완만한 경사의 초지 한가운데 있으며 발견당시 잡목과 돌로 덮혀 있고 다만 상석하부측면이 일부 노출되었을 뿐이었다. 상석은 길이 255㎝, 폭 178㎝, 두께 65㎝로 얼핏 거북등모양을 연상케 하며 장축은 N20°W를 가리킨다. 동 · 서 · 남쪽에 다매의 작은 할석으로 된 지석이 고여 있고 지대가 낮은 북쪽으로 상석이 다소 들려 있었으며, 이곳에 큼직한 할석 3매와 다매의 잡석으로 막아 있었다. 이 막음돌을 치운다면 시신 매장부 북쪽 전면이 외부에 완전 공개, 노출되므로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이러한 막음돌이 축조 당시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막음돌을 빼내고 내부의 흑갈색 부토를 걷어내면서 수점의 무문토기편과 김해식토기편 1점을 수습하였는데, 대부분 지석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부토층을 걷어내니 바로 평평한 황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 고인돌인 경우 이 황갈색층이 바로 생토인지 아니면 그 아래 지하매장부가 있었는지 혹은 반지상식인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나 현단계로서는 생토층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상에 매장부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35이다. 애조로 사라마을 입구에서 성지요양원 방향으로 370m 가량 내려오면 서쪽 밭에 위치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4km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으로 450m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33cm, 단축 170cm, 두께 65~85cm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제형으로 보인다. 상석의 북쪽이 두껍고 남쪽이 얇다. 상석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남쪽면이 들려야 수평이 맞을 것이다. 상석의 재질은 현무암으로 암질의 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동쪽 측면만 치석하였다. 상석의 북쪽 들린 면 아래에서 할석재가 확인되며 1개의 석재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



| 사진 33-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9호 |



| 사진 33-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9호 (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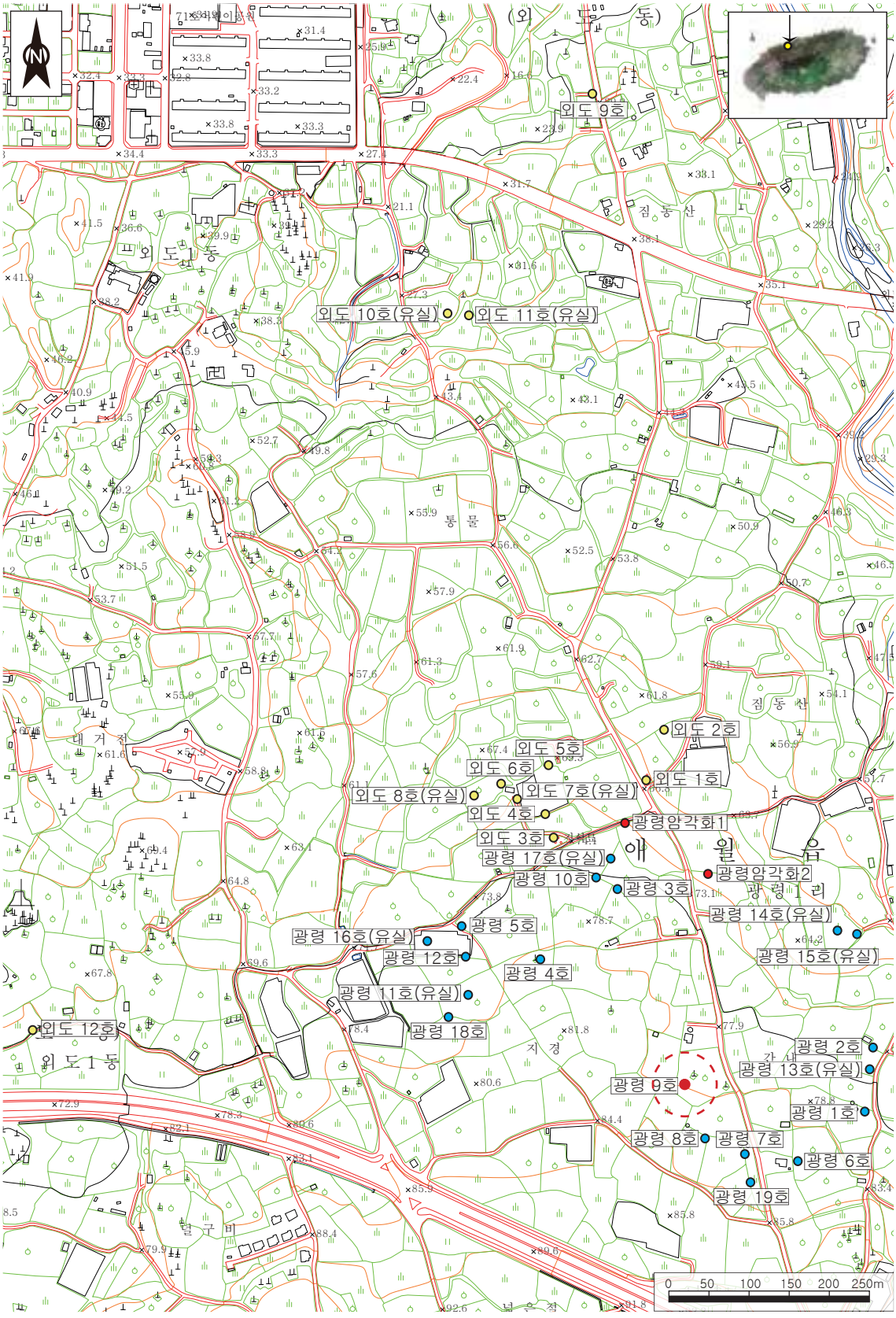
| 사진 33-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9호 (남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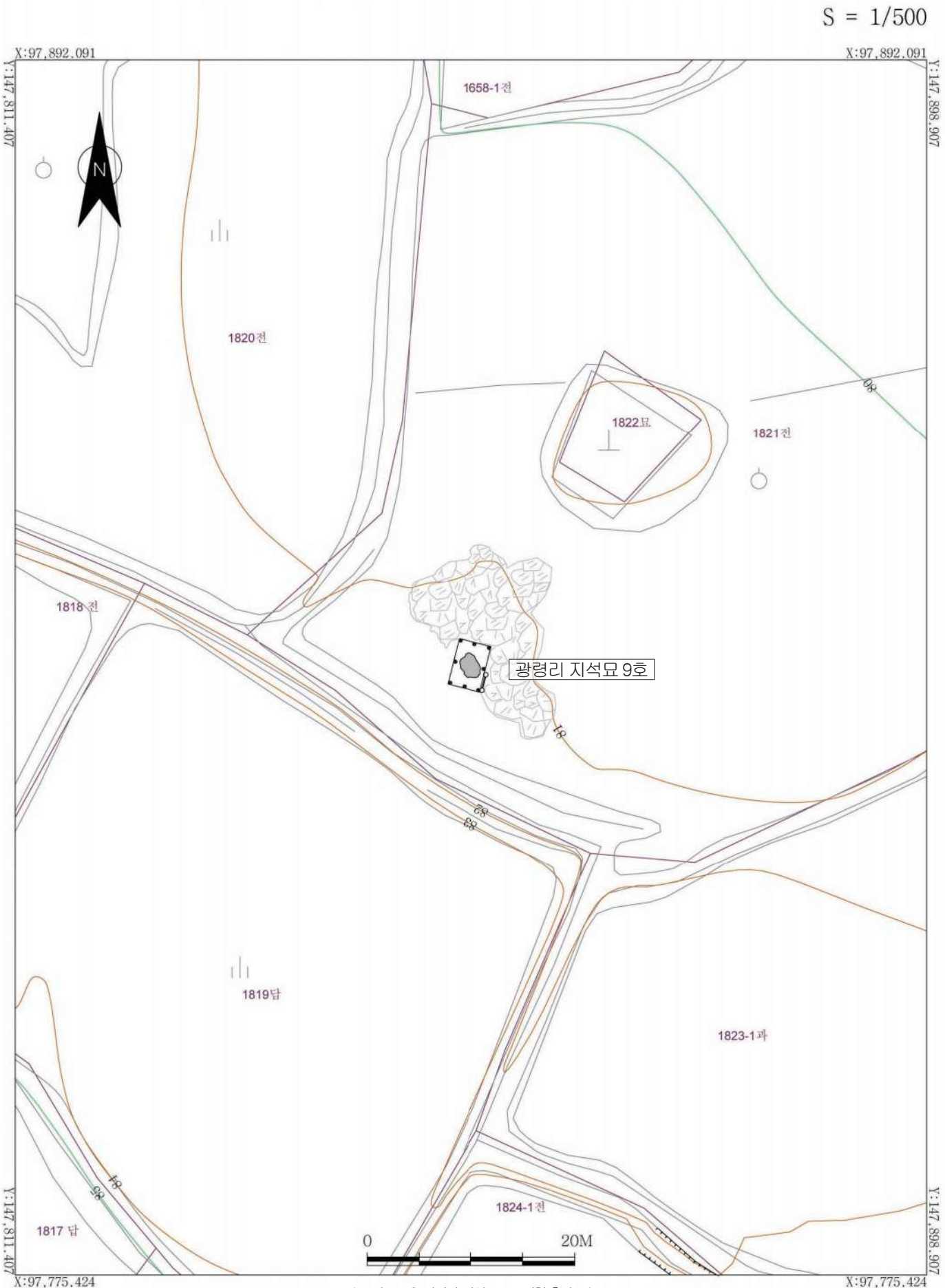
| 사진 33-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9호 지석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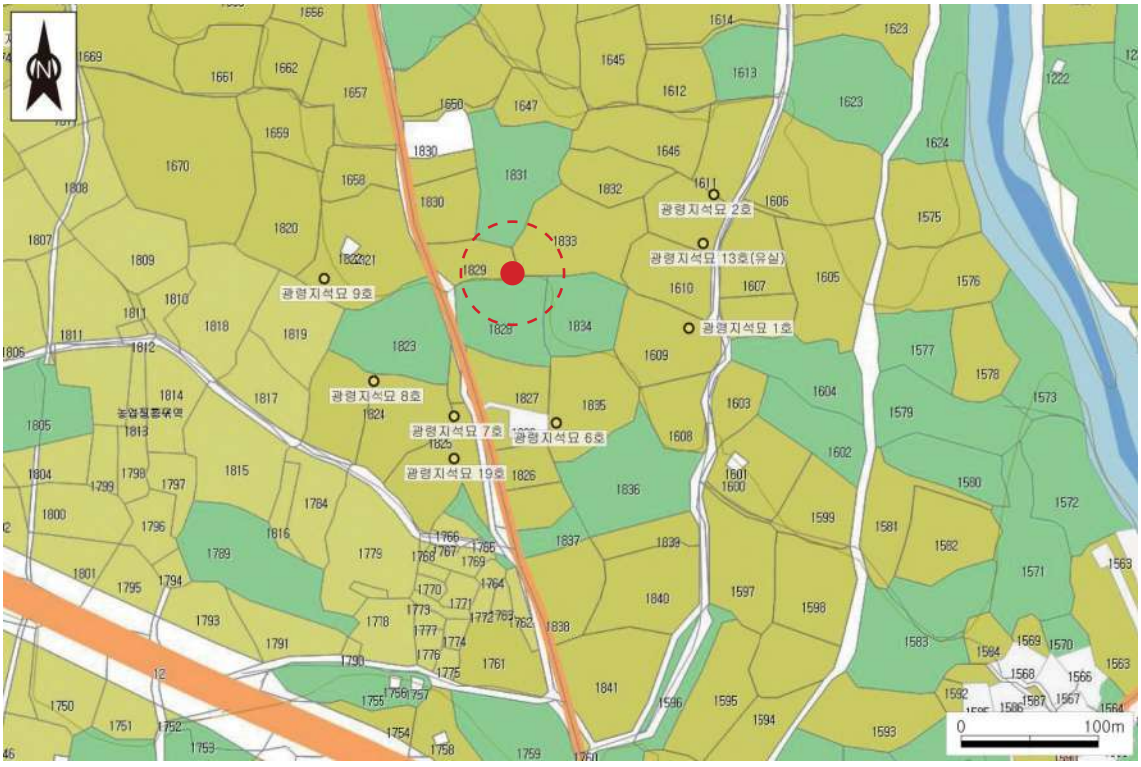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 도면 3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33-② 광령리 지석묘 9호 지형 측량도 |



도면 33-③ 광령리 지석묘 9호 지적 현황도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35호이며 광령리 1821번지 감귤과수원 안쪽에 위치한다. 밭경계로 이동되어 있으며 안내판은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 보호책은 1990년대 설치된 것으로 다른 지석묘와 다른 형태이다. 지석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나 안내판이 없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람로와 이정표를 설치해야 하며 안내문의 내용을 지석묘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보호책은 다른 지석묘와 통일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며 주변지형이 훼손되지 않게 설치한다.

34. 광령리 지석묘 10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36(1990.05.30)
1)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6-1번지, 1665번지 경계
2) GPS 좌표 : N 33°28′31.63″, E 126°26′14.98″
3) 해발고도 : 74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665번지와 1666-1번지 밭 사이 돌담에 위치하며 잡초, 잡목, 돌무더기에 덮혀 있었는데, 대체로 장방형의 상석(上石)은 길이 214㎝, 폭 123㎝, 두께 62㎝의 크기를 갖고 장축은 동서방향을 가리키 있다. 상석(上石) 동남쪽에 치우쳐 2개의 성혈(性穴)이 희미하게 보이며 다소 작은 돌로 된 지석(支石)이 고이고 있다.



| 사진 34-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0호 |



| 사진 34-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0호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애월읍 광령리 1665번지, 1666-1번지 밭 돌담에 있다. 잡초 · 잡목 · 돌무더기에 덮여 있던 고인돌이다. 대체로 장방형의 평면을 갖는 상석은 길이 214㎝, 폭 123㎝, 두께 62㎝의 크기를 갖고 장축은 예외적으로 동서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 동남쪽에

치우쳐 2개의 성혈이 희미하게 보이며, 상석하부는 돌무더기와 흙이 심하게 매립되어 있어 확인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출된 양상을 보면 다소 작은 돌로 된 지석이 상석을 받치고 있고, 매장부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36이다. 광령리 지석묘 3호의 북서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1km 떨어져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으로 500m 지점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86cm, 단축 118cm, 두께 40cm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형태는 제형으로 보인다. 1986년 사진을 보면 밭경계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석의 하부가 매몰되어 있으며 상석의 동쪽이 두껍고 서쪽이 얇다. 동쪽의 볼록하게 솟은 부분에서 5~7cm 가량의 성혈 7개가 확인된다.



사진 34-③ 2013년 광령리 지석묘 10호(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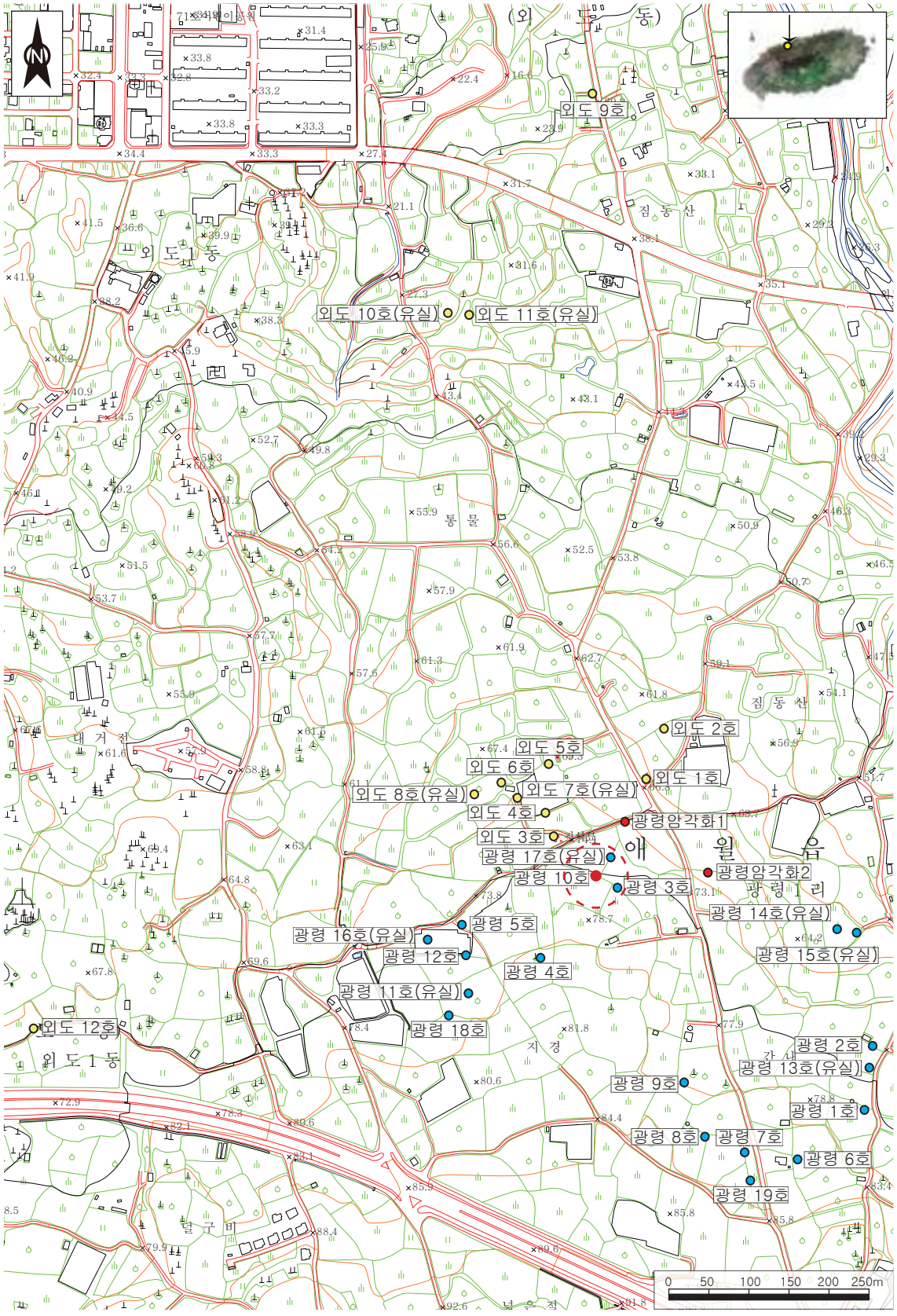
사진 34-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0호(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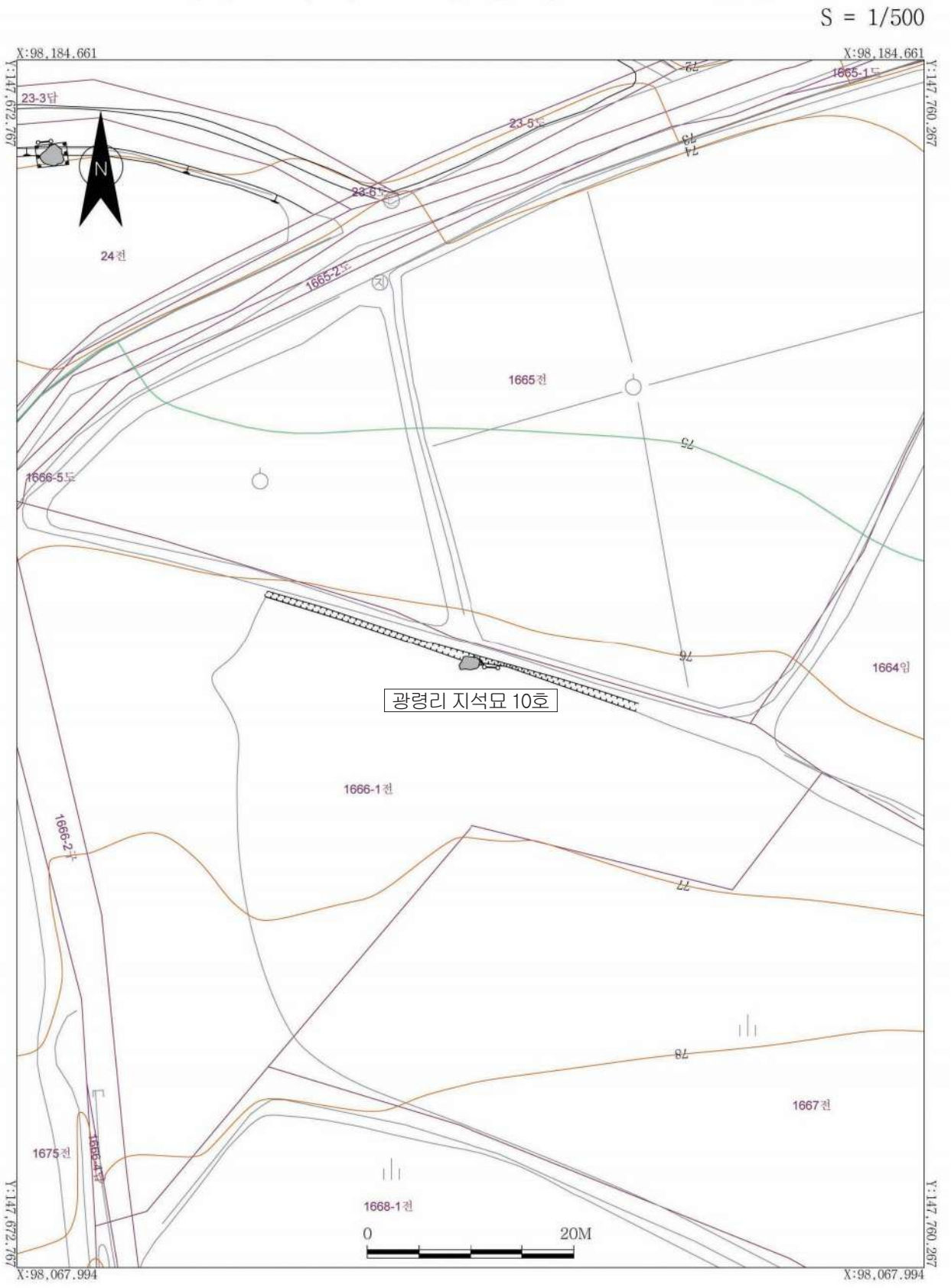
사진 34-⑤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0호(남에서)



사진 34-⑥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0호 성혈



| 도면 34-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34-② 광령리 지석묘 10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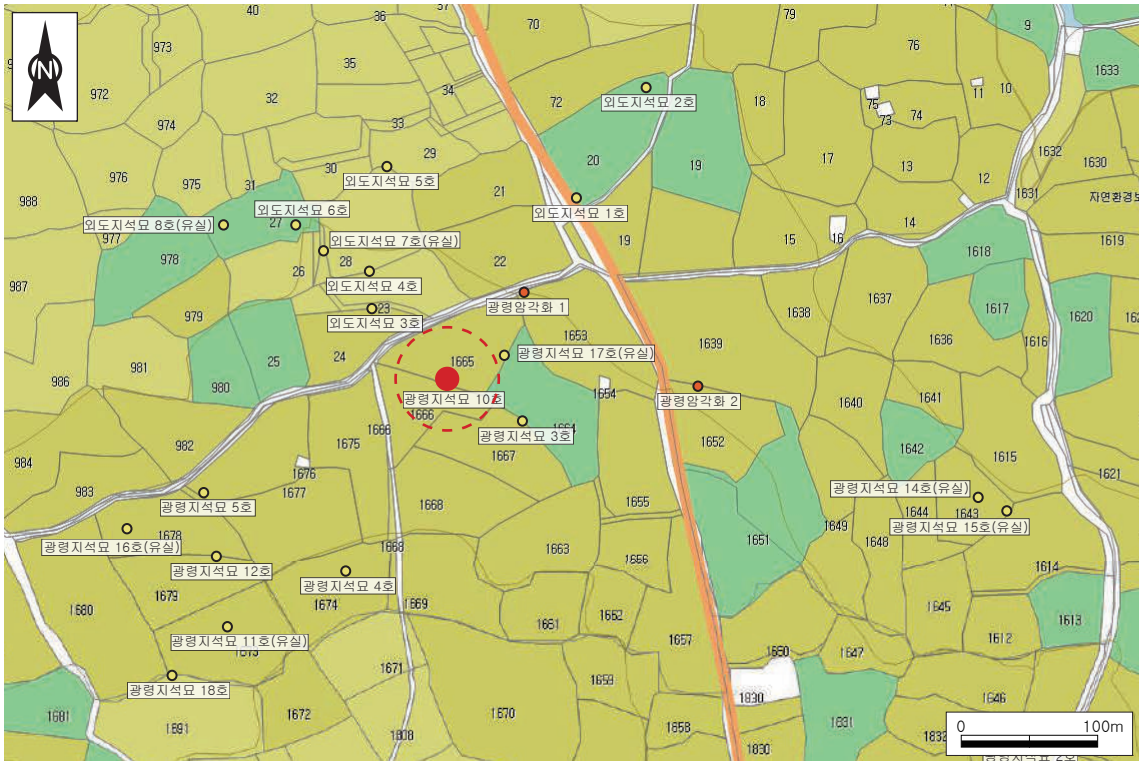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36호이며 광령리 1666-1번지, 1665번지 밭 경계에 위치한다. 1980년대에는 노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매몰되어 가고 있다. 안내판은 있으나 보호책은 없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가 매몰되지 않게 학술조사 후 정비작업을 실행한다. 지석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람로와 이정표를 설치해야 하며 안내문의 내용을 지석묘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보호책은 주변지형이 훼손되지 않게 다른 지석묘와 통일성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 도면 34-③ 광령리 지석묘 10호 지적 현황도 |

35. 광령리 지석묘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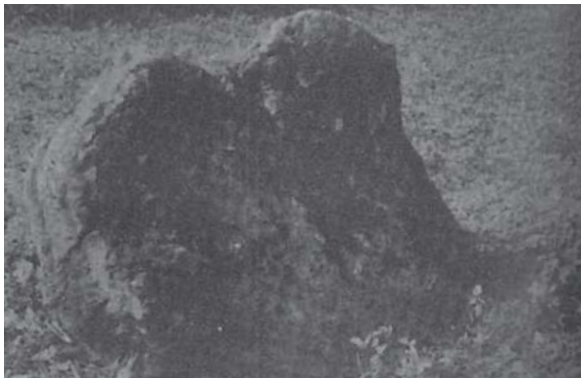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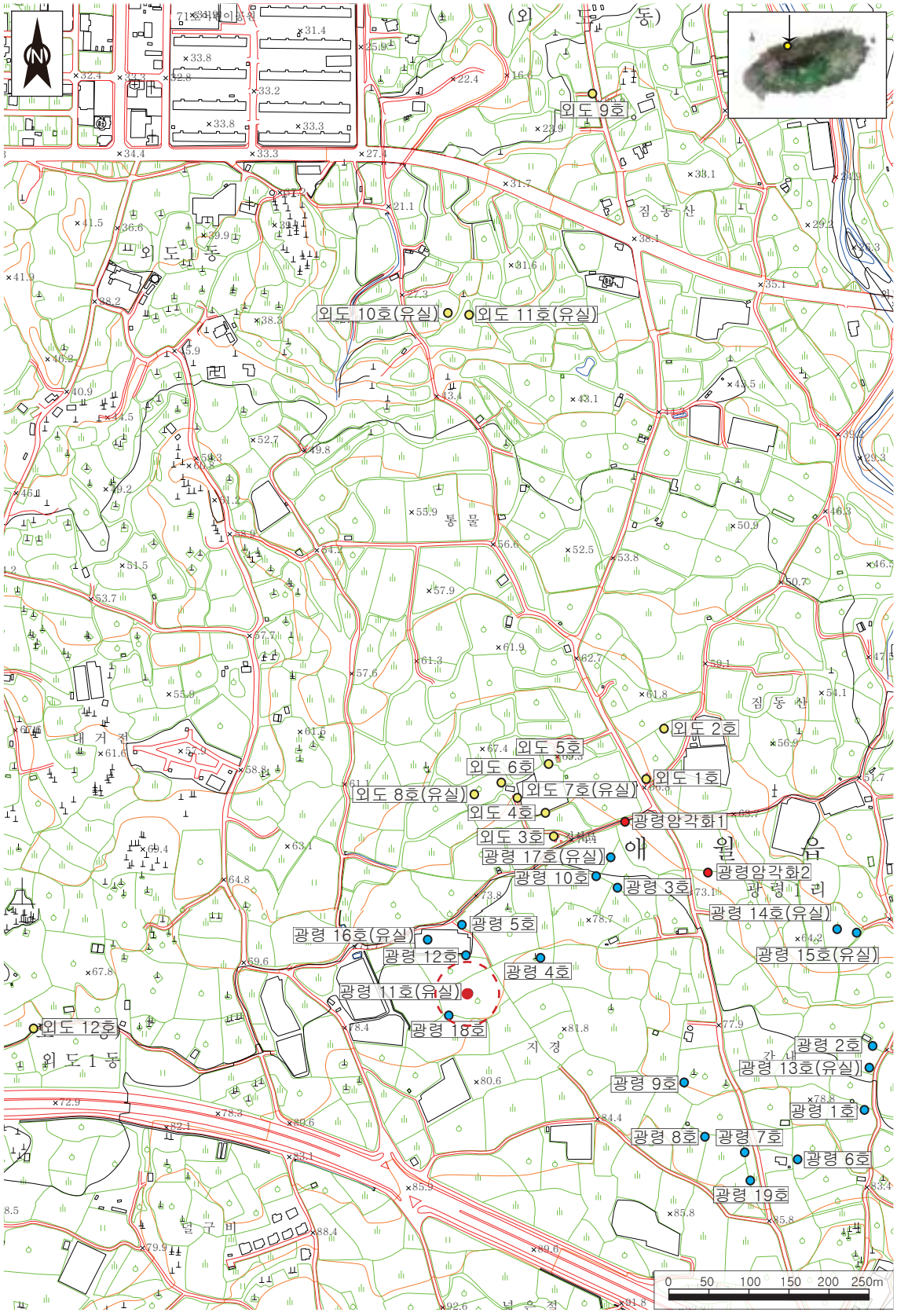
이 고인돌은 광령리 1673번지에 있었다. 앞서 광령리 12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상석이 완전히 세로로 젖혀지고 지석과 매장부가 파괴되어 상석만이 고인돌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예이다. 그래서 혹시 고인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상석은 길이 203㎝, 폭 135㎝, 두께 55㎝이고 성혈이 없다.



| 사진 35–①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1호 |

(2)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은 광령리 1673번지에 있었다. 앞서 광령리 12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상석이 완전히 세로로 젖혀지고 지석과 매장부가 파괴되어 상석만이 고인돌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예이다. 그래서 혹시 고인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상석은 길이 203㎝, 폭 135㎝, 두께 55㎝이고 성혈이 없다.



| 도면 35-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③『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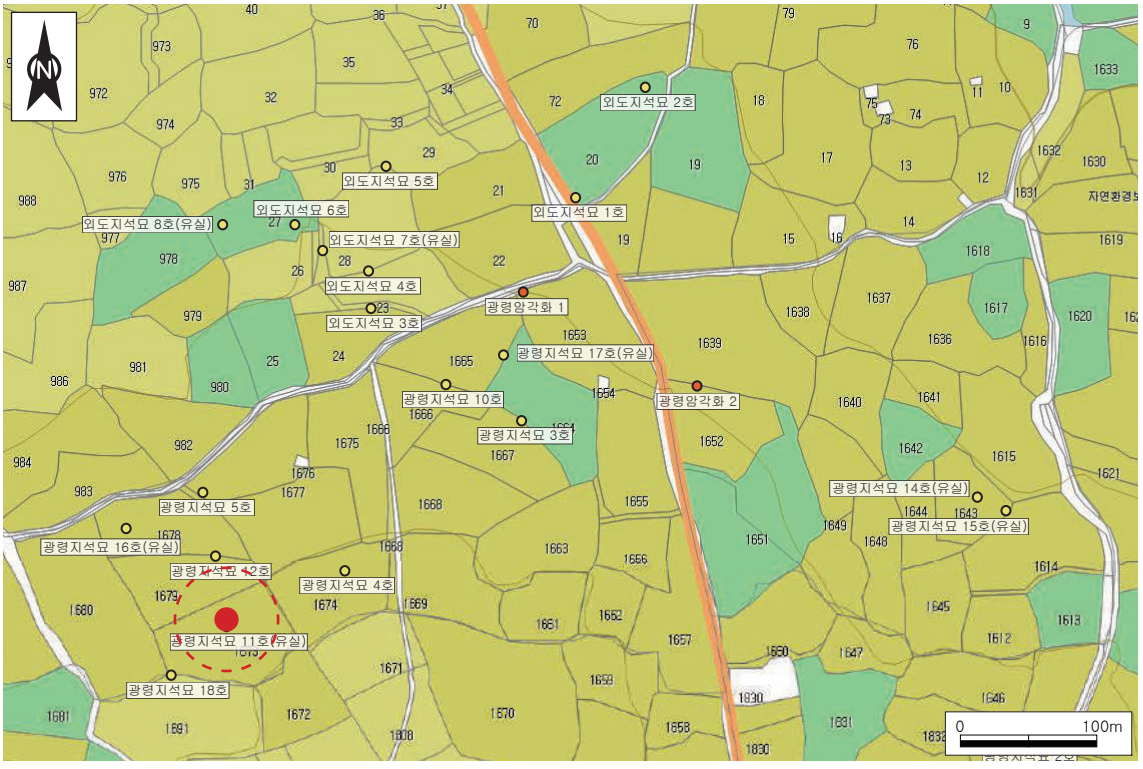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1980년대 조사 이후에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의 하부구조나 관련 유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도면 35–② 광령리 지석묘 11호 지적 현황도

36. 광령리 지석묘 1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1679번지 경계
3) GPS 좌표 : N 33°28′27.99″, E 126°26′09.12″
4) 해발고도 : 75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밭경계에 상석(上石)만 이동하여 완전히 세로로 젖혀진 것이다. 그 크기는 길이 223㎝, 폭 140㎝, 두께 36㎝이고 성혈(性穴)은 없다.



| 사진 36-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2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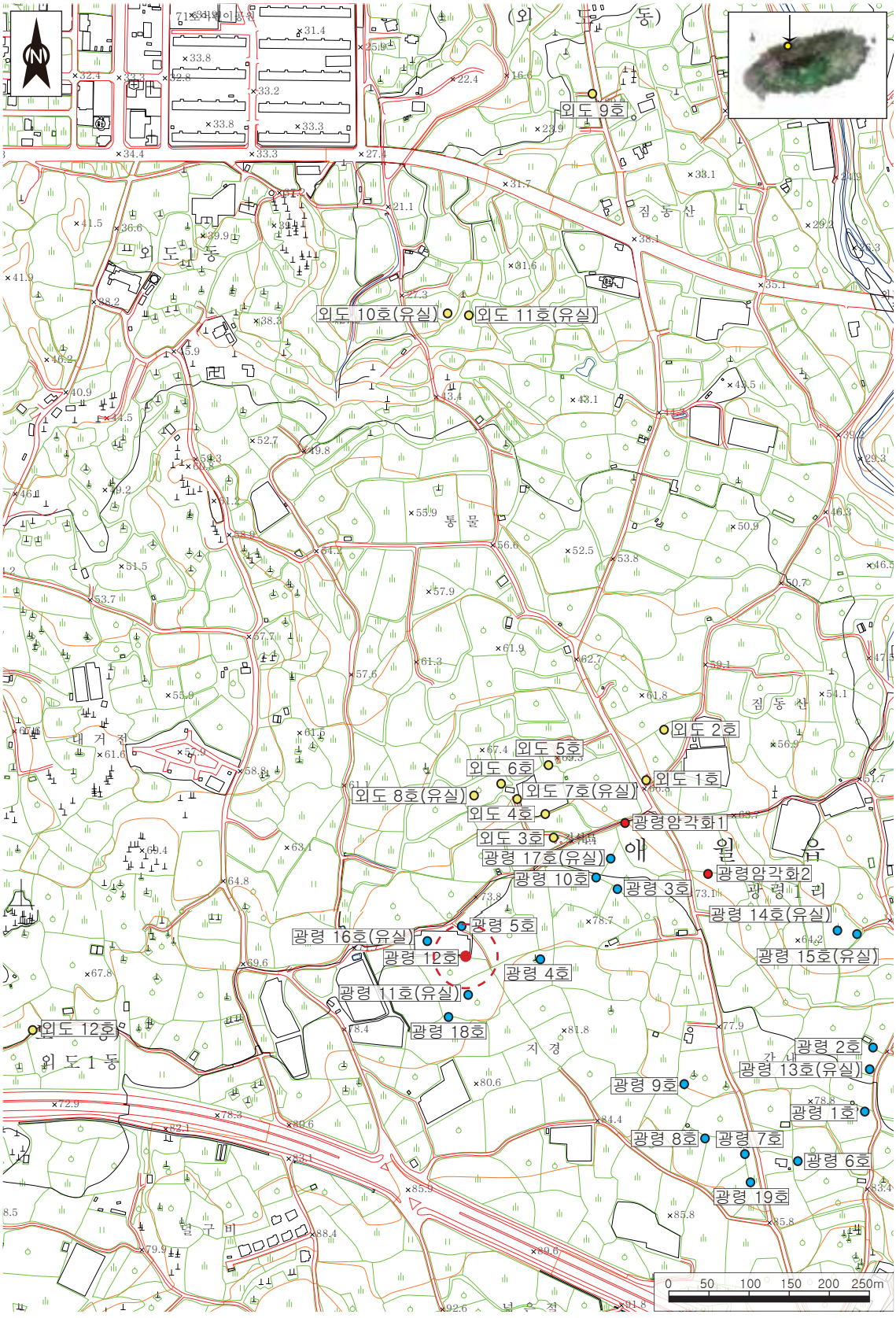
| 사진 36-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2호 |



| 사진 36-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2호(북에서) |



| 사진 36-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2호(남에서) |



| 도면 36-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에 있다. 밭사이 돌담에 큰 판석상 상석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이다. 길이 223cm, 폭 140cm, 두께 36cm로 지석과 매장부가 확인되지 않고 상석에 성혈도 보이지 않는다.

(3)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밭사이 돌담에 큰 판석상 상석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이다. 길이 223cm, 폭 140cm, 두께 36cm로 지석과 매장부가 확인되지 않고 상석에 성혈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멸실된 상태이다.

(4) 2015년 조사

애월읍 광령리 1672번지와 1673번지 경계에 돌담 역할을 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13cm, 단축 130cm, 두께 75cm이다. 밭 경계에 인위적으로 세워져 있어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석의 상면은 북쪽에서 바라보는 면으로 추정되며 상석의 상면에서 정자국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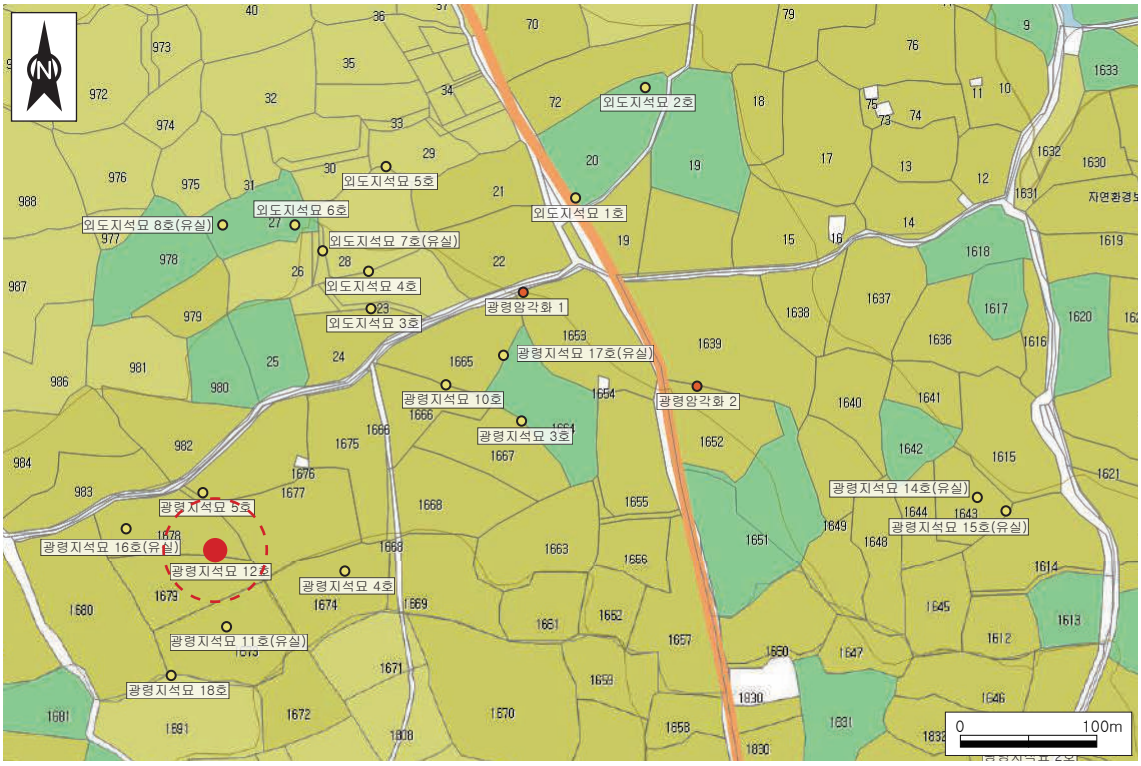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비지정 지석묘이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1679번지에 위치한다. 밭 경계에 이동되어 세워져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밭 경계로 이동된 지석묘로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 후 이전 · 복원한다.



도면 36-② 광령리 지석묘 12호 지적 현황도

37. 광령리 지석묘 13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3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612번지 밭 한가운데 있는데, 남북의 장축방향으로 놓인 길이 315㎝, 폭 234㎝, 두께 78㎝의 비교적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장방형 상석(上石)을 갖고 있다. 그 상석(上石)의 남쪽에 길이 110㎝, 폭 55㎝, 두께 19㎝의 큼직한 판석(板石)이 주위를 돌아가면서 잔돌이 지석(支石)역할을 하고 있다. 상석(上石)과 남쪽의 판석형(板石形) 지석(支石)이 물리는 곳의 상석하단(上石下段)은 일부 깨어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상석(上石) 윗면에는 17개의 성혈(性穴)이 보이고 있다.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이 고인돌은 광령리 1661번지에 있었다. N10°E의 장축방향으로 놓인 길이 315㎝, 폭 234㎝, 두께 78㎝의 비교적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장방형 상석을 갖고 있으며, 그 상석의 남쪽에 길이 1100cm, 폭 55cm, 두께 19cm의 큼직한 판석이 수평으로 받치고 있고 상석의 북쪽주위를 돌아가면서는 자잘한 할석이 지석 역할을 하고 있다. 상석과 앞쪽의 판석형 지석이 물리는 곳의 상석하단은 일부 깨어 서로 맞물리게 하였고 상석하면은 지하매장부와 닿아 있다. 지석 상면에는 마멸이 심한 17개의 성혈이 보이고 있다.

(3) 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2002)

광령리 13호 지석묘는 이미 상석과 지석이 모두 원상에서 이탈된 상태이며 지석묘가 위치했던 자리에는 이미 상석 이동시의 훼손으로 파괴되어 교란된 상태로 자갈과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탐라문화』4집(1985)의 내용을 보면 「이 고인돌은 광령리 1661번지에 있었다. N10°E의 장축방향으로 놓인 길이 315㎝, 폭 234㎝, 두께 78㎝의 비교적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장방형 상석을 갖고 있으며, 그 상석의 남쪽에 길이 1100cm, 폭 55cm, 두께 19cm의 큼직한 판석이 수평으로 받치고 있고 상석의 북쪽주위를 돌아가면서는 자잘한 할석이 지석 역할을 하고 있다. 상석과 앞쪽의 판석형 지석이 물리는 곳의 상석하단은 일부 깨어내어 서로 맞물리게 하였고 상석하면은 지하매장부와 닿아 있다. 지석 상면에는 마멸이 심한 17개의 성혈이 보이고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동된 상석의 실측조사 과정에서 성혈은 모두 20개가 확인되었고 미미한 흔적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석은 장축 282cm, 단축 190cm, 두께 25~61cm 정도이다.

(4) 2015년 조사

지석묘터는 발굴조사 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석은 돌문화공원에 있다.



| 사진 37–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



| 사진 37–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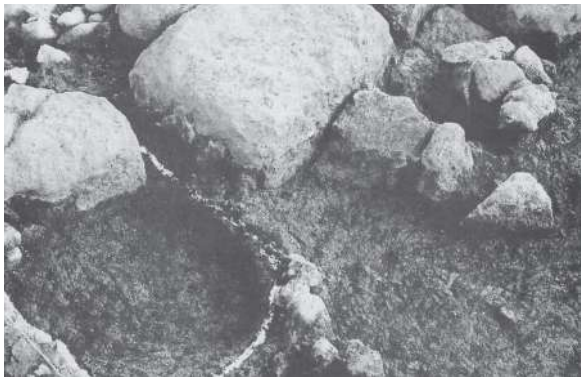
| 사진 37–③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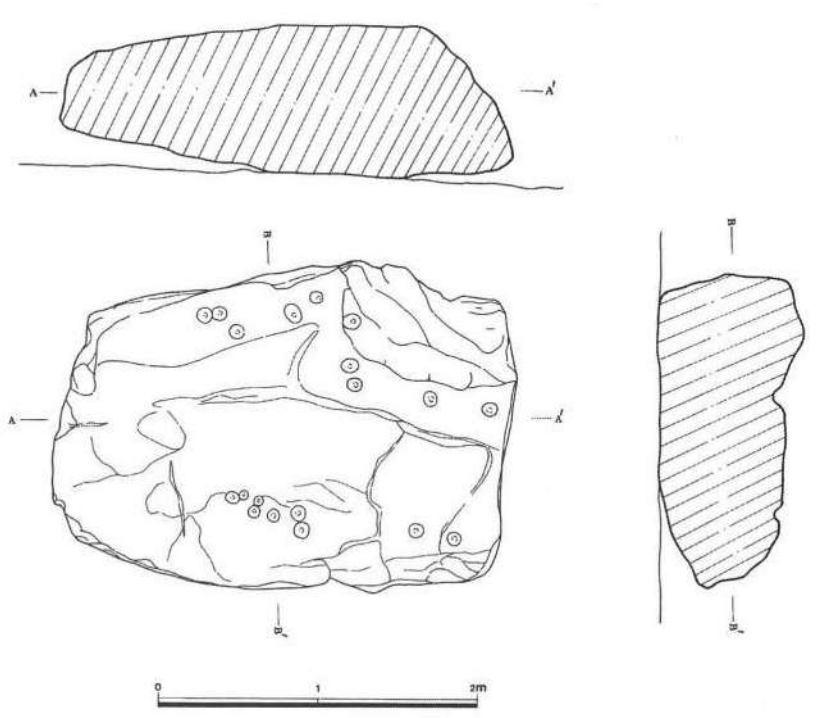
| 사진 37–④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성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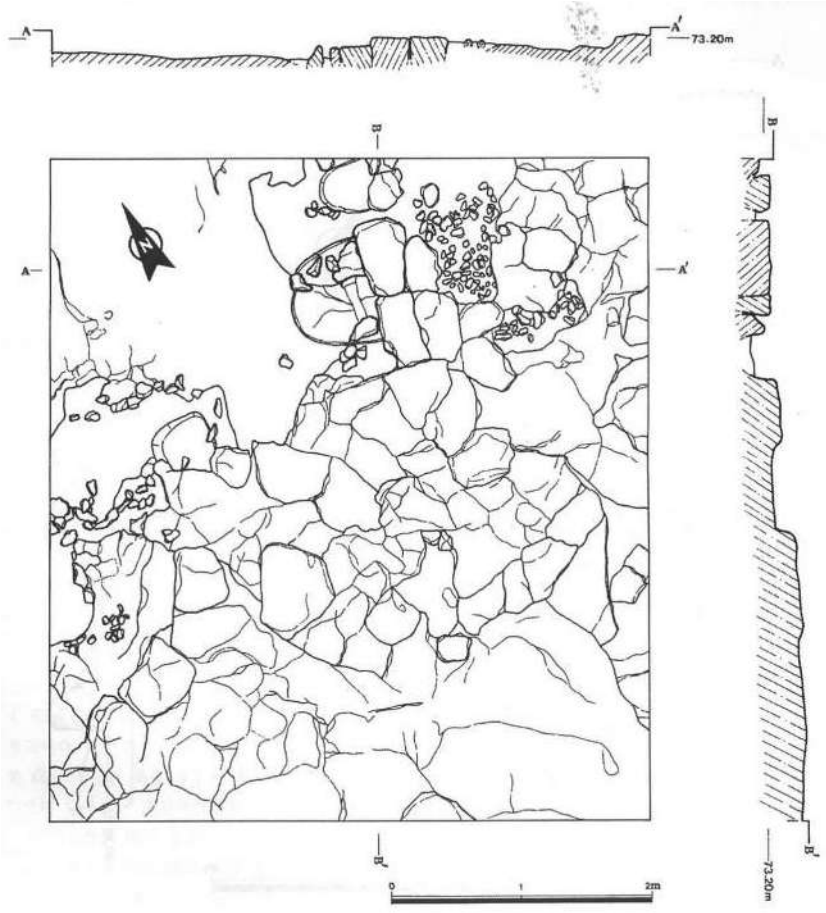
| 사진 37–⑤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소재지 조사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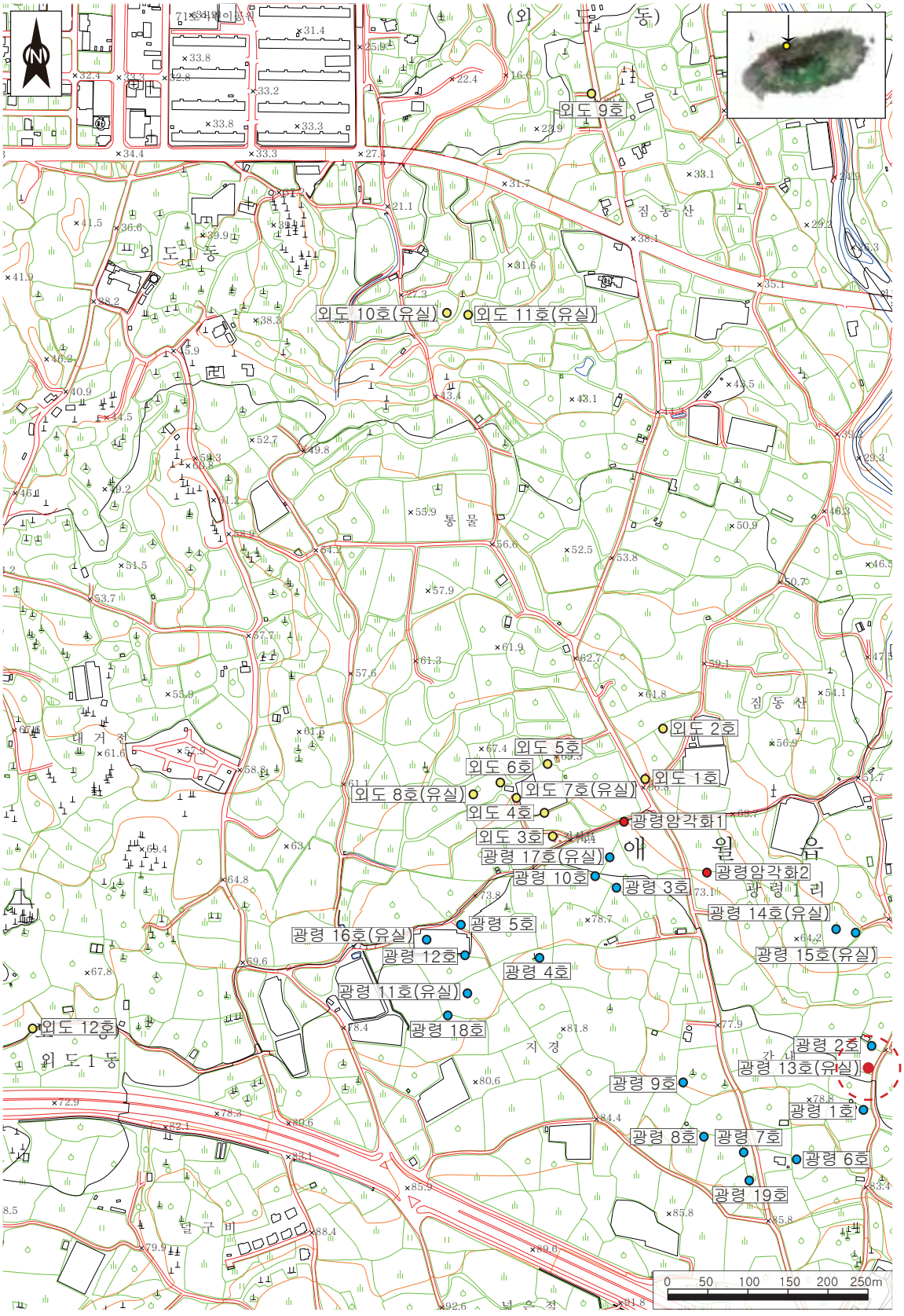
| 사진 37–⑥ 2002년 광령리 지석묘 13호 하부 |



| 도면 37-① 광령리 지석묘 13호 상석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 도면 37-② 광령리 지석묘 13호 하부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 도면 37–③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 2002,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⑦『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2002년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상석은 돌문화공원에 옮겨져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상석의 소재를 재확인하고 지석묘 공원이 생긴다면 그 곳으로 이전 · 복원한다.



| 도면 37–④ 광령리 지석묘 13호 지적 현황도 |

38. 광령리 지석묘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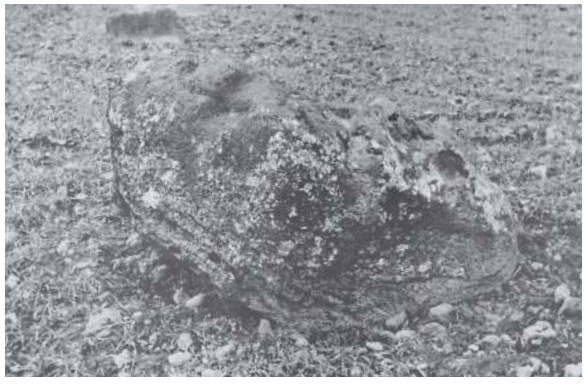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643번지 밭에 있는데, 상석(上石)의 크기는 길이 168㎝, 폭 130㎝, 두께 60~70㎝이다. 지석(支石)은 지상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상석(上石)의 북동쪽에 치우쳐 5개의 뚜렷한 성혈(性穴)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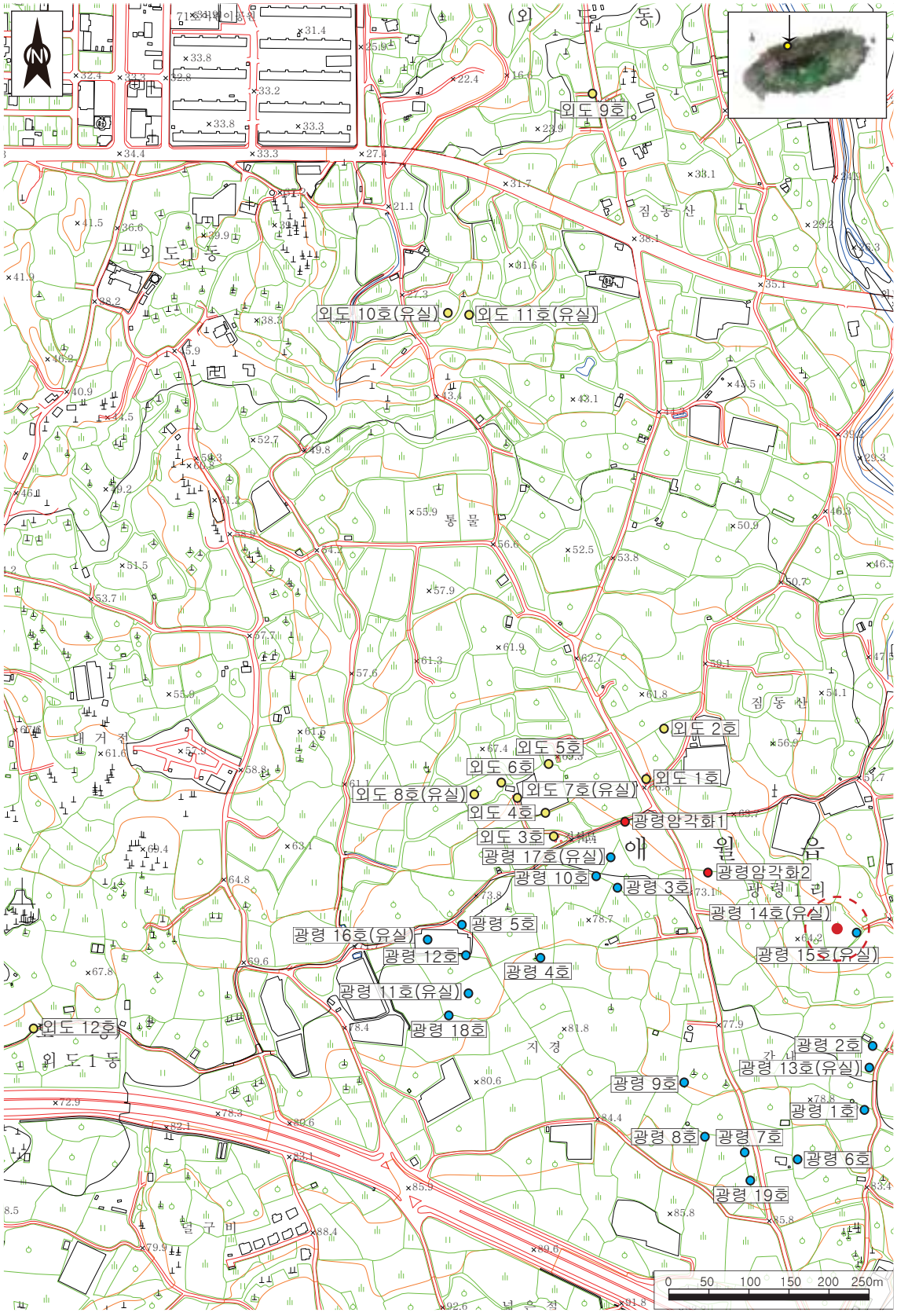
| 사진 38-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4호 |



| 사진 38-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4호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이 고인돌은 상석이 작고 모양이 일정치 않으며 밭흙에 깊게 매립되어서인지 지석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고인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168㎝, 폭 130㎝, 두께 60~70㎝이고, 북동쪽에 치우쳐 5개의 뚜렷한 성혈이 보인다.



| 도면 38-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2011),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⑤『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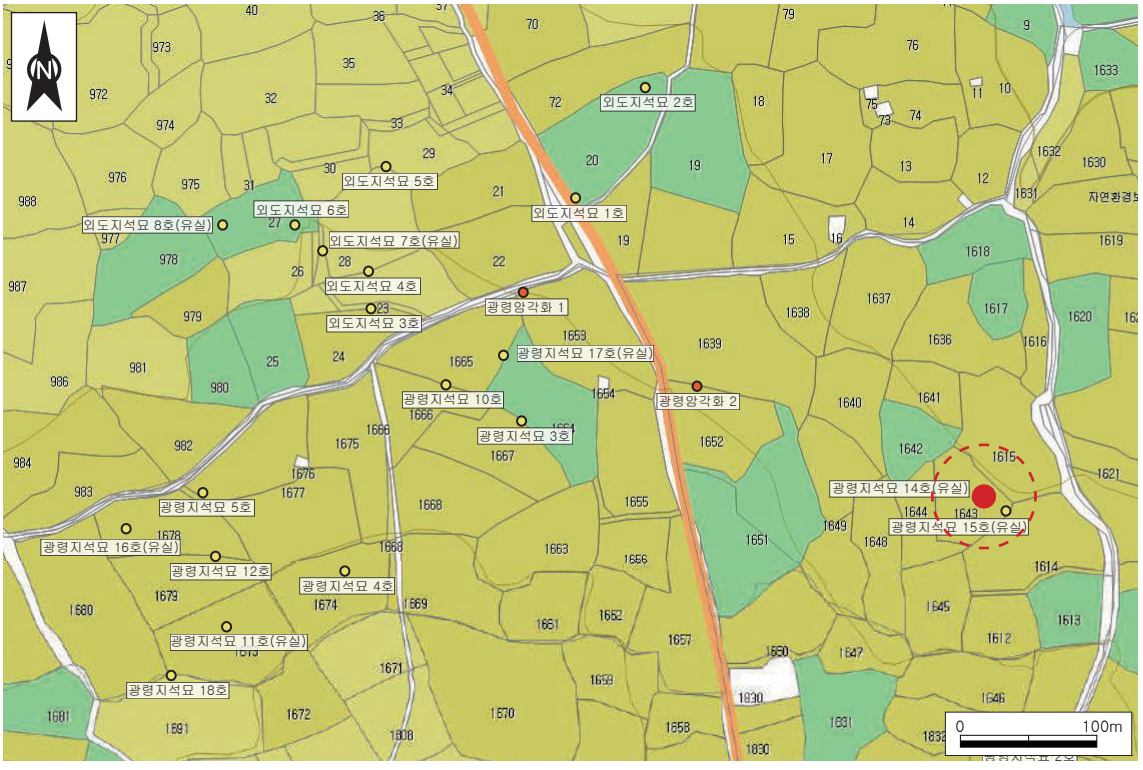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도면 38–② 광령리 지석묘 14호 지적 현황도

39. 광령리 지석묘 15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648번지 밭 남쪽편에 치우쳐 있다. 길이 166㎝, 폭 135㎝, 두께 71㎝의 지석(支石)을 3매의 큼직한 괴석상 지석(塊石狀 支石)이 고였는데, 현재 상석(上石)은 원위치에서 밀려나 있고 지석(支石) 윗면에 크고 뚜렷한 성혈(性穴)이 거의 일렬로 8개가 배치되어 있다.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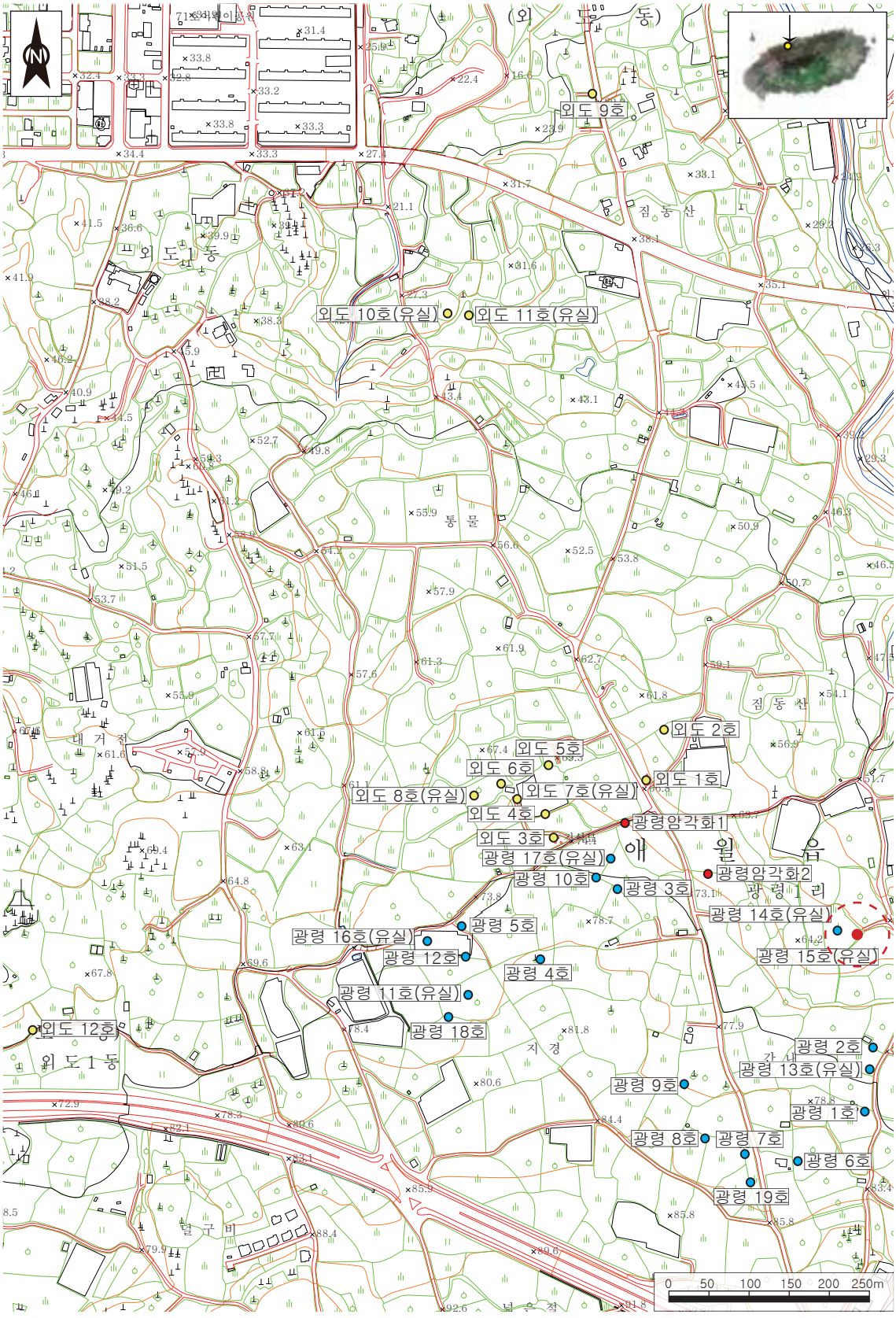
비교적 두툼하나 작은 편에 속하는 상석에 3개의 큼직한 괴석상의 지석이 고인 형태로 현재는 상석이 다소 젖혀지면서 원위치에서 밀려나 지석 하나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길이 166㎝, 폭 135㎝, 두께 71㎝가 상석의 크기이며, 상석 하부에 크고 널찍한 1매의 판석이 노출되고 있다. 매장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뚜껑 역할을 하는 이 판석 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석 윗면에 크고 뚜렷한 성혈이 거의 일렬로 8개가 배치되어 있다.



| 사진 39–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5호 |



| 사진 39–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5호 |



| 도면 39-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2011),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⑤『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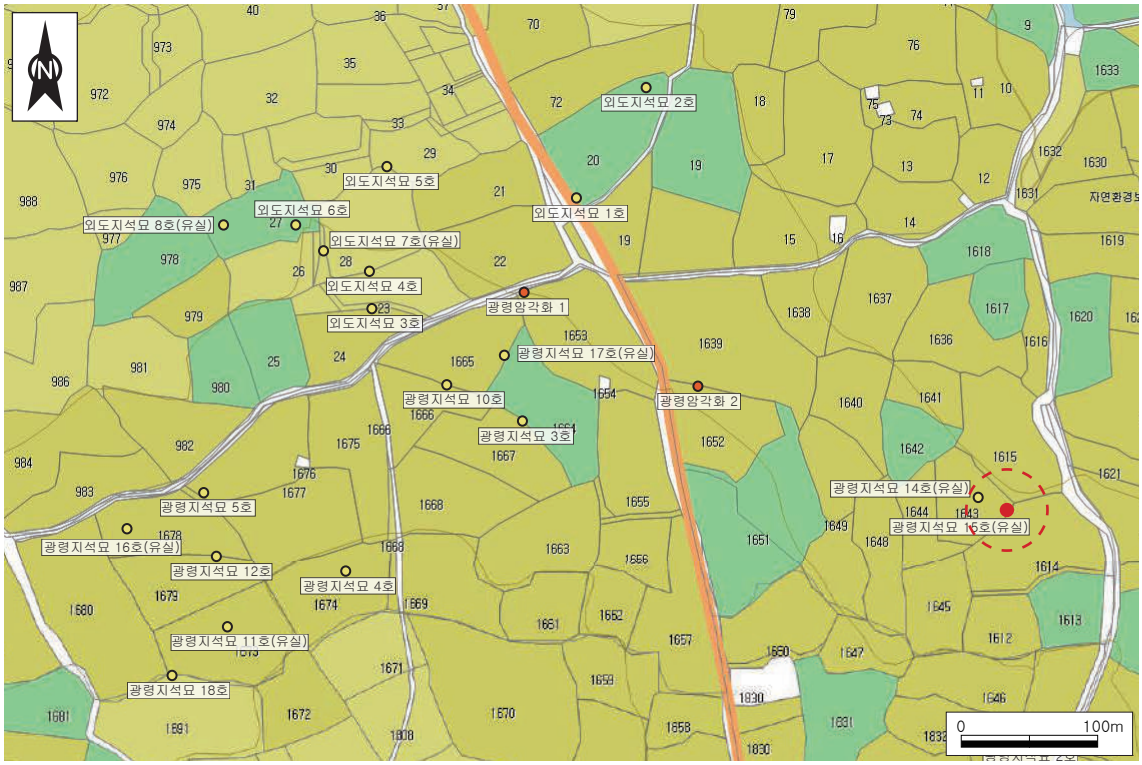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도면 39–② 광령리 지석묘 15호 지적 현황도 |

40. 광령리 지석묘 16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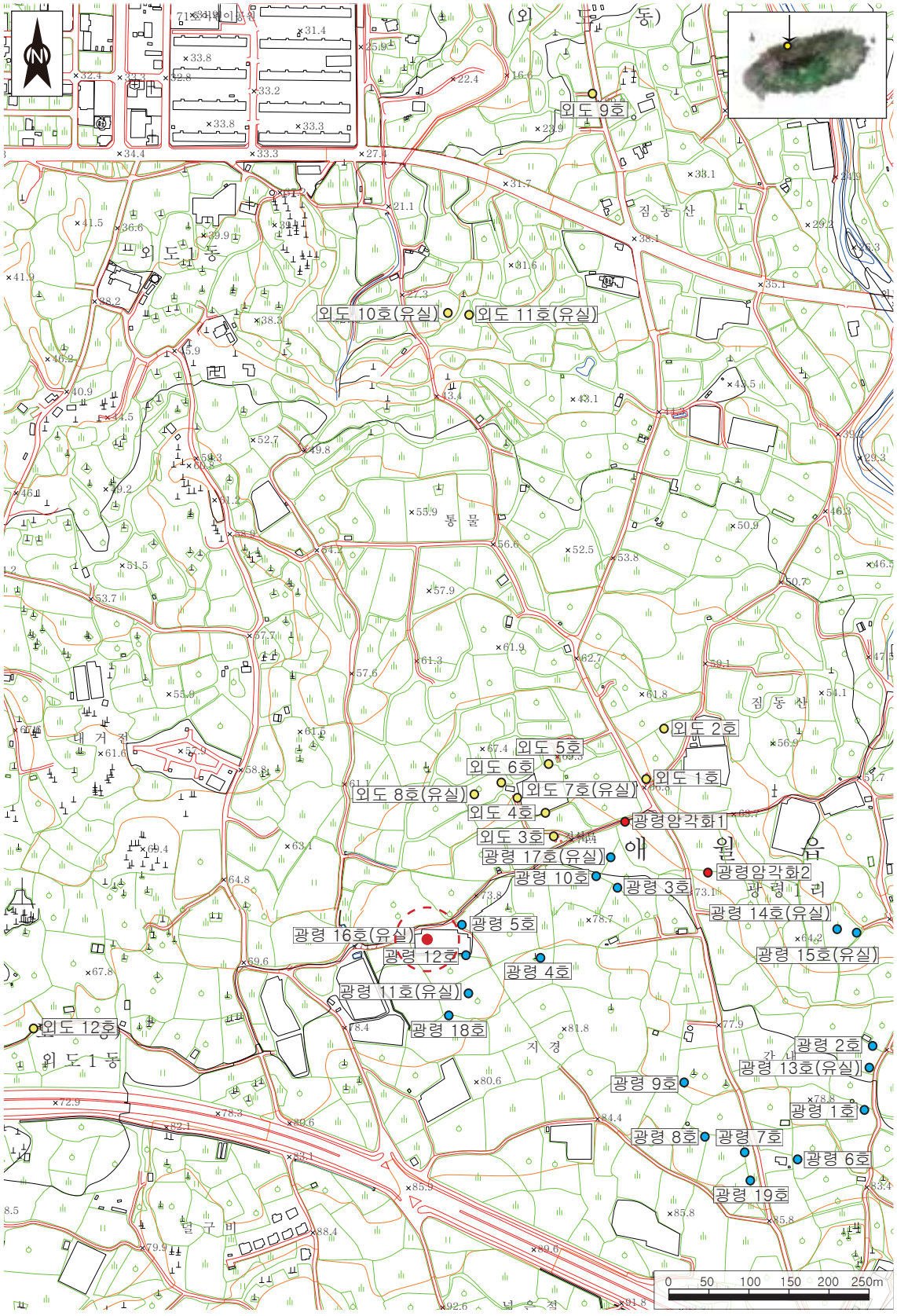
애월읍 광령리 1640번지와 1649번지 높낮이가 다른 두 밭 사이의 경계에 돌무더기와 잡초로 덮여 있었으며, 원래는 윗밭에 있다가 현재의 경사진 경계로 밀려서 자리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석은 없다.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높낮이가 다른 두 밭 사이 경계에 돌무더기와 잡초로 덮혀 있었으며 원래는 윗밭에 있다가 현재의 경사진 경계로 밀려서 자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래의 상석 하부시설은 확인할 수 없고 지석도 보이지 않는다. 상석은 대체로 방형을 이루며 길이 175㎝, 두께 45㎝만 확인되었다.



사진 40–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6호



| 도면 40-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2011),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⑤『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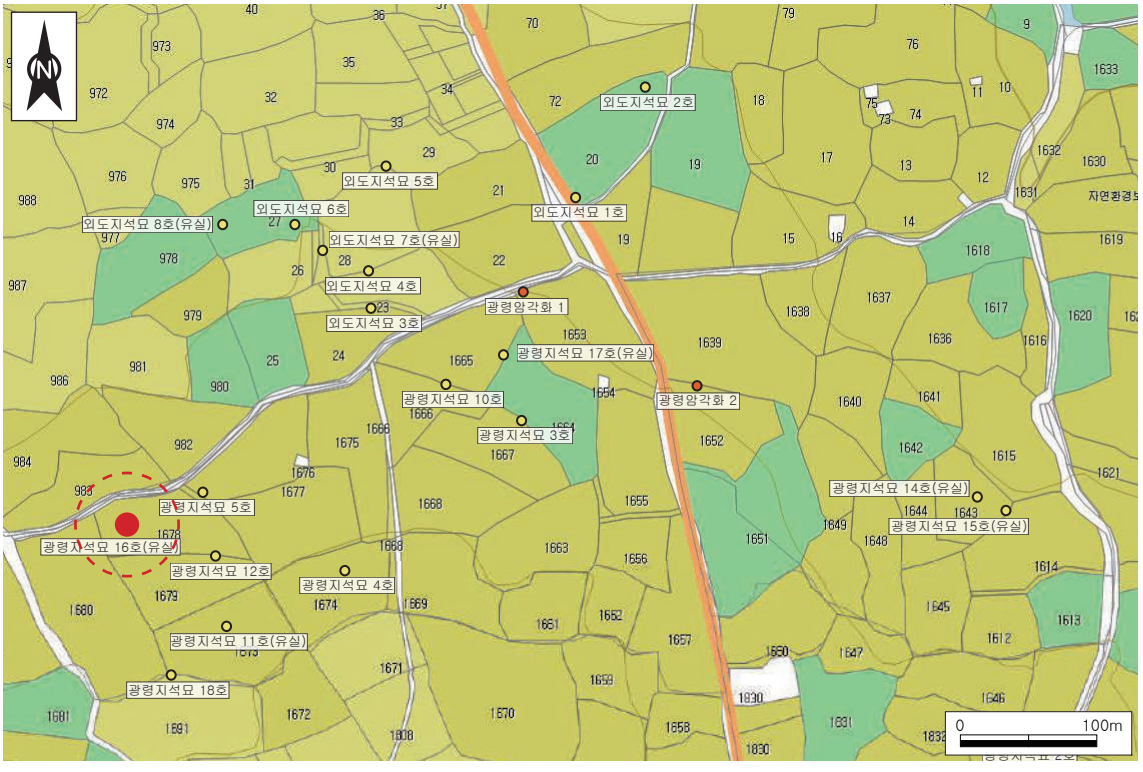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도면 40–② 광령리 지석묘 16 지적 현황도

41. 광령리 지석묘 17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1665번지 경계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광령리 1665번지와 1667번지 밭 경계 돌담에 묻혀 있었으며, 상석(上石)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243㎝, 폭 187㎝, 두께 45㎝ 정도로, 평평한 상석 윗면에는 마멸이 심한 55개의 성혈(性穴)이 확인되었다. 장축은 거의 정남북에 가까우며 외관상 개석식(蓋石式)으로 보이는 고인돌이다.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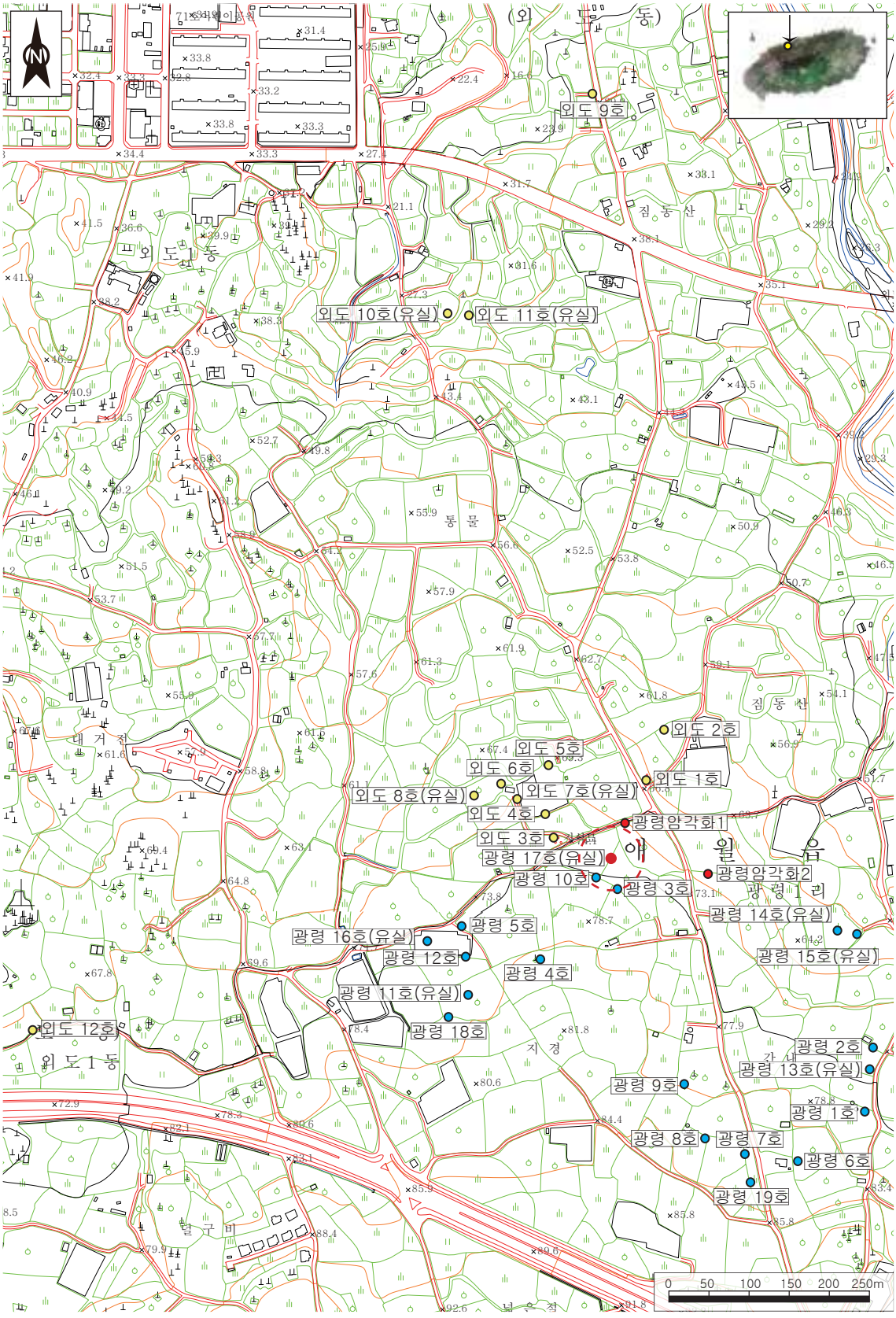
비교적 평평한 곳에 돌담으로 덮혀 있었으며 상석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243㎝, 폭 187㎝, 두께 45㎝정도로 평평한 상석 윗면에는 마멸이 심한 55개의 성혈이 확인되었다. 장축은 정남북에 가까운 N10°E이며 흙에 상당한 부분이 매몰되어 지석의 확인이 곤란하여 외관상 개석식처럼 보이는 고인돌이다.



| 사진 41–① 1986년 광령리 지석묘 17호 |



| 사진 41–② 1998년 광령리 지석묘 17호 |



| 도면 41-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3) 문화유적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⑤『문화유적분포지도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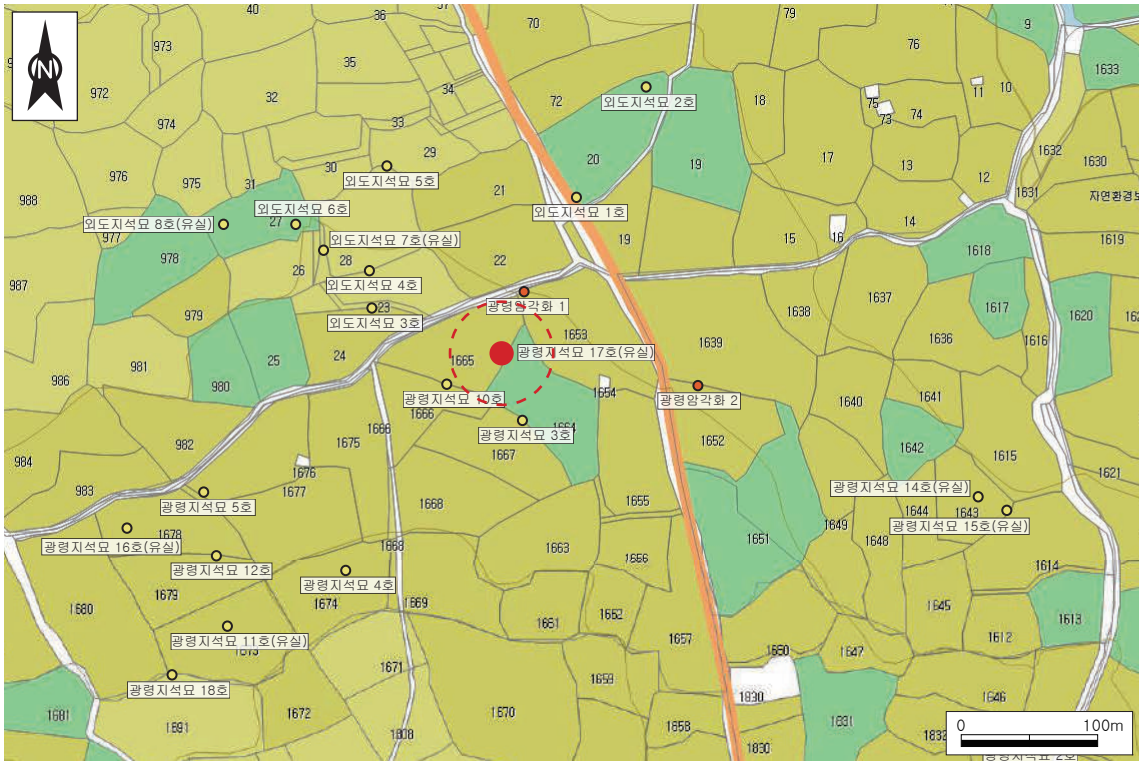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유실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도면 41–② 광령리 지석묘 17호 지적 현황도 |

42. 광령리 지석묘 18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5-1번지
3) GPS 좌표 : N 33°28′18.38″, E 126°26′23.82″
4) 해발고도 : 84m

나. 조사 내용

(1) 2015년 조사

지석묘는 광령리 4호 지석묘 서남쪽으로 140m 떨어진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1691번지 밭 경계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3km 이격되어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 730m 지점에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13cm, 단축 131cm, 두께 30~45cm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하부는 매몰되었으며 상석 주변에서 석부 1점을 수습하였다.



사진 42-①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8호(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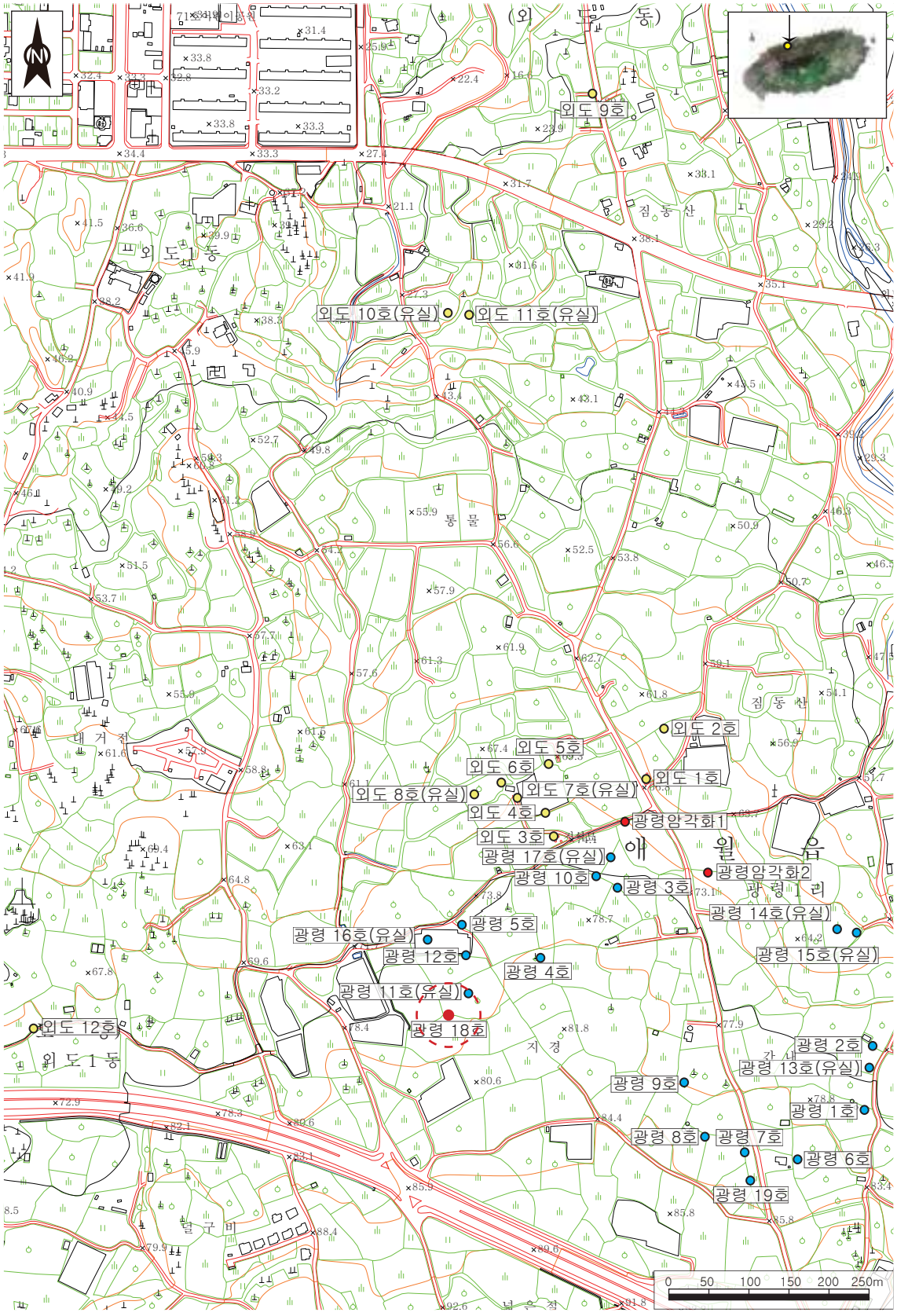
사진 42-②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8호(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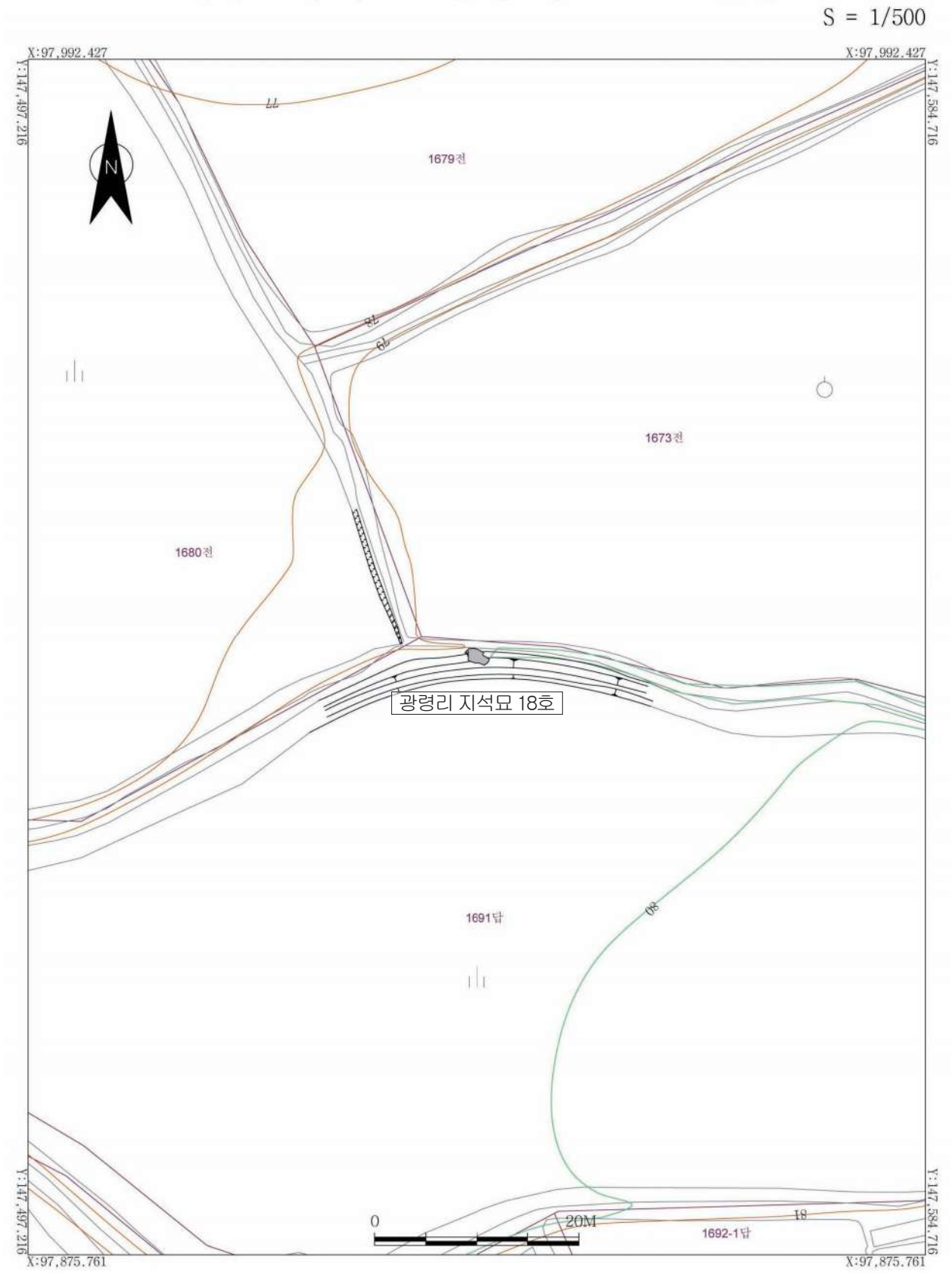
사진 42-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8호(북에서)



사진 42-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8호 수습유물



| 도면 42-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42-② 광령리 지석묘 18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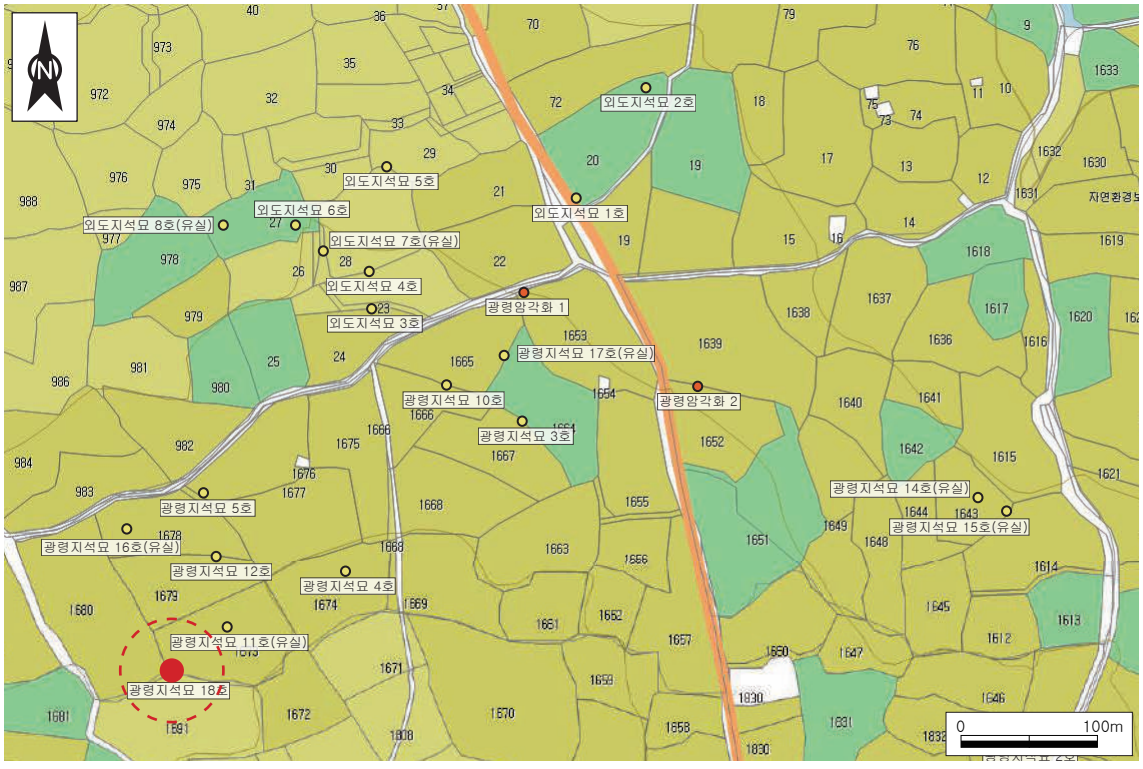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석묘이다. 밭 경계에 이동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와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 · 복원 또는 현상 보존을 결정한다. 현상 보존을 할 경우 관람로 등 주변 정비를 실시하고 이정표, 안내판, 보호책 등을 설치한다.



| 도면 42-③ 광령리 지석묘 18호 지적 현황도 |

43. 광령리 지석묘 19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1691번지 경계
3) GPS 좌표 : N 33°28′25.38″, E 126°26′08.17″
4) 해발고도 : 78m

나. 조사 내용

(1) 2015년 조사

지석묘는 광령리 7호 지석묘 남쪽으로 50m 떨어진 애월읍 광령리 1825-1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6km 이격되어 있으며 광령천의 서쪽 420m 지점에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132cm, 단축 124cm, 두께 45cm이며 밭의 경계에 세워져 있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단면은 타원형이다. 상석 가장 윗부분에서 7cm 가량의 성혈이 1개 확인된다.



사진 43-①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9호(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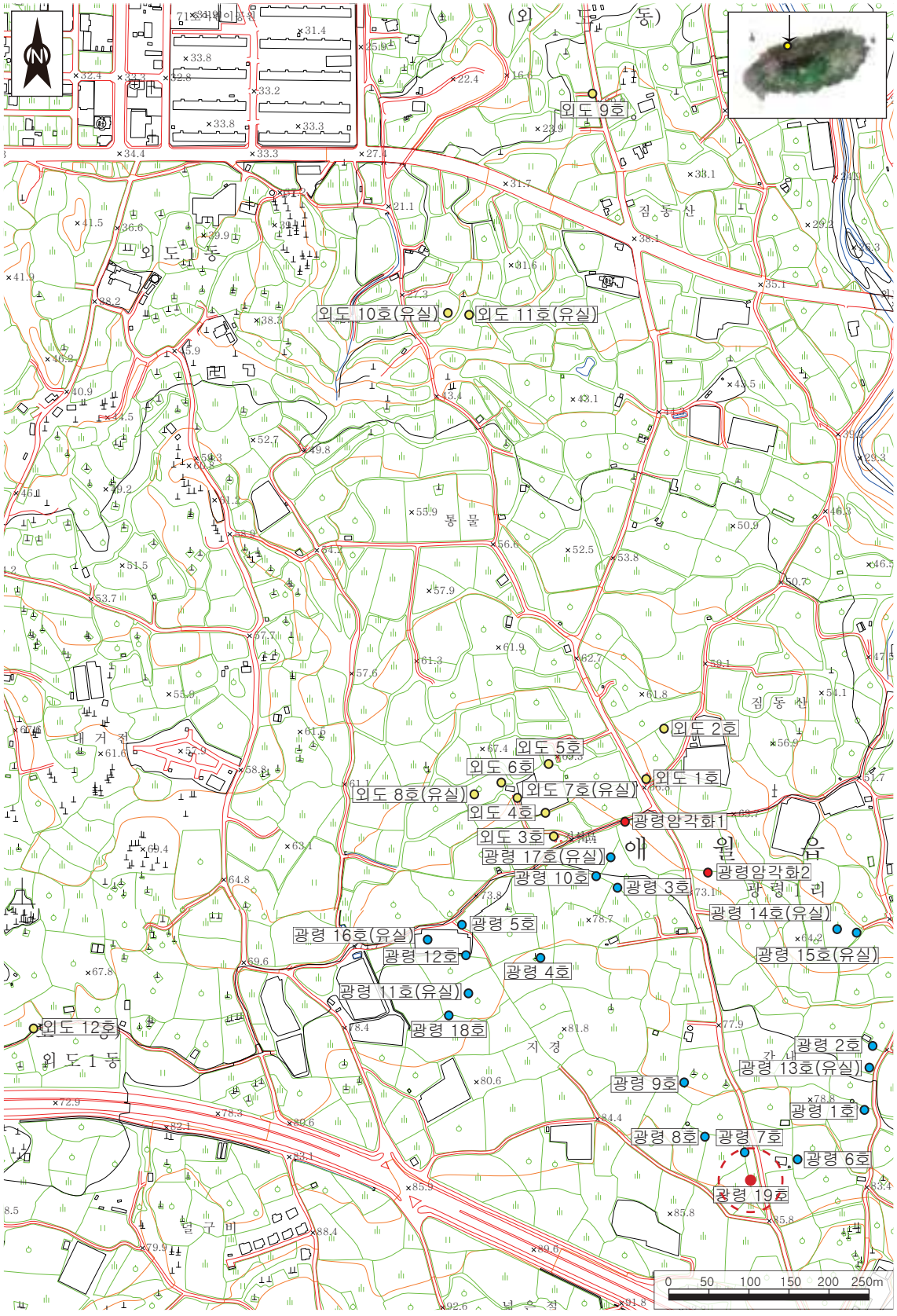
사진 43-②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9호(동에서)



사진 43-③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9호(서에서)



사진 43-④ 2015년 광령리 지석묘 19호 성혈



| 도면 43-①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군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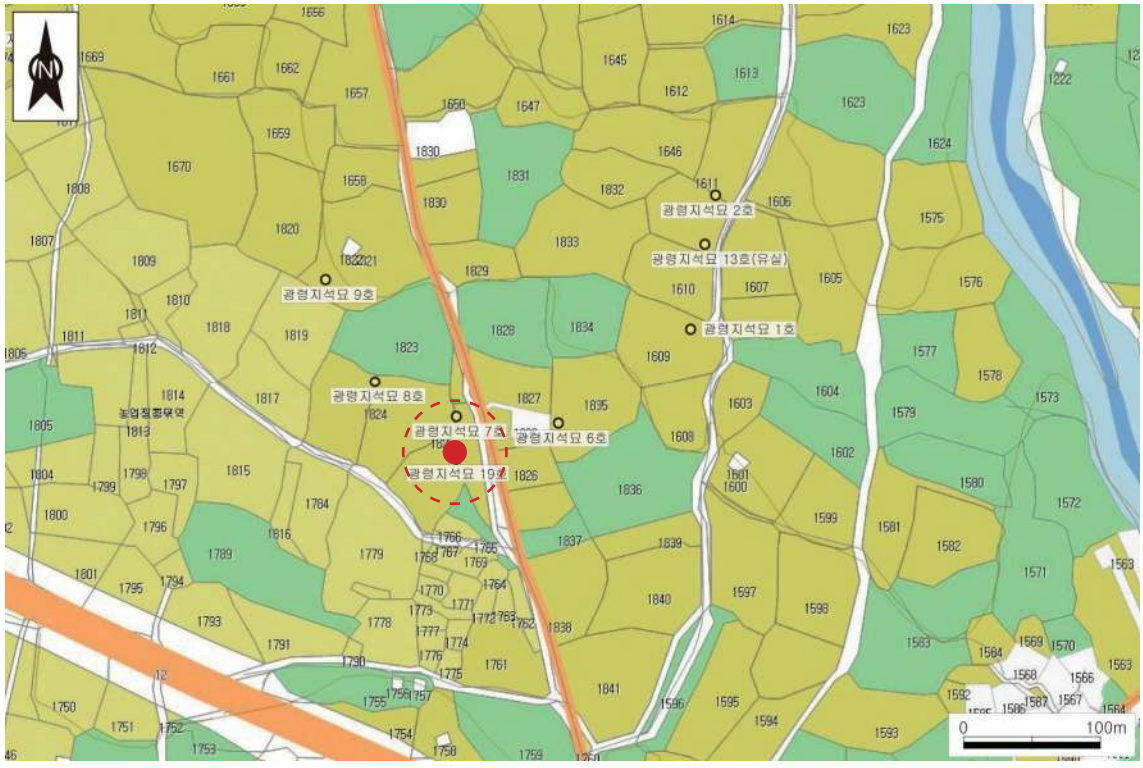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석묘이다. 밭 경계에 이동되어 세워져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와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상석은 이전 · 복원한다.



도면 43-② 광령리 지석묘 19호 지적 현황도

44. 삼양동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10(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329번지(동백공원)
3) GPS 좌표 : N 33°31′02.01″, E 126°35′11.84″
4) 해발고도 : 27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삼양동 529번지 밭에 위치하며 상석은 길이 219㎝, 폭 157㎝, 두께 35~50㎝이며 장축은 남북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동쪽에 할석상 지석과 남쪽 및 북쪽에 작은 돌로 고여 있다.



| 사진 44-① 1986년 삼양동 지석묘 |



| 사진 44-② 1998년 삼양동 지석묘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규모는 길이 219㎝, 폭 157㎝, 두께 35~50㎝이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상석의 동쪽 중앙에 길이 63㎝, 폭 52㎝, 두께 28㎝의 할석상 지석이 기울어진 상태로 고여 있다. 상석의 북쪽과 남쪽에 길이 40㎝정도의 괴석 1매가 고여 있다. 서쪽은 지석 없이 바로 지면에 닿아 있다. 고인돌 축조시 상석이 기운 방향은 역시 동편일 가능성이 짙으며 삼양동 고인돌 2호와의 거리는 서편으로 50㎝ 정도 떨어져 있다. 삼양동, 도련동에 있는 4기의 고인돌이 각기 양식의 상이성을 보이는 것은 시기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2015년 조사

현재 삼양 홍익영아원 북쪽에 있는 동백공원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820m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화지구 조성시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21cm, 단축 170cm, 두께 40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은 치석하지 않고 채

석 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석의 서쪽은 지면에 닿아 있고 북쪽과 동쪽에서 지석 각 1개씩 확인된다. 동쪽 지석은 높이 54cm, 너비 50cm, 북쪽 지석은 높이 41cm, 너비 26cm이다. 상석이 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며 괴석형 지석 2개가 있어 기반식 지석묘일 가능성이 높다.



| 사진 44-③ 2005년 삼양동 지석묘(남동에서) |



| 사진 44-④ 2015년 삼양동 지석묘(동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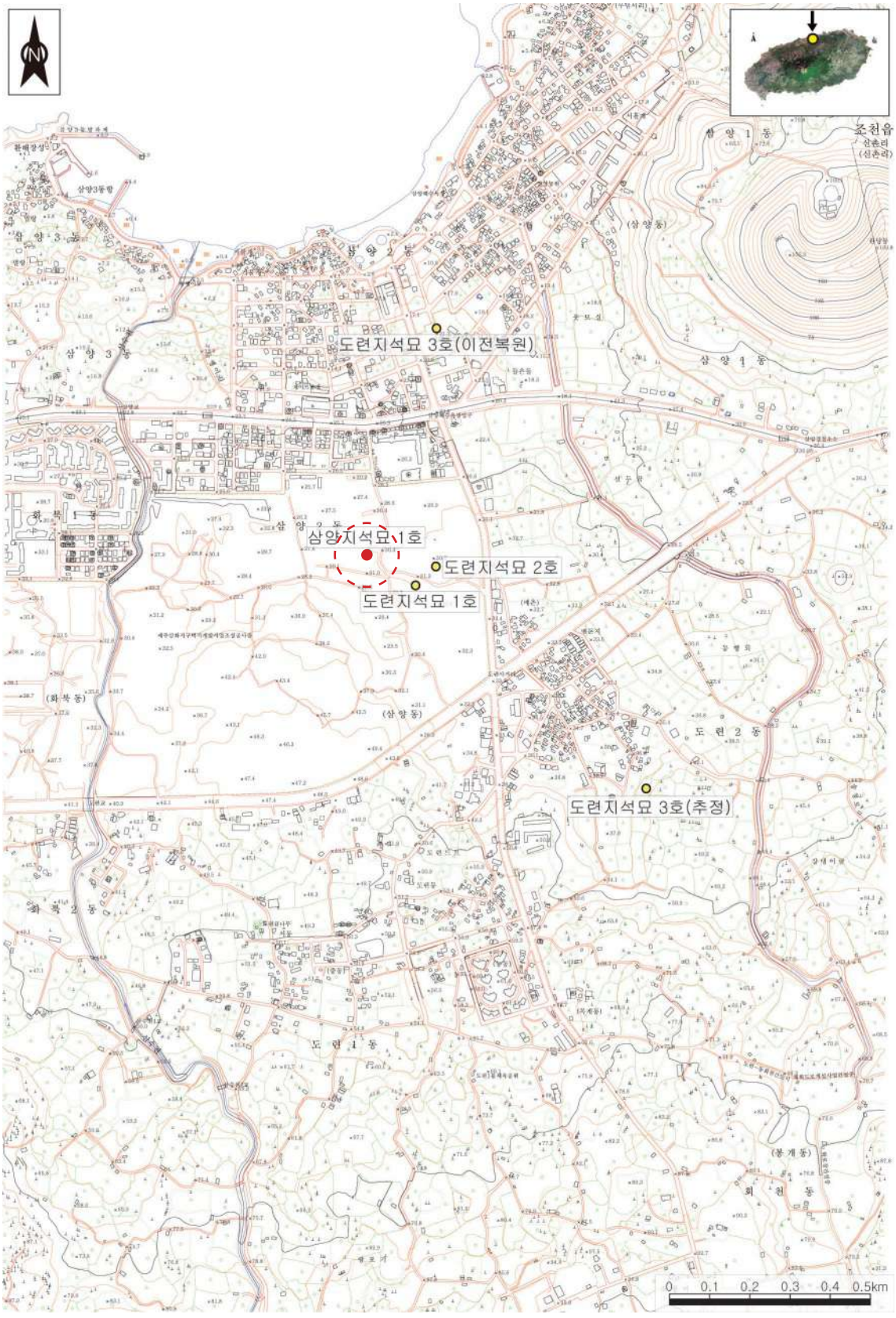
| 사진 44-⑤ 2015년 삼양동 지석묘(북에서) |



| 사진 44-⑥ 1986년 삼양동 지석묘(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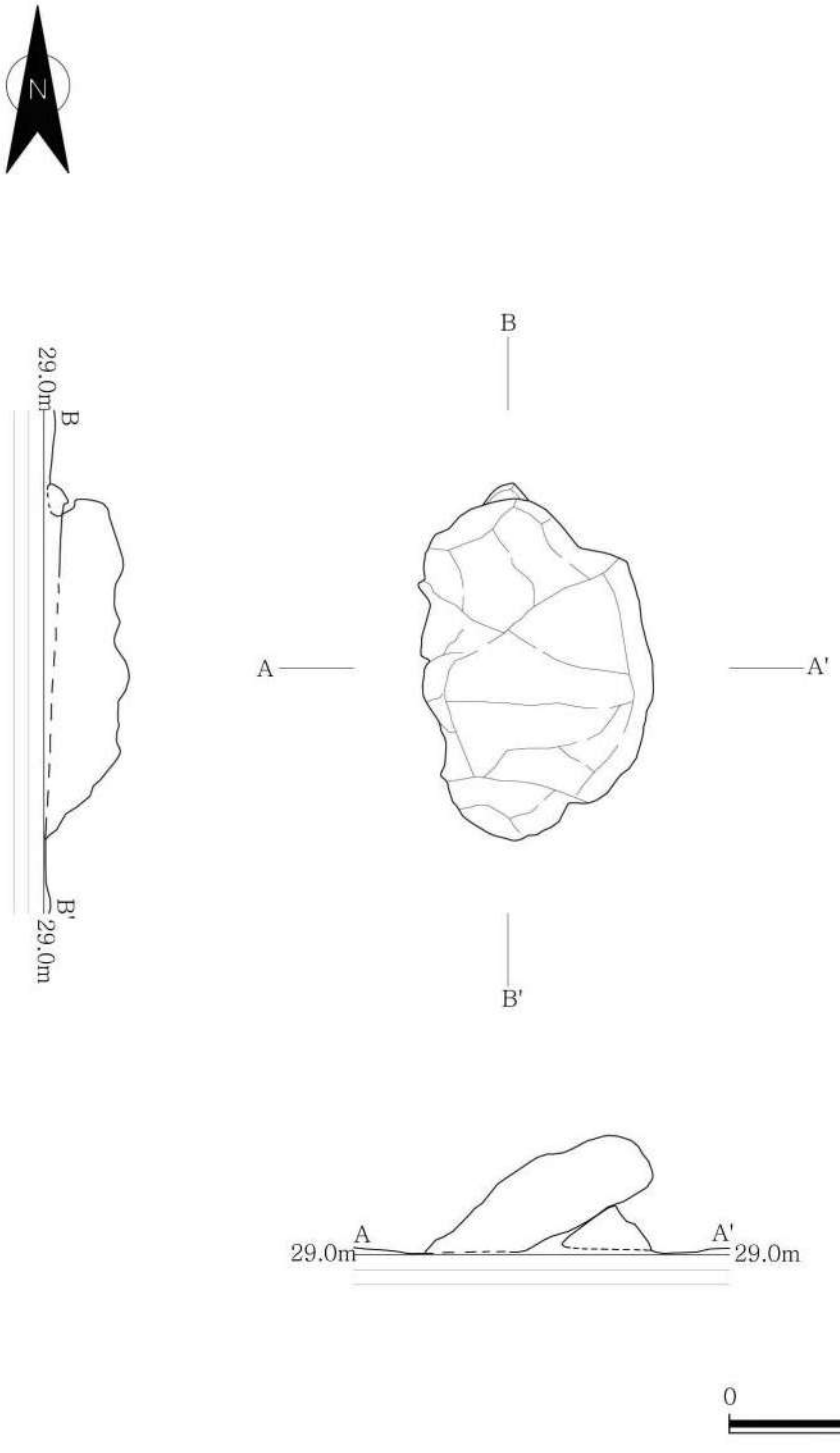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문화유적 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44-① 삼양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삼양동 지석묘



| 도면 44-② 삼양동 지석묘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제주고고학연구소 299



| 도면 44-③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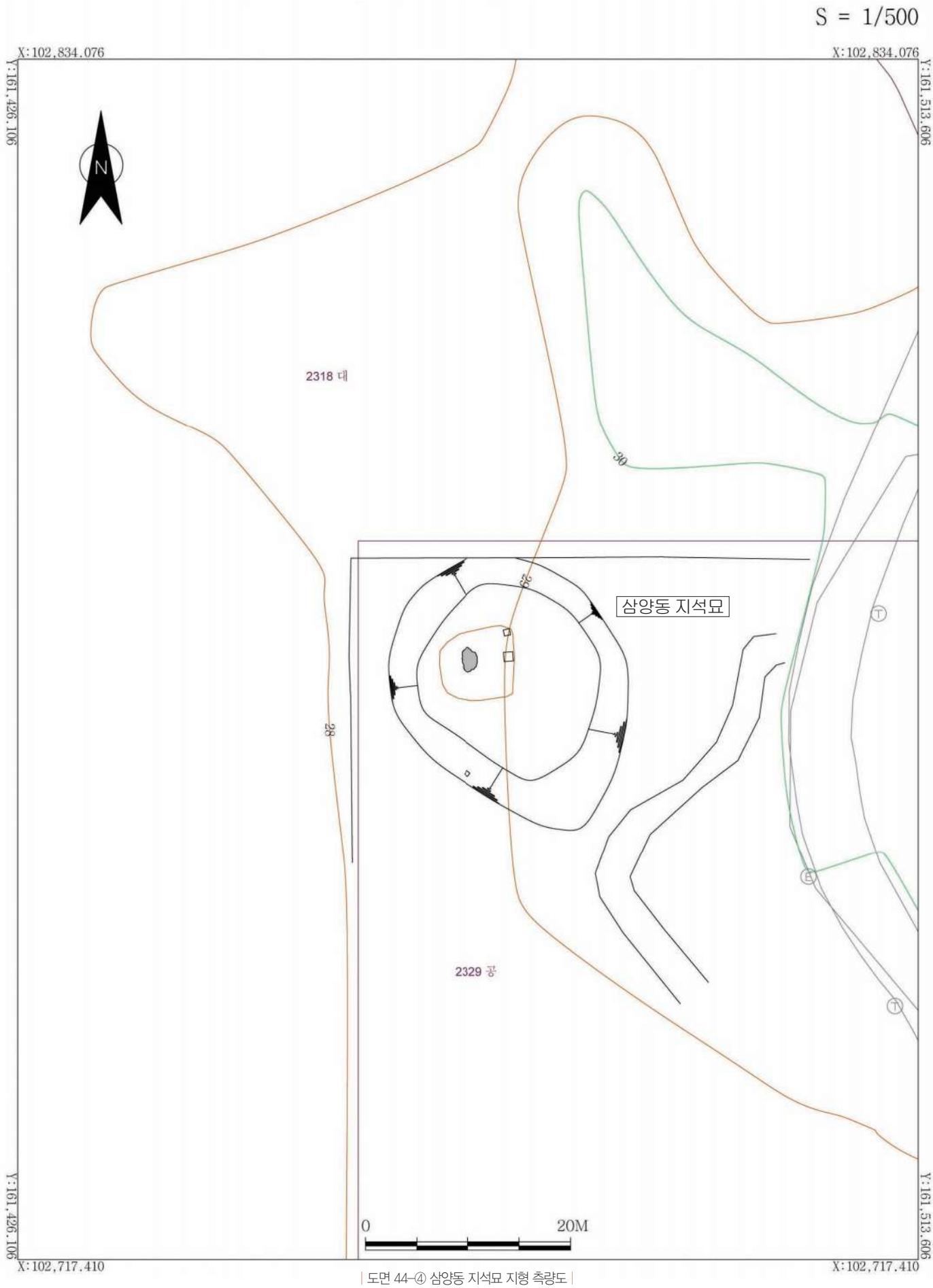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 제2-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삼양2동 2329번지(동백공원)에 있다. 공원 부지 내에 있어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공원 부지 내 자리하고 있어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석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한다.



| 도면 44-④ 삼양동 지석묘 지형 측량도 |

45. 도련동 지석묘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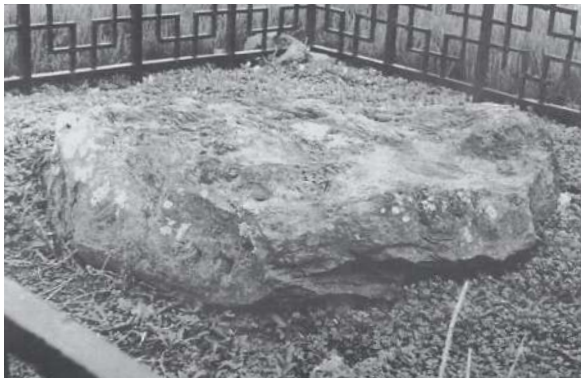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8(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332-2번지(매화공원)
3) GPS 좌표 : N 33°31′04.65″, E 126°35′06.92″
4) 해발고도: 29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삼양동 2552번지 밭에 있으며, 앞서의 방송국 송신소 서쪽 20m지점에 있다. 상석은 길이 232㎝, 폭 205㎝, 두께 15~52㎝이며 장축방향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고, 지석이 없는 개석식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다.



| 사진 45-① 1986년 도련동 지석묘 1호 |



| 사진 45-② 1998년 도련동 지석묘 1호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고인돌이 자리한 곳은 평평한 밭 중간에 있다. 1호 고인돌과 3호 고인돌의 중간에 위치하며 3호 고인돌에서 서쪽으로 40㎝지점에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22㎝, 폭 205㎝, 두께 15~52㎝이다. 장축 방향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상석의 북동, 남서쪽은 으깬 흔적이 남아 있으며 상석의 북편에 정질하다만 흔적이 있다. 상석 상면은 굴곡이 심하고 성혈은 없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석은 없다. 개석식 고인돌로 판단된다. 시신의 매장은 당연히 하부이다. 이러한 고인돌은 광령리 16호 고인돌과 외도동 1호 고인돌이 있다.

(3) 2015년 조사

삼양동 지석묘가 위치한 공원 동쪽에 있는 매화공원 내에 도련동 지석묘 2호와 함께 자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920m이다. 상석의 북동쪽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며 상석의 규모는 장축 208cm, 단축 201cm, 두께 22~48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상석 측면에서는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치석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치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석과 성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진 45-③ 2005년 도련동 지석묘 1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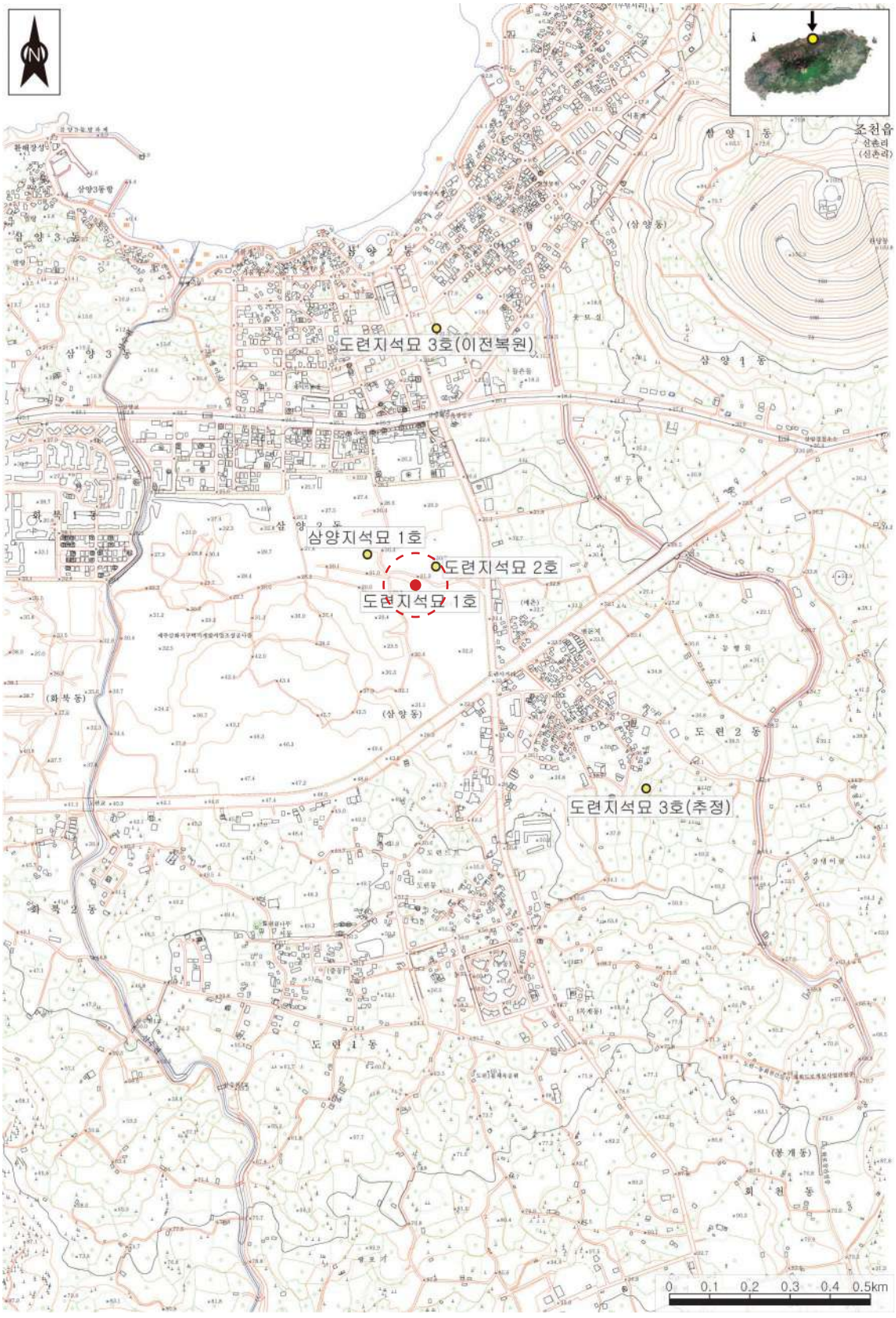
| 사진 45-④ 2015년 도련동 지석묘 1호(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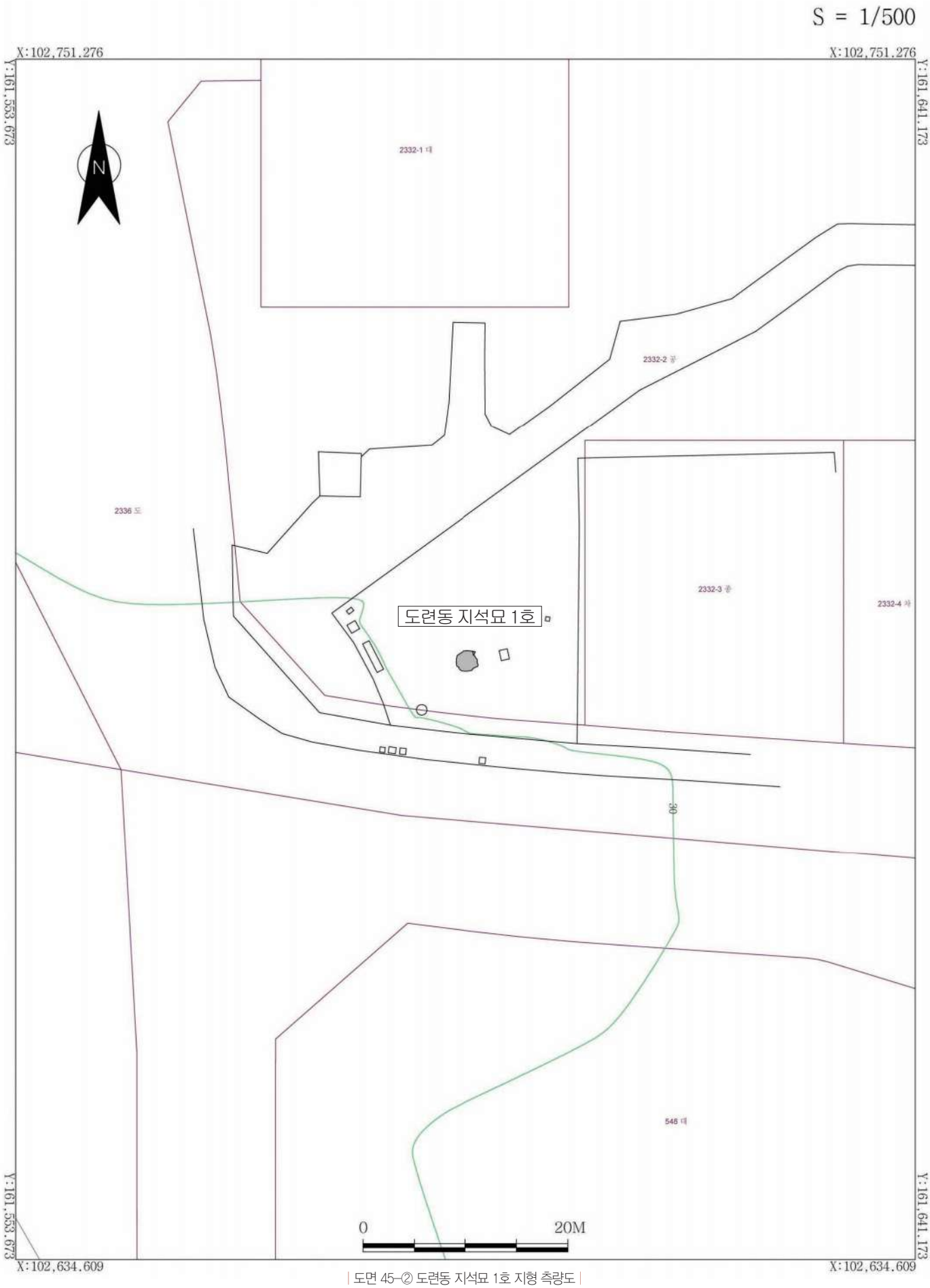
| 사진 45-⑤ 2015년 도련동 지석묘 1호(남에서) |



| 사진 45-⑥ 2015년 도련동 지석묘 1호(위에서) |



도면 45-① 삼양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45-② 도련동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삼양2동 2332–2번지(매화공원)에 있다. 공원 부지 내에 있어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공원 부지 내 자리하고 있어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석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한다.



| 도면 45–③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46. 도련동 지석묘 2호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9(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332-2번지(매화공원)
3) GPS 좌표 : N 33°31′03.76″, E 126°35′14.00″
4) 해발고도: 29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삼양동 2252-1번지 밭에 있으며, 제주문화방송국 삼양송신소 북쪽 30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상석은 길이 245㎝, 폭 245㎝, 두께 40㎝로 장축방향은 북서쪽을 가리킨다. 지석은 북서, 북동, 남동에 각각 3매 고여 있다.



사진 46-①. 1986년 도련동 지석묘 2호



사진 46-②. 1998년 도련동 지석묘 2호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제주 문화 방송국 삼양 송신소 북쪽 30m 지점에 있다. 상석이 놓인 면은 평평하다.상석의 크기는 길이 245㎝, 폭 175㎝, 두께는 35~40㎝이다. 장축방향은 북서향이고 2호 고인돌의 방향과 동일하다. 이 고인돌은 축조시 상석 자체의 두께가 고른 것을 일부러 택했다. 상석 동서편에 인위적으로 수직으로 다듬었다. 상석의 북동쪽은 개방되어 있다. 아아치형으로 개방된 부분의 높이는 22㎝이다. 지석은 상석의 북서, 남동, 북동에 각각 3매가 고여 있다. 지석의 크기는 직경 15㎝미만이다. 상석상면의 성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고인돌은 과거 북구주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특징인 거북등 모양의 것으로 파악한 고인돌이다. 이러한 고인돌은 외도동 3호, 6호 고인돌이 있다.

(3) 2015년 조사

삼양동 지석묘가 위치한 공원 동쪽에 있는 매화공원 내에 도련동 지석묘 1호와 함께 자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2-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870m이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48cm, 단축 174cm, 두께 36cm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단면은 아치형으로 동쪽이 서쪽에 비해 두텁다. 치석흔은 측면에서 일부 확인되며 상석 아랫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북동쪽 면이 40cm 내외로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지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진 46-③.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남에서) |



| 사진 46-④.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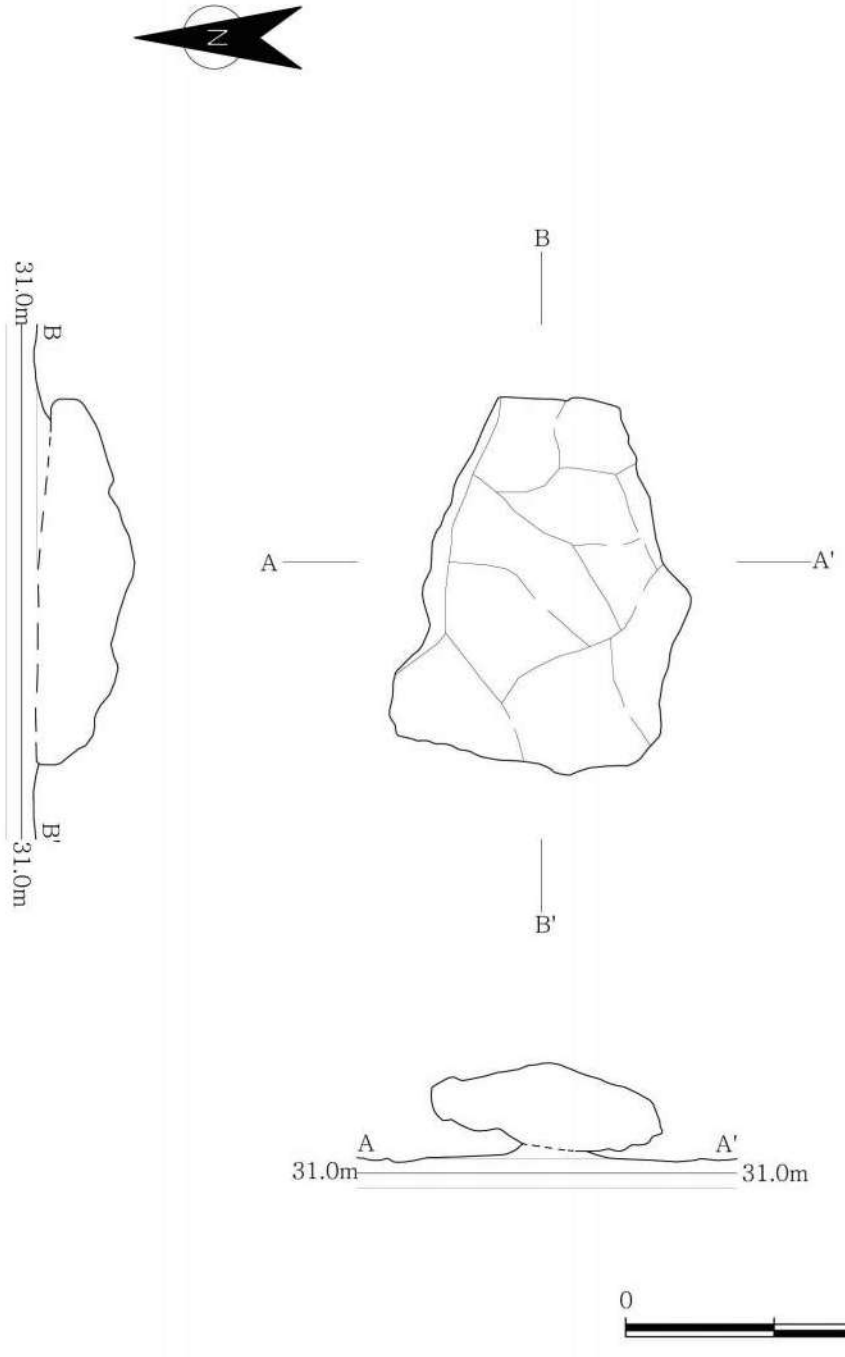


| 사진 46-⑤.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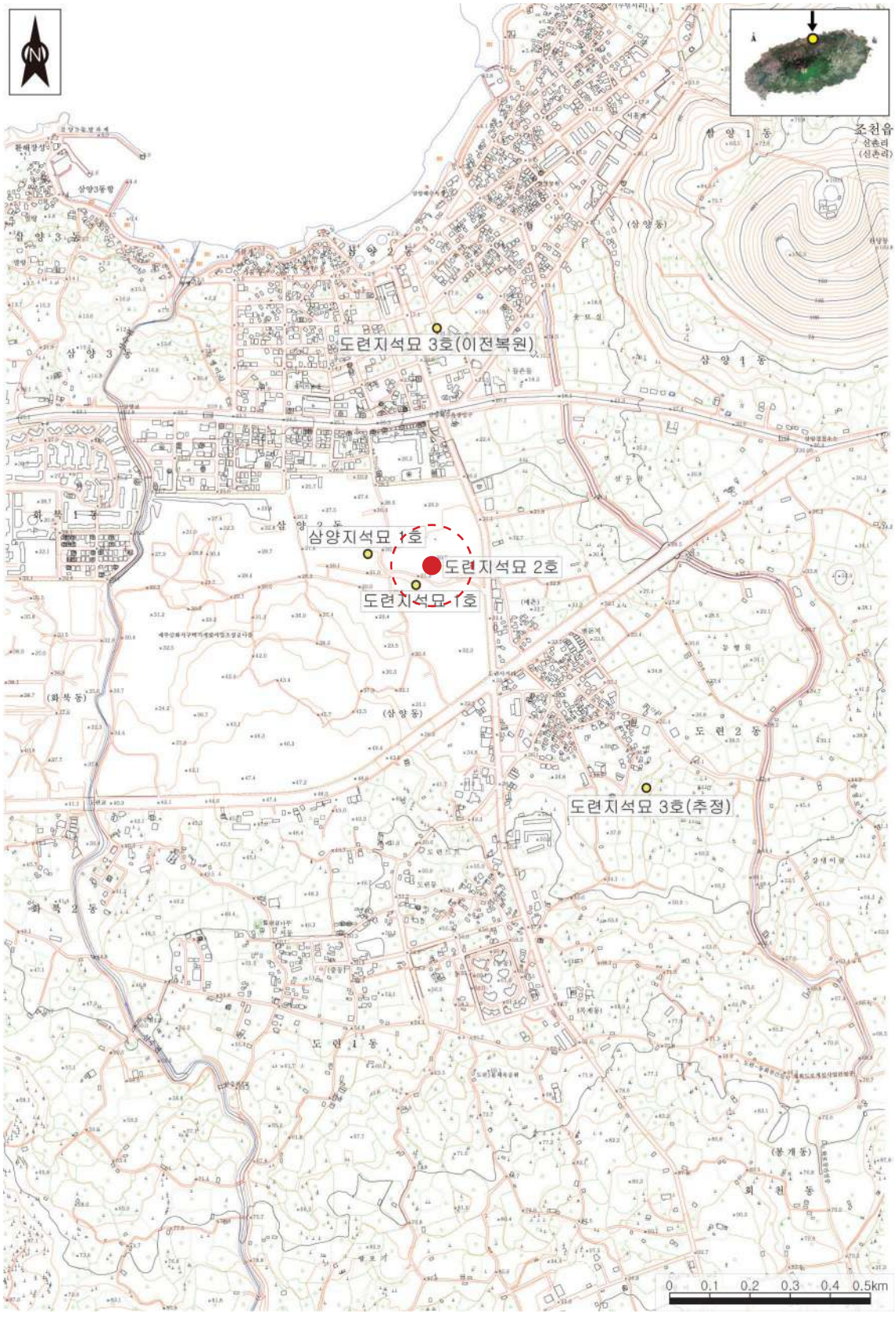


| 사진 46-⑥. 2015년 도련동 지석묘 2호(하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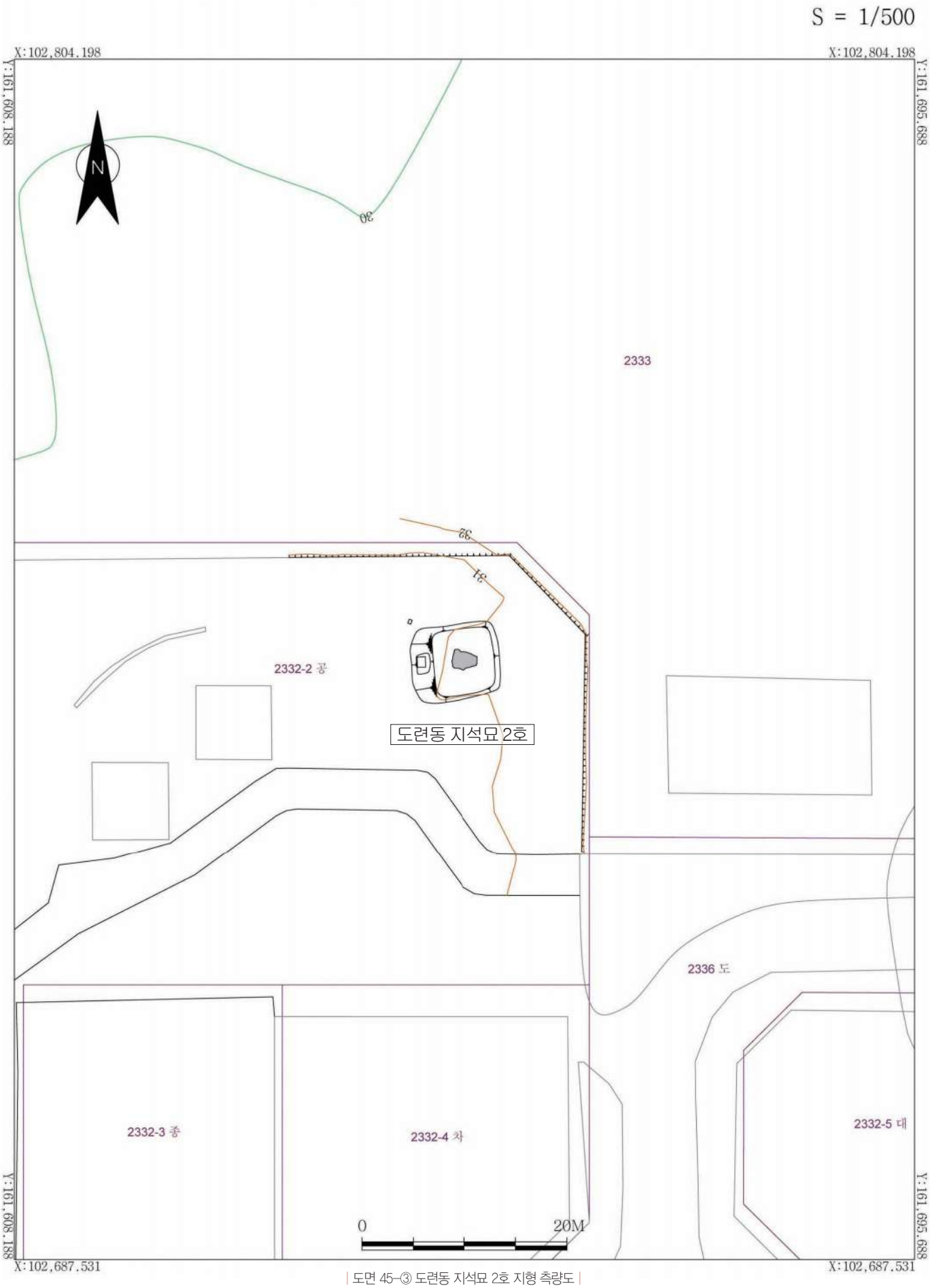
도련동 2호 지석묘



| 도면 46-① 도련동 지석묘 2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 도면 45-② 삼양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45-③ 도련동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문화유적 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삼양2동 2332-2번지(매화공원)에 있다. 공원 부지 내에 있어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진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공원 부지 내 자리하고 있어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석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한다.



| 도면 45-④ 삼양동 · 도련동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47. 도련동 지석묘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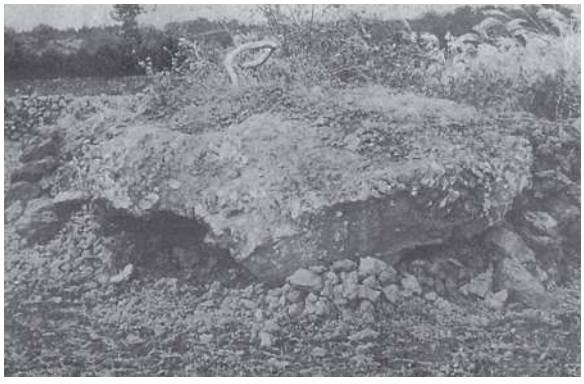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2동 689번지(전)
3) GPS 좌표 : N 33°31′0.7″, E 126°35′23″
4) 해발고도: 41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제주시 도련동 689번지 밭담에 쓰러져 있는데 상석은 길이 323㎝, 폭 296㎝, 두께 40~80㎝로 북서쪽으로 장축이 놓여 있다. 상석 북동쪽에서 1매의 판석상 지석이 확인되었다.



| 사진 47-① 1985년 도련동 지석묘 3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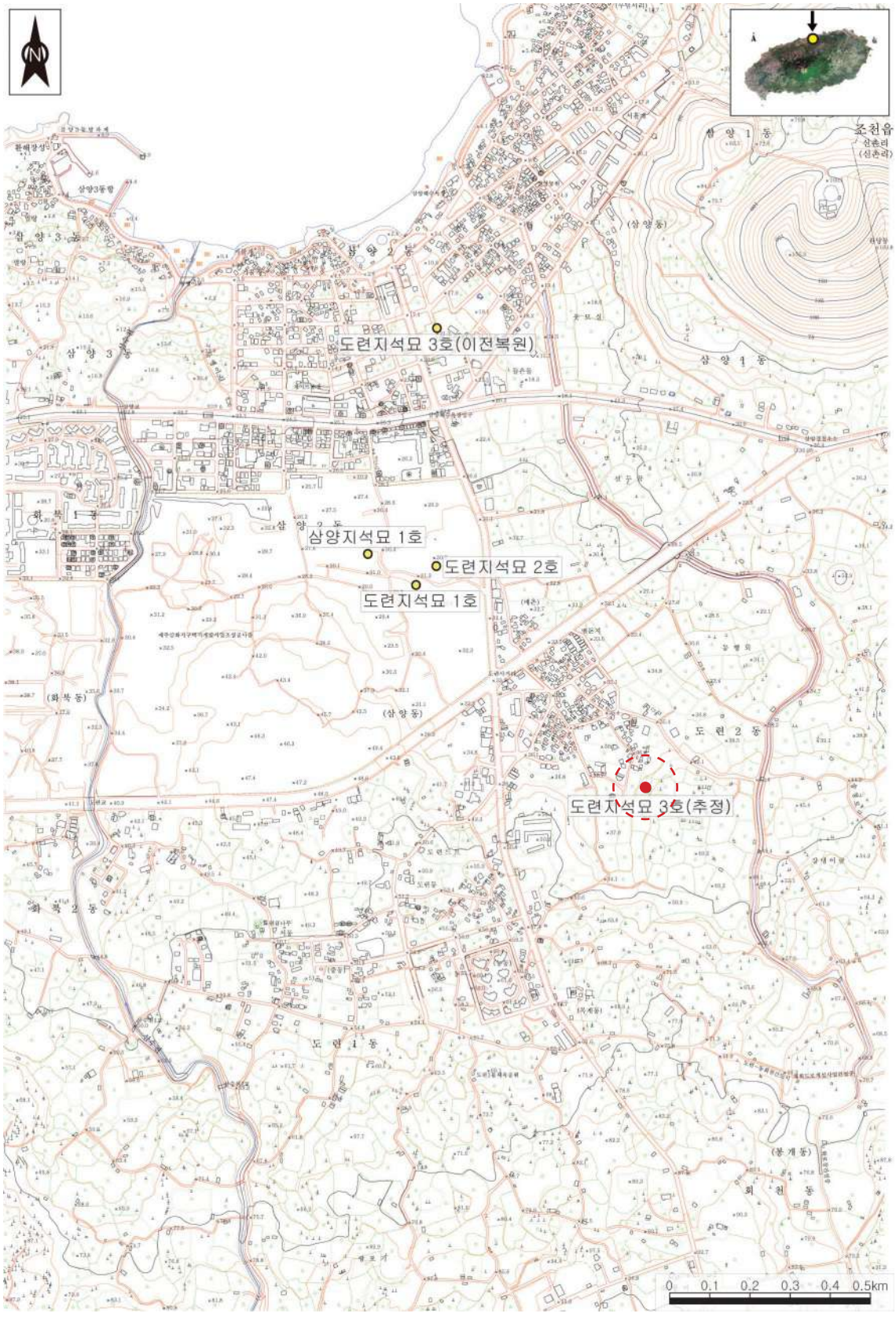
| 사진 47-② 1992년 도련동 지석묘 3호 이전 후 하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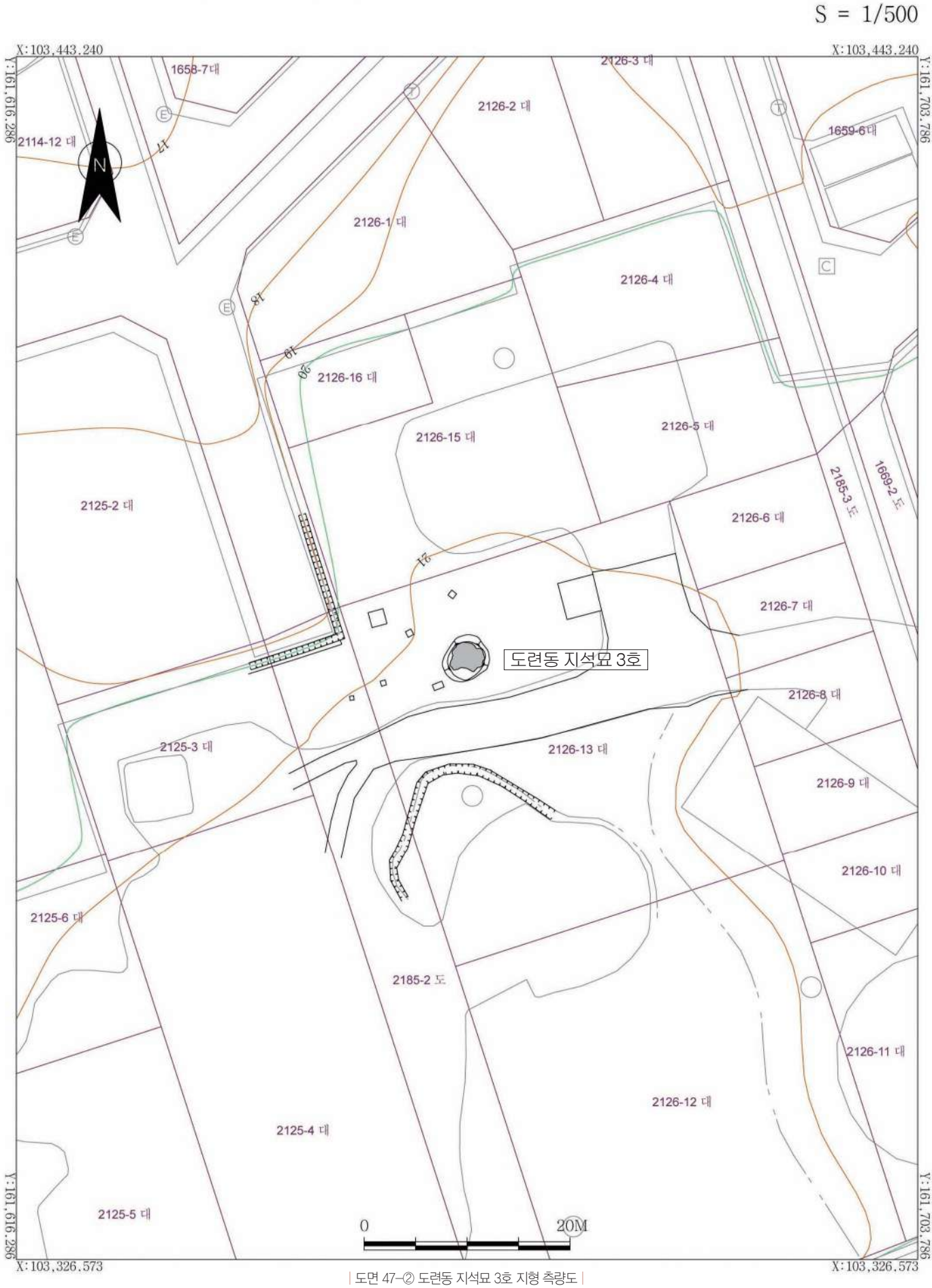
| 사진 47-③ 2015년 도련동 지석묘 3호 추정지 |



| 사진 47-④ 2015년 도련동 지석묘 3호(삼양동 선사유적지 내) |



| 도면 47–① 삼양 · 도련동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47-② 도련동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2)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의 상석은 1992년 5월에 이전되었다. 마을 공동 야외공원을 만들면서 원래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70m지점에 이전된 상태이다. 1986년도 조사 당시, 지대가 다소 높은 밭 잣벽에 있었다. 상석은 북서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고, 장축방향은 북서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323㎝, 폭 296㎝, 두께 40~80㎝이다. 지석은 상석의 북동쪽에 1매의 판석형 지석이 확인되었다. 이전된 고인돌의 하부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상석밑에 자갈돌을 적석하였고 자갈돌의 범위는 동서 300㎝, 남북 250㎝이다. 상석의 북동쪽에 길이 43㎝, 두께 10㎝의 지석과 동쪽에 길이 80㎝, 폭 52㎝, 두께 15㎝의 판석상 지석이 눕혀진 상태이다. 북동쪽에 세워진 지석으로 인해 북서쪽으로 상석이 기울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2015년 조사

현재 삼양동 선사유적 공원 내에 복원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15cm, 단축 250cm, 두께 70cm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에 가까우며 단면은 아치형이다. 상석의 측면 일부만 치석하였고 아랫면을 자연 그대로인 상태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도련동 2호와 같은 한변이 개방된 개석식 지석묘로 추정된다.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지석은 석실 벽석일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지석묘 원래 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⑥『문화유적 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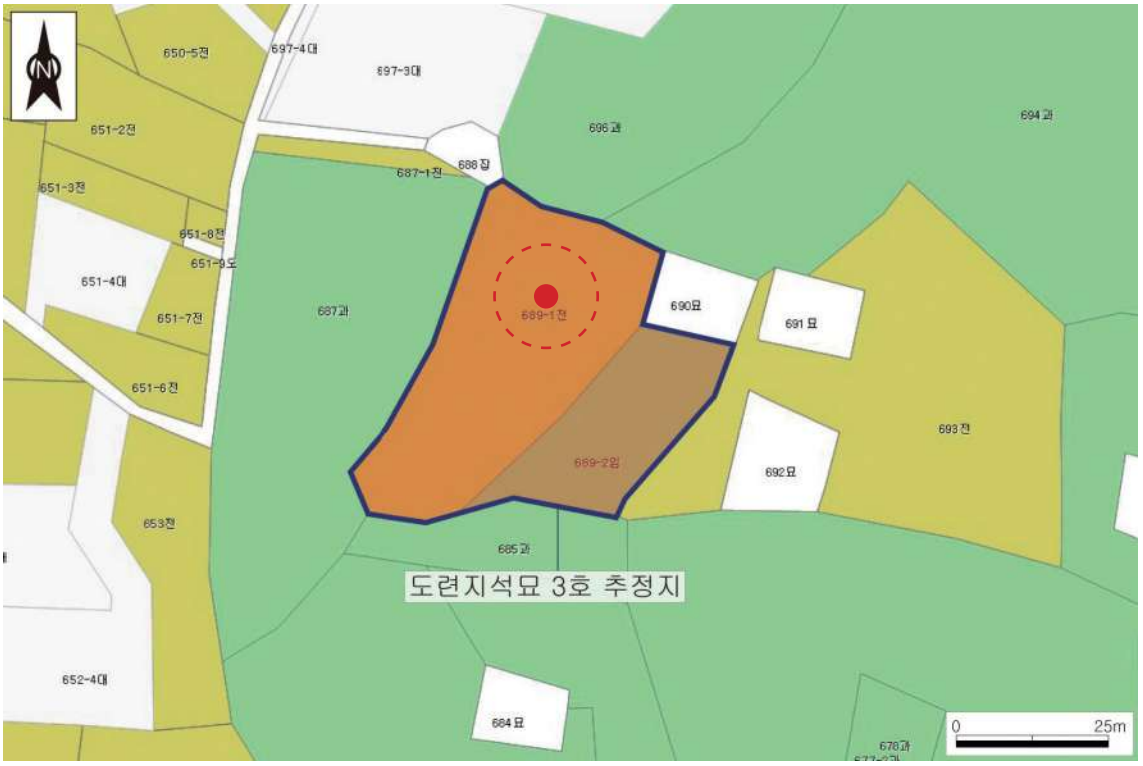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기존 자리에서 이전되어 삼양동 선사유적 공원에 복원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태에 대한 자료의 고증 없이 기반식 지석묘로 복원되었다.

2) 정비 · 활용계획

기존 자리를 이탈하여 선사유적 공원 안에 복원되어 있지만 기존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복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지석묘가 자리했던 제주시 도련동 689번지 내 150㎡ 정도를 발굴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발굴조사비는 대략 30,000,000원 정도이다.



| 도면 45-③ 도련동 지석묘군 3호 지적 현황도 |

48. 하귀리 지석묘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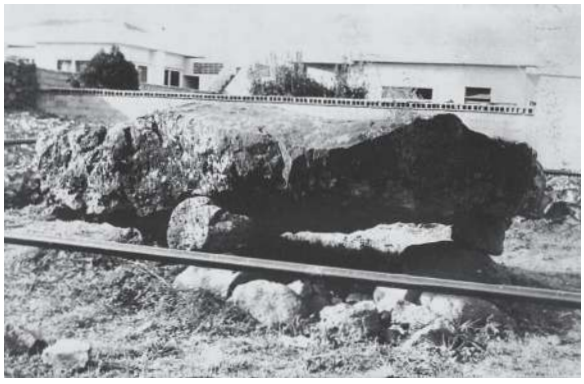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2(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12-29번지
3) GPS 좌표 : N 33°28′51.75″E 126°24′21.76″
4) 해발고도: 20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귀일리 1312-1번지, 하천 연변의 주택사이 경작지에 있으며, 상석(上石)의 크기는 길이 361㎝, 폭 192㎝, 두께 70㎝로 대체로 남북쪽으로 장축방향이 나 있다. 상석의 북쪽과 동쪽에 이중으로 놓인 괴석상의 지석이 고여 있고, 다소 지대가 높은 남쪽으로는 작은 돌이 고여 있다. 이중으로 겹쳐진 지석은 서귀포시 색달동 고인돌에서도 볼 수가 있다.



| 사진 48-① 1986년 하귀리 지석묘 1호 |



| 사진 48-② 2014년 하귀리 지석묘 1호 (동에서)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하천 연변의 주택 사이 경작지에 있으며, 상석의 크기는 길이 361㎝, 폭 192㎝, 두께 70㎝로 대체로 남북쪽으로 장축방향이 나 있다. 상석의 북쪽과 동쪽에 이중으로 놓인 괴석상의 지석이 고여 있고, 다소 지대가 높은 남쪽으로는 작은 돌이 고여 있다. 이중으로 겹쳐진 지석은 서귀포시 색달동 고인돌에서도 볼 수가 있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석묘는 하귀우체국에서 고성으로 올라가는 길의 동쪽 고성천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50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고성천의 서쪽 30m 지점에 위치한다. 하귀리 지석묘 2호와 같이 소왕천과 고성천 사이에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61㎝, 단축 192㎝, 두께 70㎝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

면형태는 제형에 가깝다. 상석 북동쪽 모서리에서 크기 9cm 가량의 성혈 2개가 확인된다. 상석의 서쪽과 북쪽 측면은 일부 아랫부분만 치석하였으며 상석의 아랫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지석은 세 군데 고였으며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보여지는 다중지석이다. 동쪽 중앙의 지석은 할석 4개를 이용하여 쌓았다. 맨 밑에 할석 2개를 놓고 그 사이에 할석을 2단으로 쌓은 형태로 상석을 받치고 있다. 북서쪽 모서리 지석은 동쪽으로의 밀림 방지를 위해 땅에 할석 1개를 묻었으며 그 위에 70cm 가량의 할석과 50cm 내외의 할석을 2단으로 쌓았다. 남서쪽 모서리에는 62cm 가량의 할석 1개가 확인된다. 상석의 단면이 제형으로 북쪽이 얇고 남쪽이 두텁기 때문에 상석 상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지석의 높이를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 48-③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 (위에서) |



| 사진 48-④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 (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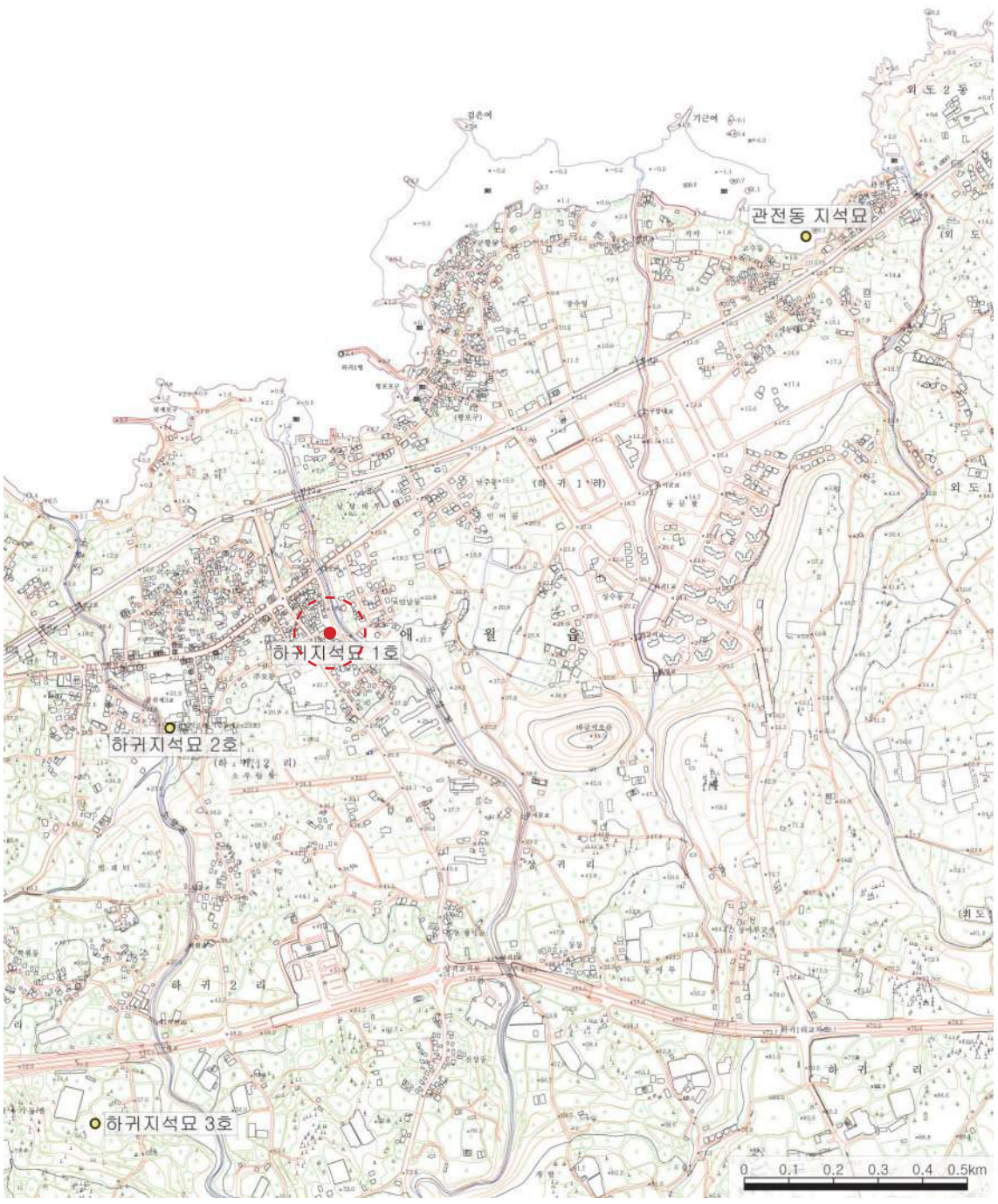
| 사진 48-⑤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 (동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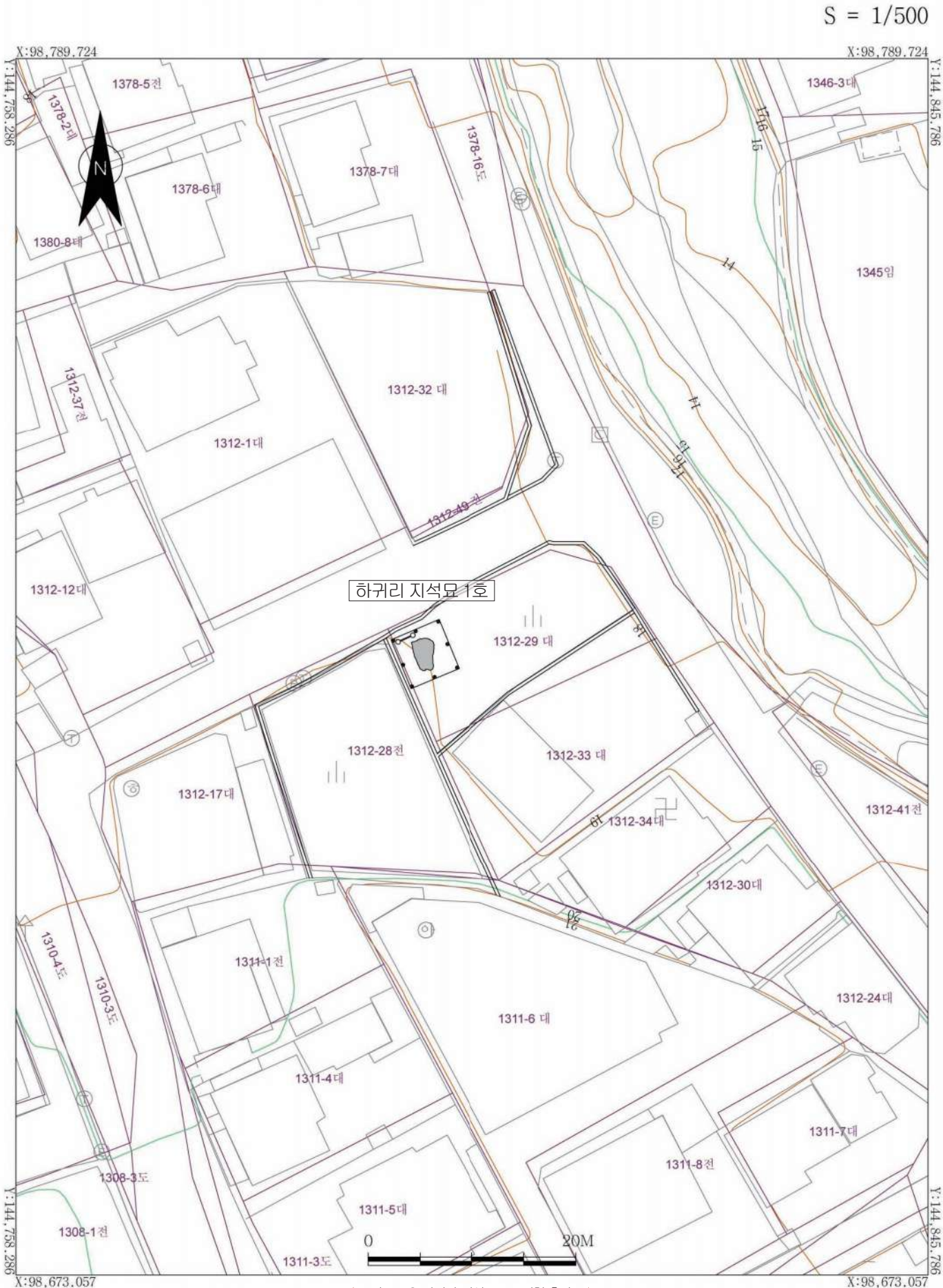
| 사진 48-⑥ 2015년 하귀리 지석묘 1호 성혈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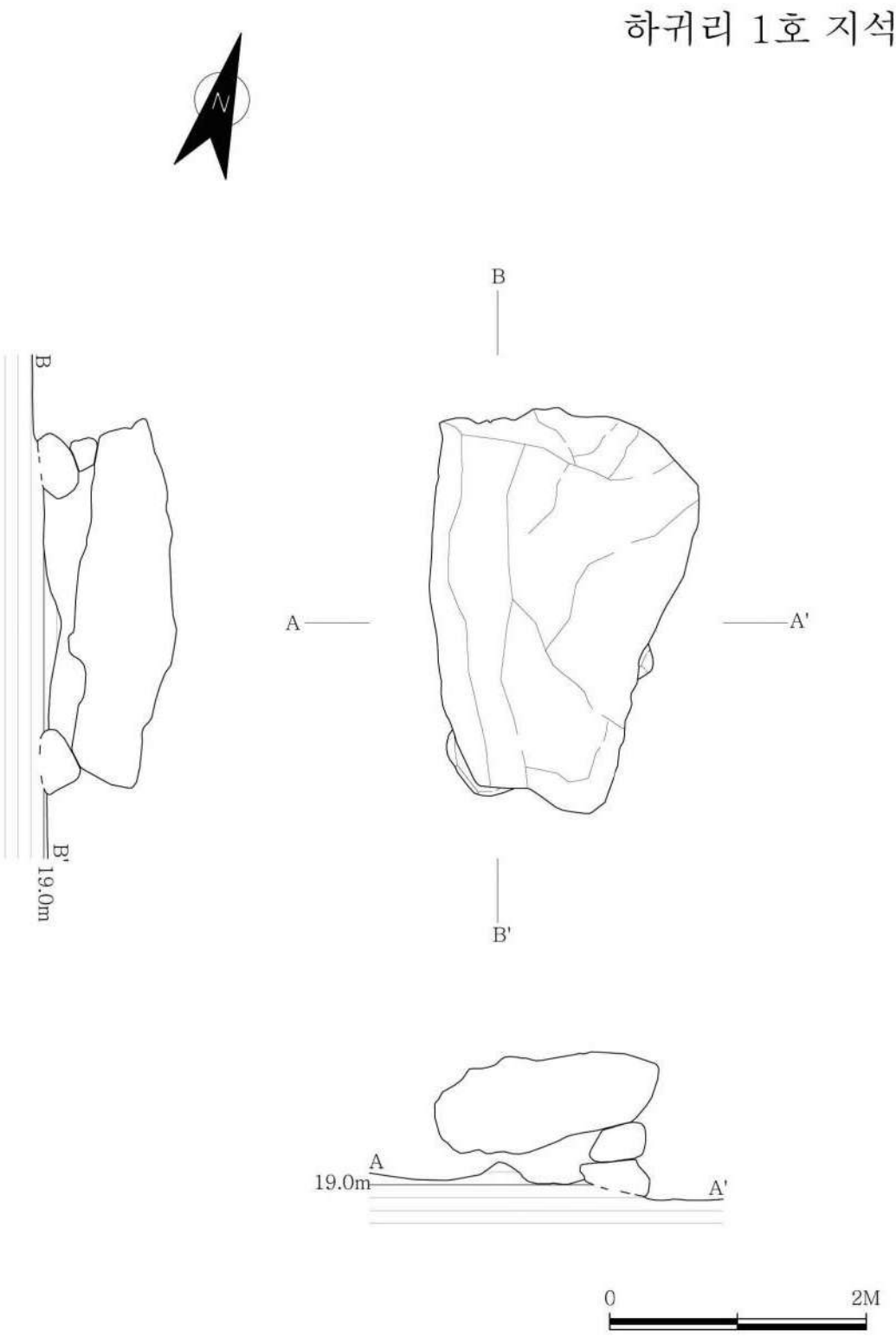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48-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48-② 하귀리 지석묘 1호 지형 측량도 |



| 도면 48-③ 하귀리 지석묘 1호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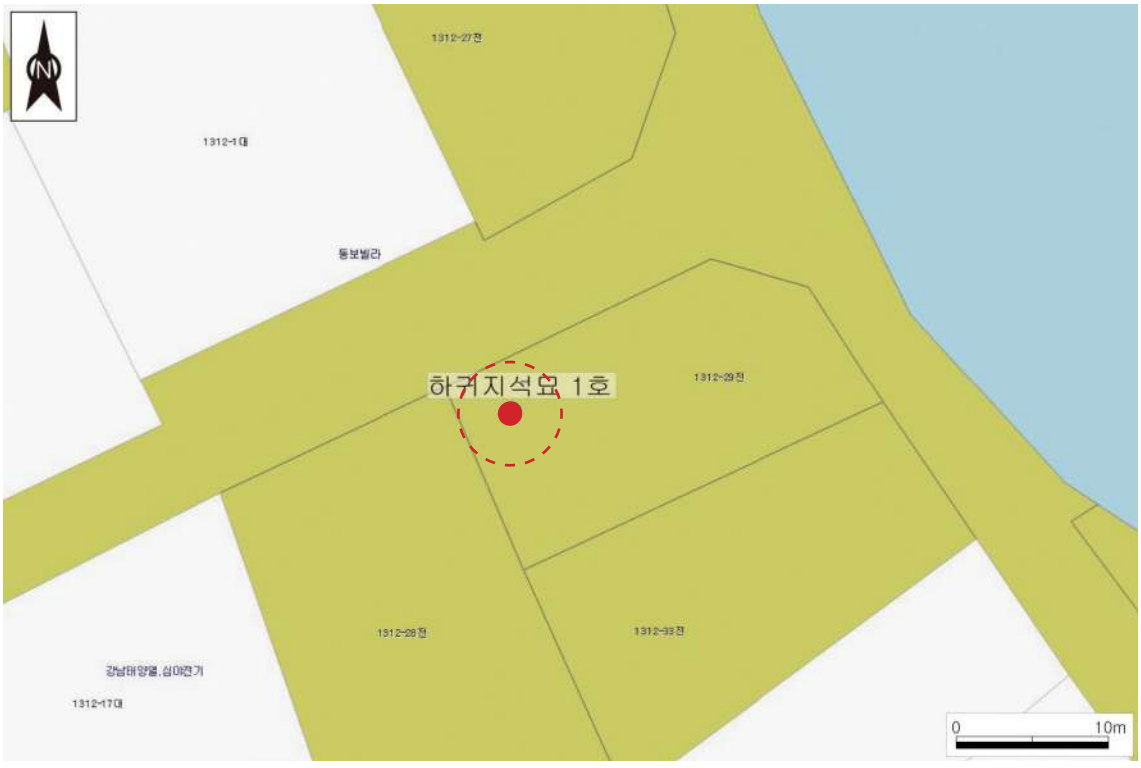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22호이며 하귀2리 1312-29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 보호책은 지석묘와 간격이 좁고 높아 관람에 방해되며 지석묘 주변 지형을 훼손하며 세워졌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관람객이 잘 볼 수 있게 설치한다.



도면 48-④ 하귀리 지석묘 1호 지적 현황도

49. 하귀리 지석묘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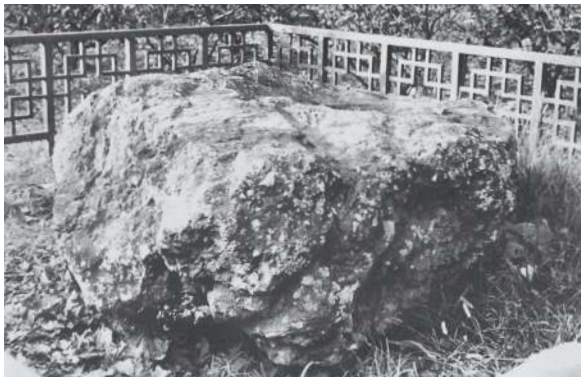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23(1971.08.26)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08-2번지(하귀초등학교 내)
3) GPS 좌표 : N 33°28′43.75″, E 126°24′07.31″
4) 해발고도: 32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귀일리 1904번지 하귀초등학교 구내에 있는 것으로, 상석은 길이 243㎝, 폭 171㎝, 두께 34㎝로 북동 방향으로 장축이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남서쪽에 큰 할석 1매를 포함해서 주위를 돌아가며 5매의 납작한 지석이 고여 있다.



| 사진 49-① 1986년 하귀리 지석묘 2호 |



| 사진 49-② 2014년 하귀리 지석묘 2호 (북에서)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하귀초등학교 구내에 있는 것으로, 상석은 길이 243㎝, 폭 171㎝, 두께 34㎝로 북동 방향으로 장축이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남서쪽에 큰 할석 1매를 포함해서 주위를 돌아가며 5매의 납작한 지석이 고여 있다.

(3) 2015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 2-23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귀초등학교 구내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520m 이격되어 있다. 소왕천의 동쪽 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귀리 지석묘 1호와 같이 소왕천과 고성천 사이에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19cm, 단축 188cm, 두께 27~78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석에서 치석흔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이용하였다. 상석 남서쪽에서 너비 68cm의 지석이 확인되었다. 상석 상면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 사진 49-③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 (위에서) |



| 사진 49-④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 (북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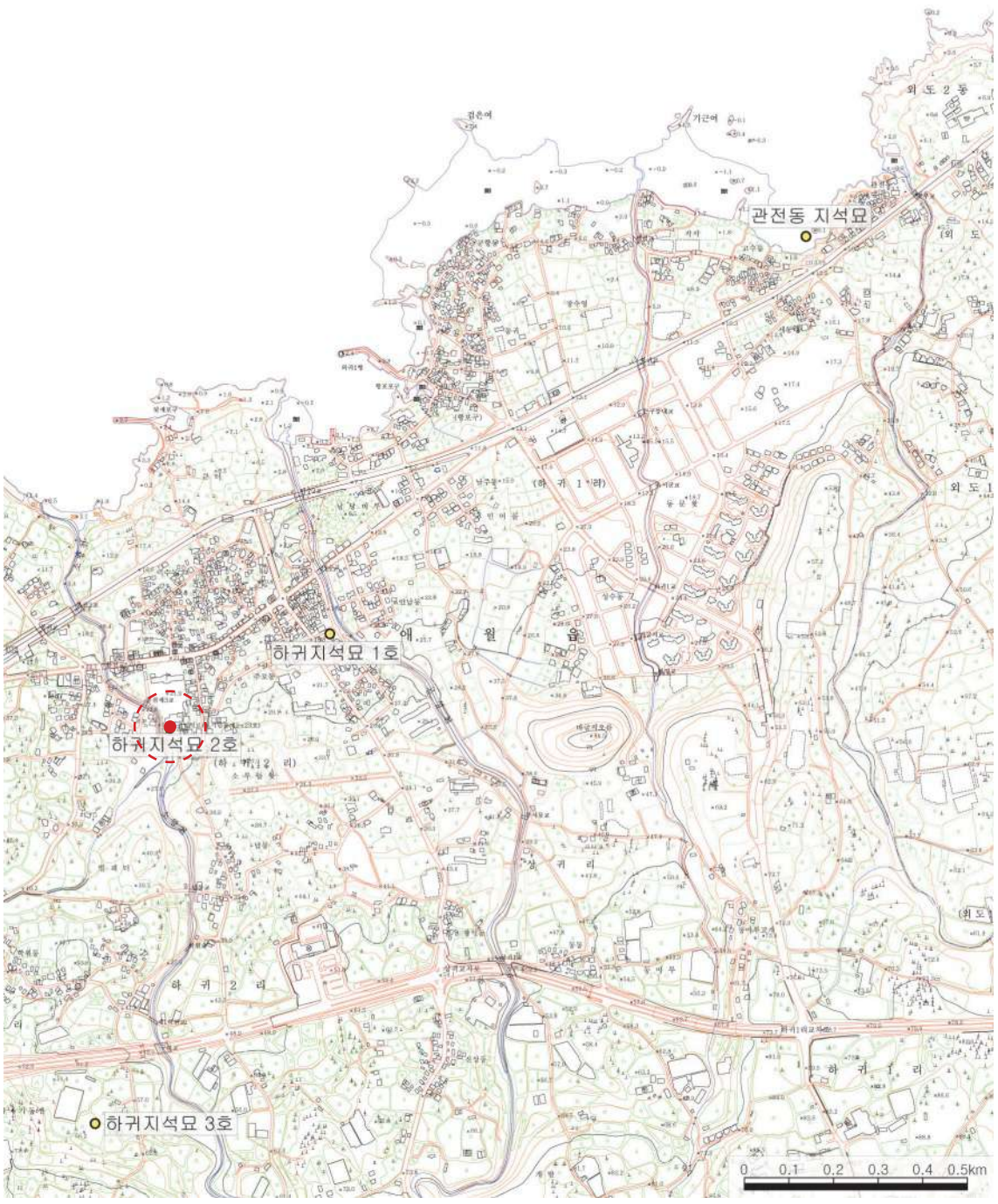
| 사진 49-⑤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 (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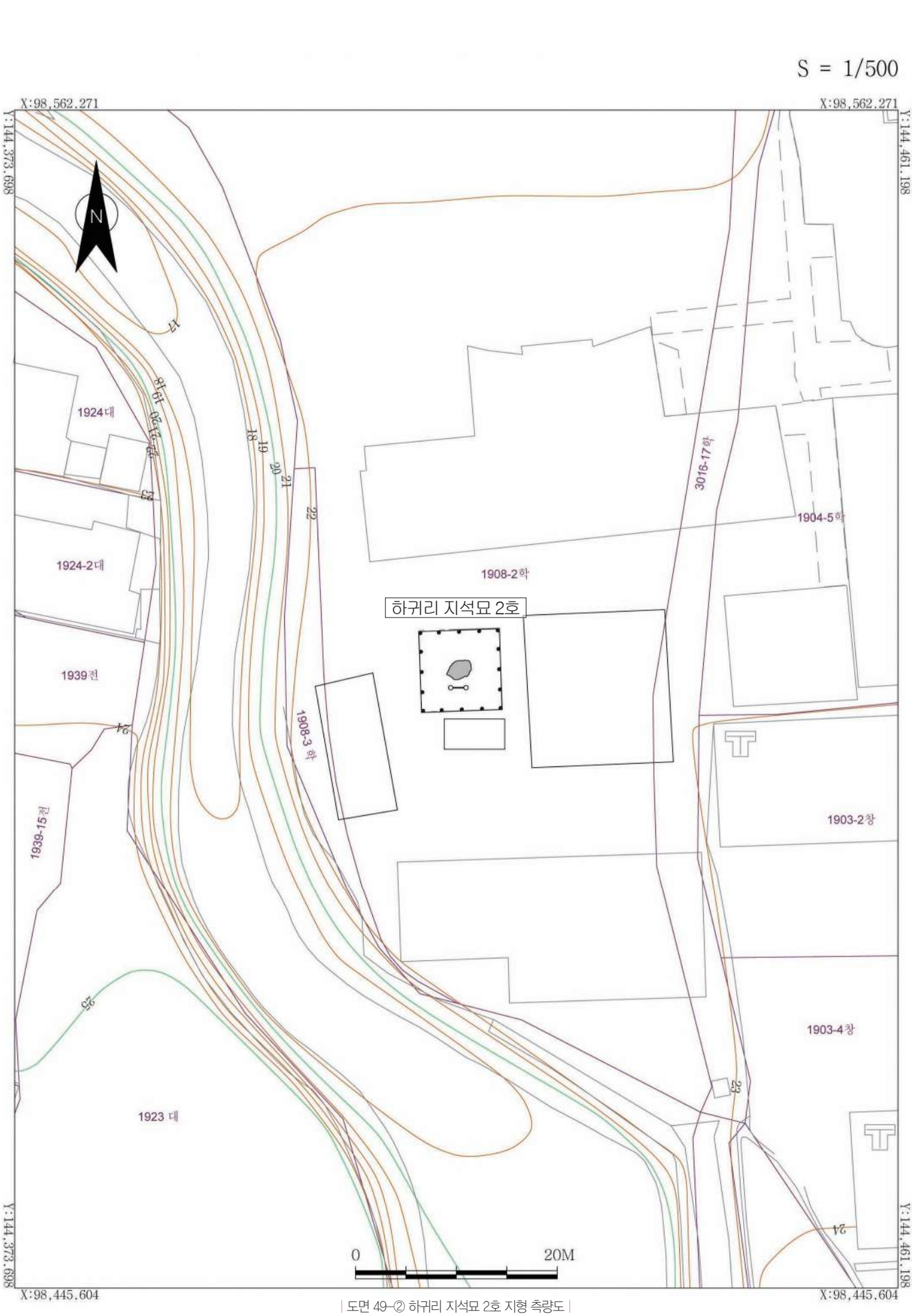
| 사진 49-⑥ 2015년 하귀리 지석묘 2호 지석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49-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49-② 하귀리 지석묘 2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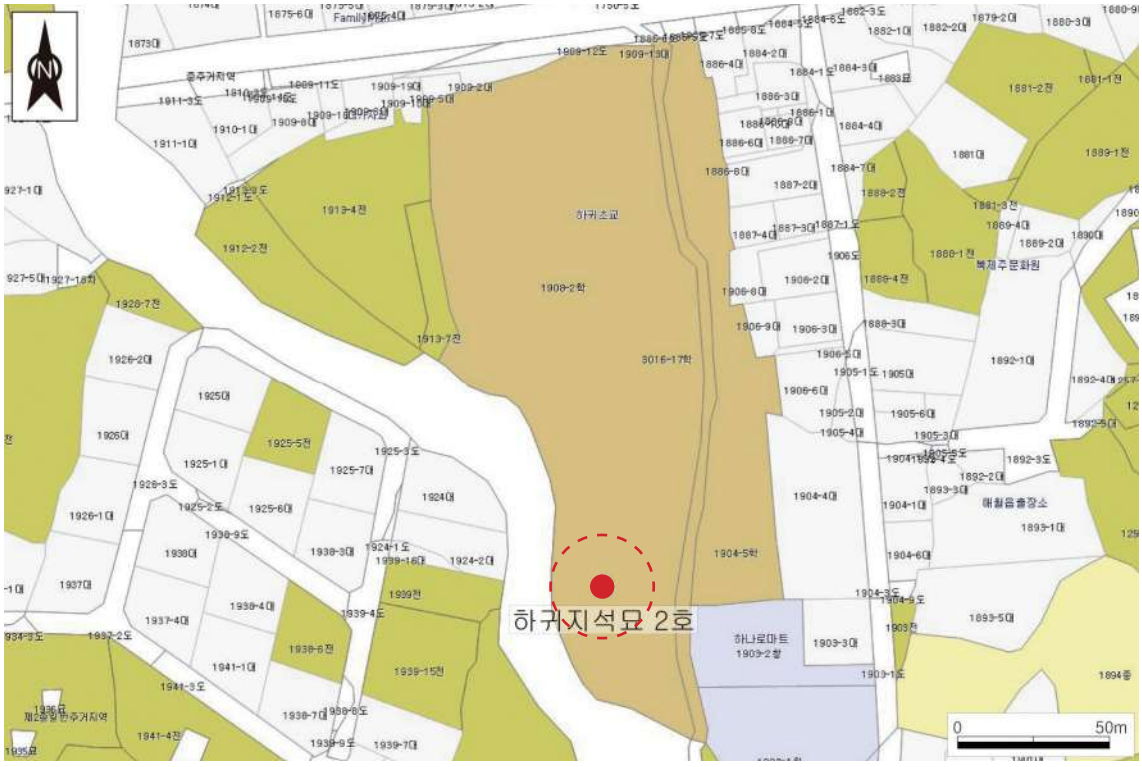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이 지석묘는 도지정 기념물 제2-23호이며 하귀2리 1908-2번지에 위치한다. 하귀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 보호책은 지형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안내판은 지석묘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관람객이 잘 볼 수 있게 설치한다.



| 도면 49-③ 하귀리 지석묘 2호 지적 현황도 |

50. 하귀리 지석묘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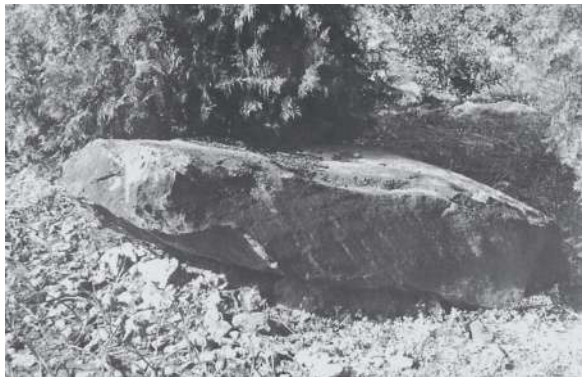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155번지
3) GPS 좌표 : N 33°28′13.06″, E 126°24′00.81″
4) 해발고도: 58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애월읍 귀일리 학원동 1312-17번지의 과수원 밭에 있는데, 상석은 길이 185㎝, 폭 135㎝, 두께 25~40㎝로 두께가 고르고 윗면이 평평한 네모꼴이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남북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지석으로 상석 남쪽에 길이 35㎝, 폭 25㎝의 1매의 괴석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사진 50-① 1986년 하귀리 지석묘 3호 |



| 사진 50-②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남에서)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상석은 길이 185㎝, 폭 135㎝, 두께 25~40㎝로 두께가 고르고 윗면이 평평한 네모꼴이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남북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지석으로 상석 남쪽에 길이 35㎝, 폭 25㎝의 1매의 괴석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2015년 조사

하귀2리 학원동 가재기동산 동쪽에 위치하며 감귤과수원 내에 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져 있으며 소왕천 서쪽 190m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34cm, 단축170cm, 두께 25~70cm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지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서쪽에 길이 60cm, 두께 10cm 가량의 판상석이 있다. 이 판상석은 지석 또는 석실벽으로 추정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주변에 무문토기편이 산재해 있어 유물산포지로 판단된다.



| 사진 50–③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위에서) |



| 사진 50–④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서에서) |



| 사진 50–⑤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지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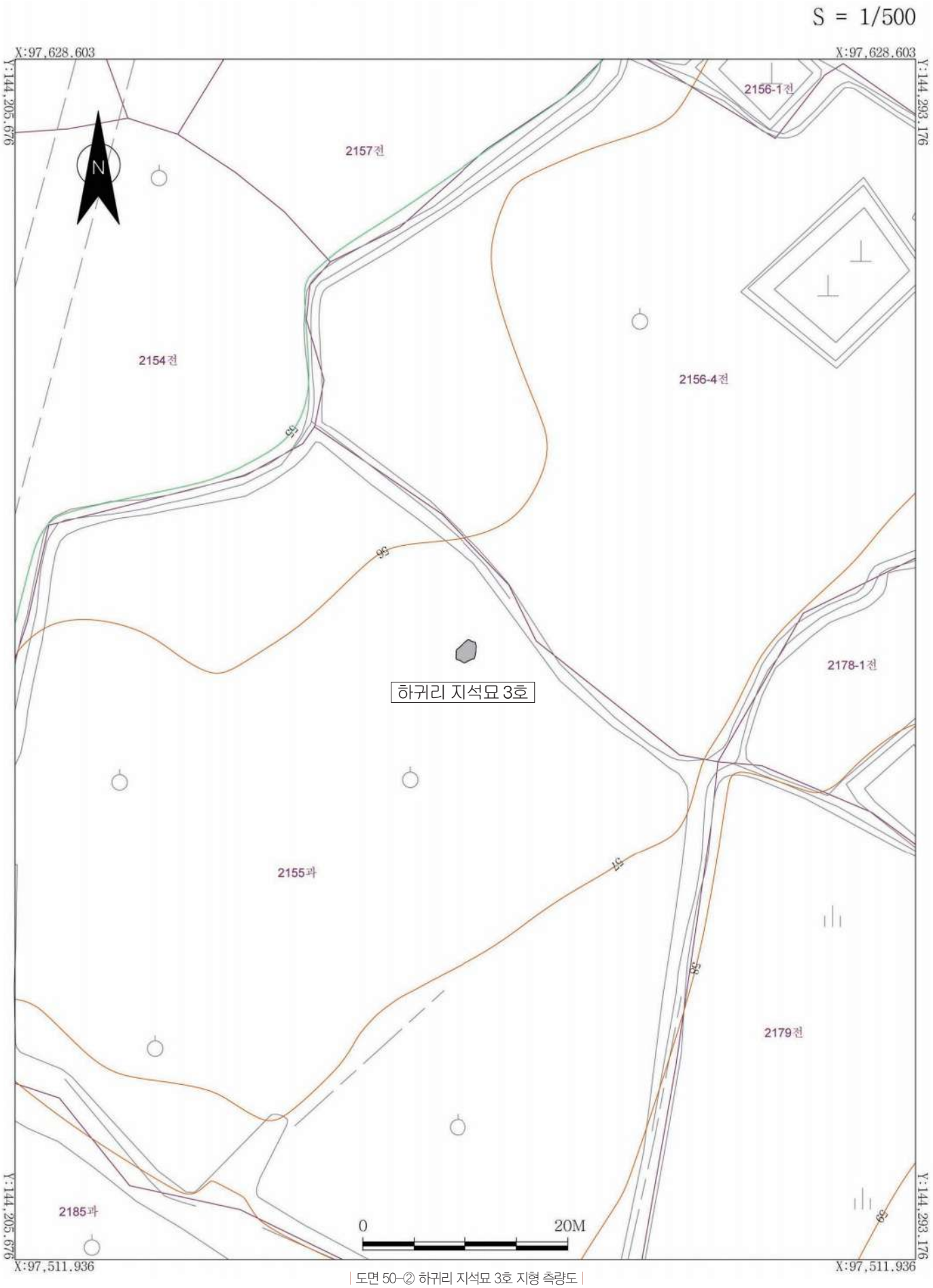
| 사진 50–⑥ 2015년 하귀리 지석묘 3호 주변 수습유물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도면 50-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도면 50-② 하귀리 지석묘 3호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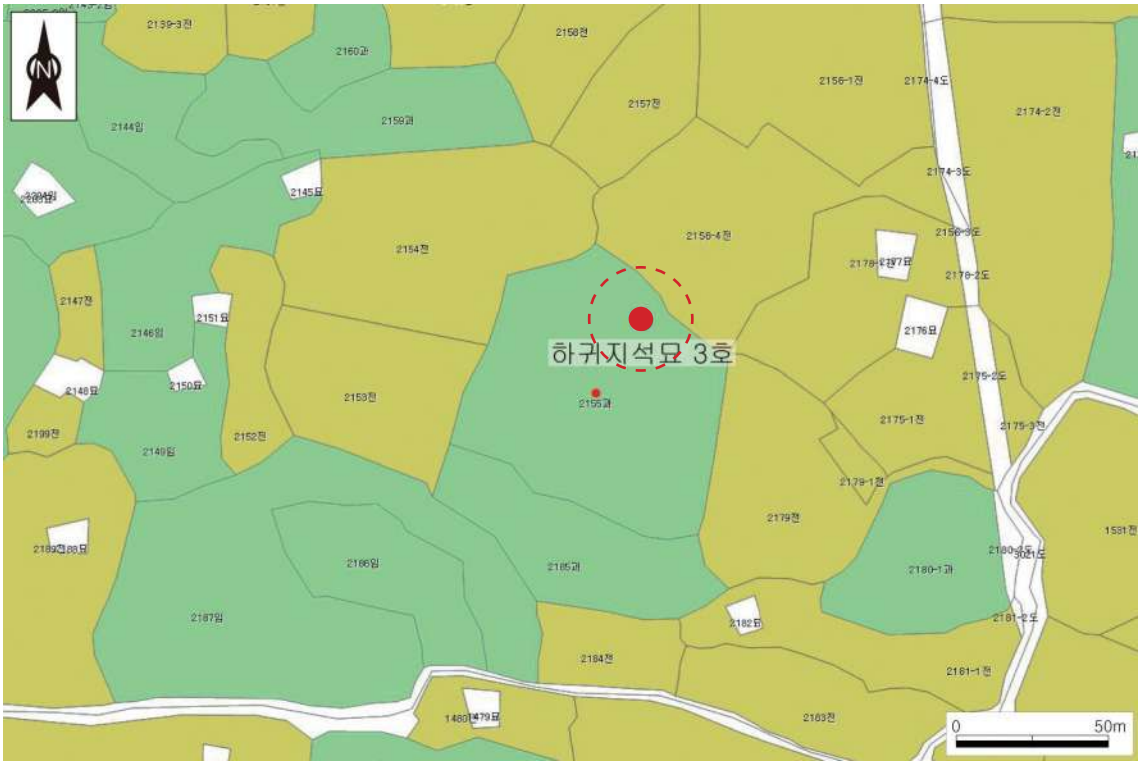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비지정 지석묘이며 하귀2리 2155번지 감귤과수원 내에 위치한다. 지석묘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보호책 · 안내판 등은 없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원상 그대로 보존하며 지석묘 관람이 용이하게 관람로를 설치하고 관람을 방해하지 않게 보호책을 설치한다.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한다.



도면 50-③ 하귀리 지석묘 3호 지적 현황도

51. 관전동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73번지~306번지 북쪽 조간대
3) GPS 좌표 : N 33°30′26.97″, E 126°35′06.14″
4) 해발고도: 조간대, 공수수면(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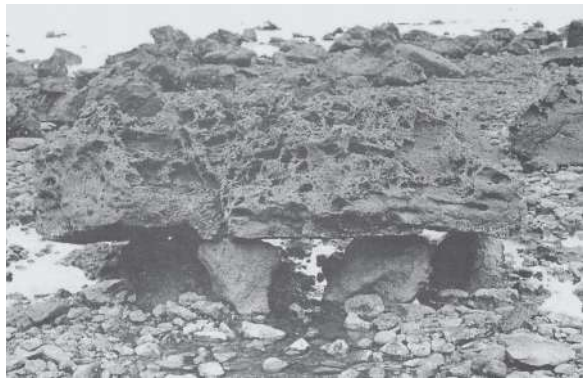
나. 조사 내용

(1) 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하귀 · 광령 · 옹포리 고인돌-(2002)

애월읍 하귀리 관전동 고인돌은 해안가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물시에는 상석까지 물에 잠겼다가 썰물시에는 상석과 지석은 물론 바닥면(암반)까지 드러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 고인돌은 내륙의 고인돌 축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돌의 남쪽과 동쪽은 도로변에서 해안을 향하는 단애 절벽을 이루고 있고 서쪽은 해안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고인돌 상석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나 장방형꼴에 가깝다. 상석하부는 남북쪽에 각각 6매의 지석이 고여 있는데 남쪽에는 높이 40cm, 두께10cm 가량인 현무암제 판석형 지석 1매가 고여 있고 그 외에는 크고 작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지석으로 이용하였다. 상석의 하단과 측면에는 평평하게 깍아내어 치석한 흔적이 관찰된다. 상단부는 자연면 그대로 울퉁불퉁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인돌 상석은 남쪽이 22~32cm 가량 다소 높게 들려져 있고 북쪽은 다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상석의 장축은 N45°W 방향이며 두께는 30~80cm이다. 상석의 길이는 장축 276cm이고 단축 122~156cm이다. 관전동 고인돌이 위치한 조간대의 해안변에는 현무암제 석재들이 다수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단애면에는 암반층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인돌 축조시 아마도 단애면의 절벽에 형성된 암반층에서 상석을 채석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고인돌의 성격과 관련해 볼 때 우선 해안의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바다와 관련된 기능을 갖는 고인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신제와 관련된 제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어로 행위와 관련하여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반면에 피장자가 바다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수장하기 위한 무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사진 51–① 2002년 관전동 지석묘 (남에서) |



| 사진 51–② 2002년 관전동 지석묘 (남에서) |

(2)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관전동 조간대에 자리하며 해안가에서 약 50m 정도 바다로 나가 축조되었다. 남방식 고인돌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230cm, 폭 180cm, 두께 70~80cm이다. 상면은 장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 하부에 6개의 지석이 고여 있는데 할석을 치석하였다. 상석 하단부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6개의 지석 크기는 각각 25cm, 42cm, 110cm, 37cm, 40cm이다. 바다와 관련된 제단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 51–③ 2015년 관전동 지석묘 (원경) |



| 사진 51–④ 2015년 관전동 지석묘 (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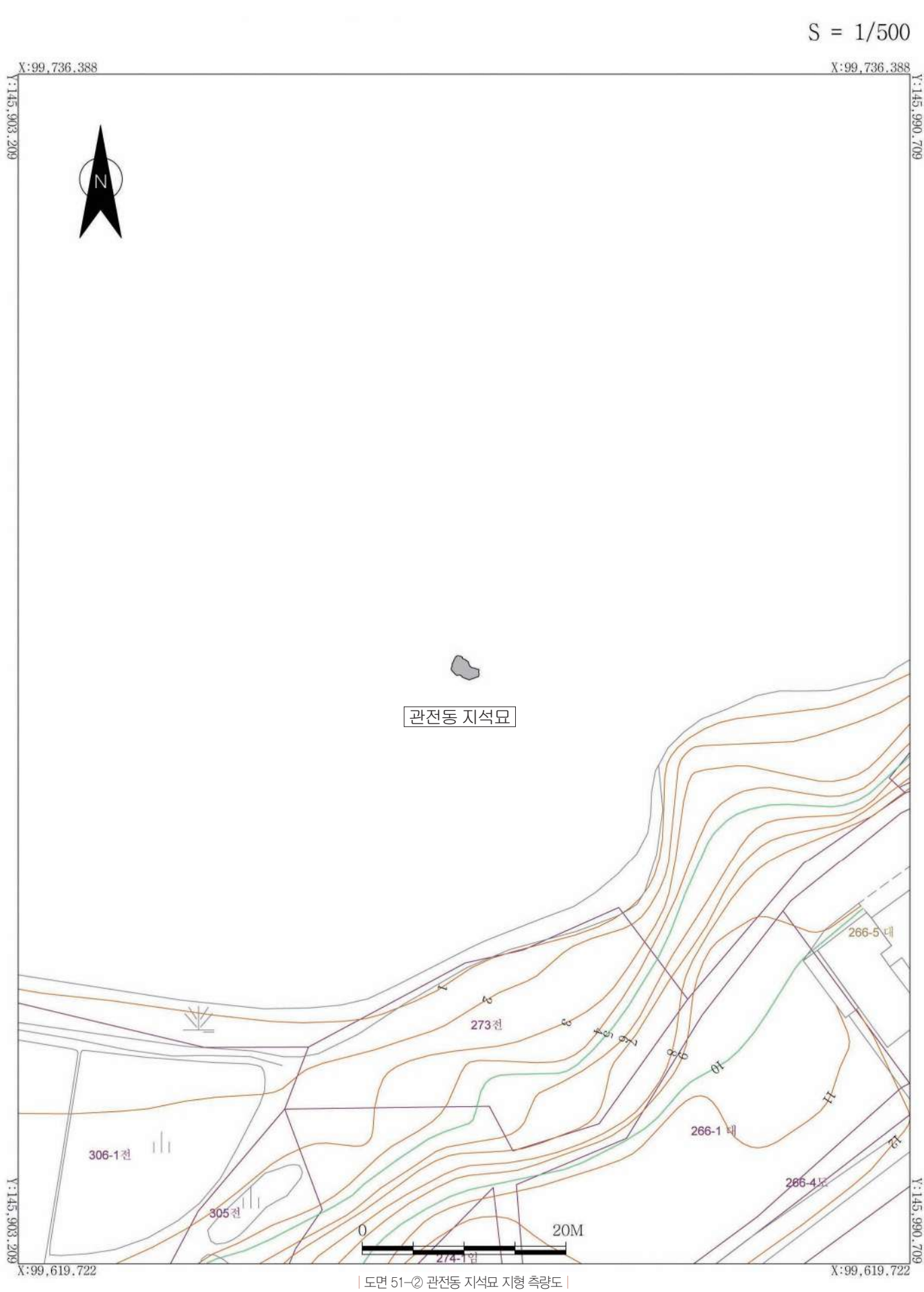
| 사진 51–⑤ 2015년 관전동 지석묘 (남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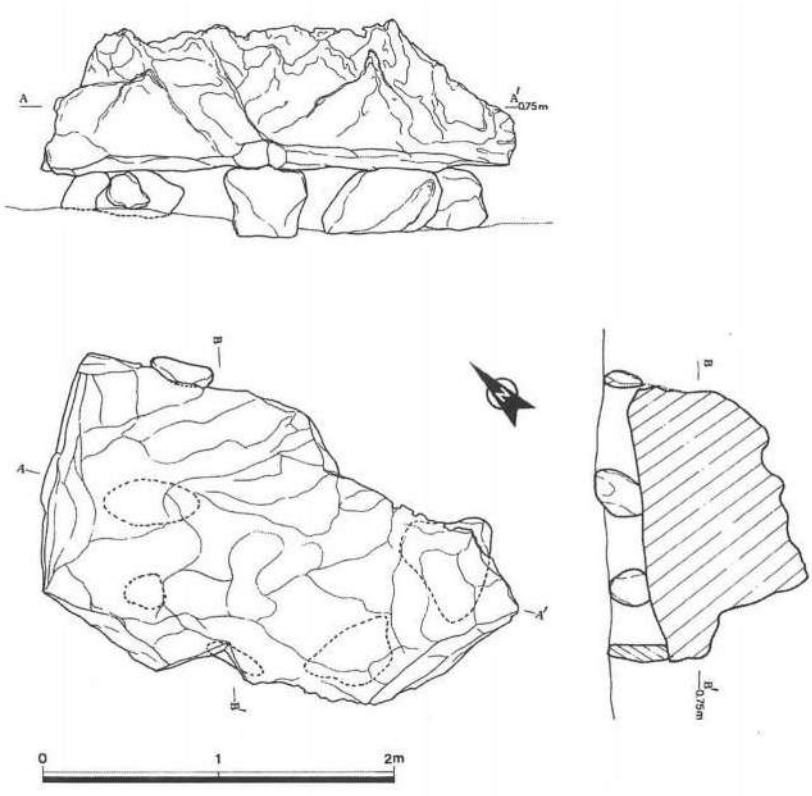
| 사진 51–⑥ 2015년 관전동 지석묘 (북에서) |



| 도면 51-① 하귀리 · 관전동 지석묘군 분포도 |



| 도면 51-② 관전동 지석묘 지형 측량도 |



| 도면 51-③ 관전동 지석묘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3) 2015년 조사

하귀1리 자연마을인 관전동의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자연 절벽이 있고 남쪽과 서쪽에는 작은 밭들이 형성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85cm, 단축 160cm, 두께 84cm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이다. 상석의 평 · 단면형태는 제형이다. 상석의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하부만 치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석은 판석재 2매와 할석 3개, 총 5개의 지석이 확인되며 지석의 높이는 20~42cm, 너비는 36~58cm, 두께 15~54cm이다.

참고문헌

①『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③『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④『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하귀 · 광령 · 옹포-』, 2002, 제주문화예술재단. ⑤『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비지정 기념물로 조간대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 및 안내판이 없다.

2) 정비 · 활용계획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석묘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



도면 51–④ 관전동 지석묘 지적 현황도

52. 고내리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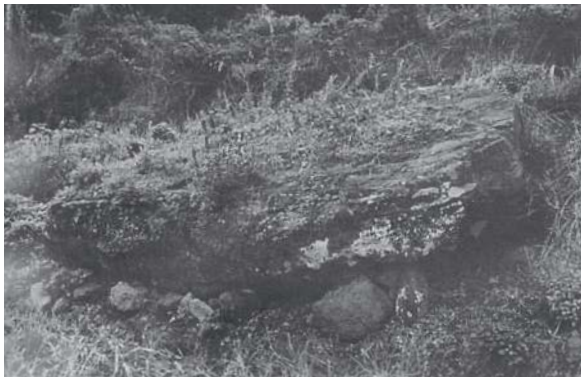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95번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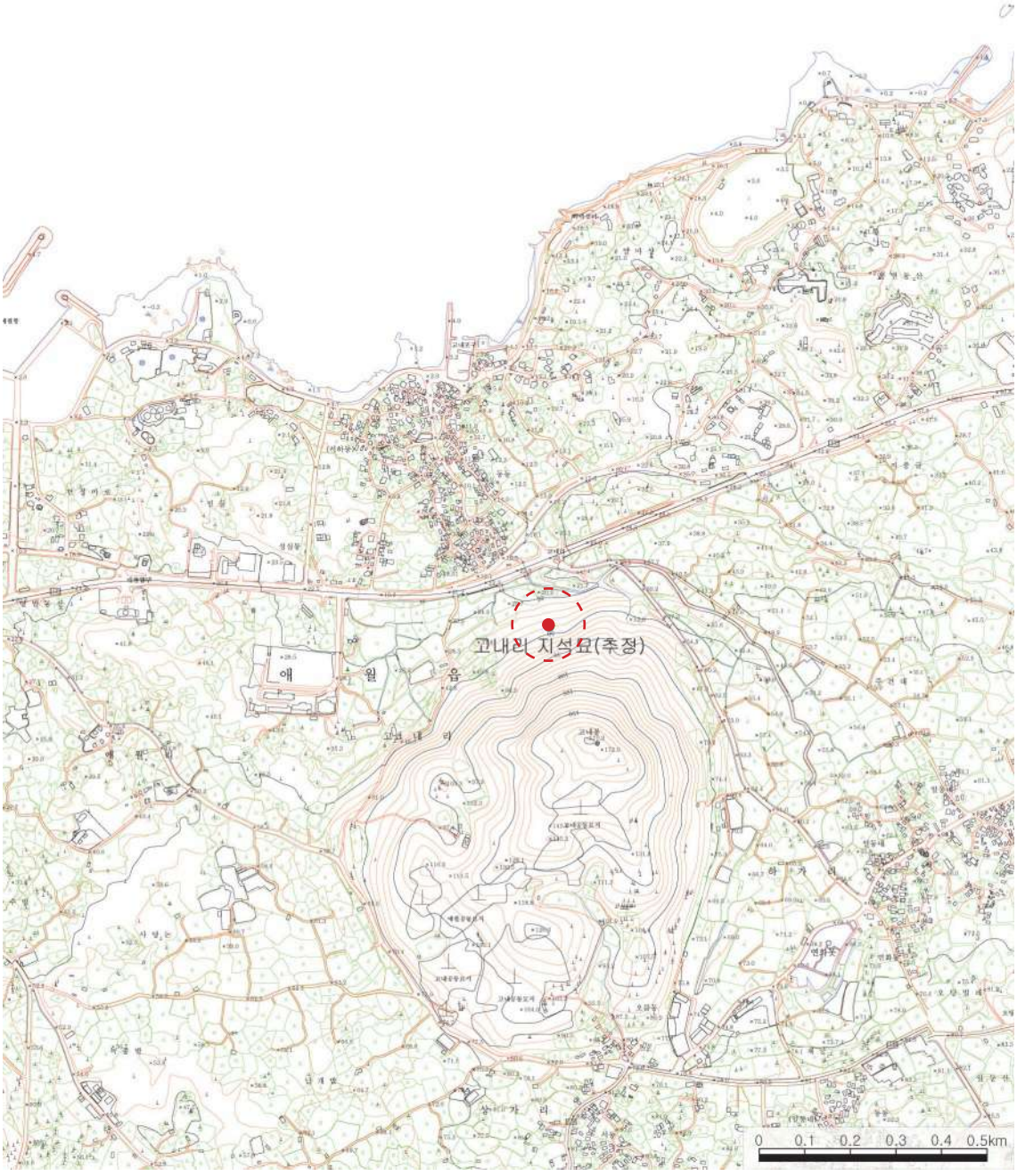
애월읍 고내리 595번지 해발 200m의 고내봉(高內峰) 중턱 밭 경계에 흙과 잡초로 덮혀 있다. 상석(上石)은 길이 270㎝, 폭 220㎝, 두께 60㎝로 현재 북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북동방향으로 장축이 가리키고 있다. 일부 드러난 상면 윗면에 성혈 수개가 확인되었으며, 두 군데 지석이 고여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 사진 52-① 1986년 고내리 지석묘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해발 200m의 고내봉 중턱 밭경계에 흙과 잡초로 덮혀 있다. 상석은 길이 270㎝, 폭 220㎝, 두께 60㎝로 현재 북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북동방향으로 장축이 가리키고 있다. 일부 드러난 상석 윗면에 성혈 수개가 확인되었으며, 두 군데 지석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02년 조사시 이 고인돌은 높낮이가 다른 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석과 터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면 52-① 고내리 지석묘 분포도 |

(3) 2015년 조사

현재 유실되었으며 주변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유실되었으며 원래 소재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원 소재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53. 고내리 추정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02–2번지(전), 1365번지(도로)
3) GPS 좌표 : N 33°27′52.69″, E 126°20′25.02″
4) 해발고도: 16m

나. 조사 내용

(1) 2015년 조사

고내봉의 지석묘는 유실되었고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중 발견하였으며 고내리 유물산포지 남쪽에 위치한다. 고내사거리에서 북서쪽으로 150m 떨어진 기존 도로 북쪽에서

성혈이 있는 석재가 확인되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330m 이격되어 있다. 상석은 파손되어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잔존장축 63cm, 단축 113cm, 두께 38cm이다. 상석 상면에 8cm 가량의 성혈 6개가 확인되었다.



사진 53–①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원경)



사진 53–②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북에서)



사진 53–③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북에서)



사진 53–④ 2015년 고내리 추정 지석묘 성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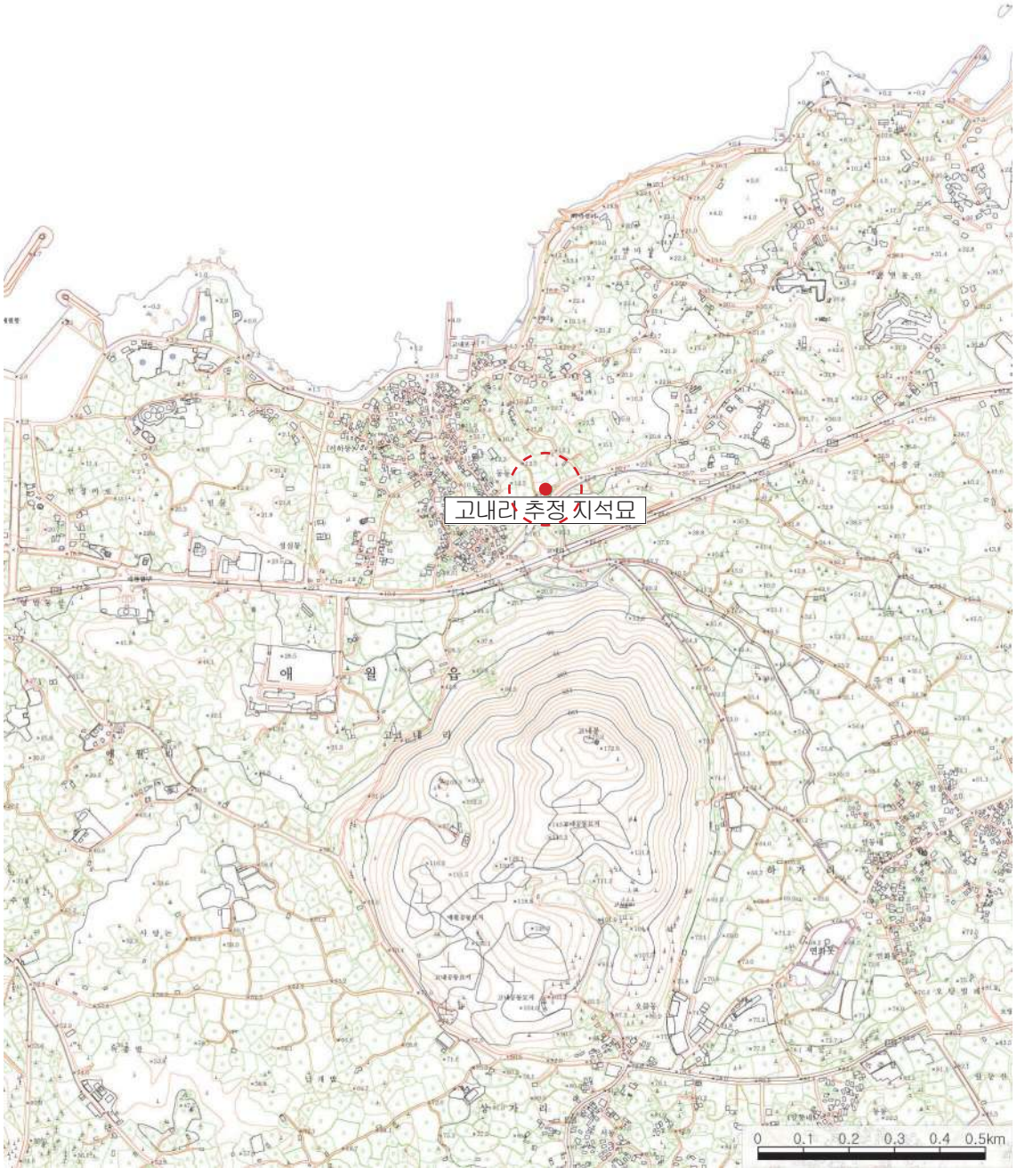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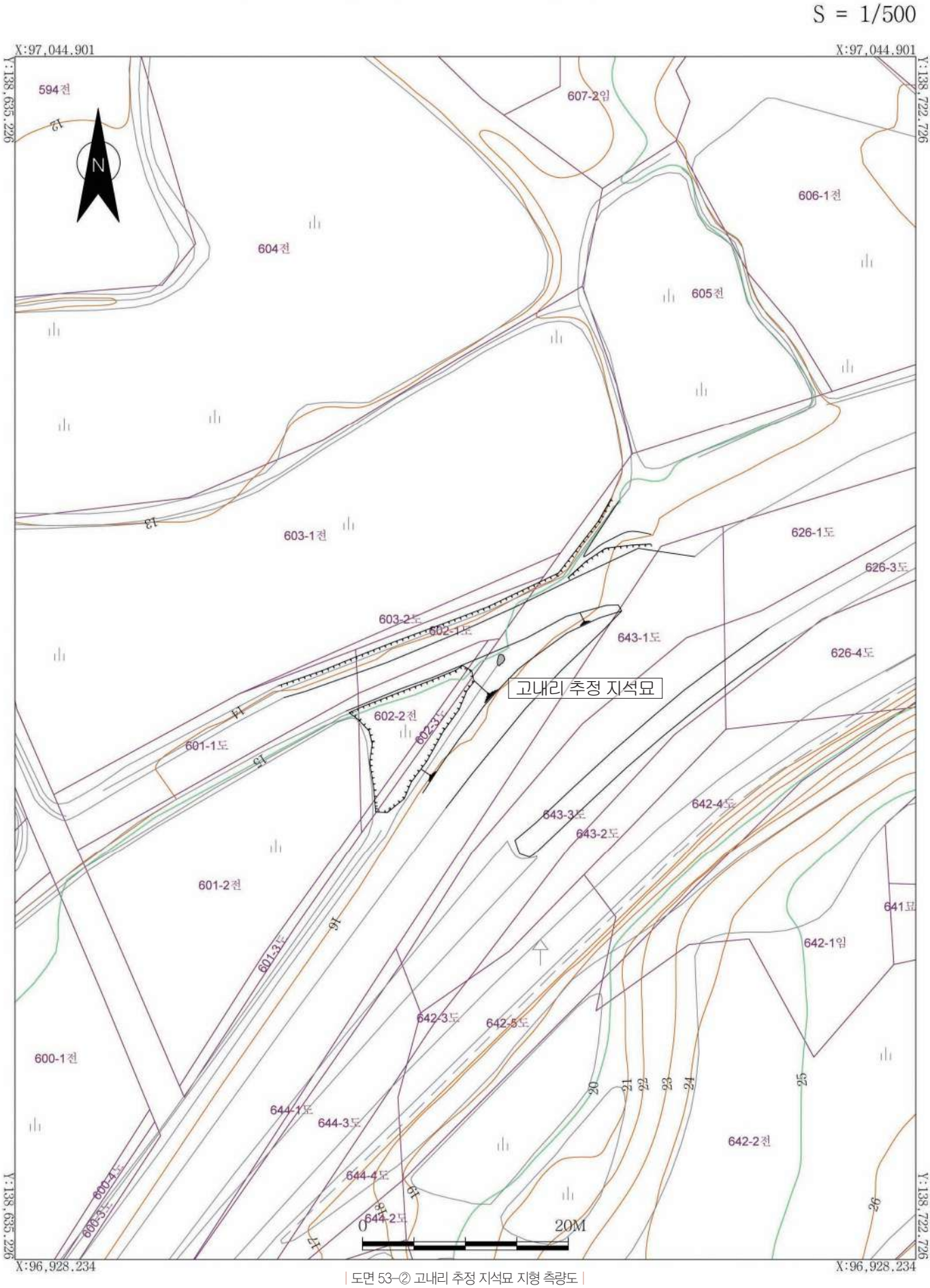
현 고내사거리 북쪽에 기존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그 아래쪽에 시멘트로 포장된 소로길 옆에 있다. 성혈이 새겨진 석재로 반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며 주변이 생활 쓰레기와 수풀로 우거져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하여 지석묘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보존 또는 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도면 53-① 고내리 추정 지석묘 분포도 |



| 도면 53-② 고내리 추정 지석묘 지형 측량도 |



| 도면 53-③ 고내리 추정 지석묘 지적 현황도 |

54. 곽지리 지석묘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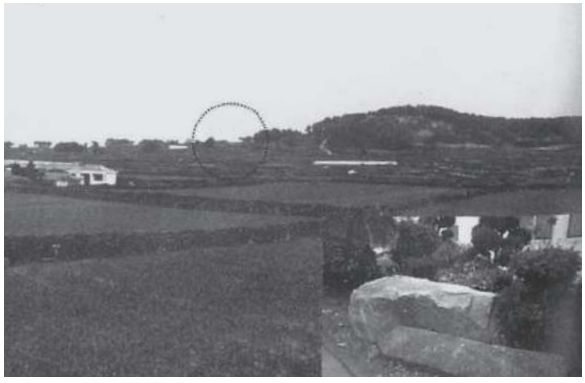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오름 근처
3) GPS 좌표 : N 33°28′13.06″E 126°24′00.81″
4) 해발고도: 58m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은 원래 곽오름 북편 기슭의 4기중 하나로, 현재는 곽지리 사무소 창고앞으로 옮겨진 상석이다. 이 고인돌은 1967년에 최몽룡교수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崔夢

龍, 1967, 〈郭支里 支石墓 踏査報告〉, 〈〈서울大文理大學報〉〉 14.).
이 보고문에 의하면 곽지리 곽오름 근처에는 4기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중 이 고인돌은 상석의 크기가 길이 369㎝, 폭 276㎝, 두께 77㎝로 그 평면은 대체로 타원형에 가깝다. 지석은 상석의 동북쪽, 서북쪽 모서리에 괴석상으로 고여 있다. 내부 곽를 조사한 결과 타원형의 토광으로 곽의 크기는 직경 60㎝ 내외였으며 전체적으로 이 고인돌은 남방식에 해당한다.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곽오름 일대 원상의 고인돌이 단 한기도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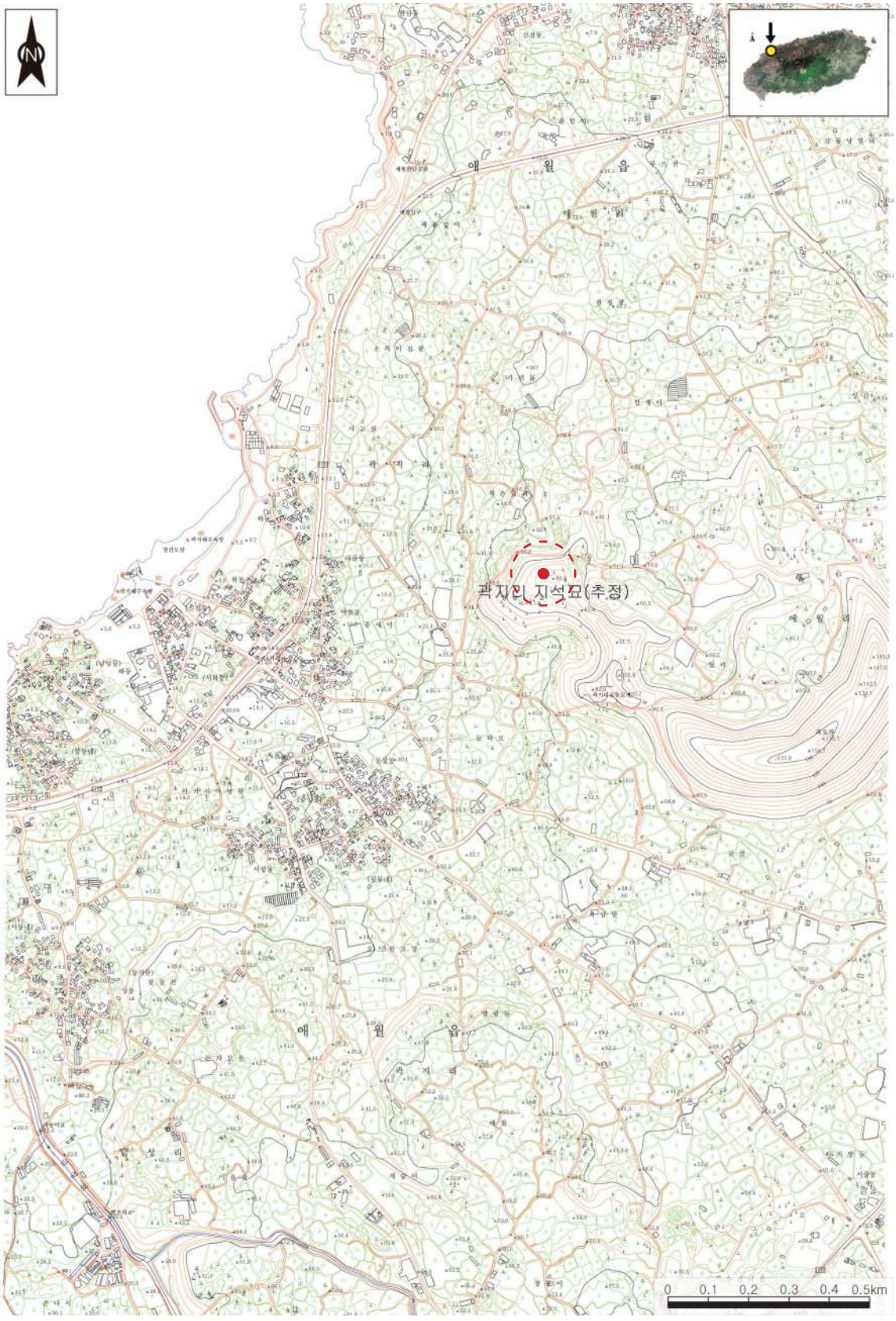
| 사진 54-① 1986년 곽지리 지석묘 |

(2) 2015년 조사

유실되어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①『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④『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54-① 곽지리 지석묘 분포도 |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유실되었으며 원래 소재지는 묘지와 임야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원 소재지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55. 곽지리 추정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080번지(임)
3) GPS 좌표 : N 33°28′00.11″, E 126°24′53.01″
4) 해발고도: 83m

나. 조사 내용

(1) 2015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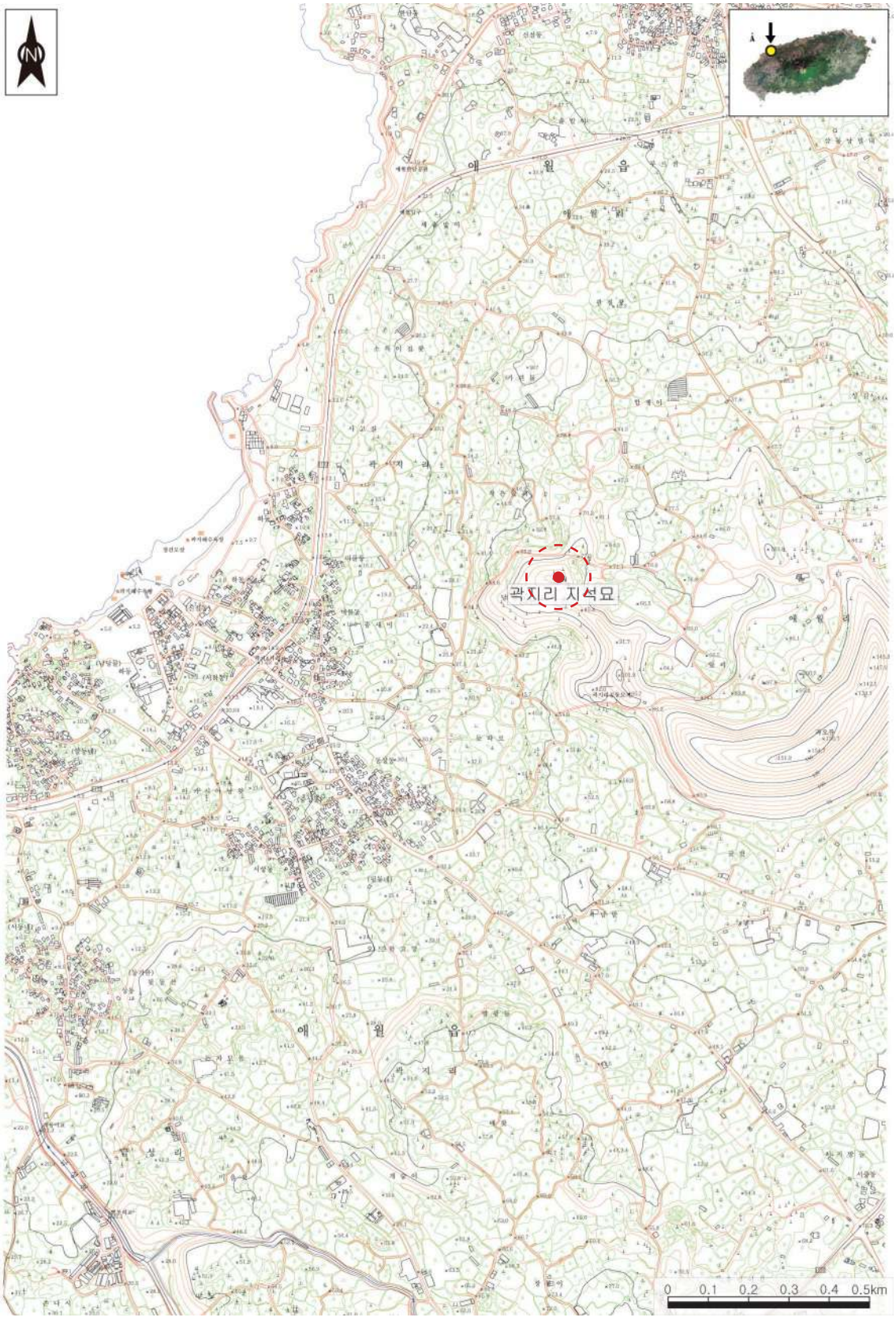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과오름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중 발견하였다. 과오름 북서쪽 봉우리 정상부의 민묘 사이에 위치하며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910m 이격되어 있다. 상석은 반이상 매몰되어 있으며 계측 가능한 규모는 장축 310cm, 단축 92cm, 두께 66cm 이다. 상석의 암질은 퇴적암 계통으로 과오름 주변에 유사한 석재들이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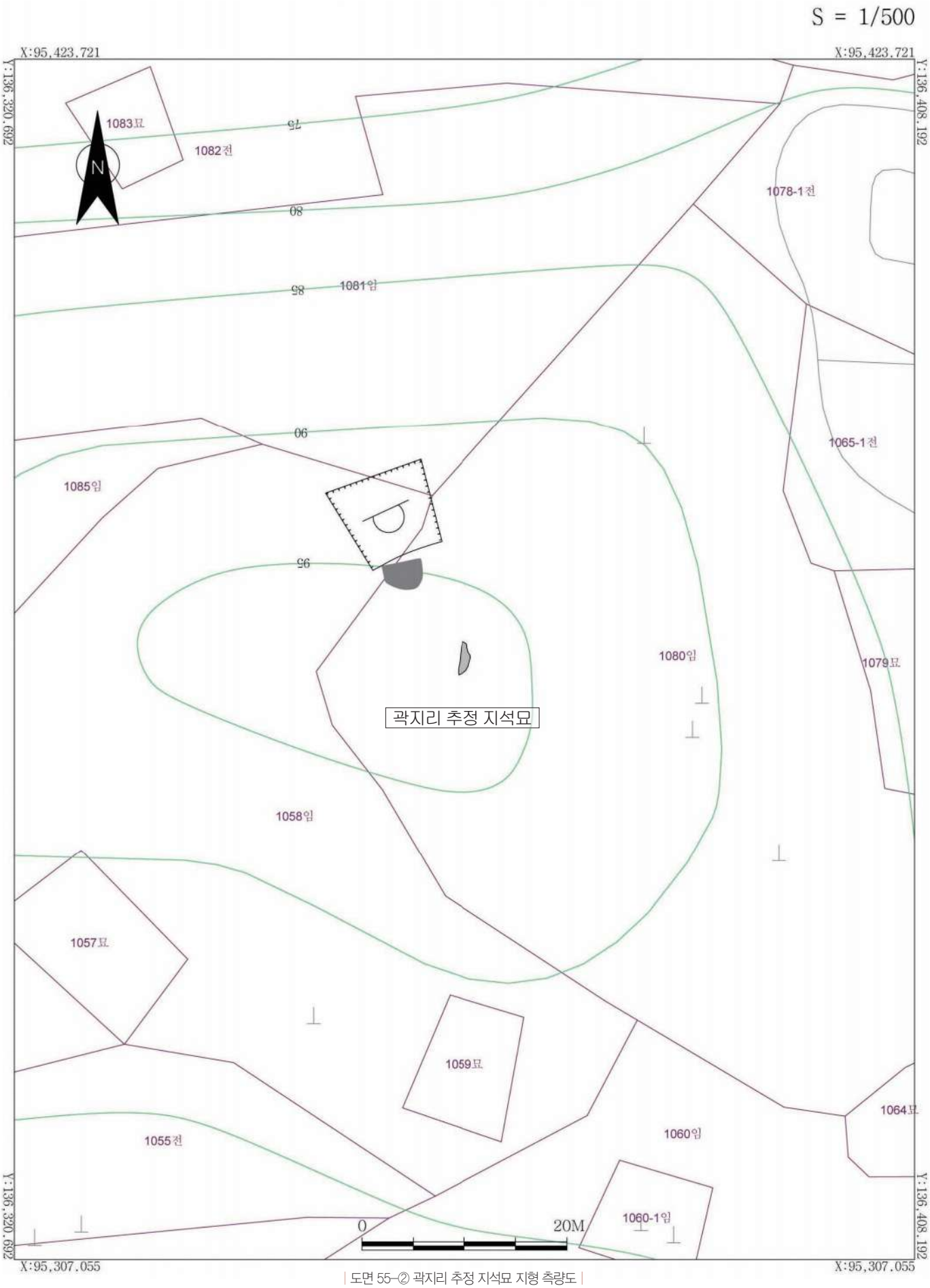
| 사진 55-① 2015년 곽지리 추정 지석묘 |



| 사진 55-② 2015년 곽지리 추정 지석묘 치석흔 |



| 도면 55-① 곽지리 추정 지석묘 분포도 |



| 도면 55-② 곽지리 추정 지석묘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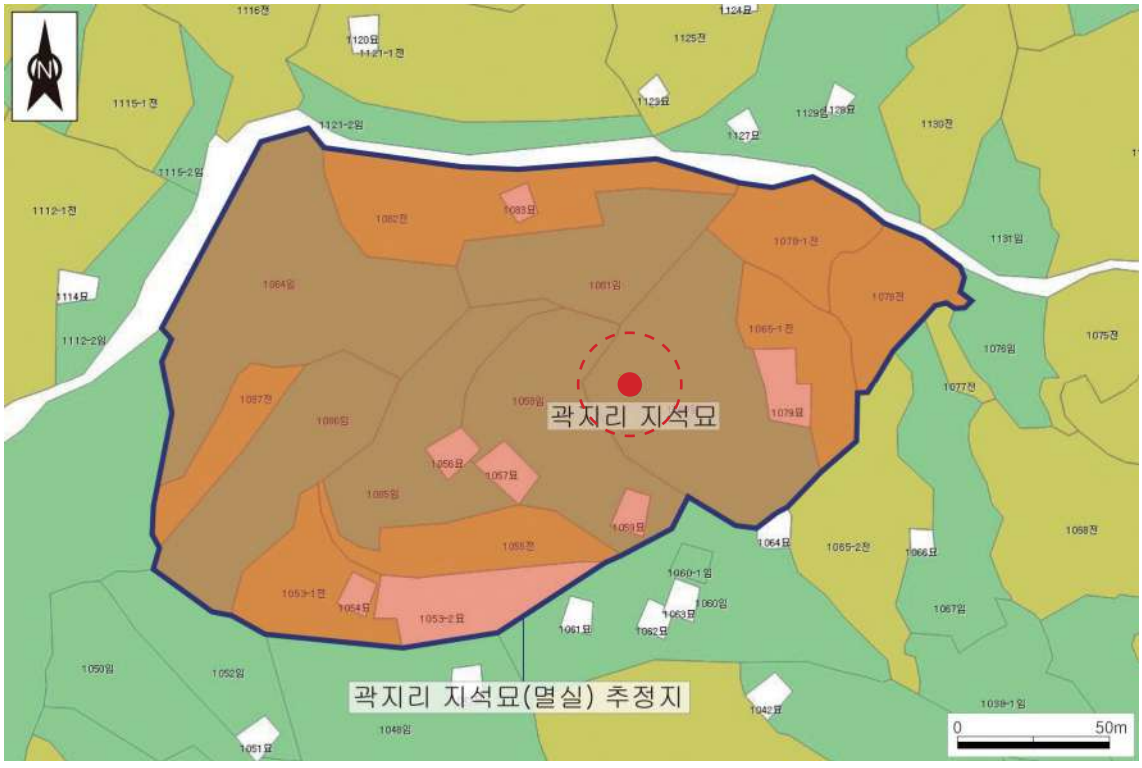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과오름 정상에 반정도 매몰되어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하여 지석묘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보존 또는 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도면 55–③ 곽지리 추정 지석묘 지적 현황도 |

56. 옹포리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732-3번지(추정지), 736번지(매립지)
3) GPS 좌표 :
4) 해발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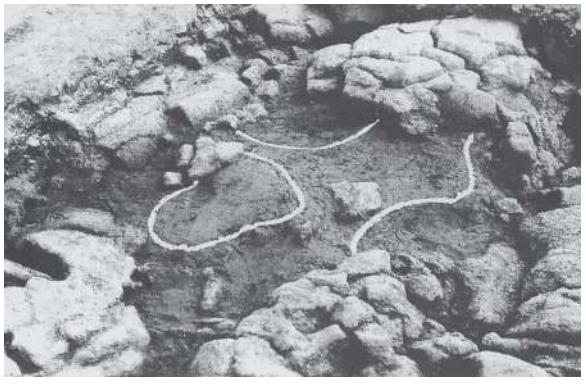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제주고인돌 조사보고(1991)

한림읍 옹포리 157번지에 위치한 양돈장내에 있으며, 상석(上石)은 바둑판처럼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오각형으로 길이 190㎝, 폭 140㎝, 두께 50㎝이다. 지석(支石)은 상석(上石)의 북서, 북동, 남동쪽 세 귀퉁이에 괴석으로 각각 고였다. 상석 북쪽측면에 운반할 때 동아줄을 두르기 위한 긴 홈줄이 뚜렷이 남아 있다.



| 사진 56-① 1986년 옹포리 지석묘 |



| 사진 56-② 2002년 옹포리 지석묘 발굴조사 |

(2)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옹포리 양돈장내에 있으며, 상석은 바둑판처럼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오각형으로 길이 190㎝, 폭 140㎝, 두께 50㎝이다. 지석은 상석의 북서, 북동, 남동쪽 세 귀퉁이에 괴석으로 각각 고였다. 상석 북쪽측면에 운반할 때 동아줄을 두르기 위한 긴 홈줄이 뚜렷이 남아 있다.

(3) 2015년 조사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며 2002년 지석묘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유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 보고되었던 옹포리 157번지는 현재 밭과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은 무문토기편이 다량으로 확인되는 유물산포지로 확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물산포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 사진 56–③ 2015년 옹포리 지석묘 상성 매립추정지 |



| 사진 56–④ 2015년 옹포리 지석묘 추정지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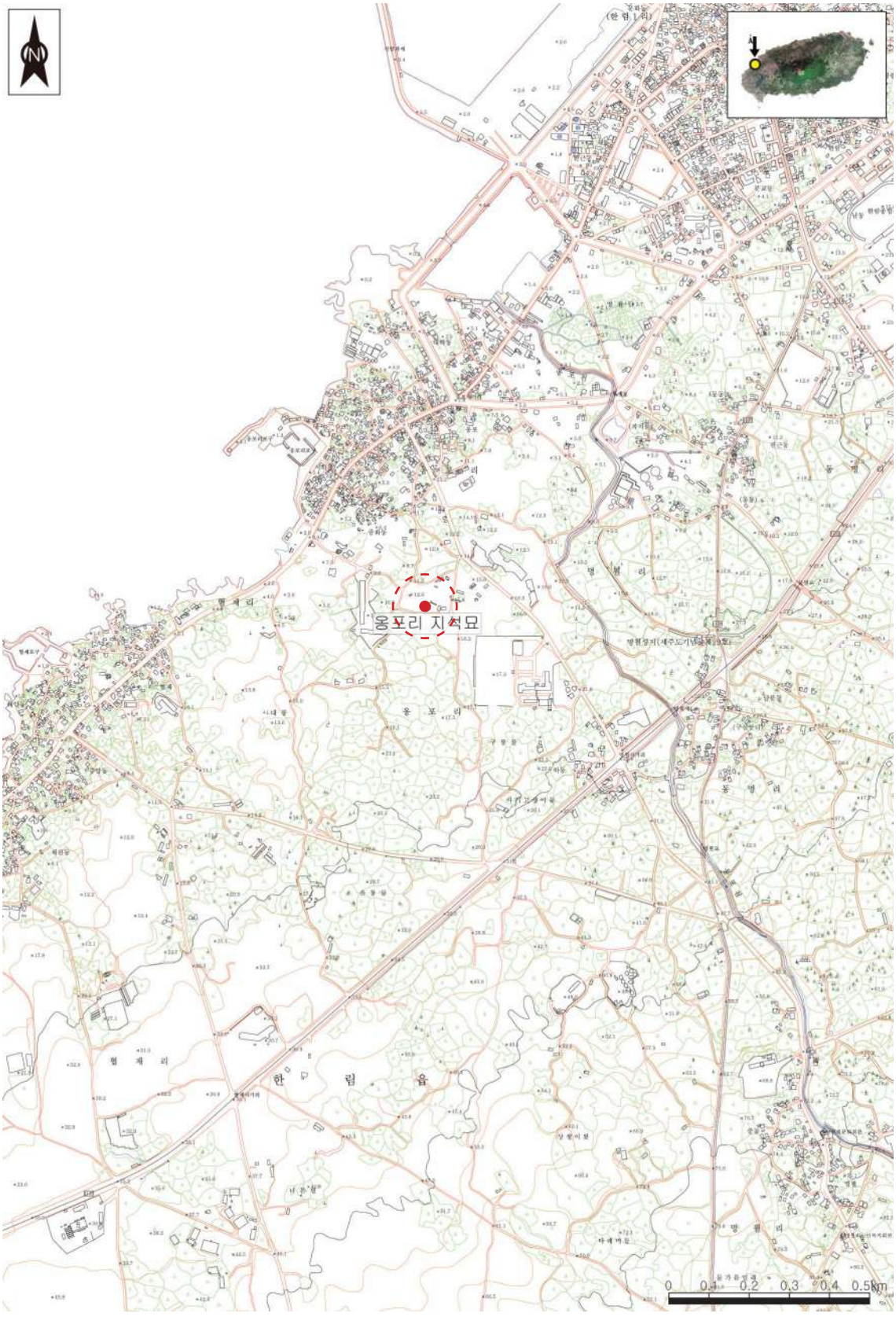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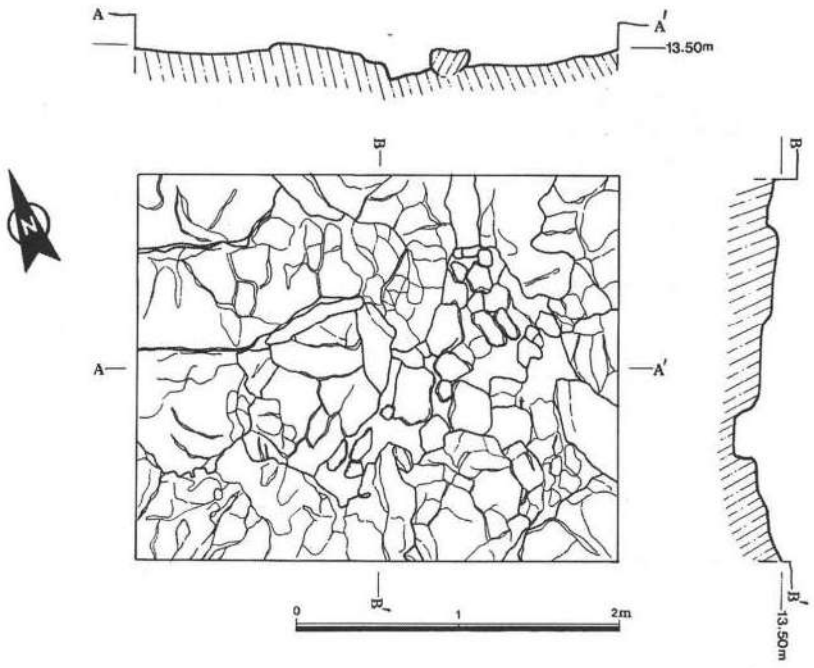
지석묘 상석은 유실되었으며 지석묘터와 매립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정비 ·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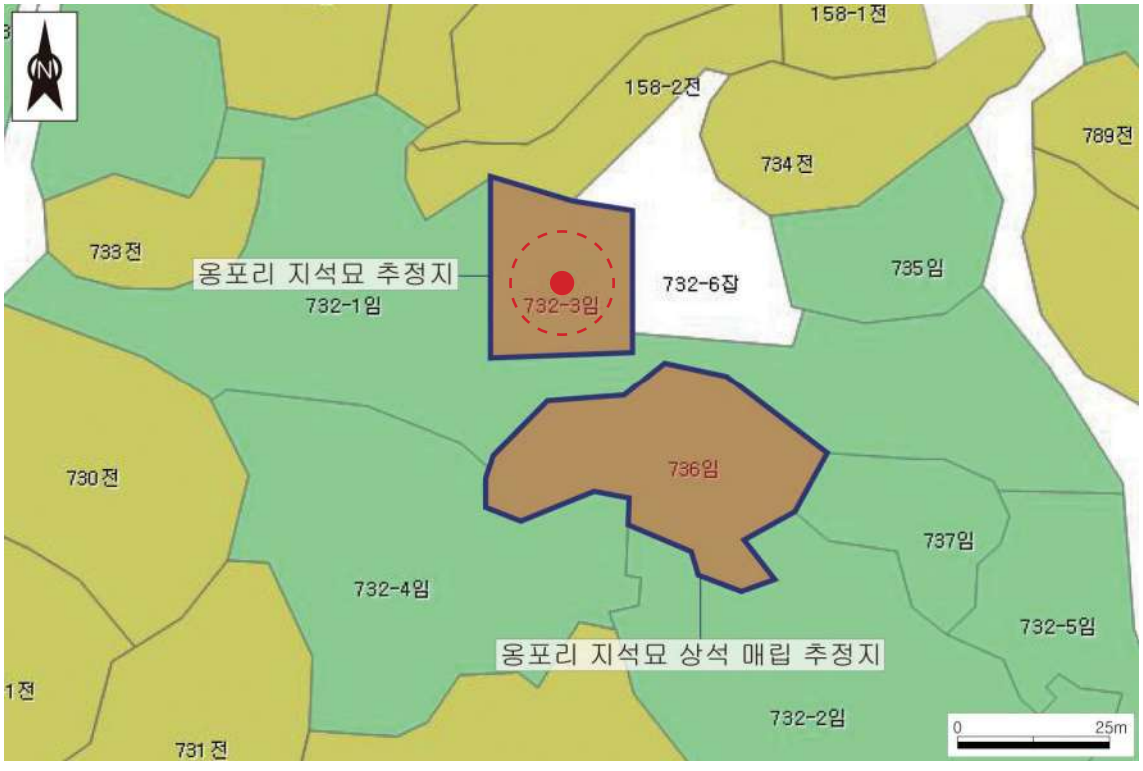
기존 보고되었던 옹포리 157번지는 현재 밭과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은 무문토기편이 다량으로 확인되는 유물산포지로 확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물산포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 도면 56-① 웅포리 지석묘 분포도 |



| 도면 56-② 옹포리 지석묘 하부 평면 및 단면 실측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



| 도면 56-③ 옹포리 지석묘 지적 현황도 |

57. 고산리 지석묘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1)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644번지
2) GPS 좌표 : N 33°18′31.08″, E 126°10′37.93″
3) 해발고도: 40m

나. 조사 내용

(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고산리 동북쪽 당산봉(唐山峰) 언저리에 무수한 사암제 대형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1985년 조사 당시 고인돌처럼 보이는 큰 바위돌 내부에서 석기 및 토기편 일부를 수습한 적이 있다.이 고인돌의 상석의 크기는 길이 300㎝, 폭 240㎝, 두께 50㎝이다. 지석은 상석의 북서쪽에 괴석으로 고여 있고 고임상태가 불안정하다. 이곳에서 수습된 석기는 대팻날이다. 박편을 이용, 날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연하여 성형한 것으로 날끝이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그 길이는 7.7㎝에 이른다. 이러한 유형의 석기는 대체로 탐라시대전기의 도내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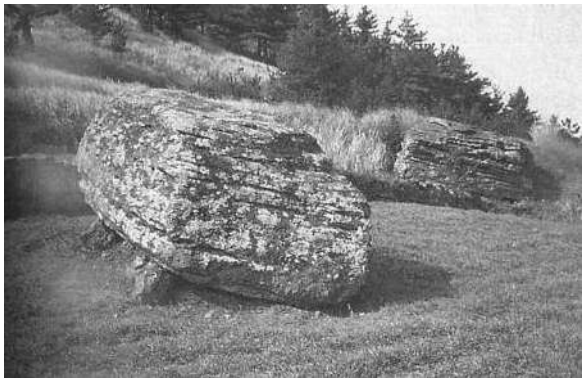


사진57–①. 1998년 고산리 지석묘



사진57–②. 1998년 고산리 지석묘 수습 유물

(2) 2015년 조사

고산리 당산봉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도로에서 한단 올라온 급경사가 완만해지는 곳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960m 이격되어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49cm, 단축 290cm, 두께 170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제형 또는 장방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고산리 지석묘 상석은 퇴적암계통으로 당산봉에 흔히 노출되어 있는 암질이다. 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1개(34×32cm)가 확인되며 상석과 동일한 암질의 할석재이다. 고산리 지석묘의 북쪽에서 지석묘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며 규모는 517×270×170~180cm이다.



| 사진57–③. 2015년 고산리 지석묘 (위에서) |



| 사진57–④. 2015년 고산리 지석묘 (동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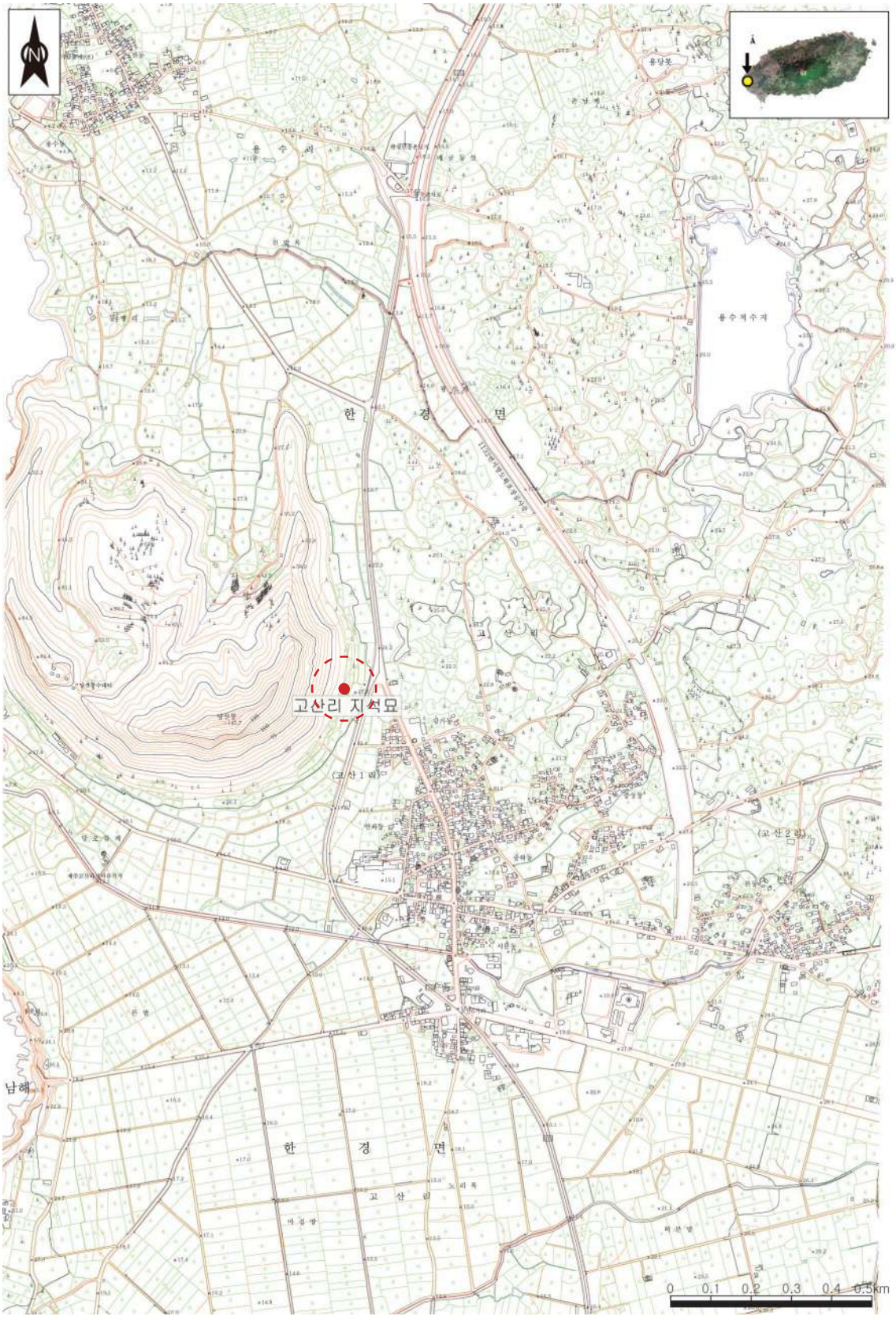
| 사진57–⑤. 2015년 고산리 지석묘 (북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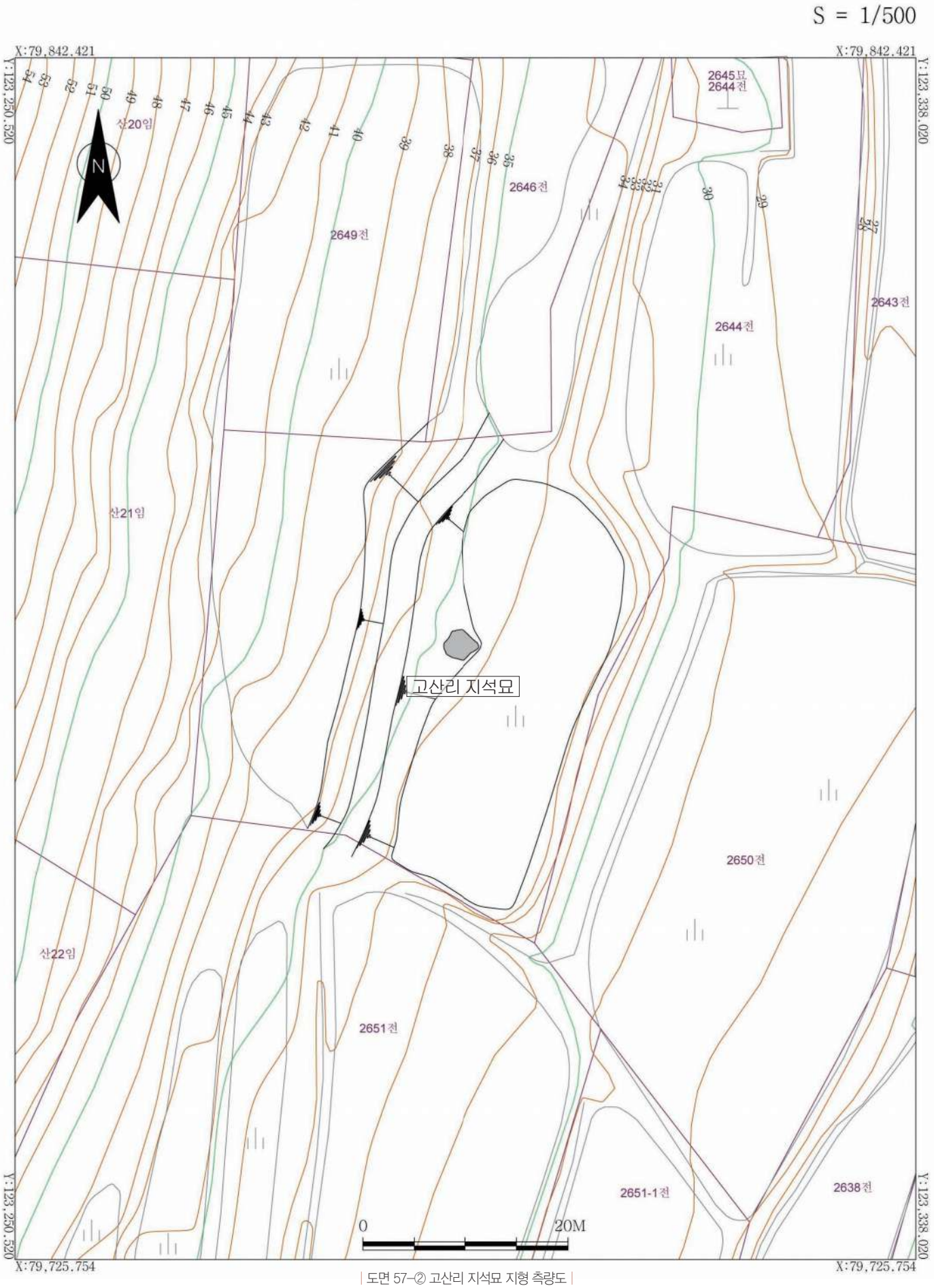
| 사진57–⑥. 2015년 고산리 지석묘 북쪽 추정 석재 |

참고문헌

①『북제구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④『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도면 57-① 고산리 지석묘 분포도 |



| 도면 57-② 고산리 지석묘 지형 측량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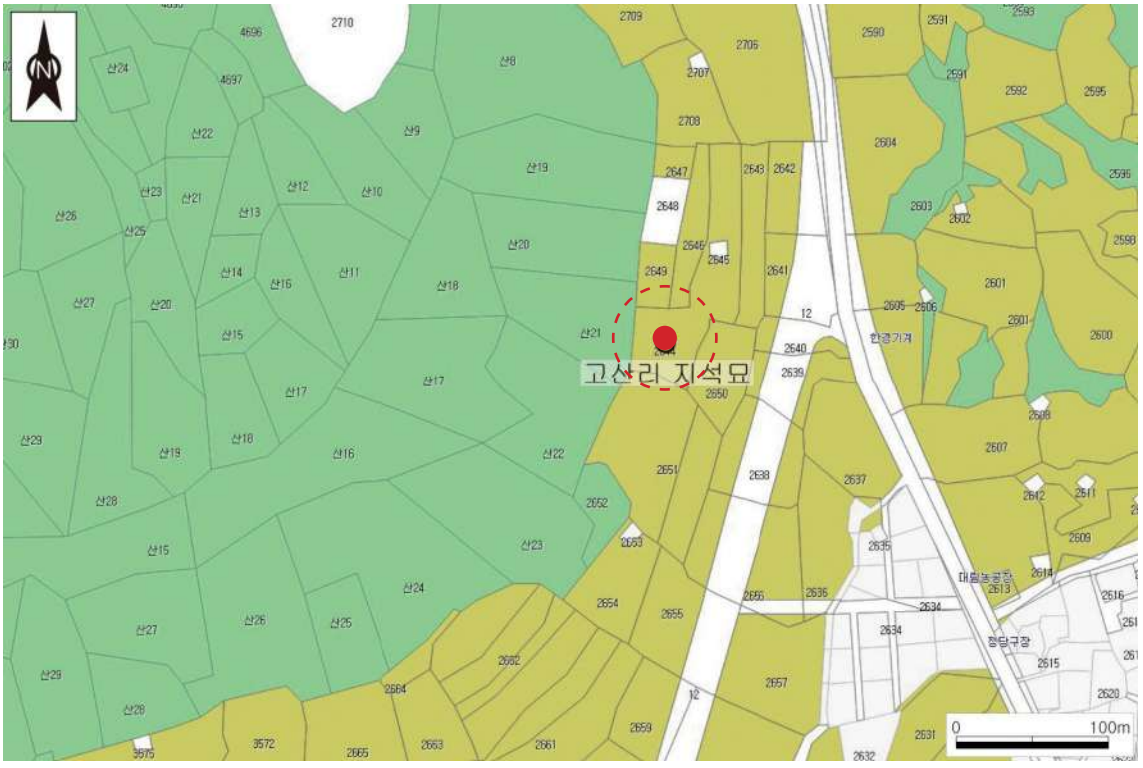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면을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에 상석과 유사한 석재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당산봉 하단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서 무문토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유물산포지로 판단된다.

2) 정비 · 활용계획

이 지석묘는 정확한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주변 석재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조사도 필요하다.



도면 57–③ 고산리 지석묘 지적 현황도

58. 우도 천진리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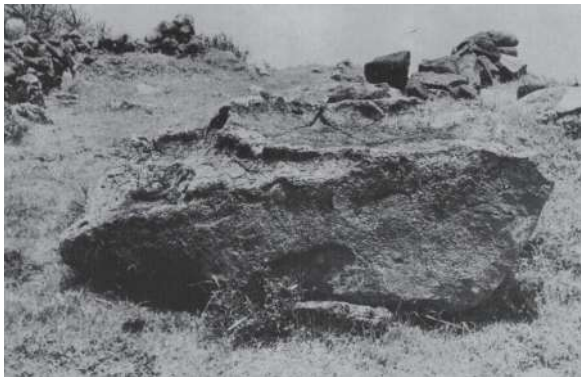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32-1(도로)
3) GPS 좌표 : N 33°29′29″, E 126°57′34″
4) 해발고도: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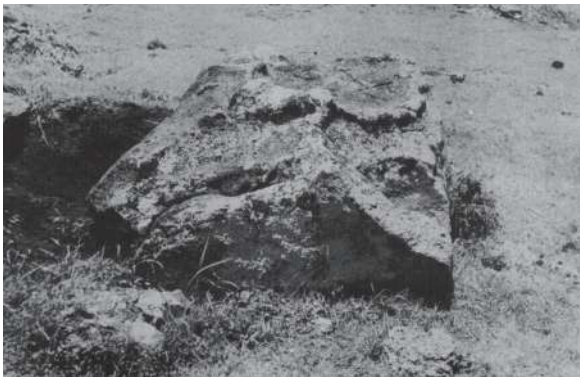
나. 조사 내용

(1) 제주의 선사유적(1986), 제주도유적(1986), 북제주군의 문화유적(1998)

우도(牛島)에서 성산일출봉을 마주보는 해안 절벽 위에 있으며, 상석은 대체로 길이 200㎝, 폭 150㎝, 두께 60㎝ 내외의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제주도 본섬의 한라산 주봉(主峰)을 향하는 동 · 서 방향이다. 현재 상석 북쪽에 1매, 그리고 동쪽에 상석이 비탈을 따라 다소 미끄러진 결과 드러난 납작한 지석 2매가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확실한 지석인지의 판단은 발굴조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 사진 58-① 1986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 (북에서) |



| 사진 58-② 1986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 (서에서) |



| 사진 58-③ 1998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 |



| 사진 58-④ 2011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 |

(2)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 –증보 제주시–(2011)

성산일출봉을 마주보는 해안 절벽위에 있으며 상석은 대체로 길이 200㎝, 폭 150㎝, 두께 60㎝ 내외의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제주도 본섬의 한라산 주봉을 향하는 동 · 서 방향이다. 현재 상석 북쪽에 1매, 그리고 동쪽에 상석이 비탈을 따라 다소 미끄러진 결과 드러난 납작한 지석 2매가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확실한 지석인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3) 2015년 조사

우도 천진항 동쪽의 우도봉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상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해발 6m의 절벽위에 자리하며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지석묘 상석의 규모는 장축 221cm, 단축 163cm, 두께 70cm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이다. 상석의 평 ·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상석의 윗면은 울퉁불퉁한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상석 아랫면의 아치형은 치석하였으며 상석의 측면은 하부 일부분만 치석하였다. 상석의 북쪽에서는 10~15cm 가량의 성혈이 3개 확인된다. 상석 하부에서는 40cm 내외의 석재 3개가 확인되는데 지석보다는 하부 시설과 관련된 석재로 판단된다.



사진 58–⑤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동에서)



사진 58–⑥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북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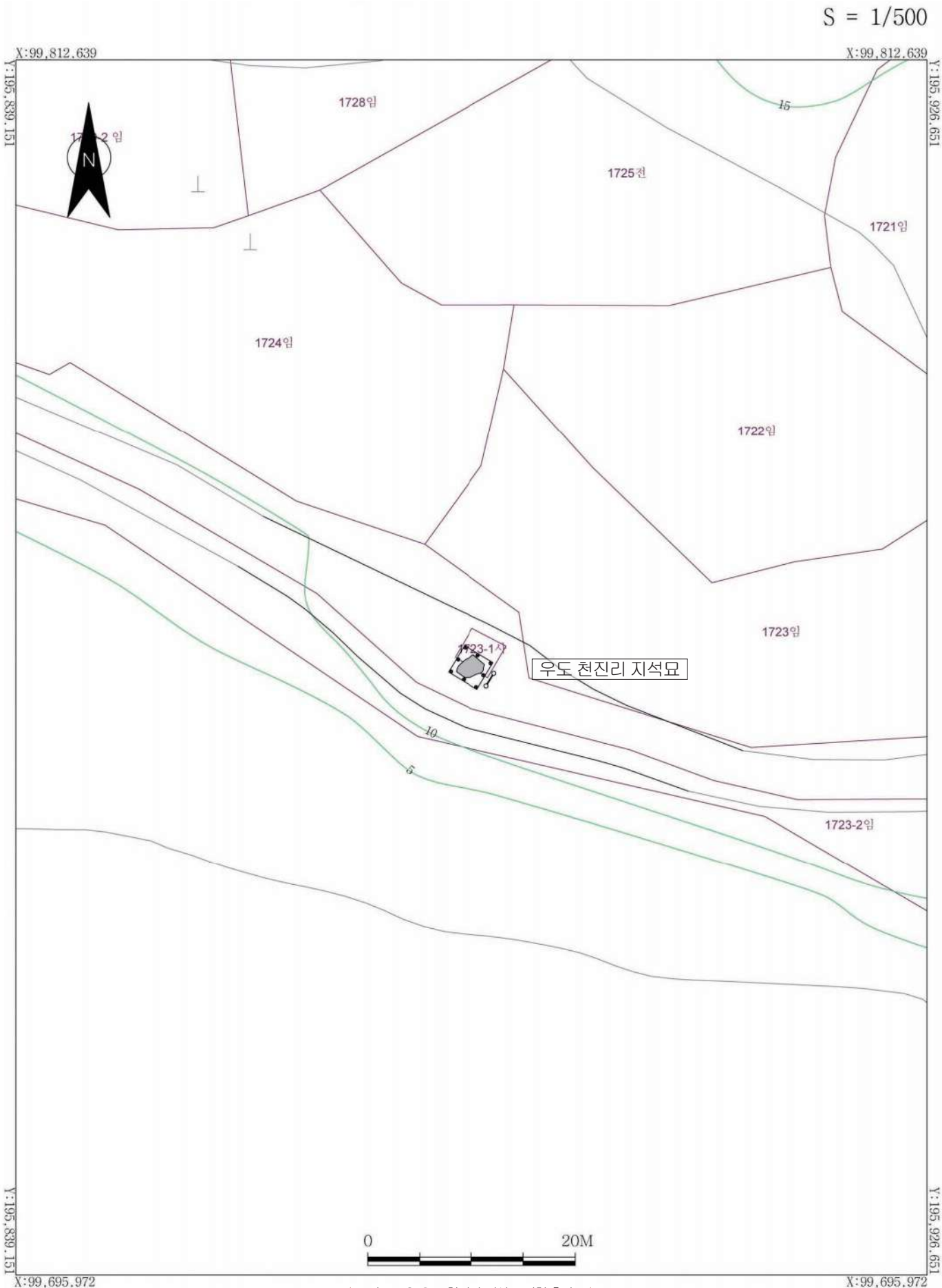
사진 58–⑦ 2015 우도 천진리 지석묘(서에서)



사진 58–⑧ 2015년 우도 천진리 지석묘(위에서)



| 도면 58-① 우도 천진리 지석묘 분포도 |



| 도면 58-② 우도 천진리 지석묘 지형 측량도 |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북제구군의 문화유적(Ⅰ)』, 1998,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도 고인돌(支石墓) 실측 · 현상조사 보고서』, 2000, 제주대학교박물관. ⑤『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⑥『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가 해안도로 한가운데 있으며 아무런 조사 없이 도로를 포장하였다. 보호책은 있으나 사고의 위험이 있고 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운 안내판이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지석묘는 도로 중앙에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보존 및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이 지석묘는 또한 학술조사 후 문화재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도면 58–③ 우도 천진리 지석묘 지적 현황도 |

59.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60번지 일원
3) GPS 좌표 : N 33°57′53.57″E 126°17′09.29″
4) 해발고도: 24m

나. 조사 내용

(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이 고인돌군은 영흥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공동묘지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해안과는 불과 2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중 대표적인 고인돌 유사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인돌 1호: 상석의 크기는 길이 225㎝, 폭 180㎝, 두께 120~150㎝이다. 장축의 방향은 동서이다. 상석은 남쪽이 20㎝가량 들려져 있다. 상석은 타원형이다. 상석 밑 괴석은 지석으로 볼 수 없고 상석에서 떨어져 나간 괴석들이 보인다.

2) 고인돌 2호: 해안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상석의 크기는 길이 470㎝, 폭 390㎝, 두께 280~310㎝이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직사각형에 가깝다. 지석은 없고 상석의 밑부분은 모두 지면과 닿아 있는 상태이다.

3) 고인돌 3호: 상석의 크기는 길이 420㎝, 폭 180㎝, 두께 80~100㎝이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장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사진 59–①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1호(동에서)



사진 59–②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1호(서에서)



| 도면 59-①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 분포도 |

4) 고인돌 4호: 상석은 길이 230㎝, 폭 180㎝, 두께 80~100㎝이다. 지석은 상석의 남쪽에 길이 20㎝의 괴석으로 고여 있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2) 문화유적분포지도–증보 제주시–(2011)

이 고인돌군은 영흥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공동묘지의 남쪽에 있으며 해안과는 불과 20m가량 떨어진 곳에 모두 위치한다.
지석묘(1) 상석의 길이 225㎝, 폭 180㎝, 두께 120~150㎝이다. 장축의 방향은 동서이다. 상석은 남쪽이 20㎝가량 들려져 있다. 상석은 타원형이다.
지석묘(2) 상석의 길이 420㎝, 폭 180㎝, 두께 80~100㎝이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장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지석묘(3) 상석의 길이 230㎝, 폭 180㎝, 두께 80~100㎝이다. 지석은 상석의 남쪽에 길이 20㎝의 괴석으로 고여 있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지석묘(4) 상석의 길이 465㎝, 폭 240㎝, 두께 90~100㎝이다. 지석은 보이지 않으나 매우 안정되게 놓여 있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장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3) 2015년 조사



사진 59–③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2호(남에서)



사진 59–④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2호(북에서)



사진 59–⑤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3호(동에서)



사진 59–⑥ 2015년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4호(남에서)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추자면 대서리 봉굴레산의 서쪽으로 대서리에서 봉굴레산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묘지 옆에 우물과 입석이 있는 곳 일대이다. 지석묘로 추정되는 상석은 4기가 확인되며 기존 조사 내용과 일치한다.

참고문헌

①『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②『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공동묘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지석묘 상석과 유사한 석재들이 산재해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학술조사를 통해 지석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과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도면 59–② 추자도 대서리 지석묘군 지적 현황도 |

60. 광령2리 지석묘군

가. 개요

1) 지정현황 : 비지정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605번지 일원
3) GPS 좌표 : N 33°28′28.14″, E 126°26′29.43″
4) 해발고도: 456m

나. 조사 내용

(1)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선사 · 역사–(1998), 북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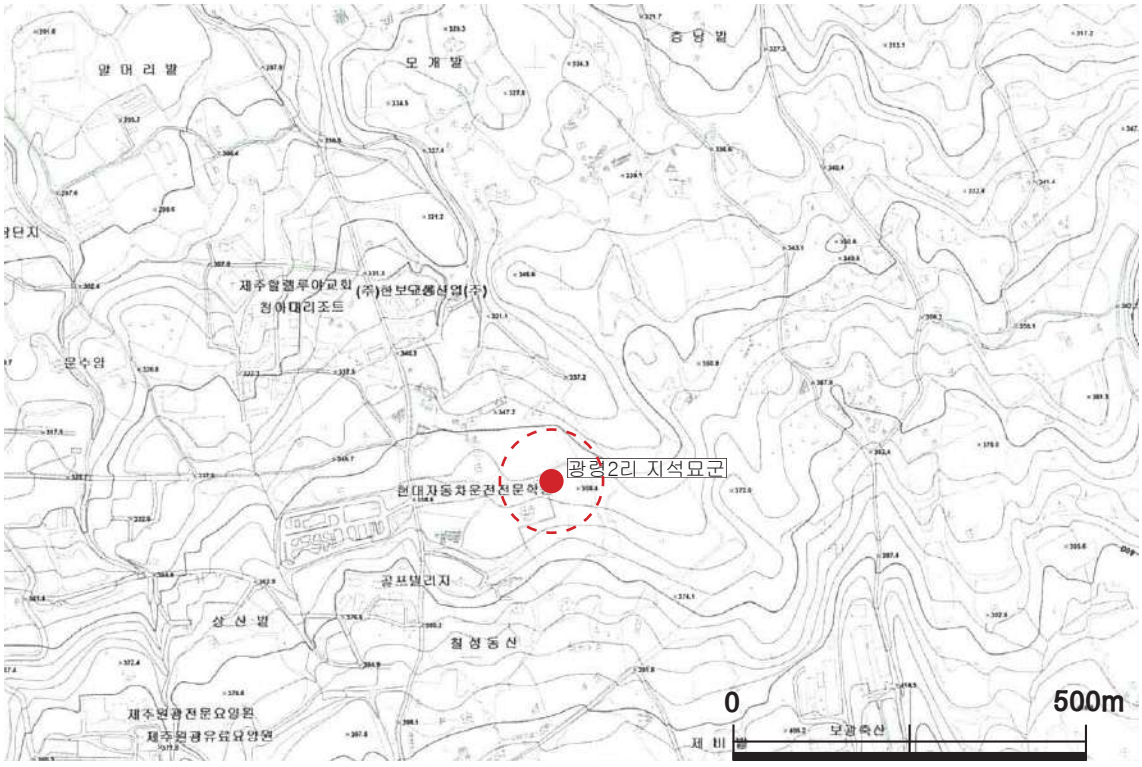
광령2리 제주–서귀 서부산업도로 도로변에 위치한 길로 중산간으로 2㎞정도 올라가면 양돈단지가 있다. 이 양동단지 남쪽으로 나즈막한 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 능선의 남쪽 자락의 다소 올라온 곳에서 3~4기의 추정고인돌이 있다. 그 중 2기의 고인돌을 소개하면 가장 큰 고인돌은 상석의 크기가 길이 320㎝, 폭 210㎝, 두께 90~100㎝로, 그 평면은 대체로 타원형을 하고 있다. 지석은 상석하부 다섯 귀퉁이에 지석을 고였는데 특이한 것은 상석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지석은 모두 괴석이며 높이 30~40㎝내외이다. 다른 하나의 고인돌은 앞서 고인돌과 2m정도 떨어져 있으며 상석의 크기가 길이 220㎝, 폭 120㎝, 두께 60~75㎝로, 그 평면은 대체로 장타원형을 하고 있다. 지석은 상석하부 곽형태로 고여 있다. 대체적으로 곽의 크기는 장 120㎝, 폭 50㎝ 내외이다. 판석간의 커다란 지석 2매가 양쪽으로 받치고 그 사이에 소형 할석이 1매가 고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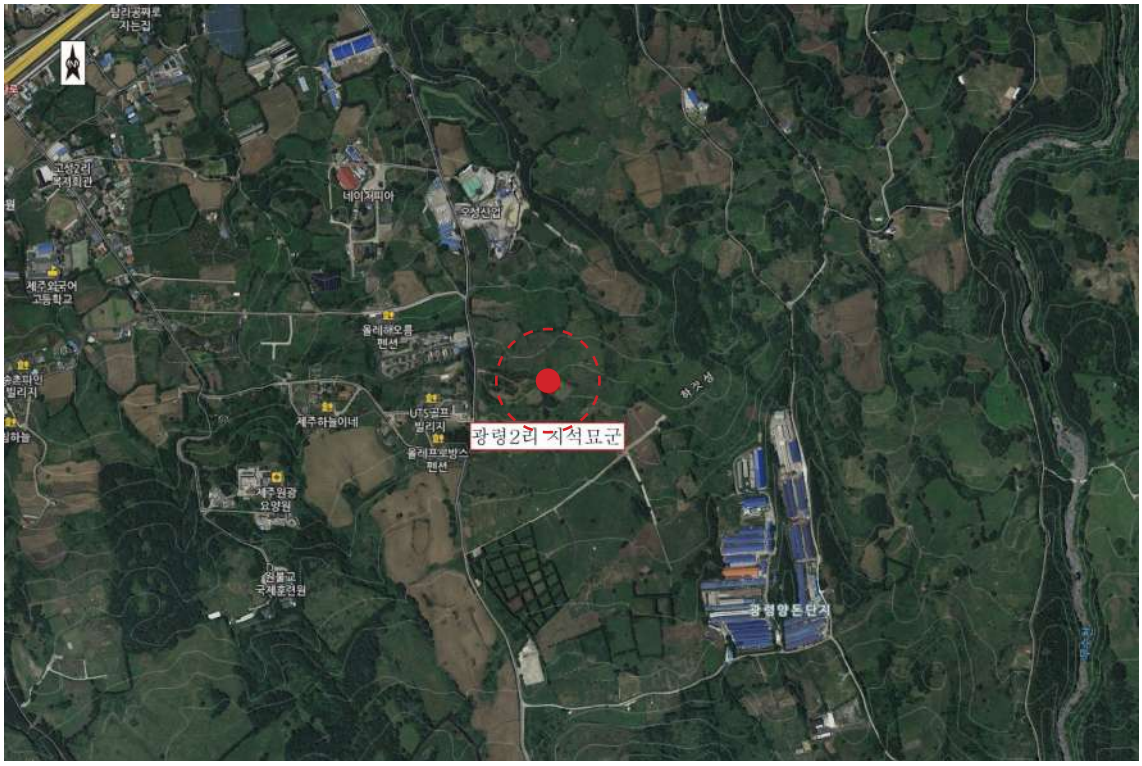
사진 60–① 1998년 광령2리 지석묘군



사진 60–② 1998년 광령2리 지석묘군



| 도면 60-① 광령2리 지석묘군(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증보판) |



| 도면 60-② 광령2리 지석묘군 위성사진(출처 naver) |

(2) 2015년 조사

금번 조사 결과 기 조사 내용과 동일한 석재를 확인하였으며 주변에 유사한 석재들이 산재해 있다.

참고문헌

①『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②『북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2.

다. 실태조사 및 정비 · 활용계획

1) 현황과 실태

지석묘는 축산단지 남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지석묘 상석과 유사한 석재들이 산재해 있다.

2) 정비 · 활용계획

학술조사를 통해 지석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 60-③ 2015년 광령2리 지석묘군



사진 60-④ 2015년 광령2리 지석묘군

여 백

VI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여 백

Ⅵ.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안내판 · 이정표 설치, 안내소 · 해설사 운영방안 등)

1. 실태분석

제주도 기념물 제2호인 지석묘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27기를 대상으로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항목으로써 관광시설 실태와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였다.

(표 1) 제주도 기념물 제2호 지석묘 문화관광 실태조사[1]

번호	유적 명칭	탐방 코스	주변 문화 유산 관광 연계	관광 안내소	설명 표지판 내용	이정표	해설사 운영	전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비고
2-1	용담동 지석묘 1호	×	○	×	△	×	×	×	×	×	용담동 선사유적, 용두암 해안도로
2-2	용담동 지석묘 2호	×	○	×	△	×	×	×	×	×	
2-3	용담동 지석묘 3호	×	×	×	△	×	×	×	×	×	
2-4	용담동 지석묘 4호	×	×	×	△	×	×	×	×	×	
2-5	용담동 지석묘 5호	×	×	×	△	×	×	×	×	×	
2-6	용담동 지석묘 6호	×	×	×	△	×	×	×	×	×	
2-7	오라동 지석묘 1호	×	×	×	△	×	×	×	×	×	
2-8	도련동 지석묘 1호	×	△	×	△	×	×	×	×	×	삼양동 선사유적, 원당사지, 검은모래해변
2-9	도련동 지석묘 2호	×	△	×	△	×	×	×	×	×	
2-10	삼양동 지석묘 1호	×	△	×	△	×	×	×	×	×	
2-11	외도동 지석묘 1호	×	△	×	△	×	×	×	×	×	월대천, 연대마을
2-12	외도동 지석묘 2호	×	△	×	△	×	×	×	×	×	
2-13	외도동 지석묘 3호	×	△	×	△	×	×	×	×	×	
2-14	외도동 지석묘 4호	×	△	×	△	×	×	×	×	×	
2-15	외도동 지석묘 5호	×	△	×	△	×	×	×	×	×	
2-16	광령리 지석묘 1호	×	×	×	△	×	×	×	×	×	
2-17	광령리 지석묘 2호	×	×	×	△	×	×	×	×	×	
2-18	광령리 지석묘 3호	×	×	×	△	×	×	×	×	×	
2-19	광령리 지석묘 4호	×	×	×	△	×	×	×	×	×	
2-20	광령리 지석묘 5호	×	×	×	△	×	×	×	×	×	
2-21	광령리 지석묘 6호	×	×	×	△	×	×	×	×	×	
2-22	하귀리 지석묘 1호	×	×	×	△	×	×	×	×	×	
2-23	하귀리 지석묘 2호	×	×	×	△	×	×	×	×	×	
2-33	광령리 지석묘 7호	×	×	×	△	×	×	×	×	×	
2-34	광령리 지석묘 8호	×	×	×	△	×	×	×	×	×	
2-35	광령리 지석묘 9호	×	×	×	△	×	×	×	×	×	
2-36	광령리 지석묘 10호	×	×	×	△	×	×	×	×	×	

1) 지석묘 문화관광 실태조사의 항목별 평가기준과 관련, 있음(○)과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설명표지판 내용의 경우 양호(○), 그저 그렇다(△),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시설 실태의 경우에는 관광안내소, 설명표지판(안내판) 내용, 이정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조사하였다. 체험 및 프로그램 실태의 경우에는 탐방코스, 주변 문화유산 연계코스, 해설사 운영, 전시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였다(표 1).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제주도 기념물 제2호 지석묘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의 실태는 설명 표지판 1개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탐방코스가 단 1곳도 없었다. 주변 문화유산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 부재는 물론 관광안내소, 이정표, 해설사, 전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부재 등 문화관광의 기본부터 갖춰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제주도 기념물 지석묘 문화관광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와 함께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지석묘에 대해서도 기념물로 지정된 지석묘 적용방법을 인용하였다(표 2).

(표 2) 제주도 비지정 지석묘 문화관광 실태조사

번호	유적 명칭	탐방 코스	주변 문화 유산 관광 연계	관광 안내소	설명 표지판 내용	이정표	해설사운영	전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비고
1	용담동 지석묘 3호	×	×	×	×	×	×	×	×	×	
2	용담동 지석묘 5호	×	×	×	×	×	×	×	×	×	
3	오라동 지석묘 2호	×	×	×	×	×	×	×	×	×	
4	도남동 지석묘	×	×	×	×	×	×	×	×	×	
5	도련동 지석묘 3호	×	×	×	×	×	×	×	×	×	
6	외도동 지석묘 6호	×	×	×	△	×	×	×	×	×	
7	외도동 지석묘 7호										유실
8	외도동 지석묘 8호										유실
9	외도동 지석묘 9호										유실
10	외도동 지석묘 10호										유실
11	외도동 지석묘 11호										유실
12	외도동 지석묘 12호										유실
13	광령리 지석묘 11호	×	×	×	×	×	×	×	×	×	
14	광령리 지석묘 12호										유실
15	광령리 지석묘 13호										유실
16	광령리 지석묘 14호										유실
17	광령리 지석묘 15호										유실
18	광령리 지석묘 16호										유실
19	광령리 지석묘 17호										유실
20	광령2리 지석묘군	×	×	×	×	×	×	×	×	×	
21	하귀리관전동지석묘	×	×	×	×	×	×	×	×	×	
22	하귀리 지석묘	×	×	×	×	×	×	×	×	×	
23	고내리 지석묘										유실
24	곽지리 지석묘	×	×	×	×	×	×	×	×	×	
25	웅포리 지석묘										유실
26	고산리 지석묘	×	×	×	×	×	×	×	×	×	

(표 2)에서 나타났듯이, 비지정 지석묘의 경우는 문화관광이라는 이름을 꺼낼 수가 없다. 기념물 지석묘 보다 더 열악하다 못해 문화관광 실태 자체가 0점인 셈이다. 그 흔한 설명표지판 조차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탐방코스, 주변 문화유산관광 연계, 관광안내소, 이정표, 해설사, 전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2.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

1) 설명 표지판(안내판) 내용 개선 및 이정표 증설

– 제주지역 고인돌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 상품화 가능성은 일단 고인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부터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고인돌 안내판(설명 표지판)을 탐방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 내용을 대폭적으로 개선 및 증설함과 동시에 고인돌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주변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폭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임.

– 고인돌 안내판(설명 표지판)의 경우, 현행처럼 천편일률적인 고인돌 설명문을 싣는 것을 배제하고, 해당 지역 고인돌의 사진을 싣도록 하되 덮개돌, 무덤방, 굄돌, 돌무지, 뚜껑돌 등 고인돌의 각 부분별 명칭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길지 않은 설명문을 실을 수 있어야 탐방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이정표의 경우, 사통팔달로 사방 분산되어 있는 제주도내 동선의 특성상 고인돌 이정표는 관광지 이정표에 가리거나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인돌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이를 활용한 특색 있는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인돌 이정표는 힐링 치유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보관광 또는 올레길 걷기 탐방객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2) 지역별 대표적인 탐방코스 제안

–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모두를 탐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 대표적인 고인돌군을 선정하고 이를 탐방코스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용담동지역, 삼양동지역, 외도동지역, 광령리지역 등

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고인돌 탐방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3) 고인돌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문화관광해설사는 고인돌의 이해 증진 및 가치 제고라는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이너(edutainer)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양성은 제주지역 고인돌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제주도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는 고인돌 부분은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고인돌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는 1명도 없는 실정임.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제주지역 내 관련 전문연구 기관인 제주대 박물관을 비롯하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국내의 관련 전문연구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해설사 교재개발 등 교육콘텐츠 개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임.

4) 대상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대상별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 개발로 세분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 차원에서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 화순고인돌유적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 |

구분	대상	화순고인돌유적 교육콘텐츠(체험프로그램)	비고
대상별	가족단위	우리 가문의 고인돌 만들기 • 1 박 2일 어로체험 • 농사짓고 수확하기 • 비파형동검 만들기 • 토기 빚어 굽기	가족 간의 협동과 문제해결, 문화에 대한 이해
		• 1박 2일 고인돌 캠프 • 2박 3일 고인돌 캠프 • 교사를 위한 고고학 캠프 • 직장인을 위한 고인돌 캠프	
	유치원생	•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나는 고인돌 멋쟁이 • 색연필로 내마음 표현하기 • 선사시대 복장입고 마을구경하기	자기중심, 상상력, 호기심
	초등학생	• 고인돌 축조체험 • 힘을 모아 고인돌을 옮기자 • 돌화살촉 만들어 사냥하기 • 농경청동문화 탁본하기	사회성, 상호소통 가능, 언어능력
	중고등학생	• 나도 고고학자 • 석기제작과 사용에 대한 스팀교육 • 흙과 불의 조화, 토기소성 • 고인돌 축조 과학원리	자아형성, 추상적 사고
	일반인	• 현장견학 • 문화유산 강좌 • 문화유산 답사	
학교연계	학교	• 토요 방과후 학교 • 주중 방과후 학교 • 토요문화학교	
지역축제	지역주민	• 고인돌 축제 • 고인돌 마을의 제례 의식 • 고인돌 끌기 대동한마당	

※출처: 신경숙(2014),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교육콘텐츠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스토리텔링 개발

– 고인돌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제작하여 이야기하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탐방객들의 이해를 돕고 고인돌에 대한 의미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스토리텔링 개발은 생활 속의 고인돌로 재해석하는 계기도 이룰 수 있음.

☞ 참고 : 생활 속의 고인돌로 재해석

"그냥 바위돌이라고 보는 고인돌에 대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이를 어떻게 보아왔고, 그들의 삶속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다. 다시 말해 고인돌에 얽힌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스토리텔링 소재로 삼아 과거의 고인돌과 현재의 고인돌 전설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단조롭고 재미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고인돌에 얽힌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는 설화로 풀어내고, 고인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석과 이동이 불가사의한 고인돌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마고할머니를 등장시켜 아주 간단히 해결하였다. 고인돌 축조의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여신을 통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매우 흥미롭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출처 : 이영문, 2010, 고인돌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그 영향, 마한백제문화, 18, 63-89.)

6) 지역주민 인식제고 교육 및 네트워크 통합체계 구축

–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고인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고인돌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관협력의 네트워크 통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그럼으로써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며 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7) 주변 문화유산 관광지 연계코스 제안

–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인 화산섬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2014년 기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주도 기념물 제2호인 고인돌을 탐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경우 제주의 고인돌의 가치 제고라는 기대효과가 클 것임.

– 따라서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유명관광지와 고인돌 유적지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용담동 지석묘와 용연관광지, 외도동 지석묘와 월대천 관광지, 삼양동 지석묘와 삼양해수욕장 관광 등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8) 제주시 홈페이지 콘텐츠 보완

– 21세기 첨단과학시대를 맞아 홍보의 최전선으로써 SNS 개발과 이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홈페이지에는 고인돌의 존재와 함께 이의 가치를 홍보하는 공간이 없음.

– 기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적극 보완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 고인돌의 가치와 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VII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여 백

Ⅶ.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을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1. 실태분석

제주도 기념물 제2호인 지석묘(Dolmen, 고인돌)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27기를 대상으로 마을 기반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마을 기반시설로서는 접근성, 주차시설, 재난방재시설, 주변상업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지석묘를 탐방하는 관람객들의 편의시설로는 안내시설인 설명표지판(안내판)을 비롯하여 화장실, 음수대, 쉼터, 노약자 및 장애인 지원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표 1).

(표 1) 제주도 기념물 제2호 지석묘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실태조사[1)]

번호	유적 명칭	접근성	주차장	설명 표지판	화장실	음수대	쉼터	노약자 · 장애인 지원시설	재난 방재 시설	주변 상업 시설	비고
2-1	용담동 지석묘 1호	②	○	○	○	○	○	×	○	○	학교
2-2	용담동 지석묘 2호	②	×	○	×	×	×	×	×	○	주택가
2-3	용담동 지석묘 3호	③	×	×	×	×	×	×	×	×	공항
2-4	용담동 지석묘 4호	①	○	○	×	×	×	×	×	○	공항
2-5	용담동 지석묘 5호	①	○	○	×	×	×	×	×	○	주택가
2-6	용담동 지석묘 6호	①	×	○	×	×	×	×	×	○	주택가
2-7	오라동 지석묘 1호	①	×	○	×	×	×	×	×	×	경작지
2-8	도련동 지석묘 1호	①	○	○	○	○	○	○	○	○	공원
2-9	도련동 지석묘 2호	①	○	○	○	○	○	○	○	○	공원
2-10	삼양동 지석묘 1호	①	○	○	○	○	○	○	○	○	공원
2-11	외도동 지석묘 1호	①	×	○	×	×	×	×	×	×	경작지
2-12	외도동 지석묘 2호	②	×	○	×	×	×	×	×	×	경작지
2-13	외도동 지석묘 3호	①	×	○	×	×	×	×	×	×	경작지
2-14	외도동 지석묘 4호	②	×	○	×	×	×	×	×	×	경작지
2-15	외도동 지석묘 5호	③	×	○	×	×	×	×	×	×	경작지
2-16	광령리 지석묘 1호	①	×	○	×	×	×	×	×	×	경작지
2-17	광령리 지석묘 2호	①	×	○	×	×	×	×	×	×	경작지
2-18	광령리 지석묘 3호	②	×	○	×	×	×	×	×	×	경작지
2-19	광령리 지석묘 4호	②	×	○	×	×	×	×	×	×	경작지
2-20	광령리 지석묘 5호	①	×	○	×	×	×	×	×	×	경작지
2-21	광령리 지석묘 6호	②	×	○	×	×	×	×	×	×	경작지
2-22	하귀리 지석묘 1호	①	×	○	×	×	×	×	×	×	주택가
2-23	하귀리 지석묘 2호	①	×	○	×	×	×	×	×	×	학교
2-33	광령리 지석묘 7호	①	×	○	×	×	×	×	×	×	경작지
2-34	광령리 지석묘 8호	②	×	○	×	×	×	×	×	×	경작지
2-35	광령리 지석묘 9호	②	×	○	×	×	×	×	×	×	경작지
2-36	광령리 지석묘 10호	②	×	○	×	×	×	×	×	×	경작지

1) 지석묘 실태조사 평가항목 기준과 관련, 〈접근성〉의 경우 ①양호(차량과 보도 이용 가능) ②도보로만 접근 가능 ③도보 접근이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항목의 경우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무에 따라 있음(○),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비고의 경우는 지석묘가 소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위치를 기록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지석묘가 존재하고 있는 마을의 기반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설명 표지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쉼터, 노약자 및 장애인 지원시설, 재난방재시설의 경우 학교 구내나 주택단지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지석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석묘에는 이들 시설들이 아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제주도 차원에서 1991년 8월26일 용담동 지석묘 1호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 마을별로 산재하고 있는 지석묘를 제주도 기념물 제2호로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는 방치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접근성 차원에서 볼 때 지석묘 대부분이 도보로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관리의 손길이 체계적으로 이어질 경우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표 2) 제주도 비지정 지석묘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실태조사

번호	유적 명칭	접근성	주차장	설명 표지판	화장실	음수대	쉼터	노약자 · 장애인 지원시설	재난 방재 시설	주변 상업 시설	비고
1	용담동 지석묘 3호	③	×	o	×	×	×	×	×	×	주택가
2	용담동 지석묘 5호	①	×	o	×	×	×	×	×	×	사적지
3	오라동 지석묘 2호	②	×	o	×	×	×	×	×	×	경작지
4	도남동 지석묘										
5	도련동 지석묘 3호	①	o	o	×	×	×	×	×	o	사적공원
6	외도동 지석묘 6호	②	×	o	×	×	×	×	×	×	경작지
7	외도동 지석묘 7호										유실
8	외도동 지석묘 8호										유실
9	외도동 지석묘 9호										유실
10	외도동 지석묘 10호										유실
11	외도동 지석묘 11호										유실
12	외도동 지석묘 12호										유실
13	광령리 지석묘 11호	②	×	×	×	×	×	×	×	×	경작지
14	광령리 지석묘 12호										유실
15	광령리 지석묘 13호										유실
16	광령리 지석묘 14호										유실
17	광령리 지석묘 15호										유실
18	광령리 지석묘 16호										유실
19	광령리 지석묘 17호										유실
20	광령2리 지석묘군	②	×	×	×	×	×	×	×	×	경작지
21	하귀리관전동 지석묘	②	×	×	×	×	×	×	×	×	조간대
22	하귀리 지석묘 3호	②	×	×	×	×	×	×	×	×	경작지
23	고내리 지석묘										유실
24	곽지리 지석묘	②	×	×	×	×	×	×	×	×	주택가
25	옹포리 지석묘										유실
26	고산리 지석묘	②	×	×	×	×	×	×	×	×	경작지

모색하는 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지석묘에 대해서도 기념물 지석묘에 적용한 조사 방법을 인용하였다(표 2).

(표 2)에서 나타났듯이, 비지정 지석묘의 경우는 거의 모든 시설이 제주도 기념물 지석묘에 비할 바 없이 마을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모두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표지판조차 없는 지석묘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주차시설을 비롯하여 화장실, 음수대, 쉼터, 노약자 및 장애인 지원시설, 재난방재시설 등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기념물 지석묘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부분은 대개가 도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문화재로서 가치 제고 방안

1) 인프라 구축

⑴ 전문 인력 확충

– 관람객들에게 문화재로서 고인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

– 전문 인력은 고고학, 인문학, 역사 등 역사문화 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거나 교육 현장과 고대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 인력은 지석묘 유적의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의 연대 강화,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⑵ 마을 기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구비

– 문화행정으로서 고인돌 유적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함.

– 무엇보다 마을 기반시설로써 주차장을 비롯하여 설명 표지판과 화장실, 음수대, 쉼

터, 노약자 및 장애인 지원시설, 재난방재 시설 등은 고인돌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로서 문화재 경관에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시설들은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은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우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고인돌 유적에 관한 지원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⑶ 위협요소 관리시스템 구축

–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고인돌의 가치 제고에 위협을 주고 있는 환경요인들을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 고인돌 유적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위협요인으로는 화재, 풍수해, 도난, 기후변화, 지진 등을 우려할 수 있으며, 최근들어 예고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의 경우 고인돌 유적의 원형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적지 주변에 배수시설 등 안전 보강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2) 고인돌 공원조성

(안내소 포함 : 체험 공간, 교육연구 공간, 지원 공간 기능)

⑴ 장기적 방안 : 고인돌 공원조성

– 고인돌 공원은 역사문화 유적의 전시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키며 우리의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고인돌 유적의 적극적인 활용과 야외 전시 및 체험학습의 교육적 기능을 부여하고 고인돌 유적지의 선사시대 생활체험 등 역동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⑵ 중기적 방안 : 안내소 설치

– 현재 제주도 기념물 지석묘에는 설명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지석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고인돌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되, 중기적으로는 지석묘들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안내소를 설치함으로써 탐방객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센터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안내소 설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석묘들이 밀집된 제주시 용암동, 외도동과 애월읍 광령리 일대 등을 추천할 수 있음.

| 참고 1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공원 현황 |

구분	공간구성		주요 내용
고인돌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강당, 기획전시실, 수장고 전실
	2층	상설전시실	– 매산 마을 사람들의 삶과 죽음(연출 공간) – 고창고인돌에 대한 이해(설명 공간) – 우리나라 및 세계의 선사문화 이해(이해 공간)
	3층	체험공간	– 선사인의 생활문화 체험 : 불 지피기, 암각화 새겨보기, 움집 만들기, 사진촬영 체험
야외 공간	전시마당	우리나라 묘제양식의 변천사	– 돌무덤(서관묘), 지석묘, 고창의 지석묘, 철기시대의 묘제양식
	체험마당	움집,목책 등	– 원형광장 : 원형광장을 설치, 각종 선사시대 관련 행사 및 이벤트를 주최 – 고인돌 운반해보기 : 통나무 위에 Y자형 운반대, 대형상석 등을 시설하고 관람객이 직접 운반해 볼 수 있도록 함. – 나만의 고인돌 : 고인돌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소규모 돌들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함.
	선사마을 마당	고인돌 운반시설, 각종 행사 및 놀이 공간	– 선사마을 입구에는 선돌과 당산나무 등을 설치, 마을 주변에는 목책을 설치 – 마을 중심부에는 원형 및 방형 움집, 망루와 가축우리 등을 자연스럽게 배치 – 야외에는 노지와 토기제작, 석기 제작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치

※ 출처 : 문화재청(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보고서

| 참고 2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조성계획 |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및 전시	고인돌 역사에 관한 교육 및 고인돌 모형 관람, 고인돌에 대한 영화관람, 컴퓨터 센터, 고인돌 시대 초화류 모형관찰
연구	고인돌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개발
고인돌 채석 및 축조 체험	탐방객이 고인돌 채석 및 고인돌 축조과정을 체험
선사시대 생활체험	선사시대 당시의 마을과 생활상을 복원하여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마을을 조성. 고인돌공원 내에 생활체험장을 조성하여 이벤트성의 행위를 경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
공연	단군 탄생설화 연극, 지역 전통문화공연, 어린이 인형극, 돌맨 매직쇼(전문 마술사에 의한 신비한 마술의 세계), 원시 난타공연(원시인들에 의한 원시 타악공연), 열린 놀이마당 행사(퀴즈 원시탐험, 돌맨 댄스 경연대회, 돌맨 가족노래자랑, 기타 레크리에이션 등).
이벤트 활동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 활동 계획
세계거석문화 교육 및 전시활동	세계 거석 및 고인돌을 전시하여 세계거석문화를 교육
야외교육 및 학습	고인돌 선사유적지의 고인돌 및 체석장 교육 및 전시
여가	주변 경관 감상, 주변 산책, 소규모 단체식사 및 환담, 캠핑 및 하이킹, 사진 및 비디오 기념촬영, 유아놀이 등
자연학습	고인돌공원 내 고증을 통한 선사시대 수림복원 및 수목원 조성, 고인돌 선사유적지 내 자연생태 식물관찰.

※ 출처 : 화순군.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2014), 화순고인돌유적의 지속가능한 활용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⑶ 단기적 방안 : 지석묘 주변 환경 정리

– 현재 제주도 기념물 지석묘에는 철책으로 지석묘를 보호하고 있으나, 이를 관람하기 위한 진입로가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고인돌 공원 조성을 위한 단기적 수순으로 우선, 지석묘 철책을 중심으로 잔디밭을 조성하고 진입로부터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지석묘 접근성을 놓고 볼 때, 학교나 주택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 지석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석묘들이 경작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이 경작지를 무단 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관람객들이 지석묘를 찾아가는데 최소한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당국에서 지석묘 진입로를 매입하고 일대에 잔디밭 등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3) 고인돌 위치를 알려주는 종합안내판 설치(QR 시스템 부착)

– 현재 제주도 기념물 지석묘들은 지역적으로 여러 마을에 분산하여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안내판이 단 1개도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과 관광지 미관과 상생하는 지석묘 종합안내판을 지도와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석묘의 가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QR코드를 추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바로 지석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면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4)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입증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인 지석묘의 가치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묘 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과 같은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할 것임.

–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석묘 학술연구 활동이 이어진다면 지석묘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합리적 활용으로 가시화되고 나아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역 연구의 신뢰도 확보에도 큰 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임.

5) 민관지원 협의체 구성과 지역주민 참여 촉진

– 모름지기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거버넌스를 통한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합리적인 활용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주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민관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조직을 통해 지석묘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합리적인 활용 방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 촉진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석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관광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도 강구해 나갈 수 있음.

6)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획득하고 있는 화산섬 제주의 또 다른 역사문화유산으로써 국내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MOU 체결 등 협력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구체적으로 전남의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전북의 (재)전북문화재연구소, 강원의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등 국내의 전문기관과 제주지역의 제주대박물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고인돌은 한국에는 전남지방의 2만여 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약 4만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의 큐슈지방 등에 500~600기, 중국 동해안 지역과 동북지방에 750여 기,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지역 등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학술행사 개최에 대한 호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됨.

여 백

VIII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계획 제시

여 백

Ⅷ.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계획 제시[1)]

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은 세계화시대인 오늘날 구체화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역사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문화유산의 보호는 생활환경차원으로 연결되며, 보호와 더불어 활용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문화재보호와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역민의 경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세심한 민관협력의 파트너쉽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방향을 주변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내 지석묘의 보존 및 활용

문화유산은 다양한 분야와 종류가 있지만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현황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서 제주도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고창, 화순지석묘의 현황과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관리 상태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1) 강화 지석묘군

1) 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2) 본고에서는 '지석묘' 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며 인용한 글에서는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① 강화 지석묘[2)]

강화 지석묘 유적은 인천 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삼거리, 고천리, 오상리, 교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고려산 북쪽 산기슭에 127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군집을 이루지 않고 곳곳에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다. 강화도는 한강으로 통하는 강구의 섬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고인돌의 존재 또한 일찍부터 알려졌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강화 고인돌은 상태가 양호한 부근리 16기 삼거리 9기, 고천리 18기, 오상리 12기, 교산리 11기 등 66기이다. 강화고인돌은 산기슭, 구릉, 평

지, 산마루 등 아주 다양한 입지에 분포해 있다. 교산리와 고천리 고인돌은 산마루에, 부근리와 삼거리 고인돌은 평지성 지형, 오상리 고인돌은 고갯마루에 위치해 있다.

강화 고인돌의 특징은 탁자식 고인돌이 중심이 되어 분포한다는 점이며 기념물 용도의 탁자식 고인돌과 무덤으로 쓰인 탁자식 고인돌로 나뉜다. 부근리와 삼거리 등지의 일부 대형 고인돌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로 무덤의 기능을 가진 고인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인돌이 산의 능선을 따라 입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강이나 천변의 평지와 평지보다 높은 대지의 산기슭이나 구릉, 고갯마루 같은 곳에 있는데 반해, 강화 고인돌 가운데 교천리 고인돌은 산의 정상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탁자식 고인돌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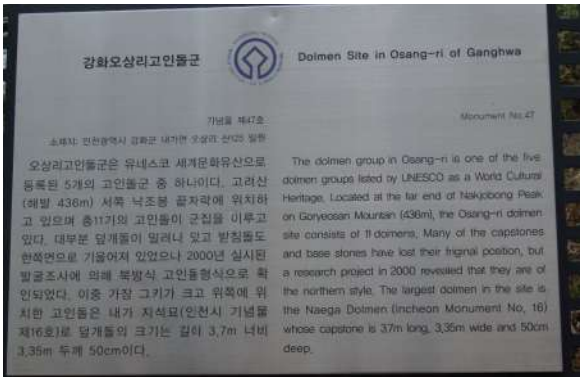
| 사진 1. 강화 부근리 지석묘 |



| 사진 2. 강화 부근리 지석묘 |



| 사진 3.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 |



| 사진 4.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 입간판 |

② 보존관리 체계[3)]

강화고인돌유적에 대한 담당업무는 문화재청–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강화군청 문화광광과 내 문화재계에서 유산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화고인돌유적 보존관리 담당은 강화군 문화관광과 내 문화재계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 · 정비, 문화재 지정 · 해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3)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③ 지정 및 토지매입 현황[4)]

강화 고인돌은 1964년 사적 제137호로 지정되었으며, 부근리 고인돌군(제44호), 삼거리 고인돌군(제45호), 고천리 고인돌군(제46호), 내가 고인돌(제16호), 오상리 고인돌군(제47호), 교산리 고인돌군(제48호), 대산리 고인돌(제31호), 부근리 점골고인돌(제32호)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000년 세계유산 지정당시 사적으로 지정된 강화부근리 지석묘와 주변의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부근리 고인돌군, 삼거리 고인돌군, 고천리 고인돌군, 오상리 고인돌군, 대산리 고인돌군, 부근리 점골고인돌, 교산리 고인돌을 포함한 고인돌 68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보호구역 내에 고인돌이 추가로 5기가 발견되고, 그 중 2기가 고인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총 70기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0년 12월 강화고인돌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등록을 위해 제안된 유산의 범위는 1,227㎡, 완충지대의 범위는 11,648㎡가 지정되었다. 현재 강화고인돌유적의 보존구역은 핵심구역인 지정구역 0.3ha, 보호구역 119.92994ha를 포함한 지정 총 면적 120.22994ha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문화재보호법 제8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강화고인돌유적의 토지매입은 사적으로 지정된 강화 부근리고인돌의 경우 보호구역 69,102㎡가운데 7㎡(0.1%)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매입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강화고인돌유적 중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구역 155㎡ 가운데 19.0㎡(12.26%)가, 보호구역은 1,130,197.4㎡ 가운데 699,740.4㎡(61.91%)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문화재청 2011).

4)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④ 활용 사례[5)]

강화 지석묘 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된 부근리 지석묘를 중심으로 탐방코스와 관광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지역 축제 등 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화 고인돌 탐방 코스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고인돌 사랑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3구간의 탐방 코스가 있다.

강화 나들길은 강화도의 도보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문화자연 도보여행길로 강화 나들길 사업은 2009년 시작되어 2013년까지 20개 코스의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코스 총 237km의 역사문화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강화 나들길 탐방자들에게는 '도보여권'이 무료로 지급되며 코스별 완주자는 도장을 찍어주어 완주시에 완주 인증서와 심도기행 책자, 엽서,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제

5)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공하고 있으며 나들길 코스에 따라 11km에서 23.5km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고인돌을 경유하는 나들길 코스는 5구간(고비 고개 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인돌이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들길에서는 단 5코스에서 오상리고인돌만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강화군 문화관광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주제에 따라 반일코스(4시간), 하루코스, 역사문화탐방, 안보 및 섬관광, 체험 및 역사탐방, 수학여행 추천코스 등 다양한 추천코스를 제시하고 있다.

강화군 시티투어는 인천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테마관광 강화코스로, 인천의 도심권과 공항권 · 강화권의 관광명소를 코스화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했으며, 매주 토 · 일요일 각 1일 2회씩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화 역사박물관은 2010년 세워진 공립박물관으로 강화의 선사시대 유물부터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으며 강화 고인돌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어 강화 고인돌과 함께 관람이 가능하다.

신바람 선사체험학교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2009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의 강화고인돌 광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을 널리 홍보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다.

강화 고인돌 캠프는 사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화 고인돌 식물원 옆에 위치하고 있다. 선사체험장, 부족체험장, 뗏목선착장, 고인돌축조재현장 등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나비생태관, 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능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선사체험, 생태체험, 만들기체험, 선택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화고인돌 문화축제는 강화군 대표 축제로 매년 부근리 고인돌 광장에서 펼쳐지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놀이와 교육이 겸비된 에듀테이먼트(edu-tainment) 지역축제로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군 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축제 공식 행사로는 대북공연, 칠선녀 공연, 고인돌 축조 재현 행사 등이 있으며, 체험 행사로는 원시인 복장 꾸미기, 원시인 바디 페인팅, 원시 무기/먹거리 만들기, 고인돌 올림픽, 움집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고창 지석묘군

① 고창 지석묘[6)]

6) 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이영문 · 신경숙 2009,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고창군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고창 고인돌유적은 전라북도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인돌은 196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하여 잘 알려진 고인돌이다. 이 두 지역의 고인돌은 같은 산줄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 최대의 고인돌 군집 지역이다. 죽림리 매산마을 중심으로 산줄기 남사면에 등고선을 따라 상갑리에 4개 군집과 죽림리에 6개 군집 등 10개 군집을 이룬 442기의 고인돌이 열을 이루면서 분포한다. 이곳은 고창천을 중심으로 나지막한 구릉이 펼쳐져 있고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고인돌 군집지에서 남쪽 고창천 건너편 구릉에는 남한 지역의 대표적인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도산리 고인돌유적이 있다.

고창 고인돌은 부장유물이 거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일부 고인돌에서 민문늬토기조각이 발견되었지만 유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덮개돌이 없는 무덤방에서 아가리에 원형 띠를 돌린 원형점토대토기가 부장된 것이 발견되었지만, 고인돌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간돌검이나 돌화살촉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

② 보존관리 체계[7)]

7)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고창고인돌유적에 대한 담당업무는 문화재청-전북도청 문화예술과-고창군 문화관광과-고인돌공원에서 유산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창고인돌유적 보존관리 담당은 고창군 문화관광과 내 별도의 고인돌공원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총 13명이 보존관리, 시설관리, 일반관리, 학예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③ 지정 및 토지매입 현황[8)]

8)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세계유산 보존관리는 핵심구역인 문화재 지정구역과 주변지역인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12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매산, 아산면 상갑리, 봉덕리 일대 81,763㎡ 범위의 고인돌 442기가 사적 391호로 지정되어 사적정비계획에 의해 보존정비가 이루어졌다. 1999년 전답과 고창천 일대 489,165㎡의 범위에 제1차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고, 도산리 고인돌 주변 1,272㎡에 대한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12월 고창고인돌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사적정비계획과 함께 세계유산 관리계획에 의한 유적의 정비와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5차에 걸쳐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추가지정 및 조정이 있은 후 현재 566필지에 968,385㎡범위가 세계유산 보존지역으로 관리되어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고창고인돌유적의 보존구역은 핵심구역인 지정구역 8.30ha, 보호구역 96.83ha, 공원면적 9.23ha를 포함한 지정총면적

105.14ha의 범위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문화재보호법 제8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고창 고인돌유적의 토지매입은 현재(2008) 지정구역 13,343㎡ 가운데 1,272(9.54%)가, 보호구역은 1,033,238㎡ 가운데 188,747(18.25%)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정구역 12,071㎡(90%)과 보호구역 844,311㎡(82%)이 완료된 상태이다.



| 사진 5. 고창 지석묘군 |



| 사진 6. 고창 도산리 지석묘 |



| 사진 7. 고창 고인돌 박물관 |



| 사진 8. 고창 고인돌 박물관 체험 |

④ 활용 사례[9)]

고창 고인돌군은 고인돌공원을 조성하여 고인돌 유적지라는 자연과 공원 내의 시설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시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켰다. 고인돌 유적의 적극적인 활용과 야외전시 및 체험실습의 교육적 기능을 부여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확산과 고창 고인돌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높였다.

| 9)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고창 고인돌군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제 1코스에서 제 5코스까지 탐방로를 설치하였다.
박물관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야외전시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에서는 고창 선사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체험학습실과 야외전시공간에서는 체험을 통한 흥미 유도와 추억을 제공한다. 상설전시실에는 고창의 선사문화, 고인돌과 묘제, 고인돌의 고장 고창, 고창 선사인의 삶과 죽음, 매산마을 사람들의 움집생활 등이 전시 중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과 거석문화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체험학습실에는 선사인들의 불 피우기, 암각화 그리기, 고인돌 만들기 등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선사인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야외 전시장에는 움집을 실제 사이즈로 재현한 선사마을과 고인돌 끌기 체험을 통해 선사인들의 지혜와 과학성을 엿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을 기점으로 고인돌 코스를 고창 고인돌 캐릭터인 '모로모로 열차'를 타고 고인돌을 관람할 수 있으며, '모로모로'열차는 박물관과는 예약 및 요금이 별도로 매표소에서 선착순 발매되고 있다. 하루 7차례 1시간에 1번 운행하며 박물관 입구에서 출발하여 1코스부터 5코스까지 30분가량 운행한다.

탐방코스는 고창읍 죽림리, 아산면 상갑리 일대(1.8km)에 이르며, 제 6코스는 고창읍 도산리 일대(1.7km)에 있다.

고창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창 고인돌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고인돌 축제가 2002년 처음 개최되어 2008년까지 매년 음력 9월 9일을 전후로 4일간 진행하였다. 축제 기간 동안 통나무끌기, 나무로 불 피우기, 맨손으로 동물잡기 등 선사체험과 돌호미로 고구마 캐기 등 농경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며 읍 · 면에서 40명 정도가 참가하는 군장어른 모시기대회, 500여 명이 참가하는 사생대회를 진행하였다. 고인돌 축제 1회에는 고인돌 연구 학자, 유네스코 위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 '고인돌 보존 방안'과 '고인돌 관광자원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3) 화순 지석묘군

① 화순 지석묘[10)]

화순 고인돌유적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 양쪽 계곡 일대에 걸쳐 있다. 화순 고인돌은 영산강 지류인 지석강 주변에 형성된 넓은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평지의 남쪽 산기슭을 따라 5길로미터에 걸쳐 고인돌 596기가 연이어 분포하고 있는 이 고인돌군은 모산마을과 지동마을 앞까지 포함

10) 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이영문, 2004, 『세계 문화유산 화순고인돌』, 화순군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하면 약 6킬로미터 정도에 걸쳐 나타난다. 고인돌의 분포는 마을 앞 평지, 마을 내도 있지만 대부분 계곡의 동쪽 산기슭을 따라 군집되어 분포해 있다.

화순 고인돌의 특징은 좁은 지역 안에 596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타 고인돌군에 비해 밀집된 분포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100톤 이상의 커다란 고인돌 수십기가 발견되어 거석문화로서의 고인돌을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분포된 고인돌의 개수도 많지만, 여러 개의 판석상 석재를 이용해 지상에 노출되게 짜맞춘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 형태의 기반식 고인돌, 받침돌이 보이지 않는 개석식 고인돌 등 형태상으로도 매우 다양한 고인돌이 공존하고 있다.

② 보존관리 체계[11)]

화순 고인돌 유적에 대한 담당업무는 문화재청–전라남도 문화예술과–화순군 문화관광과에서 유산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 보존관리 담당은 화순군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총 5명이 고인돌유적의 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다.

11)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사진 9. 화순 핑매바위



사진 10. 화순 감태바위



사진 11. 화순 지석묘군



사진 12. 화순 고인돌 축제

③ 지정 및 토지매입 현황[12)]

세계유산 보존관리는 핵심구역인 문화재 지정구역과 주변지역인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능주목 학술조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유적은 발견당시 잡목과 숲속에 묻혀진 상태였으며, 1998년 사적 제 410호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으로 지정되어 사적 정비계획에 의해 보존정비가 이루어졌다. 2000년 세계유산 지정당시 등록을 위해 제안된 유산은 221ha로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포함한 범위이다. 2006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재 지정구역 205.19ha와 보호구역 45.28ha 그리고 효산리 고인돌 연구 및 전시공원지구 6.4ha를 포함한 250.48ha에 대해 보존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3차례에 걸쳐 문화유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지정 및 조정이 있은 후 현재 2,457,211㎡범위가 세계유산 보존지역으로 관리되어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2009) 화순고인돌유적의 보존구역은 핵심구역인 지정구역 200.0692ha, 보호구역 47.3868ha를 포함한 지정총면적 248.327ha의 범위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문화재보호법 제8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화순고인돌유적의 토지매입은 현재(2008) 지정구역 1,989,959㎡ 가운데 92,067(4,62%)가, 보호구역은 458,542㎡ 가운데 275,585(60.09%)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정구역 1,897,892㎡(95.37%)와 보호구역 182,957㎡(39.89%)가 완료된 상태이다.

④ 활용 사례[13)]

화순 고인돌이 위치한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고인돌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과 접하는 지역으로서 교육 · 전시 및 선사유적 지원시설 공간으로 분리하고, 공간구성체계를 정비하였다. 채석장과 고인돌이 공존하는 화순 고인돌유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선사시대 생활체험장을 조성하여 타 고인돌공원과 차별화하고, 교육, 전시, 체험,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교육 및 전시시설 조성 시 개발로 인한 유적지 주변의 자연 및 농지의 경작경관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약적인 토지이용과 더불어 시설규모의 최적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욕구를 억제시키는 효과까지 염두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2)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13) 문화재청, 2011,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고인돌 탐방 코스는 효산리와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의 계곡 일대 5km에 총 596기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화순 고인돌 유적지 관람 코스는 효산리 백제고분에서 시작하여 효산리 고인돌군과 대신리 고인돌군을 지나 대신리 발굴지 보호각에서 끝이 난다.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대신리 고인돌 발굴지 보호각은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고인돌의 노출된 하부구조를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 2008년 설치하였다. 보호각은 실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무덤방 내부와 구조를 관광객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세계 거석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함으로써 고인돌 탐방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보호각에는 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어 탐방코스의 종착지로, 관광객들이 화순 고인돌 관광을 마무리 지으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고인돌 문화 체험프로그램은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서 주중 학교체험학습으로 활용되는 '고인돌 문화 체험프로그램'과 매월 4째 주 토요일 진행되는 '주제가 있는 주말 가족 프로그램' 등의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인돌 문화 체험프로그램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복장체험, 음식체험, 움집체험 등의 의식주 체험과, 토기 만들어 굽기, 간석기 만들어 사용하기, 청동기 제작체험 등 청동기 시대의 도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체험, 그리고 농경, 신앙 등 문화 체험, 고인돌 축조 재현 체험이 있다. 주말 가족 프로그램은 고인돌 마을의 기원행사, 선사시대 밭농사, 어로생활모습, 도구제작 체험, 월동준비까지 고인돌 문화체험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이고 물고기 잡기, 토기를 이용한 음식조리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른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주제가 있는 주말 가족 프로그램은 매년 3월에서 12월까지 4째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가족 단위의 신청을 받는 본 프로그램은 매 월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선사체험장은 화순 고인돌 유적지 출발점에 있어 선사시대 체험과 더불어 고인돌 유적지를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이점이다.

화순고인돌 문화축제는 화순고인돌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화순군이 주최하고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2000년부터 고인돌 공원에서 개최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화순군 대표 축제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동북아지석묘연구소와 고인돌 주변 마을이 주최가 되어 축제를 추진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13개 읍면 주민들과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선사시대 체험, 고인돌 체험 및 홍보, 다양한 전통민속체험 등 대규모로 열렸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인근의 2개의 마을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애향심과

고인돌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마을간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 되고 있다.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고인돌 문화축제는 선사생활체험과 고인돌 제례의식 재현 등의 주 행사 외에도 파프리카 화전체험, 체육행사 등 면민 화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해외 지석묘의 보존 및 활용

1) 중국 지석묘와 보존관리 현황

① 중국지석묘[14)]

중국 지석묘는 저장성(浙江省)과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중국의 지석묘 분포 수는 저장성(浙江省)에 50여기, 랴오닝성(遼寧省)에 760여기이다. 중국 저장성(浙江省) 고인돌은 푸젠성과 가까운 남부의 뤼안(瑞安)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이산(岱石山)에 36기가 밀집되어 있다. 대부분 기반식과 개석식 고인돌로서 구릉 정상부나 야산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저장성 뤼안의 취판산(棋盤山)에 있는 고인돌만 잘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는 파괴된 상태이다. 저장성 남쪽의 창난(蒼南)지역의 고인돌은 기둥 모양의 받침돌 4개가 있는 기반식과 무덤방을 덮은 하나의 뚜껑돌이 있는 개석식이 혼재되어 있다. 발굴된 다이스산 고인돌의 무덤방은 장대판상석을 잇대어 세워놓은 형태로 한쪽에 입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하나 낮은 봉토에 묻혀 있는 점에서 외형상 제주도 고인돌과 유사하다. 중국 동북 지방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으로 래오닝성과 지린성에서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아직까지 랴오허 서쪽 지역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으며, 랴오둥반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곳의 고인돌은 탁자식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고인돌은 스펑산(石棚山) 고인돌로 길이가 860cnm 너비가 510~570cm, 두께가 40~50cm의 넓고 얇은 판돌로 덮개돌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길이 275cm, 너비 210cm, 높이 233cm의 무덤방이 지상에 드러나 있다. 이 형태와 규모는 황해도 안악 로암리나 은율 관산리 고인돌과 비슷하다. 그리고 개석식에 속한 대석개묘는 발해만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발견되고 있다.

14) 이영문, 2014,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하문식, 2004, 「중국 동북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②보존관리 현황[15)]

중국 동북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많이 파괴된 상태이며 유적 주변의 지형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와방점 대자, 개주 석붕산, 대석교 석붕욕, 해성 석목성처럼

15) 하문식, 2004, 「중국 동북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지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지정 문화재이기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유적이 최근의 개발에 의하여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비교적 파괴가 많이 된 유적은 상당히 폐쇄된 내륙지역에 위치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보란점 소둔, 개주 하북, 무순 산룡, 유하 태평구, 대사탄, 매하구 험수 등이다.

한편 동북지역의 고인돌 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은 특히 길림지역의 경우 지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사진 13. 요령성 해성 석목성 석붕 |



| 사진 14. 요령성 개주 석붕산 석붕 |



| 사진 15. 요령성 와방점 대자둔 석붕 |



| 사진 16. 요령성 와방점 대자둔 석붕 내 제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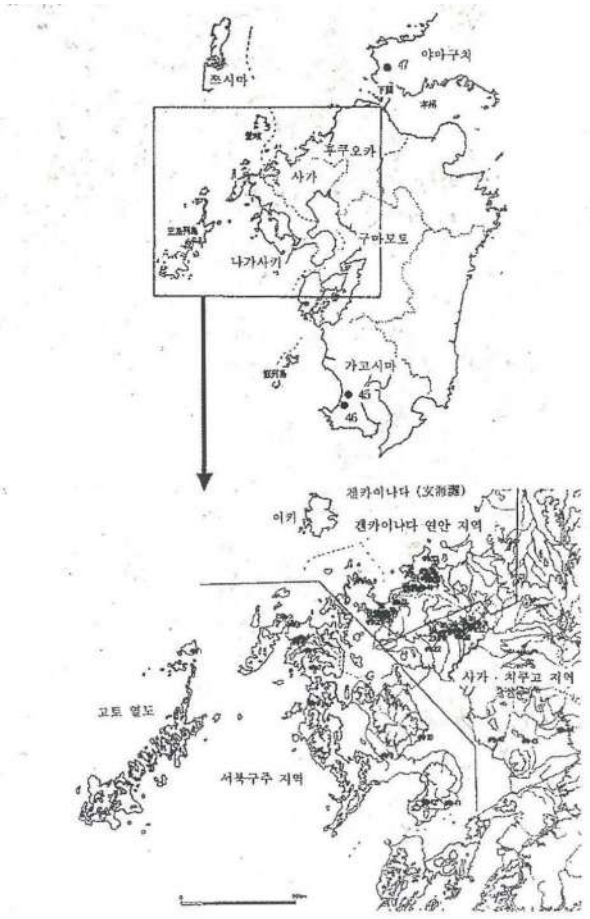
2) 일본 지석묘

① 일본 지석묘[16)]

일본열도의 지석묘는 한반도에서 전파된 가장 대표적인 문화이며 야요이문화(彌生文化)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다. 그 분포는 九州北部를 중심으로 하며 그 주변에는 지극히 적다. 다른 문물도 이와 같은데 야요이시대 조기에서는 토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와 관계되는 문물의 분포는 일본열도에서 거의 구주지방에 한정된다. 특

16) ※ 이 글은 平郡達哉(시마네현립대학 법문학부)가 2004년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서 주관한 제1회 아시아권 문화유산 국제심포지움에 발표하고 그 내용을 모아 발간한 『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에 실린 글을 바탕으로 요약한 글이다.

히 북부구주지방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석묘가 축조된 지역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징을 가진다.



| 도면1 : 일본 지석묘 분포도 |

일본의 지석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주지방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에 해당하며 이러한 집중분포를 보이는 지역 외에도 구주 서남부인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에서도 일부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지석묘는 絲島地方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絲島地方의 지석묘는 표고가 낮은 평야에 입지하고 하부구조는 토광묘를 주체로 대형호를 전용한 것 등이 있다. 1기에서 10기의 지석묘로 구성되어 있는 유적이 많은 가운데 新町遺蹟은 20기 이상의 지석묘로 이루어지고 인골도 발견된 중요한 유적이다.

사가현의 지석묘는 唐津平野 및 佐賀平野에 분포한다. 양지역 모두 충적평야에 불쑥 튀어나온 구릉의 선단에 입지한다. 하부구조는 唐津平野에서는 토광묘, 佐賀平野에서는 갯석토광묘가 주가된다.

나가사키현의 지석묘는 후쿠오카현이나 사가현의 분포와 비교하면 산재한 형태를 취한다. 하부구조는 도서부에서는 토광묘, 본토부에서는 箱式石棺을 주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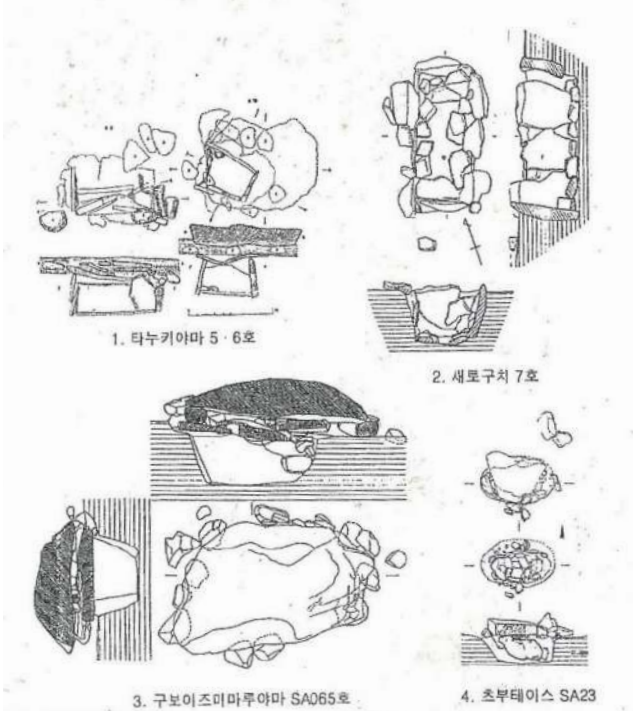
구마모토현의 지석묘는 최근의 집서에 따르면 31개소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菊池川流域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내부주체는 옹관이나 토광으로 箱式石棺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지석묘는 충적평야의 微高地와 구릉에 입지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일본 지석묘의 특징으로서 우쿠마츠바라(宇久松原) · 오오토모유적(大友遺蹟)과 같이 바다 옆의 砂丘 위에 입지한 것이나 하라야마(原山 支石墓)와 후우칸다케와 같이 표고 200~250m 정도의 구릉위 · 산 鞍部에 입지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조사된 지석묘 중에서는 탁자식 지석묘는 1기도 발견되지 않고 모두 기반식 또는 개석식 지석묘이다. 개석식은 후우칸타케 8호와 우쿠마츠바라 그리고 우메노키에서 약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부분 기반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형에 따른 형식분류보다 하부 구조인 개석, 매장주체부의 종류에 다라 형식분류가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형식 설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형식분류 안에 공통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石棺型 :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깊이가 있는 것과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폭과

깊이가 얕은 것으로 세분된다. 구체적인 유적으로는 평면형태가 방형인 것은 타누키야마 5 호 지서교, 하라야마 지석묘 등이 있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것은 세토구치 7호 지석묘, 코가와치 지석묘, 오오노다이 6호 지석묘 등이 있다. 서북구주지역에서는 평면 방형의 석관형이 많이 보인다. 석관 규모는 나가사키의 경우 장축이 50~100cm 정도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 석관 축조방법은 판석 1매씩으로 4벽을 조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판석 2~3장을 이어 장벽으로 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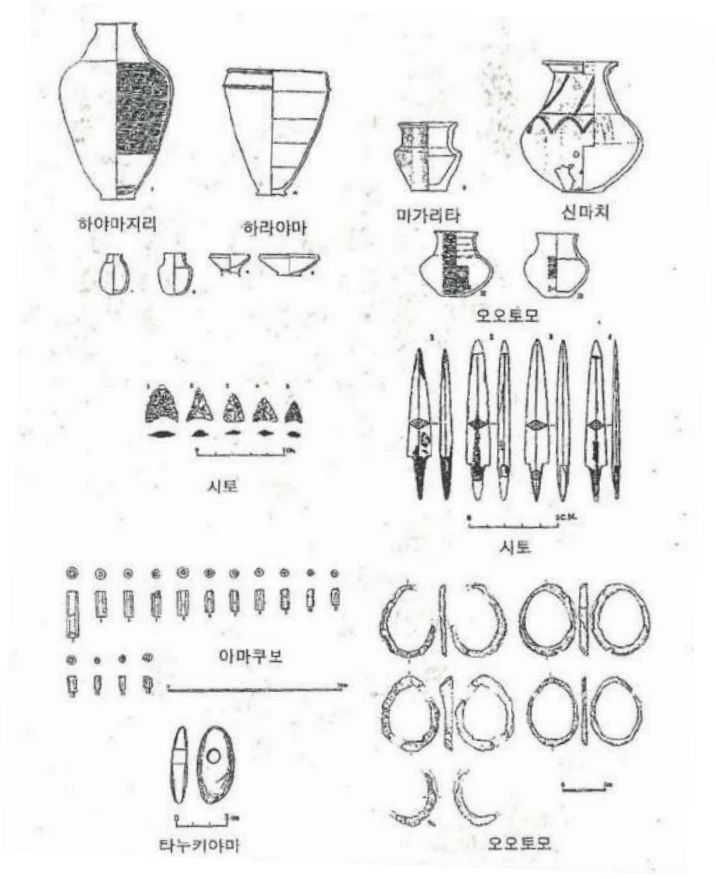
| 도면2 : 일본 지석묘 매장주체부 각 형식 |

土壙型 : 죠몽(繩文) 만기(야요이 전기)부터 야요이 중기 초두까지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원형, 장타원형을 이룬다. 또 하라야마 34호 지석묘와 같이 토광위에 판석을 뚜껑으로 한 석개토광묘도 보인다. 야요이 조기에 속한 이시자카 마가리타의 경우 소형의 원형 토광내에서 炭片, 불탄 사람 뼈 파편 등이 출토되었고 火葬骨일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壺 · 甕棺型 : 죠몽(繩文) 만기(야요이 전기)에 소아용 호관이 보인다. 항아리에 다른 항아리나 독을 덮어 뚜껑으로 하고 複數의 항아리나 독을 쓰고 관으로 한 예도 많다. 이들 항아리 · 독은 일상용기의 전용품이다. 하야마지리 3호나 모리타 지석묘와 같은 지석묘에 인접하여 소아용 옹관을 매장 시키는 경우도 있다. 야요이 전기 말부터 중기초에 성인용 대형옹관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석묘의 옹관도 대형화하였다.

지석묘 출토유물은 매장주체부 내부 특히 바닥면에서 출토되는 부장유물과 묘광 상면 즉 상석 밑에 놓여진 상태인 소위 供獻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석묘 50여개 유적 중 25개 유적에서 부장유물 또는 공헌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대부분이 공헌유물이고 매장주체부 바닥에서 출토된 부장유물은 8개 유적(후쿠오카 고다, 신마치, 마가리타, 사가 하야마지리, 즈부테이시, 쿠로쯔치바루, 나가사키 코기외치, 하라야마)에서 보이고 있을 뿐이다.

출토유물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도면3 : 일본 지석묘 출토 각종 유물 |

토기류 – 소형호, 옹, 고배, 椀型토기 등이 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소형호이며 칠을 하고 마연된 것이다.

대륙계 마제석시류 – 지석묘에서 출토된 마제석촉은 많지 않다. 시토 8호 지석묘에서 4점, 미쿠모 지석묘에서 6점이 출토 될 뿐이다. 이들 마제석촉 형태는 한반도 남부의 지석묘에서 흔히 출토되는 세장형이다.

죠몽계 석기류 – 대륙계 마제석기와 달리 재지의 교몽문화 계통을 있는 무경삼각형 석촉이 출토되었다, 석재는 흑요석을 사용하고 시토 6호 6점, 하야마지리 4호 1점, 하라야마 제2지석묘군 1호에서 관옥과 공반하는 1점, 후우칸다게에서 출토되었다.

옥류 – 관옥과 곡옥이 있다. 먼저 벽옥제 관옥이 후쿠오카 이타요에에서 22점, 이시가사키에서 14점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중에서 아마쿠보 3호 지석묘의 경우 출토상황으로 보아 목걸이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관옥도 한반도 남부에서 가져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곡옥은 타누키야마 지석묘에서 출토되었는데 경옥(硬玉)제 대주(大珠)라고 불려지는 것이 1점 있다. 이것은 죠몽문화 전통을 잇는 유물이고 구주에서 산출되는 경옥을 사용하였으며 길이 4.4cm, 두께 1cm이다.

조개제품 – 팔찌가 주를 이루며 소옥이나 기타 장식품 등이 약간 보인다. 팔찌는 나가사키 우쿠마쯔바라 1호 지석묘에서 2점, 사가오오토모 2호 지석묘 묘광 안에서 2점, 동 8호 지석묘에서 발견된 인골의 경우 좌우 팔에 장착된 상태로 5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조개 제품의 재료는 일본열도 남방의 바다에서 채집되는 조개를 사용하였다.

유물은 지역마다 출토 경향에 차이가 있다. 겐카이나다(玄海灘) 연안지역에서는 토기류, 마제석기류, 옥류, 조개제 장신구류, 죠몽계 석기류 등이, 서북구주지역에서는 토기류, 옥류, 조개제 장신구류, 죠몽계 석기류 등이, 그리고 사가 · 치코쿠지역에서는 토기류, 죠몽계 석기류 등이 출토된다. 그 중에서 겐카이나다(玄海灘) 연안지역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석촉, 토기, 관옥 등이 현저히 보인다.

일본 지석묘의 특징은 죠몽 만기 후반에서 야요이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해당하고 서북구주 특히 겐카이나다(玄海灘) 연안지역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후 주변지역에 확산해 가면서 구조 및 출토유물에 지역성을 띠게 된다. 최종적으로 매장주체부는 대형옹관을 쓰는데 지석이 안보이고 상석은 형식적인 표석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야요이 중기 후반에 소멸한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지석묘의 규모를 들 수 있다. 상석의 규모는 한반도 남부의 성석에 비해 1/3정도가 대부분이다. 매장주체부 규모도 1m를 넘는 것이 적다. 지석묘 규모와 관련되는 매장자세에서도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굴장(屈葬)이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피장자의 매장 풍습으로서 굴장하기 위해 큰 매장주체부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따라 상석도 매장주체부 규모에 대응한 것을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반도 남부지역의 지석묘 형태에 가까운 것을 축조하지만 무덤의 핵심부분인 매장에 관해서는 재지적 요소인 굴장인 점이 흥미있다. 매장주체부는

壺 · 甕棺 등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이들 매장주체부는 지역차가 보인다. 즉 겐카이나다(玄海灘)연안지역에서는 토광형, 서북구주지역에서는 석관형, 사가현에서는 석개토광묘가 많이 보인다.

공헌 · 부장유물은 소형호가 주류를 이루는데 대륙계 마제석기가 출토된 유적이 있는 한편 재래의 타제석촉이 출토된 유적도 있다. 부장방법도 관내 부장유물보다 신마치유적과 같이 상석 밑의 지석 사이에서 발견되는 소위 공헌토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석묘의 피장자는 유적에서 확인된 인골을 바탕으로 형질인류학적 검토를 통하여 밝혀진 특징은 재지의 죠몽인적인 형질을 갖고 있었다. 오오토모 · 신마치 출토 인골의 발치풍습은 지역차와 시기차가 존재하나 여기서 보이는 발치풍습은 서일본의 죠몽후 · 만기의 형식이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를 기원으로 하는 일본의 지석묘는 북구주에 출현했을 당시 이미 재지적 요소(매장주체부 형태, 매장 자세 등)을 포함하고 변용된 모습으로 축조되었다.



| 사진 17. 사토타바루 지석묘 |



| 사진 18. 쿠보이즈미 마루야마 유적 공원 |



| 사진 19. 마가리타 유적(공원 활용) |



| 사진 20. 신마치유적 전시관 |

일반적으로 묘제는 보수성과 전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지석묘의 원류가 한반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일본으로 전파되고 일본적으로 변용이 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지석묘를 수용한 서북구주의 각지에 있어 지석묘의 매장 주체가 토광이나 목관, 석관, 석개토광, 옹관 또는 호관 등의 종류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수용하는 측이 주체성을 가지고 수용하였다는 것이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리고 출토 인골의 양상에서 약간의 도래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야요이 조기의 일본인이 각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지석묘를 수용하였고 재지적 요소라는 바탕 위에 지석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다.

② 보존관리 및 활용 사례

일본의 지석묘 역시 1970~80년대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유적이 조사되면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들에 대해서 국가 사적 또는 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 고인돌 중 고인돌과 관련된 전시관을 짓거나 이전보존 · 정비를 하여 보존하여 왔다.



| 사진 21. 요시노가리유적 고상가옥 |



| 사진 22. 요시노가리 유적 북분구 전시관 내부 |



| 사진 23. 요시노가리유적 발화구 체험 |



| 사진 24. 요시노가리유적 곡옥 제작 체험 |

여러 유적들 중 요시노가리유적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다. 1982년 요시노가리유적 일대에 공업단지 건설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장을 묻었던 분구묘, 대량의 옹관묘열, 대형 창고군 등이 발견되었고, 야요이시대 전 시기에 걸쳐 조영된 일본 최대규모의 환호 취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유적의 모습과 성격이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매스컴 보도와 많은 유적 견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유적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9년 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1991년에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었다(총면적 54ha 예정). 또 국영공원 주변에는 유적의 환경보전 및 역사공원의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 縣營公園(면적 약 63ha) 건설이 계획되고 있고, 총 면적 약 117ha의 구역이 일체적인 역사공원으로서 정비되었다. 개원 이후 입원자는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현재 일본에 국영공원 14군데가 있는데, 유적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나라 아스카 지역과 요시노가리유적 뿐이다.

| 표1. 일본의 보존 조치된 지석묘 목록 |

	유적명	위치	현상태	지정사항
1	시토 지석묘군	후쿠오카현		사적지정
2	하야마지리 지석묘군	사가현		
3	오노다이 유적	나가사키	사적공원	
4	하라야마 유적	나가사키	사적공원	
5	스구오카모토 유적	후쿠오카	사적공원 내	
6	요시다케다카키 유적	후쿠오카		
7	신마치 유적	후쿠오카	전시관 실내복원	
8	타누키야마	나가사키		현지정
9	사토다바루	나가사키		
10	후나이시	사가현		
11	후지오	쿠마모도		
12	나카노하마	야마구치		
13	기부네산본마츠	후쿠오카	상석만 이전	
14	나가노미야노마에 공원	후쿠오카		
15	이타요우에	후쿠오카		
16	이타오고모리(신사경내)	후쿠오카		
17	하타다(자료관부지)	후쿠오카		
18	쿠보이즈미마루야마	사가현	공원에 이전 복원	
19	마가리타유적	후쿠오카	공원	
20	후나이시 지석묘군	사가현	신사 내	

| 표 2. 야요이시대 유적 |

	유적명	위치	현상태	지정사항
1	요시노가리 유적	사가현	유적지	특별사적
2	히라카츠 카와조에유적	후쿠오카현	유적지	
3	나바타케유적(菜畑遺跡)	사가현 가라쓰시	유적지	
4	하부유적(土生遺跡)	사가현	유적지	
5	이타즈케유적(板付遺跡)	후쿠오카현	유적지	

공원 안에는 출토된 유물, 유구의 복제품을 전시한 시설을 설치하고, 누각, 수혈주거, 고상주거, 창고군 등이 복원전시되고 있다. 또 토기, 옥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되어 있다. 유적보존,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원 조성시 유구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확인된 유구면보다 30㎝ 이상 성토하였다. 또 성토 이외의 방법으로는 발굴 재현지구에서는 유구면의 모양을 뜬 후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 다시 매립하고 그 위에 복제품을 설치하였다.

요시노가리유적이 유적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대적인 매스컴 보도도 있었지만 유적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의 강한 요망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적이 보존되었다. 또 행정관계자들의 이해가 없었다면 거액의 비용이 든 유적 전면적 보존과 정비사업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제주도 지석묘의 활성화(보존 및 활용) 방안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에 비해 적은 수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석묘의 구조상 특징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 한 형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만 확인되는 유일한 형식이다. 이러한 제주도 지석묘의 분포 현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추정되지만 돌의 성질이 현무암질로서 깨지기 쉬운 특성과 작은 섬으로 삶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고대부터 현재까지 생활공간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동일함에 나타난 반복적인 변화는 기존의 흔적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다양한 유입으로 공간이 확대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생활공간의 확대로 인해 지석묘의 존재가 감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지석묘는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에 약 80%가량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나머지 약 20%가량은 동남부지역에 분포한다. 제주도 지석묘는 중앙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연결되는 지형 가운데 거의 해안의 평지에 분포한다. 해안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돌은 남제제주군 신도리와 신천리 지석묘가 있는데 이들 지석묘는 해안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어 지석묘가 무덤의 역할보다는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주도 하귀리 관전동 지석묘는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밀물과 썰물의 변화에 따라 지석묘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한다. 지석묘의 밀집도를 보여주는 군집의 양상은 1기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20여기 이상의 다양한 분포양상을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지석묘 가운데 가장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조이다. 제주도는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 사례가 적고 유구의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외형상의 분류를 통한 지석묘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고 발굴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검토하면 제주도의 지석묘는 대부분 한반도 지석묘의 구조와 같은 개

석식과 기반식에 해당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용담동, 외도동, 광령리에서는 기존의 구조와 다른 형식의 지상위석식의 지석묘를 볼 수 있다. 제주도 지석묘 중 판석모양의 지석을 가진 지상위석식 지석묘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지석묘이다. 제주도에서는 송국리형의 주거지가 넓은 지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지석묘와의 연관성을 상정해 보면 가장 발전된 단계의 지석묘 형식으로 지석묘 축조시 다른 양상의 지석묘보다 많은 인원과 전문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분상의 사회적 계급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지석묘는 축조기간을 탐라전기로 추정하고 마을 구성원의 인원수를 상정하면 그 수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파도를 제외한 지석묘 분포가 한정적이며 밀집된 곳이라도 20여기 정도이다.

특히 제주도 지석묘는 제주도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파괴 혹은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도에서는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32기와 비지정 지석묘에 대해서는 보호책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지석묘는 경작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보호책 설치로 인한 보호대책은 지석묘에 너무 근접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부시설에 대한 파괴가 우려되며 보호책 자체가 지석묘 관람을 가려 지석묘를 훼손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제주도 지석묘의 기존 보존 및 관리 상태는 임시적이며 단기적 방향의 관리 방식으로 장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석묘의 조사 전 관리는 기존 정비 시스템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비롯한 보완 수정이 없다. 시간의 변화속에 지석묘 주변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변화는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원형변경의 결과를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후의 관리현황은 일부는 보존관리의 미흡과 방치로 지석묘 유적의 가치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활용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일본 지석묘는 1970년대를 시작으로 지석묘의 보존 및 활용을 시스템화하여 전시관, 야외관람장, 보존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새로운 변화와 일반사람들의 관심의 선후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 지석묘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시작은 새로운 문화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의 열정 등이 다른 나라들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변화 속에 국가와 국민은 문화에 대한 매너리즘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관심으로 존재만 유지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의 방향은 일본의 현재까지의 한계성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 변화와 관람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문화재를 지키는 우리 모두 끊임없는 변화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은

현재에 어떤 훌륭한 제도라도 조만간 옛날 유물 하나가 되어 갈 것이다. 제주도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 방향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 즉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 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맺음말

제주도 지석묘유적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은 먼저 지석묘 유적에 대한 최대한의 원형유지이다. 지석묘 자체가 일반인들과 공존하는 부분에 있어 지석묘 중심의 보존과 활용이 아닌 일반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은 가장 중요한 지석묘 유적의 탁월한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존과 활용의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선결조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석묘 위상은 다양한 많은 문화재들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석묘에 대한 독자적인 보존과 활용 시스템의 방향 설정은 한계를 갖는다. 제주도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 방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제도권 속으로 포함시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는 해당 유산이 자국의 유산임에 동시에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내에 이를 보호하는 특별부서와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각 국가는 해당 유산의 보호 상태를 검토한 보고서를 5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보존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이에 대한 보존 · 복원과 교육 및 훈련, 장비구입, 전문가 초청, 회의개최 등의 명목으로 세계유산기금의 일정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문화유산 중에 특히, 세계유산 지석묘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분야로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지석묘 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정책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보호제도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 활용에 있어서도 진정성과 완전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활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X

연차적 추진계획

여 백

Ⅸ. 연차적 추진계획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제주시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기초로 하여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계획,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 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각 단계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추진계획

가. 제1단계

1)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2) 추진 계획

가) 제주시 지석묘 정비 기본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성 검토
나) 유실된 지석묘 터에 대한 발굴조사 신청,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후 발굴조사 추진
다) 제주시 지정 지석묘(21기, 사적지내 지석묘 3기 제외) 안내판 재정비 및 주변 정비
라)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추진 검토 및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마) 용담동 선사무덤유적(도기념물 40호) 사적지 지정 추진 검토 및 종합정비 계획 수립
사) 제주시 지석묘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나. 제2단계

1)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2) 추진 계획

가) 비지정 지석묘 중 주변 학술조사를 통한 지석묘 여부 확인 및 지정가능성 검토
나) 지정 고인돌 주변 학술조사를 통한 유적 범위 확인 및 성격 규명
다)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종합 학술조사 추진(1단계: 토지매입 및 학술조사)
라) 용담동 선사무덤유적(도기념물 40호) 토지 매입 및 시굴 · 발굴조사 추진

마) 제주시 지석묘 모니터링(2~3년 단위로 지속적 수행)

다. 제3단계

1)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2) 추진 계획

가) 제주도 지석묘 문화 자원화 추진 및 스토리테링 발굴
나)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 공원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종합학술조사 추진(2단계 : 공원 조성 및 학술적 자료수집)
다) 제주시 지석묘를 활용한 체험 및 주민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라. 제4단계

1)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2) 추진 계획

가)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종합전시관 건립 기본 실시계획 마련
나) 제주도 지석묘 국제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대회 개최
다) 제주도 지석묘[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협의체] 구성(발족)
라) 제주시 지석묘 모니터링(2~3년 단위로 지속적 수행)

2.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총사업계획				사업량과 투자비(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17년)		2단계3 (2018년)		3단계 (2019년)		4단계 (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110								
1단계 사업	소 계		720		720						
	ㅇ 제주시 지석묘 정비 기본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성 검토	1식	120	1식	120						
	ㅇ 유실된 지석묘 터에 대한 발굴조사 신청,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후 발굴조사 추진	8개	240	8개소	240						
	ㅇ 제주시 지정 지석묘(21기, 사적지내 지석묘 3기 제외) 안내판 재정비 및 주변 정비	21개소	210	21개소	21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추진 검토 및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	1식	50	1식	50						
	ㅇ 용담동 선사무덤유적(도기념물 40호) 사적지 지정 추진 검토 및 종합정비 계획 수립	1식	50	1식	50						
	ㅇ 제주시 지석묘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1식	50	1식	50						
2단계 사업	소 계		1,490				1,490				
	ㅇ 비지정 지석묘 중 주변 학술조사를 통한 지석묘 여부 확인 및 지정가능성 검토	1식	70			1식	70				
	ㅇ 지정 고인돌 주변 학술조사를 통한 유적 범위 확인 및 성격 규명	1식	50			1식	5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착수 토지매입(1단계) 추진	30여필지	1,000			30여필지	1,00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추진에 따른 종합 학술조사 추진	1식	50			1식	50				
	ㅇ 용담동 선사무덤유적(도기념물 40호) 토지 매입 및 시굴 · 발굴조사 추진	1식	300			1식	300				
	ㅇ 제주시 지석묘 모니터링(2~3년 단위로 지속적 수행)	1식	20			1식	20				
3단계 사업	소 계		1,630						1,630		
	ㅇ 제주도 지석묘 문화 자원화 추진 및 스토리테링 발굴	1식	50					1식	5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추진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 착수 토지매입(2단계) 추진)	30여필지	1,000					30여필지	1,00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 공원 추진에 따른 2단계 사업 공원 조성 기초 사업 착수	1식	500					1식	50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 공원 추진에 따른 학술자료 수집	1식	50					1식	50		
	ㅇ 제주시 지석묘를 활용한 체험 및 주민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식	50					1식	30		
4단계 사업	소 계		270								270
	ㅇ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공원 종합전시관 건립 기본 실시계획 마련	1식	120							1식	120
	ㅇ 제주도 지석묘 국제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대회 개최	1식	100							1식	100
	ㅇ 제주도 지석묘[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협의체] 구성(발족)	1식	20							1식	20
	ㅇ 제주시 지석묘 모니터링(2~3년 단위로 지속적 수행)	1식	30							1식	30

여 백

부록

1. 제주시 외도·광령고인돌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

여 백

제주시 외도 · 광령고인돌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

1, 제주도 지석묘[支石墓, 고인돌]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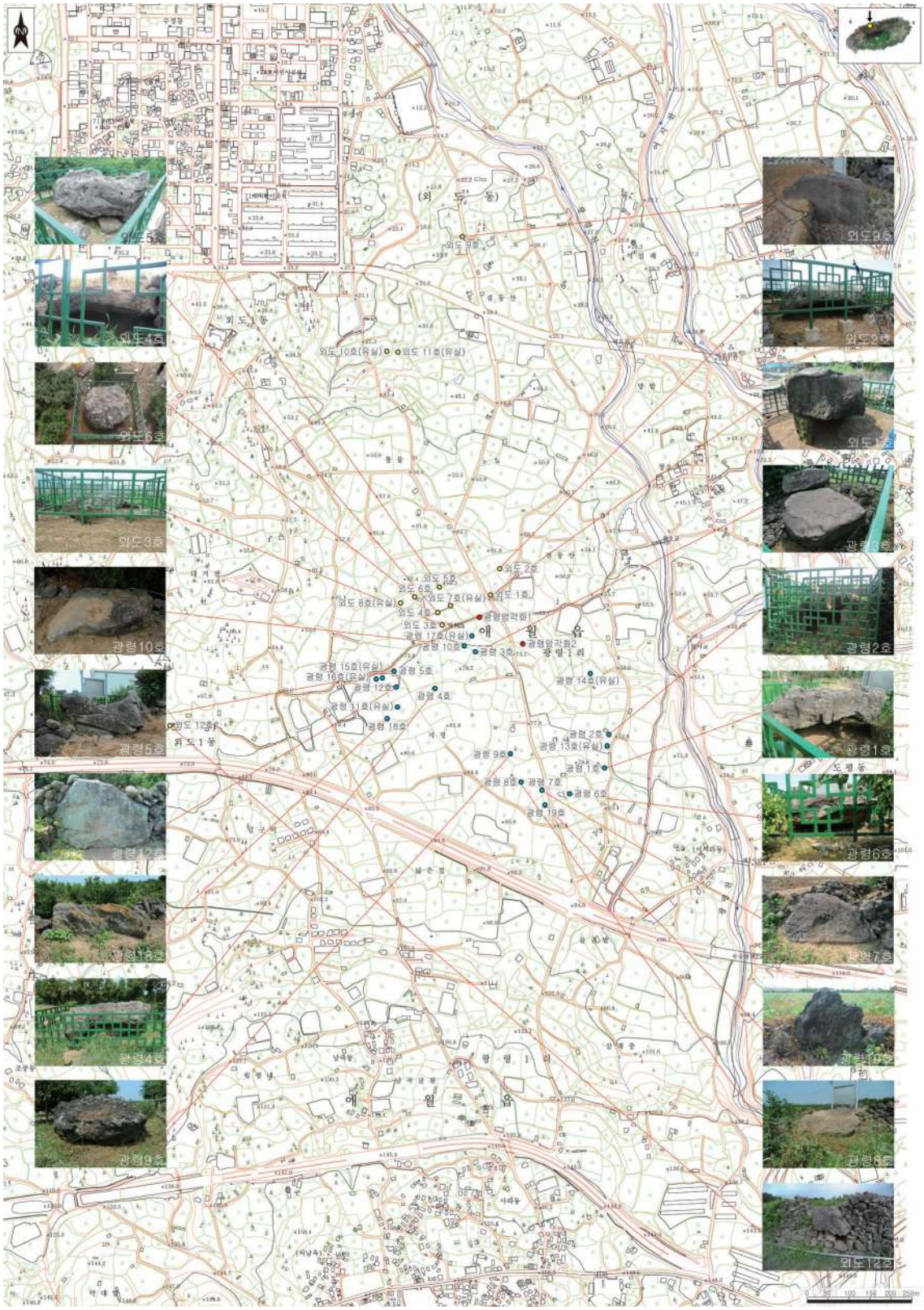
제주도의 고인돌은 한국 본토에서 들어온 탁자식 · 바둑판식 · 개석식 고인돌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본토에서는 기원전 300년경에 이미 사라진 지상형 북방식 고인돌이 기원후 200년까지 잔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탐라형성기 말기에 이르러 제주도 지상형 고인돌은 상석 아래에 판석형 지석을 병풍처럼 고이고 지상에 위석형(圍石形) 돌방을 만든 고인돌로 축조되게 이른다. 이러한 지상 위석형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고인돌로, 이른바 '제주도식고인돌'이라 한다.

고인돌은 크게 나눠 지상에 4면을 판석으로 막아 묘실을 설치한 뒤 그 위에 상석을 올린 형식과, 지하에 묘실을 만들어 그 위에 상석을 놓고 돌을 괴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체로 한반도 중부 이북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후자는 중부 이남 지방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 지하에 묘실을 만들었으나 남방식 고인돌과는 달리 돌을 괴지 않고 묘실 위에 상석을 바로 올린 고인돌도 있는데, 이를 개석식 혹은 변형 고인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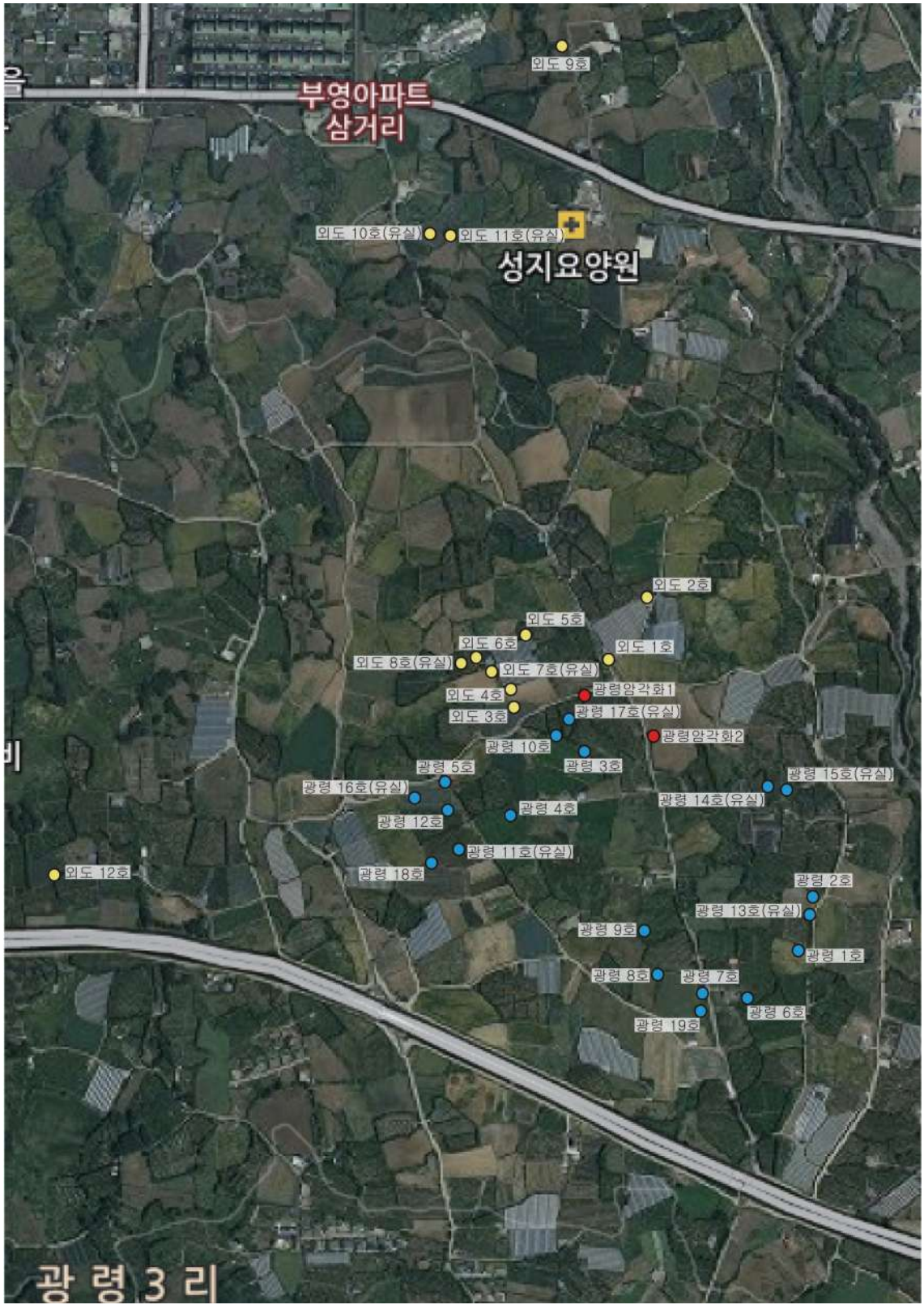
제주도의 고인돌은 위에서 제시한 한반도 고인돌 3형식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장부의 위치와 지석의 고임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6형식으로 나누어진다. 1형식은 지석 없이 상석이 지표에 막바로 닿는 개석식 고인돌이다. 2형식은 남방식 유형에 속하나, 전형적인 남방식에 비해 제대로 다듬지 않은 할석을 지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석의 숫자도 3~10매로 그 예가 다양하다. 3형식은 상석 한쪽이 아치형으로 개방되어 하부 매장부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좌우와 들리지 않은 뒤쪽에 지석이 고인 형식이다. 4형식은 지석이 이중으로 고인 형식이다. 비탈면을 이용하여 한쪽은 작은 할석으로 받쳐져 있다. 5형식은 비탈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은 할석과 괴석을, 낮은 곳에는 판석을 고인 형식이다. 마지막 6형식은 상석 밑을 판석형 지석으로 완전하게 에워싸서 고인 형식으로 지상에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실을 만든 형식이다. 대체로 1 · 2형식은 매장부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지하형이며, 3 · 4 · 5형식은 반지상형, 5, 6형식은 지상형이다.

제주도의 고인돌 중 6형식은 북방식 고인돌처럼 추가장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형이다. 이 6형식 고인돌의 대표적인 예는 제주시 한천 변에 자리한 용담동 6호 고인돌과 광령천 변에 자리한 광령리 4호 고인돌(본고의 광령리 고인돌2호)이다. 이러한 제주도식고인돌의 축조는 분명히 제주도의 다른 형식의 고인돌보다 많은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만 가능하다.

고인돌 내부와 그 주변에서는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 적갈색토기, 숫돌, 방추차 등의 유물이 수습되



| 그림 1. 외도동 · 광령리일대 고인돌[支石墓]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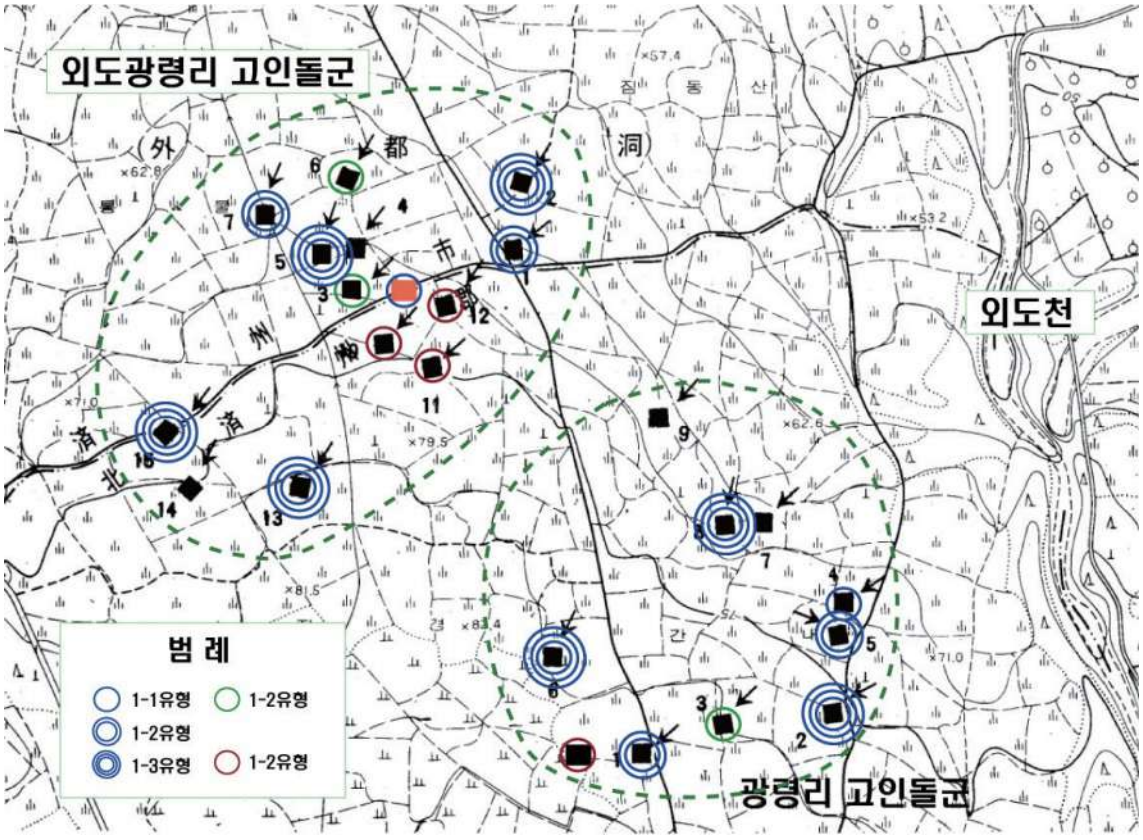


| 그림 2. 외도동 · 광령리 지석묘 분포도(위성사진, Naver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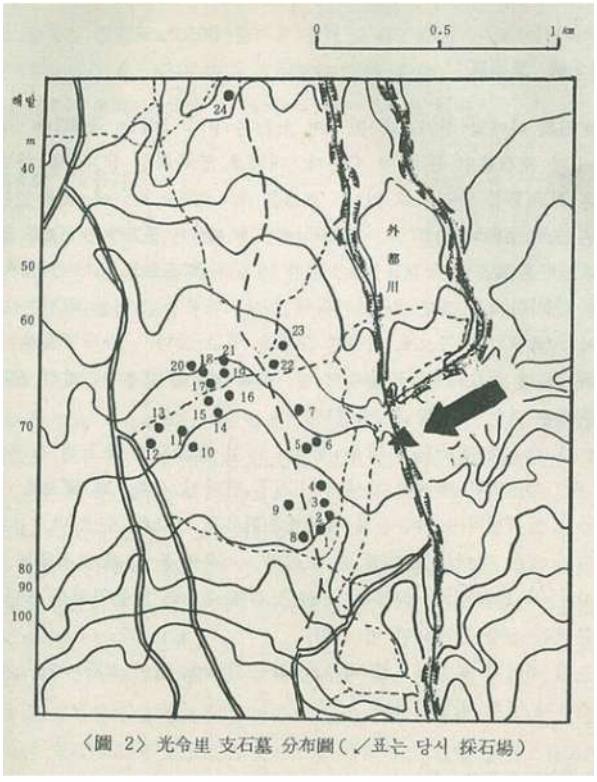
며, 중심시기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경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 유물로 추정된다.

특히 제주도식고인돌, 일명 '지상형 병풍식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모두 고대 탐라의 큰 마을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정도의 규모는 읍락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주도식 고인돌의 존재는 탐라 지배엘리트층의 등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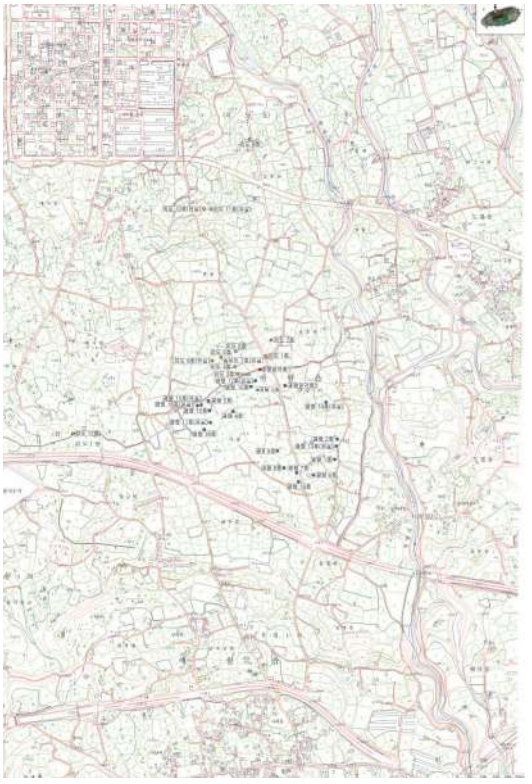
결국 제주도식 고인돌은 제주 섬이 갖고 있는 묘제의 전통성과 독특성이 함의된 장묘문화이다. 한국 본토의 두껑돌을 가진 횡구(렬)식 석실묘와 비견되는 탐라초기 수장층의 묘제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 그림 3. 외도동 · 광령리 고인돌[支石墓] 분포도(세부) |



| 그림 4. 외도동 · 광령리일대 고인돌[支石墓] 분포도(이청규, 1985, 濟州道 支石墓硏究(I), 耽羅文化 4, PP. 25-74) |



| 그림 5. 외도동 · 광령리 일대 고인돌[支石墓] 분포도(2015) |

2. 제주시 외도 · 광령 고인돌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

1) 현황 및 실태

현재 제주도내 고인돌 군락 중에 가장 밀집된 상태를 보여 주는 곳이 외도동과 광령리 고인돌 군락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 고인돌 6형식이 모두 모여 있어 제주고인돌 연구의 산실이기도 하다.

1985년 조사에서 확인된 24기의 고인돌 중에 6기가 멸실된 상태이거나 이동된 상태이다.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이 일대 고인돌은 외도동 고인돌이 8기(1기 추가 확인)이고 광령리 고인돌이 13기(2기 추가 확인)이다.

지정된 고인돌은 외도동 고인돌이 5기, 광령리 고인돌이 10로 모두 15기이다. 지정이 필요한 고인돌은 외도동 고인돌이 2기이고 광령리 고인돌이 3기이다. 현존하는 외도 · 광령리 고인돌 21기 중에 1기는 발굴조사를 진행한 고인돌로 고인돌 공원이 만들어지면 일정 장소로 이동이 불가피한 고인돌이다(표 1 참조).

| 표 1. 외도동 · 광령리 일대 고인돌 분포 조사 현황 |

명칭/년도	1985년	1998년	2015년조사	유실/추가
외도동 고인돌	11기	7기	8기	4기/1기
광령리 고인돌	13기	11기	13기	6기/2기
합 계	24기	18기	21기	10기/3기

2) 고인돌 공원의 조성계획

고인돌 공원의 조성계획은 본 보고서의 'Ⅶ. 주변지역 환경과 함께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pp383-392)'에서 제시하였다. 더불어 보존관리 체제 및 사례분석은 'Ⅷ.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고려 및 홍보 계획 제시(pp. 393-416)'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발굴된 고인돌의 정비에 대해서는 '부록5. 지석묘 정비 및 보수 정비 계획의 일례(pp, 527-534)'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광령리 암각화와 연계된 외도 · 광령 고인돌 공원의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부록 3. 제주도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과 고인돌 고찰(pp. 457-488)'에서 다루고 있다.

3) 토지 매입과 토지매입 순위

매입면적은 고인돌을 중심으로 100㎡(10×10m)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밭과 밭 경계에 걸쳐 조성된 지석묘의 경우 장축방향으로 5m 연장한 150㎡(15×10m)를 매입하여야 할 것이며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인돌의 경우에는 400㎡(20×20m)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외도 · 광령 고인돌 공원 조성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고인돌 소재 필지 지번, 매입면적, 매입비, 매입순위 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 표 2. 외도동 · 광령리 일대 고인돌 분포 조사 현황 |

명칭	소재지	지정현황	사진	매입면적/매입비	토지 매입순위
외도동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0–1번지(전), 20–2번지(도로)	도지정기념물 02월 11일 (1990.05.30)		100㎡(10×10m) / 8,265,000원	①
외도동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0–1번지(전)	도지정기념물 02월 12일 (1990.05.30)		100㎡(10×10m) / 8,265,000원	①
외도동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3–3번지, 24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3일 (1990.05.30)		100㎡(10×10m) / 4,980,000원	①
외도동 지석묘 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3번지,28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4일 (1990.05.30)		100㎡(10×10m) / 4,980,000원	①
외도동 지석묘 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8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5일 (1990.05.30)		100㎡(10×10m) / 4,980,000원	①
외도동 지석묘 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7번지	문화재 지정 필요		100㎡(10×10m) / 3,670,000원	①
외도동 지석묘 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외도동 28번지	유실		·	③
외도동 지석묘 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27번지	유실		·	③

명칭	소재지	지정현황	사진	매입면적/매입비	토지 매입순위
외도동 지석묘 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24-3번지	발굴조사 실시(1986)		·	이전복원
외도동 지석묘 1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87번지	유실		·	③
외도동 지석묘 1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88번지	유실		·	③
외도동 지석묘 1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1080번지	문화재 지정 필요		400㎡(20×20m) / 24,840,000원	②
광령리 지석묘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9-1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6일 (1990.05.30)		100㎡(10×10m) / 5,13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1번지, 1611-3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7일 (1990.05.30)		150㎡(15×10m) / 8,55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1667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8일 (1990.05.30)		100㎡(10×10m) / 2,70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4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19일 (1990.05.30)		400㎡(20×20m) / 9,720,000원	①

명칭	소재지	지정현황	사진	매입면적/매입비	토지 매입순위
광령리 지석묘 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1번지, 1677-7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20일 (1990.05.30)		150㎡(15×10m) / 6,727,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도지정기념물 02월 21일 (1990.05.30)		100㎡(10×10m) / 2,70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번지, 1825-1번지경계	도지정기념물 2-33 (2004.09.09)		400㎡(20×20m) / 23,22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번지, 1824-1번지경계	도지정기념물 2-34 (2004.09.09)		150㎡(15×10m) / 8,707,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1번지	도지정기념물 2-35 (2004.09.09)		100㎡(10×10m) / 5,70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1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6-1번지, 1665번지경계	도지정기념물 2-36 (2004.09.09)		150㎡(15×10m) / 7,470,000원	①
광령리 지석묘 1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유실		·	③
광령리 지석묘 1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1679번지경계	문화재 지정 필요		150㎡(15×10m) / 7,875,000원	②

명칭	소재지	지정현황	사진	매입면적/매입비	토지 매입순위
광령리 지석묘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3번지	유실		-	③
광령리 지석묘 1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유실		-	③
광령리 지석묘 1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유실		-	③
광령리 지석묘 1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유실		-	③
광령리 지석묘 1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1665번지경계	유실		-	③
광령리 지석묘 1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3번지, 1691번지 경계	추가 확인		150㎡(15×10m) / 4,050,000원	②
광령리 지석묘 1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5-1번지	추가 확인		400㎡(20×20m) / 23,220,000원	②

4) 관람 동선 배치 계획

외도 · 광령고인돌 군락을 크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눈다. 다시 구역을 세분하여 A구역을 A-1, A-2, A-3으로 나눈다. 먼저 A-1구역은 외도동 고인돌 1, 2호, A-2구역은 외도동 고인돌 3,4,5,6호, A-3구역은 광령리 고인돌 3호, 10호가 포함되고 바로 동북편에 광령리 암각화가 인접해 있다. 반면 B-1구역은 광령리 고인돌 4, 5, 12, 18호, B-2구역은 외도동 고인돌 12호가 포함된다. 또한 C-1구역은 광령리 고인돌 1, 2호, C-2구역은 광령리 고인돌 6,7,8,9,19호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외도 · 광령고인돌 공원의 관람 동선 배치는 크게 3개 동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제1코스 : A-1구역→ 광령리 암각화→ A-2구역→ A-3구역→ B-1구역→(B-2구역)→ C-2구역 → C-1구역내 고인돌 탐방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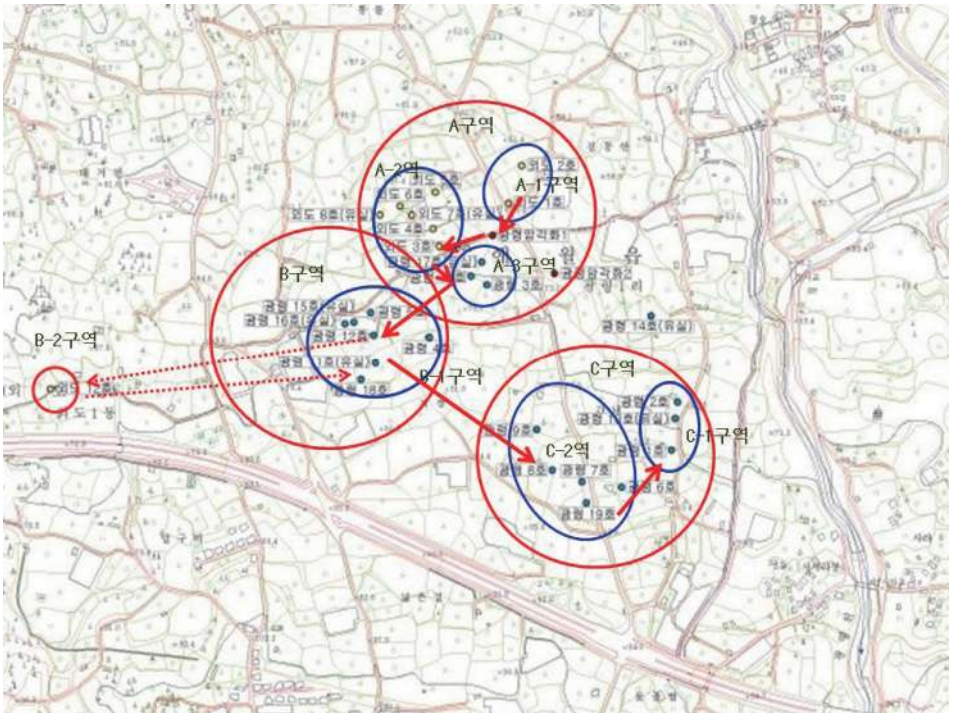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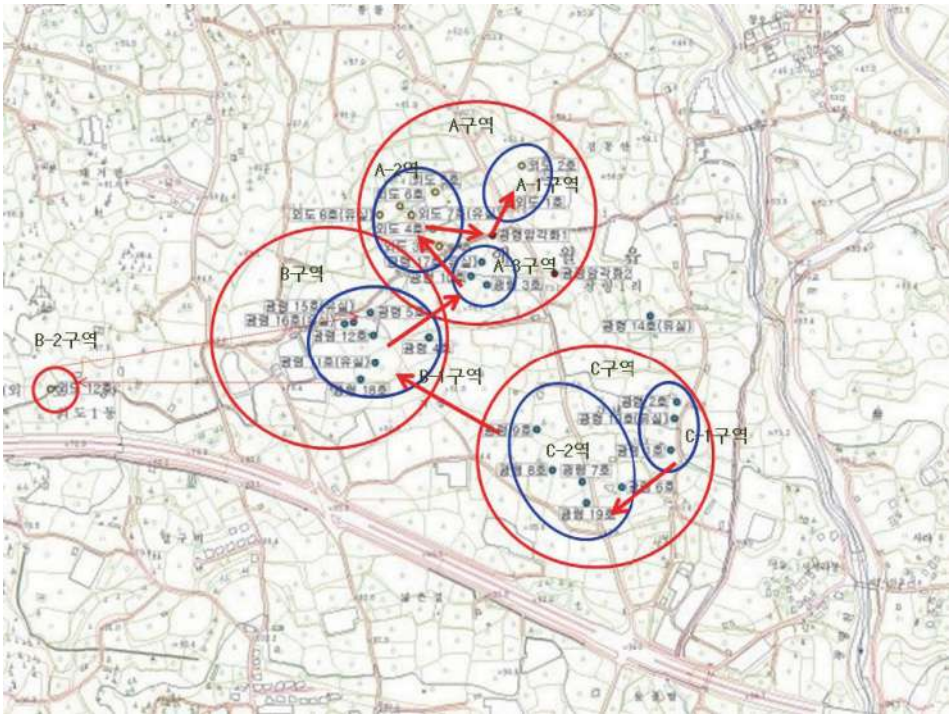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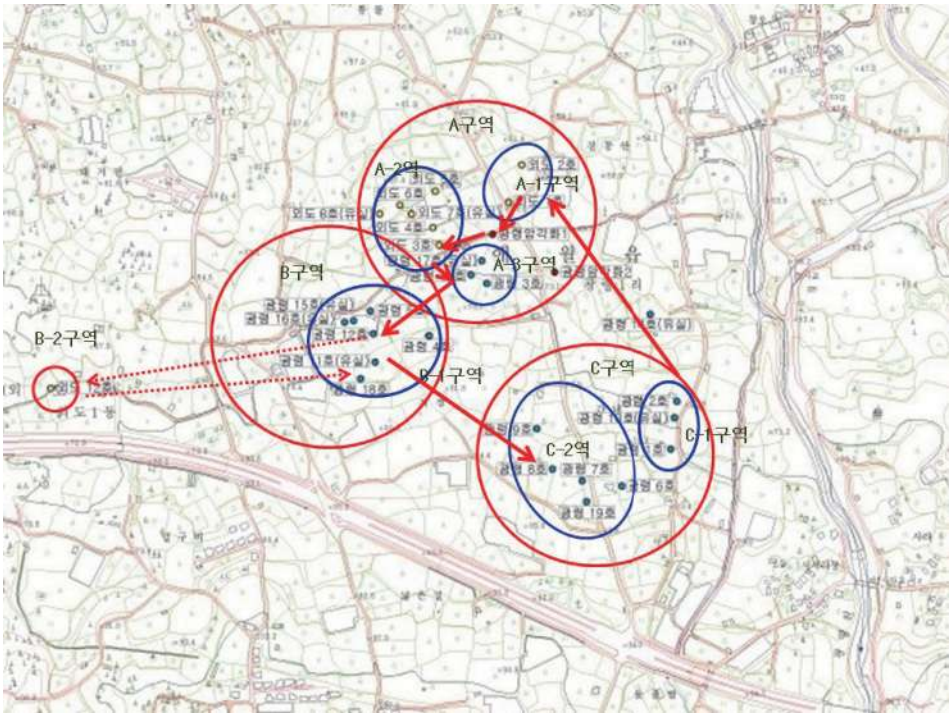
그림 8. 외도 · 광령고인돌[支石墓] 공원 관람동선 배치(제1코스)

② 제2코스 : C-1구역→ C-2구역→ (B-2구역)→ B-1구역→ A-3구역→ A-2역→ 광령리 암각화→ A-1구역내 고인돌 탐방 코스이다.



| 그림 9. 외도 · 광령고인돌[支石墓] 공원 관람동선 배치(제2코스) |

③ 제3코스 : C-1구역→ A-1구역→ 광령리 암각화→ A-2구역→ A-3구역→ B-1구역→(B-2구역)→ C-2구역내 고인돌 탐방 코스이다.



| 그림 10. 외도 · 광령고인돌[支石墓] 공원 관람동선 배치(제3코스) |

4. 고인돌 설명문안 표준안 제시

광령리 고인돌 2호

· 지정번호 : 도기념물 2-17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30일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1번지, 1611-3번지
· GPS 좌표 : N 33°28′24.15″E 126°26′30.23″
· 해발고도: 7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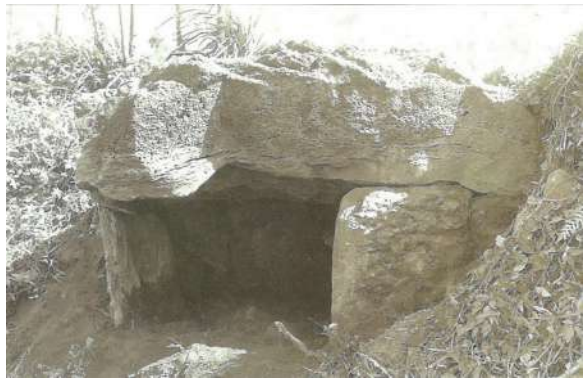
제주도 고인돌은 매장부의 위치와 지석의 고임방식을 기준으로 6형식으로 나뉜다. 대체로 1~2형식은 매장부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지하형이며, 3~5형식은 반지상형, 5~6형식은 지상형이다. 제주도 고인돌 중 6형식은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고인돌로, 이른바 '제주도식 고인돌'이라 한다. 대표적인 제주도식 고인돌은 이 광령천변의 광령리 2호 고인돌과 한천 변의 용담동 6호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밭 경계 2m 높이의 급격한 경사면 중간에 걸쳐 있는 고인돌로서, 용담동 고인돌 6호처럼 상석(上石)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잘 다듬은 판석형(板石形) 지석(支石)이 병풍처럼 둘려 있다. 상석(上石)은 길이 250㎝, 폭 205㎝, 두께 55㎝로 비교적 고르게 다듬은 장방형으로 장축은 정확하게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 장방형의 상석(上石) 가장자리를 따라 지석이 고여 있으므로 지석(支石)으로 이루어진 석실(石室) 또한 장방형을 이루게 된다. 지석(支石)은 전부 높이 70~80㎝, 폭 55~60㎝, 두께 8~13㎝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석(長方形 板石)으로 북쪽을 제외한 부분에 똑같이 각 3매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여 있고, 북쪽은 현재 지석(支石) 없이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제주도식 고인돌의 축조는 많은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식 고인돌은 탐라형성기 초기[기원전 3세기 무렵] 수장층[지배엘리층]의 묘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986년 광령리 지석묘 2호 |



| 1998년 광령리 지석묘 2호 |

There are six types of Jeju dolmens based on the location of settlements and support of stones. No 1 type is an open dolmen. No 2 type is a southern style, using 3–10 supporting stones that are not as polished as the typical southern style. No 3 type is a dolmen supported by open arch–type stones at the front. No 4 type is a dolmen supported by two layers of stones. No 5 type is a dolmen supported by a small rock on a slope on one side and a flat stone on the flat ground on the other side. No 6 type is a dolmen with the bottom of the stone completely surrounded by many flat stones, creating a rectangular or round stone chamber above the ground. In general, No 1 and 2 types are located underground, while No 3, 4 and 5 types are semi–ground, and No 5 and 6 types are above ground. No 6 type among Jeju dolmens is a unique type that cannot be found in the Korean Peninsula, namely 'Jeju–style dolmen'. Typical Jeju–style dolmens are No 6 dolmen in Yongdam–dong near the Hancheon Stream, and No 5 dolmen in Gwangnyeong–ri near the Oedocheon Stream. These Jeju–style dolmens could have been established by mobilizing great labor force and specialized workers. It is highly likely that Jeju–style dolmens would have been tombs of rulers [elites] in the early Tamna formation period [around 3 B.C.].

부록

2. 제주시 지석묘군 소재지
용담동 · 외도동 · 삼양동
(龍潭洞) (外都洞) (三陽洞)
마을의 유래

여 백

제주시 지석묘군 소재지

용담동(龍潭洞) · 외도동(外都洞) · 삼양동(三陽洞) 마을의 유래

1, 용담동(龍潭洞) 마을의 역사적 환경

오늘날 용담동은 조선 정조(正祖) 연간(1786~1789)에 간행된 『제주읍지(濟州邑誌)』 제주목(濟州牧) 방리(坊里) 항목에 의하면, '大獨浦里; (夾注) 西距二里 民戶五十二 男一百六十六 女一百七十'이라 하여, 마을 이름은 '대독포리(大獨浦里)', 호수는 52호, 인구는 남자가 166명, 여자가 170명으로 합계 336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대독포리(大獨浦里)의 '대독(大獨)'은 '한더기'의 이두표기이다. 즉, '대(大)'는 '한'(크다), '독(獨)'은 '더기'의 표기인데, '더기' 혹은 줄여서 '덕'은 고원(高原)의 평평한 땅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독(獨)'보다는 '덕(德)'이 더 알맞은 표기가 되겠다.

따라서 '대독포리'는 '한더기 갯마을'이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을 사람들은 '한두기', '한데기'로 불려왔으나 이 또한 '한더기'가 바른 표현이다. 대독포리는 또 고지도상(古地圖上)에 '대옹리(大瓮里)' 혹은 '대옹포(大瓮浦)'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독'을 큰 오지그릇으로 보고 '옹(瓮)'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쯤 되면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심하다 하겠다. 한편 위 기록에 나타난 호수나 인구로 본다면, 18세기 말까지만 하여도 한적한 변두리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 용담으로 개칭하여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광무(光武) 8년(1904)에 간행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는 이미 용담(龍潭)이 씌어져 있다. 제주목 중면(中面)에 속한 25개 리(里) 가운데 하나로 '용담(龍潭)'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마을의 규모는 연가(烟家)가 235호에 인구는 남자가 276명, 여자가 278명으로 합하여 554명이며, 초가(草家)는 518간(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발표된 조선총독부의 『생활실태조사(生活實態調査)』에 따르면, 당시 용담 지역의 인구는 404호에 인구는 남자가 934명, 여자가 1,161명으로 합계 2,095명이라고 하였다.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고종 32년(1895)에 이미 지방관제의 개정의 의하여 제주부(濟州府)가 되어 제주 · 대정 · 정의 3군을 관할하다가, 그 이듬해인 1896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제주목(濟州牧)이 되어 전라남도에 편입되고(이에 따라 제주목이 제주 · 대정 · 정의 3군을 관할함),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정의군과 대정군 전역과 완도군의 추자면을 병합하고 제주군(濟州郡)이 되어, 제주 · 구좌 · 신좌 · 구우 · 신우 · 정의 · 동중 · 서중 · 우면 · 대정 · 중면 · 좌면 · 추자 등 13면, 167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는데, 이때에 용담리는 제주면(濟州面) 25개 리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1915년 5월에는 도제(島制)가 실시됨에 따라 도사(島司)를 두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제주면이 읍

(邑)으로 승격되고, 1946년 8월 1일에는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에 의하여 제주도(濟州道)로 승격하는 동시에 군제(郡制) 실시에 따라 북제주군에 편입되었다. 1955년 9월 1일에는 법률 제368호에 의하여 제주읍이 시(市)로 승격되고,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종전의 25개의 법정리가 40개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에 용담리도 용담1동, 용담2동, 용담3동으로 나누어졌다.

1962년 1월 1일에는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제주시 40개 동이 14개의 행정동으로 통합되면서 용담 1동, 2동, 3동이 용담동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 뒤 1977년 11월 1일에는 25개의 법정리가 40개 법정동으로 개편되었으며, 1979년 5월에는 17개 행정동으로, 1983년 10월 1일 다시 18개 행정동이 되었다. 그리고 1985년 10월 1일에는 용담동이 용담1동과 2동으로 분동(分洞)됨으로써 제주시 행정동은 현재 19개 동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용담동은 용담1동과 용담2동의 2개 행정동과 용담1동, 용담2동, 용담3동의 세 개 법정동으로 구획되어 있다.

1955년 9월 시제(市制)가 실시되면서부터 용담리의 일부였던 '한더기, 부러리'를 분할하여 용담1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내'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이 용담 1동이다. '동한더기, 부러리, 비룡못동네, 새광양[新校洞], 한냇동네, 새왓동네, 남사(南舍 마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용담2동은 '한내' 서쪽 지역으로 현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 · 고등학교 동쪽, 남북으로 난 길이 용담2 · 3동의 경계지점이다. 사대부중 · 고 동쪽과 남쪽 나머지 지역이 곧 용담2동으로 '서한더기, 새정드르, 성화부락, 먹돌생이, 용문부락, 월성부락, 명신부락, 신풍주택, 쉐통밧 동네, 묵은터' 등이 있다. 1942년부터 정드르를 중심으로 군용비행장이 건설되었으며, 초창기 철거민들은 대부분 현재 용담2동 사무소 부근으로 이주했다. 용담3동은 사대부중 · 고 서쪽 '대학동, 용마부락, 어영' 지역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다끄내'라는 마을이 있었다.

다음으로 용담동 지역에 있었던 유적을 살펴보자.

벌랑포수전소(伐郎浦水戰所)는 조선 초기에 벌랑포(부러리, 버렁)에 있었던 수전소이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주목 관방)에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간행된『탐라지(耽羅志)』(孝宗 4년, 1653 刊行)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한해 이곳에 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주목의 방어체제로 방호소와 함께 좌우방(左右舫)의 수전소가 있었는데, 좌방(左舫)에는 건입포수전소, 조천관포구수전소, 김녕포구수전소가 속하였고, 우방(右舫)에는 벌랑포수전소, 도근천포구수전소, 애월포구수전소, 명월포구수전소가 속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전선(戰船)이 있었고 또 군사가 있어서 번갈아 가며 나누어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공납하는 물건과 선물(膳物)도 여기에서 번갈아 가며 운수(運輸)하여 바다를 건넜다. 내용 중 좌우방(左右舫)의 방(舫)은 방수군(防守軍)의 약어, 즉 배를 타는 수군의 뜻이다.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伐郎浦水戰所 在州西二十步

수근연대(修近烟臺)는 제주시 용담동 2290번지의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조선 시대에는 군사통신 수단의 하나로, 변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또는 변경의 다른 기지, 그리고 해당 지방의 주민에게 알려서 위급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봉수(烽燧)와 연대(烟臺)가 있었다. 과거의 읍지류(邑誌類)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는 25개소의 봉수대와 38개소의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원래 봉수대는 산 정상에 세우고, 구릉에는 연대를 세웠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둘 다 바다가 잘 보이는 주요 지점에 설치되었는데, 야간에는 불꽃(火焰)으로, 주간에는 연기로 그 위급함을 알리면, 인근의 봉수대와 연대에서 받아 다른 곳으로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수근연대의 '수근(修近)'은 '다끄내'의 한자표기로,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정(釘)으로 포구를 쪼아 만들어서 사는 동네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마을에서는 '어영연디'라고도 한다. 동쪽으로는 별도연대(別刀烟臺, 제주시 화북동 위치)와 연락하고, 서쪽으로는 조부연대(藻腐烟臺, 제주시 내도동 위치)와 연락한다. 『제주읍지(濟州邑誌)』에는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명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직군은 뒤에 연군(烟軍)으로 바뀌고 인원도 6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목 소속이었다. 『濟州邑誌』·『濟州兵制烽臺摠錄』 東應紗羅 西應藻腐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耽羅誌草本』 在州西八里 東應別刀 西應藻腐 別將六人 烟軍六名

'말물[斗泉]'은 제주향교에 있었다. '말새미'라고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병문천(屛門川) 서쪽 50보(步) 거리에 있는데, 그 모양이 말[斗]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 샘물을 마시면 능히 백 보를 나를 수 있는데, 호종조(胡宗朝, 일명 胡宗旦)가 와서 압양(壓禳)하였기 때문에 그 기운이 드디어 없어졌다."고 한다. 가물면 맑아지고 비가 오려면 금(金) 기운이 물 위에 뜬다고 기록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在屛門川西五十步 其形如斗故名 世傳飮此泉能解飛百步 胡宗朝來壓 其氣遂亡 旱則淸 將雨則金氣浮水面, 『耽羅志』 在州西屛門川外五十步 其形如斗故名 世傳 飮此泉能解飛百步 胡宗朝來壓 其氣遂亡 旱則淸澈 欲雨則金氣浮於水面

병문내[屛門川]는 『탐라지(耽羅志)』에 "병문천은 서성(西城) 밖에 있는데, 그 하류는 벌랑포(伐浪浦)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병문천은 오등동 남쪽,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아라1동, 도남동의 서쪽을 거쳐 오라1동, 오라2동의 옛 제주읍성의 서쪽 성 밑을 돌아 이도2동, 삼도1동과 용담1동 경계를 이루면서 북쪽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1914년경에 교량이 건설된 뒤 여러 차례 중수되다가 1995년에 복개공사가 이루어졌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在州城西, 『耽羅志』 在州西城外 末流爲伐浪浦

대천(大川)은 '한내', 한자로는 한천(漢川)이라고도 표기한다. 이에 대한 옛 기록을 정리해 보면, "가물면 마르고 비가 오면 넘치는데, 물이 우묵한 곳에 이르러는 저수지[웅덩이]가 되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곳을 이름하여 용추(龍湫), 즉 오늘날 용연(龍淵)이라 하는데 그 길이가 1백 보 내외이지만 양쪽에는 높이 7-8m의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

고, 그 안이 넓고 아늑하여 달밤에 배를 띄우고 놀면 별천지를 이루어서 예로부터 용연야범(龍淵夜帆)이라 하여 영주10경(瀛洲十景)의 하나로 유명하였다. 이 용연 절벽에는 지금도 예전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남겨놓은 마애명(磨崖銘)들이 남아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在州西三里 旱乾雨漲 水到凹處爲潴其深無底 名曰龍湫 歲旱就禱, 『耽羅志』 在州西二里 末流爲大瓮浦 其下有龍湫 深無底 長百步餘 旱則禱雨有應

제주향교(濟州鄕校)는 조선시대 지방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그 구조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봉안한 대성전(大成殿)과 동 · 서무(東西廡) 등의 문묘(文廟),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숙하는 명륜당(明倫堂)과 동 · 서재(東西齋) 등의 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 수는 목(牧)에 9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교수관(敎授官)으로는 종6품의 교수(敎授)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관의 경우, 문과 급제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방의 교관직에 부임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관원이 아니면서 교수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교도직, 또는 학장(學長) 등의 이름으로 현지 출신의 생원 · 진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기도 하였고, 지방에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보임시키기도 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국초로부터 향교에 지급된 향교전(鄕校田)이 주요 재원이었으며, 교육과정에서의 고강(考講; 시험)은 더없이 중요시 되었다. 왜냐하면 고강에 낙강(落講)한 학생은 학생신분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이다. 양란(兩亂) 이후 등장한 납속면강첩(納粟免講帖)은 고강을 통하여 교생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납속으로 면제받고자 한 것이었다. 향교의 배치는 향교가 자리 잡은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에 배향(配享) 공간이 오고 후면에 강학(講學) 공간이 오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루고,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진 터이면 높은 뒤쪽에 배향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변형된 방법들도 쓰이고 있다.

제주향교는 제주시 용담일동 29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조(朝鮮朝) 태조(太祖) 원년(1392, 壬申)에 현유(賢儒)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여 배향(配享)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창건되었다. 처음 위치는 옛 교동(校洞, 觀德亭下)에 건립되었으며, 세종(世宗) 17년(1435, 乙卯) 최해산(崔海山) 안무사(安撫使)가 재건(再建)한 이후, 세조(世祖) 12년(1466, 丙戌) 이유의(李由義) 절제사(節制使)가 중수하였고, 中宗 31년(1536)에는 심연원(沈連源) 목사가 명륜당(明倫堂)을 개축하였다. 그리고 선조(宣祖) 15년(1582, 壬午) 김태정(金泰廷) 목사가 가락천 동쪽 고령밭으로 옮겼고, 현종(顯宗) 9년(戊申)에는 이연 목사가 가락천, 경종(景宗) 4년(甲辰)에는 신유익(신유익) 목사가 화재로 인하여 가락천 동쪽 옛터로, 영조(英祖) 31년(1775)에는 홍태두(洪泰斗) 목사가 광양(廣壤)으로 옮겼다. 정조(正祖) 22년(戊午)에는 조명즙(曺命楫)이 대성전을 중수하였는데, 순조(純祖) 27년(1827)에 심영석(沈英錫) 목사가 문묘의 기지가 사방으로 바람을 받는다며 옮겨 세울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고, 그의 뜻을 이어 이행교(李行敎) 목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기었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典籍) ·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수관(敎授官) 1명이 정원 70명의

교생(校生)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 ·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 · 보름에 분향(焚香)을 하고 있다. 제주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와 장의(掌議) 등이 담당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大成殿) · 명륜당(明倫堂) · 계성사(啓聖祠) · 전사청(典祀廳) · 좌우협문(左右夾門) 등이 있다.

○大成殿은 文廟라고도 한다.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孔子)를 받드는 묘우(廟宇)이다. 안자(顔子) · 증자(曾子) · 자사(子思) · 맹자(孟子)를 배향(配享)하고, 공문10철(孔門十哲)과 송조6현(宋朝六賢) 및 우리나라의 신라 · 고려 · 조선조의 명현 18현(十八賢)을 종사(從祀)하여 학생들의 사표(師表)로 삼았다. 대성전은 전면 五間, 측면 四間의 건물로 면적은 15.8×11.1m이다. 조선조에는 공자를 正位로 하여 4성과 공문10철, 송조6현을 대성전의 좌우에 배열하여 배향하고 동무(東廡)에는 중국의 명현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고, 서무(西廡)에 역시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明倫堂은 유학을 강학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강당이다. 전면 四間, 후면 四間의 건물로 면적은 21.95×10.85m이다. ○啓聖祠는 중국의 예에 따라 5성(五聖; 孔子 · 顔子 · 曾子 · 子思 · 孟子)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철종 6년(1855) 가을에 창건되었다. 규모는 전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로 면적은 12.39×7.25m이다. 제향된 위패는 공자의 아버진인 제국공 공숙량흘(齊國公孔叔梁紇), 안자의 아버진인 곡부후 안무유(曲阜侯顔無繇), 증자의 아버진인 내무후 증점(萊蕪侯曾點), 자사의 아버진인 사수후 공리(泗水侯孔鯉), 맹자의 아버진인 주국공 맹격(邾國公孟激)이다.

향교에서는 1907년에 사립대동보통학교가 개교(1910년 1회 졸업생 배출)되었고, 제주대학도 여기서 개교되었다. 6.25로 인한 피난시절에는 통합 한국대학교, 미군정 당시에는 북군청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해륜사(海輪寺)는 제주시 용담1동 385번지에 있는데, 일명 '서자복사(西資福寺)'라고도 전한다. 제주시 용담동 속칭 병문천[仙盤내]과 漢川[大川] 사이에 있다. 바다와 근접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해발 10m의 절동산이 있다. 현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절왓'이라고 불리는 경작지에는 다량의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다. 절왓 북쪽 385번지에는 '미륵불(彌勒佛)'이라고 불리우는 높이 1.9m의 석불(石佛)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만수사지(萬壽寺址)의 미륵불과 마주보고 있는데, 성안을 보호하는 신격(神格)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 창건되어 18세기 중엽에 폐사(廢寺)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경에 용화사라는 사찰(寺刹)이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석불도 이 용화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海輪寺址 一名西資福 在州西獨浦口

용담2동 포제단은 사람과 사물에게 재해(災害)를 주는 신에게 액을 막고 복을 줄 것을 빌던 제단이다. 서울과 제주도의 두 곳에 있었는데 서울에는 따로 제단을 만들지 않고 마보단(馬步壇)에서 지냈었다. 제례는 소사(小祀)로, 가을에 곡식에 충재(蟲災)가 들 무렵 날을 가려서 지낸다. 각 지역에서 충재가 발생하였을 때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향 · 축 · 폐백 등을 보내어 지방의 중심부에 단을 모아서 치제하게도 하였다. 행사는 다른 제사들과 같이 재계(齋戒) · 전향축(傳香祝) · 성생기(省牲器) · 행례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정월 첫 정일(丁日)에 포제동산에 제단을 베풀고 유교식으로 풍년을 비는 포제도 있었다. 용담2동 포제단은 노인회관 남쪽에 있다. 마을제는 5, 6인으로 구성된 마을 자치조직인 마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치러진다. 회의 조직을 보면, 원로인 향장을 두고, 위원장, 총무, 감사, 간사를 두었고, 이들이 해마다 마을제를 주관한다. 제청은 오래 전부터 경로당을 사용하였는데, 마을의 안녕과 해상의 안전, 해산물의 풍등을 '포신지신'에게 기원하는 포제는 제청에 입소하여 3일 정성을 하고, 돼지를 희생하여 초정일 후일제로 치러진다.

대소인하마비(大小人下馬碑)는 향교 정문에 세워져 있다. 앞면 중앙에 '大小人下馬碑'라 음각되어 있는데, 이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을 지날 때는 누구든지 말에서 내리라는 뜻의 돌비석이다. 본래 하마비는 태종 13년(1413) 종묘와 궐문 앞에 세운 것이 우리나라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문묘, 지방 관부 등에도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마비의 전형적인 형태는 '大小人員皆下馬'라 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그 고을의 수령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분적 한계를 정하여 통행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聖人)의 위폐가 모셔 있는 향교를 드나들 때는 계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말에서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는 높이 94cm, 너비 47cm, 두께 12cm이다.

용연 마애명(龍淵磨崖銘)은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용연에는 아직도 마애명이 남아 있다. 한천(漢川) 하류는 주위 경관이 수려하여 영주 12경의 하나로 꼽히는 용연야범(龍淵夜泛) 즉, 밤의 뱃놀이가 장관이라는 용연(龍淵)이 있다.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은 들렁귀의 봄 꽃놀이와 용연의 밤 뱃놀이를 풍류라 생각했으며, 들렁귀에서 처럼 용연의 암벽에도 한시나 이름을 새긴 마애명들을 남아 있다. 들렁귀에 새겨진 목사의 이름이나 싯귀가 용연의 암벽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2. 외도동(外都洞) 지역의 마을 형성과 그 연혁

외도동(外都洞)은 현재 제주시에 속한 19개의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동쪽으로는 제주시 이호동, 서쪽으로는 애월읍 하귀리와 상귀리, 남쪽으로는 제주시 해안동(노형동의 법정동)과 애월읍 광령리(사라마을)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지역이다.

외도동과 관련된 기록은『고려사(高麗史)』에 처음 나타난다. 수정사에 관한 기록이다. 공민왕 세가(恭

愍王世家) 22년(1373) 12월 7일자에, "공민왕 5년(1356)에 석기(釋器)를 제주 수정사에 보내어 안치(安置)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같은 내용이 위책 석기전(釋器傳)에도 수록되어 있다. 당시 석기를 제주 수정사에 보내어 안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같은 해에 전(前) 호군(護軍) 임중보(林仲甫) 등이 석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석기는 제주로 호송하던 도중에 탈출하여 평안도로 달아났다가 뒤에 잡혀 처형되었다. 이렇듯 수정사는 공민왕 5년에 이미 사서(史書)에 나타나고 있으며, 『태종실록(太宗實錄)』 8년(1408) 2월 28일자에는 이 수정사와 함께 법화사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즉,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주의 법화사와 수정사(修正寺로 표기됨) 두 절의 노비의 수를 정하는 문제를 보고한 내용에, "제주 목사의 공문에 의하면, 제주 지경에는 비보(裨補)로 된 사찰(寺刹)이 두 곳인데, 수정사는 현재 130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고 법화사는 현재 280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절의 노비도 다른 사사(寺社, 절)의 규례에 따라 각각 30명만 〈배정해〉 주고 그 나머지 382명은 전농시(典農寺)에 소속시키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는 것이다.(숫자는 전체적으로 32명의 차이가 있다). 이 기사는 의정부에서 제주도의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 두 절의 노비의 수를 조정해 준 것이다. 사찰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노비를 모두 관아에 소속시키게 하려는 억불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어떻든 두 절은 그 규모에 있어서 고려 말 조선 초의 제주도의 최대 사찰이었다.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산천 항목에, "도근천(都近川)은 제주 서쪽 18리에 있다. 일명 수정천(水精川)이라고도 하고, 조공천(朝貢川)이라고도 한다. 지방 사람들의 말이 간삽(艱澁)하여 도근(都近)이란 글자는 곧 조공(朝貢)이란 글자의 잘못이다. 언덕은 높고 험하여 폭포가 수십 자까지 흩날리고, 그 아래에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7~8리를 흘러 돌 사이에서 솟아나서 드디어는 한내[大川]의 하류를 이루는데 도근포(都近浦)라 일컫는다. 이 아래에 깊은 못이 있는데 수달 같은 동물이 물속에 잠복하여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람의 보물(寶物)을 보면 끌어당겨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제주목 관방(關防) 항목에는 도근천방호소(都近川防護所; 주 서쪽 17리에 있다.)와 도근천포구수전소(都近川浦口水戰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호소와 수전소는 문헌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간행된 『탐라지(耽羅志)』(효종 4년, 1653 간행)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한해 이곳에 방호소와 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주목의 방어체제로 방호소와 함께 좌우방(左右舫)의 수전소가 있었는데, 좌방(左舫)에는 건입포(巾入浦)수전소, 조천관포구(朝天館浦口)수전소, 김녕포구(金寧浦口)수전소가 속하였고, 우방(右舫)에는 벌랑포(伐郎浦)수전소, 도근천포구수전소, 애월포구(涯月浦口)수전소, 명월포구(明月浦口)수전소가 속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전선(戰船)이 있었고 또 군사가 있어서 번갈아 가며 나누어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공납하는 물건과 선물(膳物)도 여기에서 번갈아 가며 운수(運輸)하여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내용 중 좌우방(左右舫)의 방(舫)은 방수군(防守軍)의 약어, 즉 배를 타는 수군(水軍)의 뜻이다.

후대로 오면서 지금의 내도동(內都洞) 연대마을의 바닷가에 조부연대(藻腐烟臺)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를 외도연대(外都烟臺)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에는 군사통신 수단의 하나로, 변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또는 변경의 다른 기지, 그리고 해당 지방의 주민에게 알려서 위급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봉수(烽燧)와 연대(烟臺)가 있었다. 과거의 읍지류(邑誌類)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는 25개소의 봉수대와 38개소의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원래 봉수대는 산 정상에 세우고, 구릉에는 연대를 세웠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둘 다 바다가 잘 보이는 주요 지점에 설치되었는데, 야간에는 불꽃(火焰)으로, 주간에는 연기로 그 위급함을 알리면, 인근의 봉수대와 연대에서 받아 다른 곳으로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동쪽으로는 수근연대(修近烟臺; 제주시 용담동 위치)와 연락하고, 서쪽으로는 남두연대(南頭烟臺; 애월읍 신엄리 위치)와 연락한다. 『제주읍지(濟州邑誌)』(1876년경 간행)에는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명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직군은 뒤에 연군(烟軍)으로 바뀌고 인원도 6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목 소속이었다.

그리고 불우(佛宇) 항목에 "수정사는 도근내[都近川; 지금의 외도천] 서쪽 연안에 있다. 이제현(李齊賢)은 해가시(解歌詩)에서 '도근천에 쌓아둔 제방이 터져, 수정사 안이 또 물바다를 이루었네.(都近川頹制水坊 水精寺裏亦滄溟)'라고 읊었는데, 이것은 이 절의 고사(古事)에 대한 시다."라고 하였다.

조선 영조 41년(1765)경에 씌어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일본 天理大 소장) 제주목 면촌(面村) 항목에는 중면(中面)의 중우면(中右面) 소속으로 도두리(道頭里), 정실암리(井實巖里), 연동리(蓮洞里), 노형리(老衡里), 이생리(伊生里) 내도근천리(內都近川里), 외도근천리(外都近川里), 도평대리(都坪代里) 등 8개의 마을 이름이 보인다. 이 8개 리 중 후삼자가 뒷날 외도동을 이룬다. 중면은 행정면(行政面)이고 중우면은 유면(儒面)이다. 이렇든 『증보탐라지』에는 행정면과 유면이 혼성(混成)되어 있다. 즉, 제주목은 4개의 대면(大面; 행정면) 안에 12개의 소면(小面; 유면)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총 81리). 그 중 중면(中面, 28리)에 소속된 유면은 중좌면(中左面, 10리) · 주중면(州中面, 10리) · 중우면(中右面, 8리) 등 3면이었다. 그리고 대면에는 풍헌(風憲)이 각 1인이고, 소면에는 약정(約正)이 각 1인이다. 81리에는 경민장(警民長) · 권농(勸農) · 기찰장(機察官) · 포도(捕盜) · 존위(尊位) · 동장(洞長) · 이임(里任) · 색장(色掌) · 지심(指審) · 유사(有司)가 각각 1인이 있어서 함께 서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정조 13년(1789)에 씌어진 『호구총수(戶口總數)』 제주 중좌면(中右面) 항목에도 같은 내용의 7개 마을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외도근천리'는 착오인 지 누락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면은 향약 시행의 단위였다. 또한 유면은 정비되기 이전의 조선 전기의 행정면의 구실도 하였다. 숙종 원년(1675) 12월 제주목에서 지금의 한림읍 금악리 수산강씨(水山姜氏) 집안에 발

급한 준호구(準戶口)에 '明月面 水流川里'라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원래 유면을 설치한 것은 문묘(文廟, 鄕校)와도 관계가 있다. 기강을 세우고 유학(儒學)을 권하여 마을에 가르침을 베풀고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유면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정비된 행정적 차원의 면 · 리 제도와는 현저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현(縣)까지였다. 그러므로 면(面)은 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지방 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면은 수령의 관할이라기보다는 향소(鄕所) 또는 향약의 계통을 잇는 것이었다. 약정(約定) 등의 임원도 좌수(座首) · 별감(別監)의 추천에 의하여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약정 등의 임무는 제주목과 대정 · 정의 두 현의 행정 단위와 일반 백성 사이에 개재하여 정령(政令)을 주지시키고 특히 조세를 독촉하는 등 지방 관청의 심부름이 주된 임무였다. 향소 또는 향약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향촌의 덕망가가 추대되어 교화로써 자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뒤에는 차차 그 역할이 변질되어 나갔다.

이리하여 정조 10년(1786)경에 씌어진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 항목에는 중면(中面)에 소속된 마을 가운데 내도근천리(內都近川里), 외도근천리(外都近川里), 도평대리(都坪代里)가 있다. 이들 세 마을이 뒷날 외도동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읍지』를 통해 18세기 말의 이들 세 마을의 형세를 살펴보면, 내도근천리는 "서쪽으로 19리 거리에 있다. 민호(民戶)가 45호, 인구는 남자가 172, 여자가 219명(합계 391명)이다."라고 하였고, 외도근천리는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민호가 44호, 인구는 남자가 141, 여자가 161명(합계 302명)이다."라고 하였으며, 도평대리는 "서남쪽으로 18리 거리에 있다. 민호가 55호, 인구는 남자가 141, 여자가 149명(합계 290명)이다."라고 하였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씌어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는 오늘날의 외도동에 해당하는 마을로 내도리(內都里)와 외도리(外都里), 도평리(都坪里)가 편제되어 있다. 즉, 이들 지역은 제주목의 중면(中面)에 속한 25개 리에 포함되어 있다. 『삼군호구가간총책』을 통해 20세기 초의 이 세 마을의 형세를 살펴보면, 내도리는 "연가(烟家) 62호에 인구는 남자가 87명, 여자가 94명으로 합계 181명이며, 초가는 93칸"이라 하였으며, 외도리는 "연가 182호에 인구는 남자가 300명, 여자가 345명으로 합계 645명이며, 와가(瓦家)가 2칸, 초가는 497칸"이라 하였다. 또 도평리는 "연가 110호에 인구는 남자가 200명, 여자가 202명으로 합계 402명이며, 초가는 364칸"이라 하였다.

한편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공포하고, 이를 윤5월 1일(양력 6월 23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종전의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개소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부(府)를 둔 것이다. 이때 제주도에는 23부의 하나로 제주부(濟州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목(牧) · 부(府) · 군(郡) · 현(縣)의 행정 단위와 부윤(府尹) · 목사(牧使) · 부사(府使) · 군수(郡守) · 서윤(庶尹) · 판관(判官) · 현령(縣令) · 현감(縣監) 등의 관직 명칭을 모두 폐지하여 고을 명칭은 군(郡)으로, 고을 장관의 벼슬 이름을 군수(郡守)로 통일하였다. 종래 부 · 목 · 군 · 현 등으로 번잡하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모두 군(郡)으로 단일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목과 대정현 · 정의현이 모두 제주군 · 대정군 · 정의군의 3군으로 개편되어 제주부의 관할 구역이 되었으며, 목사와 두 현감도 모두 군수로 바뀌어 제주부 관찰사의 소속이 되었다. 이때 제주부의 관찰사에는 오경림(吳慶林, 뒤에 李秉輝)가 임명되고 제주부의 치소(治所)는 제주에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23부제는 약 1년이 지나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었다. 그 이유는 민정의 불편함과 번거로운 폐단이 있고 재정상의 부담도 크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건양(建陽) 원년(1896) 8월 4일 칙령 제36호를 공포하여 전국 23부를 13도로 개정하였다. 수도인 한성부를 제외하고, 전국 13도에 목(牧) · 부(府) · 군(郡)을 두어서 5등급으로 나누고 인원, 경비, 봉급 등을 달리하였다. 목은 제주목(1등급)이 유일하였다. 제주는 섬으로 육지와의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나라에서 특별히 덕화(德化)를 베푸는 특수성으로 인해 목사(牧使)를 두어서 대정 · 정의 두 군(5등급)을 관할케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주도에는 다시 1목 2군, 즉 제주목과 대정군 · 정의군이 설치되어 전라도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광무 원년(1897) 9월에 제주목에 제주군(4등급)이 증치(增置)되면서 행정구역은 약 1년 동안에 또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즉, 1목 3군이 된 것이다.

그 뒤 광무(光武) 10년(1906) 9월 24일에는 목사제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전라도 관찰사에게 인도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주도는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제주군 · 대정군 · 정의군의 3군 체제로 바뀌면서 그대로 전라도에 소속되었다. 이 무렵 제주군은 중면(中面), 신좌면(新左面), 구좌면(舊左面), 신우면(新右面), 구우면(舊右面)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중 중면은 1913년 12월에 제주면으로 개칭되어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 군면(郡面)의 폐합이 이루어지면서 도평리 · 내도리 · 외도리가 나란히 제주군 제주면에 편제되었다. 다음해 1915년 4월에는 도제(島制)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군이 폐지되었다. 도사(島司)가 관할하는 체제이다. 도제가 실시된 것은 행정 처리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1년 4월 1일부터 읍면제(邑面制)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제주면이 읍(邑)으로 승격됨에 따라 세 마을은 자연히 제주읍에 소속된다. 이후 1946년 7월 2일에는 군정법령 제94호에 의해 제주도(濟州島)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로 승격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에는 군제(郡制)가 실시됨에 따라 세 마을이 북제주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제주읍의 시(市)로의 승격은 몇 차례에 걸친 시민의 진정과 건의에 의거 1955년 8월 5일 시승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에 상정 통과되어 8월 13일 법률 제368호로 시제(市制)가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해 9월 1일자로 제주읍이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 독립하여 제주시로 승격되었다. 이때 제주시는 종전의 25개 리를 40개 동(洞)으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외도리도 1955년 8월 13일 시제가 공포되면서 외도1동과 외도2동으로 분리되어 각각 제주시에 소속되었다. 전자는 우령동과 계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후자는 도근천과 연대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1962년 1월 1일에는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종전의 40개 동(洞)이 14개 행정동으로 축소되는 개

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동(洞)의 통폐합에 따라 외도1동과 외도2동, 내도동 등 3개의 법정동이 행정구역상 외도동으로 구분되었다. 1978년 8월 1일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4개의 법정동(외도 1동 · 2동, 내도동, 도평동)으로 구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도1동은 우령동(牛嶺洞; 속칭 우렝이), 절물, 수정동(水精洞), 계명동(鷄鳴洞; 속칭 제멩이) 등 4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었고, 외도2동은 월대동(月臺洞), 연대동(烟臺洞)으로 이루어졌다. 내도동은 그 자체가 자연마을이기도 하며, 도평동은 상동(上洞), 하동(下洞), 신산동(新山洞), 창오동(蒼梧洞), 사라동(沙羅洞), 왯평디[瓦坪; 4 · 3이후 상동으로 편입됨] 등의 자연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3. 삼양동(三陽洞) 지역의 마을 형성과 그 연혁

삼양동(三陽洞)은 현재 제주시에 속한 19개의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동쪽으로는 조천읍 신촌리, 서쪽으로는 화북동, 남쪽으로는 봉개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지역이다.

삼양동과 관련된 지명이 문헌상에 나타나기는『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봉수(烽燧) 항목의, '원당악(元堂岳) 봉수'가 그 시초라 할 것이다. 서쪽으로는 별도(別刀) 봉수와 교신하고 동쪽으로는 입산악(笠山岳) 봉수와 교신한다고 하였다. 봉수는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급보(急報)를 전하던 군사 통신조직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봉(烽)은 횃불을 들어서(擧火) 통보하는 것을 뜻하고 수(燧)는 섶나무(柴木)에 불을 질러서 그 연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낮에는 연기(煙氣), 밤에는 횃불(烽火)을 들어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조선 전기 제주도 지역의 봉수에 대해서『세종실록(世宗實錄)』21년(1439) 윤2월 4일자에 의하면,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봉화(烽火)를 올리고 망(望)을 보는 곳은 제주의 동쪽에 있는 김녕(金寧)으로부터 제주의 서쪽에 있는 판포(板浦)까지의 사이에 10곳, 대정현 서쪽에 있는 차귀(遮歸)에서 동쪽에 있는 거옥(居屋)까지의 사이에 5곳,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只末山)까지의 사이에 7곳입니다. 봉화를 올리는 곳마다 5명씩 사람을 나누어 배치하였고 또 봉수대(烽燧臺)를 쌓되, 높이와 너비는 각각 10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망보는 사람은 무기와 깃발 · 나발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적정(賊情)이 나타나면, 봉화를 올리고 나발을 불면서 서로 연락하여 알리게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봉수와 연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언급하였는데, 그 수는 제주목 지경이 10곳, 대정현 지경이 5곳, 정의현 지경이 7곳으로 합하여 모두 22곳이다. 일일이 위치와 지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치된 봉수대의 규모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자라 하였고, 봉화군은 봉화가 있는 곳마다 5명씩 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수의 수에 있어서는 중종 때 이루어진『신증동국여지승람』3읍 봉수 항목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8개소):사라악(沙羅岳, 사라봉), 별도(別刀), 원당악(元堂岳), 입산악(笠山岳, 김녕리), 도도리악(道道里岳, 도두봉), 수산악(水山岳, 애월 수산봉), 고내악(高內岳, 고내봉), 판을포악(板乙浦岳, 판포악),
정의현(10개소):남산(南山, 성읍 남산봉), 오음사지악(吾音沙只岳, 삼달리 독자봉), 여을온(餘乙溫, 성산 온평리), 소수산악(小水山岳, 성산 수산리), 지말산악(只末山岳, 종달리 지미봉), 달산(達山, 달산봉), 토산(兎山, 토산악), 전월론(餞月論, 위미 자배봉), 호아촌(弧兒村), 삼매양(三買陽, 삼매봉),
대정현(5개소):송악(松岳山), 모슬포악(毛瑟浦岳, 모슬봉), 차귀악(遮歸岳, 당산봉), 굴산(堀山, 군산), 거옥악(居屋岳, 구산봉).

이상은 봉수망 설치 초기의 배치 상황이다. 이에 의하면『세종실록』의 내용과는 우선 제주목 지경에서 2곳, 정의현 지경에서 3곳 등 모두 5곳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곳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주목의 사라악 봉수를 중심으로 우회시켜 서로 교신하는 곳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라악 ↔ 별도 ↔ 원당악 ↔ 입산악 ↔ 지말산악 ↔ 소수산악 ↔ 여을온 ↔ 오음사지악 ↔ 남산 ↔ 토산 ↔ 달산 ↔ 전월론 ↔ 호아촌 ↔ 삼매양 ↔ 거옥악 ↔ 굴산 ↔ 송악 ↔ 모슬포악 ↔ 차귀악 ↔ 판을포악 ↔ 고내악 ↔ 수산악 ↔ 도도리악 ↔ (사라악)

그런데 이들 지역은 모두가 높은 산정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의 봉수 · 연대의 구분상 우선 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정비 과정에서 해안을 따라 연대가 설치되면서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와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가 구분되고, 그에 따른 관할처나 봉수관의 배치도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정비되어 나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선조 36년(1603) 제주에 어사(御史)로 왔던 김상헌(金尙憲)의『남사록(南槎錄)』에는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곳으로 '소흘포(所訖浦)'를 거론하였다. 그 위치는 제주목에서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 '소흘포'는 지금의 삼양1동에 편제된 해안지대의 포구로서 민간에서 주로 '서흘개', 혹은 '설개'라 부르는 곳이다. 이 '소홀포'가 1770년대 제작된『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에는 '서흘포(鉏訖浦)'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鉏訖浦'의 '鉏'자가 호미 '서'자이므로 '소흘포', 혹은 '서흘포'는 주변 지형이 호미[鉏]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鉏)'라는 한자에 집착한 견강부회이다. 따라서 '서흘개', 혹은 '설개'는 돌들이 엉기정기 쌓인 곳을 뜻하는 제주방언 '설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든 '소흘포'나 '서흘포'는 이곳 주변에 마을이 이루어졌음을 뜻할 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이 바다를 통해 오가는 포구로서 자주 이용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구의 명칭에서 자연히 주민이 사는 곳을 뜻하는 마을로서 차차 소흘촌(所訖村), 혹은

서흘촌(鋤訖村) · 서흘리((鋤訖里)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이리하여는 정조 10년(1786)경에 씌어진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 항목에는 '口흘리(口訖里)'라 하고, 그 마을의 형세를 기록하여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민호(民戶)가 91호, 인구는 남자가 207명, 여자가 307명으로 합계 514명이다."라고 하였다. 또 뒷날 삼양동에 합쳐지는 '도련평리(道連坪里)'도 그 형세를 기록하여 "동쪽으로 口口3리 거리에 있다. 민호가 36호, 인구는 남자가 80명, 여자가 136명으로 합계 216명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口訖里'의 탈락된 '口' 부분의 글자는 '소(所)'이거나 '서(鋤)'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所訖里' 혹은 '鋤訖里'가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제주읍지』보다 조금 뒤인 정조 13년(1789)에 씌어진 『호구총수(戶口總數)』 제주 중좌면(中左面) 항목에는 '서흘포리(鋤訖浦里)'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좌면은 행정면이 아니라 유면(儒面)이었다.

즉, 유면은 향약 시행의 단위였다. 또한 유면은 정비되기 이전의 조선 전기의 행정면의 구실도 하였다. 숙종 원년(1675) 12월 제주목에서 지금의 한림읍 금악리 수산강씨(水山姜氏) 집안에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에 '明月面 水流川里'라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원래 유면을 설치한 것은 문묘(文廟, 鄕校)와도 관계가 있다. 기강을 세우고 유학(儒學)을 권하여 마을에 가르침을 베풀고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유면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정비된 행정적 차원의 면 · 리 제도와는 현저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현(縣)까지였다. 그러므로 면(面)은 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지방 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면은 수령의 관할이라기보다는 향소(鄕所) 또는 향약의 계통을 잇는 것이었다. 약정(約定) 등의 임원도 좌수(座首) · 별감(別監)의 추천에 의하여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약정 등의 임무는 제주목과 대정 · 정의 두 현의 행정 단위와 일반 백성 사이에 개재하여 정령(政令)을 주지시키고 특히 조세를 독촉하는 등 지방 관청의 심부름이 주된 임무였다. 향소 또는 향약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향촌의 덕망가가 추대되어 교화로써 자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뒤에는 차차 그 역할이 변질되어 나갔다.

조선 영조 41년(1765)경에 씌어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일본 天理大 소장) 제주목 면촌(面村) 항목에는 행정면과 유면이 혼성(混成)되어 있다. 즉, 제주목은 4개의 대면(大面, 行政面) 안에 12개의 소면(小面, 儒面)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총 81 리), 좌면(左面, 18리)에 소속된 유면은 신촌면(新村面, 4리) · 조천관면(朝天舘面, 5리) · 김녕면(金寧面, 5리) · 별방면(別防面, 4리) 등 4면이고, 중면(中面, 28리)에 소속된 유면은 중좌면(中左面, 10리) · 주중면(州中面, 10리) · 중우면(中右面, 8리) 등 3면이며, 신우면(新右面, 21리)에 소속된 유면은 귀일면(貴日面, 4리) · 엄장면(7리) · 애월면(10리) 등 3면이다. 또 구우면(舊右面, 14리)에 소속된 유면은 명월면(明月面, 9리) · 판을포면(板乙浦面, 5리) 등 2면이다. 그리고 대면에는 풍헌(風憲)이 각 1인이고, 소면에는 약정(約正)이 각 1인이다. 81리에는 경민장(警民長) · 권농(勸農) · 기찰장(機察官) · 포도(捕盜) · 존위(尊位) · 동장(洞長) · 이임(里任) · 색장(色

掌) · 지심(指審) · 유사(有司)가 각각 1인이 있어서 함께 서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씌어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는 오늘날의 삼양동에 해당하는 마을로 삼양리(三陽里)와 도련리(道連里)가 편제되어 있다. 즉, 삼양리와 도련리는 제주목의 중면(中面)에 속한 25개 리에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의 이 두 마을의 형세를 살펴보면, 삼양리는 "연가(烟家) 290호에 인구는 남자가 474명, 여자가 490명으로 합계 964명이며, 초가는 711칸"이라 하였으며, 도련리는 "연가 80호에 인구는 남자가 132명, 여자가 127명으로 합계 259명이며, 초가는 214칸"이라고 하였다.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제주군 제주면에 도련리와 삼양리가 나란히 편재되어 있다. 이때 도련리는 도련리와 삼양리, 봉개리의 일부를 합쳐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삼양리는 삼양리 일부로 형성되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제주면이 읍(邑)으로 승격됨에 따라 두 마을은 자연히 제주읍에 소속되었다. 이후 두 마을은 1946년 8월 1일 군제(郡制) 실시에 따라 북제주군에 편입된다.

1955년 9월 1일에는 법률 제368호에 의하여 제주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 독립하여 40개 동(洞)을 관할하였다. 이때에 삼양동은 1동 · 2동 · 3동으로 나누어지고 도련동은 1동 · 2동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제주시에 소속되었다. 1962년 1월 1일에는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종전의 40개 동(洞)이 14개 행정동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삼양 1동 · 2동 · 3동과 도련 1동 · 2동을 합하여 삼양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삼양동이 3개 동으로 분화될 때 삼양1동은 전통적으로 삼양리의 중심 마을이었던 '설개'를 비롯하여 '동카름성창', '주구리' 등의 마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삼양2동은 '가물개[甘水洞]' 마을을 중심으로 '들은돌[擧石洞]' 등이 포함되었으며, 삼양3동은 '검은여'와 '버렁' 등으로 불리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도련1동은 '도련드르', 도련2동은 '매돈지(梅敦地)' 등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이루어졌다.

오늘날 흔히들 법화사(法華寺) · 수정사(水精寺) · 원당사(元堂寺)를 원(元) 나라 때에 세운 3대 사찰(寺刹)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심되는 것은 그 중 원당사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불우(佛宇) 항목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원래 성종 17년(1486)에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그 뒤 연산군 5년(1499)에 이를 교정하고 보충하여 다시 간행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본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중종 25년(1530)에 재차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보충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때에 증보된 내용에는 반드시 '신증(新增)'이란 두 글자를 넣어서 표시하였다. 그래서 책명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원당사는 『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재판인 연산군 때(책명은 동일함), 3판인 중종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지 않는 것은 혹 이때에는 원당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원당사는 『남사록』에도 언급이 없으며, 효종 4년(1653)에 간행된 『탐라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구전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문헌학적(실제 문헌학적으로

는 고증할 길이 없다), 고고학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어쩌면 후대의 창건 사실이 호사가들에 의해 앞당겨지고 내용이 부연되어 구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기황후(奇皇后, ?~1369)와 5층석탑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1934년) 건치연역 항목에는 원당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충렬왕 26년(1300)에 기황후가 또 소 · 말 · 나귀 · 양 등의 방목장을 수산평(首山坪; 水山坪)에 정하였다. 제주성(濟州城) 내 동해빈(東海濱)의 삼첩칠봉(三疊七峰, 지금의 元堂峰) 아래에 큰 절을 지어서 7층탑을 조각(造刻)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복을 빌며 원당(元堂)이라고 칭하니, 이로써 불교가 날로 왕성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제주시에서 세운 표지석에도 유산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칠층탑은 오층탑의 착오이다.

그런대 위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원당사의 창건 연대가 충렬왕 26년이라면, 원 나라의 황실세계(皇室世系)를 참고할 때 기황후와 연계(連繫)지을 수가 없고, 반대로 기황후와 연계시키려면 원당사의 창건 연대는 그보다 훨씬 뒤로 물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렬왕 26년 무렵의 원 나라 황제는 2대 성종(成宗, 1296~1307)이고, 순제(順帝, 1333~1367)는 11대로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당사와 관련하여 황태자[愛猷識理達臘]의 탄생을 기원하여 절을 창건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황후의 신분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다. 즉, 기황후가 원 나라 순제(順帝)의 궁녀로 들어간 것이 고려 충숙왕 복위 2년(1333) 12월이고, 그녀의 몸에서 황태자가 태어난 것은 충숙왕 복위 8년(1339) 겨울이었다. 또 이를 계기로 제2 황후가 된 것은 그 다음해인 충혜왕 복위 원년(1340) 4월이다. 적어도 제주도에 원찰(願刹)을 세울 정도의 신분이라면 제2 황후가 된 이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태자는 그 이전에 이미 태어났다. 따라서 궁녀의 신분으로 그것도 머나먼 제주도에 원찰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충령왕 26년(1300)은 기황후와 시기가 맡지 않을 뿐 아니라 기황후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때인 것이다.

* 오층석탑은 '불탑사오층석탑'이라는 명칭으로 1993년 11월 19일에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었으나, 불탑사는 1914년에 재건된 사찰이므로 원래 있었던 원당사로 바꾸어서 보물의 명칭을 '원당사오층석탑'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여 백

부록

3. 제주도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과 고인돌 고찰

여 백

제주도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과 고인돌 고찰

Ⅰ. 머리말

선사시대 인류는 신화-제의적 단일체 속에 살고 있었으며, 제의 현장에서는 신화가 항상 구송 · 전승되고 이와 함께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흔적, 즉 의례행위의 표현으로 암각화 또는 바위구멍 등의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1)]

바위구멍은 보통 굼, 성혈(性穴), Cup-Mark로 불린다. 바위그림의 한 종류로 돌의 표면에 파여져 있는 구멍을 말한다. 주로 고인돌의 상석이나 자연 암반에 새겨지고, 민속에서는 알구멍, 알바위, 알터, 알미, 알뫼 등으로 불린다.[2)] 바위구멍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3)]

한반도에는 약 4만 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이 중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은 약 900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4)]

제주도에는 약 90여기의 고인돌이 확인되며, 이중 20여기가 광령천 일대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은 10여기가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선주민의 종교 및 내세관 등 정신세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바위구멍을 소개하고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과 주변 암각화 및 야외유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주변 고고학 조사결과를 토대로 바위구멍의 제작시기와 그 기능 및 성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바위구멍의 제작주체는 누구이며, 광령천 일대 묘제 및 의례행위의 변화양상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바위구멍 및 암각화 검토

광령천은 제주도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무수천, 외도천, 어시천, 도근천을 형성하면서 외도동 포구로 이어지는 대형 하천이다.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하류지역에 상시유수천이 자리하고 있으며, 하천을 따라 다수의 용출수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해안저지대에 해당하는 외도동과 광령리 일대는 옹기를

1) 신광철, 2002, 「암각화연구에 대한 종교적 제언」, 『한국암각화연구』3집, 한국암각화학회.

2) 양홍진, 방창범, 박영구, 0000, 「홈이 새겨진 고인돌과 홈의 특징」, 『한국암각화연구』14집, 한국암각화학회.

3) 황용운, 1974,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양홍진, 방창범, 박영구, 0000, 「홈이 새겨진 고인돌과 홈의 특징」, 『한국암각화연구』14집, 한국암각화학회.

4) 우장문, 2008,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사유에 관한 연구 -덮개돌의 굼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제29호, 한국고대학회

제작하거나 논농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토양이 퇴적되어 있으며, '통물'이라 불릴 정도로 용수량이 많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광령천 일대에 다수의 선사시대유적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해안에서 약 4km지점까지는 대규모 유물산포지와 고인돌군, 암각화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1. 유적검토

1) 자연암반 및 입석

(1) 광령리 바위구멍 1호


그림1. 광령리 바위구멍 1호


그림2. 광령리 바위구멍 2호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시 광령리 1865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광령리에서 성지요양원으로 이어지는 사거리 남쪽 구릉사면부를 형성하고 있는 현무암 암반지대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지는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와 주변 고인돌 군을 조망할 수 있는 구릉 사면부에 해당한다. 바위구멍은 현무암암반지대 상부의 평탄면에 새겨져 있다. 바위구멍이 있는 암반은 주변 암반과 분리되었으며, 형태는 동서장축의 장타원형에 가깝다. 바위구멍이 새겨진 암반의 크기는 길이 180cm, 너비 112cm 정도이며, 바위구멍은 뚜렷한 1개의 홈과 미미하고 불규칙한 여러 개의 홈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반의 서북 편은 전체 암반지대의 단애부분으로 치석흔이 확인된다.

(2) 광령리 바위구멍 2호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시 광령리 183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광령리에서 성지요양원으로 이어지는 시멘트도로 동편 경작지 경계부에 자리하고 있다. 광령리 3호 고인돌에서 북편으로 약 130m 거리의 광령리유물산포지 내에 위치한다. 바위구멍은 경작지 중간에 형성된 현무암 암반에 새겨져 있다. 바위구멍이 새겨진 암반은 지면에서 약간 돌출되면서 전체 암반과 분리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95cm, 너비 80cm이며, 총 24개의 구멍이 새겨져 있다. 구멍은 암반의 경사면 상부를 중심으로 다수가 배치되었는데, 직경 9~12cm, 깊이 1.2~5.0cm 정도의 5개의 구멍과 직경 4~6cm, 깊이 0.5cm미만인 19개의 소형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구멍은 갈아파기 새김수법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구멍은 아주 미미하게 쪼아파기 수법이 사용되었다.

(3) 광령리 바위구멍 3호

현재 확인되지 않는 유적이다. 과거 조사에서 광령리 1648번지 남쪽 편에 자리한 광령리 고인돌 6호의 지석으로 추정되는 괴석상의 입석에 새겨진 바위구멍이다. 바위구멍은 8개가 있으며, 구멍의 배치는 열상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5)]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나 외도 · 광령리유물산포지 내에 다수의 성혈이 배치된 소형입석[6]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 일대에는 암반지대가 발달되어 암반을 이용한 다수의 바위구멍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2) 고인돌 바위구멍 및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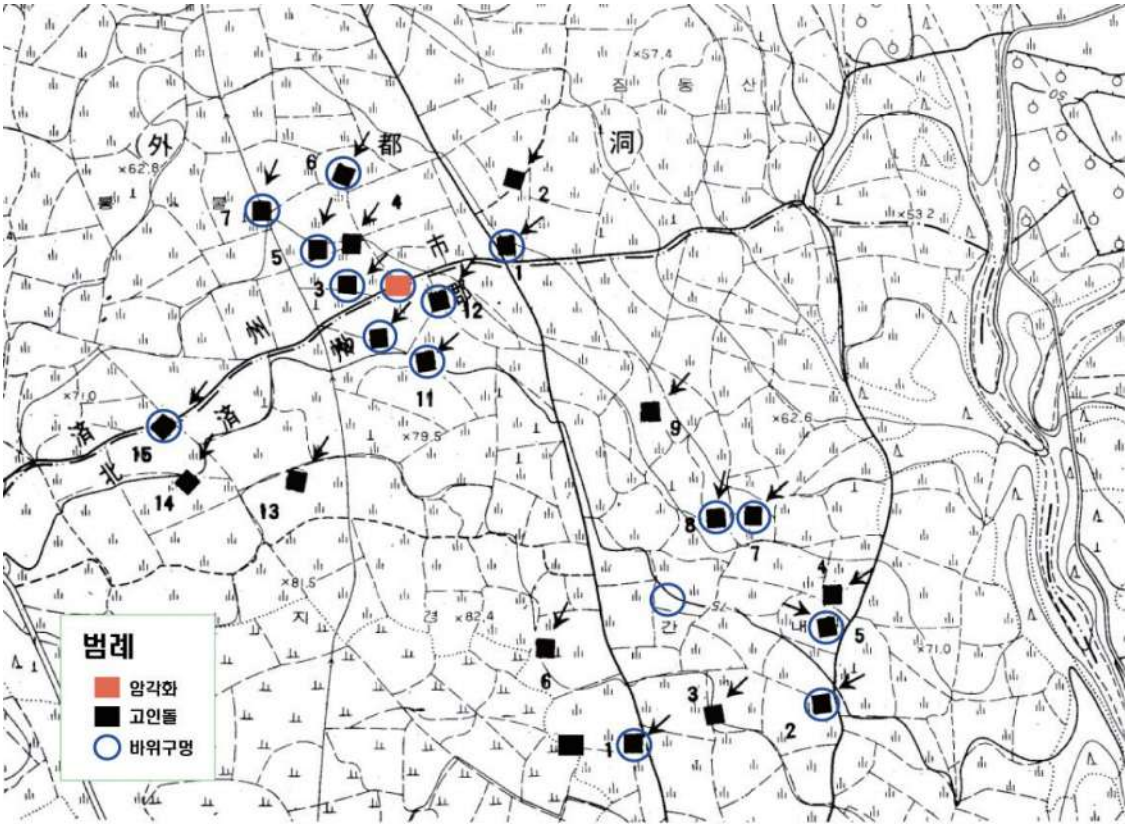
광령천 일대에는 약 40여기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이중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은 총 12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고인돌은 총 20기이며, 바위구멍은 11개가 확인된다.

바위구멍은 외도동 1호 · 3호 · 5호 · 6호 · 7호 고인돌과 광령리 1호 · 2호 · 5호 · 7호 · 8호 · 10호 · 11호 · 12호 · 15호 고인돌에서 확인된다.

암각화는 총 2개가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광령리 암각화 1호만 확인된다. 암각화가 자리한 곳은 행정구역상 외도동과 광령리의 경계부에 자리한다.



| 그림3. 광령리 입석 |



| 그림4. 외도 · 광령리 고인돌 및 바위구멍, 암각화 분포도 |

| 5) 이청규, 1986, 『제주도유적-선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2집. |

| 6) 이청규, 1986, 전게서 |

고인돌과 암각화가 자리한 곳은 해안에서 약 2km 내외, 해발 75m 내외에 위치한다. 주변 지세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경사져 올라오다 평탄대지를 이루는 정상부근이며 해안과 주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평탄대지의 동편으로는 소규모의 계곡과 외도천이 자리하고 있다.

2. 바위구멍 및 암각화의 구조와 특징

1) 암반 및 입석 바위구멍

현재까지 확인된 바위구멍이 새겨진 암반 및 입석은 대체로 고인돌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새김수법은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과 동일하게 갈아파기와 쪼아파기 수법이 병행되어 있다. 바위구멍이 새겨진 자연암반의 형태는 비교적 수평에 가까우며, 주변부 보다 돌출되거나 분리되어 있다. 입석은 대지 상에 자리하는데 주로 암반이 발달된 인근에 위치하여 있다.

구멍의 크기는 갈아파기 수법으로 새겨진 것이 9~12cm, 깊이 1.2cm이상으로 쪼아파기 수법으로 새겨진 크기 4~6cm, 깊이 0.5이하 보다 크기가 크고 깊다.
바위구멍이 새겨진 암반과 입석은 현재 확인된 유적 이외에 추가로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주변 지표조사에서 경작지에 노출된 수평면의 암반위에 다수의 바위구멍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경작지 개간을 통한 암반제거 작업으로 많은 수가 파괴되고 있다.

〈표 1〉 암반 바위구멍의 현황 및 특징

연번	명 칭	입지 및 형태	바위구멍					
			개수	새김수법	위치	크기	배치형태	중복상태
1	광령리 바위구멍 1	암반	1	갈아파기	중앙부	9×1.5	단독	
2	광령리 바위구멍 2	암반	24	갈아파기	상부	9~12×1.2×5개	군집	
				쪼아파기	상부	4~6×0.5x19개		
3	외도동 바위구멍3	소형입석	8				열	

2) 고인돌 바위구멍

고인돌 상석에 새겨진 바위구멍은 고인돌 상석의 높이, 새김수법 및 중복관계, 구멍의 배치, 구멍의 개수 등을 통해 구조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 현황

연번	고인돌명	입지		바위구멍							선각		
		구릉	사면	개수	새김 수법	위치	크기	배치형태	밀집	중복	개수	새김 수법	형태
1	외도동 1호		○	8	쪼아파기	북동쪽 가장자리	5~5.5×0.3×4개 7~8×1.0×4개	열	○				
2	외도동 3호	○			갈아파기	전면	11×7×6개	전면	○				
					쪼아파기	전면	9×4~5×8개 5~7×3×44개						
3	외도동 5호	○		20	갈아파기	북쪽 가장자리	11~13×6~8×9개	편중 군집	○	○	1	그어 파기	구멍 연결
					쪼아파기		8×1×11개						
4	외도동 6호	○		19	쪼아파기	남서쪽 가장자리	8×5×2개 11×1×7개	열	○	○			
					갈아파기	남서쪽, 북서쪽 가장자리	11~12×8×10개						
5	외도동 7호	○		13	쪼아파기	남쪽 가장자리	5이하×1×4개 6×1×4개	열	○				
					갈아파기	남북쪽 가장자리	8~9×2~6×5개						
6	광령리 12호	○		7	쪼아파기	남서쪽 가장자리	5~6×1.5×7개	편중 군집	○				
7	광령리 10호	○		104	쪼아파기	전면	4~5×0.5×93개	전면		크기동일			
					갈아파기		6×1.5×11개			크기동일			
8	광령리 11호	○		55		전면		전면	○				
9	광령리 15호	○		67	쪼아파기	북서쪽 가장자리	20×0.3×2개 3~4×0.5×57개	편중 군집	○	크기동일			
					갈아파기		7~8×2.5×8개			크기동일			
10	광령리 1호	○		19	쪼아파기	남동쪽 가장자리	4~5×0.5×11개	편중 군집	○	○	8	그어 파기 쪼아 파기	구멍 연결
					갈아파기		7~8×2×8개						
11	광령리 2호		○	7	갈아파기	남서쪽 가장자리	12~13×9.5×2개 9~10×5~4×5개	편중 군집	○	○	1	갈아 파기	구멍 연결
12	광령리 5호		○	19		남북 가장자리		열	○				
13	광령리 7호		○	5		북동쪽 가장자리							
14	광령리 8호		○	8		지석에 새김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 상석 높이 :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의 상석 높이는 대체로 100cm 내외 또는 그 이하(일부 외도동1호 160~170)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3〉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 상석의 상태

연번	고인돌명	바위구멍 새김높이	상석			
			형태	재질	상면상태	장축
1	외도동 1호	160~170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2	외도동 3호	100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평	동북
3	외도동 5호	80~105	아치형	다공질	굴곡	동북
4	외도동 6호	90~100	장방형	다공질	굴곡	동북
5	외도동 7호	100~130	장방형	다공질	굴곡	동북
6	광령리 1호	현상이동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7	광령리 2호	126	장방형(서쪽트임)	다공질	굴곡	북서
8	광령리 5호	이동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9	광령리 7호	유실	장방형		편평	
10	광령리 8호	유실	장방형		편형	
11	광령리 10호	50cm 이하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북서
12	광령리 11호	50cm 이하	삼각형	조면암질	편평	
13	광령리 12호	50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14	광령리 15호	105	장방형(북쪽트임)	조면암질	편형	남북

■ 바위구멍의 새김수법 및 중복관계

바위구멍의 새김수법은 대체로 각기 갈아파기와 쪼아파기 수법이 공반되며, 갈아파기와 쪼아파기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고인돌도 확인된다. 이외 일부는 바위구멍을 연결한 선각으로 그어파기와 갈아파기가 병행되기도 하였다.

바위구멍의 크기는 갈아파기 수법에 의한 것이 8cm 이상으로 크고 깊다. 쪼아파기 수법에 의한 것은 8cm 내외이거나 5cm이하가 대부분이다.

갈아파기 수법으로 새겨진 바위구멍은 고인돌 상석 상면이 자연굴곡을 이루는 고인돌에 편중되어 있다. 소형의 바위구멍은 상석의 재질이 조면암질 현무암으로 매끄럽거나 상면이 정리된 상석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상석에는 다수의 바위구멍이 새겨지는 특징이 있다.

고인돌에 새겨진 구멍의 개수는 크게 50개 이상, 20개 내외, 15개미만을 기준하여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바위구멍이 50개 이상인 경우 구멍 간 중복됨 없이 갈아파기와 쪼아파기가 병행되어 있다. 갈아파기가 쪼아파기에 비해 크기와 깊이가 탁월

하다. 이 경우 구멍의 배치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전면에 균등하게 또는 무리를 이루고 있다.

바위구멍 간의 중복관계는 바위구멍 20개 내외의 고인돌에서 확인되는데, 갈아파기 수법의 바위구멍이 쪼아파기 수법의 바위구멍의 일부를 침범하여 새겨지고 있다.

바위구멍 15개 이하는 구멍 간 중복 없이 쪼아파기 수법이 베풀어져 있으며, 깊이는 아주 낮거나 미미한 편이다.

〈표 4〉 바위구멍 새김수법 및 중복 새김 현황

새김수법	단독배치		중복배치	
	기수	고인돌명	기수	고인돌명
갈아파기+쪼아파기	8	외도동 3호 · 5호 · 6호 · 7호, 광령리 1호 · 5호 · 10호 · 15호	4	외도동 5호 · 6호, 광령리 1호 · 2호
쪼아파기	2	외도동 1호, 광령리 12호		
갈아파기	1	광령리 2호		
그어파기	2	외도동 4호, 광령리 1호		

〈표 5〉 바위구멍 개수 비교 현황

바위구멍 개수	기수	고인돌명
50개 이상	4	외도동 3호, 광령리 10호 · 11호 · 15호
20개 내외	4	외도동 4호 · 6호, 광령리 1호 · 5호
15개 미만	4	외도동 1호 · 7호, 광령리 2호 · 12호

〈표 6〉 바위구멍의 크기별 비교 현황

새김수법	바위구멍 크기	기수	고인돌명(구멍의 배치위치)
갈아파기	11cm이상	4	외도동 3호(전면), 4호(북쪽), 6호(남북), 광령리 2호(남서쪽)
	8cm내외	4	외도동 7호(남북쪽), 광령리 10호(전면), 15호(북서쪽), 2호(남서쪽)
쪼아파기	8cm내외	9	외도동 1호(북동쪽), 3호(전면), 4호(북쪽), 6호(남서쪽), 7호(남쪽), 광령리 12호(남서쪽), 10호, 15호(북서쪽), 5호
	5cm이하	5	외도동 1호(북동쪽), 7호(남쪽), 광령리 10호(전면), 15호(북서쪽), 1호(남동쪽)
그어파기		2	외도동 4호, 광령리 1호

■ 바위구멍의 배치

상석 내에서 바위구멍이 배치된 상태는 상석 가장자리를 따라 열을 이루는 경우, 군집을 이루어 한쪽 편에 편중된 경우, 전면에 무질서하게 배치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구멍이 군집을 이루는 경우는 대형의 구멍을 중심으로 소형의 구멍이 주위를 둘러싸거나, 일정한 공간을 두고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 〈표 7〉 바위구멍 배치 비교 현황 |

배치형태	기수	고인돌 명	배치위치
가장자리 열상 배치	3	외도동 6호 · 7호, 광령리 5호	남북쪽 가장자리
한쪽 편 군집	6	외도동 1호 · 5호, 광령리 1호 · 2호 · 12호, 광령리 15호	북동(서), 동(서)쪽 가장자리
전면 무질서 배치	3	외도동 3호, 광령리 10호 · 11호	

■ 선문의 새김수법

고인돌에 새겨진 선문은 대체로 2개 이상의 바위구멍을 연결하는 것으로 일부 선문은 기존 바위구멍 전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새김수법은 그어파기와 갈아파기 수법이 확인된다. 특히 그어파기에 의한 선문이 뚜렷하며, 바위구멍보다 나중에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문은 광령리 암각화에서 뚜렷이 확인되는데 새김수법은 거의 동일하다.

3) 암각화[7]

| 7) 김종찬, 2012,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에 대한 일고찰」, 『濟州島硏究』37, 濟州學會. |

■ 형태

광령리 암각화는 외도동 고인돌군과 광령리 고인돌 10호 · 11호 · 12호가 군집을 이루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1m 높이의 경작지 경계석축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석축에 끼어 있어 정확한 모양과 규모를 알 수 없으나 평면상은 부정형의 사각 모양으로 추정되며, 암각이 되어 있는 문양 면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아 있다.

암각화의 크기는 장축 148cm, 단축 93cm, 두께 48cm이다. 광령리 암각화에는 10여 개의 바위구멍과 20여개의 선문이 결합하여 있다. 바위구멍은 문양면 중앙하단에 3.3~7.9cm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 새김수법

광령리 암각화의 새김 수법은 암각화가 표현된 대상의 재질이 다공질의 현무암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법을 살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문양에 따라서 크게 쪼아파기, 갈아파기, 그어파기 수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8〉 광령리 암각화의 새김수법 및 세부 재원

문양	번호	새김수법			크기(cm)			비고
		쪼아 파기	갈아 파기	그어 파기	길이	너비	깊이	
선문	1	○			22	3.2	1.0	
	2	○	○		28	3.6	1.6	
	3	○			32	2.4~2.6	1.1	
	4	○			15	2.1	0.5	
	5	○		○	55	2.1~2.7	0.5~1.0	단면'V'
	6	○		○	47	1.6~2.6	0.4	
	7	○			24	2.0~2.9	0.6	
	8	○		○	50	2.0~3.5	0.6~1.3	단면'V'
	9	○			30	2.2~4.2	0.6	
	10	○	○		30	3.0~3.9	2.0	단면'V'
	11	○	○		30	3.0~3.2	1.5	
	12	○	○		39	2.8	0.9	
	13	○	○		33	2.6~3.2	10	단면'V'
	14	○	○	○	30	2.7~3.4	0.7	단면'V'
	15	○	○		52	2.8~3.0	1.1	
	16	○	○	○	20	3.2~3.0	0.7	단면'V'
	17	○	○		38	2.5~4.4	1.6	
	18	○	○	○	36	1.6~6.5	0.4~1.4	단면'V'
	19	○			21	23	0.7	
	20	○			10	32	0.4	
계	20							

문양	번호	새김수법			크기(cm)		비고
		쪼아 파기	갈아 파기	그어 파기	직경	깊이	
바위구멍	1	○			7.3	0.5	
	2	○			3.3	0.3	
	3	○			7.3	0.9	
	4	○			6.4	0.6	
	5	○			4.8	0.3	
	6	○			5.0	0.7	
	7	○			6.3	0.4	
	8	○			6.4	0.3	
	9	○			4.7	0.9	
	10	○	○		7.9	1.0	
계	10						



그림 5 광령리 암각화 1호 탁본 모습

외부 선문은 쪼아파기와 그어파기의 수법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 되었으며, 일부 날카롭게 그어파기 한 후에 부드럽게 갈아파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내부의 바위구멍은 대부분 쪼아파기이며, 일부 갈아파기 수법도 확인된다.
선문의 문양새김은 너비와 깊이가 대략 너비 3cm 내외, 깊이 0.5~1.4cm로 그어파기 수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쪼아파기, 갈아파기의 수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필 수 있다. 일부는 기계 석공구로 새긴 것처럼 반듯하게 표현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동북아시아 암각화의 새김수법(황용운, 1987)상 그어파기와 갈아파기의 수법은 청동기시대 이후 금속기에 의한 표현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광령리 암각화는 일부 금속기에 의한 새김이 파악된다.

Ⅲ. 주변유적과의 관련성 검토

본 장에서는 광령천 일대 고인돌과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 그리고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야외유적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광령리 일대 고인돌의 유형과 고인돌 바위구멍의 유형을 분류하여, 고인돌과 바위구멍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고인돌 및 바위구멍과 주변 야외유적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호 분포상을 검토하였다.

1. 고인돌과 바위구멍 유형

1) 고인돌의 유형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고인돌 유형은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을 기준으로 기반식과 개석식이 확인되며, 이외 제주도식인 위석식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인돌을 6형식[7]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 고인돌에 대한 형식 분류는 외형적 축조 모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 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인돌 연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기존 고인돌은 여러 개의 형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크게는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지상과 지하에 따른 매장방식의 구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고인돌 형식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나름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분류의 기준은 매장주체부의 위치, 지석의 형태, 고인돌 상석의 형태, 고인돌 내부 상태를 중심으로 총 3개의 유형, 즉 위석식(1유형), 기반식(2유형), 개석식(3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인돌 분류상 고인돌의 장축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광령리 일대에 자리한 고인돌 장축방향은 지형적 입지에서 구릉 상부 평탄대지와 경사면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 8)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

〈표 9〉 외도 · 광령리 고인돌 현황

연번	고인돌명	상석					지석		바닥		입지		전체 높이
		형태	재질	상면상태	장축	바위구멍	개수	형 태	암반	지표	위 치	해발고도	
1	외도동 1호	장방형	조면 암질	편평	남북	○	3	괴석2 판석1	○		구릉사면		170
2	외도동 2호	아치형 (동쪽트임)	다공질	편형	남북		5	괴석2 (둥굴납작) 판석3		○	구릉사면		60
3	외도동 3호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평	동북	○	5	괴석5		○	구릉정상부		100
4	외도동 4호										구릉정상부		유실
5	외도동 5호	아치형	다공질	굴곡	동북	○	0	판		○	구릉정상부		80~ 105
6	외도동 6호	장방형	다공질	굴곡	동북	○	2	괴석2		○	구릉정상부		90~ 100
7	외도동 7호	장방형	다공질	굴곡	동북	○	1	판석	○		구릉정상부		현상이동
8	광령리 1호	장방형	조면 암질	편평	남북	○	3	괴석1 판석2			구릉정상부		현상이동
9	광령리 2호	장방형 (서쪽트임)	다공질	굴곡	북서	○	3	괴석2 (둥굴납작) 판석1	○		구릉사면		126
10	광령리 3호	장방형	다공질	편평	남북		3	잔돌			구릉정상부		90
11	광령리 4호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형	남북		10	판석	○		구릉사면		133
12	광령리 5호	장방형	조면 암질	편평	남북	○	1	판석 잡석	○		구릉사면		이동
13	광령리 6호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평	남북	○	다수	괴석3매 잡석	○		구릉사면		65
14	광령리 7호	장방형		편평							구릉사면		
15	광령리 8호	장방형		편형			1				구릉사면		
16	광령리 9호	장방형		편평							구릉사면		
17	광령리 10호	장방형	조면 암질	편평	북서					○	구릉정상부		현상이동
18	광령리 11호	삼각형	조면 암질	편평						○	구릉정상부		
19	광령리 12호	장방형	조면 암질	편평	남북		2	잡석		○	구릉정상부		50
20	광령리 13호	장방형	다공질	굴곡	북동		4	잡석2매(층) 판석3	○		구릉정상부		130
21	광령리 14호	장방형	다공질	편형						○	구릉정상부		입석
22	광령리 15호	장방형 (북쪽트임)	조면 암질	편형	남북		4	판석		○	구릉정상부		105
23	광령리 16호	장박형	조면 암질	편평	동서					○	구릉정상부		40
24	광령리 17호	장방형	다공질	편평	남북					○	구릉정상부		?
25	외도발굴 고인돌												

(1) 1유형(위석식)

■ 1-1형식(위석식): 상석의 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으로 편평하다. 상석으로 이용된 석재는 석질의 밀도가 조밀한 조면암질 현무암 또는 다공질의 현무암을 이용하였으며, 상면은 비교적 편평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지석은 넓은 판석형으로 전면을 치석(두께 20cm내외)하여 상석의 하부 전체에 배치하였다. 지석과 접합되는 상석 하단은 조형상 빈틈이 없고 견고하게 조정이 이루어져 있다. 내부 바닥은 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장주체부는 지상에 위치한다. 광령리 4호 고인돌이 해당한다. 광령리 15호 고인돌도 가능성이 있다.



| 그림 광령리 4호 고인돌 |

■ 1-2형식(유사 위석식):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편평한다. 상석으로 이용된 석재는 석질의 밀도가 조밀한 조면암질 현무암 또는 다공질의 현무암을 이용하였다. 지석은 치석된 판석을 1~3매 정도를 고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일부 지면에 닿거나 할석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내부 바닥은 현무암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장주체부는 지상에 위치한다. 이 유형은 외도동 1호, 광령리 1호 · 5호 · 15호 고인돌이 해당한다. 이 유형은 1유형의 아류유형이다. 1960년대 외도동 1호와 공항이전 고인돌의 옛 사진에서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항이전 고인돌은 지석과 지석 사이에 잔돌로 연결되는 일련의 석열이 확인되며, 외도동 1호인 경우는 지석 주변으로 다듬어진 다량의 석재가 집석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석렬과 적석무지는 지석 간에 일련의 집석을 통하여 위석식의 유형과 같이 지상에 무덤방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확인된 외도동고인돌 12호인 경우 축조 위치가 잡벽 돌담의 자갈돌 상부(지면에서 거의 붙여)에 무덤방이 만들어진 것과 도련동 고인돌이 이전되기 전 상태에서도 무덤의 외곽 돌담(산담)의 자갈 상부에 상석이 자리한 점, 화순리고인돌 1호인 경우 돌방주위와 내부에 다량의 돌무더기가 확인되는 점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그림 외도동 1호 고인돌 |



| 그림 8 공항이전 고인돌 |

■ 1-3형식(유사 위석식):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상석 하부가 아치형으로 들려 있다. 재질은 다공질의 현무암을 이용하였으며, 상석의 상면은 굴곡진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한다. 지석은 치석된 판석 1~2매를 배치하고 그 외에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거나 상석이 지면에 닿게 축조하였다. 내부 바닥은 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장주체부는 지상에 해당한다. 외도동 2호 · 5호, 광령리 2호 · 6호 · 8호 · 13호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 또한 1유형의 아류유형이다.



| 그림 9 외도동 5호 고인돌 |

(2) 2유형(기반식)



| 그림 외도동 3호 고인돌 |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이다. 재질은 다공질의 현무암을 이용하였으며, 상석의 상면은 굴곡진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지석은 1~3매의 할석을 고였다. 상석은 지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낮게 축조하였다. 내부 바닥은 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지하에 위치한다. 외도동 3호 · 6호, 광령리 3호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3) 3유형(개석식)



| 그림 광령리 11호 고인돌 |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편평하며, 상석의 상면은 다듬어진 다공질의 현무암 또는 밀도가 치밀한 조면암질 현무암을 이용하였다. 상석하부의 바닥은 자잘한 잔돌이 배치되거나 지표에 밀착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지하에 위치한다. 외도동 발굴고인돌, 광령리 10호 · 11호 · 12호 · 16호 · 17호 고인돌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2)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의 유형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의 상석의 높이는 대체적으로 100cm 이하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구멍의 배치는 상석의 장축을 기준으로 측면 가장자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멍이 고인돌 상석의 상면 전체 또는 중앙부 가까운 곳에 배치된 경우도 측면에서 70cm 이내의 범위에 있다.

바위구멍의 유형은 상석 상면에서 ① 바위구멍이 새겨진 위치(전면, 남북 가장자리, 가장자리 일부분 편중), ② 구멍의 개수(50개 이상, 20개 내외, 15개 미만), ③ 구멍의 새김방식(쪼아파기, 갈아파기)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A 유형

① A-1유형: 구멍 개수 50개 이상, 전면배치, 갈아파기와 쪼아파기 병행
② A-2유형: 구멍 개수 50개 이상, 가장자리 일부분 배치, 갈아파기와 쪼아파기 병행

(2) B 유형

① B-1유형: 구멍 개수 20개 내외, 남북 가장자리 배치, 쪼아파기와 갈아파기 병행
② B-1유형: 구멍 개수 20개 내외, 가장자리 일부분(일부 중앙부 배치) 배치, 쪼아파기와 갈아파기 병행

⑶ C 유형

① C-1유형: 바위구멍 개수 15개 미만, 가장자리, 갈아파기와 쪼아파기 병행
② C-2유형: 바위구멍 개수 15개 미만, 가장자리, 쪼아파기 단독
③ C-3유형: 바위구멍 개수 15개 미만, 가장자리, 갈아파기 단독

〈표 10〉 외도 · 광령리 고인돌 유형 분류

유형	고인돌명	상석						지석		바닥	
			형태	재질	상면 상태	장축	바위구멍	개수	형 태	암반	지표
1유형	1-1	광령리 4호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형	남북		10	판석	○	
	1-2	외도동 1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	3	괴석2 판석1	○	
		외도동 7호	장방형	다공질	굴곡	동북	○	1	판석	○	
		광령리 1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	3	괴석1 판석2		
		광령리 5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	1	판석 잡석	○	
		광령리 15호	장방형 (북쪽트임)	조면암질	편형	남북		4	판석		○
	1-3	외도동 2호	아치형 (동쪽트임)	다공질	편형	남북		5	괴석2 (둥굴납작) 판석3		○
		외도동 5호	아치형	다공질	굴곡	동북	○	0	판석? 괴석?		○
		광령리 2호	장방형 (서쪽트임)	다공질	굴곡	북서	○	3	괴석2 (둥굴납작) 판석1	○	
		광령리 6호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평	남북	○	다수	괴석3매 잡석	○	
		광령리 8호	장방형		편형			1			
		광령리 13호	장방형	다공질	굴곡	북동		4	잡석2매(층) 판석3	○	
2유형		외도동 3호	장방형 (북쪽트임)	다공질	편평	동북	○	5	괴석5		○
		외도동 6호	장방형	다공질	굴곡	동북	○	2	괴석2		○
		광령리 3호	장방형	다공질	편평	남북		3	잔돌		
3유형		외도발굴고인돌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동서					
		광령리 10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북서					○
		광령리 11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
		광령리 12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남북		2	잡석		○
		광령리 16호	장방형	조면암질	편평	동서					○
		광령리 17호	장방형	다공질	편평	남북					○



| A 유형 |



| B 유형 |



| C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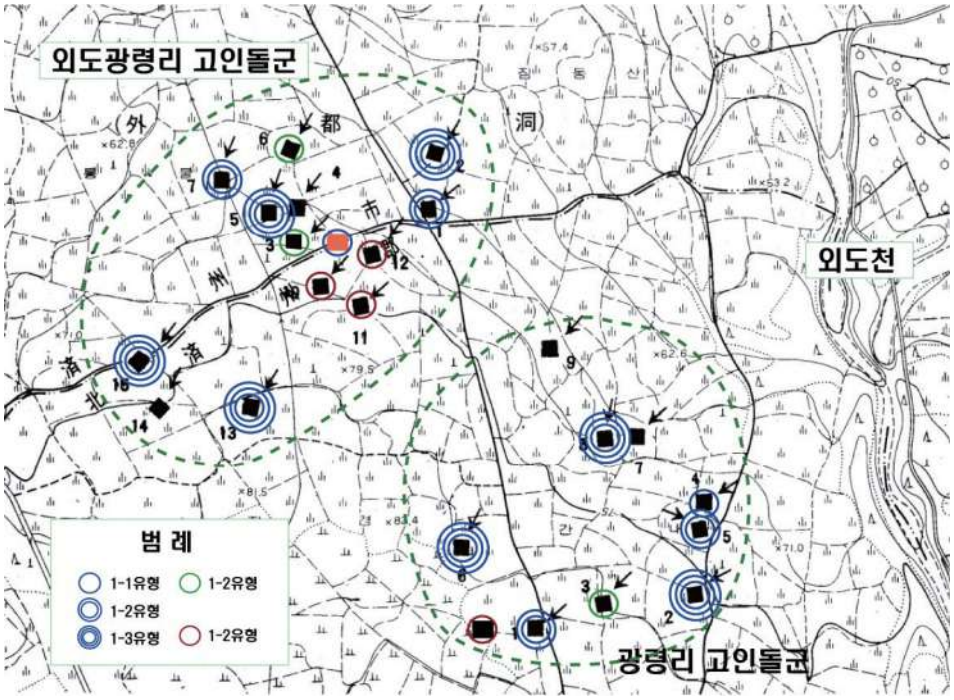
| 〈표 11〉 바위구멍 유형 분류 |

유 형		고인돌명	고인돌유형	바위구멍				배치상태	
				위치	새김수법 및 개수			밀집	중복
					쪼아파기	갈아파기	총 계		
A 유형	A1	외도동 3호	2	전면	52	6	58	o	
		광령리 10호	3	전면	93	11	104	o	
		광령리 11호	3	전면			55	o	
	A2	광령리 15호	1–2	서북쪽 가장자리	59	8	67	o	
B 유형	B1	외도동 5호	1–3	북쪽 가장자리	11	9	20	o	o
		광령리 5호	1–2	남북 가장자리			19	o	
	B2	외도동 6호	1–3	남서쪽 가장자리 (일부 북쪽 중앙)	9	10	19	o	o
		광령리 1호	1–2	남동쪽 가장자리	11	8	19	o	
C 유형	C1	외도동 7호	1–2	남쪽 가장자리 (일부 북쪽 중앙)	8	5	13	o	
	C2	외도동 1호	1–2	북동쪽 가장자리	8		8	o	
		광령리 12호	3	남서쪽 가장자리	7		7		
	C3	광령리 2호	1–3	남서쪽 가장자리		7	7	o	o
기타		광령리 7호		북동쪽 가장자리	?	?			
		광령리 8호	1–3		?	?			

2. 유형별 고인돌 및 바위구멍의 분포양상

광령천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은 크게 2개의 군락[9]과 별도로 1개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인돌로 나눌 수 있으며, 발굴조사 고인돌은 이 두 개의 군락과 거리를 두어 단독으로 자리하고 있다.

| 9) 군집형태는 고인돌이 입지한 지형을 기준으로 평탄대지와 사면부로도 구분할 수 있으나 고인돌 간 거리와 관련하여 뚜렷한 구분이 확인된다.. |



| 그림 12 광령천 일대 유형별 고인돌 분포도 |

첫 번째 군락은 외도동과 광령리의 경계부에 자리한 고인돌군으로 외도동 1~7호 고인돌과 광령리 10~15호가 해당된다. 편의상 첫 번째 군락을 외도광령리 고인돌군으로 명명한다.

두 번째 군락은 광령리 지경에 위치한 고인돌 군으로 광령리 고인돌 1~9호 고인돌이 해당한다. 두 번째 군락의 명칭은 광령리 고인돌 군으로 명명한다.

단독으로 자리한 고인돌[10]은 두 개의 고인돌 군락의 북쪽에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외도동유적의 북쪽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편의상 외도발굴 고인돌로 명명한다.

외도광령리 고인돌군은 한라산의 있는 남쪽에서부터 이어져 온 평탄대지가 바다가 있는 북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부분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인근 바닷가와 해안저지대 대부분을 살피기에 아주 유리한 조망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인돌 군락의 중앙부에는 광령리 암각화 1 · 2호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인돌 상석에 유독 많은 수의 바위구멍이 새겨진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고인돌 유형은 1-1유형을 제외한 1-2, 1-3, 2, 3 유형 모두가 확인된다. 특히 3유형의 비율이 높다. 바위구멍은 A, B, C 모든 유형이 확인된다.

광령리 고인돌 군은 외도광령리 고인돌군의 남쪽에 위치하며, 입지는 평탄대지와 사

10) 이청규, 1986,『제주도유적-선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2집.

면부에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군의 중앙부에는 제주도 고인돌의 대표형식인 위석식 고인돌인 광령리 고인돌 4호가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유형은 1-1, 1-3, 2, 3 유형이 확인되며, 1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위구멍은 B, C2, C3 유형이 확인되며 A유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도발굴 고인돌은 3유형으로 발굴조사에서 소량의 곽지리식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고인돌 상석의 석재는 암질이 조밀한 조면암질 현무암을 사용하였으며, 바위구멍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고인돌은 외도동유적의 입지에서 외도동유적이 자리한 평탄대지로 경사져 올라오는 선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Ⅳ.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의 고고학적 의미

1. 고인돌 바위구멍의 제작시기

한국 지석묘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상한이 기원전 10세기, 하한은 원형점토대토기 문화단계의 기원전 2세기대로 설정되고 있다.[11] 최근에는 전남 동남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라 문화의 흐름이 지체된 곳은 기원전후 시기까지 지석묘가 잔존하고 있음도 논의되고 있다.[12]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인돌은 극히 일부분이다. 비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제주도 고인돌의 성격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있다.

광령천 일대에서 고인돌이 언제부터 축조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축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밝혀 낼 수 없다. 다만 고인돌 군락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와 외도동유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중심시기 B.C 3C)는 외도광령리 · 광령리 고인돌군을 포함하는 유물산포지로 넓은 평탄대지에 형성되어 있다. 지표상에서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와 석기류(도면)이며, 일부 패류가 확인된다. 토기류는 대부분 적갈색토기로 구연부가 외반된 외반구연호가 확인되었다.[13] 석기는 대부분 갈돌, 공이석기가 주류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유구석부와 합인석부도 확인된다.

11)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學研文化社.

12) 이동희, 2002,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와 발전단계-전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15집.

13) 최근의 지표조사에서 적갈색토기 외반구연호 이외에 소량의 공렬토기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외도동유적은 외도광령리 · 광령리 고인돌군에서 북쪽으로 대략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외도발굴 고인돌을 포함한다. 유적의 입지는 광령천 하류역에 해당하는 평탄면에서 한라산이 있는 남쪽으로 첫 번째 단을 이루는 평탄대지상에 자리하고 있다.

외도동유적의 중심 시기는 A.D. 2세기로 유적에서는 토기류와 석기류, 철기류의 유물(도면)과, 원형 주거지(변형 송국리형 주거지), 다수의 수혈유구, 우물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대부분 외반구연의 적갈색토기이고, 일부 회청색연질토기가 공반된다. 석기류는 대부분 공이석기이며,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되는 합인석부와 유구석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유구 내에서 봉상의 철기류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돌의 각 유형과 주변야외유적 간의 직접적인 대입은 어렵다. 다만, 고인돌과 주변야외유적과의 분포입지와 고고학적 관련성을 고려할 때 고인돌의 제작 시기는 야외유적이 형성될 당시인 B.C. 3세기 ~ A.D. 2세기의 시기이며, 제작 주체는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 집단과 외도동유적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작시기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고인돌 유형과 바위구멍, 암각화, 야외유적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고인돌 유형간의 선후와 바위구멍의 제작시기를 추론해 보고자한다.

광령리 일대에는 상기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2개의 고인돌군(외도광령리 고인돌군, 광령리고인돌군)과 일정거리를 두고 단독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2개의 고인돌 그룹은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 내에 있으며, 단독의 고인돌은 외도동유적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유형별 분포는 외도 · 광령리 유물산포지 내에 1 · 2 · 3유형, 외도동유적 내에 3유형이 자리하고 있다.

외도동유적에 자리한 고인돌(외도발굴조사 고인돌)은 광령천 일대에서 유일하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인돌[14]이다. 고인돌 상석은 조면암질 현무암이며, 매장주체부는 지하에 할석과 자연암반으로 이루어진 석곽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거친 테토에 두터운 기벽이 곽지식 무문토기 계통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토기는 기형과 소성상태 등에서 외도동유적에서 출토되는 적갈색토기와 동일한 토기편으로 외도동유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외도동유적과

14) 이청규, 1986, 「제주도의 선사유적-선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2집.

고인돌 양자 간의 관련성은 고인돌이 자리한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인돌이 입지한 곳은 외도동유적의 북쪽 외곽으로 이곳을 기준으로 해안과 광령천 하류지역으로 경사가 시작된다. 이곳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외도동유적이 시작되는 곳으로 고인돌이 마치 유적의 표석처럼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외도발굴조사 고인돌의 제작주체가 외도동유적 집단임을 암시한다.

고인돌 3유형은 외도광령리 고인돌군과 광령리 고인돌군 모두에서 확인되나, 특히 외도광령리 고인돌군에 군집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3유형이 입지한 곳은 외도동유적을 조망할 수 있는 평탄대지의 선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외도동유적과 관련성을 갖는 광령리 암각화가 고인돌 군락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15] 동시에 대부분의 고인돌에 바위구멍이 새겨져 있다. 이는 광령리 암각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경북 칠포리 암각화의 예[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칠포리 암각화 주변에는 다수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암각화 주변 고인돌에 바위구멍이 많이 새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령리 암각화는 외도광령리 고인돌군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종합하면 광령천 일대 분포된 고인돌 중에서 외도동유적과 관련이 있는 유형은 3유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1 · 2유형은 외도동 이전시기의 유물산포지인 외도 · 광령리유물산포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분은 고인돌의 형태와 매장주체부의 구조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광령천 일대 고인돌 유형 중 제일 많은 유형은 1유형이다. 다음으로 2유형과 3유형은 거의 동일하다.

광령천 일대 고인돌 축조에서 많은 노동력과 건축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인돌은 1유형이다. 1-1유형은 상석과 지석을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사전계획 하에 접합부를 조정하였고, 특히 지석의 제작에서 두께 15~20cm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석재가공기술이 가미되어 2 · 3유형의 고인돌 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축조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력의 집중과 분산 등 효율성[17] 면에서 1-1유형에서 1-2 또는 1-3유형으로의 변화상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매장주체부의 위치변화, 즉 지상에서 지하로 변화하는 과정에 2유형과 3유형이 등장[18]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유형과 2 · 3유형은 매장주체부의 위치로 볼 때 그 성격이 아주 다른 형태의 무덤으

15) 김종찬, 2012, 전게서.
광령리 암각화 1호 문양 중 선문의 새김도구가 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봉상의 철기류에 의한 그어파기의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16) 이상길, 2000,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고찰』,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송래, 1999, 「복합사회의 발전과 지석묘의 소멸」, 『전환기의 고고학(Ⅱ)』,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요지.

18) 매장주체부의 변화 이유에 대하여서는 추후 발굴조사 및 여러 학제 간의 연구가 집적되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로 이해할 수 있다. 1유형은 매장주체부를 지상에 둠으로써 추가장의 장소이면서 다수의 시신을 동시에 매장하거나,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나, 2 · 3유형은 1회 1인의 매장을 위한 무덤양식이다. 다장 및 추가장이 가능한 1유형에서 1인 1회의 매장방법인 2 · 3유형으로의 변화는 취락 내 상위계층의 존재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외도동유적 단계에 이르면 상위계층은 지하매장의 장제가 이루어졌고, 일반 계층 특히 취락 내 소규모의 그룹은 공동무덤으로서 1유형을 이용한 계속적인 풍장 및 세골장이 이루어졌음을 가늠하게 한다.[19] 그러한 예로 광령리 일대 고인돌의 숫자는 전체 유물산포지 및 유적의 범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1유형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2 · 3유형은 암각화가 자리한 주변으로 밀집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9) 이는 제주도에서 조선시대 이후까지 일반에서 풍장이 유행하고 있는 점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바위구멍의 제작 의례

고인돌과 바위구멍의 제작 의례는 양자 간의 제작시점을 살핌으로써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의 제작시점에 대해서는 학자 간 이견[20]이 있다. 바위구멍의 제작시점이 고인돌 축조 이전(기존 바위구멍이 있는 암반을 상석으로 사용), 고인돌 축조 당시, 고인돌 축조 이후로 분류된다.

20) 이필영, 한창균, 1987, 「바위구멍의 해석에 관한 시론–고고 · 민속자료를 중심으로–」『史學志』 21.
우장문, 2008,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사유에 관한 연구–덮개돌의 굼을 중심으로–」『선사와 고대』 제29호, 한국고대사학회.

광령천 일대 고인돌 바위구멍의 제작시점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바위구멍의 새김수법과 중복관계, 상석 내에서 바위구멍이 배치된 위치 등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광령천 고인돌 바위구멍의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전체 바위구멍 중에서 쪼아파기 수법의 새김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아파기 수법의 새김 형태는 수량적으로 적다.
② 바위구멍 간의 중복에 있어 쪼아파기 수법 간 구멍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으나, 쪼아파기 수법과 갈아파기 수법 사이에는 중복이 확인된다.(선 쪼아파기, 후 갈아파기) 특히 구멍의 크기 면에서는 갈아파기 수법의 구멍이 쪼아파기 수법의 구멍보다 크고 깊게 새겨져 있다.
③ 일부 바위구멍과 함께 확인되는 선문은 그어파기 수법과 갈아파기 수법이 확인된다.
④ 반면 고인돌 3유형의 바위구멍은 다수의 구멍이 고인돌 상석에 새겨지는데 구멍

간 중복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멍의 배치는 갈아파기 구멍을 중심으로 쪼아파기 구멍이 군락을 이루는 양상을 띠고 있다.

⑤ 바위구멍의 배치는 대체로 고인돌 상석의 가장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열상으로 배치되고 있다. 단, 3유형 고인돌에는 바위구멍이 상석 상면 전면에 배치되고 있으며, 구멍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새겨져 있다.

⑥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이 새겨진 고인돌 상석의 높이는 100㎝ 이하에 집중되고 있다.

고인돌 상석에 바위구멍을 새겨놓는 시점이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인돌 축조과정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1단계 : 자연암반에서 상석을 떼어낸다.
■ 2단계 : 떼어낸 암반을 이동한다.
■ 3단계 : 이동된 암반이 정치되는 공간에 지반정리와 매장주체부의 위치 및 형태를 선정하고, 지석 고임을 한다.
■ 4단계 : 지석 또는 매장주체부 공간위에 상석을 놓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례행위[21]가 일어날 수 있다. 의례행위 중에는 부장품 묻기, 제의, 바위구멍 새기기, 암각화 새기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 중 부장품 묻기와 암각화 새기기[22]는 상석이 지석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외 제의는 각 단계마다 또는 수시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광령천 일대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의 제작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단계 : 상석으로 이용할 암반을 선정, 암반을 떼어내기 이전에 바위구멍을 새김[23]
■ 2단계 : 떼어낸 상석이 이동되기 전 또는 이동과정에 바위구멍 새김
■ 3단계 : 고인돌 축조 위치로 이동 후 지석위에 올리기 전 바위구멍 새김
■ 4단계 : 전체 고인돌 축조 이후(직후 또는 시간경과 후)

1단계: 암석을 떼어내는 기술이 아주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암반에 표현된 바위구멍을 손상되지 않게 떼어내는 것은 극히 힘든 작업이다. 광령천 일대 대부분의 고인돌 바위구멍의 위치가 상석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2단계: 일단 암반에서 떼어낸 후 구멍을 새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고인돌의 형태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암석을 채석하겠지만 고인돌 상석의 장축과 지석과의 접

21) 이상길, 2000, 전게서

22) 현재까지 고인돌에 암각화가 새겨진 곳은 오림동고인돌, 도항리 고인돌, 인비리 고인돌이 알려져 있다.

23) 물론 기존 자연암반위에 새겨져 있는 바위구멍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자연 암반에 새겨진 바위구멍의 기능과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합면 다듬기 등의 후속작업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3단계: 채석된 상석을 축조집단의 원하는 형태로 다듬고, 지석에 맞추어 상석을 놓거나 직후에 구멍을 새길 경우 광령천 일대 고인돌 바위구멍의 배치(상석의 가장자리 배치)와 부합된다.

4단계: 아주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다. 고인돌 축조 전 과정을 마친 상황에서 제의의 한 과정으로 바위구멍 새기기의 순서가 있고, 이러한 결과로 상석의 가장자리, 특히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멍이 새겨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광령천 일대 고인돌 바위구멍이 상석의 가장자리에 배치되고, 그 높이가 100cm 이하에 집중되는 것에 부합된다.

이러한 제의 행위는 고인돌 축조 이후에도 여러 번의 반복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광령천 일대 고인돌 바위구멍의 새김수법과 중복관계, 각 구멍의 크기와 깊이에서 쪼아파기 수법의 바위구멍을 갈아파기가 침범하여 만들어지고, 각 구멍 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갈아파기는 아주 오랜 시간의 새김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단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반면, 고인돌 3유형에 집중적으로 새겨진 다수의 바위구멍은 중복이 없다. 갈아파기 수법의 구멍은 크기와 깊이 면에서 다른 유형의 갈아파기 것보다 작고 낮게 새겨져 있다. 또한 상석의 전면에 가장자리를 따라 혹은 일정공간에 방형의 군집형태로 배치되고, 갈아파기 구멍을 중심으로 소형의 쪼아파기 구멍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로 배치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다른 고인돌 상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쪼아파기와 갈아파기가 공반된 양상과는 이질적인 모습이다. 3유형에 집중되는 A유형의 바위구멍은 한 번에 새겨진 바위구멍일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광령리 일대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은 고인돌 축조 이후에 새겨졌고, 이후 계속적인 고인돌과 관련한 의례와 더불어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번에 바위구멍의 새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바위구멍의 기능과 상징적 의미

바위가 지닌 견고함과 거기에서 유추되는 영원성[24], "돌은 항상 무엇에 의존해 있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현저하게 눈에 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게 된다. 또한 바위는 인간에게 인간조건의 불안정함을 초월한 어떤 것, 곧 절대적인 존재양식을 보여주고

24) 신광철, 2002, 「암각화연구에 대한 종교적 제언」, 『한국암각화연구』3집, 한국암각화학회.

있다"[25] 는 의견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외의 대상이 된다.

선사시대 인류는 신화-제의적 단일체 속에 살았으며, 제의현장에서는 신화가 항상 구송 전승된다고 한다.[26] 고인돌과 입석, 자연암반에 새겨진 바위구멍은 이러한 제의의 한 형태로 선사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령천 일대에는 이러한 바위구멍이 자연암반 및 고인돌 상석에 다수가 확인된다. 특히 광령천 일대 고인돌 중 2/3가량이 고인돌 상석에 구멍이 새겨질 정도로 거의 모든 고인돌에 새겨져 있다. 더욱이 고인돌군의 중앙부에는 암각화가 자리하고 있다.

암각화와 고인돌 바위구멍은 선사시대 의례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로서 친족집단 표시, 질병치료의 목적, 풍요와 생산의 의미, 별자리설, 난생설화, 태양숭배사상의 표현, 장례의식, 천둥경외사상의 표현, 장식의 의미, 장례식 예술의 표현, 불씨 만들기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27]

기존 제주도 고인돌의 바위구멍에 대한 의견은 고인돌을 축조한 사람들의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측면과 피장자와의 직접적인 관련-동급서열, 묻힌 사람의 가족구성원의 숫자-하여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 이중에는 전자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28] 광령천 일대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의 성격은 기존 논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3유형 고인돌의 바위구멍 A유형은 1, 2유형의 바위구멍과는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인돌 비위구멍 3A유형은 외도동유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고인돌로 추정되었다. 외도동유적의 중심시기인 A.D. 2세기 대는 탐라시대 전기로 이전 시기인 철기시대 보다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유적형성이 내륙 보다는 해상활동 또는 외부와의 교류에 유리한 해안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일련의 생업 및 문화 환경의 변화는 광령천 일대에서도 외도광령리 유물산포지에서 외도동유적으로 마을의 이동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한반도 내 무덤 양식에 있어서도 점차 고인돌이 사라지고 석곽 목관묘 또는 목관묘가 성행한다. 이러한 시점에 외도동유적 집단에서도 당시 이전시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고인돌 축조에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구멍의 기능과 성격을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상활동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25) 이은봉역, 1997, 『종교형태론』, pp297~321, 한길사.

26) 신광철, 2002,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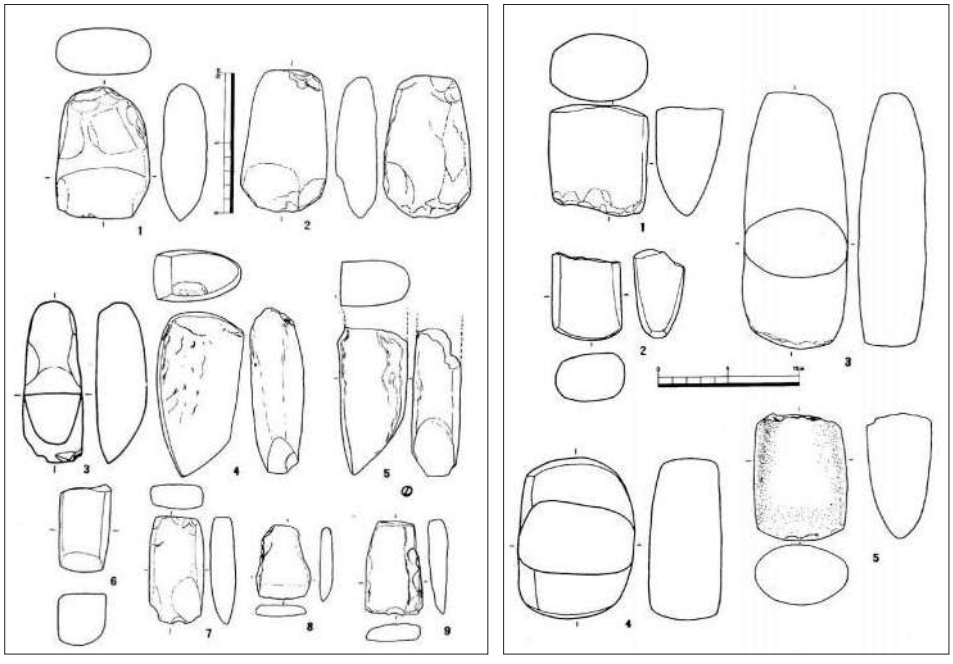
27) 이융근, 1975, 「양평 안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한국사연구』11.
이하우, 한형철, 1975, 「칠포마을 바위그림」, 『포철고문화 연구회』75.
임세권, 1995,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일권, 1998, 「별자리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화』, 51집.
김일권, 2006, 「영일 칠포지역의 암각화 연구」, 『한국암각화 연구』, 7 · 8

28) 강창화, 1996, 「제주도 고인돌」, 『제4기 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제주시 · 제주대학교 박물관.

첫 번째는 별자리의 표현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해상교통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던 별자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더욱 간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결과로 별을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당시의 대표자, 즉 탐라시대의 대표자의 표현이 성주(星主)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다. 이로써 당시의 해상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각화를 제작하고, 그 주변의 고인돌 상석에 신앙의 대상으로 별자리의 도해[29]를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매장주체가 없는 망자에 대한 기원의 표현 방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고인돌에 대한 구전은 '돌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당시 해상활동에 있어 중요한 배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인돌 상석을 배로 상징하여 바다에서 조난당하거나 다른 연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망자들에 대한 의례행위로서 무리를 이끌었던 대표자와 조력자를 애도하고, 망자의 영혼이 향후 해상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원의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림 13 광령리유물산포지 수습유물 |

| 29) 박창범 외, 2003, 「남한지역의 바위구멍 조사연구」, 『한국암각화연구』제4집, 한국암각화학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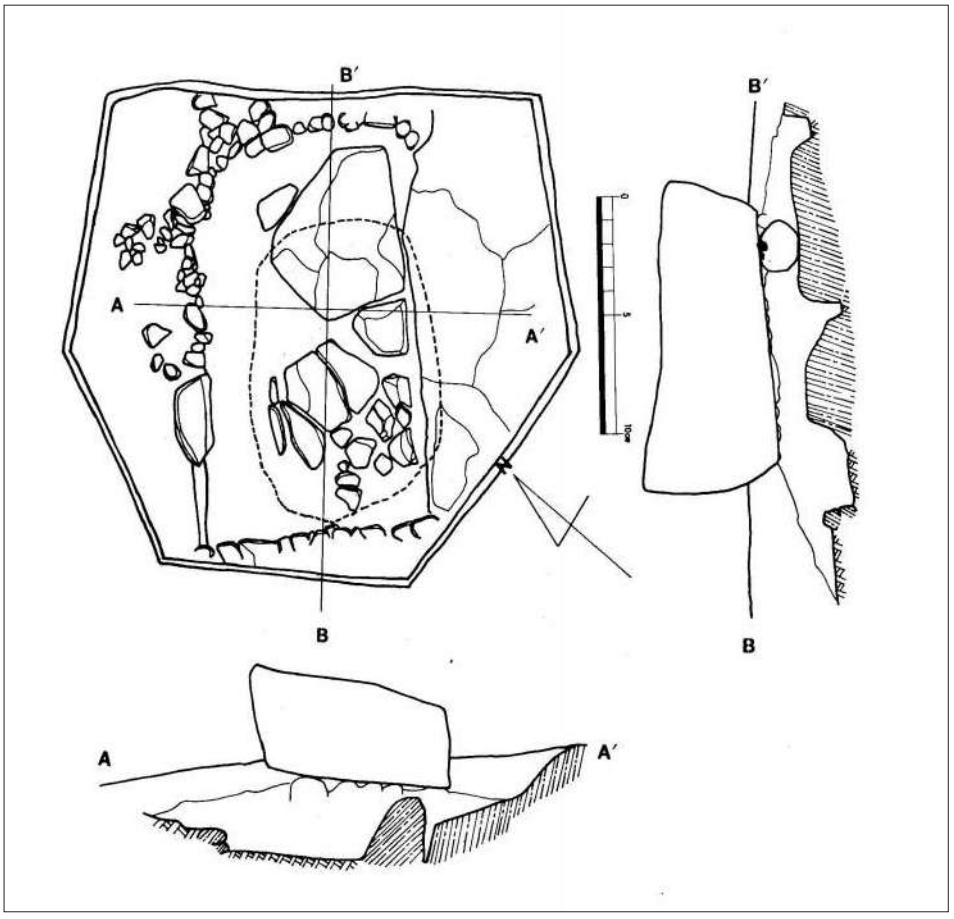


그림 14 외도발굴고인돌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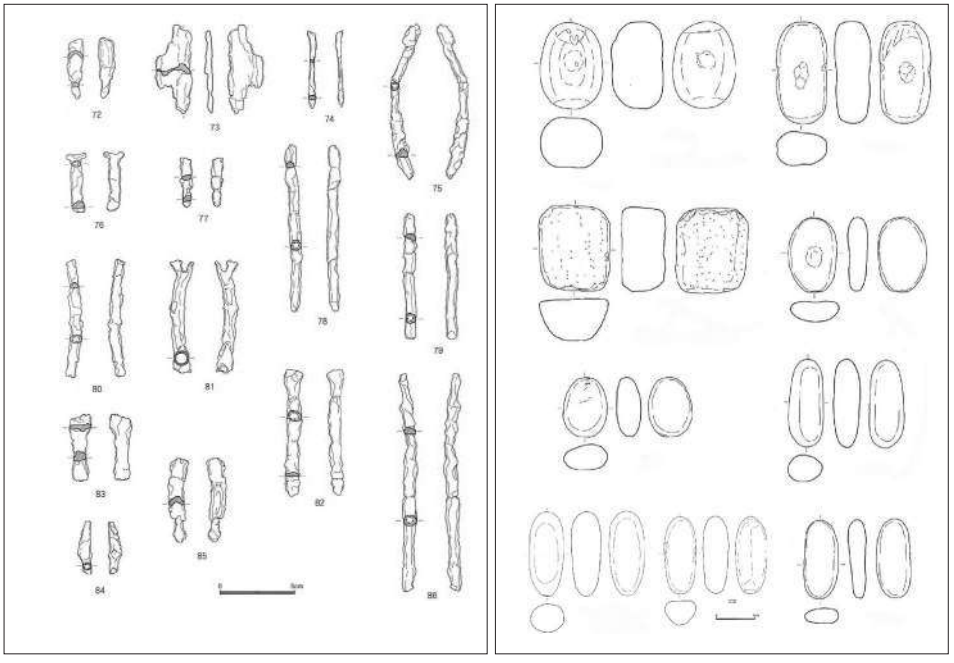


그림 15 외도동 출토 봉상철기 및 고석

Ⅴ. 맺음말

이상에서 광령천 일대의 바위구멍의 현황과 바위구멍의 구조와 특징, 고인돌과 바위구멍의 유형, 야외유적과의 관련성, 제작시기, 바위구멍의 기능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바위구멍 및 암각화에 대한 논의의 시작으로 광령천 일대 바위구멍을 서술함에 있어 많은 비약과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제주 선주민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자료인 바위구멍에 대해 활발한 학제간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향후 제주도 청동기시대~탐라시대 묘제 연구에 대한 논의로서 광령천 일대 고인돌과 바위구멍을 통해서 본 묘제변화에 대한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광령리에서 확인된 묘제양식은 고인돌뿐이다. 반면에 광령천 일대의 선사유적과 동시대 유적인 삼양동유적의 경우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고 있어 광령천 일대 고인돌 이외의 다른 묘제와 장제의 변화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주도 청동기시대에서 탐라시대까지의 묘제의 변화는 지하매장(토광묘), 풍장 및 세골장(고인돌, 옹관묘), 지하매장(석곽석관묘, 석곽묘, 목관묘)으로의 변화양상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삼화지구유적[30]이 있다. 주변에 자리한 삼양동 고인돌과의 관련성은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곳에서 당시의 묘제로 추정되는 무덤양식은 유경식 돌검이 출토되는 토광묘가 유일하다. 이외 점토대토기가 공반된 토광묘가 확인되나 그 소속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매장주체부의 안치는 지하매장에 해당한다.

다음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형 주거지를 기본으로 한 삼양동유적 관련 무덤은 삼양동 고인돌과 옹관묘, 석관묘를 들 수 있다. 이는 삼양동 일대 선사유적의 중심시기가 청동기시대~탐라시대까지의 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삼양 · 도련동 고인돌군은 광령천 일대 고인돌 유형 중 1-2유형[31]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묘제 양식상 지상의 돌방 모습으로 풍장의 기능을 위한 무덤으로 볼 수 있다.[32] 즉, 풍장을 위한 1차 시신 보관 장소 또는 풍장의 직접적인 장소(조장을 위한 제단: 티베트의 조장(鳥葬)에 사용되는 대석, 혹은 내부안치)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는 최근까지 풍장의 풍습이 남아 있으며, 제주도 보다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 열도 중 요론섬에는 풍장

30)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Ⅰ유적』,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7책.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제주 삼화 나지구 유적-Ⅰ · Ⅱ지구-』,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제128책.

31) 삼양 · 도련동 고인돌군 중에 도련동1호 고인돌은 3유형인 개석식이나 현상이 변경된 고인돌로 정확한 유형은 알 수 없다.

32) 이영문, 2002,『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한국 지석묘의 장법은 석실규모로 본 전남지방의 장법을 보면 신전장 40%, 굴장 42%, 세골 · 유아장 17.7%이 다. 굴장>신정장>세골장 · 유아장 순이다.

의 개념[33]으로 바위그늘 또는 동굴을 이용한 절벽장(애장, 풍장)이 확인된다. 이러한 절벽장의 망자는 각 부족집단이 이용하는 공동무덤으로 부족 간에 분가를 하였을 경우도 같은 무덤을 사용한다고 한다.

다음은 옹관묘이다. 청동기시대 옹관묘는 고인돌의 부속무덤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하나의 완성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옹관묘의 형태는 외곽으로 굴광을 굴착한 후 내부에 합구식옹관을 안치하고, 그 주변으로는 할석을 이용하여 적석렬을 돌리는 형태이다. 옹관 크기는 80cm내외가 대부분으로 일관성이 있다.[34] 이는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용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용 옹관을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옹관크기가 일률적인 것은 옹관 내부에 안치되는 매장주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략적으로 옹관은 전신을 넣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오키나와 요론섬에서 현재 행해지는 세골장의 형태에서 참고할 수 있다. 요론섬에서 진행되는 세골장은 사람이 죽으면 가족묘역 내에 가묘(간부타)를 설치하고 3~5년 후 가묘를 해체하여 세골이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망자와 관련한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모두 참석하여 세골을 한다. 세골 이후에는 합구식의 옹관에 세골된 뼈를 담고 가족묘역에 직치한다. 직치(直置)시 두개골이 있는 작은 항아리부분은 지상에 노출된다. 이때 사용되는 옹관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 이유는 세골을 하였을 때 인골 중에 가장 긴 정강이뼈와 대퇴골을 넣고 그 위에 두개골을 넣을 때까지의 평균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사시대 옹관의 크기가 일률적인 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골장과 관련한 부분을 제주도 선사시대에 적용하면 세골을 위한 1차 장소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양식이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있고 무덤방이 형성된 고인돌 1유형이다. 고인돌 1유형 중 1-1유형은 축조 시 투자되는 노동력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쉽게 축조할 수 있는 1-2유형 또는 1-3유형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양동유적의 경우 전체 취락을 생각해 볼 때 전체 인구수에 비하여 고인돌 4기와 현재까지 확인된 옹관묘의 숫자는 아주 적은 편이다. 따라서 육지부의 양상[35]과는 달리 당시 유력계층은 세골 후 옹관에 매장되었고 일반계층은 고인돌을 이용한 풍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36] 일반계층은 소수의 고인돌을 소수집단의 고유한 공동의 무덤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고인돌 상석에 확인되는 바위구멍인 경우 소수집단에 의한 공동 의례의 표현일 수 있다.

옹관묘와 거의 동시에 고인돌 2유형과 3유형이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3유형은 고인돌 축조에 있어 고인돌 1유형과 옹관묘를 위한 세골과정 보다 적은 노동력과 시간이 투입[37]될 수 있는 유형이다. 시기적으로 한반도에서는 고인돌 축조가 사라지고 세형동검기의 석곽목곽분이 보편화되는 시기이면서, 제주도에서는 대규모 취락이 형

33) 가미야 도모아키(神谷智昭), 2014, 「사회변화가 초례한 사자와의 관계변화-요론섬의 화장시설 신설사례를 중심으로」, 『재일 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재일제주인센터 연구총서 2.

34)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전게서

35) 전남지방을 제외한 타지방에서는 지석묘(석관묘)를 상층에 석개토광묘, 토광묘, 옹관묘 등을 중층에 무덤이 없는 하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36) 김광명, 2004, 「경북지역의 고인돌과 보존현황」,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제1회 세계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남강유역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기준으로 무덤의 숫자가 예상 인구의 1/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묘는 당시 일반 구성원의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37) 이송래, 1999, 「복합사회의 발전과 지석묘의 소멸」, 『전환기의 고고학(II)』,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요지

성되고 취락 내 위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이다. 2, 3유형의 등장은 이전 시기의 마을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유형의 공동 집단묘에서 옹관묘와 더불어 단독무덤을 사용하는 계급, 상위계층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천(용담동유적 인근에 위치한 하천) 일대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천 일대 고인돌 형태는 1-1유형, 1-2유형, 2유형, 옹관묘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옹관묘는 용담동 고분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남북으로 이어지는 석렬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옹관묘가 축조되고 그 반대편은 석곽묘, 석곽 목관묘가 축조되고 있다. 옹관묘와 석곽묘, 석곽목관묘는 석렬을 사이에 두고 기존 묘역을 파괴하지 않고 연접하여 축조되어 있다. 이는 동일 집단의 시기적 변화상에 맞춘 무덤양식이 옹관묘에서 목관묘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탐라시대에는 용담동 고분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곽 목관묘, 석곽묘 이외 다른 묘제 양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삼양동, 용담동, 외도동, 곽지리 일대 유적에서 할석을 이용한 세장방형의 소규모 석관묘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광령천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을 포함한 무덤양식의 변화 양상은 1유형에서 2, 3유형으로 변화되었으며, 바위구멍 역시 시기차를 두고 고인돌 상석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3유형의 고인돌에 바위구멍이 새겨질 당시에는 암각화가 주변에 조성되고 이 암각화를 중심으로 3유형의 고인돌은 물론 주변에 산재된 고인돌에도 다수의 바위구멍을 새기는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발굴 자료의 축적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인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강창화, 1996, 「제주도 고인돌」, 『제4기 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7책.

김광명, 2004, 「경북지역의 고인돌과 보존현황」,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제1회 세계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김일권, 1998, 「별자리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화』, 51집.

김일권, 2006, 「영일 칠포지역의 암각화 연구」, 『한국암각화 연구』, 7 · 8

김종찬 외 9인, 2011, 한국의 암각화-부산 경남 전라 제주편, 울산암각화박물관.

김종찬, 2012,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에 대한 일고찰」, 『濟州島硏究』37, 濟州學會.

박창범 외, 2003, 「남한지역의 바위구멍 조사연구」, 『한국암각화연구』 제4집, 한국암각화학회.

송은범, 1979, 고인돌 소고.

신광철, 2002, 「암각화연구에 대한 종교적 제언」, 『한국암각화연구』 3집, 한국암각화학회.

양홍진, 방창범, 박영구, 「홈이 새겨진 고인돌과 홈의 특징」, 『한국암각화연구』14집, 한국암각화학회.

우장문, 2008,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사유에 관한 연구 -덮개돌의 굼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제29호, 한국고대학회.

이동희, 2002,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와 발전단계-전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15집.

이송래, 1999, 「복합사회의 발전과 지석묘의 소멸」, 『전환기의 고고학(Ⅱ)』,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요지

이상길, 2000,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學硏文化社.

이융근, 1975, 「앙평 안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한국사연구』11.

이은봉역, 1997, 『종교형태론』, pp297~321, 한길사.

이청규, 1986, 『제주도유적-선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2집.

李淸圭, 1995, 『濟州道 考古學 硏究』, 學硏文化社.

이필영, 한창균, 1987, 「바위구멍의 해석에 관한 시론-고고 ·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史學志』 21.

이하우, 한형철, 1975, 「칠포마을 바위그림」, 『포철고문화 연구회』75.

임세권, 1995,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제주도유적조사보고.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濟州 外都洞遺蹟Ⅱ,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서 20책.

한국역사민속학회, 1996, 한국의 암각화, 한길사.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제주 삼화 나지구 유적- I·II 지구-』,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제128책.

황용훈, 1987,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가미야 도모아키(神谷智昭), 2014, 「사회변화가 초례한 사자와의 관계변화-요론섬의 화장시설 신설사례를 중심으로」, 『재일 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재일제주인센터 연구총서 2.

레오나르도 아담, 김인환 옮김, 2001, 원시미술, 동문선.

여 백

부록

4.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의례 검토

여 백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의례 검토

Ⅰ. 머리말

지금까지의 고고학의 연구방향은 주로 인간이 남긴 물질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해석하고 당시의 문화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물질문화 이외에도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행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는 사회구성원의 노동력이 곧 경제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농경을 통한 대규모의 취락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또한 공동의 작업을 통해 집단의 결속과 소속감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당시는 자연환경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대자 혹은 자연의 현상에 의지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례 혹은 제사를 거행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청동기시대 지석묘 축조 또한 공동작업이라는 외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를 통한 집단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례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당시 사람들의 형이상학적 의식세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질적 자료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시인들의 정신세계(의식세계)를 알기란 쉽지 않은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인들의 생활상을 올바르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선사시대에 있어 의례는 취락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는 물론 무덤에서 행해지는 의례와 주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암각화와 같이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례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인들의 의례와 관련된 흔적은 유구나 유물에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인들이 남겨놓은 의례적인 흔적과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당시의 정신세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본다.

지석묘와 같은 墳墓築造와 관련된 葬送儀禮는 분묘에 나타난 다양한 물질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당시의 사회구조나 사회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윤호필, 2014).

본고는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의례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그러기 위해 먼저 호남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취락의례 관련 유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서 지금까지 조사된 취락과 지석묘를 통해 당시의 취락의례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Ⅱ.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례

의례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祈願의 목적에 따라 일상의 장소가 의미화 되거나 특별한 장소가 제장(祭場)이 되어 의례가 행해지며(윤호필 2014, 64-65쪽) 의례의 목적과 상징성은 종류에 따라 달라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의례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기능과 다면적 상징성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어렵지만(김권구 2005, 196쪽),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의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취락에서 이루어지는 生活儀禮, 耕作地에서 이루어지는 農耕儀禮, 河川에서 이루어지는 水邊儀禮, 그리고 墓域에서 이루어지는 葬送儀禮로 구분된다(이상길, 2000).

1. 생활의례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례로 주거지 내부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로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는 주거지의 축조나 폐기와 관련된 의례행위를 말한다. 축조의례는 주거지 축조시 행해지는 의례로 대표적인 예는 진주 어은 77호 주거지에서처럼 초석 아래 수혈에 유물을 매납하거나 주거지내 한쪽 벽가에 수혈을 파고 유물을 매납한 행위가 해당되며 또한 송국리식주거지내 타원형구덩이에 토기를 정치하여 놓은 행위 등은 주거지의 축조와 관련된 의례행위로 추정된다. 실제 주거지 축조와 관련된 의례행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례는 주거지 축조 이후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김제 수록리 1호 주거지의 경우 중앙부에 제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거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익산 영등동 Ⅱ-7호 주거지내에 설치된 2개의 노지 가운데 한쪽 노지에서 다량의 뼈가 파쇄된 상태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노지내에서 이루어진 생활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규정, 2014).

폐기의례는 생활유적과 그 주변에 유물을 故意的으로 廢棄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의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남겨진 고고자료만 가지고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폐기의례와 관련하여 주거지내에 다량의 유물이 폐기된 양상들이 주로 송국리식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내 유물 폐기행위는 주거지내 특정 장소(주혈, 수혈 등)에 유물을 매납하는 행위와 다량의 유물을 일시적으로 폐기하거나, 층위를 달리하면서 주기적으로 유물을 폐기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송국리식주거지내 유물의 폐기행위는 주거지 폐기 후 의례공간으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양혜진, 2009).

호남지역 주거지내 특정장소에 유물이 적치된 예는 익산 영등동 Ⅲ-4호 주거지, 원수리 2호 주거지, 전주 동산동 24호 · 31호 · 33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주거지내 타원형구덩이와 주혈, 수혈, 벽구 등 특정한 장소에 유물을 매납하는 행위로 주거지의 폐기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혈 내에 완형의 유물이 정연하게 출토되는 것은 의도적인 매납행위로 주거지 폐기시 기둥을 제거하고 난 후 유물을 매납하거나 주거지를 축조 당시 주혈내에 유물을 매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 축조시 주혈내에 유물을 매납하였다면 주혈이 실제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주혈내에 유물이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는 주로 4주식 주거지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4주식 주거지에 기둥이 없었다고 본다면 주거지내에서 거행된 생활의례의 한 유형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주거지내 유물이 다량으로 적치된 예는 현재까지 호남지역 송국리식주거지 약 50여기에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내에 다량의 유물이 폐기된 행위에 대해 그동안 폐기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완형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주거지들이 상당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의례의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주거지의 경우 유물과 함께 목탄과 소토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의도적인 소각(燒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다양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기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의례유구가 등장하는데 특정한 유구내에 유물이 다량으로 폐기되거나 완형의 유물을 폐기하는 행위로 대체로 수혈과 적석시설의 형태로 나타난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107쪽). 의례유구는 주거지와는 별개로 주거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되어 축조되며 몇 개의 수혈이 연접되거나 독립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수혈의 경우 내부에 다량의 유물이 폐기 되거나 의도적으로 매납한 것으로 추정되는 완형의 유물이 출토된다.

의례유구는 수혈의 형태와 부정형의 유물집중상태로 나타나는데 수혈의 형태는 전주 동산동 9호 수혈처럼 부정형에 2단으로 굴광하고 1단 굴광 부분에 흑색마연토기 광구호 1점을 정치하여 놓고 주변에 석재와 무문토기가 편을 깔았다. 또한 48호 수혈은 평면 말각장방형으로 바닥에는 목탄, 소토, 재가 깔려 있고, 중앙부에서는 무문토기호와 적색마연토기 완 2점이 포개어진 상태로 석재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한쪽 벽가에 치우쳐 삼각형석도, 석촉, 방추차가 출토되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 토기와 할석이 집중적으로 폐기된 부정형의 수혈들과 적석시설도 의례유구로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토기, 석기, 석재가 뒤섞인 상태로 출토되며, 토기의 경우 발, 완과 적색마연토기들이 대부분이고 옹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의례유구는 성격을 알 수 없는 수혈 수기가 평면상에서는 중복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깊이는 얕고 벽선도 중앙부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깊이에서 야간의 차이를 보일 뿐 평면이나 단면상에서 중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의 동시기에 여러 차례 굴착되면서 깊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내부에서는 적색마연토기, 무문토기편, 갈돌, 석부편, 석도편, 석촉편 등의 유물과 함께

작은 할석들이 혼재되어 출토되었다. 이처럼 의례유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로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식취락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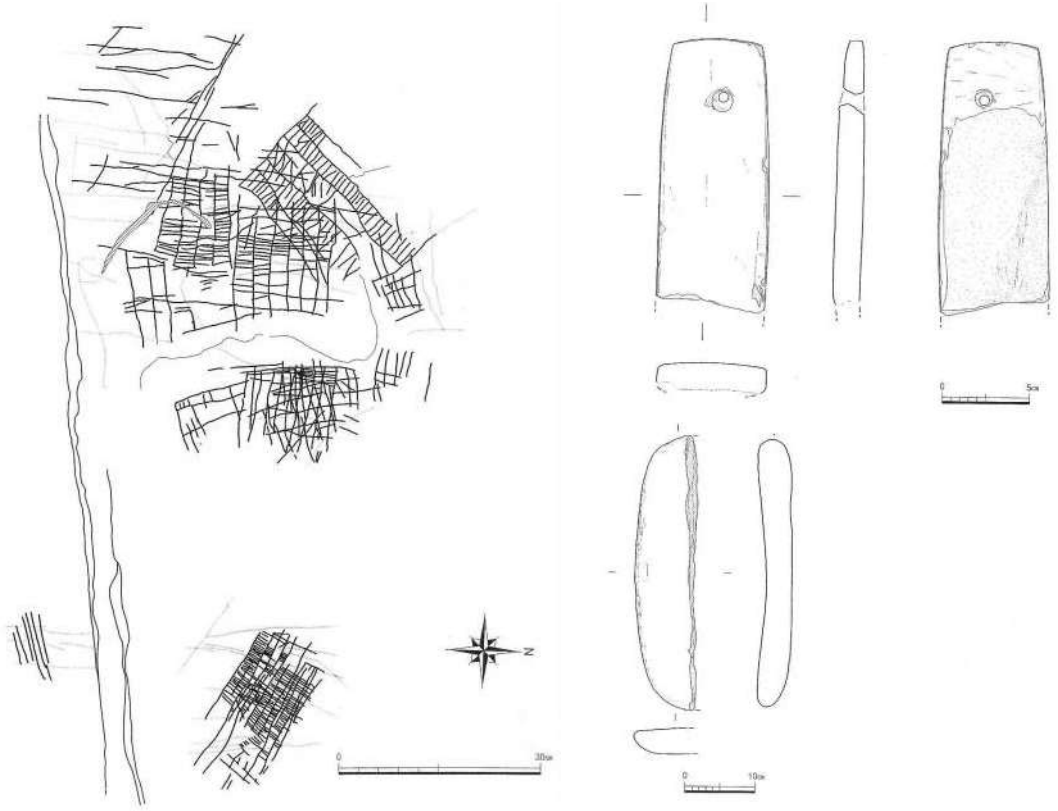
이 밖에도 농경과 관련된 경작지에서 이루어지는 농경의례와 특정 장소에서 탄화된 곡물이 출토되는 경우가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익산 송학동 저습지 출토 무문토기에 탄화팥이 담긴채 출토되었다. 이는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진안 여의곡 밭유구에서 확인된 입대목의 경우도 농경과 관련되어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농경의례의 명확한 예는 傳대전 출토 農耕文靑銅器로 그림은 전후면에 음각된 繪面銅器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 따비로 이랑을 갈고, 괭이를 들고 땅을 파거나 그릇에 곡식을 저장하는 사람 등 세 명의 사람과 세 마리의 새가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기원전 4세기경 농촌의 풍경, 농사의 모습을 한 해의 농경과정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례가 농경지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국립진주박물관, 2002, 118쪽). 즉 농경문청동기의 문양구성은 신적인 존재에 무엇인가를 희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의기였음을 알 수 있고, 農耕祭儀시 샤먼이 하늘에 제사지내며 사용한 巫具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청동기시대 후기는 농경문 청동기 이외에도 동령과 방패형동기 등 다양한 청동기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청동유물은 모두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건무, 2003, 147쪽).

또한 물의 혜택에 감사하고, 때로는 자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사로 하천이나 확대된 재배경지, 관개시설의 확보를 위한 수로 및 저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변의례가 있는데(조현종, 2014, 17쪽) 수변의례는 마을 주위의 작은 하천, 저습지, 취락주위의 환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안정적인 물의 공급을 염원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동진숙, 2006, 154-155쪽).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동림동, 강진 호산 유적 저습지에서 무문토기를 비롯한 석기, 목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수변의례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농경의례 내지는 집단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2. 지석묘 축조의례와 특수의례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의례는 채석에서부터 지석묘 축조까지 일련의 과정에 이루어지는 의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석과 관련된 의례행위는 나주 운곡동에서 확인된다. 나주 운곡동 지석묘 상석 채석장 내 암반에서 확인되는 암각화가 대표적인데 암각화는 9개의 암반과 안성지석묘군 상석 3기에서 확인되었다. 암각화는 채석이 이루어진 편평한 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여 음각선을 시문한 세선화기법의 암각화로 가로선을 먼저 시문하고 세로선을 새기고 사이사이에 가로선을 다시 새겼으며 채석장에서는 유공석부와 갈판이 출토되었다(마한문화연구원, 2011). 채석장과 상석에서 확인된 암각화는 지석묘 상석의 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해진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사나 의례를 의도적으



| 그림 1. 나주 운곡동 암각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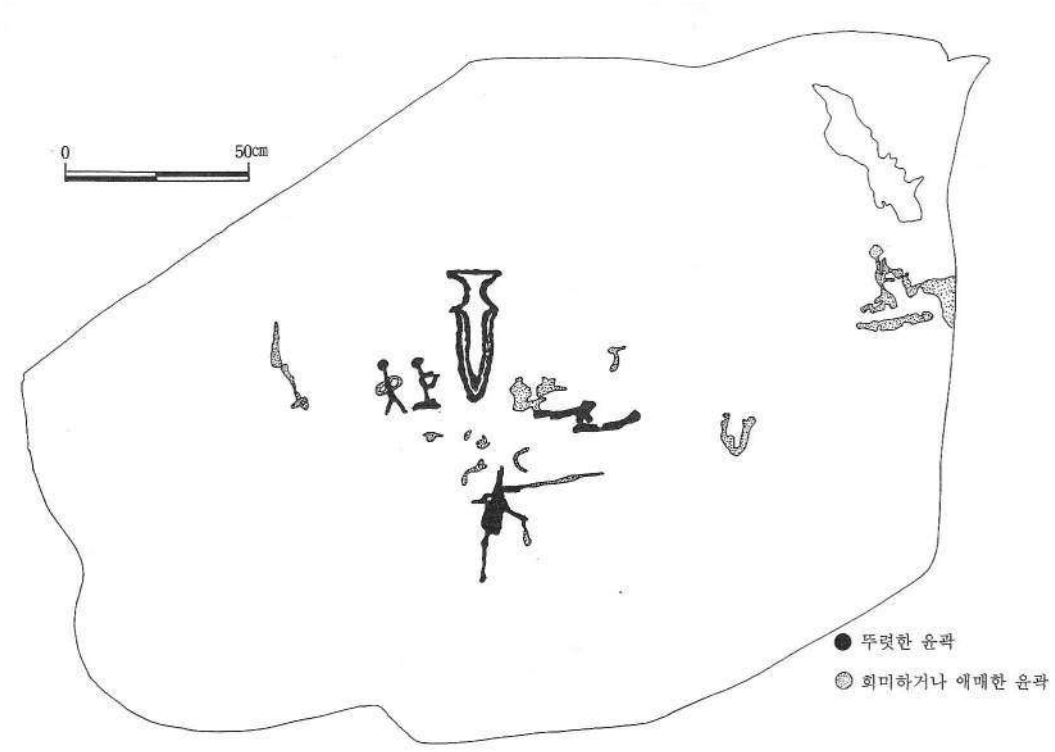
로 새겼다기 보다 어떤 기록의 행위에서 생겨난 부산물로 추정하기도 한다(신주원 2010, 31쪽).

지석묘 축조시 이루어진 의례는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에서 확인되는데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상석에 지석묘 축조시 의례행위를 암각으로 표현하였다. 암각화는 상석의 남쪽면에서 확인되었는데 다른 면에 비해 면이 매끄럽고 약 20도 정도 기울어져 岩蔭(바위그늘)을 하고 있다. 그림은 일단병식석검 1점, 앉아있는 인물상 1, 서있는 인물상 1, 판독이 불가한 암각 등이 새겨져 있다. 암각은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암각된 석검은 인물상과 함께 암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작기법은 쪼아파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어파기를 하였으며 일부 갈아서 면을 고르게 한 것도 있다. 석검 좌측에 새겨진 인물상은 조상에게 무언가를 받치거나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조상에 대한 葬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대학교박물관, 1992).

특수의례는 암각화와 매납유구, 해촌제 등이 있다. 암각화는 바위 표면에 그림이나 기호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청동기시대 암각화는 자연암반은 물론 지석묘 상석과 호석 등에 형상이나 기호를 표현하였으며 주로 생활영역과는 동떨어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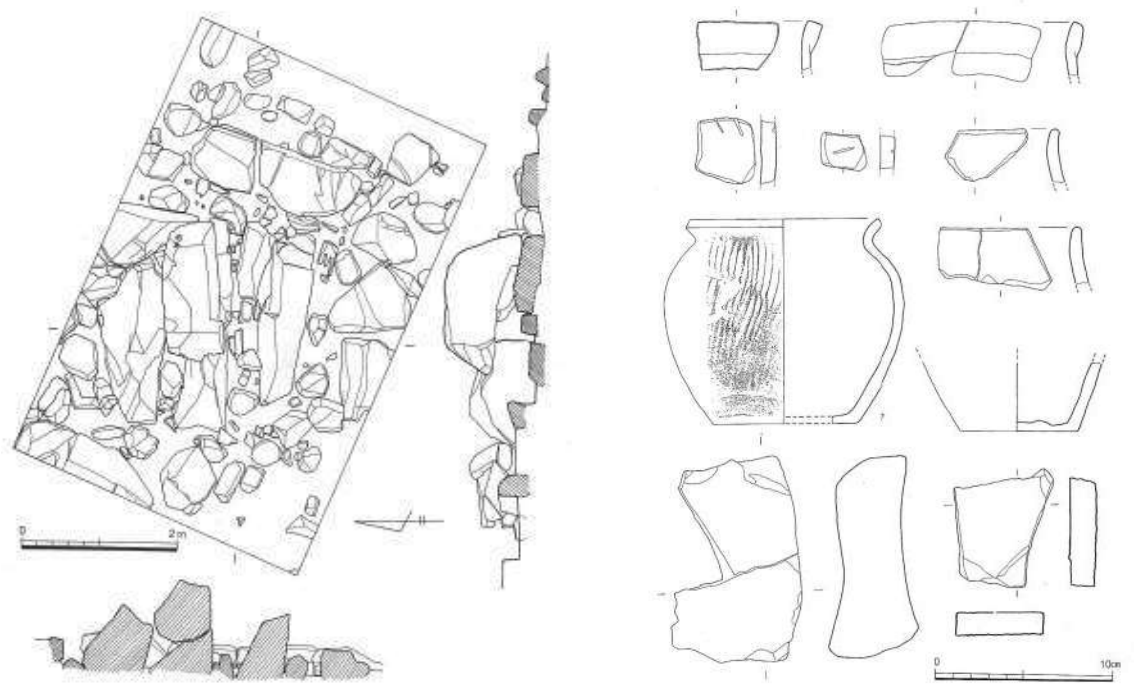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암각화는 남원 대곡리에서 확인되었다. 대곡리 암각화는 요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소하천의 상류의 완만한 구릉상에 솟아 있는 암벽에 새겨져 있다. 그림은 남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패형암각으로 암각화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전면이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유적의 입지가 은밀한 곳이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특정 소수를 위한 의례로 보고 있다(이상길, 1996, 142-143쪽). 이처럼 암각화는 일상 생활공간과는 떨어진 별도의 공간, 즉 물가의 수직암벽이나 산으로 둘러싸여진 별봉 또는 지석묘의 상석에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곳들을 성스런 장소라 생각하였다. 또한 새겨진 도형들이 태양빛을 받아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는 바위면을 선택했다는 것도 역시 신앙의식의 발로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신앙적 공간이었으며 그들의 생활상, 우주관 등이 면면히 표현된 장소였다(박정근, 2000, 224쪽).

다음으로 매납유구는 완주 상림리, 군산 관원리, 함평 당하산 등에서 확인되었다. 상림리에서는 중국식동검 26점이 매납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중국식동검은 중국 전국시대 吳·越과 한반도 서해안지역 주민집단과 문화적 접촉을 반영한 것으로(全榮來 1976) 청동기 매납은 청동기를 이용한 일종의 제사로 청동기를 소유한 상위계층에 의해 주도된 특수한 의례지만, 매납은 유구의 위치가 일상의 생활공간을 벗어나 있고, 은밀하게 숨겨두는 것처럼 행해지기 때문에 유구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이상길, 2001, 178-179쪽). 군산 관원리와 함평 장년리 당하산에서는 청동유물과 함께 철기가 공반된 매납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들 매납유구는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2. 여수 오림동 암각화 |

이밖에 돌산 세구지 지석묘군 중앙에서 확인된 제사유구는 정확한 의례의 목적을 알 수 없지만, 동서 장축인 3개의 장대석을 중심으로 다시 1개의 장대석이 상석처럼 얹혀 있는 형태이며 그 동쪽에는 윗면이 고른 편평석 1매가 남북방향으로 놓여있다. 각각의 장대석은 원래 하나의 것이 쪼개지면서 위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석재들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 내부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무문토기와 지석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거석을 대상으로 신앙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破儀式」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유물 가운데는 이중구연토기편, 단사선문토기편, 구연편, 저부편 등이다. 의례의 행위는 풍어와 촌락의 안전을 기원하는 「海村祭」와 관련된 거석기념물로서 의식수행과 관계된 신성한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국립광주박물관,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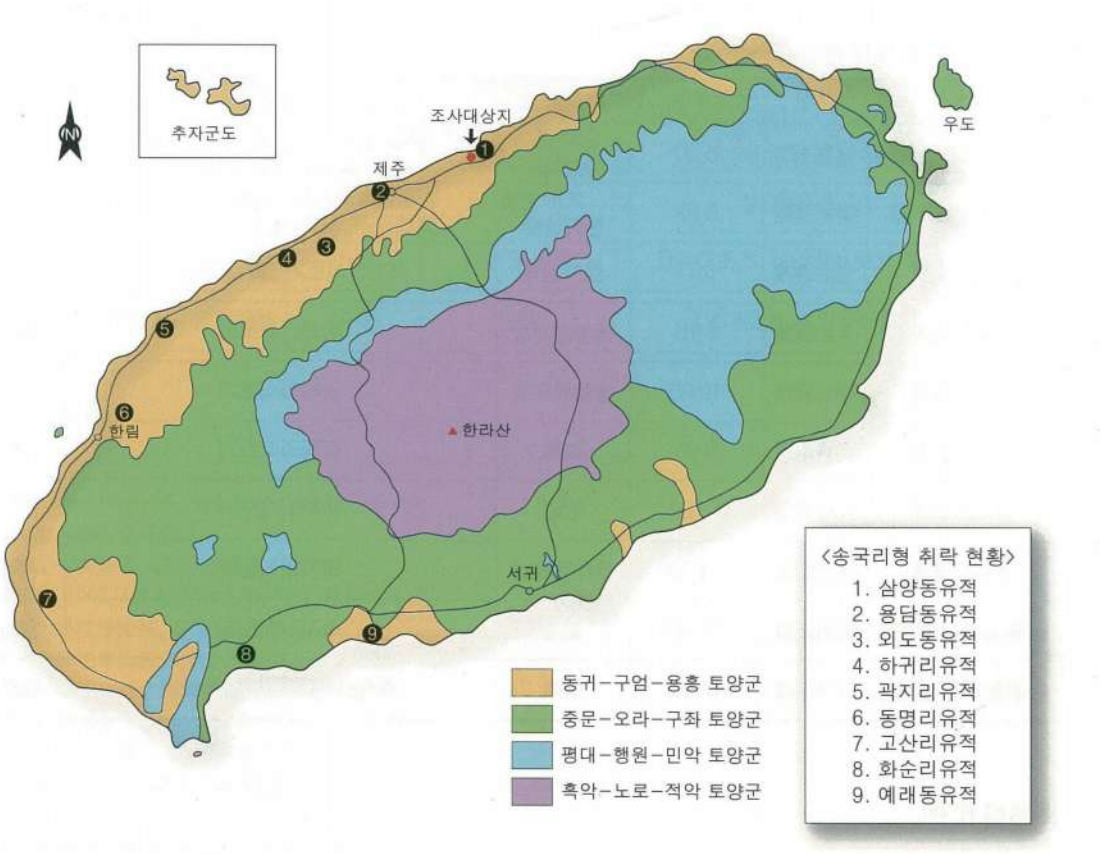
| 그림 3. 여수 돌산 세구지유적 |

Ⅲ. 제주도 청동기시대 취락의례

제주도는 한반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주변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부와 고립되어 있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도 확인되지만, 대체로 선사시대부터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한반도와는 토양조건이 다르고, 큰 강이 없으며 하천은 대부분 乾川으로 飮用水를 구하기 힘들고 水田農耕이 어렵다는 점 등 지리적 ·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같은 문화의 분포권이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相異性이 존재하고 있다(박경민, 2012, 1쪽).

해안저지대에 분포하는 용천수의 일일 용출량은 5,000톤/일 이상되는 용천수는 40개소 가운데 4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발 100m 미만인 해안저지대의 평탄대지 및 구릉지가 비교적 용수조건이 양호하다(김경주, 2009, 68쪽).

제주도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은 송국리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삼양동, 용담동, 외동동, 하귀리, 곽지리, 동명리, 고산리, 화순리, 예래동 등 많은 유적이 확인되었다. 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지질은 동귀-구엄-용흥 토양군으로 해안저지대의 비교적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고, 양질의 토양이 분포하고 있어 농경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청동기시대 취락은 飮用水를 구하기 쉬운 용천수가 집중되어 있는 해안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박경민, 2012, 47쪽) 용수조건이 취락조성의 중요한 입지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김경주, 2009, 69쪽).



| 그림 4. 제주도 토양개황도 및 송국리식취락 분포도(김경주, 2010년 원도) |

1. 생활의례

제주도 청동기시대 취락은 전기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가장 이른 시기는 상모리유적으로 기원전 8~7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청규, 2009, 8쪽). 그러나 전기유적은 산발적으로 확인되며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에서 성행하였던 송국리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송국리식주거지는 200여기를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송국리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송국리식주거지의 특징에 있어 평면 원형에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A형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호남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경강유역에서 성행하였던 평면 원형에 A형의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된 형식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확산되고 해로를 통해 제주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박경민, 2012, 86-87쪽) 한반도 송국리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송국리문화가 성행한 시기는 호남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쇠퇴한 기원전 3세기 이후(이청규, 2009)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로 본다면 제주도에서 송국리문화가 성행하는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AMS의 연대를 보면 대체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300년에 속하는 연대가 많다(김경주, 2009). 그러나 하한은 주거지내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 이후 원삼국시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경주, 2009; 이청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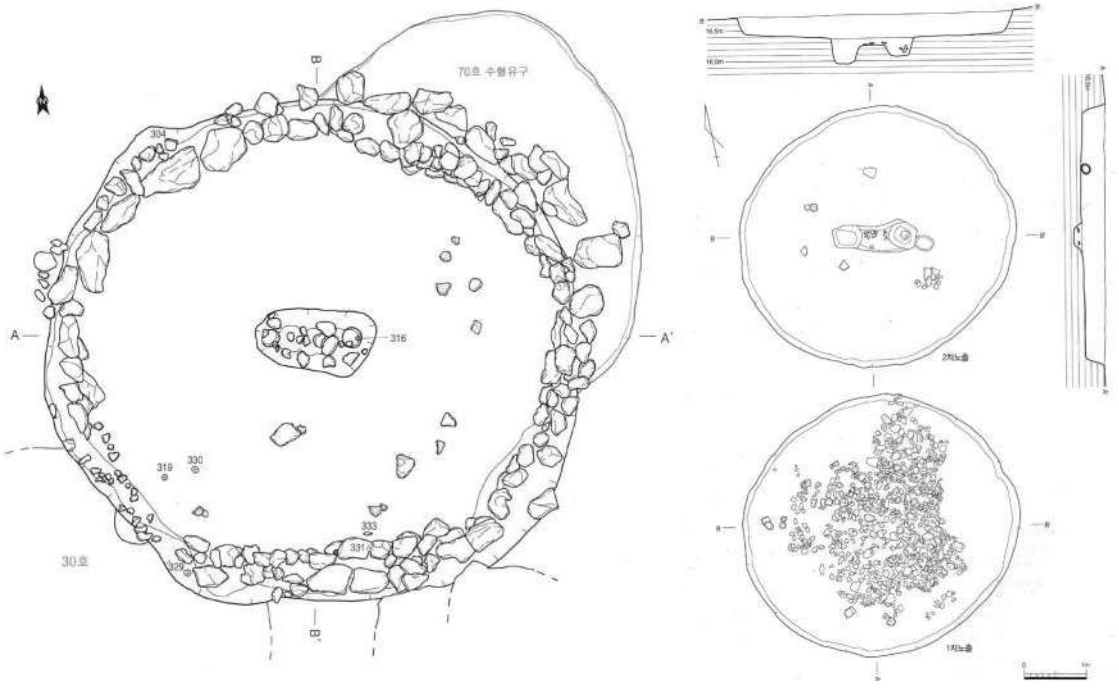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적어도 기원전 3세기에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수도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송국리문화가 제주도에서는 늦은 시기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송국리문화집단의 생계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시적인 물부족으로 수도작이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송국리문화는 집약화된 벼농사와는 거리가 먼 다른 형태의 생업경제를 영위하였을 것이며 석기에 있어 석도 · 석촉이 소멸하는데 반해 고석 · 요석 · 연석의 출현빈도와 수량이 급증하는 것은 각각 벼농사 및 수렵의 위축과 동시에 견과류 같은 식물성 자원의 활발한 이용과 관련된다(김민구 · 권경숙, 2010, 19쪽).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취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취락은 삼양동유적과 화순리유적을 들 수 있다. 삼양동유적은 55기, 화순리유적은 131기로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용담동 10기, 외도동 7기로 소규모 취락이다.

취락의례와 관련된 흔적은 삼양동과 화순리유적에서 조사된 상당수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지만, 이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경우는 없다. 축조와 관련된 의례는 삼양동 5호주거지(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타원형구덩이 내에서 2점의 토기가 정치와 도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면에서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물이 타원형구덩이에 쓸려들어갔다고 보기는 힘들며 의도적으로

유물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남지역 송국리식주거지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 축조 내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폐기의례와 관련하여 주거지내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거나 잡석과 함께 토기편이 다량 출토된 주거지들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삼양동, 화순리, 강정동, 용담2동, 화순리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화순리 Ⅱ구역에서 조사된 65기의 주거지에서 폐기와 관련된 흔적들이 확인된다. 삼양동 1호주거지(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의 경우 보고자는 가마로 추정하고 있지만, 주거지 폐기와 관련된 의례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강정동 Ⅱ구역 1호 주거지와 용담2동 2704-15번지 2호 주거지서도 다량의 잡석과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되었다. 이들 주거지는 모두 주거지의 폐기와 관련된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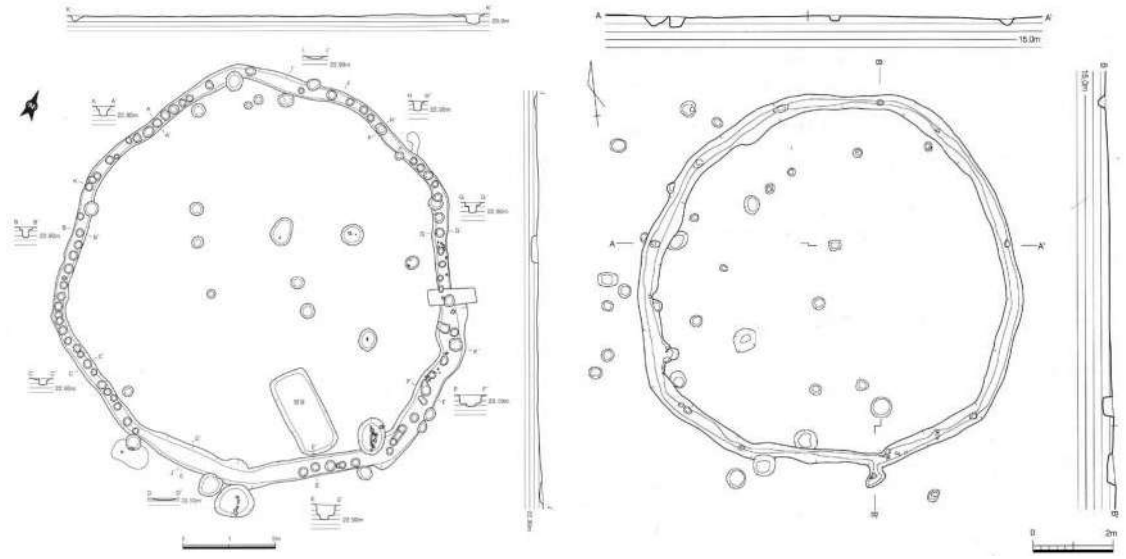


| 그림 5. 화순리 Ⅱ구역 31호 주거지 및 하귀1리 15호 주거지 |

화순리유적의 경우 인위적인 폐기행위가 전체 137기의 주거지 가운데 65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폐기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형은 천석과 자연석을 매몰시킨 행위, 2형은 토기 및 잡석을 매몰시킨 행위, 3형은 다른 용도의 유구로 재활용되면서 주거지를 폐기하는 행위, 4형은 토기편을 깨뜨려 내부의 일정한 공간에 폐기하는 의례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65기 가운데 1형이 39기로 가장 많고, 2형이 24기이며 3형과 4형은 각각 1기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에 적석 또는 적석과 토기를 혼재하여 매몰시킨 후 폐기하는 방법이 65동 가운데 63동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리유적에서 주거지 내부에 적석을 매몰한 행위는 단지 주거지를 폐기하기 위한 의례적 목적만이 아니라 주변에 노출된 암반과 자갈돌을 매몰시킴으로써 후축할 주거지의 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주변경관

을 정리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990-995쪽).

특수목적의 주거지와 건물지는 화순리, 삼양동, 하귀1리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특수주거지의 경우 화순리 Ⅱ구역에서 조사된 31호 주거지로 벽가 가장자리를 따라 30㎝ 내외의 자연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3~4단을 쌓았으며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떨어져 단독으로 축조되었으며 주거지의 규모와 축조방법에서 다른 주거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특수목적의 주거지로 추정하고 있다.



| 그림 6. 삼양동 2호 굴립주건물지 및 하귀1리 6호 원형건물지 |

삼양동 주민센터부지에서 조사된 2호 굴립주건물지와 하귀 1리유적 Ⅱ구역 4호 · 5호 · 10호 원형건물지가 해당된다. 삼양동 2호 건물지는 약간 각이진 원형환구와 구 내부에 촘촘하게 주혈이 배치된 특이한 구조이며 남쪽부분에는 주혈이 굴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입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자는 내부에 건물을 올릴 정도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상부가 개방된 형태의 시설로 보아 동물의 사육과 관련된 시설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건물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거지와 수혈이 위치하고 있고, 구 내부에서 공렬토기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물지는 공공의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성격상 의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하귀 1리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물지들이 확인되는데 환구가 없이 원형으로 주혈이 굴착된 형태와 원형의 환구형태로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이러한 건물지를 일상적인 거주공간이 아닌 공공건물지의 성격으로 추정하고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이런 형태의 건물지는 일반적인 굴립주건물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로 주로 제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기가 조사되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물론 동물사육을 위한 시설도 배제할 수 없지만, 주거군내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유구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건물인 것은 틀림없다.

다음으로 의례유구는 삼화지구 가 Ⅰ유적(국립제주박물관, 2010)에서 조사된 156호 수혈이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13m, 너비 12m로 중앙부로 가면서 완만한 경사로 굴광되어 있다. 내부에는 수혈이 폐기된 후 현무암 할석층이 매립되고 그 위에 다량의 무문토기가 일시적으로 폐기되었다. 보고자는 인위적인 폐기행위로 특별한 행위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할석을 매립하고 토기편을 파쇄한 것으로 보아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2. 지석묘 축조의례와 특수의례

제주도 지석묘에 대한 조사는 용담동 지석묘, 외도동 1호 지석묘, 곽지리 3호 지석묘 등 3기를 제외하면 정식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1995년까지 제주도 지석묘는 100기가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군집된 양상도 5기 이상 분포하고 있는 유적은 한천변의 용담동 · 오라동, 외도천변의 외도동 · 광령리, 대정읍 동일리 지석묘 정도이다(이청규, 1995, 261쪽). 제주도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이청규에 의해 외형상의 형태, 특히 지석의 고임상태와 매장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6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하에 매장부를 두고 괴석형지석에 바둑판식 상석을 가진 2형식에 속하는 지석묘가 가장 많고, 판석형 지석 10매 이상을 고인 6형식이 가장 발전된 지석묘이며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형으로 제주도식 지석묘로 분류하였다(이청규, 1995, 264-278쪽).

제주도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한반도와는 이질적인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주거지는 남해안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송국리식주거지에 지석묘는 남해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다(박경민, 2012, 86-87쪽). 군집 또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대규모의 군집은 확인되지 않으며 각 지석묘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축조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시기 또한 남해안과는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남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에 세형동검집단과의 갈등과 위계화가 확대되면서 의도적인 목적으로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고 제주도까지 지석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청규, 1995, 275쪽).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장송의례(葬送儀禮)는 '죽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 중 하나로서 무덤축조와 함께 진행되며 가장 극대화된 행위를 보이게 된다. 즉, 인간의 죽음이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죽음은 그가 속한 집단의 사회구조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회적 의미가 있으며, 상례(喪禮)라는 의례를 통해 변화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죽은 사람이 남긴 틈을 상징적으로 메운다. 주검을 생자(生者)의 세계에서 사후세계로 떠나보내는 의식인 장송의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윤호필, 2013, 8쪽). 그러나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예를 제외하면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의례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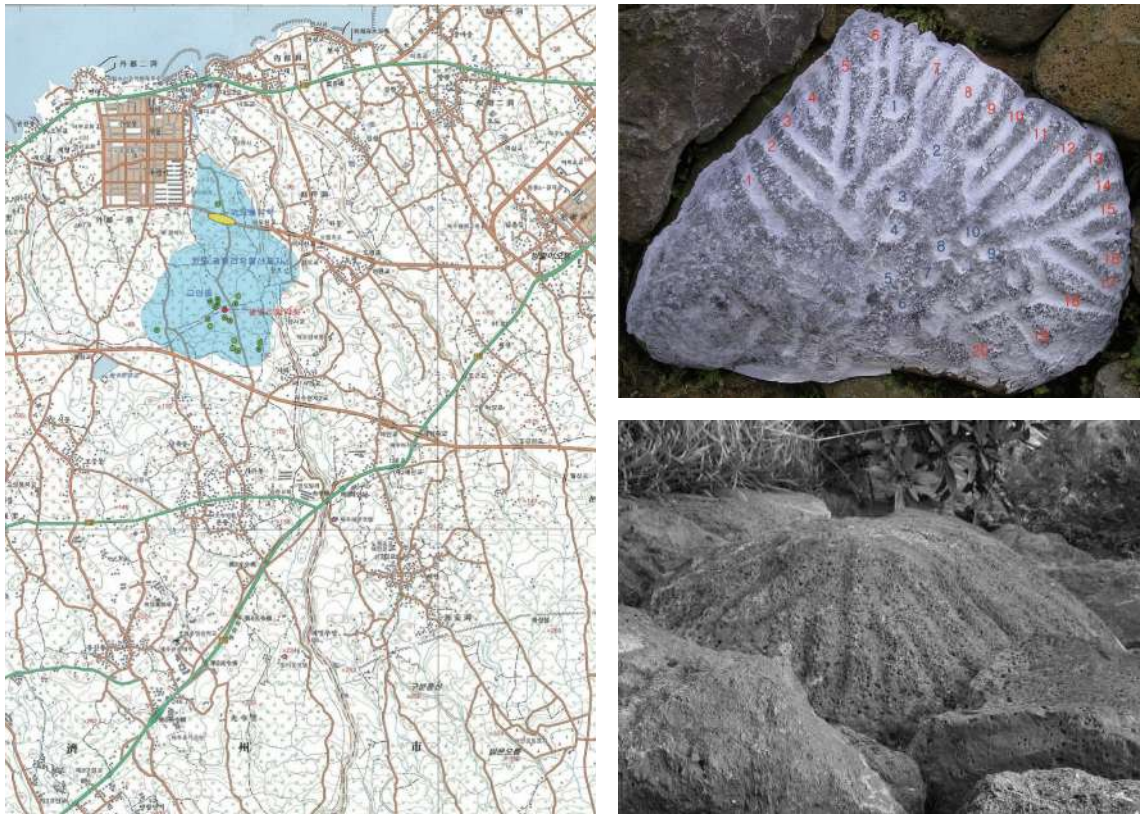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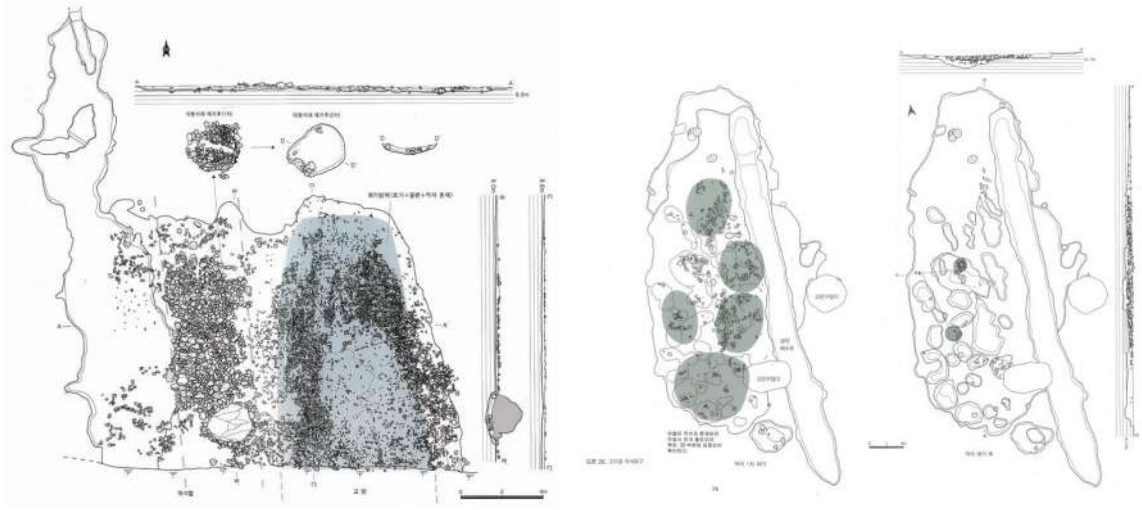
그림 7.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 및 주변유적 분포현황(김종찬, 2012년 원도)

다만 제주도는 민속 · 무속의 고장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신화와 전설, 민간신앙이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에(김종찬, 2012, 160쪽)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의례는 지석묘에 나타나는 성혈과 암각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외도 · 광령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군과 광령리 암각화이다.

광령리 암각화는 외도 · 광령리지석묘군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과 주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평탄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광령리 암각화는 2기에서 확인되는데 암각면은 중앙부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입체적으로 보이며 10여개의 원형문과 20여개의 선문이 결합된 형태로 중앙 하단에 원형문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주변에는 방사상 형태로 선문을 새겼다. 암각화의 시기는 기원후 200년을 전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덤 공간에 지석묘와 함께 축조하여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 다산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기원의 대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종찬, 2012, 165-180쪽).

외도 · 광령리지석묘군 이외에도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의례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특수의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삼화지구, 화순리, 하귀1리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적석유구로 분류되었다. 삼화지구에서 확인된 적석유구는 취락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을 조망하기에 좋은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다량의 잡석과 토기편이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고 있으며 3지점 적석유구의 중앙부에 배치된 주혈은 다른 주혈에 비해 규모가 크고 가장자리를 석재를 이용하여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석유구 중앙부에 솟대를 세우고 그 주변으로 장타원형으로 적석과 토기편으로 이루어진 돌무지 형태의 신성한 공간의 유구로 보고 있으며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다른 수혈에 비해 호형토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일반 생활유구 보다는 특수한 유구로 보고 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184쪽). 솟대는『삼국지』「위서동이전 한조」에 기록되어 있는 소도에 세운 입대목으로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입대목 제의로 보고 있다. 입대목 제의는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적 의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입대목은 진안 여의곡과 김해 율하유적에서 확인되었다(이종철, 2014, 110-112쪽).



| 그림 8. 화순리 Ⅰ구역 적석유구 및 삼화지구 2지점 적석유구 |

화순리에서 조사된 적석유구는 주거군과 구분되어 주거군의 남동쪽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고 약하게 굴착한 후 내부에 다량의 잡석과 토기편이 파쇄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잡석과 토기편이 혼재되어 출토된 예는 전주 동산동과 진주 평거동, 부천 고강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유구는 모두 의례와 관련된 의례유구로 볼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조사된 수혈과 적석시설 또한 같은 성격의 유구로 볼 수 있다.

하귀 1리에서 조사된 유구는 적석소토유구로 분류하였으며 다량의 할석과 토기편 동물뼈 등이 출토되었는데 점토를 2㎝내외로 바닥면에 바르고 불을 피워 소결한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취락의 남서쪽에 주거군과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소토와 동물뼈 토기편 등이 파쇄된 상태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의례와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로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제주도는 한반도 남해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외부와 고립되어 있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신화와 전설, 민간신앙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지만, 한반도와는 지형과 지질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생계경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청동기시대 한반도에서 일반화된 벼농사의 경우 제주도는 토양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생계경제를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확인된다.

특히 제주도는 대부분의 하천이 乾川으로 飮用水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취락은 자연스럽게 飮用水를 구하기 쉬운 용천수가 집중되어 있는 해안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반도와 유사한 문화상도 확인되지만, 한편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양상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반도 남부지역과 동일하지만, 지석묘의 경우 제주도 만의 독특한 제주도식 지석묘가 확인되고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청동기시대 취락의례는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 확인되는 의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취락내에서 다양한 의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발굴조사와 기 조사된 보고서 검토를 통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주도 청동기시대 취락의례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립광주박물관, 1994, 『突山 世救地遺蹟』.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0, 『특별전 청동기시대 마을 풍경』.

국립진주박물관, 2002, 『청동기시대의 大坪 · 大坪人』.

김경주, 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김경주, 2010,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靑銅器學報』.

김규정, 2014, 「湖南地域 靑銅器時代 聚落儀禮」,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김동숙,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제사」, 『제6기 고고학시민강좌』 복천박물관.

김민구 · 권경숙, 2010,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 『湖南考古學報』36, 湖南考古學會.

김종찬, 2012,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에 대한 일고찰」, 『濟州島硏究』37, 濟州學會.

동진숙, 2006, 「古代 祭祀遺構와 遺物」, 『선사 · 고대의 제사 풍요와 안녕의 기원』, 복천박물관.

마한문화연구원, 2009, 『용담2동 2704-15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朴京敏, 2012, 『濟州島 無文土器文化의 流入과 展開』,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박정근, 2000, 「한국의 암각화 연구 성과와 문제점」, 『先史와 古代』15, 韓國古代學會.

신주원, 2010, 「나주 운곡동 유적의 세선화 검토」, 『한국 암각화연구』14, 한국암각화학회.

梁慧珍, 2009, 『靑銅器時代 松菊里文化 聚落의 廢棄 樣相 硏究 -錦江流域을 中心으로-』,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윤호필, 2014,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분묘의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湖南考古學會.

李健茂, 2003, 『韓國式 銅劍文化의 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상길, 1996, 「패형암각의 의미와 그 성격」, 『한국의 암각화』한국역사민속학회, 한길사.

李相吉,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硏究』, 大邱曉星카톨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李相吉, 2001, 「埋葬과 儀禮에 관한 새로운 試圖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 충남대학교박물관.

李宗哲, 2014b, 「韓國 祭祀遺蹟 事例 -靑銅器時代 農耕聚落을 中心으로-」, 『稻作農耕社會의 祭祀와 儀禮 韓 · 中 · 日 比較』, 2014, 光州 新昌洞遺蹟 國際學術 심포지엄Ⅳ, 국립광주박물관.

李淸圭, 1995, 『濟州道 考古學 硏究』學硏文化社.

이청규, 2009, 「제주도 상고사회의 한반도와의 해상교류」,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全南大學校博物館, 1992, 『麗水 五林洞 支石墓』.

全南文化財硏究院, 2006, 『康津 虎山遺蹟 Ⅰ』.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全州 東山洞 靑銅器時代 聚落』.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유적 (2136-9번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유적 Ⅵ지구(1665-1번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濟州 和順里遺蹟』.

趙現鐘, 2014, 「祭祀考古學 -선사 · 고대의 祭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湖南文化財硏究院, 2010, 『濟州 下貴1里遺蹟』(Ⅱ區域).

부록

5. 용담동 무덤유적[古墳]의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

여 백

용담동 무덤유적[古墳]의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

- 지정 번호 | 기념물 제40호/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30일 / 시대 | 탐라시대(기원후 3세기초)
- 소 재 지 | 제주시 용담2동 741-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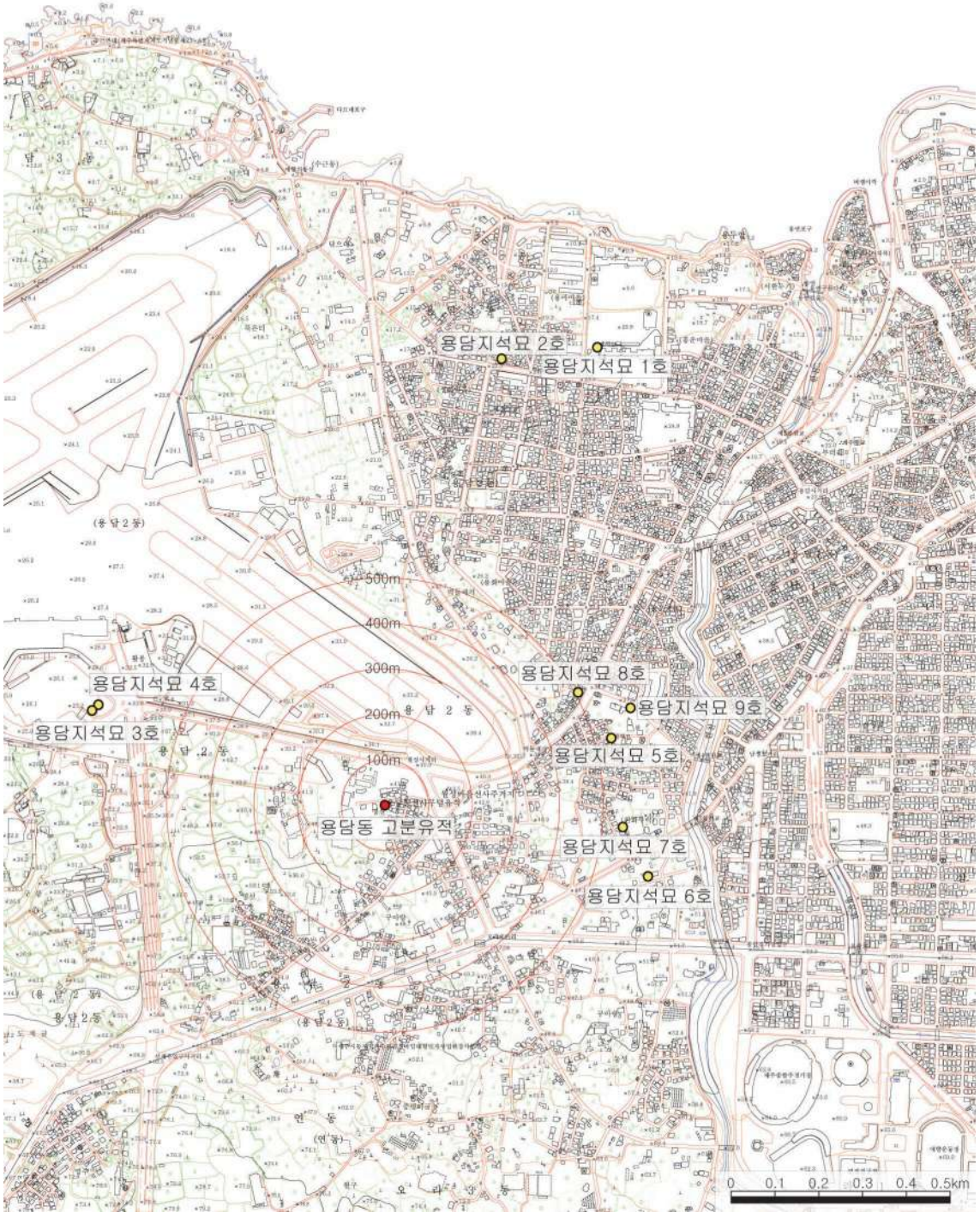
1. 용담동 선사무덤유적[古墳]의 성격과 중요성

용담동 선사무덤유적은 주택공사 현장에서 합구식 독무덤 1기가 발견됨으로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면적은 20×20m, 발굴층의 깊이는 70㎝이다. 문화층은 두 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묘역은 한 가운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석렬을 경계로 두 묘역으로 나뉘어졌다.

남쪽 묘역에는 타원형 석곽묘 3기, 북쪽 묘역에서는 7기의 독무덤과 1기의 장방형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남쪽 묘역의 석곽묘 중 가장 큰 것은 장축이 동서방향으로 길이 260㎝, 폭 140㎝, 깊이 50㎝이다. 중앙 바닥면에 시신을 안치하고 적석을 한 다음 그 위를 6개의 판석으로 덮었다. 뚜껑돌 자체가 석곽을 완전히 덮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작은 석곽묘 2기는 앞서의 석곽묘 서쪽으로 잇대어 축조되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석곽의 암석 틈과 바닥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종류는 직립구연토기, 구멍무늬토기, 골아가리토기, 흑갈색 또는 흑색의 간토기이다. 북쪽 묘역은 광범위한 적석군을 이루고 있었다. 적갈색토기 독무덤은 일정한 원칙없이 산재되었고, 석곽묘 1기는 다소 동쪽에 치우쳐 있었다. 옹관은 모두 작은 할석으로 돌려 있으면서 두 개의 크고 작은 적갈색토기 항아리가 맞물린 합구식, 한 개의 항아리를 비스듬히 또는 수직으로 묻은 단옹식이다. 석곽묘는 길이 230㎝, 폭 80㎝의 세장한 장방형으로 장축은 동서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피장자의 침향은 장검 · 단검의 칼끝이 서쪽을 향해 있어 동침한 것으로 보인다. 무덤내부와 주변에서 장검과 촉 등의 각종 철제무기와 유리구슬이 확인되었다. 철제무기는 석곽묘 내부뿐만 아니라 독무덤 주변 적석 틈에서도 나왔다.

축조연대는 묘역 가운데 석렬을 경계로 시기를 달리한다. 남쪽 묘역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제주도 구멍무늬토기 말기단계로 상모리식토기와 동일하다. 북쪽묘역에서 독무덤으로 사용한 토기는 탐라전기 초엽 적갈색항아리형토기, 즉 곽지리식토기의 속성과 같다. 철기는 주조철기가 대부분이며 한식철기계통이다. 특히 부산 노포동유적과 김해 양동리유적 발굴자료에 따르면 용담동 무덤유적 출토 소용돌이 문양장식철검(紋樣裝飾鐵劍)과 삼각형 만입편평철촉(灣入扁平鐵鏃)은 기원후 2세기 중반 이후로 잡고 있다.

용담동무덤 묘역은 탐라소국으로 가는 세력집단의 통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곽지리식토기 사용집단이 선대의 구멍무늬토기 집단 묘역과 경계 석렬을 두어 이장移葬 조영함으로써 선대



| 그림 1. 도기념물 제40호 용담동 고분[무덤]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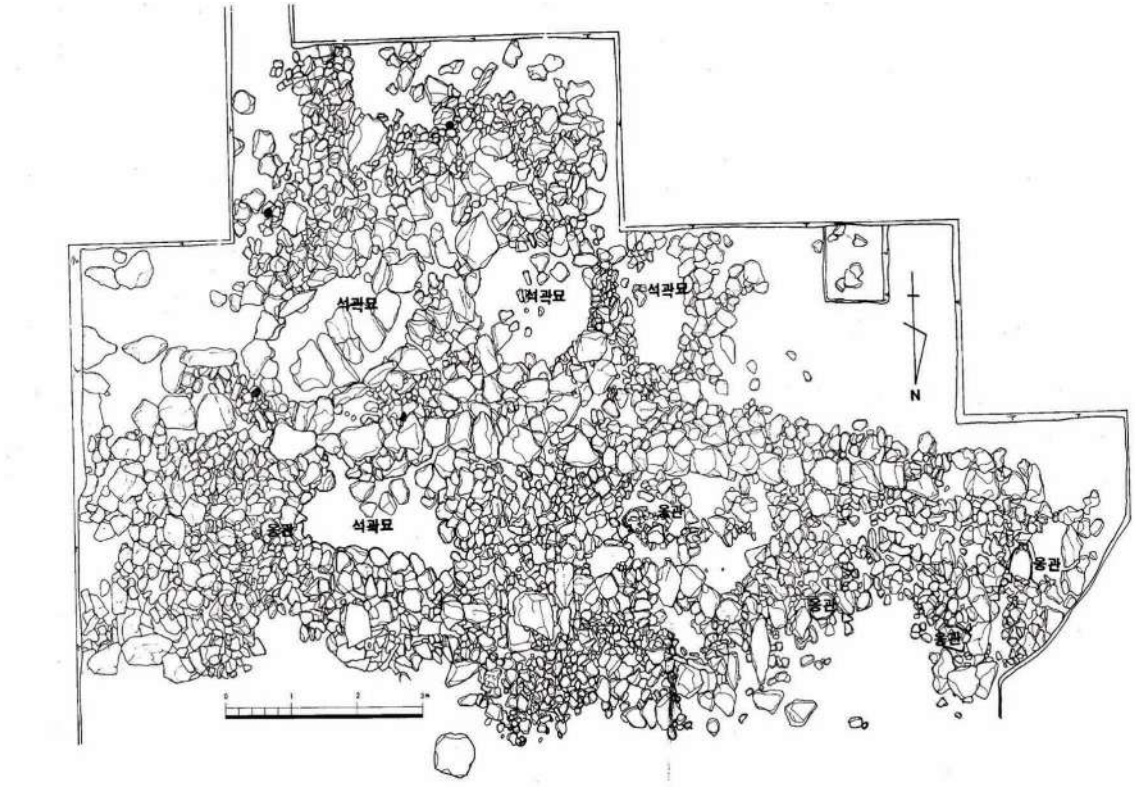


| 그림 2. 도기념물 제40호 용담동 고분[무덤] 위치 및 주변 지적도 |

의 토착집단을 계승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용담동 묘제와 삼양동의 마지막 시기의 상황을 고려하고 최근 조사된 외도동 유적의 발굴결과를 보면, 용담동 목관묘 피장자는 전쟁이나 갈등의 정리과정에서 등장한 기원 2~3세기대 국읍의 수장일 가능성이 크다. 토기집단으로 보면 송국리문화의 계보를 계승한 외래의 삼양동식토기 집단과 새롭게 등장한 철제무기 소유의 곽지리식토기 사용집단의 갈등과 통합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선대말기 공렬토기집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곽지리식토기집단으로 계승되었고 삼양동식토기 사용집단은 그들 세력에 의해 밀려나간 상황을 용담동 묘역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 그림 3. 제주시 용담동 고분(무덤) 묘곽 배치 및 부장 유물 출토 상황 |



| 그림 4. 제주시 용담동 고분(무덤) 묘곽 배치 및 부장 유물 출토 상황 |



그림 5. 제주시 용담동 고분(무덤) 발굴지 전경, 발굴 그리드와 유구 노출 상태, 남쪽묘역 석곽묘 1호 노출상태



그림 5. 제주시 용담동 고분(무덤) 발굴지 전경, 발굴 그리드와 유구 노출 상태, 남쪽묘역 석곽묘 1호 노출상태

참고문헌

①제주도 유적(濟州島 遺跡)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②제주의 선사유적 1986, 제주대학교박물관. ③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 1998, 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④제주의 문화재–증보판– 1998, 제주도. ⑤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⑥ 제주 용담동고분(龍潭洞古墳), 1990, 제주대학교박물관. ⑦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200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⑧이청규, 1995, 『濟州島 考古學硏究』, 學硏文化社. ⑨강창화, 2003, 「耽羅 以前의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개발연구원.

2. 용담동 선사무덤유적[古墳]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

1) 현황과 실태

현재 용담동고분은 '용담동 선사무덤유적'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0호, 1990년 5월 30일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유적은 1984년 구제 발굴조사로 진행되어 현재의 발굴조사 수준에서 재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유적이다.

2015년 10월 현재 이 유적 주변의 토지현황도를 보면 민가, 렌트카 회사, 식당, 주유소, 도로 등이 에워싸고 있고 일부분에 한해 농경지[田]로 남아 있다〈표 1 참조〉.

2)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

먼저 1984년에 조사된 발굴조사 구역에서 남쪽으로 연장하여 제주시 용담2동 741-1번지 전체 면적(2,339m²) 에 대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불가피하다. 시굴조사는 15일 정도가 소요되며 조사비는 15,200,000원으로 산출된다. 시굴조사 후 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일수는 60일 정도이고 조사비는 262,400,000원으로 산출된다.

발굴조사 후 '용담동고분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의거하여 용담동유적의 보존, 재정비, 기본실시 설계계획 등의 사업계획이 순차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문화재 지정 명칭인 '용담동 선사무덤유적'을 '제주 용담동고분'으로 개칭(改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명 개칭 사유는 ①용담동고분의 조영시기가 기원후 2~3세기이기 때문에 선사시대가 아닌 철기시대[원삼국시대]라는 점, ②선사무덤 자체가 유적(遺蹟)이어서 중복된다는 점, ③최근 문화재명 지정 추세는 지역명+ 세부지역명+표준한자명이어서 제주+용담동+고분[古墳]을 연결한 '제주 용담동고분'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 도면 7. 제주시 용담2동 741번지(2,339m²) 용담동 고분{무덤} 세부 지적도 |

| 표 1.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0호 용담동 고분[무덤] 주변 구역 토지 현황도(반경 200m) |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1–1전	밭	약 103평(약 34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1전	밭	약 707평(약 2,33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8대	대지	약 78평(약 25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3대	대지	약 92평(약 30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9대	대지	약 88평(약 29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2대	대지	약 94평(약 31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7대	대지	약 77평(약 25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대	대지	약 59평(약 19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5대	대지	약 86평(약 28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6대	대지	약 98평(약 32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9전	밭	약 899평(약 2,97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17도	도로	약 20평(약 6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1도	도로	약 14평(약 4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3도	도로	약 2평(약 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3도	도로	약 51평(약 16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3대	대지	약 98평(약 323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8–3도	도로	약 69평(약 22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7차	주차장	약 9평(약 3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1도	도로	약 10평(약 3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0대	대지	약 74평(약 24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9대	대지	약 11평(약 3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2도	도로	약 29평(약 9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15도	도로	약 79평(약 26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6차	주차장	약 930평(약 3,07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6–1도	도로	약 142평(약 47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14도	도로	약 32평(약 10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50–7도	도로	약 41평(약 1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1도	도로	약 79평(약 26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5도	도로	약 72평(약 2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6대	대지	약 76평(약 25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8–1전	밭	약 157평(약 51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51–51잡	잡종지	약 227평(약 75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1도	도로	약 206평(약 68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1대	대지	약 89평(약 29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8–2전	밭	약 160평(약 52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23대	대지	약 219평(약 72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차	주차장	약 612평(약 2,02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19도	도로	약 33평(약 11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50–2대	대지	약 85평(약 28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7대	대지	약 96평(약 31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0전	밭	약 170평(약 56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26전	밭	약 11평(약 3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6도	도로	약 208평(약 68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8대	대지	약 95평(약 31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9전	밭	약 24평(약 8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0–4도	도로	약 34평(약 11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5도	도로	약 89평(약 29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5–2전	밭	약 6평(약 2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대	대지	약 77평(약 25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0대	대지	약 72평(약 2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6–4도	도로	약 2평(약 6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4대	대지	약 99평(약 32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0도	도로	약 401평(약 1,32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24전	밭	약 163평(약 54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3차	주차장	약 360평(약 1,18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0-2전	밭	약 150평(약 49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25전	밭	약 36평(약 11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4도	도로	약 27평(약 8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4대	대지	약 43평(약 14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3대	대지	약 73평(약 24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8-4대	대지	약 101평(약 33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8-5전	밭	약 27평(약 9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22전	밭	약 161평(약 53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7전	밭	약 189평(약 62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2도	도로	약 6평(약 1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2전	밭	약 18평(약 5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9대	대지	약 80평(약 26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3대	대지	약 104평(약 34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1대	대지	약 75평(약 2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8전	밭	약 160평(약 52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5대	대지	약 932평(약 3,08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20도	도로	약 85평(약 28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6-2도	도로	약 19평(약 6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2대	대지	약 86평(약 28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5전	밭	약 2평(약 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0-3대	대지	약 151평(약 50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52도	도로	약 34평(약 11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50-3도	도로	약 1평(약 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5-1도	도로	약 5평(약 1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6-7잡	잡종지	약 8평(약 2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50-1도	도로	약 207평(약 68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50-12도	도로	약 157평(약 52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9도	도로	약 53평(약 17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5대	대지	약 83평(약 27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7-2창	창고용지	약 190평(약 63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5도	도로	약 69평(약 230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대	대지	약 198평(약 65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4-2대	대지	약 64평(약 21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0대	대지	약 83평(약 27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8전	밭	약 89평(약 29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4대	대지	약 93평(약 30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3대	대지	약 71평(약 23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13전	밭	약 15평(약 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60묘	묘지	약 21평(약 6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23전	밭	약 1,308평(약 4,32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대	대지	약 105평(약 34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8도	도로	약 9평(약 2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10대	대지	약 108평(약 35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0대	대지	약 82평(약 27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8-1도	도로	약 4평(약 1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6대	대지	약 39평(약 12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6도	도로	약 38평(약 12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5전	밭	약 25평(약 8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6대	대지	약 85평(약 28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63전	밭	약 624평(약 2,06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1전	밭	약 119평(약 39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23-1전	밭	약 1,916평(약 6,33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6도	도로	약 32평(약 10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4-2도	도로	약 15평(약 4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7대	대지	약 74평(약 24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8도	도로	약 11평(약 3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1대	대지	약 54평(약 17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2도	도로	약 29평(약 9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7대	대지	약 109평(약 35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2전	밭	약 89평(약 29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전	밭	약 121평(약 40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6전	밭	약 31평(약 10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2대	대지	약 76평(약 25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도	도로	약 1,007평(약 3,33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9도	도로	약 9평(약 3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6도	도로	약 63평(약 209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9도	도로	약 11평(약 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3대	대지	약 29평(약 9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3도	도로	약 35평(약 11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6도	도로	약 4평(약 1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8대	대지	약 20평(약 6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8도	도로	약 15평(약 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8대	대지	약 17평(약 5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1대	대지	약 97평(약 32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1대	대지	약 82평(약 27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2대	대지	약 84평(약 27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6대	대지	약 64평(약 21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0대	대지	약 106평(약 3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4대	대지	약 129평(약 42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3전	밭	약 328평(약 1,08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0대	대지	약 44평(약 14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0도	도로	약 17평(약 5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4도	도로	약 233평(약 77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1-4도	도로	약 5평(약 1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1대	대지	약 3평(약 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4대	대지	약 34평(약 11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5도	도로	약 142평(약 47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3도	도로	약 37평(약 12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5대	대지	약 36평(약 11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4도	도로	약 34평(약 11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9대	대지	약 83평(약 27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5전	밭	약 813평(약 2,68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5전	밭	약 84평(약 27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4대	대지	약 77평(약 25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9대	대지	약 87평(약 28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4대	대지	약 268평(약 88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3도	도로	약 227평(약 75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0전	밭	약 41평(약 1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2대	대지	약 83평(약 27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6대	대지	약 76평(약 25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7대	대지	약 41평(약 138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1대	대지	약 87평(약 28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4대	대지	약 89평(약 29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5대	대지	약 77평(약 25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7대	대지	약 57평(약 18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5도	도로	약 56평(약 18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3차	주차장	약 71평(약 23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9–8대	대지	약 13평(약 4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8잡	잡종지	약 305평(약 1,01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7대	대지	약 48평(약 15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4전	밭	약 8평(약 2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1–2도	도로	약 1평(약 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4대	대지	약 132평(약 4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1전	밭	약 926평(약 3,06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7대	대지	약 98평(약 32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30도	도로	약 16평(약 5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6대	대지	약 69평(약 22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0대	대지	약 91평(약 30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대	대지	약 106평(약 35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7전	밭	약 48평(약 15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8대	대지	약 59평(약 19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11대	대지	약 90평(약 29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0대	대지	약 136평(약 45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4–1도	도로	약 7평(약 2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6대	대지	약 157평(약 51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59–1전	밭	약 1,716평(약 5,67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3대	대지	약 56평(약 18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3전	밭	약 198평(약 65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3도	도로	약 151평(약 50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67–3잡	잡종지	약 1,297평(약 4,28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22대	대지	약 126평(약 41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6대	대지	약 87평(약 28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8도	도로	약 1평(약 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1–1차	주차장	약 380평(약 1,25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7도	도로	약 29평(약 9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0전	밭	약 528평(약 1,744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5대	대지	약 51평(약 17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9대	대지	약 74평(약 24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3대	대지	약 11평(약 3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8전	밭	약 499평(약 1,6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7전	밭	약 26평(약 8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12전	밭	약 16평(약 5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51도	도로	약 30평(약 10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4도	도로	약 22평(약 7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50도	도로	약 2평(약 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14대	대지	약 82평(약 27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9-1도	도로	약 229평(약 75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4대	대지	약 101평(약 33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1대	대지	약 89평(약 29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7대	대지	약 50평(약 16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1대	대지	약 58평(약 19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11대	대지	약 98평(약 32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9도	도로	약 24평(약 7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8전	밭	약 96평(약 31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5도	도로	약 31평(약 10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3대	대지	약 84평(약 27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대	대지	약 149평(약 49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6대	대지	약 78평(약 25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7도	도로	약 5평(약 1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4대	대지	약 89평(약 29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4도	도로	약 71평(약 23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4대	대지	약 102평(약 3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8전	밭	약 36평(약 12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3대	대지	약 68평(약 22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10대	대지	약 293평(약 97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8대	대지	약 2평(약 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11전	밭	약 103평(약 34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31도	도로	약 25평(약 8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65창	창고용지	약 105평(약 34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도	도로	약 197평(약 65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2대	대지	약 48평(약 159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도	도로	약 274평(약 90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7대	대지	약 83평(약 27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5대	대지	약 79평(약 26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11대	대지	약 87평(약 28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4도	도로	약 342평(약 1,13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4–3대	대지	약 55평(약 18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5대	대지	약 89평(약 29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2전	밭	약 111평(약 36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3대	대지	약 79평(약 26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12대	대지	약 140평(약 46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5전	밭	약 155평(약 51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6도	도로	약 188평(약 62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2도	도로	약 110평(약 36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1대	대지	약 280평(약 92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1대	대지	약 116평(약 38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6도	도로	약 76평(약 2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4–1대	대지	약 39평(약 13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3대	대지	약 38평(약 12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7도	도로	약 17평(약 5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2대	대지	약 64평(약 21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61전	밭	약 928평(약 3,06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62묘	묘지	약 21평(약 7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9도	도로	약 36평(약 12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46대	대지	약 51평(약 16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대	대지	약 123평(약 40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8대	대지	약 51평(약 17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1대	대지	약 79평(약 26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22대	대지	약 98평(약 32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5대	대지	약 18평(약 6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4대	대지	약 103평(약 34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2대	대지	약 113평(약 37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20도	도로	약 132평(약 4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8도	도로	약 173평(약 57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7–1도	도로	약 109평(약 36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9대	대지	약 89평(약 294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5대	대지	약 1평(약 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4도	도로	약 54평(약 17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2대	대지	약 119평(약 394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11도	도로	약 114평(약 37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6-8대	대지	약 18평(약 6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1대	대지	약 85평(약 28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7대	대지	약 100평(약 33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19도	도로	약 56평(약 18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6-5도	도로	약 16평(약 5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3대	대지	약 94평(약 31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7도	도로	약 32평(약 10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9대	대지	약 87평(약 28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8도	도로	약 21평(약 7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34대	대지	약 117평(약 38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4도	도로	약 232평(약 76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8대	대지	약 51평(약 16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7도	도로	약 3평(약 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92전	밭	약 646평(약 2,1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9대	대지	약 88평(약 29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대	대지	약 87평(약 28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687-10대	대지	약 111평(약 36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7-10대	대지	약 96평(약 31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19대	대지	약 81평(약 26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3전	밭	약 20평(약 6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44-15전	밭	약 5평(약 1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5-2대	대지	약 369평(약 1,22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6대	대지	약 81평(약 26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37대	대지	약 7평(약 2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9-27대	대지	약 72평(약 23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39차	주차장	약 1,064평(약 3,51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5대	대지	약 111평(약 369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52-18대	대지	약 106평(약 35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3-17대	대지	약 84평(약 280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64전	밭	약 20평(약 65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28대	대지	약 1평(약 4m²)

주소	지목	면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602–3대	대지	약 134평(약 44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46–4도	도로	약 17평(약 57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4주	주유소용지	약 226평(약 74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35–18도	도로	약 13평(약 43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700–1대	대지	약 73평(약 242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602–4도	도로	약 40평(약 131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52–22도	도로	약 65평(약 216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52–17대	대지	약 99평(약 328m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이동 2752–33대	대지	약 8평(약 28m²)

| 〈표 2〉 제주 용담동 고분 시굴조사 원가계산서 |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주 용담동 고분 시굴조사					15,200,000	
1. 직접인건비					2,348,561	0.47%
1) 현장조사 조사요원					1,901,869	
– 조사단장	인	일	0.8	303,472	242,777	
조사단장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303,472	–	
– 책임조사원	인	일	1.7	234,032	397,854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234,032	–	
– 조사원	인	일	3.5	204,983	717,440	
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204,983	–	
– 준조사원	인	일	2.3	139,400	320,620	
준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139,400	–	
– 보조원	인	일	2	111,589	223,178	
보조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111,589	–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446,692	
– 조사단장	인	일	0.2	303,472	60,694	
조사단장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303,472	–	
– 책임조사원	인	일	0.5	234,032	117,016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234,032	–	
– 조사원	인	일	0.7	204,983	143,488	
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204,983	–	
– 준조사원	인	일	0.5	139,400	69,700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준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139,400	–	
– 보조원	인	일	0.5	111,589	55,794	
보조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111,589	–	
2. 직접경비					7,800,530	1.56%
1) 여 비		식	1	220,000	220,000	실비정산
2) 현장운영비		식	1	4,100,530	4,100,530	"
3) 조사재료비		식	1	300,000	300,000	"
4) 회의비		식	1	680,000	680,000	"
5) 위탁비		식	1	2,000,000	2,000,000	"
6) 유물정리비		식	1	–	–	"
7)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인부임		식	1	–	–	"
8) 보고서간행비		식	1	500,000	500,000	"
소 계					**10,149,091**	**2.03%**
3. 제경비	1.직접인건비의 105%	식	1		2,465,989	0.49%
4. 학술료	(1.직.인+3.제경비) 25%	식	1		1,203,637	0.24%
공급가액	1.직.인+2.직.경 +3.제경비+4.학술료				13,818,717	2.76%
5.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1,381,871	0.28%
총용역비				≒	**15,200,000**	**천원이하 절사**

〈표 3〉 제주 용담동 고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주 용담동 고분 발굴조사					262,400,000	
1. 직접인건비					52,909,480	10.58%
1) 현장조사 조사요원					27,071,345	
– 조사단장	인	일	4.5	303,472	1,365,624	
조사단장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0	303,472	–	
– 책임조사원	인	일	10.4	234,032	2,433,932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2	234,032	468,064	
– 조사원	인	일	45.9	204,983	9,408,719	
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9	204,983	1,844,847	
– 준조사원	인	일	47.6	139,400	6,635,440	

공 종	규 격	단 위	수량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준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9	139,400	1,254,600	
– 보조원	인	일	27.8	111,589	3,102,174	
보조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5	111,589	557,945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25,838,135	
– 조사단장	인	일	3.1	303,472	940,763	
조사단장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0	303,472	–	
– 책임조사원	인	일	13.5	234,032	3,159,432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2	234,032	468,064	
– 조사원	인	일	45.9	204,983	9,408,719	
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9	204,983	1,844,847	
– 준조사원	인	일	42.8	139,400	5,966,320	
준조사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8	139,400	1,115,200	
– 보조원	인	일	22.3	111,589	2,488,434	
보조원 주휴수당	인건비의 20%	일	4	111,589	446,356	
2. 직접경비					103,016,687	20.60%
1) 여 비		식	1	2,736,000	2,736,000	실비정산
2) 현장운영비		식	1	62,969,587	62,969,587	"
3) 조사재료비		식	1	300,000	300,000	"
4) 회의비		식	1	1,700,000	1,700,000	"
5) 위탁비		식	1	4,000,000	4,000,000	"
6) 유물정리비		식	1	2,000,000	2,000,000	"
7)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인부임		식	1	23,811,100	23,811,100	"
8) 보고서간행비		식	1	5,500,000	5,500,000	"
소 계					**155,926,167**	**31.19%**
3. 제경비	1.직접인건비의 105%	식	1		55,554,954	11.11%
4. 학술료	(1.직.인+3.제경비) 25%	식	1		27,116,108	5.42%
공급가액	1.직.인+2.직.경 +3.제경비+4.학술료				238,597,229	47.72%
5.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23,859,722	4.77%
총용역비				≒	**262,400,000**	**천원이하 절사**

부록

6. 지석묘 정비 및 보수 정비 계획의 일례(一例)

여 백

지석묘 정비 및 보수 정비 계획의 일례(一例)

1. 정비의 기본구상

고인돌은 넓은 대지에 평면적으로 넓게 펼쳐진 유적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인돌은 야외전시관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비의 표현 방법으로는 유구 노출전시에 의해 구조나 단면을 알기 쉽도록 정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경관에 있어서 인위적인 전신주나 통신탑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선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대의 사회상, 문화상, 종교상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비가 되도록 한다.

2. 정비 시 보존의 관점

고인돌은 기본적으로 옥외에 노출된 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고인돌 주변의 수목 제거와 석재의 정기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석재의 열화 및 풍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 · 관리수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지석묘군의 주변 지역은 대상 유적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유적의 보전 방향 및 목표에 관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법을 나타내야 한다. 유적의 주변부에 적절한 차폐식재를 설치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과 미래적인 대응방법 등의 양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유지 관리

정비가 완료된 유적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중에 검토해온 유지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실시한다. 특히, 유적정비의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일상적 점검, 경상적 점검, 임시적 점검 등이 필요하다. 청소, 제초 및 편의시설 등의 시설 보수, 유지 관리

조치가 취해지며 점검과 경과 관찰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5. 보수 · 정비 계획(이전, 복원 예시)

예비조사	예비조사, 넘버링 등 기본 계획 작성
지석묘 해체	유구배치도 참조하여 축조의 역순으로 해체
복원부지 조성	복토작업, 평탄화작업, 다짐작업 순으로 진행
지석묘 이동	상석, 하부구조 발굴지에서 복원장소로 이동
하부구조 복원	묘광 굴착
	지석묘 복원
상석 복원	지석묘 원래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
	크레인, 포크레인 장비 사용
지석묘 세척	상석 표면의 초본류, 지의류 등 제거
안내판 설치	구역안내판, 개별안내판 설치
환경 정비	잔디 식재 및 주변정비

5-1. 하부구조 해체

지석묘 하부구조 해체는 예비조사, 넘버링, 각 유구별 해체 순으로 한다. 해체 시에는 유구 배치도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하고 축조과정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 그림 1. 석재 넘버링 1 |



| 그림 2. 석재 넘버링 2 |

5-2. 복원부지 조성

복원(이전)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지반을 조성한다. 지반조성은 복토작업과 평탄화작업, 다짐작업을 한다.



| 그림 3. 복원부지 성토 작업 |



| 그림 4. 복원부지 정리 작업 |

5-3. 지석묘 석재 운반

상석과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석재는 발굴현장에서 복원부지로 운반한다. 상석과 하부구조 석재의 운반은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중장비를 이용한다.



| 그림 5. 상석 크레인 고정 |



| 그림 6. 상서 크레인 운반 |

5-4. 하부구조 복원

발굴당시 사진과 도면, 해체시 촬영한 사진과 도면자료를 기초로 묘광굴착, 하부구조 복원, 지석묘 복원, 마무리작업 순으로 진행한다. 석재의 고정은 강도와 색의 조화를 고려하여 석회(石灰)와 황토를 같은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 그림 7. 고인돌 하부 그리드 작업 |



| 그림 8. 고인돌 하부 레벨 확인 |



| 그림 9. 고인돌 하부 구조 복원 1 |



| 그림 10. 고인돌 하부 구조 복원 2 |

5-5. 상석 복원

상석은 하부구조 및 지석 등의 복원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크레인,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원한다. 상석은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하부구조 상면에 안치하고 본래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방위각을 맞춘다.



| 그림 11. 고인돌 상석 복원 1 |



| 그림 12. 고인돌 상석 복원 2 |

5-6. 지석묘 세척

초본류나 지의류를 대나무 칼, 메스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다. 또한 상석의 표면에 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솔과 부드러운 붓으로 처리한다.



| 그림 13. 초본류 |



| 그림 14. 고인돌 하부 석재 세척 |

6. 기타

6-1. 안내판 설치

이전 · 복원한 지석묘는 학술적 성격과 중요성 및 조사 내용을 문화재 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그림 15. 고인돌 개별 안내판 |



| 그림 16. 고인돌 유적 안내판 |

6-2. 잔디 식재

이전 복원을 완료한 후에 주변에 잔토를 정리하고 잔디를 식재한다.



| 그림 17. 잔디 식재 |



| 그림 18. 잔디 다짐 |

6-3. 보호책 설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의 목재 또는 철제의 보호책을 설치한다.

부록

7. 지석묘 체크 리스트

※ 문화재청, 「2008 세계유산모니터링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체크 리스트 참조

여 백

지석묘 개별 체크리스트

문화재명		도면	
지역구분			
조사단위			

구분		평가 (1:양호, 5불량)					모니터링	
		1	2	3	4	5	모니터링 항목	위치 및 관찰 내용
현황	일반현황						도괴	
	구조물 안정성 요소 (상석, 지석, 석실 등)						매몰	
							침식	
							파손	
							유실	
							추가	
							도굴/도난	
							기타	

종합평가		평가 (1:양호, 5불량)					
		1	2	3	4	5	
	보존관리 상태						
	차후 점검 사항						

사 진	현상 및 조사자 의견

모니터	

여 백

지석묘 보존과학 개별 체크리스트

문화재명		도면	
지역구분			
문화재 지정현황			

구분	평가 (1:양호, 5불량)					모니터링	
	1	2	3	4	5	모니터링 항목	위치 및 관찰 내용
일반현황						박리/박락	
						균열	
						부식/충해	
보존과학적 요소						결로	
						이끼/조류	
						표면오염	
						기타	

종합평가		평가 (1:양호, 5불량)					
		1	2	3	4	5	
	보존 관리 상태						
	차후 점검 사항						

사 진	현상 및 조사자 의견

모니터	

여 백

지석묘 경관 및 주변환경 개별 체크리스트

문화재명		도면	
지역구분			
조사단위			

구분		평가 (1:양호, 5불량)					모니터링	
		1	2	3	4	5	잠재력 및 문제점	관리 방안
경관	주변 부대 건물							
	동선 및 바닥 포장							
	조경 및 편의 시설							
	진입 경관							
	외부 조망							
	토지 이용 및 동선							
	도시 계획 및 개발 계획							
주변환경	지 형							
	지 질							
	식 생							
	민 묘							
	경 작							
	조 명							
	개발밀도 및 공해/소음							
기타	문화재 보호구역							
	기타 보호구역 및 지구							
	완충구역							

사 진	현상 및 조사자 의견

종합평가	보존 관리 상태	평가 (1:양호, 5불량)					
		1	2	3	4	5	
	차후 점검 사항						
모니터							

여 백

부록

8. 자문의견서

제주도 지석묘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1차 자문회의(착수보고회 | 2015. 04. 26)

○ 이영문(목포대학교 교수)
-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금번 과업을 잘 수행한다면 좋은 보고서가 될 것이다.
- 정비계획 후 지속적인 추진(관리, 보존, 정비)이 필요하다.
- 가장 잘 알려진 지석묘 즉 제주도의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 현재 보존 상태 지적(철책, 안내판 등) : 철책은 경관을 해치고 있어 다른 보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안내판은 동일한 내용만 쓰고 있는데 각 지석묘에 맞게 지명, 설화, 전설 등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토지 매입 후 지석묘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하다.(학술적 성과와 홍보를 위해서)
- 옛 사진 등을 통해 주변 경관의 변화를 인지하고 시각적 자료의 연혁 작업이 필요하다.

○ 김성명(국립제주박물관 관장)
-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 차후 정비계획을 단긴,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지석묘 소재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진행되어야한다.
- 그리고 학술 조사를 통하여 제주도 지석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유구, 유물)를 찾아야한다.
- 현재 보호책은 경관을 해치고 있어 대체되어야한다.

○ 김철주(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 지석묘 개개만을 위한 정비만이 아니라 주변마을(취락)과 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지석묘 주변 유적 및 산포지 형성을 확인해야하는 광범위한 작업이다.
- 지석묘를 정비, 보존, 관리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에 지정을 고려한다.
- 비지정 지석묘의 경우 문화재청의 조사 지원을 받고 조사 후 문화재 지정을 검토 또는 권고 해야할 것이다.
- 활용 방안의 현실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마을 주민을 활용해야 한다.
- 사례조사는 답사 유적의 장, 단점을 보고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야한다.
- 입지, 경관 계획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 문헌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양종렬(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관)
- 제주시에 국한되어 아쉬움이 있다.
- 조사용역 기간이 짧으며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고고학 이외의 건축학, 풍수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문화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석묘다다 스토리텔링 작업이 있었야한다.
- 마을 주변에 있는 안내판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차 보고회)	일시	2015. 04. 28 (화요일)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의견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1차 자문 의견입니다.

1. 지석묘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비 계획 차원의 접근은 너무 광범위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계획된 과업이 잘 수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석묘 및 여타 유적 정비 계획 추진에 있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리라고 본다.

2. 현재 지석묘 보존 대책은 방치된 상태이며, 일부 훼손 등을 지석묘 경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지석묘 형태(외방 계곡식 고인돌)를 보여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음.

4. 지석묘 관련 기존 자료의 집대성과 함몰조사를 통해 지석묘의 관리되지 않고, 신고, 지명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5. 정비 계획과 함께 최적 지속적인 관리, 보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비계획시 지석묘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석묘 축조와 관련된 집터(주거지)나 또 다른 부장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04. 28

자문위원 이영문 (인)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차 보고회)	일시	2015. 04. 28 (화요일)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의견

1. 고인돌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계획의 기획적을 이해할 수 있음.
2.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주지역 고인돌에 대한 성격(축조시기, 편년, 하부구조와 매장주체부 등)이 학술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 종합계획서에는 제주지역 고인돌 성격규명을 위한 '고인돌 연차발굴조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4. 향후 학술조사와 고인돌훼손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고인돌이 분포하는 사유지 매입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5.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인돌보호안내판'의 대부분이 오히려 문화유산의 경관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되어야 함.

2015. 04. 28

자문위원 김○○ (인)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차 보고회)	일시	2015. 04. 28 (화요일)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의견

-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기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를 전수조사 개념으로 파악하여 보존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사업임.
- 다. 사업비. 기간이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석묘의 조사에 있어서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사후 정비에 있어서 Remodeling에 따른 다양한 복원의 활용가능한 예시가 있으므로 이는 적극 활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석묘의 군락에 있어서 단위 지석묘 조사는 물론 입지·주변환경 등이 유기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음.

2015. 04. 28

자문위원 고재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차 보고회)	일시	2015. 04. 28 (화요일)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의견

1. 유인물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주시 지역으로 한정하되 너무 많은 분야는 조사계획에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지역과 함께 조사함으로써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석묘 성격을 파악하는데 좋았을 것인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2. 지석묘의 기능이 우리나라 그 양적의 량을 대략적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곳. 구릉이 있는 곳 등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혹 풍수적으로도 한번 조사 하여 고인돌이 주로 쓰는 역할과 비교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3. 1년이란 짧은 기간이 아쉽지만 좋은 성과 바랍니다.

2015. 04. 28

자문위원 양 종 철

제주도 지석묘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2차 자문회의(중간보고회 | 2015. 08. 27)

○ 최성락 / 목포대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1. 제주시내 지석묘의 현황 및 실태조사는 비교적 충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석묘 보존 및 정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비사업은 지석묘를 몇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4. 지석묘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하고 또 학술조사도 필요함.

○ 이청규 / 영남대교수

1. 학술적 가치와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존, 관리, 활용의 등급 혹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계획수립.
2. 지정문화재로서 적극적으로 옥내 보존, 전시, 호라용 할 대상으로 용담동 월성부락 석관묘, 옹관묘 유적을 Ⅰ유형으로 하여 계획 수립.
3. 사적지 지정문화재로서 야외유적공원으로 조성할 대상으로 용담동 지석묘군을 Ⅱ유형으로 하여 정비 · 조성 계획을 수립.
4. 기념물 지정 지석묘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고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령리 지석묘군 등을 대상으로 Ⅲ유형으로 하여 일정 공간범위를 확보하여 정비 · 조성 계획을 수립.
5. 이전 혹은 파괴된 지석묘에 대해서는 Ⅳ유형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이주 · 군집 · 조사시켜 정비 · 조성 계획을 수립.
6. 그 밖에 입지가 특이하거나 구조 · 암각화 등을 고려하여 각 지석묘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

○ 이영문 교수 / 목포대교수

1. 제주지석묘의 특징 또는 판별 기준에 대해서 유형화 시킬 필요가 있음.
   예) – 자연석의 면을 가진 지석묘(덮개돌, 상석의 상면)
   – 전체 지석묘의 측면이 수직 또는 사면으로 인위적으로 떼어낸 흔적
   – 상석 하면이 아치형을 이룬 것들의 특징을 보임.
   – 성혈이 있다고 해석 모두 지석묘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히
2. 지석묘의 정비 · 복원 문제
   예) – 용담동 지석묘 해체, 발구르 복원에 대한 검토 요망
   – 제주도의 대표적이면서 상징적 지석묘이나 일부 석실 벽석이 유실되어 있고 벽석덮개돌과 잘 맞물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
   – 조사할 경우 석실 벽석의 배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출입시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석실 벽석이 안 기울림된 상태는 원래 상태일 수 있음. 지상의 벽석이 안기울림된 것은 탁자식에서 많이 나타남.
3. 지석묘 사이의 거리 확인 – 인접 지석묘 간의 거리나 밀집 분포된 지석묘군 간의 거리는 집단간의 경계, 영역 구역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상 석실의 경우 화장 관련하여 많은 견해가 있음.

○ 김성명 / 국립제주박물관장

1. 제주시 고인돌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고인돌 보존현황과 실태조사는 양호하게 진행되었음.
2. 다만, 현실적으로 향후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고인돌의 입지 지점과 그 주변지역의 토지소유현황(예: 토지주, 토지매입가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함.
3. 장기 지속적인 고인돌 보조능ㄹ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소 방안이 제시 되어야함.
4. 현 고인돌의 인제책 범위가 협소하므로 보호구역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함.
5. 발굴조사 대상 고인돌의 우선순위가 제시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김철주 / 문화재청 전문위원

1. 제주시의 고인돌 실태를 조사한 것은 적절함.
2. 이에 따라 고인돌의 시대별 · 지역별 · 형식별 · 지정별 구분하여 등급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실태조사 내용에는 고인돌의 상태, 범위, 특징, 안내판, 보호책, 도심/들판 등의 상세 현상이 나타날 필요가 있음.
4. 또한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체의 고인돌이 조사되고 전체를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5. 최종 보고회에서는 현황을 기초로 보존 · 관리가 제도권에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2차 보고회)	일시	2015. 08. 27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1. 제주시내 지석묘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비교적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로 사료됨.
2. 지석묘 보호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것임.
3. 정비사업은 몇가지 ~~관~~으로 분류하여 각각 지석묘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지석묘 중에서 결실한 부분은 복원해서 지정하여야 하고, 또 복원로서도 검토함.

2015. 08. 27

자문위원 [illegible] (인)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2차 보고회)	일시	2015. 08. 27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① 학술적가치 및 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 활용의 등급 등을 유형별로 분류 할 수 있도록 제시 요망

② 지정문화재로서 국가등으로 보호, 관리 활용할 대상으로 용담동 멸성부락 위치를 I유형으로 하여 제시 수정 요망

③ 지정문화재로서 사유지 아닌 유지등으로 관리할 대상으로 용담동 지석묘 등 II유형으로 하여 정비, 관리 제시 수정 요망

④ 기념물지정 지석묘 아닌 학술적가치가 높은 보존상태 유지하고 있는 일정지석묘 등을 대상으로 III유형으로 하여 일정범위는 확보하여 정비, 관리 제시 수정 요망

⑤ 이건 축을 벗어난 지석묘에 대해서는 IV유형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이주, 관리시켜 정비, 관리 제시 수정 요망.

⑥ 해안변 등에 있지만 훼손이 심하거나 주변 방앗간 등을 고려하여 지석묘에 대한 대책을 수립 요망

2015. 08. 27

자문위원 이 상 기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2차 보고회)	일시	2015. 08. 27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1. 제주 지석묘의 특징 또는 한반도에 미치며 유적화시킬 필요가 있음.

(예) ◦ 자연석의 면을 가진 지석묘 (덮개돌 상하화상형)
- 전체 지석묘의 크기에 상석 및 세부를 고려하여 매우 중요
- 상석 하면의 마제흔을 비롯 것 들의 특징을 부각.
- 상석이 없다 해서 모든 지석묘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2. 지석묘의 정비 복원 문제

(예) 유존도 지석묘 해체, 보존, 복원에 대한 검토 필요
- 제주도의 대표적이면서 상징적 지석묘이나 일부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백성의 덮개돌과 굄 받침에서 많은 것이 문제점
- 조사과 깊은 지석묘 백성의 배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출입시설 부분을 포함할 수 없다고 생각됨.
- 대부분 백성이 안개울림된 상태는 원래 상태일 수 있음. 지상의 백성이 안개울림된 것은 확고성에서 많이 나타남

3. 지석묘 사이의 거리 확인

일반 지석묘간의 거리나 묘실 보호된 지역별로의 거리는 조사할 필요. 여력 주변 일 수 있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상 석실의 경우 화장실로의 활용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015. 08. 27

자문위원 [illegible]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2차 보고회)	일시	2015. 08. 27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1. 제주시 고인돌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고인돌 보존현황과 실태조사는 양호하게 진행되었음.

2. 다만, 현실적으로 향후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고인돌의 입지 지점과 그 주변지역의 토지소유현황 (예, 토지주, 토지매입가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3. 장기지속적인 고인돌 보존을 문화재지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현 고인돌의 인제학 범위가 협소하므로 보존구역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5. ~~육안~~ 발굴조사 대상 고인돌의 유적 훼손이 최대한 배제되는 것으로 사료됨.

2015. 08. 27

자문위원 김 성범 그(원)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2차 보고회)	일시	2015. 08. 27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 제주시의 마을 신화를 고사리 것 적절함.

○ ○○에서나 ○인동의 시대별, 지역별, 종류별, 지형별 구분하여, 돌을 고려한 조사요망.

○ 신화적사 내용에는 ○인동의 상세, 형태, 특징, 이름, 변화, 다산/출산 등의 상세 현황이 나타날 필요가 있음.

○ 향후 제주지역이 아니라 제주자료로 전체의 ○인동이 고사되고 전체를 놓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종 보고에서는 현황을 기초로 발전, 나아가 관광자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2015. 08. 27

자문위원 고 창수

제주도 지석묘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3차 자문회의(최종보고회 | 2015. 10. 22)

최성락(목포대학교 교수)

-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제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 지석묘의 현장조사를 통해 멸실여부, 정확한 위치, 보존실태,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지석묘의 실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요한 지석묘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하고, 나머지 지석묘도 이에 준하는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지석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그밖에 부수적인 연구들은 모두 부록으로 이동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영문(목포대학교 교수)

- 기본계획용역의 틀에 맞추어 보고서 편집 요망.
  기초조사(실태조사, 측량조사, 실측조사)에 대해 각 지석묘 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지석묘별 특징과 현황을 통해 앞으로 정비계획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유수나 개발에 따른 훼손과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조사와 함께 정비 · 복원되어야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지석묘를 선정해야 함.

위의 사항을 토대로 지석묘의 정비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함. 연차적인 기본계획에는 제주 고인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연구보고서는 제주 지석묘 정비복원의 참고자료로 삼아야함.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제주 지석묘 정비 보수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부록은 제주 지석묘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석묘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김성명(국립제주박물관장)

- 보고서의 목차와 체재 조정 필요.
  Ⅰ · Ⅱ항은 현행 유지, Ⅲ · Ⅳ · Ⅴ항 연구현황 · 연구사 · 특징을 묶어 조정, Ⅵ · Ⅶ · Ⅷ항은 실태조사 항으로 묶고 문제점과 조사단의 견해를 추가, Ⅸ · Ⅹ Ⅺ 항은 활용 방안 항으로 묶고 내용정리, Ⅺ Ⅰ · Ⅹ Ⅲ 항은 정비계획항으로 묶고 내용 정리.
- 정비복원 목적의 보고서이므로 향후 현실적인 해결방안 즉 토지매입 또는 토지임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문제로 제시된 고인돌 명칭과 지정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행정기관과 협의된 개선방안 제시.

– 특히, 현 보존실태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보존구역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음.

김철주(문화재청)

– 본 건에 있어 실태조사(제주시 고인돌 현황)가 충실히 된 것은 의미가 큼.
–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함이 있어 각 "장"의 비슷한 항목을 묶어 간단한 목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고인돌 보존,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제주자치도 전체의 고인돌 실태분석이 된다면 의미가 클 것임.

양종렬(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관)

– 고인돌 또는 지석묘 명칭을 통일하였으면함.
– 현재 보고서는 학술조압보고서 형식으로 너무 방대한 작업을 함.
  이를 유적 종합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보고서 형식을 취하였으면 함.
– 관광 프로그램에서 지석묘 공원을 조성하는데 권역별로 어떻게 묶는 것이 관광객들의 관람로 등을 고려해야한다.
  이에 발맞춰 안내 설명판도 그 지역의 지석묘에 대한 특성을 써준다.
– 인문 지리학 환경적 요소를 정광중 교수가 썼다. 덧 붙혀서 지석묘가 조성된 지역의 특징 및 특성을 구분하여 보았으면한다.
– 지석묘의 특징 중 분류(형식)에서 상석의 아치형을 더하여 보았으면 함 : 상석의 형태가 제주도에는 특이한 것이 많음.
– 지석묘의 암각화와 성혈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 필요함.
– 지석묘 조성시 상석의 제작과 제주도 연자방아의 제작 형태에 관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 차후에 조사 요망.
– 짧은 기간에 용역을 마무리하였다. 좀 더 조사기간이 풍부하여 알찬 종합정비 기본서가 되기를 빕니다.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 보고회)	일시	2015. 10. 22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1.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제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2. 지석묘의 현장조사를 통해 멸실여부, 정확한 위치, 보존실태,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각 지석묘의 실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요한 지석묘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하고, 나머지 지석묘도 이에 준하는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지석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그밖에 부수적인 연구들은 모두 부록으로 이동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015. 10. 22.

자문위원 **최 성 락** *盛洛*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 보고회)	일시	2015. 10. 22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1. 기본 계획 용역의 틀에 맞추어 보고서 완성 요망

- 기초조사 (상태조사, 총괄조사, 심층조사)에 대해 각 지석묘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각 지석묘별 특징과 현황을 통해 앞으로 정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유실나 개발에 따른 훼손과 도리 위험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조사되 함께 정비 복원되어야 하며, 이는 조치적으로 정비해야 할 지석묘를 선정해야 함.
- 위의 사항을 토대로 지석묘의 정비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차적인 기본 계획에는 제주 고인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진행되어야 함.

2. 연구보고서는 제주 지석묘 정비 복원의 참고자료로 삼아야 함.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제주 지석묘 정비 보수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붙임은 제주 지석묘와 관련된 내용들 지석묘를 이해하는데 보조자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계획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2015. 10. 22

자문위원 이 영훈 (인)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 보고회)	일시	2015. 10. 22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 보고서의 목차와 체재 조정 필요.
  Ⅰ·Ⅱ항은 현행유지, Ⅲ·Ⅳ·Ⅴ항 연구현황·연혁·특징을 묶어 조정, Ⅵ·Ⅶ·Ⅷ항은 실태조사 항으로 묶고 문제점과 조사자의 견해를 추가. Ⅸ·Ⅹ·Ⅺ항은 활용방안 항으로 묶고 내용정리, Ⅻ·ⅩⅢ항은 정비계획항으로 묶고 내용정리.
- 지정된 목적의 보전이므로 향후 훼손을 가져오는 즉 토지매입 등 토지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문제로 제기된 오인출입과 지정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행정기관과 협의된 개선방안 제시.
- 특히, 현 보존실태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보존관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음.

2015. 10. 22

자문위원 김 성 범 (인)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 보고회)	일시	2015. 10. 22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 본 건에 있어 사전대사(제주시 관내 현황)가 충실히 되었음 이해가 됨.

○ 이에따라 실제 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있어 각 "장"의 보완사항 항목은 있어 구체적인 현황을 제공한 것이라 생각됨

○ 고인돌 보존, 관리 등에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장"을 구성한 점이라 생각됨.

○ 향후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제주 지역 전체의 고인돌 실태 보존이 되었다면 이미가 클것임.

2015. 10. 22

자문위원 고 창 석 (인)

자문의견서

건명	제주시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 보고회)	일시	2015. 10. 22 (목요일)	장소	제주시청 제5별관 소회의실

의견

- 고인돌 또는 지석묘 명칭을 통일하였으면 함.
- 현재 보고서는 학술종합보고서 형식으로 너무 방대한 감이 있음.
  - 이를 유적 종합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보고서 형식을 취하였으면 함.
- 관광자원으로서 지석묘 훼손을 조성하는데 전역별로 어떻게 둘러보는것이 관광객들의 관람로 등을 고려 해야한다.
  - 이에 발맞춰 안내 설명판도 그 지역의 지석묘에 대한 특성을 써야한다.
- 인문지리학 환경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써야 → 덧붙여서 지석묘가 조성된 지역의 특징및 특성을 구분하여 보완하면 한다.
- 지석묘의 특징 중 분류(형식)에서 상석의 아치형을 뚫어 하여 보완하면 함. : 상석의 형태가 제주에는 특이한것이 없음.
- 지석묘의 융기화와 성혈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 필요함.
- 지석묘 조성시 상석의 재질과 제작을 연구방안의 제작 형태에 고려한 ~~점~~ 인과관계가 있는 지 : 차후에 조사필요
- 짧은 기간에 용역을 마무리 하였다. 좀더 조사기간이 길었다면 알찬 종합정비 기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 10. 22

자문위원 양 종 철

제주시 支石墓 고인돌 Dolmen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2015년 10월 20일 인쇄

2015년 10월 30일 발행

편집 · 발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 구 기 관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硏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690-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3길 1 (일도2동) 3층

TEL. (064)711-9996 FAX. (064)712-9984

인 쇄 **디자인 · 제작** 디자인이야기 (TEL. 064-753-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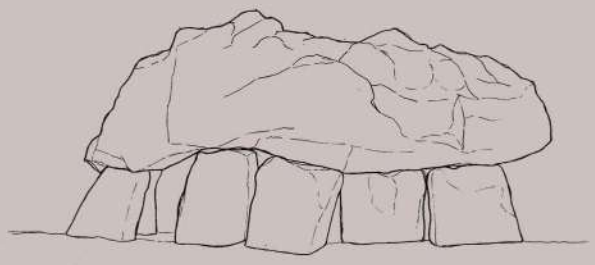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9-6510000-000060-0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Comprehensive Maintenance Master Plan for Dolmens in Jeju City

제주시 支石墓 고인돌 Dolmen 지석묘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5. 10. 30.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硏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